

야고보 알베리오네

알베리오네 전집
OPERA OMNIA

성바오로딸들에게

야고보 알베리오네

이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사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더욱 나아지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도록 하십시오.
1티모 4,15 참조

성바오로 딸들에게

묵상과 강의

강화와 통합의 해

1955년

성바오로딸수도회

국제 영성 사무국 위임:

아데오다타 데호M. Adeodata Deho 수녀, 엘리사베타 카펠로Elisabetta Capello 수녀, 모니카 바비에라Monica Baviera 수녀, 마리아 그라치아 가벨리Maria Grazia Gabelli 수녀

그래픽 디자인: 세르지아 발리니Sergia Ballini, fsp 수녀

로마의 문서보관소 자매들과 여러 관구의 협력에 대해
그리고 성바오로수도회 바오로 영성 센터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작품 표기: FSP 55

© Figlie di San Paolo, Casa Generalizia, 2010

Via San Giovanni Eudes, 25 - 00163 Roma

Usò manoscritto

소개 글 PRESENTAZIONE

이 책은 “성바오로딸들에게” 시리즈에서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오페라 오니아’의 새로운 발간 작업을 우리 손으로 일구어낸 작품들 가운데 하나로서, 1955년에 행한 창립자의 강론을 모은 것이다. “천상 스승을 알고 본받으며 기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봉헌된 한 해 동안 이탈리아와 해외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행하신 묵상과 강의, 말씀들의 모음집이다. 그 해는 “영혼을 하느님 안에 결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관상하며 살기로 한 해였다.

당신 생애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속하는 이 기간에 창립자께서는 아주 깊은 영적 양성과 전문적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셨으며,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셨다. “수도회는 한층 더 바오로적인 영혼을 지녀야 합니다. 지성에 있어서 바올리나여야 하고, 감성에 있어서 바올리나여야 하며, 의지에 있어서도 바올리나여야 합니다. 이것이 수도회의 가장 큰 부요, 이러한 영혼이야말로 사도적 마음을 지닌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사명에 대해 큰 열정으로 힘주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도록 선택하셨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성 바오로께서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조건에 따라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도록 여러분을 뽑으셨습

니다. 여러분의 조건에 따라서, 그러나 여러분의 조건은 교회 안에서 향상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글을 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출판물을 하고, 보급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올리나는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잘 알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며,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목상한 다음 종이에 새기고, 인쇄기를 통해 대량화하고, 프로파간다 수단을 통해 세상에 보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시는 마리아의 사명과 유사한 직무입니다. 동정녀의 직무이기에 정결한 만큼 더 효과적입니다. 사랑의 직무이기에 여러분이 마음에 사랑을 품고 있는 만큼 사도직에 있어서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주 고된 직무이기에 영혼에 열정이 있는 만큼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경계가 없는 직무이기에 세상이라는 경계만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도직은 발전과 쇄신을 필요로 한다. 보급은 최대의 에너지를 요청한다. 특히 복음 축제, 복음 주간, 마리아의 날, 교리 주간을 통하여 하느님 말씀의 보급을 위하여 이른바 “집중 선교propaganda collettiva”를 중요하게 여긴다.

창립자의 말씀은 수도회의 영성과 같은 노선에서 딸들을 자극하여 ‘바오로적인’ 통합적 편집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준다.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전체, 곧 지성 의지 마음을 복음화해야 합니다.”

그분은 동양을 여행하는 동안 아시아의 여러 민족과 접촉을 통하여, 복음선포를 위해 지역 문화를 활용해야 할 시급성을 깨달으셨다. “동양에 성소자가 급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생각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강론대, 정기간행물, 서적, 건전한 영화 필

름과 매체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특히 가톨릭 라디오 방송, 가톨릭 텔레비전 방송이 급증하기를 기도합니다.”

1955년에는 바오로 가족의 본질을 심화함으로써 “네 개의 바오로 수도회가 성 바오로 안에서 친족관계에 있다.”는 확신이 더해졌으며, “가족은 하나요, 서로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창립 100주년을 향한 수도회와 바오로 가족의 여정을 크게 비추어주며 참된 ‘재탄생’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것은 초창기 자매들과 초창기 형제들이 미래에 관해 전혀 볼 수 없었지만 믿었던 신앙의 기원에 토대를 둔 내용이기 때문이다.

새롭고도 소중한 유산을 우리 손에 선사해준 국제 영성 사무국 자매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창립자께서 강조하신 삶의 일치를 살기 위하여 이 선물에서 모든 것을 길어낼 수 있기를 열망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느끼시고, 소통하시고 …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되풀이하시면서 대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하신 창립자의 말씀을 되새겨본다.

로마, 2010년 1월 25일

총원장, 마리아 안토니에타 브루스카토 수녀

차 례

소개 글	5
약어표	13

입문

I. 알베리오네 신부의 강론 : 1955년	15
II. 본 출판본	21
III. 일러두기	29

1955년 1-12월 강론

1. 천상 스승을 알고, 본받고, 기도할 것	35
2. 스승이신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	42
3. 중개자요 은총의 분배자이신 마리아	49
4. 마에스트로 자카르도 7주기	56
5. 수도복 착복	60
6. 성 바오로의 회심	63
7. 기도(월피정)	71
8. 우리의 사명-서원 사도직	87
9. 단체선교(I)	95
10. 단체선교(II)	104
11. 악마의 자루	112
12. 성 요셉 축일	117

13. 성 수요일(성체조배)	123
14. 주님 만찬 성 목요일	133
15. 주님 수난 성 금요일	138
16. 주님 부활 대축일	142
17. 우리의 성화	147
18. 수련기: 완덕의 길	152
19. 용기	157
20. 하느님 안에 확고해질 것(월피정)	161
21. 천국(성체조배)	177
22. 기도	181
23. 기도의 상태	185
24. 새 분원이 초기에 겪는 어려움	188
25. 성체조배 시간	195
26.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8부 내 주일 ..	202
27. 성바오로팔수도회의 표지: 사랑	207
28. 참된 발전을 위한 조건	213
29. 교황의 3중 직무인(길, 진리, 생명)(성체조배)	223
30. 착복식	235
31. 죄	239
32. 양심성찰	248
33. 우리의 영적 어머니 마리아	256

여러 가지 묵상

1. 스승 예수님께 대한 신심	265
2. 선함과 사도직	275
3. 선함에 대하여(월피정)	284
4. 용기	294
5. 성주간 준비	303
6.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와 성소 사도직	312
7. 성모 승천	315
8. 성모 승천 대축일(월피정)	321
9. 성 바오로 집 축성과 성당 제막식	332
10. 묵주기도의 힘과 성소 활동.....	337
11. 전적으로 예수님을 살 것(월피정)	349
12. 온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할 것	375
13.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할 것	388
14. 사도직에 관한 지침들	395
15. 지상 삶의 목적(월피정)	397
16. 마리아 신심	411
17. 그대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	421
18. 종말실재	429
19. 순명 서원	436
20. 형제적 사랑	442
21. 사도직	449
22. 사도의 모후 마리아 신심	457
23. 우리 수도원을 성화할 것	466
24. 발전과 신뢰	475

25. 성화와 사람들에 대한 사랑	481
26. 성성과 사도직에서 발전하기 위한 지성, 의지, 마음	490
27. 순명과 사랑	498
28. 바오로적 삶을 깊이 살 것	504
29. 성 바오로를 알고, 사랑하고, 본받을 것	514
30.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것	521
31. 영화 사도직	527
32. 솔직함	536
33. 마리아를 신뢰할 것	540

1995년 미국과 멕시코에서 행한 강론

미국에서 행한 강론

I.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할 것	545
II. 온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할 것	552
III. 우리의 성소	559
IV. 성녀 테클라	568
V.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릴 것	575
VI. 천국(월피정)	583
VII. 묵주기도	594
VIII. 양심성찰(1)	606
IX. 양심성찰(2)	618
X. 묵주기도의 일반적인 결실	631

멕시코에서 행한 강론

I. 좋은 모범	639
II. 묵상	642
III. 양심성찰	652
IV. 사도직	661
V. 천국	669
VI. 예수님께 대한 사랑	675

마에스트라들 대상의 쇄신 주간-1955년 7월

I. 훌륭한 마에스트라가 되기 위하여	685
II. 쇄신	696
III. 지성의 성화	704
IV. 완전한 공부	712
V. 바오로적 경영관리(1).....	722
VI. 바오로적 경영관리(2) - 정오의 악마	734
VII. 사도직	742
VIII. 성바오로수도회와 성바오로딸수도회의 관계	751
IX. 마지막 기억	760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전집	767

약어표

알베리오네 신부에 관계된 약어siglario는 다미노A. Damino 신부의 저서 「알베리오네 신부의 문헌 목록Bibliografia di Don Alberione」(EAS, Roma 1994)에서 다루었다.

AAS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AD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Abundantes Divitiae gratiae suae」

ApC 「마에스트라들 대상의 쇄신주간에 행한 강연 개요Appunti delle conferenze tenute nella settimana di aggiornamento alle Maestre」

CISP 「성 바오로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Carissimi in San Paolo」

CVV 「여러분의 성소를 생각해 보십시오Considerate la vostra vocazione」

EAS 「바오로 가족 전체 역사 문서보관소 출판Edizioni dell'Archivio storico generale FP」

EDB 데호니아네 볼로냐 출판사: Edizioni Dehoniane Bologna

EP 성바오로 출판사: Edizioni Paoline

FSP 성바오로딸수도회: Figlie di San Paolo

FSP-SdC 「성바오로딸들에게Alle Figlie di San Paolo회헌설명 1961년 -Spiegazione delle Costituzioni 1961」

FSP33** 「성바오로딸들에게 1929-1933년Alle Figlie di San Paolo 1929-1933」

OCD 카르멜 수도회 출판사: Edizioni dell'Ordine Carmelitano

Pr3 「프리모 마에스트로 강론- 미국Prediche dei Primo Maestro-U.S.A.」

Pr6 「프리모 마에스트로 강론 1955년 1월-12월 *Prediche dei Primo Maestro*
Gennaio-Dicembre 1955」

PSSP/SSP 성바오로수도회: Società San Paolo

RA 「사도의 모후 *Regina Apostolorum*」 (FSP 정보지)

SBO 「성 베르나르도 작품집 *Opere di San Bernardo*」

S.E.I. 국제 출판 협회: Società Editrice Internazionale

SP 「성 바오로 *San Paolo*」 (SSP 정보지)

A6/an 1a, ac 1b 녹음을 위한 문서보관소 표기: Segnatura archivistica di
riferimento per le registrazioni

Cicl 등사본: Ciclostilato

Ds 타자본(타이프라이터): Dattiloscritto

o.c. 인용된 작품/상동: Opera citata

Trasc 녹취록: Trascrizione da registrazione

[...] 생략된 말: Parole omesse

[] 편집자의 말: Parole delle curatrici

입문 INTRODUZIONE

이 책은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1955년에 성바오로딸들에게 하신 강론 모음집이다. “천상 스승을 알고 본받으며 기도하기” 위하여 특별히 봉헌한 한 해 동안 이탈리아와 해외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하신 묵상 강의, 말씀들의 모음집이다. 그 해는 “영혼을 하느님 안에 결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하여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께 대한 관상적 삶을 살기로 한 해였다.

알베리오네 신부님 가르침의 큰 반경 1915-1971년을 이론적으로 세분해 볼 때, 1955년은 여섯 번째 시기에 해당하며, ‘쇄신과 교황청 승인 시기’ 1950-1955년로 불린다.

이 강론의 일부는 책이나 소책자로 출판되었고, 일부는 타자본이나 등사본으로 나왔다. 20여 차례의 강론은 자기磁氣녹음테이프에서 옮겨졌다. 불행하게도 모든 녹음테이프가 보존되어 있지 않다.

I. 알베리오네 신부의 강론: 1955년

1. 역사적 맥락과 교회 맥락

1955년의 역사적 맥락과 교회 맥락은 앞의 저서에서 설명했던 1954년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근대 문명을 특

정으로 하는 시대적 변화는 그 시기에 이미 진행중이었다.

1955년은 제2차 세계대전1939-1945년 승전국들이 참여한 제네바 협정 1955년 7월 18-23일이 체결된 해로 기억된다.

서유럽에서는 몇 년간의 대치 상황을 보인 후 서서히 경제 발전 국면에 돌입했으며, 그 결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 협력관계가 성장하게 되었다. 이탈리아에서는 국내 생산품이 증가하였지만, 남부 지역의 가난, 개인 소비의 불균형과 점진적인 도시화가 부각되었다.

이탈리아 국민의 생활습관과 풍습은 텔레비전의 도래와 영화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미디어는 가장 가난한 계층의 문맹퇴치 과정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매스미디어 현상에 교회는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었다. 교황 비오 12세는 “이상적인 영화필름”에 관한 두 차례의 담화를 발표하였다.¹ 그 내용은 영화의 교육적인 역할과 인간 고유의 존엄성, 인격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과제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1955년 7월 14일자 국무원Segreteria di Stat의 서한에 뒤이어 반포된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에 관한 회칙 *Miranda prorsus*²는 복음화의 목적을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하려는 교황 비오 12세의 입장을 드러내었다.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당대의 사회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셨으며, 길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소통의 모든 기술에 문을 활짝 연 당신 자녀들을 독려했다. 동양을 여행하는 동안 아시아의 여러 민족과 접촉을 통하여, 복음선포를 위해 지역 문화를 활용해야 할 시급성을 깨달으셨다. “동양에 성소자가 급증하기를 기도합

1. 이상적인 영화필름에 관한 첫 번째 담화문은 1955년 6월 21일에 발표하였고, 두 번째는 1955년 10월 28일에 발표하였다.

2. 참조: AAS(사도좌 관보) 49(1957), pp. 765-8-5, in *Enchiridion delle Encicliche*(회칙 연감), vol. 6, EDB, 1995, pp. 1218-1287.

시다. 감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생각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강론대, 정기간행물, 서적, 건전한 영화필름과 매체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특히 가톨릭 라디오 방송, 가톨릭 텔레비전 방송이 급증하기를 기도합니다.”³

창립자는 마음속에 새로운 수도회를 품고 있었으며, 마침내 사도의 모후수녀회가 1959년 9월 8일에 승인받게 된다. 성바로수도회에 병설된 초기 재속 단체의 싹이 움트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대천사가 브리엘회와 성마리아영보회가 1960년 4월 8일에 승인을 받는다.⁴

1955년에는 하느님의 종 디모테오 자카르도 신부님의 시복절차를 위한 덕성과 성덕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었다. 자카르도 신부님은 창립자께서 열망한 바오로적 성성의 구체적인 모델이었다.⁵

2. 수도회의 현실

1953년 교황청 법령으로 공인된 수도회는 알베리오네 신부님에 의해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1951-1961년에 이르는 10년간의 시기는 사실 “강화와 통합”의 시기였다. 강론과 지역 방문은 승인된 지 얼마 안된 회헌 안에 표현된 카리스마에 한층 일치하는 영성적 사도적인 목적을 향하도록 회원들을 독려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었다. 1955년 주님 공현 대축일부터 1956년 주님 공현 대축일까지 천상 스승께 봉헌된 해는 기도와 면학의 질을 깊이는 기회였다. 미지의 새로운 전망에 개방되는, 특히 영화와 텔레비전의 도래와 더불어 선교사명의 광활함과 사

3. Pr6, n. 25 참조.

4. 교황 비오 12세는 1947년 2월 2일자로 교황령 「섭리의 어머니인 교회*Provida Mater Ecclesia*」를 통하여 재속 수도단체의 일반 회규를 승인하였다.

5. 참조: CVV n. 219 참조; Pr6 n. 4.

목적 특징에 관하여, 그리고 수도회의 본질과 목적에 관하여 강조하는 때였다.

1955년은 알베리오네 신부님과 마에스트라 테클라 수녀님과 스승에 수의제자수녀회의 마드레 루치아 리치 수녀님이 함께한 두 번의 긴 여행이 특별히 부각된 해다. 1955년 4월 16일부터 6월 2일까지는 동양의 공동체들을 방문하였고, 7월 27일에는 유럽, 미국, 캐나다, 콜롬비아, 브라질의 바오로 공동체를 향해 다시 여행을 떠났다. 이러한 큰 여행의 가르침은⁶ 무엇보다 지역문화를 활용하기 위한 책임을 강조하고, 따라서 모든 민족에 대한 사랑을 부각시킨다. 예언자적 어조로 영성적이고 사목적인 원칙에 초점을 맞춘 창립자 곁에서, 마에스트라 테클라께서는 '강연'을 통해 단순하고 실천적이며 모성적인 가르침을 딸들에게 전해주었다.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딸들로 하여금 프리마 마에스트라께서 제시하는 바를 듣고 실천하도록 여러 차례 촉구하였다.

1955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분원과 영국의 랭글리Langley 분원을 설립하였다. 이 해는 새로 시작한 일본 진출과 필리핀의 새 분원 및 전쟁의 혹독한 시련을 거친 이탈리아의 분원 설립 강화에 진력한 시기였다. 또한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제1차 총회 개최를 생각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하다.

당신 생애에서 풍요로웠던 시기에 속하는 이 기간에 창립자께서는 아주 깊은 영성적인 양성과 전문적인 양성의 필요성을 깨달으셨으며, 일곱 편의 연구 작품을 「성 바오로」지에 게재하였다. 이 작품들은 1954년과 1956년에 발간된 「바오로 가족에게 *Alle Famiglie Paoline*」와 「지성의 성화 *Santificazione della mente*」에 모아 발간하였다.⁷

6. C. A. 마르티니, 「성바오로딸수도회 역사」, 464쪽 참조.

7. 이 작품들은 2005년에 「복음을 위한 몸과 마음 *Anima e corpo per il Vangelo*」(Edizioni San Paolo, Cinisello Balsamo)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출판되었다.

창립자께서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양성에 주의를 기울이셨다. “수도회는 한층 더 바오로적인 영혼을 지녀야 합니다. 지성에 있어서 바올리나여야 하고, 감성에 있어서 바올리나여야 하며, 의지에 있어서도 바올리나여야 합니다. 이것이 수도회의 가장 큰 부요, 이러한 영혼이야말로 사도적 마음을 지닌 아름다운 영혼입니다!”⁸

장상들을 위한 쇄신 코스가 조직되었고, 프로파간디스타들과 서원사도직을 하는 회원들을 위한 세미나, 교리교사들을 위한 세미나, 성 바오로 영화사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한 세미나를 준비하였다. 철학과 신학 코스도 넓혔고, 양성과 사도직을 위한 2년간의 이론-실습 코스도 조직하였다.

50년대의 사도직은 최고로 확장된 상태였다. 창립자의 말씀은 수도회의 영성과 같은 노선에서 딸들을 자극하여 ‘바오로적인’ 통합적 편집을 바라보도록 인도했다.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전체, 곧 지성 의지 마음을 복음화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갓 창간된 교리 잡지 「길 진리 생명 *Via Verità e Vita*」은 대서양을 건너 해외에서도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브라질에서는 이미 몇 해 전부터 성바오로딸들이 「그리스도인 가정 *Família Cristã*」을 출판하였다.

이탈리아에서는 1955년 성탄절에 여성 잡지 「코시 *Così*」를 창간하였는데, 이 잡지를 통해 창립자께서는 성바오로딸들에게 다음과 같은 임무를 확인해 주는 기쁨을 누리셨다. “여성 계층을 위하여 글을 써야 하는 임무가 여러분에게 맡겨졌습니다.”

모든 사도직은 발전과 쇄신을 필요로 하고, 보급은 최대의 에너지를 요청한다. 특히 복음 축제, 복음 주간, 마리아의 날, 교리 주간을 통하

8. Pr6, n. 9 참조.

여 하느님 말씀의 보급을 위하여 이른바 “집중 선교propaganda collettiva”를 중요하게 여긴다.

공동체가 바오로적 성소에서 자신들의 선을 염원하며 답을 찾는 수많은 젊은이들로 넘쳐날 정도가 되자,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성소의 강력한 동기를 설명하셨고, 영성 작업, 지적 노동과 육체 노동 같은 전체적인 의미에서 노동의 의미를 강조하셨다. ‘영혼들을 위한 희생’일 때 노동은 사도직이 되고 기쁨이 된다. “마음속에 참으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결코 게으르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으며, 무관심하지 않고, 냉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관을 얻기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⁹

1955년에는 바오로 가족의 본질에 대한 심화를 통해 “네 개의 수도회가 성 바오로 안에서 친족관계에 있다.”¹⁰는 확신이 더해졌으며, “가족은 하나요, 서로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다.”¹¹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성바오로수도회와 성바오로딸수도회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셨다. “스승 예수, 예수-사제, 예수-성체를 대표하는 수도회가 있고, 세상의 구원에 개입하신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방식으로 많은 은총을 받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마리아를 대표하는 수도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기도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의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행동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일치뿐 아니라 행동의 일치, 사도직의 일치가 필요합니다.”¹²

9. Pr6, n. 4 참조.

10. Pr6, n. 17 참조.

11. Pr6, n. 9 참조.

12. ApC, VIII 참조.

II. 본 출판본

1. 원천, 언어와 뒤따르는 비평 기준들

이 책에서 합쳐진 1955년의 텍스트는 공동체를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발간된 소책자들 이외에 1955년, 1956년, 1958년에 각각 출판된 세 권을 포함한다.

편집자는 각 텍스트의 연대순에 따라 각 권의 내용을 독립적인 모음집으로 소개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각 모음집마다 짧은 머리글을 통해 작품의 내용과 장소, 시기를 안내한다.

그러므로 1955년의 강론집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강론Prediche del Rev. Primo Maestro 1955년 1월-12월’, Edizioni Paoline, Roma 1958, pp. 215.
2. “여러 가지 묵상Meditazioni varie”이라고 명명된 모음집은 타자본, 등사본, 인쇄된 소책자(4쪽짜리 인쇄물, 16절판 등)를 모았고, 자기磁氣 녹음테이프nastro magnetico에서 옮겨 쓴 강론을 실었다.
3.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강론 원본Prediche del Primo Maestro riportate nelle sue parole originali 1955년”, Edizioni Paoline, Boston, Mass., U.S.A., pp. 125.
4. “쇄신 주간에 행한 강연 개요Appunti delle conferenze tenute nella settimana di aggiornamento 1955년 7월”, Figlie di S. Paolo - Roma 1956, pp. 191.

사용된 어휘로 볼 때 대체로 우연한 기회나 전례시간에 말씀하셨음

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는 그 순간에 늘 지성과 마음에 가장 시급한 것을 당시의 맥락에 맞게 전하고자 하셨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종종 강조체로 되어 있으며, 중간에 라틴어 성서를 인용하셨다. 「로마성무일도서 *Breviarium Romanum*」의 텍스트에 친숙하셨기 때문이다.

특히 두 차례의 긴 여행 동안에 창립자께서는 여러 공동체를 위한 강론을 작성하셨는데, 같은 주제를 다루는 내용이었다. 유사해 보이는 말씀들도 (이 책에) 모두 함께 실었다. 왜냐하면 청중에 따라 말씀이 달랐기에 똑같이 되풀이한 내용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묵상” 모음은 1회 또는 여러 영신수련 코스에서 하신 강론이며, 타자로 정리한 것이다. 어떤 기회에 말씀하셨는지 알 수 없는 내용들은 “여러 가지 묵상” 사이에 넣었다.

가끔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스타일에 따라 3인칭으로 표현된 자서전적인 기록들은 드물지만 소중하다.¹³ 이런 표현들은 다루고 있는 주제에 증언의 힘을 주거나 내용이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2. 기본적인 주제들

전적으로 예수님을 살 것

1955년의 강론은 모두 천상 스승께 초점을 맞추었다. 바로 그 해가 천상 스승께 봉헌된 해였기 때문이다.

사실 창립자는 그 해가 스승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분께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한 시기요, 보다 가까이에서 그분을 본받고, 그분께 대한 사랑과 지식을 보급하는 시간이기를 원하셨다.

스승을 집중적으로 ‘느끼고’, 그분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분께서

13. 참조: “여러 가지 묵상” n.10; n. 11.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그분이 사셨던 것처럼 살고, 그분께서 열망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구원을 열망하는 해였다.¹⁴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그와 같은 신심이 “우리의 모든 영성생활, 우리의 모든 면학, 우리의 모든 사도직, 모든 외적 활동…등을 관장합니다.”¹⁵라고 거듭 강조하셨다. 이러한 영성은 인격 전체에 두루 미치는 통합적 영성으로,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사랑하도록” 하게 한다.¹⁶

이 점에 관하여 창립자께서는 “하느님 안에 결정적으로 확고히 서라.”는 초대, 곧 “지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것-지성의 성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것-마음의 성화,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것-의지의 성화”라는 초대를 계속하셨다.¹⁷ 그리스도 안에 전적으로 일치된 전인격에 관련됨을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산다는 것은 삶에서 그분과의 일치에 도달하는 것뿐 아니라, 그분의 생활 태도, 곧 사도직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¹⁸

창립자는 삶의 일치를 으뜸 요소로 마음에 품으셨으며, 계속해서 거듭 상기하셨다. “바로로적 삶은 극도로 일치된 삶이요, 그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삶과 똑같은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Vivit vero in me Christus.*’라고 말씀하신 성 바오로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살아야 합니다.”¹⁹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을 예수님의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다. “분원에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분원에는 감실이 있고, 그 감실 안에는 당신 가슴에 마음을 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

14. Pr6, n. 1 참조.

15. Pr6, n. 1 참조.

16. Pr6, n. 17 참조.

17. Pr6, n. 20 참조.

18. “여러 가지 묵상” n. 11 참조.

19. “여러 가지 묵상” n. 1 참조.

다. 나는 그분의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우리 느낌, 우리 염원이 그분의 마음, 그분의 느낌, 그분의 염원, 그분의 열망...등으로 교체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님께 기대야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Per Christum Dominum nostrum', 그러므로 금년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삶을 사는 해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²⁰

주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은 부르심 받은 모든 성바로딸이 지향해야 하는 목적이요, 마리아께 계속 청해야 하는 은총이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분과 깊은 친밀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그분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것, 이것은 마리아께 청해야 할 은총이다.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느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²¹

진보의 해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천상 스승께 봉헌된 해를 바오로적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진보의 해로 여기셨다. 바오로적 삶은 특히 지성의 성화를 위해 아주 깊이 작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창립자께서는 고통을 표현하셨다. 지성의 진보에 있어서 피상성과 특정한 오해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쇠신 주간에는 다음과 같은 강한 어조로 표현하셨다. "지성의 성화! 여기에 오면서 화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왜 이러한 점을 깨닫지 못합니까? 왜 조심하지 않습니까? 왜 가장 필요한 부분, 곧 지성을 성화하는 일에 전념하지 않습니까? 나머지 모든 것은 지성의 성화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모

20. "여러 가지 묵상" n. 1 참조.

21. "여러 가지 묵상" n. 8 참조.

두 지성의 성화에 힘을 기울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Deo gratias! 그렇지만 정신에 관한 힘, 지성의 가장 큰 낭비를 늘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쇠신되기 위한 지향, 일반적인 지향을 가져야 합니다. 모두 지성의 성화를 염원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지성의 성화 없이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 관해 배우려고 애 쓰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수도회에 결실을 가져온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²²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자주 사용하셨던 표현 중 하나인 '진보'라는 용어는 바오로적 삶의 모든 상황과 결부된다. 최대의 진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은 모든 자매들이 그 누구도 제외됨 없이 이루어야 하는 힘의 일치와 성장의 염원이다. "매일 향상되어야 합니다. 회헌 첫째 조항에 나오는 성화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나, 회헌 둘째 조항에 나오는 사도직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나 향상되어야 합니다. 모두!"²³

하느님 말씀을 전하도록 선택됨

성바로딸수도회의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거의 예언자적인 어조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도록 선택하셨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성 바오로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조건에 따라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도록 여러분을 뽑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조건에 따라서, 그러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조건은 향상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글을 쓰고,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이 출판물 하고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리나는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잘 알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며,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묵상한 다음 종이에 새기고, 인쇄기

22. ApC, III 참조.

23. ApC, III 참조.

를 통해 대량화하며, 프로파간다 수단을 통해 세상에 보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시는 마리아의 사명과 유사한 직무입니다. 동정녀의 직무이기에 정결한 만큼 더 효과적입니다. 사랑의 직무이기에 여러분이 마음에 사랑을 품고 있는 만큼 사도직에 있어서도 더 많은 능력이 발휘됩니다. 아주 고된 직무이기 때문에 영혼에 열정이 있는 만큼 더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경계가 없는 직무이기에 세상이라는 경계만 있을 뿐입니다.”²⁴

창립자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향상되고 열정적’이라고 정의하셨다. 이 사명 때문에 성 바오로의 딸은 늘 큰 감사를 표해야 한다. “이처럼 여성을 위한 고차원적 사명을 주신 것은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구세주의 삶을 공동 구원자이신 마리아의 삶과 일치하면서 당신 사명을 실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부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사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명칭들은 마리아에 대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²⁵

강론을 통하여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사도직의 실행 방식을 최대한 예증하려고 노력하셨다. 이 시기에 더 많은 지성의 준비를 요청하고, 더 나은 조직을 요청하고, 아주 많은 사람들, 특히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관계 맺을 능력을 요청하는 단체선교를 강조하셨다.

단체선교는 새로운 출판물이나 새 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안내문이나 엽서를 발송한다. 모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며, ‘사도들의 양성자’가 되는 것이며, 성소사목에 힘을 기울이는 것이고, 가장 많이 읽히는 정기간행물에 대한 서평을 쓰고, 가장 신속한 수단을 활용하면

24. Pr6, n, 8 참조.

25. Pr6, n, 8 참조.

서 언제나 가장 큰 결실을 얻으려 노력하는 것이다.

‘단체선교propaganda collettiva’의 특권을 가지는 장소는 이른바 ‘그리스도교 사상의 보급 센터’라고 여겨지는 서원이다.

“모든 서원에 ‘나 여기서 비추기를 원하노라’, 또는 스승 예수님의 성화를 모시고 그 밑에 ‘나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이나 다른 말씀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프로파간다, 특히 단체선교에서 그렇듯이, 이제 서원에서 여러분은 모두 마에스트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서원에서 요청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초자연적인 정신을 요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포하는 교회, 곧 빛의 터전인 서원에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주고 위로해야 할 사람, 구원해야 할 영혼으로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이 서원에 들어올 때 그가 키가 큰지 작은지를 살피는 관점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정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초자연적인 정신과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관찰해야 합니다.”²⁶

사도직 차원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계속해서 진보를 강조하셨다. “[사도직에서] 진보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향상되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서원은 쇠신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원이 복음선포에 가장 적합한 곳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서원은 일반 상점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성소사회

1955년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는 성소자들을 위한 “사도의모후수도회” 창립을 준비하셨으며, 몇 년 뒤(1959년) 실현하셨다.

26. Pr6, n, 8 참조.

모든 이에게 도달하려는 열망과 온 세상의 복음화라는 기대에 부응하려는 열망을 지닌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위대한 마음은 한층 자질을 갖춘 지혜로운 성소 사목으로 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원을 확보하는 것”은 1950년대에도 큰 도전이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께서는 자매들이 아직 진출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셨다. 도처에서 요청이 왔지만 인원이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셨으며, 파견할 수녀들이 부족하다는 점을 늘 애석해하셨다. 프리마 마에스트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세탁물 보관실에 누군가가 있는지 잘 살피십시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라도 붙잡아야겠습니다.” “수도복으로 딱찬 옷장들이 즐비하고, 여러 층에서 수녀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수녀를 만드는 공장이 되기 위해서 수도회는 먼저 성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되어야 합니다.”²⁷

초교파적 정신을 지니신 창립자께서는 교회 안에 “교황청 수도자 성소사회 Pontificia Opera delle vocazioni religiose”를 추진하셨는데 바로 그 해에 의장으로 선출되셨다. 그분은 잡지의 출판 업무에, 특히 편집 분야에서 숙련된 바오로인 사제를 파견하도록 이미 1955년에 지시하셨다. 무엇보다 ‘묵주기도를 통하여 성소자 문제를 극복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셨지만, 가장 탁월한 성소 식별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강조하셨다.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어떤 말을 해야 하거나 어떤 견해를 표명해야 한다면 (모든 면에서 통용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입회허락이 좀 더 관대해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도생활에 대한 규칙 준수가 성소자들을 불러일으킵니다. 비록 많은 수단을 활용한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성소를 주관하고 보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성소를 위한 근본적인 비결은 기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 비결은 수도생

27. “여러 가지 묵상” n, 10 참조.

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모든 수도자가 마치 자석처럼 되어야 합니다.”²⁸

그분은 수도성소뿐 아니라 평신도 성소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 “그리스도교 초창기에는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의 소식을 전하던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도 있었고, 교사들과 스승들이 있었고, 많은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기쁜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프로파간다스타 역할을 했습니다.”라는 사실도 상기시켜 주셨다.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우리 사명에 가장 적합한 협력자들은 ‘지적인’ 협력자들이지만, 보급을 도와줄 수 있는 협력자들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재인식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협력자들은 아직 충분히 활동할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²⁹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토로하셨다.

Ⅲ. 일러두기

1. 이 책의 편집자들은 여기서 한데 묶은 네 권으로 된 오리지널 텍스트와 긴밀한 연결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다. 곧 “Pr6”, “여러 가지 묵상” 모음집, “Pr3”과 “ApC”이다. 오리지널 텍스트를 직접 참조할 가능성을 두고자 했기에 각 부분의 입문에 작품을 표기하였고, 판면 가장자리에 볼드체로 오리지널 텍스트의 쪽수를 표시하였다. 쪽수가 문장 중간에서 바뀔 때에는 세로획 (|) 으로 표시하였다.

2. “여러 가지 묵상”과 “Pr6”의 묵상은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매겼고, “Pr3”의 강론과 “ApC”는 로마 숫자로 번호를 매겼다.

28. ApC, VII 참조.

29. Pr6, n, 10.

3. 오리지널 텍스트와 비교하여 텍스트를 최소한 손질했다. 오리지널 텍스트에 제목이 없는 경우에는 제목을 넣었고, 내용과 관련이 없는 제목처럼 여겨질 경우에는 제목을 교체하였다. 제목을 수정했을 경우에는, 텍스트를 무겁게 느끼지 않도록 변경 또는 교체를 알려주는 꺾쇠괄호 []를 연대 색인에만 넣었다.

손질을 한 다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대문자와 소문자의 통일, 악센트와 이중모음 종결(예를 들면 principii를 principi로 교체)을 현대 형태로 변화시켰고, 숫자 생략, 누락된 요소를 보완하였다.

일부 어휘는 당시의 용법을 반영하기 때문에 통일시키지 않았다. 예를 들면 “obbedienza와 ubbidienza”(=순명), “eucarestia와 eucaristia”(=성체 성사), “divozione와 devozione”(=신심), “consecrare와 consacrare”(=봉헌) 등이다.

창립자의 말솜은 오리지널 텍스트에 있는 그대로 놓아두면서, 단어의 성(남성과 여성)을 통일시키지 않았다.

라틴어 텍스트는 충실하게 유지하면서 각주에 번역을 실어두었고, 가끔 수정하기도 했다.

4. 인쇄상의 오류나 분명한 오자와 문법상 오류를 수정하였다. 구두점도 수정하였다.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약어를 보완하였다.

이야기 내용이 문학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따옴표(“ ” 또는 《 》)를 생략하였고, 텍스트의 이해를 돕는 따옴표(“ ”)를 그냥 두었다. 인용된 부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꺾쇠 따옴표(《 》)를 사용하였다.(우리말 번역에서는 “ ” 또는 ‘ ’을 사용함)

5. 정보에 대해 심혈을 기울였다. 곧 시대적 배경, 사건, 인물, 원천

등의 자료에 대한 성경 설명, 역사적 설명을 각주에 실었다.

6. 여러 가지 색인을 갖추도록 하였다. 성서 인용 색인, 인명 색인, 인용된 참고도서, 주제 색인, 그리고 기호로 표기된 책, 오리지널 텍스트의 쪽수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 색인에 표시하였다.(우리말 번역서의 경우 인용된 참고도서 외에 다른 색인은 생략함)

7. 성인들이나 인물들의 전기적인 언급은 텍스트에 처음 나올 때만 각주에 실었다. 그 대신에 인명 색인에서는 같은 인물이 언급되어도 모든 페이지에 실어두었다.

8. 1831년 이전에 발표된 회칙들은 성좌 관보Atti della Santa Sede를 나타내는 기호 ASS표를 인용하였고, 1831년 이후에 발간된 회칙은 기호 AAS 사도좌 관보: Acta Apostolicae Sedis를 인용하였다.

9. 각주에서 ‘일기Diario’라는 용어를 원천자료로 사용한 경우는, 개인 비서인 안토니오 스페찰레 신부Antonio Speciale, SSP가 알베리오네 신부의 삶과 활동을 실제적으로 매일 기록한 연대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 연대기는 1946년부터 1971년 11월 26일 그분의 서거에 이르기까지 창립자 생애의 마지막 시기를 보여준다. ‘일기Diario’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

10. 오리지널 텍스트가 녹음에서 옮겨 쓴 것일 때 각주에 자기磁氣녹음테이프에 대한 문서보관소 기호를 실었다.(예를 들면 A6/an 1a 1b)

11. 이 책의 인용은 FSP+1955+(쪽수)로 표기하였다.

12. 라틴어 성서 텍스트의 이탈리아어 번역은 「예루살렘 성경 *Bibbia di Gerusalemme*」의 이탈리아주교회의 번역 성경 trad. CEI(1971년)을 사용하였다. 때때로 불가타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1931년에 출판된 토티리의 번역 성경 Tintori E., edizione(1931)을 사용하였다. 「준주성범-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zione di Cristo*」의 번역은 1992년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출판본을 따랐다.

성바오로딸수도회
국제 영성 사무국

1955년

1955년 1월-12월, 33 차례의 강론

강론: 1955년 1-12월

1955년에 성바오로딸들에게 하신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강론이 첫 부분을 이룬다. 다시 말해서 「프리모 마에스트로 강론 - 1955년 1-12월」이라는 책이다. 안드레아 다미노 신부의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문헌 목록 *Bibliografia di Don Giacomo Alberione*」에서 이 책은 Pr6이라는 기호로 표기되었다.

예를 들어 6번과 7번 같은 일부 강론은 사도의 모후 성당 지하 경당에서 바오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신 것임을 문맥에서 추론할 수 있다.

20여 차례의 강론은 로마에서 하신 것이고, 한 차례는 알바에서, 다섯 차례의 강론은 필리핀 분원에서, 다섯 차례의 강론은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하신 것이다. 네 차례(13, 21, 25, 29번)의 강론은 성체조배 시간에 하신 것이다.

천상 스승께 봉헌된 해를 소개하는 1번 강론은 특히 중요하다.

이 묵상 내용은 1955년에 한해서만 우선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바올리나의 삶과 사도직 모두에서 가치를 지닌다.(n. 20)

바오로처럼 회심해야 한다.(n. 6) “전인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회심은 먼저 지성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자 디모테오 자카르도 신부님의 7주기를 추도하면서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하신 말씀이 이를 확인해준다.(n. 7)

기도와 선한 의지의 진보를 지향해야 하지만(n. 28), 직무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도직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특히 8, 9, 10번의 묵상 내용을 잘 묵상해야 한다.

27번에서는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참된 표지가 어떤 것인지 설명한다. 곧 사랑이야말로 수도회의 목적이다. “모두 수도회를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야 하고, 수도회와 수도회의 활동을 사랑해야 합니다.”

1. 천상 스승을 알고, 본받고, 기도할 것¹

사도의 모후와 성 바오로 사도의 전구를 통하여 특히 이 첫 달, 1월을 잘 보낼 수 있는 은총을 천상 스승께 청합니다. 이 첫 달은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으로써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염원은 한 해 전체를 천상 스승께 봉헌하려는 것입니다.²

마리아의 해³ 우리의 어머니이신 동정녀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목동들, 동방 박사들, 성전의 사제들에게 소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성모님은 그분을 내어주시고 우리는 공손하게 받들어 모시며, 성모님께서 우리에게도 베푸신 큰 선물에 우리의 눈길을 집중합니다. 우리는 금년에 세 가지 사항을 실행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을 잘 알 것.

둘째,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겨 주신 지극히 고결하신 덕성의 모범과 그분의 모범을 본받고 따를 것.

셋째,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은총을 위하여 그분께 간구할 것.

천상 스승께 대한 신심은 부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성생활, 모든 면학, 모든 사도직, 모든 외적 활동, 모든 것을 관장합니다. 그러므로 천상 스승께 봉헌된 해는 면학, 사도직, 교육, 청빈 등 여

1. 1955년 1월 1일 로마에서 바오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묵상. in *Prediche del Rev. Primo Maestro, Gennaio-Dicembre 1955*, Edizioni Paoline, Roma 1958.

2. 바오로 가족의 결심을 숙고하면서,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스승 그리스도를 알고, 본받고, 기도하고, 알리기 위하여 1955년 주님 공현 대축일부터 1956년 주님 공현 대축일까지 1년을 천상 스승 예수님께 봉헌하는 해로 지내하도록 초대하였다. 참조 : RA 2 (1955) 1-3; CVV 215.

3. 교황 비오 12세는 1953년 12월 8일부터 1954년 12월 8일까지 마리아의 해로 선포하였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교황의 아버지다운 권고를 따르기 위하여 이 해에 바오로 가족이 마리아를 알고, 본받고, 기도하고, 열망하도록 초대하였다. RA 12 (1953) 1-2 참조.

러 부분에서 발전하는 진보의 해를 의미합니다.

1. 천상 스승께 대한 신심에 1년을 봉헌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
6 까? |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 천상 스승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리를 잘 공부하고, 복음을 잘 읽고, 강론을 주의 깊게 듣고, 묵상에 집중하는 등의 그분을 아는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를 통한 좀 더 고차원적이며 더 향상된 방법이 있습니다. 비록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 있고, 성성의 길, 하느님의 뜻을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마음과 지성이 소유한 많은 것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록 느끼는 것을 때로는 표현할 줄 모르지만, 예수님을 친밀하게 느끼며 거룩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사랑할 줄 알고 그분을 사랑할 때 그분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우리는 거룩한 것에 대한 주의 깊은 연구에 마음쓰기로 합시다. 곧 교리, 신학, 신적인 것에 대한 묵상, 예수님 삶에 대한 독서 등을 식탁에서도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 것.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겸손하게 낮추어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분을 선포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Ilum oprtet crescere, me autem minui.*”⁴ 나는 작아지고 없어져야 하는 대신 그분은 커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알려져야 하고, 흠송 받으셔야 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경청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한다 *Ilum autem oprtet crescere.*” 누구에 관해 언급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너희가 모르는 분 *quem vos*

4. 요한 3,30.

nescitis.”⁵ 만일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있고, 그분께 더 잘 기도드리고 있고, 그분을 더 가까이에서 본받고 있다면 이 말씀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대한 것이라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분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것! 우리가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초자연적인 것 모두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 예수님께 다가가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찾지 못하며, 구원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그분의 선물인 초자연적인 생명과 구원, 특히 평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하기에 손으로 더듬듯하는 이 인류, 이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까? 이들은 평화의 길도, 정의의 길도, 성성의 길도, 구원의 길도 찾지 못합니다.

2. 예수님을 본받을 것. 구유를 보십시오. 이 기간 동안 이 점을 잘 숙고하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관상해야 할 것은 구유만이 아닙니다. 나자렛의 작은 집에 계신 예수님을 관상해야 하고, 공생활 중에 계신 예수님, 수난 중에 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에 오르실 때의 예수님,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관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모습만 지니고 있지 않고, 성모 마리아의 성상과 성인들의 성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나자렛의 작업대에 계신 예수님, 공생활 동안 어부들을 맞아들이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날은 하늘에 오르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계시며 참되게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모십니다. 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느님으로서 예수님은 도처에 계시며, 하느님이요 인간으로서 하늘에 계시고,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계십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관상해야 합니다. 예배, 전

5. 요한 1,26 참조.

례용품, 그리고 교회 자체가 우리를 감실에서 멀어지게 혼란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잘 지어진 성당이라면 모두 감실을 향해 눈길을 돌릴 수 있고, 예수님을 흠송할 수 있고,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성당 구조여야 합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예수님을 관상한다는 것은 모든 덕성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유라는 배움터는 최상의 학교입니다. 우리는 천상 스승께 청해야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Doce nos.”⁶ 이 기간에 우리가 관상한 구유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깊은 겸손입니다. | 우리의 하느님께서 아기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Puer natus est nobis …”⁷

청빈 정신. 그 성탄 동굴에서 무엇을 발견하였습니까? 구유는 구세주께서 태어나신 동굴의 구유를 재현했을 때에야 제대로 만든 구유입니다. 구유,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비천한 자리이지만, 예수님께서 계셨고, 마리아께서 계셨고, 요셉께서 계셨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지성소입니다. 청빈의 정신을 배워야 하고, 극기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감각을 어떻게 억제해야 하며,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극기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금년의 영적 작업은 예수님의 덕을 완전히 본받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복음 한 구절씩 묵상한다면 예수님의 덕성이 금세 분명해지고,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비슷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에서, 선함에서, 청빈에서, 온유함에서, 희생정신에서 그분을 본받을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6. 루카 11,1.

7. 이사 9,5.(역주: 이탈리아 원본에는 이사 9, 6으로 기재되어 있음)

3. 천상 스승께 기도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천상 스승께 드리는 흠송 기도를 더 자주 되풀이해야 합니다.

천상 스승의 해는 주님 공현 대축일에 장엄하게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그날 교회는 예수님의 세 가지 표징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동방 박사들에게 드러내신 표징입니다. 그다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에 계신 성부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⁸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카나의 표징을 통해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Jesus manifestavit gloriam suam.”⁹ 주님 공현 대축일 후렴에서는 “오늘 세 가지 기적으로 이 날을 기념하였도다Tribus miraculis ornatum diem sanctum colimus …”¹⁰라고 노래합니다.

성체흠송에 대한 조식이 필요합니다. 순번을 정하여 성체조배를 잘 해야 하고, 성체 안에 계시는 천상 스승을 흠송해야 하며, 그분께 기도해야 하고, 보속해야 하고, 간청해야 합니다. | 그렇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 ‘기도서’를 손에 들고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더 나아가 길 진리 생명이신 천상 스승께 대한 신심에서 영감받은 우리 신심을 이해하기 위해 이른바 ‘초대의 글’이라고 이름 붙인 도입부를 읽어야 합니다. 기도서의 도입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위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묵상 자료를 제시하고, 마찬가지로 성체조배, 고해성사, 십자가의 길, 미사, 영성체, 양심성찰, 묵주기도 등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입부가 천상 스승 신심을 향해 우리를 잘 이끌어주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그런

8. 마르 9,7 참조.

9. 요한 2,11.

10. 제2 저녁기도 ‘성모의 노래’ 후렴.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심은 좋은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모든 이가 주어진 교육, 양성을 잘 받는다면 천상 스승을 잘 흠송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 저녁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L'Osservatore Romano*>지는 천상 스승에 따른 교육, 곧 예수님의 첫 교육학에 관한 회칙 「천상 스승이신 그분 *Divini illius Magistri*」¹¹ 반포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직도 연구해야 할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어쩌면 여태까지 나온 책 중에서 가장 적합한 책은 「사도들의 양성장이신 예수님 *Gesu formatore dei suoi Apostoli*」¹²일 것입니다. 많은 책들이 출간되었지만, 이 책은 저자가 예수님의 교육학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읍시다.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진리이다.”¹³ 이에 대해 「준주성범」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나는 너희가 따라야 할 길ियो, 너희가 믿어야 할 진리요, 너희가 바라야 할 생명이다.”¹⁴ 그 생명은 그대가 특히 고해성사를 통하여, 영성체를 통하여, 미사를 통하여, 그리고 성체신심과 성체성사의 배움터를 통하여 얻어야 하는 생명입니다. 각자 주님 공현 대축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일년 동안 실행하고자 하는 것을 준비하는 마음자세를 갖추도록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것이든, 더 가까이에서 그분을 본받기 위한 것이든, 이 신심의 정신에 따라 그분께 기도하기 위한 것이든 시작해야 합니다. 장엄하게 거행하는 예식처럼, 부차적인

11. 비오 11세, *Divini illius Magistri*, 1929년 12월 31일. AAS 21 (1929), pp. 723-726, in *Enchiridion delle encicliche*, vol 6, EDB, 1995 참조.

12. P. Joseph Delbrel, S.J.(1856-1927), *Gesu Maestro degli Apostoli*, Ed. Beauchesne Gabriel e F., Paris, 1932, pp. 285.

13. 요한 14,6 참조.

14. 「준주성범 -그리스도를 본받아 *Imitazione di Cristo*」, 3권 56장 1 참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활동과 외적 활동 모두, 완전히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결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그분께 다가가라. 그러면 너희는 빛을 받을 것이다 *Accedite ad eum et illuminamini*.”¹⁵

15. 시편 34,6 참조.

11 2. 스승이신 아기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¹

주님 공현 대축일 [미사의] ‘입당송’을 읽어봅시다.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 손에 나라와 힘과 권능이 있네.” ‘본기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 하느님, 오늘, 별의 인도로 성자를 이방인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으니, 믿음으로 주님을 알게 된 저희도 자비로이 이끌어 주시어,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직접 뵈게 하소서.”

제1독서는 이사야 예언서에서 발췌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언이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매일 실현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가 한 분이시고, 구세주가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인류가 깨닫게 될 때 예언이 검증됩니다. 삶은 한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곧 하늘 나라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상급이 하나라는 것, 곧 천국입니다. 그곳에 도달하기 위하여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교회를, 교황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예루살렘은 지금의 로마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로마여, 일어나 비추어라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의 빛이 왔다. 주님의 영광이 네 위에 떠올랐다. 자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암흑이 겨레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네 위에는 주님께서 떠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하여, 임금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향하여 오리라. 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네 계로 온다.”²

성년^{聖年}, 희년이 선포되면 [순례자들이] 로마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에게 모여드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너의 아들

들이 먼 곳에서 오고, |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 온다. 그때 이것을 보 12
는 너는 기쁜 빛으로 가득하고, 너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벅차오르리라. 바다의 보화가 너에게로 흘러들고,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들어온다. 낙타 무리가 너를 덮고, 미디안과 예파의 수낙타들이 너를 덮으리라. 그들은 모두 스바에서 오면서 금과 유향을 가져와, 주님께서 찬미받으실 일들을 알리리라.”³

앞을 내다보십시오. 모두 와서 빛나는 태양, 빛의 중심인 로마를 향할 때 지상의 광경을 [상상해보십시오.] 일어나 비추어라, 로마여! 오늘 교회는 예언된 이 날의 시작을 거행합니다. 그 시작은 물론 별을 통하여 비롯됩니다. 밤에 우리가 창공에서 반짝이는 별을 보다가 조금씩 여명이 다가오에 따라 빛을 잃어가는 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나시게 되면 별들은 빛을 잃어갑니다. 이 별은 많은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어느 교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상기하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별은 동방 박사들을 구유로 인도한 후 구유 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별, 새벽별이 이미 빛을 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빛을 비추시던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동방 박사들에게 드러내셨으며, 감동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복음을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헬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모아 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 ‘유다 베 13

1. 알바에서 바오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묵상, 1955년 1월 6일.

2. 이사 60,1-4 참조.

3. 이사 60,4-6.

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에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 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⁴

탄생 동굴에 도달한 동방 박사들을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였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요 전지전능하신 성부의 성자, 성부의 지혜,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창조주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하느님의 아드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들이 저지른 많은 죄를 보상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버지, 원하신다면 저를 보 내십시오.”⁵

그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 인간으로 오셨고, 동정녀에게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비록 그분이 부유함이나 광채나 권력이나 지혜를 외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을지라도, 우리는 그분을 동방 박사들과 함께 흠송합니다. 하느님의 지혜, 하느님의 성성은 눈부신 무슨 활동을

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힘, 하느님의 지혜, 하느님의 사랑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천상 스승께서는 온 민족에게, 온 나라에 당신을 계시하 14
셨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날 천상 스승의 해를 경축합니다. 요람에 경배드리며, 우리의 경의를 동방 박사들이 봉헌한 것의 상징적인 것과 함께 선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이 동양에서 가져온 그 선물들과 똑같은 선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황금, 유향, 몰약 안에 담긴 상징을 드립니다. 지성의 황금은 신앙입니다. 마음의 유향은 신심, 용기입니다. 몰약은 천상 스승에게서 우리를 멀리하도록 피어내려는 유혹에 맞선 극기와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분을 따를 확고한 의지, 특히 금년에 그분을 따를 확고한 의지, 그분의 그 어떠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는 확고한 의지입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In principio erat Verbum.*”⁶라는 첫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복음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동굴에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그리고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Et, inclinato capite, tradidit spiritum.*”⁷라는 표현대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내쉬신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모범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숙고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부활 후에는 무엇을 가르치시고, 성체성사 안에 영원히 머무시는 장소인 성당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관대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사도직에 참여하고, 사람들에게 빛, 구속, 영원한 구원을 전하는 위대한 활동에 그분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분의 탄생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세기를 통해 어떻게 재현되는지 살펴봅시다. 하나의 별이 동방에서 이방인들을

4. 마태 2,1-12.

5. 이사 6,8 참조.

6. 요한 1,1.

7. 요한 19,30.

불러내었습니다. 모두가 이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부류, 선택받은 부류가 응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고상하며 높은 열망, 드높은 지성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에게서 왔고 그분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인생이 한 가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 하느님을 인식하는 것, |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것과 그분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의 유산을 함께 나누는 자녀들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것입니다 *Coheredes autem Christi*.”⁸

그러나 응답하지 않는 부류도 있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들의 임금이 태어났다고 하자 온 예루살렘이 헤로데 임금과 함께 혼란에 빠졌습니다. 헤로데는 처음부터 미래의 경쟁자가 생길 가능성을 어떻게 없애버릴지 궁리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위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유대인들의 임금이 태어난 장소를 알아내려 했습니다. 임금이 백성,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 모두 메시아가 태어나는 시기와 베들레헴에서 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는 것과 인식한다는 것 사이의 거대한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는 것이요, 인식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학문과 신앙 사이에 어떤 심연이 놓여 있습니까!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신앙의 성장은 기도를 통해 얻어지듯이, 기도를 통해 얻어지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토론을 할 수 있고, 지혜롭게 논의할 수 있지만, 머리를 숙이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8. 로마 8,17.

동방 박사들은 오로지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을 찾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자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느님께서 올바른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아가기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별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영혼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 아기가 되신 천상 스승께서는 우리의 선물을 기다리십니다. 가장 큰 신앙의 해를 그분께 봉헌합시다. 곧 예수님을 잘 알고, 활동을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면서 당신의 말씀을 믿는 해를 봉헌합시다.

지성의 황금, 곧 생각을 깨어 지켜야 합니다. 금년에 우리는 생각을 성화해야 합니다. 언제나 먼저 생각을 성찰해야 합니다. 언젠가 하늘에서 그분을 관상할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지성을 봉헌합시다.

동방 박사들과 함께 유향을 봉헌합시다. “저의 기도 당신 면전의 분향으로 여기소서 *Dirigatur, Domine, oratio mea, sicut incensum in conspectu tuo*.”⁹ 금년에는 신심에 주력합시다. 특히 성체조배와 우리를 예수님의 면전에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해주는 고해성사를 자주 하도록 하여, 감실을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과 조금이라도 닮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신심 깊고, 겸손하고, 신뢰에 찬 기도를 드립시다.

동방 박사들과 함께 극기를 의미하는 몰약을 봉헌합시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을 극기해야 합니다. 내적인 것만 아니라 외적인 감각을 극기해야 합니다. 어떠한 극기입니까? 무엇보다 교리를 잘 연구해야 하고, 가르침 받는 모든 것에 주의를 집중해야 하고, 수업을 잘 받아야 합니다. 어떤 극기를 해야 합니까?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영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결심을

9. 시편 141,2.

봉헌합시다. 아기는 팔을 활짝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동작은 그 자체로 마치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듯합니다. 곧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Venite ad me omnes.”¹⁰ 우리의 선물을 받기 위하여 당신의 작은 팔을 펼치십시오. 우리의 선물은 지성의 봉헌, 마음의 봉헌, 육신의 봉헌, 의지의 봉헌 그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팔을 펼치신 것처럼, 성 바오로께서 말씀하시듯 십자가에서도 팔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복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백성에게 나는 온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Totā die expandi manus meas ad populum, non credentem.”¹¹

17 그러나 우리는 성 바오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 신앙의 선물과 함께 “... 순종시키시고 ... captivitatem intellectum”¹² 모든 인류를 그분 주변으로 모으시도록 아기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천상 스승께 봉헌된 해를 위하여 우리의 결심을 [드립니다.] 곧 황금 = 지성, 유향=기도, 몰약=극기, 확고한 결심을 드립니다.

그리고 천상 스승께 아름다운 찬미가를 드리며 마무리합시다. “O Via, Vita, Veritas ...”

오늘날 인류가 교회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교회의 신심 깊은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0. 참조 : 마태 11,28; AD 15.

11. 로마 10,21 참조.

12. 2코린 10,5 참조: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

3. 중개자요 은총의 분배자이신 마리아¹

18

영화 사도직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출판 사도직이 이미 충분히 발전하였고, 출판물의 보급량이 줄어드는가 하면 영화 보급, 영화 활성화, 곧 제작물과 관객수가 점차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쉽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화 제작자들, 기술자들, 관객들이 젊은이들의 교육과 사회 각 계층에 관해 영화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의식하면서 활동하도록 지향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마리아께 우리의 눈길을 돌려 중개자요 은총의 분배자이신 그분께 기도드립니다.²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직무는 마리아께서 은총의 중개자이시라는 오직 한 가지 사실을 형성할 정도로 확실한 측면으로 융합됩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우리의 중개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³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절대적인 중개자이시라면, 마리아께서는 중개자이신 예수님께 일치되고 종속된 중개자이십니다.

중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개는 불화상태에 있는 둘의 화합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 한쪽에는 상처 입으신 하느님이 계시고, 다른 쪽에는 하느님께 상처를 입힌 죄 많은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한 가운데 자리를 잡으십니다. 중개자는 상처 받으신 분

1. 로마 사도의 모후 성당의 지하 경당에서 행한 묵상, 1955년 1월 13일.

2. 알베리오네 신부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은총의 보편적 중개자 마리아의 교의에 관한 정의”에 대한 제안을 제출하였다. Damiano A.,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기여한 알베리오네 신부 Don Alberione al Concilio Vaticano II」, ed. EAS, Roma 1994, nn. 9, 10, 83 이하, 87 이하 참조. 「교회에 관한 교의 현장: 인류의 빛」, 8장 62항 참조.

3. 1티모 2,5 참조.

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져야 하고, 다른 한편 상처를 가한 이에게도 기꺼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상처 받으신 분에게 기꺼이 받아들여지셨는데, 그 상처 받으신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느님이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의 두 번째 위격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신성과 인성을 결합시키셨으므로 우리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의 두 번째 위격, 유일한 인격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도 하느님께서 기꺼워하시고 인간 편에서도 기꺼워하는 분이시기에 그분 또한 중개자이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므로 하느님께서 기꺼워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본성을 지니셨지만 유일한 위격이심을 이미 우리가 숙고했던 바로 그 이유에서 성모님은 하느님 아드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다른 한편 마리아께서는 인간 피조물로서, 당신 아드님께서는 그분을 어머니로서 기꺼워하시고, 성모 마리아를 사랑하고 자신들의 어머니로, 영적인 어머니로 공경하는 사람들도 그분을 기꺼워합니다. 그뿐 아니라 마리아께서는 큰 영향력을 지니십니다. 어떤 면에서 성자의 공덕이 그분께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자의 공덕이 다음과 같은 사실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곧 그분은 인간으로서 공덕을 쌓으셨고, 하느님으로서 당신 공덕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께서는 큰 힘을 지니십니다. 예수님께서 은총의 샘이시라면, 마리아께서는 거기에 참여하시며 충만함을, 당신의 성성을 통한 충만함을, 우리에게 은총을 분배하시기 위한 충만함을 지니고 계십니다.

교황 비오 10세는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성자의 고통에 동참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통해 얻으

4. 주세페 사르토(Giuseppe Sarto, 1835-1914)는 리에세 트레비소 주에서 태어났으며, 1903년 교황에 선출되었다.

신 은총을 사람들에게 분배하시는 공덕을 쌓으셨습니다.”⁵

마리아의 중개 역할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곧 그분은 구원에 대한 당신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 이러한 당신의 고통을 20 통해 하느님께 상처를 입힌 인간과 하느님을 화해하도록 공헌하셨고, 다른 한편 인간들을 위한 은총을 쌓기 위해 봉사하셨습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하느님의 뜻은 모든 은총이 마리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내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⁶ 그러므로 우리는 5월 31일을 중개자요 은총의 분배자이신 마리아의 축일로 지냅니다. 이것이 교회가 지닌 감성이요, 신학자들의 가르침이요, 마리아께 많은 신뢰를 두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교 백성의 생각입니다.

마리아를 은총의 분배자라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이유를 들어봅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총, 곧 은총의 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모든 은총은, 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모든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인류에게 주고자 하신 그 모든 선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은총

5. 회칙 *Ad diem illum*, 1904년 2월 2일, Acta, vol. 1, pp. 147-166, in 「회칙 연감 *Enchiridion delle Encicliche*」, vol. 4, EDB - 1998, n. 26 참조.

6. 빈첸조 조아키노 데이 콘티 페치(Vincenzo Gioacchino dei conti Pecci, 1810-1903)는 1878년 교황에 선출되었다. 사회적 성격을 띤 회칙과 수덕신학 및 마리아론에 관한 많은 회칙을 선포하였다. 13개에 달하는 회칙에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에 대하여 할애하였고, 당대의 중대한 문제들에 직면하기 위한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회칙 「항상 기뻐하라. 마리아의 묵주기도 *Incunda semper. Il rosario mariano*」, 1894년 9월 8일, Acta, vol. XIV, pp. 305-316, in 「회칙 연감 *Enchiridion delle Encicliche*」, vol. 3, EDB - 1999, n. 1192 참조.

자체가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둘째, 마리아께서는 곧바로 은총의 중개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탄생 예고 이후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길을 떠나셨고, 도착한 다음 당신의 신적 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례자를 성화시키셨습니다.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Exultavit in gaudio infans in utero meo.*”⁷ 또한 마리아께서는 모든 은총을 얻을 수 있는 힘이 하느님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구나 *Vinum non habent.*”⁸라는 마리아의 요청에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⁹라는 말씀은 부정적인 대답을 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마리아께서는 그 때를 알리셨으며, 기적을 얻어내셨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¹⁰ 그러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첫 표징이며, 이 표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이층 다락방에서 그분께서 사도들을 | 기도로 이끄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셨으며,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수세기를 거쳐 모든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교회 생활과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리아께서는 은총의 분배자이시다.’라고 말할 때 통상적으로 그것은 마리아께서 당신의 승천 *assunzione*¹¹ 이후에 하늘에서 이루시는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천국의 성자 곁에 계신 마리아께서는 은총을 받아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은총의 분배자이신 것입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7. 루카 1,44.

8. 요한 2,3.

9. 요한 2,4.

10. 요한 2,5.

11. 원본에는 *ascensione*로 되어 있다.

것이 있다면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십시오. 하느님의 뜻은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전해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¹² 그와 같이 성사에서 받는 은총, 주님께서 특별히 모든 인간에게 나누어주시는 은총, 교회에 허락된 은총은 마리아의 손을 통하여 인류에게 전해집니다.

은총이란 무엇입니까? 은총은 그 자체로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이 은총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성화되고, 하느님의 딸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공덕을 쌓는 능력을 갖게 되고, 하느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모든 죄의 용서, 모든 은총의 증가를 우리는 마리아의 손에서 받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성화 은총 외에 여러 가지 현행 은총이 있습니다. (역주: 현행 은총 *gratia actualis*은 12가지로 분류되는데 상존 은총 *gratia habitualis*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유혹을 물리치고 싶습니까? 마리아께 전구를 청하면 유혹을 물리칠 힘을 가지게 됩니다. 물질적인 은총을 얻고 싶습니까? 하느님의 뜻이라면,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도 나누어주십니다. 성성을 원합니까? 우리가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신앙과 인내로 청한다면 마리아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지금뿐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기를 청합시다. 그래서 단테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은총을 바라면서 마리아의 전구를 청하지 않는 자는 마치 | 날개 없이 날기를 22 바라며, 날기를 시도하는 것과 같다.”¹³

우리는 가끔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자주 그분을 불쾌하게 하고, 그분을 상심케 하곤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어

12.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도(1090-1153)는 시토회 수도자이다. 정치와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 초청되어 문제 해결에 공헌하였다. 영성의 선구자로서 강론과 서간 그리고 다양한 글을 집필하였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동정녀 마리아에 대한 애정 어린 신심을 발전시켰다. S. Bernardo, 「성모 마리아 탄생 축일에 *Nella natività di Maria*」, n. 7, in SBO, V 참조.

13. 단테 알레기에리, 「신곡-천국편」, 33편 13행.

편 불신이 스며들어 우리의 죄를 떠올리며 예수님께서 심판관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께서는 사람들을 결코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어머니께 다가갑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상처 받으시고 언짢아하신 하늘에 계신 성부와 우리를 화해시키고, 우리를 은총 상태로 회복시켜주실 것입니다. 고해성사 전에 각자는 적어도 한 번 ‘성모 찬송 *Salve Regina*’을 바쳐야 합니다. “...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그뿐 아니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아신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갑니다. 선한 어머니는 늘 당신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십니다. 또한 가장 허약하고, 가장 작고, 병들거나 길 잃고 방황하는 자녀들을 더 많이 생각하십니다. 어떤 성인은 그분을 ‘천국의 친절할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께서는 늘 당신의 눈길을 우리 각자에게 두시고, 우리 각자를 생각하시며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은총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화에 관한 은총, 우리 성소의 응답에 관한 은총, 사도직에 관한 은총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겸손과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확실하게 은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물질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의 더 큰 선을 위해서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주십니다. |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마리아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확실히 보장받을 것입니다. 그러한 특별한 요청이 하느님의 뜻에 미치지 못할 때 마리아께서는 더 중요한 다른 은총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우리의 요청을 저버리지 않으시며, 오히려 바꾸시고 향상시키십니다. 아, 마리아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당신 우러러...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¹⁴ 깊은 신뢰로 어머니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낙심한 영혼들이여, 마리아를 향하십시오! 여러분의 보잘 것 없음 통감하는 죄인들이여, 마리아께 몸을 돌리십시오! 의혹에서, 유혹에서, 매일 만나는 어려움에서, 불신에서 언제나 마리아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좋은 어머니, 자신을 생각해 주는 어머니가 있다고 확신하는 연약한 어린아이처럼 기회가 될 때마다 마리아를 부르고, 마리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¹⁵

14. ‘*Maria, mater gratiae, mater misericordiae!*’ ‘*Ad te suspiramus gementes et fluentes in hac lacrimarum valle.*’

15. 창립자의 권고는 성 베르나르도에게서 영감 받은 것이다. S. Bernardo, “*Lode della Vergine Madre*”(동정 성모님에 대한 찬미), 「강론 2」, n. 17, in SBO, IV 참조.

4. 마에스트로 자카르도 7주기¹

오늘 묵상은 마에스트로 자카르도 신부님의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강론 후에 그분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얻기 위하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지녀야 할 열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생은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입니다. 마치 학업기간이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처럼, 우리도 삶에서 마지막 시험, 다른 모든 시험을 종결하는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 시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셨기에 틀림없는 정확성과 정의에 따라 상급이나 징벌을 주시는 분 앞에서 행해지는 가장 참된 시험입니다. 판결이 이루어지자마자 그에 대한 상급이나 징벌이 곧바로 실행됩니다.

우리의 삶은 천상 스승 안에서 행하는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영원한 직관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성의 준비입니다.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facie ad faciem*”² 볼 것입니다.

의지의 준비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완수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제가 받을 몫이며, 제가 마실 잔이신 주님, 당신께서 저의 제비를 쥐고 계십니다 *Dominus pars haereditatis meae et calicis mei*.”³ 만일 우리가 하느님을 우리의 으뜸가는 사

1. 로마에서 바오로 가족을 대상으로 행한 묵상, 1955년 1월 24일.

2. 1코린 13,12 참조.

3. 시편 16,5.

랑으로 선택한다면 우리가 받을 상속도 하느님이 될 것입니다. | 그분은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받으실 분이시며, 최고 선이시요 영원한 행복이십니다.

마음의 준비입니다. 우리의 감성은 천상 스승의 감성이어야 합니다. “와서 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나누어라 *Intra in gaudium Domini tui*.”⁴ 우리의 감성을 예수님의 마음에 일치시켜야 하며,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지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하고, 그분께, 그분의 공덕에 의지해야 합니다.

육신의 준비입니다. 동정을 지킨 이들은 복됩니다! 시각, 청각, 미각과 촉각을 순결하게 지킨 이들은 복됩니다! 또한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이들이 복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Quam speciosi pedes evangelizantium pacem, evangelizantium bona!*”⁵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노고는 얼마나 귀중합니까! 성 바오로께서 성 티모테오에게 일깨워주신 권고를 기억하십시오.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십시오 *Opus fac evangelistae*.”⁶

마에스트로 자카르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멀어지는 그만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청빈과 완전한 순명과 정결을 꾀안고 사는 그만큼 우리는 하느님을 향해 더 자유롭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아직 지상에 발을 고정시키고 있는 사람, 곧 지상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향해 날 수 없습니다. 애착에서 벗어나야 영혼이 날개를 펼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높은 곳을 목표로 삼을 때 한 마리의 독수리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집착 단계에 있다 하더라도 첫 날개를 활짝 펼쳐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처럼 될 수

4. 마태 25,21.

5. 로마 10,15

6. 2티모 4,5 참조.

있습니다. “네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로워지는구나Renovabitur ut aquilae iuventus tua.”⁷

마에스트로 자카르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성을 신적인 것에
26 고정시키는 만큼, | 더 많은 믿음을 가지는 만큼,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완수하는 데 헌신하는 만큼, 더 내밀하게 기도하는 만큼, 자신의 육신을 지배하고 다스릴 줄 아는 만큼 천국은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모든 집착을 끊어버리고, “자신을 버리고abneget semetipsum”,⁸ 지성을 주님께로 향하여 많은 기도를 바치는 수도자보다 아름다운 천국을 얻는 데 적합한 조건에 있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수도자는 주어진 일에서만 하느님의 뜻을 수행할 뿐 아니라 권고 받은 일에서도 하느님의 뜻을 이룹니다. 수도자는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러자 아직 신학생이었던 자카르도 신부님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들은 대로 지상의 것은 결코 바라지 않고, 하늘나라 천국만을 바라도록 결심을 세워야겠습니다.”

우리 또한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봉헌합시다. 하늘에 계신 천상 스승을 관상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한 지복직관에서 우리의 공덕이 얼마나 큰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많이 일할수록 나의 상급도 더욱 클 것입니다 Quantum graviora pertulero, tantum maiora percipiam.”⁹ 매일 노력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마음속에 참으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결코 게으르지 않고,

7. 시편 103,5.

8. 마태 16,24.

9. 「순교자전Atti dei Martiri」, Paoline, Milano 1996, p. 108 참조: “내가 겪어야 할 고통이 클수록 내가 받을 상도 클 것입니다.”

무기력하지 않으며, 무관심하지 않고, 냉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관을 얻기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우리는 저 높은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을 기억합시다. 그들은 아직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좋은 모범을 떠올리며 좋은 결심을 세웁시다. 우리는 천국에서 큰 수도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수도회는 죽음으로 해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
27 다.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이오니Vita mutatur, non tollitur...”¹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수도회는 영원합니다.

결심을 지키고 늘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을 지니기 위해 우리는 계약의 마음cuore di Patto을 기도로 바쳐야 합니다.¹¹

10. 위령미사의 감사송 참조.

11. ‘성공의 비결」 「마오로 가족 기도서」 237-238쪽.

5. 수도복 착용¹

착복 예식은 특히 세 가지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곧 착복식을 통하여 [성바오로]딸들에게 수도복과 베일, 허리띠, 묵주corona del rosario가 건네집니다.

1. 베일. 천상 스승께서는 당신의 이 딸들을 당신께로 부르시어 이들의 생각이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며, 이들의 지성이 하느님께만 향하고, 그분의 의지에 관련한 것들을 향하여 오직 그분과 그분의 봉사에만 몰두하고, 삶의 본분에 집중하기를 바라십니다. 지성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베일은 결코 다른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방해받지 않도록 거룩한 생각을 어지럽힐 수 있는 일이나 눈길을 사방에 분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리아처럼 되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Omnia verba haec conferens in corde suo.”²

그러므로 지성을 집중해야 합니다. 생각이 그곳으로만 모아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다른 일들을 자유롭게 생각하였지만, 이제 수도생활을, 생각이 하느님을 향하도록, 하느님께 올라가도록 요청하는 삶을 받아안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 하느님 봉사에 대한 생각만 해야 합니다. 곧 지성을 통하여 하느님께 대한 봉사에만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상 스승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그분은 당신과의 사이에 다른 존재가 끼어들기를 바라지 않으시는 연인이십니다. | 여러분과 직접적

1. 로마 사도의 모후 성당의 지하 경당에서 행한 묵상, 1955년 1월 25일.

2. 루카 2,19.

으로 관계 맺기를 바라시며, 여러분의 생각이 당신의 가르침, 곧 복음에 일치하기를 열렬히 바라십니다.

2. 수도복과 허리띠는 여러분의 육신을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외적으로도 여러분은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느님께 봉헌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하고, 사람들 가운데 구원사업에 협력하신 마리아를 본받으려는 현명한 자들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명, 힘, 육신 자체가 주님께 봉헌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거룩하게 순명해야 하는 의무, 수도회에서 여러분에게 맡긴 모든 직무에 성실해야 할 매일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원에 든 다음 여러분에게 입히게 될 수도복, 곧 여러분의 시신에 입히게 될 그 수도복은 여러분이 온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위해 소모되었다는 증거품이 되어줄 것입니다.

3. 이러한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묵주는 기쁨의 신비를 떠올리며, 공동체 안에서 덕성, 특히 개인의 덕성을 기억시킵니다. 묵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상기시키며 고통의 사도직을 상기시킵니다. 묵주는 영광의 신비 곧 하늘나라를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저 높은 곳을 [향해야 하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은 새벽별이신 성모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도자는 하나의 별이시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성소를 통하여 여러분을 영예롭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드려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하십시오Ut sciat semper orare.”³ 수도복과 묵주를 여러분에게 건네줄 때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3. 에페 6,18 참조.

오. 그러면 계속해서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과 같고, 유입과 분출을 중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헐적으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해야 합니다Ut sciat semper orare.” 천상 스승께서 말씀하십니다. |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Oportet semper orare et numquam deficere.”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입니다.

30 orare.” 천상 스승께서 말씀하십니다. |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Oportet semper orare et numquam deficere.”⁴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것입니다.

착복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곧 지성을 하느님과 그분을 위한 봉사에 들 것, 매일의 의무와 사도직 안에서 힘과 생명을 하느님을 위하여 소모할 것, 그러나 늘 기도의 도움과 함께여야 합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느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아버지 성 바오로의 전구와 함께, 우리 어머니 사도의 모후께 특별한 방식으로 드리는 열렬한 기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는 여러분을 위로하고, 모든 위험에서, 모든 죄와 지옥에서 여러분을 구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에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 배로 받을 것이고, ...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et vitam aeternam possidebitis.”⁵ 이 백 배가 여러분을 세속인들과 구별해 준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어떤 성인의 아름다운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시로 주어진 말씀입니다. 물론 성인도 중요한 인물이지만, 바로 하느님의 계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 여러분을 교육한 본당, 여러분의 고향, 여러분을 양성시키고 이 행복한 날을 준비해준 사람들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간구합니다.

4. 루카 18,1 참조.

5. 마태 19,29.

6. 성 바오로의 회심'

31

오늘, 성 바오로의 회심 축일에 우리가 청해야 할 회심이 어떤 것인지 살펴봅시다. [성 바오로께 바치는] 주간기도 1번에서 우리는 ‘주요 결점에서의 회개’를 청하는 기도를 바칩니다.

본기도: 오늘, 성 바오로 회심 축일 미사의 ‘본기도’ 마지막 부분은 우리에게 아주 적합한 표현입니다. “이 구원의 신비로 거룩하게 되어 (미사와 영성체, 구원의 신비 안에서 성화된다는 것을 의미함), 오 주님, 당신께 기도드리오니 저희에게 주보로 맡겨주신 분(성 바오로)의 전구가 풍성하게 하소서.”(역주: 현재의 본기도는 원문의 내용과 많이 다름. “하느님, 복된 바오로 사도를 통하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으니, 오늘 그의 회심을 경축하는 저희가 그의 모범을 따라 진리의 증인이 되고, 언제나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오늘, 온 교회가 이러한 청원기도를 되풀이하는데, 특히 우리는 이 청원기도를 더 많이 바쳐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을 거행합니다. 일 년 중 유일하게 거행되는 회심 축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모든 회개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회개, 근본적인 회개의 표본입니다. 둘째, 모든 회개는 은총의 내적 기적이지만 외적인 기적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셋째, 스승 예수님께서 당신을 대적하던 자를 간택하시어 당신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셨을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이보다 더 많은 일을 한 사도가 되게 하심으로써 교회 안에 큰 선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² 많은 경우 하느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1. 로마 사도의 모후 성당 지하 경당에서 바오로 가족 대상으로 행한 묵상, 1955년 1월 25일.

2. 1코린 15,10 참조.

사람이 은총을 입어 가장 열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때때로 적대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사랑, 선, 진리의 가장 위대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입당송: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입당송'에 나오는 표현은 언제나 깊은 인상을 줍니다.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 잘 알고 있으며, 또
32 | 내가 맡은 것을 의로운 심판관이신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 주시리라고 확신하노라.”³ 하느님을 신뢰하고, 선과 상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임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의로운 심판관은 그가 행하는 모든 선행을 눈여겨보십니다. 생명의 책을 선행으로 채워나가는 사람은 복됩니다. 반대로 그 책을 공백으로 남겨두거나 온통 검정색으로 채우는 사람은...어두운 모든 말, 어둡게 만드는 것들을 벗어버립시다. 하느님을 신뢰합시다. 많은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독서: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를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⁴

사울은 이미 성 스테파노의 순교에도 가담한 자로서 모세 율법에 대해 대단히 열성적인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공생활 동안 눈에 띄게 당신을 드러내시며 설파하신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의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Per revelationem Jesu Christi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⁵ 당시에 극단적으로 율법에 열성적이던 사울은 스테파노의 죽음에 가담한 다음 다마스쿠스의 회당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들을 감옥으로 데려갈 권한을 요청하였습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 사울이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33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 줄 것이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 수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에 하나니아스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주님.’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곧은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하나니아스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였는지 제가 많은 이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은 모두 결박할 권한을 수석 사제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 주겠다.’ 그리하여 하나니아스는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나서 말하였다. ‘사울 형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곧 당신이

3. 2티모 1,12 참조.

4. 사도 9,1-2.

5. 갈라 1,12 참조.

이리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모
 34 두 놀라며, ‘저 사람은 |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른 자들을 짓밟은 자가 아닌가? 또 바로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수석 사제들에게 끌어가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차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다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⁶

우리가 제대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때 제대에 있는 성화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 성화는 다마스쿠스에서 하나니아스를 통하여 세례받는 성 바오로의 세례 장면인데 그 그림을 보는 모든 이가 매일 조금씩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ricevessimo⁷ 같이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구원의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키소서Converte nos, Deus salutaris noster.”⁸ 매일 조금씩 회개해야 합니다.

성 바오로의 회심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느끼십니까? 이전에 예수님의 적대자 사울인 성 바오로는 그분의 삶을 그대로 살 정도로 그분과 친밀한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Vivit vero in me Christus.”⁹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굶주림입니까? 목마름입니까?Quis ergo nos separabit a caritate Christi? Tribulatio, an angustia,

6. 사도 9,3-22.

7. 원본에는 ‘abbiamo’(가질 수 있도록)로 되어 있다.

8. 시편 85,5.

9. 갈라 2,20.

an fame, an sitis?”¹⁰ “나는 확신합니다Certus sum, 그 어떤 것도, 죽음도, 삶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¹¹ 이 말 씀처럼 삶도 죽음도 그분을 떼어놓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수해야 할 고통도, 성화시켰던 감옥도, 몸에 지녔던 쇠사슬도, 위협했던 난파도, 논쟁도, 채찍질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Certus sum!” 성 바오로는 하느님의 은총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분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성 바오로께서 극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드러내신 장소¹² 가까이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¹³ 여기서 이방인의 사도로 간택된 그분은 복음을 위하여 온 힘을 쏟은 다음 당신의 피를 흘리셨고, 온 세상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로 그분은 소명에 따라, 그분에게 주어진 성소에 따라 활동하셨습니다. “그는 | 다른 민족들과(이방인의 사도) 임
 35 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소명).”¹⁴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인들은 그분의 설교를 받아들였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간은 그분의 동포들에 대한 사랑의 기념비로 남아 있습니다.

10. 로마 8,35 참조.

11. 로마 8,38-39 참조.

12. 성 바오로가 참수로 순교한 장소인 로마의 아퀘 살비에(Acque Salvie), 오늘의 트레 폰타네(Tre Fontane)이다. 사도의 육신은 오늘날 성 밖의 성 바오로 성당(basilica di San Paolo Fuori le Mura)이 세워진 오스티엔세 가(Via Ostiense)에 묻혔다. 중앙제대 아래에 성 바오로의 무덤을 볼 수 있는데 연대는 4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어서 2006년 12월에 이루어진 발굴로 세상에서 빛을 보게 되었다. 그 무덤이 성 바오로의 진짜 무덤이라고 증언한 것은 비석판 위에 금속으로 새긴 ‘바오로 사도 순교자’라는 글자로 입증된다.

13. 요한 15,13.

14. 사도 9,15 참조.

전적인 회심이 필요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박하고 죽음으로 몰아넣기를 바랐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여 많은 기적을 행하던 스테파노를 돌로 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반대하는 적대자들을 부추겼고 극도로 광분하였지만, 지칠 줄 모르는 사도, 가장 열성적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림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마치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Quis me separabit a caritate Christi?”라고 말하듯이 가슴에 손을 얹고 계십니다. 동시에 “누가 아프면 나도 같이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고통을 겪으면 내 위로를 전해 주고 내 마음속으로 그와 함께 고통을 겪지 않겠습니까?”¹⁵라고 말하는 듯이 보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의 필요성을 느끼고, 모든 이의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 그분께서 지금 살아계시다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하여 어떤 매체를 가지고 세상의 곳곳으로 종횡무진하시겠습니까!

전적인 회심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성의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양심성찰이 먼저 지성에 관해, 마음에 관해, 삶에 관해, 그런 다음 육신에 관해 [행해져야] 합니다. 먼저 겸손한 생각을 지니지 않는다면 누가 겸손해질 수 있겠습니까? 수없이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는 사람들 중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고, 존경과 사랑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지만 머리를 숙이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신앙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교만한 자들의 장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죄인이므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시시오.”라며 예수님 앞에 몸을 깊이 굽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장래를 무릎을 꿇습니다! 외적으로도 가끔 신앙이 없다는 것을

36 드러냅니다 | 성급하게 신속히 해치우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감

15. 2코린 11,29 참조.

성이 부족하고, ‘나를 낮추는’ 것도 부족합니다.

내면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곧 생각을 바꾸어야 하고, 감성을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¹⁶ 교황 비오 10세처럼 성 베드로의 자리에 앉았지만 늘 리에세 Riese의¹⁷ 겸손한 아들로 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오만과 질투로 가득 찬 석탄 광부나 양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잔의 곁만 닦지 말고 안을 닦읍시다. 그러므로 회개는 지성과 마음에서 시작하여 외적인 회개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 조언을 구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합니다.

가장 부족한 것은 기도의 이니셔티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힘들게 기도에 임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점에 머물고 싶습니다. 기도의 이니셔티브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니셔티브라는 것은 내적으로 겸손하며, 하느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충고와 열망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주님 자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손을 뻗어주시길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언제 기도의 이니셔티브가 있습니까? 아침에 서둘러 성당에 갈 준비를 할 때,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이어서 신심실천을 늦추지 않고 미리 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도직 중에 짧은 화살기도를 바치고, 성당에 가기 위해 계단을 오르면서 벌써 기도를 시작합니다. 또한 자연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긴 여행을 할 때뿐 아니라, 길을 가면서

16. 마태 11,29.

17. 리에세는 교황 비오 10세의 출생지로, 트레비소(Treviso) 지방의 베네토 평원에 위치한다.

37 도 짧은 화살기도를 바칩니다. | 이니셔티브! 먼저 기도하려는 이니셔티브가 없을 때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도는 쉽게 지치는 외적 실천 행위로 변하게 되며, 기도를 짧은 한 순간으로 줄이고자 애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하나님 아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곧은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르수스 사람을 찾아라.” 그리고 무엇으로 알아보니까? 그분께서 세례의 은총을 받도록 배려하시며 제자로 삼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점을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다.” 어떻게 소명이 생기는지, 어떻게 하느님의 축복이 삶 위에 주어지는지, 어떻게 성성에 이르게 되는지 보십시오. 우리의 부족함을 위하여 겸손해야 하지만, 우리의 실책이 무엇이든 우리가 기도한다면 재기할 수 있고, 더 높은 곳인 사도직을 향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교만, 질투, 탐욕, 욕욕, 태만, 호기심에서 회개의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회심해야 합니다. 오늘날 어떤 식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까? 오늘 아침 영성체 후에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결심을 드렸습니까? 최근 고해성사에서 무슨 약속을 하였습니까? 적어도 매주 조금씩 회개하도록 합시다. 고해성사가 회심이 못된다면, 아마도 필요한 마음자세가 부족함을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잘 시작하기 위하여, 그리고 아직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결점을 고치기 위하여, 주간을 잘 시작하기 위하여 고해성사에 충실하기로 약속하며, 더 향상되고 변화되고자 함으로써 필요한 마음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성 바오로께 청합시다.

7. 기도¹

[1] 기도의 필요성

이 월피정 동안 기도할 줄 아는 은총을 예수님께 청합시다. 다시 말해서 기도에서 열정적인 정신, 정신집중과 의지의 노력을 길어낼 줄 아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어느 날 사도들이 기도의 스승이신 천상 스승께 다가가 다음과 같이 청했습니다. “주님,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² 그리고 가장 단순한 기도, 모든 기도의 모델이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말씀드려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한 문장조차 말할 수 없을 때 ‘주님의 기도’를 떠올립시다. 이 피정 동안 더 많이 기도하고, 특히 더 잘 기도할 수 있고, 겸손과 신앙의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참된 정신으로 이제 다 같이 주님의 기도를 바칩시다.

지난 번 묵상에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의 이니셔티브를 가지는 것, 곧 열정적으로, 그리고 기도 시간을 더 빨리 앞당기고, 어디에서든 짧게나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Oportet semper*

1. 로마 사도의 모후 성당의 지하 경당에서 바오로 가족 대상의 월피정 때 행한 두 차례의 묵상, 1955년 1월 29-30일. 이 묵상은 녹음되었다: A6/an 12a ac 21a; A6/an 12a ac 21b. 그리고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묵상, 1955년 1-12월」 Edizioni Paoline, Roma 1958에 출판되었다. 이 출판본을 원본으로 여긴다.

2. 루카 11,1-4.

39 orare | numquam deficere.³”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하며, 결코 기도를 멀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나이다.” 하는 기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기도 없이는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는 수도성소에 상응할 수 없고, 나 혼자서는 구원될 수 없습니다. 결코 기도하지 않는 터키인이라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힘, 본성에 의해 주어지는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종합적인 영적 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서는 어떠한 공로도 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결코 불가능합니다. 나 혼자서는 성소에 응답할 수 없습니다. 길에서 어떻게 대항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많은 적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도움 없이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면 삶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Melius erat si natus non fuisset homo.*”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삶의 가장 큰 목적, 곧 천국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불을 준비하느라, “꺼지지 않는 불 *ignis non extinguitur*”을⁵ 지피기 위해 장작을 모으느라 지상에서 일정 기간을 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보다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받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합니다.”⁶

3. 루카 18,1 참조.

4. 마태 26,24.

5. 마르 9,43 참조.

6. 알폰소 데 리구오리(1696-1787)는 교회 박사이며, 윤리와 영성서 저술가, 구속주회 창립자이다. 「기도의 위대한 수단 *Del gran mezzo della preghiera*», I, 1 참조.

삶은 영원한 행복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해 우리 지성, 우리 마음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의 지성을 하나님께 들어 올려야 하고,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들어 올려야 합니다. 기도는 면학을 위해, 마귀를 이기기 위해, 위협스러운 기회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은총을 주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유혹받도록 허락하지 마시고, 또는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당신 은총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 다시 말해서 모든 악행에서 그리고 영원한 타락이 될 미래의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⁷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필요성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떠올립니다. 1) 죄를 피하기 위하여, 2) 선을 행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상에서 행해야 할 것,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입니다.

1) 죄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원수들에게 어떻게 둘러싸여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희생제물을 찾으려 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육신이나 피를 통한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 대항하는 싸움입니다. 어둠의 때는 때때로 갑작스럽게 닥치기도 하고, 어둠이 영혼 안에 짙게 깔립니다. 거의 모든 것이 가라앉는 듯 여겨지는 날들이 계속되거나 악의 함정에 빠져들게 됩니다. 떨쳐버릴 수 없는 냉혹함, 사라지지 않는 유혹, 마귀의 완고함 등.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 피와 생명을 바

7. 마태 6,12-13 참조.

친 영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떼어놓으려 애를 씁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세상에서 유혹이 다가옵니다. 사람들 가운데 많은 희생자들이 생깁니다. 다른 이들의 견해에 휘말려 노예처럼 악을 행하고, 선을 수치스러운 일로 만들어 버리며, 용기도 없고 성실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은 완전히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 세상은 악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Mundus totus in maligno positus est.”⁸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서적들, 일반 출판물 또는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방송뿐만 아니라 나쁜 모범들이 즐비합니다. | 많은 경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가족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에도 나쁜 본보기가 널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 바오로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의 무기를⁹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기가 바로 묵주요, 기도요, 끊임 없이 하느님께 청하는 도움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곧 세 가지 탐욕과 인색, 교만, 음욕, 지상 사물에 대한 집착, 타고난 오만 등이 많은 경우 감수성으로 드러나고, 어떤 때에는 육신의 태만이나 탐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 줄 수 있습니까Quis me liberabit de corpore mortis huius?”¹⁰ 성 바오로께서는 거룩한 사도이셨지만, 당신의 유혹에 대해 “그것이 나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세 번이나 청하였다Ter Dominum rogavi.”¹¹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유롭게 해주려 하지 않으시고 투쟁하기를, 더욱 거룩하게 되도록, 시험을 극복하기를

8. 1요한 5,19.

9. 에페 6,11 참조.

10. 로마 7,24.

11. 2코린 12,8.

바라셨습니다.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Sufficit tibi gratia mea.”¹² 그러므로 삼중의 기도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삼중의 유혹을 견디고, 싸울 힘을 얻고, 나아가 삼중의 화관을 획득하기 위한 것입니다.

은총이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악과 유혹이 우리를 덮치는 순간에, 그에 적합한 순간에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총의 권좌로 다가가십시오. 내일 미사의 전례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던 사도들이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배가 파도에 뒤덮이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지만 바람은 한층 거세어지고, 파도는 갈수록 위협적으로 덮쳐왔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다가가 그분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님, 구해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Salva nos, perimus.”¹³ 유혹에 처했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폭풍우에서 저희를 구해주십시오. 저희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시며 명령하시자 아주 고요해졌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하느님께 눈길을 들어 올리십시오. 동정녀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당신은 저의 구원이십니다!’ 특히 어머니에게 다가서는 길 외에는 다른 도움을 찾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날에 성모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확실하게 도움을 주십니다. 어머니께서는 곧바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시려 움직이십니다. 어느 거룩한 교부는 그의 생각에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Deus, in adiutorium meum intende!”¹⁴ 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12. 2코린 12,9.

13. 마태 8,25.

14. 시편 70,2.

저는 아주 훌륭했던 한 젊은이를 기억합니다. 신학과 2학년 때 그는 반에서 공부도 상위권이었지만 특히 신심에 대해서 그리고 덕성에 있어서도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그의 지성이 안개로 뒤덮인 것처럼 혼미해졌습니다. 그는 국방의 의무를 지켜야 했기에 군복무에 징집되었고, 그에게 우리가 작별인사를 하는 동안 교실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 시간부터 더는 기도할 수 없을 테니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 바랍니다.” 엄청난 과오입니다. 광장에서나 많은 동료들 사이에서나 그 [어느 곳에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 젊은이는 일 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것을 잃었을 뿐 아니라 성소도 잃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건강까지 해칠 정도로 나쁜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밀쳐놓으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2) 하느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성소를 따르고, 우리의 면학을 잘 하고, 덕을 닦고 천국에 도달하기 [위하여]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매 순간 주님께에서 빛을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강론을 듣거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러한 것이 영혼 안에 스며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은 |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마음속으로 듣고 이를 기쁘게 실천하고, 전력을 다해 권고와 제시된 길을 따르고, 결심을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난 할 수 없어’ 하고 말합니다만, ‘내가 과연 충분히 기도하였는가?’ 하고 자문해보아야 합니다.

신학교에 한 사랑스러운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심이 깊었지

만 지적인 면에서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9일 기도도와 3일 기도도 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시간 중에도 책상에 앉아 있는 모습에 얼마나 놀란 적이 많은지! 가끔 저녁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쉬는 동안에 책을 들고 다니며 수업내용을 암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학년말에 낙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해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보게나, 자네는 해낼 수 없는 것 같네, 길을 바꾸는 게 어떤가, 더는 희망을 가지지 말게.” 그 학생은 공부를 그만두도록 권고하던 스승에게 “그렇지만 저는 기도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철학과정 신학과정 동안 그 학생을 지켜 보았습니다. 군복무를 위해 떠났을 때, 그는 아직 포대기에 싸여 요람에 있던 성바오로수도회를 위해 목숨을 봉헌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사제가 되었고, 짧은 기간 사제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의 봉헌을 받아들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쓰러뜨린 병마는 아주 빨리 그를 무덤으로 인도하였지만, 그를 가르쳤던 스승들의 예상을 거슬러 그는 멋지게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1600년대 독일의 어느 십자가 아래 새겨진 말씀에 따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행합니다.” 만일 우리가 늘 똑같은 어려움 중에 있다면, 우리가 싸울 줄 모른다면, 우리가 깊이 설득해낼 수 없다면, 우리가 효과적인 결단을 내리고 확고한 결심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성소의 기쁨을 느낄 수 없고 우리의 것을 맛볼 수 없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되고자 했기에 불행합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곧 ‘기도는 | 살기 위한 음식처럼 44

필수적인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호흡처럼 필수적인 것입니다.’ ‘구원되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삶의 일정 기간 동안, 특히 청년기에, 우리에게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결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순간적인 무엇인가를 얻는다거나 인생의 한 기간이나 대부분의 기간을 보내며 어떤 성공을 이룬다고 해도,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구원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면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마귀를 이길 것이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매일 우리의 성소에 응답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¹⁵ “기도는 인간의 막강한 힘ियो, 하느님의 약함이다. 하느님께서는 기도하는 겸손한 영혼에게 굴복하시고 은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의 원천*Una sorgente di energia*」¹⁶이라는 저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하느님께서는 좋은 분이시고, 아주 좋으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대도 좋은 사람이고 좋은 점이 아주 많다. 그대의 선함을 열 배, 백 배, 천 배로 늘이면 엄청난 선함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느님에 대해서는 백만 배나 배가시킨다고 해도 그분의 선하심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렇듯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약속에 충실하십니다*Fidelis est Dominus.*”¹⁷ 당신의 약속은 바로 이것

15. 아우렐리오 아우구스티노(Aurelio Agostino, 354-430)는 오늘날 튀니스에 해당하는 타가스테(Tagaste)에서 태어났다. 히포의 주교요 교회 박사, 서방 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분이다.

16. C. M. de Heredia S.J.의 「힘의 원천」을 알베리오네 신부가 스페인어에서 번역했다. *Pia Societa San Paolo S.A.S, Roma* [1946].

17. 시편 145[144], 13 참조: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말씀에 충실하시다.”(불가타/대중라틴어성경)

입니다. 곧 기도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의 해를 보내도록 시도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결실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성 알폰소의 권고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이 조금 당혹스러울 때, 여러분이 많은 필요성에 처했을 때, 어디를 향해 도움을 청해야 할지 더는 알 수 없을 때, | 기도에 아무런 흥미도 **45** 끌 수 없을 때 ‘성모찬송*Salve Regina*’을 바치며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당신의 자비로우신 눈길로 우리를 굽어 살피시도록, 우리가 귀양살이하는 동안, 슬픔의 골짜기에 있는 동안 인자로운 눈으로 우리를 굽어보시도록 마리아께 기도드려, 마지막 날에 하늘나라에서 당신 품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관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양살이 끝날 그때 당신의 아드님 우리 주 예수를 뵈게 하소서.’”¹⁸

[2) 기도의 이니셔티브]

46

기도의 스승이신 예수님께 기도를 소홀히 한 죄, 고해성사를 소홀히 한 죄, 영성체에 대한 냉담이나 불경한 죄, 불완전한 묵상, 분심 속에서 행하는 성체조배, 시간이 갈수록 하느님 현존이나 그분에 대한 망각과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할 필요성을 외면한 죄에 대한 용서를 간청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불행합니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천상 스승께 당신의 명령을 완수하고 충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Vigilate, et orate ne intretis in tentationem.*”¹⁹ 가끔

18.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성체조배와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Visite al SS. Sacramento e a Maria SS.*」, 서론 참조.

씩 기도를 하늘에 계신 성부와와 달콤한 소통이라기보다, 영원히 하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할 대화를 미리 해보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의 짐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용서를 청합시다. 또한 가끔씩 그 기도가 무익하고 시간낭비라고 믿은 것에 대해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면학은 필요하고, 사도직은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것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 저러한 것을 읽는 것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잠자는 것도 필요하지만, 만일 목상을 건너뛰다면 기도를 가장 무익한 것으로

47 여긴다고 말하는 꼴이 될 수 있으며, 그래서 | 영적 영양분보다 육적 영양분에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미사에서 바치는 기도는 우리가 이미 목상했던 것에 대해 말해줍니다. “주님, 저희가 얼마나 큰 위험 속을 걸어가는지 보시고 pro humana fragilitate, 우리의 약함 때문에 이 모든 위험 사이에서 저희가 얼마나 견디지 못하고 있는지 보십시오Deus, qui nos in tantis periculis constitutos pro humana fragilitate scis non posse subsistere.”²⁰ 그래서 빵이 부족할 때 빵을 가진 자에게 빵을 사러 가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사람이 피곤할 때 쉬는 것처럼 저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휴식은 어쩌면 하루 종일 벌이는 전쟁 후에 맛보는 것만큼이나 달콤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도의 역할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기도의 역할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요, 하느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하여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되기 위하여, 하느님의 성소에, 그분의 뜻에 응답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믿는 것이요,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에 필요한 휘발유와 같은 것입니다. 운전자가 연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잊었을 때 어느 한 순

19. 마태 26,41.

20. 주님 공현 대축일 후 제4주일 본기도.

간 갑자기 차가 멈추어버립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대는 번덕스러운 아이나 소년처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청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청하도록 하십시오. 어린아이는 아버지가 그에게 무기나 면도칼, 위험한 도구, 폭탄을 만지도록 내버려 두기를 바랍니다. 전쟁을 겪은 후 여기저기에서 폭탄을 갖고 놀다가 폭탄이 터져 심하게 다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역할은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 우리를 하느

48 님께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없는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곧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Sine me nihil potestis facere.”²¹ 그분은 우리가 성인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성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행하고,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것은 청하십시오. 주님께서서는 가능해지도록 여러분에게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겐세마니에 계신 예수님을 관상하십시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²² 예수님께서서는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신 후 다시 가셔서 기도하신 다음 용기 있게 일어나셨습니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²³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뇌, 내적이며 외적인 고통을 겪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역할입니다!

21. 요한 15,5.

22. 마르 14,36.

23. 마르 14,42.

어제 저녁에도 기도가 음식과 같고, 호흡과 같다고 말씀드리며 마무리했습니다. 음식은 제때에 섭취되고 소화되어야 하고, 호흡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고 쉬는 동안에 육신은 음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가 뼈와 신경과 근육조직을 성장시킵니다.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여 신심실천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니셔티브로 시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불경을 읊조리고 목탁을 두드리다가 더는 소리 낼 것이 없거나 지쳤을 때에는 계속 노래하는 기계를 틀어놓는 부처를 섬기는 이들처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의 이니셔티브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 예를 들면,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고귀한 기도는 성사입니다. 고해성사가 결실을 맺기를 바라다면 매주 양심성찰을 잘 할 필요가 있고, 통회와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좋은 결심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 ²⁴ | 고해성사를 마친 후, 고해성사에 따른 짧은 통회기도를 바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죄의 기회를 피하기로 다짐하며 결심을 실행하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체를 모시기 위해 성당에 들어간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이미 성체분배가 진행중입니다. 그는 잠시 장궤를 한 다음, 성체께 대한 신앙이 없으면서도 성체를 받아 모신 다음 곧바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잘 준비하고 영성체를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앙, 사랑, 성성에 대한 열망, 하느님과의 참된 일치로 성체를 모셔야 합니다. 영성체 후에는 기도로 변화된 마음 자세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다음 깨어 기도해야 하고, 그다음 묵상 결과를 놓치지 않도록 하루 종일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잇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24. 원본에는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이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과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것에서, 그리고 당신의 자비하심을 믿는 우리의 신뢰에서 기도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늘 '미사경본'을 사용하는 사람은 매일 미사를 훨씬 잘 바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성당에 가서,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한 것처럼 미사 전에 천상 스승께 바치는 코론치나를 바치는 것이 우리 편에서 행해야 하는 기도의 이니셔티브입니다. 곧 우리가 미사 시작 전에 들어가 준비를 한다면 그 미사는 아주 많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묵상에 임하는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분심 속에 있거나 진정으로 성인이 되기를 바라며 늘 집중하는 자세로 (말씀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분심하는 경우는 준비없이 황급히 묵상하러 가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사제의 강론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 묵상시간 동안에 다른 많은 생각들에 빠져 있었다면 그 묵상은 제대로 준비된 것도 아니고, 잘 마무리한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기도를 권태롭게 여기고, 묵상할 때는 빨리 끝내길 바라거나 묵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는 음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 식욕이 있을 때 [음식을 섭취한다면] 그리고 약간 휴식을 취하거나 소화할 수 있도록 레크리에이션을 취한다면, 섭취한 음식은 세포조직으로, 피로, 그리고 뼈로 변하며, 결국 건강에 좋게 변합니다. 좋은 기도는 오늘 아침 '본기도'에서 요청되는 기도입니다.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저희에게 주소서 Da nobis salutem animae et cor-poris.]"

기도가 그 자체로 전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힘을 이루기 위해 전능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자세를 기도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지혜는 혼자이면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Cum sit una omnia potest." ²⁵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을 것이다Omnis qui petit accipit.”²⁶ 죄인이든 의인이든 그래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Quodcumque petieritis.”²⁷

어떤 것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자연법칙을 변화시키거나 중단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시킨다는 것은 다른 효과를 산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먹기를 바라다면 일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토리노에 있는 하느님 섭리의 집에는²⁸ 병자들이나 노동력이 없는 이들이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만 3,4천 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섭리가 개입된 것입니다.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 수도회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 앞에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요 으뜸가는 일은 (다시 말해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염경기도(소리기도)일 수 있고, 마음의 기도일 수 있고, 또 삶의 기도preghiera vitale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고통을 지향하고, 그러한 기도지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제대 위에서 당신을 제물로 희생하시고, 또 골고타에서 희생 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인간을 위한 첫 번째요 으뜸가는 일은 하느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먼학에서나 활동
51에서나 많은 것을 시도할 수 있고 또 성공하지 못할 수 있지만, | 하느님께 청하면 은총, 성성을 확실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도원에서는 매일 세 차례에 걸쳐 코론치나를 되풀이해서 바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소서.”²⁹

25. 지혜 7,27.

26. 마태 7,8.

27. 요한 14,13.

28. 하느님 섭리의 집은 성 주세페 베네딕토 코톨렌고가 1832년에 토리노에서 시작하였다.

기도의 조건은 더 많을 수 있지만 특히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곧 겸손과 하느님께 대한 신뢰와 항구함입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가 하느님께 올라가고, 기도한 자에게 축복으로 바뀌어 되돌아오기 때문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Deus, propitius esto mihi peccatori.”³⁰ 어쩌면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속으로는 인간적인 것과 영적이고 지적인 선물을 좋아하는 오만한 자는 불운할 것입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행복이시며, 무한한 선이신 하느님 앞에서 보잘 것 없는 자들입니다. ‘저는 구원되기를 바라고,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고, 오늘 제 의무를 완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신뢰가 필요합니다. 최고선이신 하느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는 어린아이가 엄마를 향해 부르짖는 외침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아마도 물속으로 빠져드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부자에게 외치는 가난한 자의 목소리입니다. 그것도 선한 부자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빛을 얻기 위해 요청하는 무지한 자의 요청이요, 의혹에 사로잡힌 자의 요청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Postulet a Deo si quis indiget sapientiam.”³¹

그리고 항구함입니다. 이 끈기 있는 인내는 가장 어려운 사항입니다. 매일 그리고 끊임없이 청하고 또 청하고 계속 청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Semper orare, numquam deficer.” 계속해서! 한 주간의 영양섭취를 위해서 주초에 단 한 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규칙적으로 매일 정해진 식사시간에 음

29. 이 코론치나는 성 주세페 베네딕토 코톨렌고(1786-1842)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알베리오네 신부가 바오로 가족에게 권장하여 기도서에 도입되었다. 바오로 가족 기도서 38쪽.

30. 루카 18,13.

31. 야고 1,5.

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호흡에 비교한다면, 우리는 모든 공기를 한꺼번에 들이마시지 않고 호흡할 때마다 조금씩 들이마심으로 써 피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를 잘 하고, 또 어떤 날은 하지 않고, 일 년은 기도를 잘 하고, 또 다른 일 년은 미지근하게 내팽개치고, 8일마다 한 번씩 고해성사를 보다가 한 달에 한 52 번씩 고해성사를 보게 될 때, | 이러한 것은 우리의 신심을 규칙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심은 회현에 잘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신심실천을 해야 하고, 잘 행해야 하고,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신심실천을 해야 하며, 신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기도는 참으로 우리 영혼의 영적 자양분이 될 것이며, 기도는 우리 안에서 본연의 역할을 완수할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진보할 것입니다. 면학, 사도직, 신심, 청빈에서 진보해 나갈 것이며, 이러한 진보와 더불어 하느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소의 길을, 사도직의 길을, 거룩함의 길을, 하늘나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가끔은 황량한 길을 걷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완수하기 위하여 늘 기도하는데, 마지막 뜻은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결단을 내립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선물과 은총의 선물 Donum precum et gratiae”³²을 주시도록 특히 영광의 신비 3단을 바칩시다.

32. 즈카 12,10: “은총과 기도의 영”(불가타).

8. 우리의 사명 - 서원 사도직¹

53

대피정에서는 특히 두 가지 점을 숙고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서원과 공동체 생활을 통해 자신의 성화에 대한 회현의 첫 번째 조항과 사도직에 대한 두 번째 조항입니다. 사도직은 현대 수단을 통해 가르침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곧 출판,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교회의 교의적인 가르침과 전례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일입니다. 현대의 발전이 가져다준 수단들은 사상의 보급을 위하여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악에, 오류에, 교만에, 무신론에 동조하는 사상을 보급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합니다. 반면에 주님께서서는 하느님의 선물이기도 한 이 모든 수단이 진리에, 성성에, 인간의 영혼 구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악을 위해 채택함으로써 이 수단의 용도를 타락시키려는 자들과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퍼지도록,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느님을 위하여 이 수단을 활용하려는 이들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도직에 관하여 더 많이 머물러봅시다. 곧 사도직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 성바오로딸수도회 회원인 여러분의 직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곧 진리를 보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시는 것을 바로 정신 안에서 완수해야 합니다. 곧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모든 이가 구원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되기 위해서는 진리

1. 1955년 3월 11일에 로마에서 행한 묵상, 문맥을 유추해볼 때 대피정 코스 중에 행한 묵상으로 보인다.

를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 담겨 있고 교회가 가르쳐준 교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직무는 바울리나로서의 직무입니다.

성 바오로의 임무는 어떠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느님에게서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을 세상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빛입니다.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땅에 엎어졌을 때 빛이 그의 영을 비추는 가운데 그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² 그제야 그는 진리를 알았고, 진리를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 친히 그의 스승이 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안티오키아의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게 해주셨을 때, 그는 특별 봉헌과 직무를 부여받았으며, 이어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³ 안티오키아 교회의 사제들과 교역자들은 단식하며 기도한 후 바오로와 바르나바에게 안수하고 나서 그들을 세상으로 떠나보냈습니다.⁴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길을 떠났고, 당신의 길고도 거듭되는 여행을 완수하였던 것입니다. 유쾌한 여행길은 아니었습니다! 의무적인 여행, 선교의 여행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⁵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⁶ 바오로 사도는 길을 떠났고, 멈추지

2. 사도 9,4-5.

3. 사도 13,2.

4. 사도 13,3.

5. 요한 20,21.

6. 마태 28,19-20.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온 다음 그 도시[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말씀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⁷ 그분은 서간을 통하여 당신의 목소리를 | 멀리, 아주 멀리까지 전하였습니다. 이러한 55 것들은 여러분의 사도직을 예고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도록 선택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성 바오로께서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조건에 따라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도록 여러분을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조건은 향상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글을 쓰고,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이 출판할 하고 보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리나는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잘 알아야 하고, 사랑해야 하며, 느껴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묵상한 다음 종이에 새기고, 인쇄기를 통해 대량화하고, 프로파간다 수단을 통해 세상에 보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시는 마리아의 사명과 유사한 직무입니다. 동정녀의 직무이기에 정결한 만큼 더 효과적입니다. 사랑의 직무이기에 여러분이 마음에 사랑을 품고 있는 만큼 사도직에서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아주 고된 직무이기에 영혼에 열정이 있는 만큼 더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경계가 없는 직무이기에 세상이라는 경계 외에 다른 경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 존재하는 대략 25억에 달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합니다. 얼마나 많은 국가들이 여태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다음의 말씀은 참됩니다. “그 소리는 온 땅으로, 그 말은 누리 끝까지 퍼져 나가네 In omnem terram exivit sonus eorum et un finem orbis terrae verba eorum.”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이 직무는 사도들과 함께 시작되었으며, 오늘날 교회의 선교사들과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와 함께 계속됩니다.

7. 2티모 2,9 참조. 바오로는 두 번째 수인생활 동안 로마에 머물렀다.

8. 시편 19,5.

여러분도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교 가르침에 대한 기본적인 요소를 가르치는 선교사 수녀들처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든, 온 땅에, 각 가정에, 모든 교구에, 모든 나라에, 각 개인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작은 자들에게 교리를 전하십시오.”⁹ 라고 하신 교황 비오 10세의⁹ 말씀처럼 작은 자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56 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이들은 어린이들뿐 아니라 | 신앙에 대해 무지한 이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대중, 때로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사상에 대해서는 알면서도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은 거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 가르침을 전하도록 불림 받았습니니다. 이 가르침은 순수하게 교의와 진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진리와 교의를 설파해야 하는 것이고, 동시에 윤리적인 가르침도 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천적인 가르침,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 곧 하느님의 법에 대한 계명을 거스르는 죄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 곧 명령의 준수, 덕성의 준수를 가르쳐 하느님의 뜻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은총의 수단을 함께 설파하고, 전하고, 성사를 알게 하고, 특히 미사성제, 영성체, 세례성사, 고해성사를 알려 주고, 기도와 교회가 승인하여 신자들에게 권장하는 모든 신심을 알리고,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께서 세상에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9. 원본에는 ‘비오 11세’로 되어 있다. 편집자는 교황 비오 10세에 대한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회칙 「너무도 어려운 시대 *Acerbo nimis*」(그리스도교 사상에 대한 가르침), 1905년 4월 15일, Acta, vol. II, pp. 69-84, in *Enchiridion delle Encicliche*, vol. 4, EDB, 1998, nn. 98-104 참조. 알베리오네 신부는 교리 문제를 주된 과제로 삼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준비하였다. 교황 비오 10세의 서거일인 1914년 8월 20일에 바오로 가족의 작은 싹이 빛을 본 것은 의미심장하다. 또한 “인쇄 학교의 첫 인쇄 작업이 교리서였고, 알베리오네 신부 자신이 교리서를 직접 작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Rolfo L., *Don Alberione*, Ed. Paoline 1974, p. 85 참조.

분을 모든 인간을 위한 길 진리 생명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인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리라. 주님은 우리 구원이며 생명이요 부활이시니,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구원과 자유를 얻었네 *In quo salus, vita et resurrectio nostra, per quem salvati et liberati sumus.*”¹⁰ 모든 이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어떤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까! 고귀하고 열정적인 사명입니다! 자선사업에 헌신하는 수녀들, 곧 어린이들에게, 가난한 이들에게, 노인들에게, 병자들에게 헌신하는 수녀들과 의료사업에 헌신하며 육신을 돌보는 수녀들이 있지만, 여러분의 사명은 그와 같이 큰 사명을 이미 수행하고 있는 수녀들의 사명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필요한 이들을 돌보는 사명, 의사의 일과 연관된 사명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사제의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글을 써야 하지만, 언제나 | 사제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일과 연관 57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보급을 할 수 있지만, 사제 곁에서 일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성사를 받도록 이끌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성사를 통한 구원의 길을 알려 주기 위하여 사제적 직무, 사제적 사명에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성을 위한 고차원의 사명을 이루는 것은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세주로서, 당신의 삶을 공동 구원자이신 마리아의 삶과 일치하면서 당신 사명을 실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부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사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명칭들은 마리아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

10. 갈라 6,14 참조. 성 십자가 현양축일인 9월 14일 미사 입당송 참조.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여 여러분이 낙심하고 의기소침해 하고 멈추어버린 것에 대해, 적어도 그 과정을 지연시킨 것에 대하여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성소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성소자들이 성성, 열성, 수도정신, 지혜로움에 있어서 죽을 때까지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천국에서 사도들이 누리는 영광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삶을 잘 살고 잘 가르쳤기에 갑절의 상급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프로파간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프로파간다는 하느님의 집배원 직무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집배원들은 사람들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돌보아주고, 좋은 생각들을 제시하며, 좋은 영감을 떠올려주는 착한 천사들에 비길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은 하느님 말씀을 전하러 가고, 여러 차례 좋은 충고로써 특히 선의 향기, 수덕의 본보기를 남깁니다.¹¹ 두 가지 종류의 프로파간다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서원을 통한 보급과 단체선교입니다. 가정을 대상으로 한 단체선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언급하였으며, 토의한 내용은 모두 확고히 다져졌습니다.

- 58 이제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파간다에 |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렇습니다. 서원은 그리스도교 사상 보급의 중심입니다. 모든 서원에 “나 여기서 비추기를 원하노라.”¹²라는 글을 새길 수 있습니다. 또는 스승 예수님의 성화를 서원에 걸고 그 밑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¹³라는 말씀이나 다른 말씀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과거에 제가 알바에 있는 모원에 머물 때 그곳에서 천상 스승을 기

11. ‘프로파간다스타의 참된 행복’을 상기시킨다. CVV 118 참조.

12. AD 151-154항 참조.

13. 요한 14,6.

념하기 위하여 마에스트로들과 함께 축제를 지냈습니다. 엄숙하게 성체를 흠송하며 장엄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프로파간다, 특히 단체선교에서 그런 것처럼, 이제 서원에서 여러분은 모두 마에스트라가 됩니다. 그렇다면 서원은 무엇을 요청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초자연적인 정신이 요구됩니다. 나는 펜과 연필과 공책과 그와 유사한 것들을 팔기 위하여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문방구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포하는 교회에 가고, 빛의 센터인 서원에 갑니다. 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맞이하지 않고, 빛을 비추어주고 위로해야 할 사람, 구원해야 할 영혼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정신, 올바른 지향이 필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서원사도직을 어리석게도 수도원에 들고 들어가는 금액으로 평가하려고 합니다. 서원사도직을 잘 숙고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 행한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서원에 들어올 때 주의 깊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키가 큰지 작은지를 살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초자연적 정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초자연적 정신과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줍니다. 곧 영혼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성체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뵈지는 못하지만 믿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영혼들 [앞에서] 몇 번이나 그들을 위하여 희생합니까?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을 견뎌야 하고, 어떤 반론에 답변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스스로 준비를 갖추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 하느님께 신뢰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59는 복음을 전하는 이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서원사도직은 교육을 필요로 합니다. 외적인 것입니까? 많은 사항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고, 사람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서적, 정기 간행물을 적절히 구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배워야 할 일입니다! 다양한 제작물이 있습니다. 제품을 잘 알아 모든 필요성에 적용시켜야 합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수녀가 무엇인가를 망각한 채 발걸음에만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도록, 지혜로운 프로파간다 스타가 되도록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구비한 것을 모두 읽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서평을 읽는 것은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의 범주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사, 영성체 등의 은총이 관통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교 교육과 전례 교육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혼 상태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자 스스로 무엇이 필요한지 늘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의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서원에서 봉사하는 방식에 관해 여러분은 많은 사항을 들었을 것입니다. 열성, 신중, 섬세한 양심, 신심 등이 서원 봉사자의 덕목입니다.

[사도직에서] 진보하십시오. 그리하여 언제나 ‘향상되었습니다.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원은 쇠신되어야 합니다. 성당이 기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서원이 복음 선포에 가장 적합한 곳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서원은 일반 상점보다 열등하지 않고 더 아름다워야 합니다.

나아지십시오!

9. 단체선교(I)¹

60

단체선교(propaganda collettiva)에 대해 잠시 멈추어 숙고해 보는 것은 유익한 일입니다. 집중적(collettiva) 또는 단체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하고 옳다고 봅니다. 가정방문 선교를 시작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충격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식의 프로파간다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역시 단체선교도 장애요소가 많았고, 어려움도 컸으며,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단체선교는 특히 세 가지 이로운 점을 가져다줍니다. 첫 번째 이점은 하느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이점은 오늘날 수녀들의 건강이 갈수록 약화되어가는 점을 감안할 때 발로 뛰는 것보다 머리를 더 많이 사용하여 덜 고되기에 수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이점은 영성적인 이점이며, 보급을 위한 이점입니다. 실상 단체선교는 더 많은 지성의 준비를 요청하기 때문에 수도원에 더 오래 머물러야 하고, 더 많은 조직을 필요로 합니다. 그뿐 아니라 특히 자동차를 사용해야 하므로 그 경비도 요구됩니다. 모든 것이 상호 관계적이며, 잘 기록해야 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출판물 보급을 지향하는 한편 더 큰 권위를 지닌 사람들을 가까이하면서 영화를 겨냥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교, 본당신부, | 보좌신부, 교사들 등 교회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지도층 61
사람들과 사회에서 사람에 관련된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들, [이들테면] 공장장, 의사, 변호사, 부장, 은행장, 조합장 등,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키지 않으면서, 사회의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1. 1955년 3월 12일에 로마에서 행한 묵상. 본문을 유추해볼 때 대피정 코스 중에 행한 묵상으로 보인다.

겨냥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은 서적 판매가 아니라 영혼을 목표로 삼으며, 이중적인 열매를 목표로 삼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하는 일입니다. 이중적인 결실이란 곧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입니다.²

단체선교는 그것을 조직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수고가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많은 이의가 제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방문 선교를 위해] 수녀가 나가서 수도회에 무엇인가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나 우리는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회현 조항에 보면, “공급-가격 *offerta-prezzo*”을³ 받아야 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도직은 이러한 물질적 수단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본당 신부들이 기초생활 수당이나 충분한 성직록을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본당신부들, 주교들, 주교와 본당신부를 돕는 이들이 기초생활 수당을 아주 풍족하게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서적 가격이 비싸다고 푸념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비싸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mi protendo in avanti*”라는 성경 말씀이 가격 *nei prezzi*에서도⁴ 앞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도직을 계속해 나가고, 수도회가 존재하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수행해야 할 사업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범위를 향해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가능한 최소의 가격 또는 최소한의 공급-가격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955년에 단체선교가 폭넓게 알려졌고, 광범위하게 실천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954년을 1953년과 그 이전 몇 년에 비교해 볼 때

62 여러분은 많이 발전했지만, | 오늘의 수도회가 지니고 있는 힘으로 실

2. 루카 2,14 참조. 알베리오네 신부는 복음의 이 말씀을 바오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삼았다. AD, 183항 참조.

3. 「성바오로딸수도회 회현」 1953년판 3조.

4. 원본에는 ‘시대에서도’(nei secoli)로 되어 있다.

현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아직도 긴 여정이 놓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한층 관대해진 것처럼 수도회도 한층 바오로적인 혼을 지녀야 합니다. 지성에 있어서 바올리나여야 하고, 감성에 있어서 바올리나여야 하며, 의지에 있어서도 바올리나여야 합니다. 이것이 수도회의 가장 큰 부요, 이러한 영혼이야말로 사도적 마음을 지닌 아름다운 영혼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 다른 부를 지니고 있습니다. 곧 아름다운 출판사입니다. 출판물들이 내용면에서나 외형으로 드러나는 면에서나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많은 전집과 시리즈로 세분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기 수월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필요한 사항을 충족시키기에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날 중요시해야 하고,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매체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도서목록, 프로파간다를 위한 자동차, 선전물(광고지), 다른 사람들이 이미 여러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날, 교리의 날, 마리아의 날과 같은 모든 행사,⁵ 여러분이 점차적으로 기획하고, 여러분의 성화와 사람들의 선을 위해 도움이 되는 모든 관계들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이 성찰해 보아야 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곧 서로 도와주느냐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험들을 한 분원에서 다른 분원으로 전해주어야 합니다. 대피정 동안 다른 곳에서 강연회를 조직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자매들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해야 할 또 다른 행보가 있습니다. 곧 서로 의지하는 겸손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어졌던 전쟁 말기에는 | 장교들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63 많은 장교들이 전쟁터에서 죽었으므로 단기 사관 과정을 수료한 장교

5. C. 마르티니, 「성바오로딸수도회 역사」 471-474쪽 참조.

들을 급히 임명하였습니다만, 그들은 명령내릴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전쟁을 총지휘하던 장군이 “주목하라, 제군들은 사병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비록 더 나이가 많은 자매들이거나 원장이거나 또는 공부를 많이 하였다 해도 어린 자매들에게서 배워야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직에서 사람들을] 만나 좋은 결실을 맺는 어린 자매들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지역에서 단체선교는 좋은 결실을 못 거두었어.”라는 말을 합시다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시도였고 불확실하게 시작했기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만큼 많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겠지만 놀랄 일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직, 교육, 다시 말해서 어느 곳으로 먼저 가야 하는지, 어떤 책들을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갑을 채울 것이 아니라, 제공해야 하는 책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장소나 특정인에게는 그에 가장 필요한 것을 가져가야 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고, 사도직을 미리 조직해야 합니다. 곧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교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우리를 맞아줄 수 있는지, 어떤 수도 단체가 있는지, 우리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연합회들이 어떤 것들인지,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목록에 어떤 영화필름들이 담겨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한 준비 작업은 아마도 하루 이상 수도원에 머물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영적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을 줄 것이고, 또 전개하게 될 사도직에 큰 결실을 위해서도 좋은 일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일 수 있는데,

64 그것을 멈추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곧 가정마다 방문하며, 방문 전이나 방문 후 걱정하지 않고 만족스럽게 수도원으로 돌아오는 일입니

다. 나무들이 아직 크지 않을 때에는 열매를 적게 거두게 되겠지만, 나무가 자라고, 가지를 뺏어 잎이 무성하고 많은 꽃을 피운다면 더 풍부한 열매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대한 만큼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 영성체 후에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이것에 대해 묵상 후에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특히 성체조배 동안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십시오. 마리아께서 성녀 엘리사벳을 방문하시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영광의 신비 2단을 바치십시오. 그러면 마리아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답고 소중한 많은 일들을 영감을 통해 불러넣어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의 내부 회람지에 단체선교의 의미에 대해 쓴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다시 꺼내어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1953년 12월 소식지에 실린 내용입니다.⁶

단체선교는 교구가 우리의 교리서를 채택하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리서가 본당에 들어가서 모든 아이들 손에 들려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단체선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저에게 [주목하게] 해주었지만, 여러분에게 강연할 사람에게 문제를 제시할 것입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교리서 보급에서 여러분은 무엇보다 여러분을 저술가, 기술자, 보급자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사도들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군중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서를 쓰는 일은 나중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교리서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겠지만, 매년 어느 수준에 이를 때까지 개선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최상의 수준을 단번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선 과정에서는 그러한 수준에 빨리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6. RA, 12 (1953) 3; CVV, n. 208 참조.

65 단체선교는 대중에게 도움을 주는 도서관을 형성합니다. 도서관은 | 많은 수의 사람들을 수용하므로 도서관이 형성될 때 책의 수량도 늘어나게 됩니다. 학교 도서관이 있고, 연합회 도서관, 수도단체 도서관과 가정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이런 도서관을 위해 일해 왔습니다. 이제 가정을 위해서 20권에서 50권 정도의 유익한 서적을 비치할 수 있는 작은 서고를 마련할 생각입니다. 곧 교리서, 종교서적, 경제서적, 몇 권 정도의 미술과 공예 서적, 몇몇 과학서적이거나 모험서적, 몇몇 사회학 서적 등 가정에 알맞은 서적들을 두루 갖추는 것입니다. 물론 농업에 종사하는 가정과 사상가의 가정, 변호사의 가정, 의사의 가정들을 가정해보면 아주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할 수 있고, 또 가능한 한 모든 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알맞게 서적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고 우아한 서고를 토리노에서 준비하여 이미 좋은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가정에 적합한 서적이 있을 때, 여러 주 동안 있고 있다가 어느 날 저녁 휴식 시간이나, 주일 저녁에 가장이나 자녀들이 그 책을 읽을 시간을 갖거나 그 책 전체를 교육용으로 집어들 수 있기에 이러한 것은 유익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성인들을 위해서도 종교교육 서적과 젊은 남녀를 위한 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선교는 본당에서, 교구에서, 교도소에서, 학교에서, 연합회 등 66 에서 [조직하는] 복음의 날이나 마리아의 날, 교리의 날, | ‘미사경본’의 날처럼, [선한 출판물]에 대한 3일기도triduo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결실을 맺었지만, 다음의 예를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나폴리에 있는 공장에서는 직공들이 [처음에는] 수도자들과 사제들에 대해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느님의 교회에서 인류에게 수행해야 할 직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남자에게 알맞은 협력자입니다Adiutorium simile sibi.”⁷ 인간의 구원을 위한 협력자요 사제

에게 알맞은 협력자로서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전하셨던 것처럼,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제에게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성소와 은총에 응답하십시오.

단체선교는 본당에서, 신학교에서, 연합회에서, 수도단체에서, 서원에서 활동하는 프로파간디스타들을 보장해줍니다. 그러므로 시대와 장소에 따라 여러분에게서 프로파간디스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고기잡이를 나가 기적적으로 물고기가 가득 찬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을 때 다른 사도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늘 성공을 할 수 없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게다가 수천 가지 반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어떤 선을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것을 행하면 됩니다. 우리가 원하던 선을 행하지 못할 [때마다] 매번 한탄하거나 푸념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합시다. 그러는 사이 어쩌면 시간은 지나갈 것이고, 은총이 주어질 것이고, 사람들은 바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성바오로]딸들이 프로파간다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와주기를 요청합니다만, 이제는 성바오로딸수도회가 그러한 초대와 요청에 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원이 더 많은 수녀들을 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녀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성소자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소자가 필요합니다!

단체선교는 | 「파밀리아 크리스티아나Famiglia Cristiana」, 「수평선 67
Orizzonti」, 「조르날리노Giornalino」, 「길 진리 생명Via, Verita e Vita」, 「여명
Aurora」, 「주일Domenica」,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의 삶Vita in Cristo e nella
Chiesa」 등의⁸ 정기구독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능력 있고 활동적인 사람

7. 창세 2,18 참조: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8. 열거된 잡지들 외에 알베리오네 신부가 창간했거나 시작한 잡지에 대해서

에게 맡겨야 합니다. 누군가 책임을 맡게 하여 이러한 직분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정기간행물은 단행본보다 훨씬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정기간행물은 한 해 동안 주기적으로, 곧 매주, 매달 발간되므로 일 년 동안 계속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집으로 가져다주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정기간행물은 더 쇄신되고, 더 흥미롭고, 더 쉽게 읽혀집니다.

단체선교는 영화를 다루기도 합니다. 영사실, 대여점, 영사기, 단편 영화 등. 왜 그렇습니까? 운영자나 영사실을 가지고 있는 본당신부와 이야기하여 단체선교를 하고 영화를 상영할 때 그것을 보러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단체선교는 특정 상황에 대한 특별 도서목록을 준비해야 하고, 그런 다음 성직자들의 모임, 가톨릭 신자들의 모임, 교사들의 모임 등을 [조직해야] 합니다. 전체 도서목록은 우리에게 약간의 어려움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탈리아 전역에 흩어진 우리 분원에서 인쇄하고 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도서목록 안에] 모든 단행본을 싼고 가격도 정확하게 기재하기가 어려운 데, 우리는 다소 특별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해에 가능했던 것이 금년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뜻을 가지고 극복해낼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도서목록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선의가 늘 있지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들도 대비해야 합니다.

악평을 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기회만을 찾으려는 이들에 대한 대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한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많은 이들을 실망시키고 사랑을 손상시킵니다. 그 대신에 도와주고 | 겸손하게 제안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서로 상생하는 일입니다. 성바오로딸

수도회만 아니라 성바오로수도회에도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지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결점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지만, 사람들에게 대한 명예를 손상 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애덕의 방camera caritatis'에서⁹ 이야기하여 열매를 일구어내야 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말해주고 조언을 해준다면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유익하고 적합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영혼의 선을 위해서, 수도회의 선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사도직의 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언제나 모든 방법으로 서로 도와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을 사람들의 영혼에, 가정에, 공동체에 전달하는 여러분의 프로파간다 활동을 매우 기꺼워하십니다. 여러분은 많은 공덕을 쌓을 것이고, 죽음의 순간에 결실을 맺을 것이며, 여러분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후에는 상급을 누릴 것입니다.

는 Damino A.,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문헌 목록Bibliografia di Don Giacomo Alberione」, EAS, Roma 1994, pp. 134-146 참조.

9. 양성장과 양성자 사이의 개인적인 영적 대화를 지칭하는 표현.

69

10. 단체선교(II)¹

우리는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 종교로 이끌기 위하여 복음 설교 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큰 열정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상인들은 여기저기 다니는 기회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군인들도 있었고, 교사와 스승들이 있었고, 많은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여성들은 기쁜 소식, 곧 복음의 프로파간다스타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이 사도직에 협력하도록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협력자들은 아직 충분히 활동할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협력자들은 자신의 봉헌을 돈이나 물건으로 대신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 활동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도 협력자들일 수 있습니다. 공장장이 프로파간다를 위해 수녀들에게 문을 열어줄 때, 더구나 그가 추천의 말을 한 마디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는 협력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한 자매들이 있습니다. “사무실 문이 모두 우리에게 열렸는데 이런 일은 부서장들이 권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위에 우리의 활동, 우리의 단체선교를 기대는 것은 좋은 결실과 우리의 공덕을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만일
70 누군가 프로파간다를 통해 | 하루 종일 20여 권의 서적을 보급했다면 분명 훌륭한 활동이고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 대신에 만일 학교나 공장이나 연합회 또는 본당에서 단체선교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공덕을 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하여 최고의 이익을 얻으려 노력하는 훌륭한 상점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밭을 일구어 많은 소출을 내야 합니다. 씨를 잘 뿌린 밭과 파종을 잘 한 밭이 있을

것입니다. 동일한 조건에 있는 두 밭이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똑같이 비옥하고 같은 기후조건에 있지만, 하나는 부지런한 농부가 일한 밭이고, 다른 밭은 게으른 농사꾼이 일한 밭일 경우 결실에 차이가 상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실은 밭일을 하는 방식, 곧 거름을 주는 방식, 씨 뿌리는 방식과 작물을 돌보고 병충해나 재해가 있을 때 손질을 하는 방식에 달려기 때문입니다. 게으른 자의 포도밭은 소출이 적고, 주의 깊고 근면하며 부지런한 포도원지기의 포도원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소출을 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²

우리는 백 배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록 열매는 다르지만 다른 사람처럼 나도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같은 일이 주어졌으나 한 장소에서 단체선교를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다른 이들이 단체선교를 하는 동안 각 가정을 대상으로 프로파간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똑같은 임무를 맡았다면 똑같은 공을 이루었을 것이고, 단체선교를 할 수 있었다면 더 큰 공을 세웠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학생이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10개를 가졌고, 다른 사람은 똑같은 달렌트, 똑같은 | 태도로 더 적은 임무를 71 맡아 8개, 또는 6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임무의 대가, 곧 사랑의 대가,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사람에게 더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각 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으실 것입니다.”³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바오로 가족이 글을 쓰고, 바오로 가족에 의해 인쇄되고,

2. 마태 13,8.

3. 로마 2,6.

1. 1955년 3월 13일에 로마에서 행한 묵상, 또는 강연.

바로 가족에 의해 보급된 책은 하느님께 더 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부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책이 더 적은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실이 오로지 책의 가치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까? 복음화에 대해 말하자면,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한 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은 씨앗을 뿌릴 수 있고, 그것도 아주 풍부하게 뿌릴 수 있지만, 땅에 물을 주지 않는다면 습기가 없어서 씨앗이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물은 은총의 상징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있을 때, 단지 한 마디 말이 영혼을 회심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께서 성 바오로의 말씀을 [읽으라는 초대]를 되풀이해서 들었을 때⁴ “육신의 쾌락을 버리고 부활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⁵ 그분은 단호히 일어섰고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위대한 성인과 위대한 박사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영광입니다!

단체선교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는 중에 내부 회람지에 쓴 내용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⁶ 단체선교는 새로운 출판물이나 새 영화를 위하여 안내문이나 엽서를 발송합니다. 신간 서적이거나 새 영화필름이 출시될 때에는 안내지나 광고 엽서에 알림 내용을 신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어떤 도시에 새로운 서원을 시작할 때, | 새로운 서원에 초대하는 내용을 서적에 끼워 넣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금세 알게 될 것입니다!

단체선교는 교회의 권위기관, 사회의 지도층, 군대의 권력층, 교육계의 권위기관, 연맹의 회장들과 총무 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협력자가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선교를 할 수 있도록 호의를 보이거나 적어도 학교, 병영, 공장에서 하는 단체선교를 막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미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선을 위하여 모든 이의 모든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모두가 구원에, 영혼의 구속 사업에 협력하도록 불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각자에게 제 이웃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Unicuique mandavit Deus de proximo suo.”⁷ 굳건한 신앙을 지닌 사람은 신앙이 결여된 사람에게 애덕을 베풀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는 하느님의 영광을 많이 이룰 수 있는데 [반하여] 너무 많은 기회를 지나쳐버리고, 너무 많은 талан트를 무익하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 자신의 талан트를 숨기고 덮어둡니까? 자기 талан트를 숨겨두고 주인님이 모진 분이시라는 말로 변명했던 좋은 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도들이라면 사도들의 양성장이기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프로파간다가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것은 주목받지 못했지만, 기억할 만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에서 성소자들을 찾는 일에 헌신하며, 교회 분야에 다른 일꾼들, 다른 사도들을 파견한다면 얼마나 큰 [선을] 행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사제는 임종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위안을 주는 일은 내 삶에서 늘 성소자들을 돌보았고, 이제 많은 수의 수녀들을 남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당사제였던 그는 서른 명가량을 여러 수도 단체에 보냈고, 적어도 20여명의 사제를 배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일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 내가 하지 못한 일도 할 것입니다. 그들이 하게 될 일을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수도 성소를 증가시켜야 하고, 가능한 한 성소자들을 잘 선택하고 그들이 잘 양성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4. 「고백록」, VIII, 12 참조.

5. 로마 13,13-14 참조.

6. 참조: RA 12(1953) 3; CVV, n. 208.

7. 집회 17,14 참조.(역주: 원문에는 집회 17,12로 표기되었지만 내용상 17,14이 맞다)

단체선교는 어떤 특별한 기획에 대하여 라디오 방송에서 말해야 하고, 포스터를 준비해야 하고, 출판물을 보급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법에 의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처럼 라디오 방송에 새로 출간된 서적을 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녀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두렵습니까? 우리의 후보이신 성 바오로 사도는 결코 멈추지 않으셨으며, 문이 닫혀 있을 때에는 다른 문을 찾으셨습니다. 어쩌면 작은 쪽문이라도 찾으셨을 것입니다.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수녀들은 작기 때문에 쪽문이 더 어울립니다. 성 바오로 사도께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었을 때에는 다른 일을 하셨습니다.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인내를 가지십시오! 어떤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까? 힘의 한계와 건강의 한계입니까? 그렇다면 언제나 해야 할 어떤 일이나 어떤 기획 또는 선을 위한 거룩한 전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서적이거나 정기간행물을 광고하기 위하여 여성이 라디오 방송에서 말한다면 아주 잘된 일입니다. 또한 포스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날을 가정해봅시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일을 실천했고, 잘 해나갈 것입니다.

출판물을 보급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주 신문을 배달하는 일을 하는 것은 특기할 만한 것입니다. 만일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가끔은 어떤 일을 통하여 보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말은 프로파간다를 확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더 많은 결실 또는 더 확실한 결실을 얻을 필요가 있기에
74 더 큰 결과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큰 회사를 찾아야 하고, | 더 빠른 기차를 타야 하고, 더 신속한 모든 수단을 채택해야 합니다. 모든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적합하다면 가끔 비행기를 이용하기도 해야 합니다.

단체선교는 [우리의] 교리서를 활용하기 위한 교리 강연회를 열어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 영혼을 빛으로 인도합니다. 부활 축일이나 성탄 축일이 다가올 때, 또는 세미나, 특별한 기회, 성직자 모임이나 가톨릭 연맹의 모임이 있을 때 출판물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모든 만남이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결실을 맺는다는 말은 좋은 의미에서 취해야 한다는 의미, 곧 기회를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저기 검증된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알리고,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획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판물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늘 있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선에 마음 쓸 때 용기가 주어집니다. 믿음은 빛을 비추고 지탱해주고 하느님의 은총이 동반합니다. 우리의 '수호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를 바쳐야 하고, 약간의 선을 봉헌하고, 약간의 선을 베풀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수호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단체선교는 가치 있는 작품으로 구성된 특정 시리즈 안에 책들을 모아야 하고, | 책을 한 권 구입한 사람이 그 책을 모두 사
75 고자 하는 바람을 일으키게 해야 합니다. 사실, 어떤 범주의 서적들이 시리즈에 모아진다면 책 한 권을 구입한 사람은 그 시리즈의 가치를 보게 되고, 따라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러한 소식이 전달되는 과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종교 문화 부분에 속하는 신심서적들, 사목활동 서적들, 수덕신학 서적들을 시리즈로 모았다고 가정한다면 그 자체로 프로파간다를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단체선교는 수도원에서 편지를 통하여, 카탈로그 발송을 통하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파간디스타가 되도록 어떤 사람을 설득했다면 서원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체선교는 거의 모든 곳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흥미를 갖도록 출판물을 설명할 때마다 단체선교를 하는 것이 됩니다. 지혜롭게 사도직에 대한 열정을 설명할

때마다 단체선교를 하는 것이 됩니다. 많이 보급되는 서적을 저술하고 발행할 때마다 단체선교를 하는 것이 됩니다.

단체선교는 좋은 뜻을 가지고 수도원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수많은 사람의 범주에 적합하고 흥미로운 서적을 가득 실은 차로 떠나야 합니다. 책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쉽게 책을 보급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의 강연으로 요점을 간추리거나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이 유가 있지만, 열정을 지닌 수녀들이라면 생각해내고 발견하고 적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제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은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계시며 빛을 비추시고 길을 가르쳐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이 전하는 만큼]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특별한 은총을 가져다주시는 성령께 전적으로 신뢰를 두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자들은 주님이 지나가시도록 내버려두는 꼴이 되어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76 그러므로 빛을 비추어주시는 성령을 신뢰해야 합니다. |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용하지 못한 채, 또는 활용하지 못한 채 은총을 그냥 흘려 버렸을까봐 두렵습니다(Timeo Dominum transeuntem).”⁸

더 나아가 여러분 성소의 은총에 대해서도 신뢰해야 합니다. 직무의 은총이요, 매일 아침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건네주는 은총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성당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성체성사적 현존은 짧게 지속되지만, 여러분이 은총 속에 있을 때 영적으로 그리고 초자연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신 하느님의 현존은 늘 지속됩니다. 성바오로딸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도움을 신뢰하십시오. 스승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기를! 아, 사도의

8.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집 *Serm.* 88, 14, 13 참조.

모후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손길을 머리 위에 얹어주시길! 아, 성 바오로 사도께서 경건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서간에서 그토록 좋게 말하고 많은 찬사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⁹ 성녀 테클라를 사랑하셨듯이 당신의 딸들을 사랑하시는 성 바오로의 도우심을 [신뢰하십시오!]

성 바오로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9. 로마 16,1-16 참조.

11. 악마의 자루¹

수련자들은 세 가지 범주 안에 있습니다. 곧 첫 서원을 준비하는 수련자들, 종신서원을 준비하는 수련자들,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서원을 위해 준비하는 수련자들이 있습니다. 모원에서 최근에 종신서원을 준비하는 수련자들이² 저에게 최종적으로 결정한 서원 기념 상본을 보냈습니다. 그 상본에는 아기 예수님께서 열린 자루를 손에 들고 계신 모습과 그분 뒤에 보기 싫은 마귀가 열린 자루를 들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루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자루를 가득 채울 우리의 보화를 그분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보화란 우리 모두의 선행을 말합니다. 곧 우리의 영성체, 우리의 모든 작은 희생들, 우리의 부지런한 신심 행업을, 일상에서 완수하는 모든 실천사항들, 육신과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들까지, 특히 우리의 노동, 우리의 여정, 우리의 계획, 우리의 힘, 한 마디로 말해서 프로파간다를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악마는 자기 자루에 무엇을 담기 위해 기다립니까? 우리의 죄를 기다립니다. 악마의 자루를 채우려고 애쓰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심판 날에 예수님께서 선행으로 가득 찬 자루, 또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채워져 있는 자루를 열어 보이실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넣은 소중한 보화에 따라 상을 주실 것입니다. 악마도 자신의 자루를 열고 죄

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가장 현명하고 영특한 영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행을 하고 귀중한 보화를 모을 것입니다. 보화란 큰일들을 함으로써가 아니라 올바른 지향으로 항구하게 선행을 하고, 계속적으로 충실하게 완덕을 수행함으로써 귀한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보화를 자루에 넣는다는 것은 보화를 잃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행보와 모든 노력과 수행한 신심업을 헤아릴 수 없지만, 자루 속에 그 보화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고는 헛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루함이 없는 천국을 누릴 우리는 지루해하지 말고 우리의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그 누구도 나가기를 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행하기를 피곤해하고 귀찮아해야 하겠습니까?

그 자루에 구멍이 나서 거기서 보화가 빠져나가는 것을 개의치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구멍은 헛된 쾌락과 인간적 만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에 대해 흠족해한다는 것은 선을 인정한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다른 선을 더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악을 인정하는 사람은 악행을 일삼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만족을 누리기를 좋아하지만, 하느님 사랑을 위해서나 천국을 위해서가 아니므로 또 다른 과실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람을 느끼기 위하여 선을 행하지 마시다. 수고를 하고서도 공로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수녀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가족과 함께 잘 지내고 있었으며 앞으로의 즐거움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끊었습니다. 만일 지상에서 좋아하던 것을 포기한 다음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수녀님의 그러한 말을 통해 그가 약간 미지근했던 상태였다가 열정을 다시 회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1955년 3월 15일, 로마에 있는 사도의 모후 성당의 지하 경당에서 행한 묵상.

2. 개인적인 증언에 따르면, 종신서원 후보자들이 너무 많아 그 해에는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고 한다. 한 그룹은 알바에서 체칠리아 칼라브레시(Cecilia Calabresi) 수녀가 이끌었고, 다른 그룹은 로마에서 아쉴타 바씨(Assunta Bassi) 수녀가 이끌었다.

79 기록하고 현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 자루에 모든 보화를 넣고, 구멍이 나지 않도록 보살피는 현명한 처녀들 가운데 속해야 합니다. 수녀이도록, 현명한 처녀이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악마의 자루는 죄, 악행, 교만의 죄, 야망의 죄, 헛된 쾌락의 죄로 가득합니다. 재능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나는 살 길이 있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는 장래성이 있기 때문에, 또는 “설혹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벌써 충분히 기록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스러워합니다. 가장 치명적인 교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곧 선에 대해, 덕성에 대해, 하느님의 선물에 대해 스스로 만족스러워하는 것, 가장 깊은 신심을 지녔다고 자만하며, 하느님의 위로를 받고 있다고 자만하고, 더 많이 알고 향상되었다고 믿으며 자만합니다. 이러한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악마의 자루에는 야망, 오만의 행위들이 들어갑니다. 모든 완고한 고집이 악마의 자루 속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그 자루 속에는 사물에 대한, 의복에 대한, 지위에 대한, 직무에 대한 온갖 집착들이 들어가고, 어떤 만족에 대한 집착, 말을 잘 한다는 자기애에 대한 집착이 들어갑니다. 탐욕은 지상의 사물에 대한 집착으로 이끌 뿐 아니라 하느님께 최소한의 선을 드리도록 합니다. 연옥에 가는 것을 애석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간의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

악마의 자루 속에는 분노, 원한, 혐오, 저주, 비판, 불평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행하고 말하는 것에서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악마의 자루 속에 우리는 모든 게으른 행위를 집어넣습니다. 곧 하고 있는 일에 지성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게으른 행위, 우리가 미지근함이나 냉담이라고 부르는 신심에 있어서의 게으른 행동입니다. 태만에 다음과 같은 사항도 덧붙여야 합니다. 곧 악마가 그의 자루

에 이 모든 것을 담은 다음 | 늘 수녀들 뒤를 따라다니고, 특히 기도를 80 하다가 단어를 빠트리고 ‘음’ 또는 ‘에’라고 하다가 결국 할 말을 잊어버려 책을 집어 드는 수녀들을 따라다닙니다. 악마는 자기 자루 속에 호감, 자유로운 시각, 생각, 마음, 혀, 촉각, 지나친 인간관계, 호감 가는 사람들과 관계를 지속하는 것, 우리의 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대화를 연장시키는 것 등을 모아 넣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호감에 사로잡히도록 우리를 놓아둔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악마는 아주 교활하고, 가장 거룩한 기회마저 이용합니다. 비록 물이 신성한 성수라고 해도 흠이 섞이면 진흙탕이 되고 만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악마는 탐식도 자루에 담습니다. 먹어야 하지만 먹으려 하지 않을 때, 약을 먹어야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을 때, 그리고 건강을 해칠 정도로 미각을 만족시키려는 탐식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악마가 열어두고 있는 그 자루에 이미 결점과 죄를 넣어버렸고, 그 자루를 들고 다른 죄들도 담으려고 우리 뒤를 쫓아오는 것을 각자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자루는 통회와 잘 준비된 고해성사로써 비울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서 자루를 탈취하여 지옥을 위해서, 연옥을 위해서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루를 비우는 것은 말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대죄에 관한 것이라면 죄에 대한 가책과 죄를 고하는 일은 필요한 사항이요, 죄가 확실할 때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통회를 통하여 자루가 잘 비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죄를 지었는데 고해성사를 볼 수 없어서 그 상태로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경우, 완전히 통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죄는 | 용서됩니다. 통회가 죄를 없앱니다. 매우 81 중요한 참회에 대해 더욱 깨어있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그러하였

다면, 지금은 하느님께 봉헌한 상태이므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해야 하지만 언제나 통회가 [필요합니다.] 통회가 부족할 때에는 뱀을 죽이는 대신 그에게 먹어치울 한 가지 죄를 더 주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곧 단체선교는 한없이 많은 선을 향해 길을 열어줍니다. 때때로 단체선교에 관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을 듣습니까! 떼어놓는 그 발걸음들, 그 전략은 모두 예수님의 자루에 [들어갈] 만한 행업입니다. 지치지 맙시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행복한가!”³ 왜 행복합니까? 왜냐하면 영원 안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천상 스승께 봉헌된 금년 단체선교에 관해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아직 공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감실 곁에 새긴 글을 잘 읽을 수 없지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Ego sum lux mundi.”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Vos estis lux mundi.”⁵ 그렇다면 빛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프로파간다를 통해서입니다. 감실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추기를 원하노라.”⁶

여러분이 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단체선교에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갑절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12. 성 요셉 축일¹

82

“성 요셉, 저희를 보살펴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렇게 두 가지 화살기도를 [반복해서 바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이러한 화살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위대한 성인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부시요 동정녀 마리아의 가장 순수한 배우자시고, 강생하신 하느님 아드님께서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신 그 위대한 사업에 협력자요 협조자로 간택되었습니다. 오류에서의 구원, 악습에서의 구원, 죄에서의 구원, 완전한 구원을 수행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델이 되는 가족을 원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나자렛에서 거의 숨겨진 채 아주 특별하며 범상치 않은 소명과 사명을 통하여 마리아, 예수, 요셉으로 이루어진 감성적인 공동체 안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각자 특별한 직무를 지니고 있었으며, 각자 이 직무, 이 사명을 아주 거룩하고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 백성이 성 요셉께 큰 신뢰를 두고 있을 때 그 결과로 우리는 성 요셉께 대한 신심을 지니게 되고, 필요한 많은 일에 있어서 그분께 도움을 청하게 될 것입니다.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오 복된 성 요셉이시여, 고통 중에 당신께 도움을 청하고 신뢰로서 당신의 보호를 간청합니다. ...”²라는 기도문이 작성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1621년부터 오늘날까지 | 성 요셉을 83

3. 로마 10, 15 참조.

4. 요한 8, 12.

5. 마태 5, 14 참조.

6. 참조: AD, 152, 153, 157항.

1. 1955년 3월 19일, 로마에 있는 사도의 모후 성당의 지하 경당에서 바오로 가족을 대상으로 행한 묵상.

2. 회칙 *Quamquam pluries*(성 요셉 신심에 관하여), 1889년 8월 15일 참조; AAS, vol. IX, pp. 175-183, in *Enchiridion delle Encicliche*, vol. 3, EDB - 1999년, n. 731 참조.

공경하여 한층 장엄하게 반포한 교황청 문헌을 따라야 합니다. 1621년에 성 요셉 축일이 공적으로 선포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많은 제대가 성 요셉께 봉헌되었습니까! 성 요셉을 기념하는 제대나 성화나 성상이 없는 본당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 수도단체는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문이 만들어졌고, 얼마나 많은 작품이 만들어졌고, 얼마나 많은 책들이 성 요셉을 기리며 출간되었습니까! 그런 다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요셉 성월이 정해졌습니다. 마리아를 기념하는 신심실천이 거룩한 경쟁처럼 일어나 정착되었듯이 성 요셉을 기념하는 신심도 마찬가지로 생겨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요일이 마리아께 봉헌된 것처럼 수요일은 성 요셉께 [봉헌되었으며], 5월이 마리아께 봉헌된 것처럼 3월은 성 요셉께 봉헌되었습니다.

일 년에 세 차례 축일을 지내며 성 요셉을 특별한 방식으로 상기킵니다.³ 우리는 성 요셉을 기념하고 그분의 위대한 사명을 기억하는 여러 미사 때 복음에서 특히 성 요셉에 관해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읽습니다. 가시 속에 숨겨진 아주 겸허한 꽃이지만 그분 덕의 향기는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한층 널리 퍼져갑니다.

오늘은 장인들의 축일, 노동자들의 축일이지만 장애자의 축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가정의 양육자요 노동자이신 성 요셉을 바라보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많은 교구에서는 성소자 사업을 성 요셉의 보호 아래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특히 성 요셉께 일곱 가지 은총을 청하는 성 요셉께 바치는 코론치나가⁴ 기도서에 도입되었

3. 그 축일들은 다음과 같다. 3월 19일: 동정녀 마리아의 정배이시고 보편 교회의 수호성인이신 성 요셉의 장엄축일. 5월 1일: 노동자 성 요셉 축일. 부활 후 3주일: 후원자 성 요셉 축일.

습니다.

1. 우선 성 요셉은 우리 구원의 협력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를 위해 천상 스승,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준비하신 분입니다. 우리도 | 사도직 수단을 통하여 구원 사업에 협력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2. 성 요셉은 내적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하게, 심오하게 우리의 성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3. 성 요셉은 노동자들의 모델, 섭리의 성인이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모든 노동자를 위하여, 모든 불행한 이와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은총을 청합니다.

4. 성 요셉은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셨으므로 성체성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상태로 들어가는 은총을 청합니다.

5. 성 요셉은 마리아와 친밀하게 지내셨습니다. 동정녀께 성심을 다한 참된 신심의 은총을 청합니다.

6. 성 요셉은 임종하는 이들의 보호자입니다. 그분께 우리 생애의 마지막 순간을 부탁드리고, 영원의 순간으로 넘어가는 이들의 임종의 순간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 마지막으로 성 요셉은, 교황 비오 9세께서 바라셨듯이,⁵ 보편 교회의 보호자입니다.⁶ 그러므로 죄의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대항하여 교회를 보호하시도록 그분께 그리스도교의 모든

4. 1953년 알베리오네 신부는 성 요셉께 바치는 코론치나를 새로 작성하여 「성 바오로」지 3호를 온전히 할애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였다. RA 3 (1953) 참조. 「바오로 가족 기도서」 158-162쪽.

5. 복자 교황 비오 9세로, 1846년 교황에 선출된 조반니 M. 마스타이 페레티(Mastai Ferretti, 1792-1878)는 교황 재임 기간 동안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교의를 반포하였고(1854), 1869년에는 교황의 무류성 교의를 정립시킨 제1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였다. 1870년 이탈리아 군대가 로마를 점령함으로써 교황령도 무너졌다.

6. 1870년 12월 8일에 경신성사성이 반포한 교령으로 정립되었다.

신자, 수도자, 사제, 주교단, 교황님을 맡겨드립니다.

첫 번째 사항은 성 요셉께서 우리 구원의 협력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느님 섭리에 따라 동정녀의 수호자, 예수님의 양부, 부지런하고 한결같은 양육자가 되도록 지명되었습니다. 성부께서 품으신 사랑이 어떠했으며, 당신 아드님을 맡기기 [위하여] 그분에게 어떤 신뢰를 가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의 친애하는 아드님이요 무한한 보화이신데, 그분을 성 요셉께 주셨습니다. | 예수님의 탄생, 유년기, 청년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그리고 노동을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하여 영혼들의 구원에 협력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만일 “그들 각자에게 제 이웃을 돌보라고 명령하셨다Unicuique mandavit Deus de proximo suo.”⁷라는 말씀이 참되다면, 이 말씀은 우리와 인간들을 위하여 그지없이 참되며, 특히 우리의 성소에 대한 참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직 정신을 갖추어야 합니다.’ 언제나 초자연적이 되도록, 그리고 올바른 지향을 통하여, 순결한 손을 통하여, 순수한 마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사도직 정신을 갖추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적 삶의 모델이신 성 요셉께 지성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의 성화를 위한 은총을 청합시다. 내적 삶,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결점을 정확하고, 덕성을 갖추기 위해 일하는 내적 작업을 청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 성 요셉께 그분의 개인적인 덕성, 가족적인 덕성, 사회적이며 수도자적인 덕성을 청합시다. 대신덕과 사추덕을 성장시켜 주십사 청하고, 참된 성성이신 성령의 선물을 부어주시도록 청합시다.

성 요셉은 노동자들의 모델, 가난한 이들의 벗, 고통 받는 이들과 이

7. 집회 17,14 참조(불가타).(역주: 원문에는 집회 17,12로 표기되었지만 내용상 17,14이 맞다)

민자들의 위로자이시고, 섭리의 성인이십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합시다. 곧 성 요셉께서는 지상에서 복되신 동정녀와 양아드님을 보필하신 것처럼 하늘에서도 그에 걸맞은 직책을 가지셨으니 바로 공급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요셉에게 가라Itc ad Joseph.”⁸라는 성경의 표현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년 동안 기근이 든 이집트에서 공급자로 두각을 나타낸 요셉은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부, 곧 부양자이신 요셉의 전형입니다. 그러므로 코론치나를 바치면서 |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86

예수님께서 아직 어릴 때, 소년이었을 때, 청년이 되었을 때, 예수님과 요셉 사이에 교류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친밀함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지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들 곧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가장 훌륭한 아버지를 상상해보십시오. 그들 사이에 얼마나 깊은 친밀감이 존재했겠습니까! 그들 사이에 어떤 사랑이 흘렀겠습니까! 아주 부드러운 위로도 섞여 있습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성인들에게 허락되고 주어졌으며, 보내진 것과 아주 유사한 감미로운 위로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과과의 친밀함을 청합시다.

마찬가지로 마리아와의 친밀함도 청해야 합니다. 마리아를 향해 예수님이 가지셨던 전적인 사랑 다음으로 마리아에 대해 가장 헌신하신 분은 성 요셉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성모님을 얼마나 본받으셨습니까! 성모님께 얼마나 친절하셨습니까! 윤리적인 일과 물질적인 일에서 어떻게 배려하며 얼마나 마음을 쓰셨습니까! 이러한 헌신적인 사랑에서 성 요셉을 본받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임종하는 이들을 위하여 성 요셉께 간청해야 합니다. 매일 16만 명가량이 영원의 삶으로 옮겨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임종하는 이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화살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8. 창세 41,55 참조.

광범위한 사도직, 곧 임종하는 이들을 위한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보편 교회의 보호자이신 성 요셉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성직자와 수도자들이 열렬한 신앙을 가지도록, 그리고 성소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지역에서 잃어버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교회가 높이 평가되도록, 교회가 더 널리 전파되고, 더욱더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도록, 빛이 온 세상에 이르고 그리스도인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Ut unum sint.”라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결론으로 성 요셉께 바치는 코론치나를 함께 바칩시다.

13. 성 수요일¹

87

1. 어둠의 성무일도L'Ufficio delle tenebre를² 대신하여 갖는 이 성체흡수의 시간은 주님께 거룩한 고해성사의 은총과 부활 영성체의 은총을 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 영성체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바에 따라 그분 안에 확립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총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바리사이 시몬이 잔치를 벌인 곳에 막달레나가 들어가 예수님을 대했던 것처럼 그분을 바라봅시다. 그녀는 금세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보이는 얼굴로 천상 스승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심오한 내면의 느낌으로 전달되었습니다.³

우리 또한 이 거룩한 여인이 자신의 눈물로 천상 스승의 발을 씻어 드린 것처럼 눈물을 흘리도록 합시다. 오늘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참회자에게 깊은 감성과 깊은 결심의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곧 죄에 대한 미움! 죄의 기회를 피하는 것! “차라리 죽음을 택할지언정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1. 1955년 4월 6일, 로마에 있는 사도의 모후 성당의 지하 경당에서 [바로로 가족을 대상으로] 행한 성체조배 시간.

2. 성주간의 마지막 3일 동안 사제들의 고유 성무일도 기도에 신자들이 참여시키기 위해 고유 예식과 독서와 시편을 통하여 ‘어둠의 성무일도Ufficio delle Tenebre’를 거행하였다. 성바오로딸들 가운데 이 예식에 여러 해 참석한 사람은 히브 9,11-22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관례적으로 프리마 마에스트라 테클라가 노래로 선포한 것을 기억한다.(역주: 전통에 따르면 성 수요일에 모든 시편 기도를 마친 후 15개의 촛대에 켜진 불을 끄기 시작하여 거룩한 성소가 빛에서 어둠으로 들어감을 상징한다. 마지막 초만 남긴 채 제대 뒤로 옮겨두었다가 성 금요일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한 후 끄는 예식)

3. 루카 7,36-38 참조.

9. 요한 17,11 참조.

이미 제대 위에 추앙된⁴ 한 젊은 여성의 결심입니다. 죄를 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성에 이르는 길입니다. 막달레나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부어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어
88 떤 보속 행위를 바쳐야 합니다. | 우리가 상심케 해드린 것에 대한 보속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면서!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큰 사랑을 드러낸 것이다.”⁵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일상의 임무를 충실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다리시는 보속입니다! 우리는 매일 잘 지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속죄를 위하여, 이러한 결심을 위하여 우리는 골고타에 계신 고통의 마리아께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수없이 상심케 해드렸고, 그분께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거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당신 사랑 안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길’에 도입된 것처럼 <스타뱃 마테르Stabat Mater>의⁶ 일곱 개의 연을 노래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은 찬미를 받으소서.” “(이 기묘한 성체 성사로 당신의 부활을 기념하게 하신) 스승 예수님 …Jesu Magister …”(역주: 성체강복 때 사제가 바치는 기도문)

2.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로 상처를 입혀드린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를 낮추고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4. 남녀 수도자의 성인전에서 발견되는 공통된 표현.

5. 루카 7,47.

6. 프란치스코 수도회 야코포네 다 토디(Iacopone da Todi, 1306년 사망) 수사가 작성한 고통의 성모께 바치는 찬가.(역주: 20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십자가 곁에서 비통하게 우시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슬픔을 아름다운 비애로 묘사한 찬미가로서, 1727년 이후에 전례에 도입되어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미사와 성주간 전 금요일 딸림 노래로 사용됨. 현재 ‘십자가의 길’ 각 처의 마지막 부분에 부분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다. ㄱ) 고해성사를 가르쳐주셨음을 감사드리기 위하여, ㄴ) 그분이 우리의 하느님[이시고] 그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으시므로, 그분을 흠송하기 위하여 그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곧바로 죄인들을 배려하시어 친절을 베푸신 장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현양되 시자마자 드렸던 기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⁷ 부활하신 후에도 그분은 우리를 생각하셨고, 악에 의해 탈선하고, 유희와 욕정으로 길을 벗어나 파멸의 도상에 서 있는 수많은 영혼을 생각하셨습니다. 천국이 닫히고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⁸ |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생각하시면 89 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인간이 고통스럽게 죄에 빠졌는지 안타까워하시면서 속죄의 성사, 용서의 성사를 제정하셨기에 예수님은 찬미 받으소서.

성 알폰소는 자신의 저서 「죽음에 이르는 장치 *Apparecchio alla morte*」⁹(역주: 죽음에 관한 많은 주제들로, 예컨대 죽음으로 옮겨가는 인간, 삶이 끝남, 분명치 않은 죽음의 때, 죄인의 죽음, 세상의 덧없음, 천국, 하느님의 자비 등을 다룸)에서 여러 차례 다음과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당신께서 저에게 그토록 자주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저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저의 자리는 고통 중에 아무런 희망도 지니지 못한 채 지옥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찬미 받으시고, 당신의 성심은 찬미 받으소서! 그분은 죄

7. 루카 23,34.

8. 요한 20,22-23.

9. 성 알폰소 M. 데 리구오리, 「죽음에 이르는 장치 *Apparecchio alla morte*」, Pia Societa San Paolo, Alba 1943.

인들을 위하여, 모든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를 없애려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의 성사를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면 고해성사를 잘 할 수 있는 은총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과 성성을 향한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흠송해야 합니다.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신뢰하며 당신께 온 중풍병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애야, 용기를 내어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자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속으로 ‘이 자가 하느님을 모독하는군.’ 하고 생각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우냐? 이제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해 주겠다.’ 그런 다음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네 평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러자 그는 일어나 집으로 갔다. 이 일을 보고 군중은 두려워하며, 사람들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하였다.”¹⁰

죄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상처를 입은 자만이 모욕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 돌아섭시다. 그리고 우리의 | 눈
90 물로 충분하므로 예수님의 피를, 구원의 값이요 구속의 대가인 예수님의 피를 봉헌합시다. 우리에게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우리는 마리아께 다가가야 하고, 성부께 받아들여지기 위하여 구세주의 오상을, 곧 손의 상처, 발의 상처, 옆구리의 상처를 그분께 드립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그리스도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당신께서 마음에 들어하신 분입니다. 저는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위격 앞에 설 자격이 없기에 그분 뒤에 저

10. 마태 9,1-8.

를 숨깁니다.”

“들어주소서, 주님Attende, Domine”¹¹이라는 성가의 의미를 잘 음미합시다. 주님께 우리의 비참함을 굽어 살피시고, 예수님의 상처를 굽어 살피시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용서를 청합니다. 곧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Per Christum Dominum nostrum 모든 것이 언제나 예수님을 통하여 성부께 받아들여지도록.

“들어주소서, 주님Attende, Domine.”을 함께 노래하십시오.

ㄷ) 좋은 고해성사, 아주 유익한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 죽음의 순간을 떠올려야 합니다. 죽음으로 향하는 길에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뱀과 같은 죄를 가져가지 맙시다. 시간이 있는 동안 하느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있도록 합시다. 특히 부활의 기회를 통해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러므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선종을 위한 기도”¹²를 천천히 바칩시다.

ㄹ) 꼭 필요한 은총들 가운데 다음과 같은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곧 양심성찰을 잘 할 수 있는 은총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죄를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과거의 삶을 훑어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 안에 지나간 것과 우리의 마음 안에 지나간 것, 곧 우리의 말과 행동들을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총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은총임에도 드물게 청하는 은총이지만, 우리가 당신께 청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 분명히 주시는 은총입니다. 부지런한 양심성찰 91은 우리 안에 하느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것과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줄 알며, 섬세한 양심이 되도록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

11. 사순절 전례의 찬미가.

12. 「바오로 가족 기도서」 192-194쪽.

게 해줍니다.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탕자는 죄를 지은 후 마침내 자신의 내면을 보고 정신을 차렸으며, 그제야 자신의 오류, 자신의 악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¹³ 우리의 잘못을 인식해야 합니다. 특히 세 가지 사항에 [관해서]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계명, 신분의 의무, 우리가 세운 결심.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명하고, 냉담과 미지근함, 하느님에 대한 망각을 금하는 첫 계명부터 성찰을 시작합니다. 수도서원, 서약의 준수와 거짓맹세를 금하는 계명들, 하느님의 날을 거룩히 보내도록 명하며, 어떤 행위들 특히 죄를 금하는 계명들, 부모와 장상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을 존경하도록 명하며, 불순명과 존경과 사랑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하는 계명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애덕에 관한 제5계명과 부지런한 양심성찰은 우리 내면을 위한 것인 동시에 우리의 외면을 위한 것입니다. 제6계명은 감정, 말, 기회, 악으로 이끄는 불거리와 입을거리를 금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명합니다. 그리고 제7계명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취하는 것을 금하며 그 대신에 존중하도록 명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 다른 사람의 재물뿐만 아니라,

92 | 이웃의 명성까지도 포함하여 이웃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명합니다. 더 나아가 거짓말, 위선을 금하며 진지하고 속임수 없는 솔직한 존재가 되기를 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나쁜 생각을 금하며, 늘 바르고 거룩하게 생각하기를 명하는 계명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 관하여 깨어있지 않으면 많은 감정과 우리가 거의 알아채지

13. 루카 15,17-18.

못한 채 많은 생각이 영혼 안에 지나가고, 스며들고, 관통하기 때문에 반성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제때에 구제를 못하기 때문에,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재난이 닥칩니다. 신분에 따른 의무들 곧 면학, 신심, 사도직, 좋은 양성, 청빈과 근본적인 결심에 관해 성찰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인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만일 그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용서받지 못하여 영혼 안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므로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스스로 단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생각과 행동과 감정과 말에 있었던 것들을 나무라는 사람은 단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위한 여정에 있는 동안 우리는 현명합니다. 삶이란 하나의 여정입니다. 성부이신 하느님과 협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마지막 결산의 날에 무정하게 단죄 받지 않도록 그분이 단죄하시는 것에 대해 (스스로) 단죄합니다.

이제 영혼의 습성을 읽을 줄 [알도록] 동정녀께 간청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성모찬송Salve Regina’을 성심을 다해 바칩시다. 습성 안에서도 우리는 버리기 싫어하는 것을 덮어두려는 경향이 있고, 증오해야 할 것을 멀리하기보다 방어하려고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은총이 없다면, 하느님의 빛이 없다면 어둠으로 단죄되어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성모찬송Salve Regina’을 바칩시다.

부활시기를 살고 있는 이는 충고해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 특별 93 고해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일반적인 고해성사인데도 더 주의를 기울여 더 큰 통회를 동반한 고해성사의 필요성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서] 계명들, 신분에 따른 의무들과 결심들이 명하는 바를 따르면서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우리가 올곧은

존재라고 자랑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하느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들로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면서 기실 많은 면에서 그렇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체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행이 가중되고, 많은 상처가 우리의 온 존재를 휘감게 되면 그제야 예수님께 절규하듯 울부짖게 됩니다. 눈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병이 눈을 뒤덮고, 귀를 통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병이 귀를 뒤덮고, 혀와 촉각도 나병에 덮여 만신창이가 됩니다. 이러한 수많은 잘못과 어찌면 심각하기도 한 과실의 무게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 불행의 심연에서 “깊은 곳에서 De profundis”의¹⁴ 시편 성가로 하느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스승 예수님 … Jesu Magister …”

3. 이 세 번째 사항에서 예수님께 죄에 대한 통회와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청합니다. 죄에 대한 통회는 거짓된 것일 수도 있고 거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천상 스승을 부인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자비로운 눈길을 주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눈길과 마주했을 때 그는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 잘못을 깨우쳐 “슬피 울었으며 *Flevit amare*”¹⁵ 절망하지 않고 깊이 참회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잘 알았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연약함으로 짓는 죄를 인식하였으며, 정욕에 휘감겨 그러한 죄가 갑작스레 다가왔을 때 더

94 옥 연약함으로 인한 죄를 절감했습니다. 참된 통회입니다! |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지적하지는 않으셨지만 세 번에 걸쳐 보속행위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행위를 세 번 물으셨고,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를 지상에서 당신의

14. 시편 130,1 참조.

15. 마태 26,75 참조.

가시적인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¹⁶ 아, 참된 속죄여! 아, 예수님은 참으로 회개한 죄인들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베푸시나니!

용서가 이루어진 다음, 어찌면 더 많은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유다는 거짓 통회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달아 사제들을 찾아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전합니다. “죄 없는 분을 팔아 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라고 말하며 배신의 대가로 받은 은돈을 성전 안에다 내던졌습니다. “내가 그분을 팔아넘겼소!” 자신의 죄를 인식하였지만 신뢰하지 않았고, 용서를 바라지도 않았습다. 그러므로 절망으로 도망쳐 나무에 목을 매달아 죽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Laqueo se suspendit!*”¹⁷

우리는 진정한 통회와 표면적인 통회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통회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특히 기도와 죄의 기회를 피하는 결심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선하심에 신뢰를 두게 되며 은총을 증가시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잊어주시기만 바라고 수단들을 활용하지 않을 때 거짓 통회가 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마치 얼굴만 씻는 행위와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삶의 죄를 땅에 파묻어 버린 채 정녕 내면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결심에 [이르지 않고], 더 나은 삶에 대한 확고한 열망에 [이르려 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통회와 확고한 결심은 분리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통회가 보속과 성화의 결실에 의해 확고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결실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진정한 통회를 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좋은 결실을 맺는다면 | 우리의 95 통회는 참으로 진지한 것이요, 하느님께서 기꺼워하시는 것으로 우리

16. 요한 21,15-17 참조.

17. 마태 27,3-5 참조.(역주: 라틴어의 뜻은 “목을 매달아 죽었다.”이다)

의 잘못은 소멸됩니다.

지난 악행에 대한 속죄를 위하여, 미래에 은총의 증가를 위하여 '통회의 기도', '오, 사랑으로 불타신 예수님...', '미세레레'를¹⁸ 바칩시다. 그리하여 더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4. 주님 만찬 성 목요일'

96

이 시기에 교회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하느님,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지난 삶의 모든 잘못과 모든 죄에서 저희를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고,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머무시는 거룩한 새로운 삶에 합당한 자 되게 해주소서 *Misericordia tua, Deus, expurget nos, ab omni vetustate et dignos efficiat sanctae novitatis.*” “거룩한 새로운 삶에 합당한 자 되게 하소서 *Sanctae novitatis dignos efficiat!*”²

그리스도교 신비를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곧 우리 정화의 신비와 새로운 삶의 신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부활 신비입니다. 모든 악에서 정화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 곧 낡은 아담에서 발생하는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결실, 성화의 결실을 전하려 노력합니다. 곧 외적으로 그리스도와 닮고 그분 안에 살아야 할 뿐 아니라 성부께서 우선 마음과 지성을 바라보시도록, 우리가 새로운 삶에 합당한 자들이 되고 당신 성자와 닮은 자들이 되려는 것입니다. 악에서 우리를 정화시켜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멀리하는 것인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숙고하는 성주간 동안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죄에 죽음을 가져오기를 희망해야 하고, 부활의 신비를 통하여 | 그리스도 안에 사는 97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부활한 자들은 낡은 삶의

1. 1955년 4월 7일, 로마에 있는 사도의 모후 성당의 지하 경당에서 바오로 가족을 대상으로 행한 묵상. 묵상 주제는 “미사와 영성체, 매일의 파스카”.

2. 성 화요일 미사 마침 기도 참조.

18. 시편 51편 참조.

모습, 결점 많고 죄 많은 삶을 더는 살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우리가 매일 [정화]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례는 연중 파스카뿐 아니라, 매일의 파스카에 대해 언급합니다. “적어도 일 년에 한 번”이라는 표현은 교회의 강력한 요구이며,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³라는 말에 담긴 하느님의 선물, 예수님의 선물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곧 매일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고, 매일 여러분의 파스카, 매일의 파스카를 쇠신하십시오! 주 예수님은 매일 우리의 빛을 갠기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을 되풀이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⁴

오전 피정은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예방 차원의 양심성찰과 묵상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죽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앞선 날들의 잘못들을 속죄하고 그 잘못들을 미워하며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고해사제 안에 현존하시는 신성한 힘의 덕택으로 죄가 소멸되도록 고해사제에게 우리의 죄를 낱알이 고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게 됩니다. 매일의 파스카인 다른 두 부분은 미사와 영성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접목된 신적 존재는 거룩한 올리브 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유입니다 *Oleum effusum nomen tuum*.”⁵ 하루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지냈기 때문에 이러한 신적 접목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

3. 마태 26,26.

4. 요한 6,54.

5. 아가 1,2 참조(불가타).

다. 결점으로 가득 찼던 삶에서 정화되도록 우리는 근면함과 계명 준수, 인내와 관대함 안에서 생각, 감정, 애정, 말과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우리의 일과 시간을 |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모범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파스카인 미사와 영성체가 필요합니다. 연중 파스카는 파스카의 모델이고 파스카들 가운데 태양이지만, 별들인 매일의 파스카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Apud te facio Pascha cum discipulis meis*.”⁶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당신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를 지내십니다. 당신 제자들을 사랑하시기에, 당신 사랑의 표지를 해를 거듭하여 전하시기보다 매일 쇠신하기를 바라십니다. “내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Facio Pascha cum discipulis meis*.”

매일, 하루 일과 동안 묵상을 통해, 양심성찰을 통해 정화되고, 매일 생명의 빵에 굶주린 상태가 되어 성변화 후 이 성체성사의 빵에 참여함으로써 또 다른 파스카, 매일의 파스카를 완수합니다. 하루의 성화, 일년의 성화는 매일의 파스카, 곧 매일 아침에 거행하는 파스카에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소통하고 있습니까? 주석서들이 오늘 전례에 대해 이러한 생각을 강조함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물질적인 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라실 뿐 아니라 파스카의 재현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우리가 고치고 정화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 인간이 되고, 건설하는 노력을 새롭게 쇠신할 수 있도록 부활에 대한 열정을 갖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아침 영성체에서 이러한 은총을 간청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며,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곧 매일의 파스카를 더 잘 거행하

6. 마태 26,18.

고, 성화에 이를 수 있는 은총입니다. 금년의 특별 결실frutto은 스승 예
99 수님을 기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스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밭아 |
먹어라.” 그리고 정화된 우리는 당신의 신적 뜻에 따라 당신의 살을 받
아 먹을 것입니다. 매일의 파스카를 잘 거행하십시오!

잡지 「다이제스트*Sintesi*」⁷에서 몇 해 전으로 기억되는 사건을 읽었습
니다. 전쟁중이던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사이의 국경지대에 있는 타
체노Taceno 지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을은 작지만 전략적 위치
에 있어서 한쪽에는 공격이 이루어지고 다른 쪽에는 방어선이 구축되
고 있었습니다. 많은 집들이 이미 대포의 폭격으로 무너졌습니다. 본
당신부는 조만간 적들에 의해 자신이 잡혀갈 것이고 마을도 그들의 손
에 넘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성 토요일 저녁에 그는 성체에 가해질 모
독을 염려하여 — 이미 본당신자들 대다수가 고해성사를 보았음— 여
덱 살짜리 어린이 아르미도 프란첼리Armido Francelli를 불러 이렇게 일러
두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나는 체포되어 신자들에게 성체를 영해주
지 못할 거야. 너에게 감실 열쇠를 맡기마. 내일 아침 하느님께서 원하
신다면 신자들이 모일 텐데, 너는 감실문을 열고 성합을 꺼내어 성체
를 분배해준 다음 너도 마지막에 영하거라.” 총명하고 진지하고 경건
한 그 어린이는 그날 아침 본당신부가 특별 상황에서 그에게 맡긴 직
무를 새로운 타르치시오Tarcisio(역주: 성 타르치시오는 복사와 첫 영성체의
수호성인으로, 3세기 박해시대에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 성
체를 모시는 임무를 맡았기에 돌에 맞아 죽기까지 성체를 지켰음)처럼 정확
하게 완수하였습니다.

예식을 마친 다음 [어린이는] 자기 여선생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만
졌던 오른 손을 보이며 “예수님에 의해서 축성된 이 손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여선생님은 “오늘 네가 한 일을 늘 기
억하고, 그 손으로 어떤 악도 행하지 말아야 한단다.”라고 대답했습니
다. 그 어린이는 그 일도 그 말씀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도
회에 | 들어갔으며, 많은 세월이 흐른 뒤 사제가 되어 그 마을에서 첫 100
미사를 거행하게 되었는데 프란첼리의 본당신부님은 아직 살아있었
고, 여선생님도 살아있었습니다. 그는 회중에게 몸을 돌려 이렇게 말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졌던 이 오른 손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순
결한 손으로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고 믿었기에, 오늘 사제가 되어 하
느님의 어린양의 살을 합당하게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아 모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나 우리의 정신을 죄로 모독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는 일을 되풀이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며, 우리는 거룩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
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자신 안에 예수님을 모시면
서 자신의 눈이나 마음이나 다른 감각기관을 함부로 사용하여 예수님
께서 상처 입으시게 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부활 파스카를! 매일의 파
스카를!

7. 「가톨릭 다이제스트*Catholic Digest*」는 건설적인 기사와 가톨릭 영감이 담긴 잡지로
서 여러 나라 언어로 발행되고 있다.

15. 주님 수난 성 금요일¹

오늘 아침 예식은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전례의 첫 부분은 ‘입교자들의 미사Messa dei catecumeni’라고 부릅니다. 둘째 부분은 ‘기도’이고, 셋째 부분은 ‘십자가 경배’, 넷째 부분은 ‘미리 축성된 성체의 미사Messa dei presantificati’입니다. 모두 파스카 신비의 첫 부분, 곧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죄에 죽은 우리의 죽음을 숙고하는 것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죄를 소멸시킬 것인가를 숙고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현양된 십자가와 [터불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실현됩니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 것이다.”² 예수님께서서는 육체적이며 물질적인 힘으로가 아니라 당신 사랑의 힘을 통하여 영혼들을 얻으십니다. 당신 사랑의 위대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³ 오늘 전례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십자가로써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네Regnavit a ligno Deus.”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사랑을 통하여 다스리십니다. 그 사랑은 그분을 지상에서 인간이, 스승이, 사제가, 그리고 희생 제물이 되게 하며, 그 사랑을 통하여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빛을 보상하기를 원하십니다. 목자께서는 양떼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소위 ‘입교자들의 미사Messa dei catecumeni’라고 부르는 첫 부분에서 신

적 희생에 관한 예언서의 내용을 읽게 됩니다. 이러한 기억에 대한 재현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예루살렘의 성 십자가 성당에서⁵ 전례를 거행합니다. 그 성당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사용한 못들 중 하나와 진짜 십자가 나무의 조각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미사 동안 | 교회는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신 102비를 가르쳤습니다. 호세아 예언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자, 주님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잡아 찢으셨지만 아픈 데를 고쳐 주시고 우리를 치셨지만 싸매 주시리라.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 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게 되리라.”⁶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죄인들을 회개로 이끄시고, 속죄를 통해 악에서 부활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표상하는 파스카 어린양을 먹는 의식을 설명하는 탈출기 부분을 읽습니다. 파스카 어린양처럼 성자는 아무런 저항 없이 죽음을 향해 나아갔으며, 우리에게 대한 사랑에서 자발적으로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수난Passio를 노래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서 예언이 실현되었음을 기립니다. 이것이 첫 부분입니다.

둘째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숙고한 다음, 교회는 모든 인간을 위하여 바치는 ‘기도’를 통하여 전 인류를 위한 은총을 청합니다. 교회는 주교, 사제, 부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 자신을 위하여, 이단자들을 위하여, 아직 신앙을 갖지 못한 모든 이를 위하여, 물질적으로 곤궁에 처한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교도들을 위하여, 이단자들을 위하여, 또 언젠가 자신들의 큰 과오를 깨닫고 하느님께 돌아와 메시아를 인정하도록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1955년 4월 8일, 로마에 있는 사도의 모후 성당의 지하 경당에서 바오로 가족을 대상으로 행한 묵상. 묵상 주제는 “성 금요일 아침 예식에 대한 설명”.

2. 요한 12,32.

3. 요한 15,13.

4. ‘성 십자가 현양 찬미가’의 세 번째 연에 나오는 구절(Vexilla regis).

5. 전승에 따르면 이 대성당은 4세기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로마에 건립되었다.

6. 호세 6,1-2.

셋째 부분에서는 ‘십자가 경배’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상처 가득한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 위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감사, 그리고 우리의 결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곧 더는 중죄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는 결심, 더는 소죄로써 그분께 침 뱉고 뺨을 때리고 가시관을 씌우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표현합니다.

넷째 부분에서는 ‘미리 축성된 성체의 미사Messa dei presantificati’가 [이 103 루어집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는 대신 | 전날 축성한 성체, 미리 축성한 성체를 영합니다.

교회는 골고타에 십자가를 높이 현양하는 오늘, 모두 그곳을 바라봅니다. “...그분께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부활이 있나이다in quo est salus, vita et resurrectio nostra.”⁷ 오늘은 십자가에 대한 신심의 날이요, 성찰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돌아가셨습니다. 이 집에 그분의 죽음이 있고, 그분의 시신이 있으며, 우리는 이 죽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한 가지 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곧 더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하겠다는 결심입니다.

더 나아가 어제 이른바 수난감실에서 조배한 것처럼, 오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일과 중에 방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며, 우리는 골고타에서 마리아, 경건한 여인들, 성 요한을 동반합니다. 십자가에서 하신 예수님의 일곱 가지 말씀을 다시 느끼고, 마리아의 성심에서 고통치는 사랑과 고통의 맥박을 느껴봅시다.

‘미리 축성한 성체의 미사’는 행렬로 시작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모셔오기 위하여 위쪽 성당으로 행렬하여 사제는 전날 모셔놓은 곳에서 성체를 모시고 장엄하게 행렬을 계속하여 지하 경당으로 내

7. 입당송.

려와 영성체 예식을 거행합니다. 모두 침묵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침묵할 때 우리는 “참으로 이분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Vere Filius Dei erat iste.”⁸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숙고하고 결심해야 합니다. 곧 내가 예수님께 상처를 입혀드렸지만, 이제 더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8. 마태 27, 54.

16. 주님 부활 대축일¹

아름다운 '신경'을 노래로 바칩시다.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Et tertia die resurrexit.*"² 나는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Inde venturus est iudicare vivos et mortuos, cuius regni non erit finis.*"³ 아름다운 '신경'을 잘 노래했다면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오늘 성인들과 천사들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⁴ 읽어봅시다.

이 복음 말씀에 관하여 네 가지 주석이 가능하지만 세 가지로 줄여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석은 역사적 주석입니다. 곧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셨고, 경건한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베드로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이층 다락방에 모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다음에는 제자 500명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우리에게 부활의 진실성을 증명합니다.

교의신학적인 주석은 마음 안에 부활 교의를 잘 새기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가장 크고 핵심적인 교의로서, 이 부활 교의를 통하여 그분께서는 다른 교의들을 입증하셨고, 당신께서 설파하신 진리를 입증하셨습니다. 이 부활과 더불어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이기신 후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1. 1955년 4월 10일, 로마에 있는 사도의 모후 성당의 지하 경당에서 바오로 가족을 대상으로 행한 묵상.

2. 미사 중에 바치는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의 한 부분.

3. 상동.

4. 마르 16,1-14.

전례적 주석은 파스카 축제가 그리스도교 축제들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앞선 축제들은 준비이고, 뒤이은 축제들은 결과로 따라오는 축제로서 예수님의 부활 신비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실입니다.

이어서 성 바오로께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에서 가르치신 윤리적 주석이 있습니다.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니다."⁵ 다시 말해서 삶을 바꿉시다. 사실 새로운 삶, 그리스도교 신비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확립하는 것, 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확립하는 것입니다. "사실 나에게 삶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Mihi vivere Christus est.*"⁶

이 시기에 우리는 영광의 신비에 특별히 신심을 표현하고, 그중에서 이 40일 동안 특별히 그 첫 번째 신비에 신심을 드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정녀를 기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수없이 되풀이합니다.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Regina coeli, lactare, alleluia: quia quem meruisti portare, alleluia. Resurrexit, sicut dixit, alleluia.*"⁷

특히 우리는 종말실재 안에 [포함된] 진리를 숙고해야 합니다. 곧 육신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날에 우리가 무덤에서 새로운 삶으로 부름 받을 때 선

5. 1코린 5,7-8.

6. 필리 1,21.

7. 부활 삼종기도.

택된 이들의 영혼이 이전에 지니고 있던 육신을 찾으려 하늘에서 내려 올 것이고, 슬픔에 잠긴 이들의 영혼은 이전에 지니고 있던 육신을 찾으려 지옥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 얼마나 다른 양상입니까! 지옥에 떨어진 이들의 육신은 얼마나 추하게 변질되어 악취를 풍기겠습니까? 그들 죄의 자취를 모든 이 앞에서 그리고 하느님의 정의 앞에서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의로운 분으로서 공덕을 쌓은 대로 각자

106에게 갚으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 심판의 위대한 날은 부활에 앞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이들의 육신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들의 훌륭한 행동, 그들이 실천한 덕성과 열성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선택된 사도들의 육신에는 갑절의 영광, 갑절의 빛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한 것 이상으로 선을 가르쳤던 이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그분의 상처는 오직 영원에서, 천국에서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된 이들의 육신은 지상에서, 이 생애 동안 그분과 비슷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들, 곧 청각, 시각, 미각, 촉각, 마음, 환상, 기억을 생각해야 하고, 우리의 모든 능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참으로 하느님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기울인다면, 당신의 생명에 공덕을 쌓는다면 각 감각과 능력은 충족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적인 감각기관과 내적인 감각과 그들의 마음과 지성을 남용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각자가 영원한 마지막 언도를 받게 될 때, 예수님께서 세상 전체에 대해, 그분을 거부한 자들에 대해, 그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따랐던 이들에 대해 심판하시게 될 때 그 위대한 심판 날에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40일 동안 특히 더욱 확고하게 믿으며 우리의 마지막 부활을 더 자주 생각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위대하고 아주 쓰라린 날

Dies magna et amara valde.”⁸ 위대한 날이여! 모든 선택된 이들을 위한 기쁨이 얼마나 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승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타락한 이들을 위한 쓰라림, 눈물과 절망은 어떠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시험 중에 있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착한 이와 악한 이를 심판하여 각자의 공덕에 따라 갚아주실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 따라 살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파스카는 무엇입니까? 하나의 삶에서 다른 삶으로 옮겨가는 전이입니다. [이것은] |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107 약속된 땅으로 넘어가는 전이의 상징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의 파스카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Pascha nostrum immolatus est Christus.”⁹ 우리는 한 삶에서 다른 삶으로 지나가면서 이 파스카를 영적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노력을 해야 합니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까? 열정적인 삶, 수도생활입니다. 영원을 위하여 삶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빠르게 지나가는 연중시기에도 [파스카를] 고려합시다. 기회를 활용할 줄 아는 이들은 행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조금밖에 하지 않으며 죄를 지으면서 시간을 소모하는 이들은 불행합니다.

이 부활시기 동안 복음은 우리가, 우리 편에서, 우리의 부활을 숙고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 숙고하게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읽는 복음은 말하자면 모두 성 요한의 복음으로 14장에서 17장까지입니다. 주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것, 곧 우리의 부활, 천국을 숙고하도록 우리를 높이 들어 올려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 목요일에 했던 결심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매일의

8. 「성무일도서」, 모든 죽은 신자들을 위한 공통기도, 3 참조.

9. 부활 대축일 미사의 복음 환호송. 1코린 5,7-8 참조.

파스카! 매일 아침마다 쇠신합시다. 하루의 비결은 아침에 하게 되는 기도, 미사, 묵상, 예비 성찰, 영성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하루를 계속하고 완수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면 아침에는 열성에 고무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예비 양심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곧 어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어떤 유혹을 만나게 될 것인가? 묵상은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상은 언제나 확고한 결심으로 끝맺어야 하며, 특히 중

108 말실재를 숙고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 하루를 위한 하느님의 도우심을 간청하기 위하여 기도하고 영성체를 해야 하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 안에 오셔서 필요한 빛, 신심, 덕성을 가져다주시도록 간청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미사 성체에 도움이 됩니다. 미사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관상하고, 그분을 흠송하며, 감사드리고 간청합니다. 이는 필수적인 매개체입니다!

아침에는 곧바로 하느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Ad te de luce vigilo.”¹⁰ 졸고 있는 이들은 도우심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고, 아침의 영적 훈련을 소홀히 했을 때 하루의 의무를 더욱 소홀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파스카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무덤에서 나오셔서 당신 생명을 다시 취하신 후, 새로운 삶을 불려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심을 지키기 위하여 함께 노래합니다. “그리스도 부활하셨네.”¹¹

10. 시편 63,1 참조.

11. 대중적인 신심 성가.

17. 우리의 성화¹

109

여러분은 기도를 잘 하였습니다. 모든 은총에 대해 그리고 주님께 서 여러분에게 필리핀에서 베풀어주신 은덕에 대해 늘 감사드리며 미사를 봉헌하십시오. 또한 이 나라에서 세상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서도 죽은 이를 위한 기도를 바칩시다. 그리하여 연옥은 기쁨을 누리고, 우리의 방문이 살아있는 이들과 저 세상으로 옮겨간 이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싸워주시는 이들을 통하여 한 번 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 각자의 성화를 위해 많은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성화는 먼저 정화를 가져오고 그다음 건설하도록 해줍니다. 성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퉁잇돌 위에 돌이 얹혀져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납니다.²

정화를 위한 은총을 청합니다. 정화는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결점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 결점을 떨쳐내어도 무엇인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녀로서 많은 나쁜 경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한 가지 삶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³ 우리는 아름다운 일을 겸손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행하는 만큼 우리는 하늘에 계

1. 1955년 4월 20일, 필리핀 리파(Lipa)에서 수련자들에게 행한 묵상. 프리마 마에 스트라의 여권을 보면 프리모 마에스트로와 함께 1955년 4월 16일에 필리핀으로 떠난 것으로 확인된다.

2. 에페 2,21-22 참조.

3. 마태 5,48.

신 아버지의 완전하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 110 그러나 스승 예수님께 대한 신심을 통하여 | 더 빨리 완덕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느님을 뵈지 못했지만, 스승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느님을 뵈는 것이고, 사람이 되신 천상 스승 안에서 완덕의 모델을 찾게 됩니다. 그분 안에는 얼마나 많은 애덕이, 얼마나 많은 겸손이,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델이 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성모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고, 스승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오셨습니다.

완덕의 모델이신 스승 예수님을 관상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말씀해줍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⁴ 다시 말해서 지성의 성화, 마음의 성화, 의지의 성화입니다. 에너지의 성화, 육신의 성화, 혀의 성화, 눈의 성화, 우리의 존재 전체의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금년은 천상 스승께 특별한 신심을 드리는 해입니다! 우리의 성화를 위해 간청해야 하고, 가능한 한 결점을 제거하도록 살펴야 하며, 가능한 한 완덕을 지향해야 합니다. 얼굴을 씻는 것은 쉽지만, 마음을 씻는 일은 어렵습니다. 마음을 씻기 위해서는 말로 씻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성령이 필요합니다. 훨씬 깊은 곳에서 씻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수도서원을 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도록 해야 하며, 심오한 내면보다 외적인 부분을 더 열심히 씻는 위험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 성성을 돌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향이 순수한지, 성화를 위해 작업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직 하느님만 찾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마음의 심오한 내면을 돌보아야 합니다.

4. 요한 14,6.

고해성사는 탁월하게 정화의 성사가 되고, 영성체는 최대의 건설적인 성사가 됩니다. 우리를 하늘에 계신 성부의 완덕으로 이끌어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 성사는 언제나 최상의 마음 자세를 갖추고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눈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더는 역겨워하지 않을 단호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영성체를 잘 해야 합니다!

수도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수도회는 성인이 많을수록 크게 성장합니다. | 만일 여러분이 수도회를 사랑한다면 성인을 배출해야 하고, 111 성인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성녀가 되십시오!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는 영혼이 되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수도회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성 바오로의 딸들이 되십시오. 본받아야 할 성인들을 바깥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수도회 안에서 찾으십시오. 수도회 안에는 여러분이 신앙에서, 겸손에서 본받을 수 있는 영혼들이 이미 있습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와 더 긴밀한 상태에 있는, 훌륭한 덕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맑은 물이 흐르도록 한층 깨끗한 운하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회를 느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수도회에 대한 참된 사랑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섬에 있기에 전체 수도회를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음과 같이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회는 하나의 몸이요, 각자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 몸은 교회의 참된 몸이요, 수도회의 참된 몸입니다. 여러분 각자는 수도가족 안에서 자신이 [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회Societa’라는 단어를 포함한 성바오로딸수도회 Societa Figlie di San Paolo라 불리지 않습니까? 축복받은 몸의 지체라고 느껴야 하며, 각 지체는 자기 직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몸은 모든 지체를 양육하고, 지체들은 몸 전체를 위하여 일합니다. 중앙의 지침을

잘 받아들여야 하고, 주의사항, 영적 지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받은 머리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중앙의 지침을 잘 받아들이고, 영적 지도와 수도회에서 부여한 공동생활에 영혼을 집중해야 합니다. 공동생활보다 세 가지 서원을 준수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네 개의 바오로 수도회는⁵ 성 바오로 안에서 친족관계에 있습니다. 수도회의 좋은 소식에 기쁨을 느껴야 하고, 시련과 난관에 대해 고통
112 을 느껴야 합니다. 기도와 | 특히 좋은 본보기를 통하여 수도회를 느끼고 도움시다. 장상들에게 곤란한 일을 가중시키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한층 좋은 성소자들을 찾아야 하고, 지성, 건강, 좋은 성격, 친화력을 가진 사람들, 자기 자신보다 사람들을 더 고무시켜주는 사람들, 휴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발해야 합니다. 수도생활에는 가정생활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수도자는 한 가정을 이루는 소녀보다 최상의 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도회에 마음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선별된 자매들이어야 합니다. 이 자매들은 쉽게 번덕을 부리지 않아야 하며, 심지가 굳고 공동생활을 수월하게 해내는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수효가 많아지고 ... 성녀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일입니다. ...

이제 사도직에 관해 살펴봅시다. 성 바오로 사도의 정신 안에서 사도직을 행해야 합니다. 성 바오로께서 이 나라에 오셨다면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성부께서 우리에게 확고한 의지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성자께서 우리에게 천상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성부께서는 의

5. 이 시기에 바오로 가족 수도회는 다음의 네 수도회가 존재하였다. 곧 성바오로 수도회, 성바오로딸수도회,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지에 따라 역사하시고, 성자는 지성에 따라 역사하시고, 성령께서는 마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언제든 미사 끝에 강복을 잘 받으며,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준 말을 잘 새기도록 합시다. 곧 성부께서는 늘 우리의 의지 안에서 작용하시고, 성자께서는 우리의 지성 안에서 작용하시며, 성령께서는 마음 안에서 작용하십니다.

18. 수련기: 완덕의 길¹

여러분은 몇 명입니까? 모두 좋은 자매들입니까? 적어도 모두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모두들 이탈리아어를 좀 이해합니까? 하느님과 함께는 어떤 언어로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니피캣'을 노래하였습니다...이것은 마리아께서 주님께 찬미를 드린, 하느님을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을 세 가지 방식을 통해 가장 위대하신 분으로 드높이셨습니다.

1. 그분은 하느님의 아드님께 육신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그분은 하느님-인간이 되셨습니다.

2. 마리아께서는 늘 모든 것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성부를 드러내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아드님은 천상 성부를 사랑하고 흠숭하도록 보살핌을 받으셨습니다.

3. 사도의 모후이신 마리아의 보호 아래 여러분의 수련기를 사십시오. 여러분도 '내 영혼이 마리아를 찬송하리니Magnificat anima mea Mariam'² 노래하십시오. 한 사제가 쓴 주석서가 나왔습니다.³ 이 책은 이 사제

1. 1955년 4월 21일 필리핀 리파에서 수련자들에게 행한 묵상. 본문에서 여러 차례 구두점을 길게 늘어뜨린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기가 어려웠음을 보여주는 듯하다.

2. 1933년에 알베리오네 신부가 작성한 '마니피캣' 버전. 1933년 5월 27일 묵상, n. 21, in FSP 33**, pp. 119-122 참조.

3. 여기서 언급된 세 저서의 저자는 조사 결과 「마리아 우리의 희망Maria nostra speranza」 3부작을 저술한 알베리오네 신부다. 1938년에 발간한 제1권에서 마지막 장의 제목인 '마리아를 찬미하고 싶다'(Voglio lodare Maria)는 '내 영혼이 마리아를 찬송하리니'에 대한 해설이다. 그러나 이미 1933년에 알베리오네 신부는 알바에서 사도의 모후 축일 저녁 성무일도 시간에 짧게 '내 영혼이 마리아를 찬송하리니'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마도 1955년 2월에 「마리아의 위대함Grandezza di Maria」의 재판이 발간된(알바노 1955년 2월 25일) 기회에,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가 마리아를 존경하여 쓴 세 번째 책으로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저에게 아름다운 천국문을 열어주시도록, 저는 그분의 벤자민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구원의 표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 보나벤투라께서는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세례성사, 견진성사, 사제직의 특징을 지닐 수 있고, 그 특징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마리아께 대한 신심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그 특징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께서는 당신께 대한 신심을 지닌 이들을 구원해야 할 과제 이외에 사람들을 성화시키고 완덕으로 이끌어줄 과제도 지니십니다.

수련기는 완덕의 삶입니다. 수련기 동안에는 덕을, 곧 나중에 서원 114을 통해 실천할 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지금은 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곧 정결, 청빈, 순명, 무엇보다 공동생활, [나중에, 이 외에도] 수도회 회원들에 대한 사랑, 회헌에 대한 사랑, 성소자들에 대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서원을 통하여 의무로 받아들이게 될 것을 지금 잘 실행하도록 시도하십시오. 더 나아가 앞으로 마에스트라와 고해사제의 허락을 통하여 사적 서원을 행할 수 있고 ... 단지 일주일 또는 6개월 동안 준비상태에 따라 할 수도 있지만, 수도서원을 통하여 천천히 하십시오! 무거운 짐을 들기 전에 여러분이 그 짐을 짊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원을 잘 준수한다면, 여러분의 의식에 관해서 그리고 책임자들과 [대화에 관한] 보장이 주어지게 되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바오로적 수도생활에, 사도직에 적합하다고 느낀다면, 희생을 통해서라도 수도회 안에서 여러

수련자 그룹에게 이에 대해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4. 비테르보의 보나벤투라(1217-1274)는 작은 형제회 소속의 프란치스코 수도회 수사, 신학자-신비가, 교회 박사이다. 중요한 작품들 가운데 「하느님을 향한 지성의 여정Itinerario della mente a Dio」을 으뜸으로 꼽는다.

분은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이러한 양성을 도와주시고, 쉽게 받아들여도록 이끌어주십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⁵라는 말씀 안에 세 가지 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참된 표지는 완전하게 되는 것, 성화되는 것을 바라는 의지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실행해야 하는 유일한 의무로서, 다른 모든 것을 요약해줍니다. 여러분은 한층 더 열성적이어야 하며, 성소에 만족해야 합니다!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영혼이 확고해지고 강화되어야 합니다. 성인들은 때로 유희당하고 시련을 겪고 약해졌듯이 결코 강하지 않았습니다.

수련기는 전 생애를 위해 은총을 얻는 데 도움이 되고, 전 생애를 위한 은총의 저장고입니다. 낙담하고 우울했던 상황들을 끌고가지 말아야 합니다. 한 주간을 잘 보내기 위하여 매주 고해성사를 잘 보고, 한 달을 잘 보내기 위하여 월피정을 잘 하고, 영성의 해를 잘 보내기 위하여 연피정을 잘 하고, 어떤 위치에서나, 건강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 전 생애를 잘 보내기 위해서 수련기를 잘 지내야 합니다. 전 생애 동안 묵상을 잘 해야 합니다. 전 생애 동안 기도를 잘 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

115 분은 | 그리스도인입니다. 수도 삶의 수련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은총과 기쁨을 풍성히 베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수련장이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때때로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깨닫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 요셉께서는 당신 삶에서 왜 그리한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많은 일을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마리아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성인이 되셨습니다.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수도회에 의해 인도되도록 맡기십시오. 오, 얼마나 큰 공덕입니까! 하느님께서

5. 마태 19,21.

명령을 내리실 때 무한히 지혜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십니다.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그분께 순명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변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그리스도인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수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로지 수도자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하느님],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말하고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갖추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느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고], 모든 사물에서 이탈하는 정신을 더욱 완벽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녀들은 유산을 나눕니다. 여러분의 유산은 어떤 것입니까? 천국입니다! 수도자는 아름다운 천국을 보장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점이 수도자의 신분을 구별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성인이 되기 위하여 은총을 받는다면, 수도자는 그보다 백배나 더 받을 것이며, 특히 관상과 사도직이 일치하고 있는 바울리나의 삶에서는 더 많은 은총을 받습니다. 아, 주님께서 여러분이 이 수도회에서 지내도록 성소를 주신 은총은 얼마나 큼니까!

이 모든 것을 마리아의 보호 아래서 행해야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수련기를 통하여 당신의 사명을 준비하셨습니다. 성전에서, 기도에서 … 마리아께서는 당신 모범에 따라 성화되기를 바라는 영혼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스승이요 모후이신 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수련기의 변화의 삶을 따르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 수련기를 마리아와 함께 보내야 하고, 116 마리아를 바라보아야 하고, 마리아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수련자들로서 수도회의 일부분을 알고 있지만, 수도회는 인격 면에서 그리고 활동 면에서 매일 성장해가는 아이처럼 계속 움직

입니다...우리를 한층 위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곧 여러분의 마에스트라들과 현존하는 완숙한 바올리나들 안에서 많은 훌륭한 귀감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성인들을 바라보는 일은 줄이십시오... 여러분의 성인들, 예를 들면 M. 자카르도 신부님을 바라보십시오. 「디모테오 자카르도 신부의 정신 *Lo spirito di D. Timoteo Giacardo*」을 읽고 그분의 높은 열망, 청빈과 순명과 신앙 정신을 숙고하고, 어떠한 가벼운 죄조차 피하려는 섬세함, 수도회와 회원들에 대한 사랑을 숙고하십시오. 그런 다음 다른 지향 하나를 권하고 싶습니다. 바로 가족을 필리핀 섬에 정착시키려고 생각했을 때 동양을 위해, 주변의 모든 나라를 위해, 매년 조금씩 그 모든 나라에 파견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성소자들을 모을 수 있는 큰 수도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필리핀이 선택되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나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소자들을, 특히 아름다운 [성소자들을] 급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곳에 살고 있는 민족 전체를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훌륭하고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의 지향을 여러분의 지향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 수 없으므로 더 알기 위해서는 프리마 마에스트라의 지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마련하신 은총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멋진 성소입니까! 여러분의 수련기는 경건해야 하고, 정신을 집중해야 하며, 온순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모든 내용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에게 일부 가려져 있는 사명을 위해 준비를 잘 하십시오. 마리아께서도 당신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온순히 따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믿음과 관대함과 항구함, 그리고 많은 은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19. 용기¹

117

오늘 스승 예수님께 용기의 은총을 청하고, 성령의 모든 선물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시기 전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셨습니다. 오순절에는 열두 사도들뿐 아니라 약 120명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사제들에게만 유보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주는 성사는 어떤 것이니까? 견진성사입니다. 견진성사는 특히 용기의 선물을 줍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정신의 용기, 의지의 용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성무일도서」에서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사도들이 행한 행적을 읽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성체조배의 독서로 이용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였고, 성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히브리인들과 사제들의 죄를 물었으며, 하느님께서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파가 금하더라도 프로파간다를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기”²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어떤 내적 경향들은 옳바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준 회헌을 해석하는 장상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경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들어야 합니까? 용기를 가지십시오! |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고, 군사들과 파수병이 감옥을 지켰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들을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 그래서 사

1. 1955년 4월 21일, 필리핀 리파에서 수련자들에게 행한 묵상.

2. 사도 5,29.

도들은 기쁨으로 찬탄하여 그들의 길을 갔습니다. …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우리의 환상을 행동으로 옮길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행할 때 주어집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고, 고통을 겪고, 선을 인정할 때에도 주어집니다.

용기는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내로써 고통을 겪어야 하고,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 바오로딸수도회의 한 수녀님이 매우 아파 알바노에 있는 사도의 모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한탄이나 불평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많이 아픈니까?” 하고 그 수녀님에게 물으면 “조금요” 하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사실 그 수녀님은 대단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두들 놀라곤 [하였습니다.]

고통을 겪어야 하고, 견뎌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성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용기란 주먹을 휘두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 인내로써 견뎌내는 데 있습니다. 첫째로 용기는 견뎌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었지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세 시간 동안이나 임종의 고통 속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Pater, in manus tuas commendo spiritum meum.”³ 그리고는 머리를 숙여 돌아가셨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행동을 통해서보다 인내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구원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직, 무엇보다 출판 사도직이 아주 잘 되고 있지만, 고통의 사도직을 행해야 할 때, 그 때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영혼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내의 단계에 도달하게 될 때 주님과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음은 의심의

3. 루카 23,46.

여지가 없습니다. “…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Magna pati …”⁴

용기의 두 번째 얼굴은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 말한다면 수련기의 의무들, 사도직의 의무들을 아주 잘 행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지 않는다면 결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십시오. | “나는 세상의 빛이다.”⁵ 예수님께서서는 나에게서 빛을 받아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직은 성 바오로께서 완수하셨던 것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오로적 삶은 촛대가 세 발에 의해 지탱되는 것과 같습니다. 곧 기도, 인내, 죄에 대한 통회입니다. 그런데 양심성찰을 잘 하기가 어렵고, 특히 영혼의 생각과 느낌에 대해 성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양심성찰은 많은 숙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만은 많은 경우 다르게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 년 동안 양심성찰을 잘 하는 방법을 배운 [성바오로]딸은 훌륭하게 참회를 하고, 단식의 공덕도 더 많이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용기를 요청합니다. 기도할 때의 목소리는 내면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흠송하는 동안 노래를 한다고 해도, 많은 경우 내적으로 기도하지 않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실] 분심 속에서 드리는 성체조배와 찬미가는 통합을 이루지 못한 기도입니다.

아무말이나 다하도록 내버려 두고, 성찰을 하지도 않고, 질문을 하지도 않으며, 무기력 상태에서 수동적으로 수업에 임하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고, 마음에 새기며, 수업내용에 적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가르칩니다. 주의 사항을 받아들여야 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유감스럽지만 더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테야. … 배우

4. 루카 24,26.

5. 요한 8,12.

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수련기의 해는 위대한 해입니다. 「미사 경본」을 정독해야 하고, 묵상 방법 등을 잘 익혀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 가지 사항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곧 바오로 정신에 따라 바오로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바오로적 신심은 모두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께 대한 신심과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합니까? 여러분은 이 기도서의 서론[도] 깊여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신심 또는 진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20 다. | 기도서에는 묵상, 묵주기도, 성체조배, 고해성사, 양심성찰, 미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문 형태를 바치는 것보다 가르침의 내용을 더 많이 숙고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 부분을 건너뛰기 일쑤입니다. 모든 것은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께 영감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신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바오로수도회의 정신에 잘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은 베네딕토회 수녀나 가르멜회 수녀가 아닙니다. 수도복은 거창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수도복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바오로적 신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색깔입니다. 앞을 향해 발걸음을 떼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련기를 잘 보내십시오. 이러한 사항이 여러분의 정신을 이루는 부분에 포함되며,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만큼 금년에 우리는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께 대한 신심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교회 안에 일반 수녀들은 수없이 탄생됩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신심, 하나의 고유한 정신, 여러분의 것을 가져야 합니다. 바오로적 색깔을 구별해 주는 것은 수도복이 아니라 내적인 정신입니다.

20. 하느님 안에 확고해질 것¹

121

1) [지성 마음 의지를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할 것]

이번 월피정은 성모 마리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승천 후에 이층 다락방에서 마리아와 함께 했던 피정, 또는 9일기도, 영신수련 코스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물러납시다! 마리아의 기도는 성령강림과 교회의 탄생을 촉진하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교회의 수단과 목적을 확립하셨지만, [교회가] 탄생한 것은 성령께서 오셨을 때입니다. 교회의 영혼은 성령이요,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 지체들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함께 다락방으로 물러가서 피정을 해야 합니다. 이 피정의 목적은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오로지 하느님만 거주하시도록 은총을 청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단순하며 온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원의 수녀님이 내게 “신부님께서 이곳에 들리셨을 때 제게 말씀하셨지요. ‘연기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여 그대의 불꽃을 피우도록 하십시오. ...’”라고 적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느님께 온 마음을 드리기를 바라지만 아직 연기로 가득 찬 수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연기를 내뿜지 않게 하십시오! 왜 우리 마음에 아직도 많은 연기가 뒤섞여있습니까? 생각해보십시오. ... 연기 없는 불꽃 ...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서 연기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오만함과 자애심, 애착과 질투가 많이 있습니

1. 1955년 5월 12-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행한 피정 강의. 본문에서 종종 말줄임표를 사용한 것에 대해, 편집자들은 이러한 것이 완전하게 표현되지 못한 개념을 나타낸다고 했다.

122 다... |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없을 때 이러한 것들이 다가옵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라고 말하던 신자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 이외에 다른 누구도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²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그대를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예수님께 책망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머리를 숙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는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합니까? 우리의 자아, 우리의 탐욕, 분노, 태만, 육욕을 넘어서서 사랑합니까? ... 세속의 옷을 쉽게 벗지만, 우리의 머리는 목 위에서 군림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일치를 어떻게 이루어야 합니까?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그분 안에서 확고해지도록 주님께서 나를 당신께 빨리 부르실 것이라고 느낍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더는 그 누구도 나를 매료시키거나 방해하지 못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하느님 안에 확고하게 서 있었습시다.

하느님 안에 확고해진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수련자들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것(지성의 성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것(마음의 성화),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것(의지의 성화).

1.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께 대한 신심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성, 마음, 힘 ... 등이 성화될 것입니다. 온 지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며, 신앙의 원칙이 없는 수녀들이 있는가 하면, 온 지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교리, 주의사항, 강연,

2. 1코린 1,12 참조.

교육 등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승인한 123 수도회의 생각과 이상을 선택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는 수녀들도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맛보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고, 우리가 좋아할 것이라 생각되는 여러 방식을 포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수도회에서는 이렇게, 저 수도회에서는 저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대의 수도회는 다릅니다. 모두 선을 행하도록 교회가 많은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언제나 선을 생각해야 합니다!

양심성찰은 자매에게 행한 무례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생각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심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생각에 관하여 양심성찰을 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제일 먼저 생각에 관하여 양심성찰을 해야 합니다. 더욱 올바른 신앙에 대한 생각을 지녀야 합니다.

어떤 수도회에 있던 수녀가 해야 할 일은 성화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안락하게 지낼 야심을 [추구하지] 말고, 고통을 겪을 일이 없는 곳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수도생활은 원칙적으로 성화입니다. 성화의 삶은 정결 청빈 순명의 서원과, 공동생활과 사도직과 더불어 실현됩니다. 수도회에 들어와 청원기와 수련기를 보낸 다음 첫서원으로 성화 작업에 착수하여 종신서원으로 확고해지고,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회현은 병자들과 죽음에 임박한 이들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합니까? 수도회 정신 안에서 병과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수도회에서 우리는 일을 훨씬 더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없겠지만, 계속해서 가장 완전한 방식의 성바오로딸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도직의 결실, 여러분의 프로파간다의 결실을 즐기십시오.

회현이 어떻게 제시하는지 늘 생각하며, 회현에 담긴 말을 믿어야

124 합니다. 회현은 여러분의 구원의 길이요 | 여러분의 성화의 길입니다. 그뿐 아니라 회현은 당연히 그 순간에, 그 시대에, 그 장소와 회원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적용되어야 하고, 적합해야 합니다. 정결 청빈 순명의 가치를 믿어야 하고, 사도직이 교회 안에 많은 결실을 가져다주며, 기쁜 소식, 복음이나 복음 요약, 곧 교리서를 전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한 이런 형태가 훨씬 낫다고 믿으며, 이 사도직의 선을 믿어야 하고, 공동생활의 가치를 믿어야 합니다. 토론을 멈추고, 연민에 의해 형성된 덕스럽지 못한 우정의 흑사병(페스트)이 퍼지지 않아야 함을 믿어야 합니다. 같은 정신, 같은 기도, 같은 친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바오로딸은 오스트리아에 있거나, 아일랜드에 있거나, 캐나다에 있거나 또는 일본에 있거나 동일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한 가지 정신이어야 합니다!

2. 마음을 성화해야 합니다. 수도회 안에서 모두를 사랑해야 합니다. 장상들, 자매들, 사도직을 사랑해야 합니다. 도가 지나친 분열과 연민을 단죄해야 합니다. 수도회, 장상들, 자매들, 회현, 사도직, 순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언제나 수도회를 위한 관심, 수도회의 정신에 따라 기도하는 마음, 기도문뿐 아니라 여러 신심실천에 대한 입문, 다시 말해서 기도문과 기도 자체보다 더 필요한 것으로, 기도서의 설명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떠오를 때에는 여러분도 이러한 기도문들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마음의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 이상, 곧 자신의 자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페스트인 이러한 이기주의를 불태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수녀가 아닙니다. ... 분열되어 있고, 마음 안에 자신들의 이상을 지니고 있는 ... 이기주의라는 이상을 지니고 있는 한 그는

수녀가 아닙니다.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도 |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 125 고, 어떤 장상이나 다른 장상, 어떤 자매나 다른 자매와 함께 지내기를 선호한다면 더는 수녀가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세속에서, 그의 가정에서 서약을 지키는 편이 나올 것입니다.

3. 그뿐 아니라 주님의 뜻과 일치하는 뜻은 지도자에 의해 드러나거나 다른 일상적인 표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이가 아픈 경우 [...] ³ 그것은 주님이 뜻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건들도 그와 유사합니다. ... 이러한 의지를 통하여 사도직을 껴안아야 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용해야 하고, 여러분에게 지명된 사람과 함께 가야 하고, 식탁과 시간 배정에 관련한 그 모든 것을 안내하는 사람과 일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의지를 지녀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영혼이 하느님 안에 확고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듯이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할 때 진정한 수도자가 됩니다. 곧 생각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곧 감정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곧 활동에 대하여, 사는 방식에 대하여 성찰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수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도복은 금세 바꿀 수 있지만, 생각과 감정과 사는 방식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사항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습관이 우리를 참된 수도자로 형성해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마리아를 형성하십시오!

하느님 안에 확고해진 영혼의 중심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원본에는 '누구의 탓입니까?'라는 표현이 있지만 생략되었다.

다. ... 그렇지 않다면 늘 불안할 것입니다. ... 지성 마음 의지가 하느님 안에 확고해질 때까지 불안할 것입니다. “*님 위해 우리를 내시었기 님 안에 쉬기까지는 우리 마음이 찻찻하지 않삽나이다*Inquietum est cor nostrum donec requiescat in te.”⁴ 그러므로 하느님 안에 확고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126 2) 공동생활

오늘 저녁에 공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은총을 천상 스승께 청하십시오. 물론 서원할 때 영성생활에서 진보하고, 공동생활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고 선언합니다. 공동생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어느 분원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로마에 또 한 사람은 도쿄에서 살 수 있습니다. ... 비록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더라도 프리마 마에스트라에 의해 명령된 것을 행할 때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생활이란 예를 들면, 병이 났을 때 순명 안에서 자신의 조건에 따라 잘 지내는 것입니다. 바오로적 삶이기 때문에 공동생활이 됩니다. 프로파간다를 한다고 가정할 때 각기 다른 시간, 다른 음식, 다른 상황 등에 맞추어 지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프로파간다에서 여러분은 좋은 그림, 아름다운 성 바오로의 성상, 사도의 모후 상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 파견되었으면 파견한 사람의 지침에 따라 사는 것이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활 중에 배에서 주무셨습니다. ... 스승 예수님께 대한 신심을 지닌 성바오로딸은 그분처럼 행해야 하고, 배 위에 기댄 채 잠들 수도 있어야 합니다.

공동생활은 형식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같은 지역의 음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 공동생활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수도회의 같은 정신을 살고, |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매는 프리마 마에 스트라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자매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 지역에서 수도회의 발전을 위하여 삶을 봉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지성에서, 의지에서, 감정에서 공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자동차를 타고 알바로 가는 길에 저녁때가 되었기에 운전자에게 “저녁식사로 뭘 좀 먹읍시다. 그런 다음 기도를 바칩시다.”라고 말했더니 그가 “몇 분만 기다리면 로마의 저녁식사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시간에 저녁식사를 할 수 있으므로 공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 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사도직 상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동생활은 생각, 감정, 의지, 그리고 가능성에 따라 다른 것들에 관여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잠이 별로 없어서 ...” “그래도 침대로 가서 좀 쉬십시오. 묵주기도를 좀 바치고, 기상시간이 되기 전까지 모두 침실에 머물러야 합니다. ...” 약간의 희생을 하게 되더라도 시간표, 음식, 의복, 식탁 자리, 면학 등에서 일사불란하게 합치될 때, 이 모든 것이 물리적으로도 공동생활의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공동생활보다 정결서원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공동생활은 무엇보다 먼저 총본부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바오로딸 모두는 총본부와 생각을 같이해야 하며, 그곳의 지침과 사도직을 따라야 합니다. 총본부처럼 느껴야 하고, 지원자들을 양성하는 것처럼, 수련자들이 하는 것처럼, 신심, 면학,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하며, 다른 바오로 수도단체들 사이에 지녀야 하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어느 여자 수도회를 방문했을 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성 바오로딸수도회의 많은 분원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원에 가든 같은

4. 성 아우구스티노, 「고백록」, I, 1 참조.

분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져 같은 수도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4대륙으로 퍼져나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수녀들은 무엇보다 먼저 교리서와 복음서를 똑같이 친절한 자세와 저렴한 128 가격으로 | 공급한다고 느끼며, 성소자들을 발굴하고, 미사와⁵ 정기간행물 등을 보급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친교와 일치는 총본부와 긴밀한 관계를 이루게 합니다.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부차적인 일에 있어서 조언을 구하지 말고 스스로 중요한 일들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일치를 ...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에 대해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성바로말수도회라는 것을 곧바로 드러내며 모든 지침을 따르는 수녀들이 있습니다. ... 이는 수도회 전체와 함께 친교와 일치를 이루는 태도입니다.

그뿐 아니라 거주하고 있는 분원에서 공동생활을 해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강연회를 해야 하고, 총본부의 지침에 따라 회헌을 설명해야 하고, 교리를 가르쳐야 하고, 이를 잘 설명하고 심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을 조금밖에 받지 않은 사람들은 특이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바라며 ... 성바로말수도회의 단순함과 민첩함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는지?’에 대해 설명하면 너무 단순하다고 말합니다. ... 이런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영적으로 진보할수록 더 단순해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성 [로베르토] 벨라르미노는⁶ 오늘 성무일도 독

5. 아마 협력자들과 다른 산 이와 죽은 회원의 이름으로 가입한 이들을 위해 매년 바오로회 사제들이 거행하는 2000대 영속 미사 협회(Opera delle 2000 Messe Perpetue, 매일 6대의 미사 봉헌)에 대한 언급일 것이다. 이 협회는 바오로 가족의 사도직을 도와주는 모든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알베리오네 신부의 뜻에 따라 1922년 성바로수도회 내에 설립되었다.

6. Roberto Bellarmino(1542-1612)는 예수회 회원, 추기경, 신학자, 교회 박사이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교리문답에 대하여 「로마 성무일도서」, 5월 13일, II Nocturno, Lectio V 참조.

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노년기에 교리서를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Non plus sapere, quam oportet, sed sapere ad sobrietatem.”⁷

‘하느님께서서는 한분이시며 세 위격이시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이 번덕스럽고 성화에 유의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말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

레크리에이션 시간에 기꺼이 함께 지내십시오. 입을 빼죽 내밀지 말아야 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고요함을 방해하는 그늘진 성격의 소유자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 공동생활에 있어서 다른 것들에 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 사랑의 특징들을 적어놓은 글들도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⁸ “그렇지만 나는 성질 더러운 그 사람과 같이 가기 싫어 ...” | 129 “그런데 너도 네 성격이...” 하며 그룹을 형성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명이나 네 명이 늘 같이 몰려다닙니다. ...서로 신뢰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과연 수호천사의 자리가 있습니까? 마리아께 신뢰를 두고, 성 바오로께 신뢰를 두십시오. ... 질투, 시기, 원한, 차별 ... 등이 군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공동생활을 파괴합니다.

수도회의 정신을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성장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공덕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있어.” 사랑의 삶! 사랑은 하늘나라의 덕성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Caritas manet in aeternum.”⁹ 공동생활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공동생활은 무한한 공덕의 원천이요, 많은 포기를 수반합니다. ... 어떤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수도원 바깥으로 나가면 무

7. 로마 12,3(불가타) 참조.

8. 알베리오네 신부는 1951년을 사랑의 해로 정했다. 로마에서는 여러 장소에 애덕의 실천을 상기시키는 1코린 13장 사랑의 특징에 대한 글들을 써 붙였다.

9. 1코린 13,8.

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결코 좋지 않은 일이 될 것이고 ... 공동체에 해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외부인과 너무 지나친 친분관계를 갖는 것은 점차로 수도회 정신을 잃게 만듭니다.

공동생활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국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필리핀인들을 사랑해야 하고, 필리핀인들은 이탈리아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필리핀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니고,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도 아닌 교회의 시민이며 로마인입니다. 교회는 가톨릭, 곧 보편적이기 때문에 필리핀 교회도 아니고, 프랑스 교회도 아니며, 일본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의 유일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곧 보편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이의 영혼, 모든 이의 머리가십니다. 그러므로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수도회는 많은 국가로 퍼져나간 보편적 수도회입니다. 현재 자신이 머물고 있는 국가를 사랑해야 하고, 그 국가의 수녀들은 이탈리아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보편성은 서로를 일치시키고, 민족성은 분열시킵니다. 다른 나라로 가면서 절대로 분열시키는 요소를 옮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구원해야 할 영혼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길에는 지나가는 수많은 군중이 있습니다...

공동생활은 더 넓은 의미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곧 네 개의 바오
130 로 가족이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당연히 각 수도회는 자기 수도회를 사랑하고, 다른 수도회로 자신의 사랑을 확장시킵니다. 다른 한편 여러분은 지침을 가지고 있고, 그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공동생활을 사는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접시를 깨뜨리는 위험에 처하게 되며, 그런 위험을 증대시킵니까? ...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 넘겨지시기 전에 우리가 흔히 대사제의 기도라고 부르는 기도를 바치셨

으며, 그 기도에서 네 차례나 다음과 같이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¹⁰ 에 밀리아¹¹ 지방을 여행하면서, 한 번은 자동차와 트레일러를 실은 적색 트럭을 만났는데 그 트럭에 큰 글자로 ‘우트 우눔 신트 Ut unum sint’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전기사에게 그 글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더니 ‘비록 공산주의자들이 있지만 우리 이탈리아인들은 더 화합해 나가야 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비록 작은 일들이 있지만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이 일치의 은총을 네 번 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은총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더욱 만족스러우며 더 큰 평화를 누리게 되고, 공동생활의 공덕을 더 많이 쌓게 될 것입니다.

3) 마에스트로와 마에스트라

131

우리는 금년 한 해를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께 봉헌합니다.¹² 스승 예수님께 한 해를 봉헌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심은 바오로적 수도생활의 모든 것, 곧 영적, 지적, 수도적, 인간적, 사회적 생활을 형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스승 예수님께 대한 신심은 이러한 총체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오늘 미사에서 우리가 청하는 지혜를 얻기 위한 빛을 받는 것입니다.

10. 요한 17,21.

11. 이탈리아 북부 지역.

12. 바오로 가족의 제안들을 수렴하여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1955년 주님 공현 대축일부터 1956년 주님 공현 대축일까지 한 해를 전상 스승께 봉헌하도록 초대했다. RA 2 (1955) 1-3 참조.

[그뿐 아니라 우리는] 스승께서 사도직을 비추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언제나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세속적인 목적에서가 아니라 올바른 지향을 지니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심은 이러한 신심봉헌을 형성시켜줍니다. 곧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완전히, 전적으로 수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성심께' 기도를 [바칠 때]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는 특별한 지향들 [도] 있습니다.

스승 예수님께서서는 수도회에 훌륭한 마에스트라들을 보내주십니다. 이들은 지원자들의 양성, 수련자들의 양성, 유기서원자들의 양성에 직접적으로 헌신하는 마에스트라들, 우리가 흔히 장상들이라고 잘못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린 자매들의 정신을 양성시키기 위한 마에스트라들, 큰 자매들입니다. 이들은 정신, 사도직, 면학, 경영관리에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는 마에스

132 트라의 개념은 | 다른 수도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원장의 개념이 아닙니다. '스승 예수 *Gesù Maestro*'¹³라는 책에 이러한 점이 잘 설명되어 있지만, 모든 내용을 다 수록한 것은 아닙니다. 한 분원에서 마에스트라의 사명은 마리아의 사명에 비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혜 자체이시고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맨 끝자리에 앉아 마리아에게서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그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베들레헴에서는 동물들 자리에 눕혀졌고, 골고타에서는 두 강도들 사이에서 돌아가셨지만 ... 천국에서는 선택된 이들의 왕이십니다. 겸손에서도 첫째이시고, 영광에서도 첫째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겸손하게 마에스트라를 모시려 하셨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의 세 위격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성모 마리아 안에 모

13. 라메라 스테파노,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 *Gesù Maestro Via, Verità e Vita*, Edizioni Paolini, Alba 1949, 알베리오네 신부의 "서론", pp. 7-19 참조.

든 은총을 쌓아주셨고, 그분을 양성시키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의무는 그들에 가려집니다. 배우는 자의 위치와 가르치는 자의 위치가 됩니다.¹⁴ 행하시고 가르치신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magnus vocabitur in regno coelorum*."¹⁵

예수님께서서는 배우는 자의 전형, 모델이십니다. 곧 지원자, 수련자, 유기서원자의 모델이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아기 예수님께 밥 먹는 법, 옷 입는 법, 청소하는 법, 샘가에 가는 법, 성경 읽는 법, 기도하는 법 등을 가르치셨습니다. ... 그분에게서 겸손을 배우고, 동정녀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잘 따라야 하며, 매일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 자라면서 튼튼해졌다 *Crescebat et confortabatur*..."¹⁶ 그리고 그분은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갈수록 더욱 총애 받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 천상 어머니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언제까지 모든 것을 배우고, 언제 마리아처럼 완전해지겠습니까!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¹⁷ 그러면 충분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해야 할 일입니다. 곧 마리아의 배움터에 임하셨던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착복식을 할 때와 수련기를 허락할 때 요청되는 것입니다.¹⁸ 마리아의 배움터에서 어떤 마음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겸손의 자세입니다. 모든 면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무 133 지하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알고 있다고 믿을 때 우리는 무지의 절정에 이

14. 알베리오네 G., 「제자요 스승이신 마리아 *Maria Discipola e Maestra*, EAS 1985, pp. 23-26 참조.

15. 마태 5,19.

16. 루카 2,40.

17. 마태 5,48.

18.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예식서-착복식, 수련기와 수도서원 허락을 위해 준수해야 할 예식», 로마 1945, pp. 35-36 참조.

르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배움터를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하고, 언제나 머리를 조아리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맨 끝자리에 앉아있지만 말하는 것을 보면 마치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듯이 보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위치를 유지해야 하고, 그런 다음에 학교에서, 강연에서, 강론에서, 고해성사에서, 사도직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습득하려는 훌륭한 의지를 지녀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estote perfecti...”¹⁹ 곧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깨우치기를 원해야 합니다. 늘 청해야 하고, 조언을 구해야 하고, 계속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최대의 무지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배움에 임할 때에는 겸손과 관대함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습득해야 합니다. 조금밖에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적게 행하게 됩니다. 더 많이 안다면 더 많이 행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일들을 하게 하시고, 다른 직무도 맡겨주십니다. 이런 영혼들은 놀라운 사명, 폭넓은 사명을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마리아를 생각했습니까? 단순한 여자아이가 그리스도-왕의 직무에 상응하는 여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은둔생활을 한 성녀 테레사는 세상의 모든 선교사명의 후보가 되었습니다. 어떤 영혼이 겸손하게 숨은 생활을 할 때 사람들에게 최상으로 여겨지지 않지만, 성령에 의해 비추임을 받으며, 가장 최고요 가장 단순한 것들을 말하게 됩니다. 성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지탱하는 직무를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

19. 마태 19,21.

다. ...”²⁰ 위대한 지혜는 단순함입니다!

마에스트라의 직무는 하느님의 아드님을 가르치시는 마리아의 직무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사항입니다! 마치 우리 사제들이 | 제대 위에 134서 축성의 말씀을 통하여 실체변화를 행할 때와 같습니다. ... 전율을 느낄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은총을 허용하십니다. 훌륭한 마에스트라들이 되십시오!

마에스트라의 직무는 단순하게 임해야 합니다. 훌륭한 마에스트라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어야 합니다. 교육하고, 명령하고, 할 수 있는 한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저에게 주신 모든 은총을 그들에게도 주시고, 성소와 인간 존엄성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겸손하고 높은 분이신”²¹ 마리아께서는 성전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직무를 수행하셨으며, 그 후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시작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바로 성모님이십니다. 사실 그분 눈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첫 기적을 행하셨으며,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그분을 믿었고,²²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는 만물을 인도하고 모든 것을 부드럽게 다스리신다!”²³

금년 한 해 동안 수도회의 앞날을 위하여 참된 바울리나의 훌륭한 마에스트라들을 양성할 수 있기를 청해야 하고, 양성 중에 있는 제자들이 마에스트라들에게 잘 순응하고 따를 수 있기를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총원장의 지향에 따라”²⁴라고 말할 때 이러한 요청은 특별한 지향이 됩니다. 마에스트라들은 언제나 천상 스승의 대변자들이어야

20. 루카 5,10.

21. 단테 알리기에리, 「신곡-천국편」, 33,2 참조.

22. 요한 2,11 참조.

23. 지혜 8,1.

24. 「바오로 가족 기도서」 18쪽 “예수 성심께”.

하고, 이미 그러한 마에스트라들이 있지만 더 많아져야 합니다. 내가 말한 내용은 절대로 부차적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중에 다른 이들을 인도해야 할 사도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긴 시간 동안 군중을 소홀히 하셨음을 생각해보십시오. 지원자들의 양성은 많은 인내가 요청됩니다. 이 인내라는 말이 깊은 인상을 남기도록 “36포인트”의²⁵ 큰 글씨로 인쇄하여 붙여두십시오. 가끔은 소리지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²⁶라고 소리치셨지만,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 마음은 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르치는 이들

135의 양성과 정신을 위하여 우리의 | 생명을 봉헌해야 합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대하셨던 것처럼 마리아께 늘 눈길을 고정해야 하고, 고요하고 기쁘게 [지내야 하며], 불손한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가끔은 그분조차도 깨닫지 못하셨지만 …, 가르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신뢰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며, 하느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경우 주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직접 양성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서는 그 사람의 마음, 지성, 덕성, 성격, 경향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순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마에스트라들이 모두 마리아처럼 되고, 지원자들과 수련자들이 모두 예수님처럼 되도록 이제 아름다운 ‘성모 찬송’을 바칩시다. 우리가 참으로 하늘을 위하여, 그 아름다운 천국을 위하여 양성에 임하도록 언제나 양성중에 있음을 느끼시다.

25. 인쇄 용어에서 가장 큰 서체를 이르는 말.(역주: ‘corpo’는 ‘체’라고 옮길 수 있지만 예전에 국내 활판 인쇄에서 글씨체 단위는 ‘호’를 사용하였음)

26. 마르 7,18.

21. 천국¹

136

1. 이 시기의 [전례에서] 우리는 성 야고보 서간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많지만, 늘 신뢰하며 하느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²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 시기에 특히 우리의 목표인 천국을 상기시켜주시기를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고, 이 지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현세의 삶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 곧 영원한 행복이 목적입니다. 현세의 삶에서 우리는 수많은 작은 간이역을 지나 마지막으로 종착역, 곧 천국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천국을 위하여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왜 우리가 창조되었는지를, 곧 천국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종종 상기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걸어가야 하기도 하고, 희생과 극기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불러드려야 합니다. 천

1. 1955년 5월 15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성바오로수도회의 성당에서 프리모 마에스트로가 지도한 성체조배 시간. 바로 그 전인 5월 13일에, 시드니에 성바오로수도회의 첫 공동체가 탄생하였다. 성바오로수도회는 1952년에 오스트레일리아에 진출하였다. 필리핀 공동체의 형제적 방문을 마친 다음 이곳으로 건너온 프리모 마에스트로와 프리마 마에스트라가 참석하였다. 이들과 함께 이 나라의 선교사로 선택된 성바오로수도회의 첫 두 수녀인 레네타 콤펐투치(M. Redenta Commentucci, 1912-2007) 수녀와 라우렌시아 카사마씨마(Laurenzia Casamassima, 1922) 수녀가 도착하였다.

2. 요한 16,23. 부활 제5주일 복음.(역주: 현재 전례 독서와는 차이가 있음)

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가끔 슬픔이 우리 영혼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왜 그토록 유혹이 많은 것입니까? 이 거대한 도시에서 수많은 이들이 137 즐기고 있는데 왜 우리는 | 청빈, 정결, 극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름다운 천국을 위해서입니다! 천국을 잃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이 지상의 부는 지나가고, 파멸을 향해 가지만, 청빈 서원은 가장 큰 부유함을 향한 길, 곧 천국을 향한 길입니다. 만일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나중에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눈, 혀, 육신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감각, 마음, 기억, 환상을 절제해야 하고, 우리의 혀가 하늘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순명할수록 더욱 자유로워지고, 자기 자신을 이기게 되며,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머리를 숙여야 합니까? “되돌려 드리기 위하여 Propter retributionem.”³

이번 주간은 주님 승천 대축일을 [기념하기 때문에 전례적으로] 중심이 되는 주간입니다. 모든 것이 천국을 향해 있고, 천국에 관한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 뒤를 따르라...”⁴ 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더 자주 천국을 생각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를 극기합니다. “주님의 집으로 가세!” 사람들이 나에게 이를 제 나는 기뻐네 Laetantes ibimus...⁵ 고난이 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 그리고 약간의 고통은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성공의 비결’, ‘성모 호칭기도’.

3. 시편 119, 112 참조(불가타).

4. 마르 8,34.

5. 시편 122,1.

2. 주님 승천 대축일에 앞서 탄원의 날 Rogazione⁶을 보냅니다. 결코 낙심하지 말고, 하늘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승천하시던 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사도들과 함께 올리브 동산으로 가시어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숙고합니다.⁷ 그분에게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배웁시다. 그분의 강생,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그분은 제일 처음 눈을 떠 마리아의 부드러운 눈길을 마주 대하셨습니다. 언제나 마리아와 함께 사셨고, 마리아의 눈길 아래 사셨습니다. 그런 다음 사생활과 공생활, 수난 ... 세 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 예수님의 이러한 138 행동방식에 대해 무엇인가 배우고 이해하기를 원합니까? 그분은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델이 되셨기에 우리는 늘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언제나 마리아와 함께 계시고 마리와 함께 행하시는 모습도 본받아야 합니다. 전 생애를 마리아의 눈길 아래서 보내야 하고, 그분의 눈길 아래서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모님께서 우리 영혼을 당신 팔에 안아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3. 그분께 우리를 봉헌하고, 그분을 우리 어머니로 모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눈길 아래 두기 위하여 사도의 모후 축일을 택해야 합니다. 곧 영성생활, 면학, 레크리에이션 등 모든 것을 어머니의 눈길 아래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사이에는 얼마나 긴밀한 친숙함이

6. ‘탄원의 날’은 전례시기에 따라 4계절 초에 하는 참회기도였다. 그 목적은 발의 수확에 대한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징벌을 멀리하도록 간청하는 것이었다. 오늘날 전례는 이 예식을 단순하게 사계절 기도(Quattro Tempora)로 축소시켰다. (역주: 예전에 주님 승천 대축일 전 3일 동안 실시했던 참회의 날의 첫째 목적은 우리의 보호를 청하고, 하느님의 정의에 호소하며 풍성한 수확을 청하는 데 있었다. 9세기 로마에서 도입하였지만 1969년 개정된 로마전례력에는 실려 있지 않고, 각 나라 주교회의에서 결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미국의 각 교구는 자체적으로 이러한 ‘기도의 날’을 정하고 있다. 가톨릭 출판사의 ‘전례사전’ 참조)

7. 루카 24,50-51 참조.

있습니까! 이러한 점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한 사도의, 곧 성 요한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또한 모든 이의 어머니이시라면 사도들인 우리의 [어머니이시라는 것은] 더욱 자명한 일입니다. 매일 묵주기도 일부분만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묵주기도 전체를 바치는 사람이 있고, 하루를 마리아와 함께 시작하는 사람도 있으며, 마리아의 눈길 아래 하루 온종일 저녁 때까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안대를 하여 눈을 가려서는 안 되고, 영적인 면에서 늘 무엇인가 배워야 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일치의 삶을 살아야 하며, 수도회에 주어진 가르침을 따라야 하고, 마리아의 눈길 아래 우리의 사명, 우리의 성소와 성화작업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처럼 훌륭한 자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마리아와 함께 계신 그분의 친밀한 모습에서 가능한 한 예수님을 닮도록 노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순한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당신께서 그러하셨듯이 마리아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2. 기도¹

139

묵상은 마음 기도^{preghiera mentale}입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에서 한 가지 은총을 얻고자 결심합니다. 이번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은총은 기도의 맛, 희열, 깊이를 느낄 때까지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은총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얻게 될 때에만 우리는 마리아의 문, 예수님의 문, 성 바오로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인내를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신심실천이 어떠한 것인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결국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탄원의 날^{Rogazione}² 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그 친구는 그에게 “내일 오게...” 하고 대답했을 것입니다만, 그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그의 친구는 성가시기 때문에 빵을 주기 위해 일어납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140

1. 1955년 5월 16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성바오로수도회의 성당에서 프리모 마에스트로가 행한 묵상.

2. 이 책 “21. 묵상”의 각주 6을 보라.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시면서 세 가지 형태로 되풀이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³

우리는 거룩한 교부들의 작품에서 이 구절에 관해 숙고한 아름다운 내용을 만나게 됩니다. “낮이나 밤이나, 필요할 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배가 고플 때! 밤은 우리 지성이 가장 고요하고 가장 심오해지는 시간이며,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잘 느끼는 때입니다. 저녁에 침묵 중에 양심성찰을 할 때 이렇게 ‘주님, 오늘 저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제가 어떤 점에서 주님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까?’라고 말씀드려 봅시다. 기도가 배제되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길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비행기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으며, 사도직을 하는 동안에도, 면학중에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 전반부와 같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⁴ 어제 저녁에 우리가 성체대회의⁵ 문헌을 함께 본 것처럼, [거기에 담긴 대로]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 거룩히 받들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Laudate Dominum.”⁶ 아, 만일 모두가 우리의 좋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미할 수 있다면 그 공덕이 어떠하겠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런저런 교과 사람들을 만납니다. 모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

3. 루카 11,5-13 참조.

4. 마태 6,9-10 참조.

5. 1955년 브라질의 리오 데 자네이로에서 브라질의 헬더 카마라(Dom Helder Canara, 1909-1999) 보좌 주교가 조직한 국제 성체대회가 열렸다.

6. 시편 117,1.

든 이가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완수하도록 기도합니다. 언제나 죄를 통회하는 마음을 청하고,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어디에서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살기도의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많은 영적 친교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성, 마음, 의지를 성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를 청해야 하고, 일용할 영적인 빵, | 지성의 141 빵, 영원한 구원의 빵을 청해야 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입니까? 가장 훌륭한 벗이신 전능하신 예수님께 신뢰를 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감실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성당에 가서 사다리를 놓고 제대 위로 올라가 “예수님, 거기 계세요?” 하며 감실문을 두드렸던 그 어린이를 기억합니다. 아침마다 마음으로 감실문을 두드립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체를 우리의 하루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최대한 하루를 유지하거나 또는 빛더미로 하루를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은총에 상응하지 않게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성인들은 은총이 최대한 결실을 맺게 합니다. 스승 예수, 마리아, 성 바오로의 문을 열심히 두드립니다. 하루를 성모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미사, 영성체, 묵상을 합니다. ‘성인이 되고 싶다’는 식의 일반적인 결심을 하지 말고, 현재의 순간을 진지하고 실천적으로 성화할 수 있도록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라는 책이 아주 유용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신 가르침에서 그와 같이 주장하시고 요구하신다면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만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려 하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권고와 약속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느님은 신의가 가장 두터운 분이십니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여러

차레 상처를 끼쳤음에 대하여 하느님께 용서를 청해야 합니다. 무엇을 청해야 합니까? 성성, 성령을 간청해야 합니다. 천상의 빛을 간구해야 하고, 천국을 생각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성령칠은을 청해야 합니다. 청하면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생선을 달라고 청하는 아들에게 전갈을 주지 않을 것이고, 빵을 청하는 아들에게 돌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아버지보다 덜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는 한없이 좋은 분이시며, 여러분이 자연적인 것을 청할 때 그 모든 것을 주시지는 않지만, 초자연적인 것을 청하면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 142 우리는 자주 우리 식대로 | 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사악한 존재이기에 매번 ‘저희가 청하지 않고, 저희가 합당한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특히 신뢰, 겸손, 신앙이 부족하고, 인내하지 못함은 저희의 탓입니다.’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께서 우리의 성화와 다른 이들의 성화를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 확신을 가집시다. 우리가 제법 순수하다 할 수는 있는지, (은총)에 상응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새로운 나라에서 바울리나의 활동을 시작할 때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분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위대한 수단인 기도를 꺾하지 맙시다. 그리고 미사에 정성스럽게 참여하며,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성체를 흠숭하고, 감사드리며, 탄원하고 흠족해합시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미사여야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을 마리아의 손을 통하여 예수님께 바칩시다. 그리하여 그 결심을 실천하게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맡겨드립니다.

23. 기도의 상태¹

143

공기 없이는 살 수 없듯이 기도 없이는 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제 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듯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며, 겸손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가장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늘 영혼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받지 못할 만큼 넘치도록 은총을 베풀어주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시며,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을 생각해주시고, 이런 저런 은총을 주겠노라 약속하시지는 않지만 다양한 모든 은총을 베풀어주십니다. 당신의 뜻은 우리의 성화입니다. 우리가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좋은 아버지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주십니다.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²

지상에는 우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모두가 우리를 버릴 지라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한 은총과 우리의 사명을 위한 모든 은총을 여기서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청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더 나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제나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도드리도록 마음 자세를 갖추시다.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위로해 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 앞에는 순진무구한 영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사이들, 죄인들,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모두에게 얻고자 하는 바를 청하라

1. 1955년 5월 17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성바오로수도회의 성당에서 프리모 마에스트로가 행한 묵상.

2. 마태 6,9 참조.

144 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 죄인이라고 느낄지라도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이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위안으로 여겨야 합니다.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자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겸손과 신뢰의 마음 자세를 지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³ 저는 하늘을 쳐다볼 자격조차 없는 죄인이지만 당신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 여기에 있는 이 죄인에게서 당신 강생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회개한 죄수는 예수님께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Domine, memento mei...”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모든 죄와 벌을 사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⁵ 언제나 굳건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수천 가지 결점으로 오염된 영혼일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으며, 높은 단계의 성성에 도달할 수 있고, 자신의 죄에 대해 속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신뢰 깊은 기도의 상태를 유지합시다!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도움을 청합시다. 이러한 기도 상태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성성의 도정에 서게 되고, 그 길을 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더는 선과 악 사이의 논쟁에 휘둘리지 않고 하느님의 길을 달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적게 하면 그에 상응하는 정도로 진보가 더딥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에 상응하는 풍성한 은총을 받게 되어, 그 결과 진보하게 됩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원대한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성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며, 이 미사 동안 우리가 참으로

괜찮은 편이라는 확신을 가집시다. 당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동안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죄와 불완전함을 그분께 드립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발치에서 가지셨던 당신의 마음자세를 우리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마리아께 기도드립니다.

3. 루카 18,13.

4. 루카 23,42.

5. 루카 23,43.

145

24. 새 분원이 초기에 겪는 어려움¹

1) ["하느님 사업의 시작을" 위해 필요한 마음 자세]

우리는 요즈음 기도에 관하여 묵상하였고, 주님께 큰 신뢰와 겸손과 인내를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언제나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곧 기도는 우리를 위하여 청할 뿐 아니라, 우선은 하느님을 흠송하고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께서는 당신 의향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점들에 대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의 성화와 사도직을 위하여 필요합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러한 흐름 안에서 당신 은총의, 모든 은총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분원의 초기 상황을 각별히 숙고해야 합니다. 분원을 건축하는 것과 그곳에 사는 것은 같은 사안이 아닙니다. 분원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 수고, 희생이 요구되지만, 모두가 다 집을 지을 수 있는 은총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하느님의 집에는 지혜와 신앙과 열성을 가지고 시작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건립하기 위한 특별한 은총이 필요하고, 거기에 거주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은총으로 충분합니다.

146 [이제] 우리의 정신을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곧 분원을 시작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은총이 주어졌으므로 우리 편에서 섬세함, 희생정신, 겸손, 신뢰와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

1. 1955년 5월 18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있는 성바오로수도회의 성당에서 행한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피정 강의.

신 좋으신 아버지로서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돌보아 주시고, 상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해 격려하십니다. 아주 큰 은총이 필요합니다. 베들레헴에서 출발해야 하며, 청빈과 몰이해 등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베들레헴의 그 작은 집에는 자연적인 사물 가운데 [여분의] 것은 전혀 없었지만, 거기에는 예수, 마리아, 요셉께서 계셨으며, 그 탄생 동굴은 마침내 지상에서 가장 완전한 지성소로 탈바꿈 하였습니다.

시작은 아주 어려웠지만 우리와 함께 예수, 마리아, 요셉과 우리 아버지이신 성 바오로께서 계십니다. 내가 나 혼자 시작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예수, 마리아, 요셉과 성 바오로께서 함께하실 것이니 사도직은 꽃을 피우며, 구원사업이 계속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들을 제거하십시오. 하느님의 활동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인간적인 활동은 지상에 바탕을 둔 피라미드에 비길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하느님의 활동은 하늘에 기초를 둔 피라미드, 거꾸로 된 피라미드에 비길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활동은 무엇보다 하느님께 바탕을 두고 지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 그것은 누룩과 같다. ...”² 하느님의 활동은 구유에서, 어려움에서, 청빈에서 시작하지만, 하느님께 신뢰를 둬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고, 도움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위한 축복과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섬세한 양심, 희생정신과 과거의 죄에 대한 통회, 하느님의 이러한 활동을 행하기에 합당하지 못함에 대한 참회가 필요합니다. | 과거와 현재와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147 모든 죄를 제거합시다. 일반적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고자 하는 마음 자세를 취하는 만큼 많은 은총을 준비해두십니다. 성인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코톨렌고 성인은³ 외양간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을 대

2. 루카 13,18-20 참조.

충 치운 다음 첫 환자를 눕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 요한 보스코와⁴ 많은 다른 성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순수한 자세를 갖추고 하느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과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없애시다. 수도원이 좋은 토대를 다지도록 터를 닦아야 합니다. 신뢰, 겸손을 지녀야 하지만, 합리적으로 추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느님께서 [이 수도원을] 원하십니다! 초자연적으로 잘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분께서 원하실 때 수단과 은총을 준비해줍니다. 그분께서 이곳을 원하시므로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가족은 사도직의 수익으로 살아가야 하고, 어떤 국가에 진출했을 때 일반 경비를 위해서 그리고 수도회 발전과 사도직 발전을 위하여 수익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특수 경비와 하느님 섭리를 위해서는 더 큰 신앙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을 신뢰하며 시작한 사람은 출발을 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이집트에서 예수님이 시련을 겪으신 것처럼 어려움을 거쳐야 하지만, 하느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결론으로] 하느님의 일은 겸손과 신뢰를 가지고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사업을 원하신다면 길을 가는 중에 필요한 모든

3. 성 주세페 베네딕토 코톨렌고(Giuseppe Benedetto Cottolengo, 1786-1842)는 피에몬테 지방 사제이다. 토리노의 발도코(Valdocco)에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 온갖 종류의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1832년에 하느님 섭리의 작은 수도원(Piccola Casa della Divina Provvidenza)을 창립하였다.

4. 요한 보스코(Giovanni Bosco, 1815-1888)는 피에몬테 지방 사제이다. 1859년에 청소년들의 그리스도교 교육을 위해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수도회(살레시오수도회)를 창립하였으며, 1872년에는 마리아 도미니카 마자렐로(Mazzarello, 1837-1881) 성녀와 함께 살레시오수녀회(Figlie di Maria Ausiliatrice)를 창립하였다. 1929년 6월 2일에 복자로 선포되었다. 이 사건을 기회로 성바오로딸수도회는 그해에 발간된 복자의 전기를 들고 각 가정을 돌며 가정방문 프로파간다를 시작하였다. (C. 마르티니, 「성바오로딸수도회 역사」, 268쪽 참조)

은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정화해야 하고, 원하시는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면학과 다른 이들의 면학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연구를 해야 하며,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과목에서 네 가지를 배운다면 그 과목에서 열 배의 물질적 수단을 얻게 될 것입니다.⁵ 이러한 은총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보아왔습니다. 신뢰를 가지십시오!

하느님의 사업은 죄 없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계약'의 정신을 살도록 합시다. 하느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이러한 은총을 위하여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나아갑시다!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아름다운 희망을 안고 언제나 위를 바라봅시다.

'계약'의 정신으로 경청하며 미사에 임합시다.

2) [요청되는 조건: 일치, 선행, 협력]

149

오늘 아침 묵상에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리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큰 공덕을 얻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분원에 거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분원을 시작할 수 있는 은총입니다. 큰 공덕을 쌓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공덕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는 큰 감사의 빛을 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큰 시련 아래 있게 하십니다. 마치 학교에 다니는 젊은이가 시험을 통과하고 상급반으로 진학하듯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도 실습기간을 거쳐 전문직

5. '계약'(혹은 '성공의 비결')의 기도 시작부분을 상기시킨다.

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어려운 만큼 보상도 클 것입니다. “너희가 되질하는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⁶ 예를 들어 세례를 받고 금방 죽은 아이의 공덕과 교회 박사인 성 알폰소의 공덕 사이에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은총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겸손, 신뢰, 섬세한 양심의 자세가 필요하며, 또한 은총에서 멀어지고, 주님께 상처를 드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섬세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할 은총의 정도만큼 그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소죄라도 범하게
150 되면 하느님의 손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결백, | 섬세함, 순수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시작할 때에는 사람들 사이에 최대의 화합이 있어야 합니다. 생각의 화합, 감정의 화합, 상호 신뢰의 화합, 공덕을 쌓고 드러낼 수 있는 신뢰의 동조가 필요합니다. 세 가닥의 선, 또는 세 개의 작은 끈이 함께 결합되면 굵은 밧줄이 되지만, 나누어지고 갈라지면 끊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세 겹으로 꼬인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funiculus triplex difficile rumpitur.”⁷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가 부족할 때 다른 것들이 대체합니다. 세 가지 모두가 하나의 힘을 이룹니다. 생각의 일치, 목적의 일치, 지향의 일치. 때때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를 마음에 품으면, 다른 견해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거룩하신 분께 존경을 드립니다. 이끄시는 분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느님께 합당한 존경을 드립니다. 세 위격이신 하느님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교회를 나는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

6. 루카 6,38.

7. 코헬 4,12.

하지 못하지만 자신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은 공덕이 대단히 큰 일입니다. 성 요셉께서는 이해하지 못하셨지만 복종하셨습니다.

한편 사랑, 선함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하루를 고요하게 이끕니다. 우리가 육신을 지니고 있기에 사랑, 선함은 이해하고 참고 견디며 도와줍니다. 성인들도 인간적-신적 일을 합니다. 곧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육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선함을 필요로 하고, 초자연적인 정신이 있어야 하지만 자연적인 정신도 필요합니다.

묵상, 미사, 예비성찰, 영성체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당신 사명을 수행할 때 혼자 힘으로 이루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다섯 또는 여섯 명의 여행 동반자와 함께 끝까지 헤쳐 나가셨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동안 홀로 지내는 세속 사제를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하며, 또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인간적인 위안을 얻기를 바랍니다. 많은 것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선함이 있다면, | 일과 모든 것이 더욱 쉽게 해결될 것이며, 151 더 많은 공덕을 쌓을 것입니다. 선함이란 헌신이고 이해로서, 다른 이들이 죄를 지은 경우에도 선한 생각을 가지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생각해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 나에게 배워라.”⁸ 선함은 내적인 것입니다. 곧 도와주고, 격려하고, 참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보다 다른 이들에게 더 엄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이들을 위한 정의와 우리 자신을 위한 자비를 요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의 없이는 질서가 없지만, 사랑과 선함 없이는 기쁨과 평온이 없습니다. 선함은 특정한 어떤 동작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친절함은 진정으로 온유한 마음, 사랑이 넘치는 마음, 이해심 많은 마음, 좋은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때때로 사도들에게 일갈하셨습니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8. 마태 11,29.

못하느냐?” 하고 소리치셨지만, 그들은 그러한 말씀이 마음에서 우리 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순명, 선함, 상호협력이 필요합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충심어린 협력, 깊고 친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이러한 지향을 두지만, 여러분은 여기서 이 대륙에 성소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함께 바치십시오! 가능하다면 돈, 출판, 영화, 라디오의 협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기도, 활동, 물질적 도움도 필요합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Sine sanguinis effusione non fit remissio...”¹⁰ 이 말씀은 바오로 가족을 아직 마음에만 품고 있을 때 제가 성찰하였던 초기 말씀 중 하나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종루 꼭대기 위에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152 십자가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더불어 우리에게 | 화관도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선은 언제나 값진 것입니다. 복된 이들의 화관은 십자가로 만들어집니다. 비행기를 타고 먼 곳으로 가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 마치 책 한 권을 연구하는 것만큼 값진 것입니다. ... 외적으로 감동을 주는 일들을 행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작은 일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장상이 인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빛이 되는 아름다운 수도원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신뢰하여라. 나 너희와 함께 있노라.”¹¹

9. 마르 7,18.

10. 히브 9,22.

11. 마태 28,20 참조. AD 152를 상기시키는, 알베리오네 신부가 많이 사용하던 표현이다.

25. 성체조배 시간¹

1. 이 성체흡수 시간을 예수님의 지향과 같은 지향으로 봉헌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흡수하시고, 그분께 감사드리며, 흡족해하시도록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봉헌하시면서 동시에 청원하십니다. 우리의 지향은 이 시간 예수님의 지향에 합치[되어야 합니다.] ‘예수 성심이지여, 당신께 저를 봉헌합니다. ... 예수 성심이지여 ... 오 예수님, 우리 영혼의 영원한 목자지여 ...’

하느님의 현존 앞에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저는 믿나이다, 나의 하느님’, 등등.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누구든 인류의 대다수가 살고 있는 동양을 늘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의 저쪽 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탄식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초대 말씀은 확실히 감동스럽습니다. “모두 나에게 오너라Venite ad me omnes qui laboratis et onerati estis.” 그렇습니다. “원죄의 무게 아래(=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onerati estis.”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et ego reficiam vos.”² 다시 말해서 나는 여러분의 지성을 진리로 이끌면서, 오류에서 깨끗이 정리되게 하면서 여러분의 지성을 다시 재건하고, 악으로 기우는 여러분의 정신을, 수많은 정욕으로 자극받는 여러분의 마음을 재건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러분의 영혼을 재건할 것이고, 선함과 덕성과 성성으로 굳건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 1955년 6월 9일, 로마 사도의 모후 성당의 지하 경당에서 동양과 오스트레일리아 분원 방문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프리모 마에스트로가 바오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성체조배.

2. 마태 11,28 참조: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 표현은 1900년 12월 31일과 1901년 1월 1일 사이의 밤에 예수님께서 소년 알베리오네를 초대하신 말씀을 상기시킨다. AD 15 참조.

내가 여러분을 재건하리라는 뜻입니다!

154 15억의 사람들은 | 그들의 구세주, 그들의 스승, 속죄 제물, 영원한 사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진정한 마음의 소유자라면 그토록 가여운 광경 앞에서 연민을 느낄 것이며, 예수님을 향해 몸을 돌릴 것입니다. 빛을 보내주십시오!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성탄 구일기도 중에 예수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따름 노래가 있습니다. “오, 동양이여O, Oriens!” 빛은 그곳을 비추어야 하고, 모든 인간을 위한 빛이어야 합니다. 동양에 성소자가 급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고, 생각을 전하는 데 사용되는 강론대, 정기간행물, 서적, 건전한 영화 필름과 모든 매체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하며, 특히 가톨릭 라디오 방송과 가톨릭 텔레비전 방송이 급증하기를 기도합니다. 동양에서는 그 사람들의 영혼에 진리, 은총을 전달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찬 건전한 사업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 가지 점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로 기도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³ 성체조배는 여러 신심실천들 가운데 주요 활동이라 할 수 없지만, 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가 다음과 같이 쓴 내용에 따르면, 우리 영혼에 실제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행업입니다. “하루 동안 바치는 모든 다른 신심수련보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 머무는 15분 동안에 어찌면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⁴ 하느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청을 언제나 들어주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Petite et accipietis.”⁵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서 당신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훨씬 쉽게 당신 은총을 허락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체조배에

3. 원본에는 p. 62로 되어 있다. 「바오로 가족 기도서」 75-79쪽에서 그 항목을 찾아 볼 수 있다.

4. S. Alfonso M. de' Liguori, 「성체조배」, “입문”.

5. 요한 16,24.

충실해야 하고, 그것도 [바오로적]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성체조배를 하는 것입니다.

동양을 방문하고 있을 때 로마에서 보내온 소식들 가운데 금년에 성모님께 많은 사랑을 드러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수사님들이 여러 | 장소를 돌며, 말하자면 방마다 돌며 “마리아 순례peregrinatio Mariae”를 155 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편지에서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아드님도 데려갔습니다. 우리가 누구든 어머니에게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우리 또한 마리아의 아들입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따름 노래를 부릅니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께서 진실되시며 하느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심을 아나이다Magister, scimus quia verax es, et viam Dei in veritate doces.” 다시 말해 진리로써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하늘의 길을 가르쳐줍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너희의 스승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Magister vester unus est.”⁶ 곧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지식의 스승, 현세의 삶과 미래의 삶을 위해 필요한 지식의 스승께서 유일한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갈 때 제일 먼저 학생처럼, 제자처럼 배우러 갑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Doce nos.”⁷ 우리들 눈앞에서 높이 현양되신 스승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보시며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라시고, 침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 새하얀 성체에서 얼마나 많은 영감이 나오며, 또 그분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책을 통하여, 성체조배 첫 부분에 하는 독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십니까! 이제 그분께 찬미의 노래를 바칩시다.

6. 마태 23,10.

7. 루카 11,1.

따름 노래: “스승님, … 아나이다Magister, scimus …”⁸

기도: ‘스승 예수님께 바치는 코론치나(주간기도)’ 1번.

2. 복음에서 젊은이는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⁹ 저에게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무엇을 피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더 보태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성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Ad ille dixit ad eum:

In lege quid scriptum est? quomodo legis? [Ille respondes dixit]: Diliges Dominum

156 Deum tuum ex toto corde tuo.”¹⁰ | 따름 노래가 너무 장황하고 길게 늘어

지지 않도록 모든 말씀을 인용하지 않겠지만, 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곧 “하느님의 계명을 기억하느냐? 그것들을 아느냐? 그것들을 공부하였느냐? 기본적인 것 첫째가는 계명은 바로 이것이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우리의 정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상응하는 느낌과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 행동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표현의 최대 가치는 바로 “다하다tutto”라는

8. 「바오로 가족 기도서」 95쪽 후렴.

9. 루카 10,25.

10. 루카 10,26-27.

표현에 있습니다. 온 정신을 다하여. 곧 하느님과 의무를 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과 반대되는 것을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곧 영성체 때에 예수님을 생각할 뿐 아니라, 하느님께 반대되는 느낌과 열망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언제나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곧 약간의 선과 약간의 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악마를 좀 섬기는 것이 아니며, 하느님과 우리의 자아를 좀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모두! 우리의 양심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지성과 마음과 의지를 통하여 오로지 하느님의 것입니까?

이제 따름 노래와 시편을 노래합시다. 이러한 은총을 청하는 지향을 돕시다. 곧 완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불꽃이 그을음 없이, 자애심의 그을음 없이 하느님께 오르기를 바랍니다. 온 정신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따름 노래: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Magister, quid faciendo …?”¹¹

시편: “주님 당신 말씀대로 당신 종에게 잘 해주셨습니다Bonitatem fecisti cum servo tuo …”¹²

기도: ‘스승 예수님께 바치는 코론치나(주간기도)’ 3번.

3. 세 번째 따름 노래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당신께 초대하십니다. 당신께 주의를 기울이도록 우리를 가까이 다가가게 하실 뿐 아니라, |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다가가게 하실 뿐 아니라, 당
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다가가도록 초대하십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하느님과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들

11. 「바오로 가족 기도서」 96쪽.

12. 시편 119, 65-69 참조. 「바오로 가족 기도서」 96쪽.

어 높임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하느님과 일치합니다. 그분처럼 생각하기 위하여,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활동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 성부의 사랑받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 것처럼 활동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일치합니다. 지상에서는 신적 삶을 살고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느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가야 합니까? 따름 노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노라 *Tempus meum prope est, apud te facio pascha cum discipulis meis.*”¹³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를 행하실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분을 믿는 이들, 그분께 다음과 같이 말하는 참된 제자들입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¹⁴ 이들은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그분을 따르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찾고, 최고선과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는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여기에는 특히 수도자들이 포함됩니다.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나를 따라라!”¹⁵ 그 젊은이와 말씀을 나누실 때 사용하신 표현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신 겁니까? ‘내가 행하는 것처럼 행하고, 내가 사는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영성체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전적으로, 심오하게 당신의 말씀을 믿는 이,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충실하게 [당신을] 본받는 이와 소통하십니다. 다양하게 영성체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경우는 냉랭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를 성인이 되게 할 정도로 지성 의지

13. 마태 26,18 참조. 「바오로 가족 기도서」 97쪽 후렴.

14. 요한 6,68.

15. 마르 10,21.

마음의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성사적인 영성체가 좋겠지만, 영적으로 영성체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영성체를 하는 날 종종 쇠신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곧바로 영적 활기를 되찾습니다.

그래서 영성체가 아주 거룩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지향으로 세 번째 따름 노래 “스승님께서서는 … 말씀하셨도다 *Magister dicit …*”와 시편을 바칩시다. | 생생한 신앙, 강력한 사랑, 선한 의지를 지닐 수 있기를 157를 바랍니다.

따름 노래: “스승님께서서는 … 말씀하셨도다 *Magister dicit …*”(역주: “스승님께서서는 이제 나의 때가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를 지내겠노라고 말씀하셨도다.” 「바오로 가족 기도서」 97쪽에 나오는 시편 116, 10-19에 딸린 후렴)

시편: “내가 모진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하고 되뇌면서도 나는 믿었네 *Credidi, propter quod locutus sum …*”¹⁶ ‘스승 예수님께 바치는 코론치나(주간기도)’ 4번과 5번 그리고 ‘성 바오로 사도에게 바치는 코론치나(주간기도)’를 바칩시다.

16. 시편 116[115], 10-19 참조. 「바오로 가족 기도서」 97쪽.

26.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8부 내 주일¹

행렬은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은 다른 행렬을, 곧 선택받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늘나라로 들어갈 때 이루어질 행렬을 그려보며 높이 고양되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이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² 하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당신 아버지께 소개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³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였습니다. 곧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이시요 인간이시고, 예수님은 천상 스승이시며, 예수님께서서는 화해와 평화의 성체이시고,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한 사제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행렬에 참가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언젠가 천상 스승께서 동반해주셔서 그분과 함께 온통 빛이고, 온통 사랑이고, 온통 평화요, 온통 기쁨으로 넘친 복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인간적인 것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잘 살피야 합니다. 인간적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한 존재입니다. 자유로운 의식, 자유로운 말, 선업을 행할 때 자유로운 존재

1. 1955년 6월 12일, 성체행렬에 대해 콜리나 볼피(collina Volpi) 주민과 바오로 가족을 대상으로 행한 강론.

2. 마태 25,34.

3. 마태 10,32.

입니다. |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이 확실하고, 비현실적인 이상을 향하지 않으며, 영원한 상급을 향해 걷는 것이 확실한 사람처럼 높은 이상을 앞에 두고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목표에 다다르기를 바라고, 모두가 거기에 도달하도록 주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⁴ 구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곧 하느님과 그분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다양한 여러 성체 신심이 있습니다. 신자들은 지극히 거룩한 성체에 대해서, 성체대회나 성체행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에서 명한 대로 주일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월등한 성체신심을 가진 신자들이 있고, 적어도 부활 대축일에 영성체하거나 연중에 자주 영성체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역주: 당시에는 많은 신자들이 미사와 영성체에 참여하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큰 사랑을 느끼고, 사람들 사이에서 하느님을 우리의 벗이요 우리의 전부, 최고선, 영원한 행복으로 느끼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체신심이 매주 성체조배 또는 매일 성체조배를 다소 길거나 짧게라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우정이 있다면, 그 우정은 선을 교환하고, 그 우정은 성체조배를 통하여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체신심이 비록 성당을 지나면서 단순히 인사 드리는 정도일지라도 성체조배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미사의 복음말씀은 우리에게 한 왕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그 왕은 큰 잔치를 벌여 친구들과 지인들을 초대하였고, 초대받은 이들은 초대를 수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때가 이르러 잔치준비가 끝났으니 참석하라고 종들이 와서 말했을 때 초대받은 이들은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첫째 사람은 밭을 샀는데 나가서 그것을 보러

4. 1티모 2,4.

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겨릿소 다섯 쌍을 샀는데
 161 | 그것을 부려 보려고 가는 길이라고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세 번째 사람은 “나는 방금 장가를 들었소. 그러니 갈 수가 없어요.”
 하였습니니다.

얼마나 자주 하느님 앞에서 변명 아닌 변명과 핑계를 댈니까? 부활
 대축일을 그냥 보내면서, 주일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자주 영성체
 하지 않으면서, 아, 얼마나 많은 변명을 늘어놓습니까! 우리의 변명이
 하느님의 법정에서 유효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애 뒤에 우리 모두는 하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
 기를 바랍니다! 그곳은 성인들, 천사들, 행복한 영혼들이 있는 장소입
 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예수님
 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의 교회에 들어가야 하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전에 “성 바오로의 포도원 Vigna di S. Paolo”⁶
 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던 지역에 와 있습니다. 이제 더는 농산물을 경
 작하여 소출하고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원이 아니라, 성소자들을 경작
 하고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작정한 이들의 영혼을 경작하고, 사도직에
 헌신하기로 마음 먹은 영혼들을 경작하는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그리
 고 그 포도원의 중심에는 사도의 모후 성당이 있습니다. 성당의 네 부
 분이 수도회를 보호해주고 축복해주는 이 언덕을 손가락처럼 펼쳐 감
 싸고 있습니다.

여행을 하는 동안, 캐나다에서 시초에 마리아의 ‘마을’ 또는 도시라

5. 루카 14,16-20 참조.

6. 로마에 자리 잡은 성바오로수도회와 성바오로팔수도회의 첫 분원은 “성 바오로
 의 포도원”이라는 명칭의 베네딕토회의 영역 안에 있는 장소로서, 성 바오로 대
 성전과 트레 폰타네(Tre Fontane: 성 바오로 사도가 참수당하고 목이 떨어진 세
 곳에서 샘이 솟아났다는 유래가 있는 장소) 사이에 있었다. 1927년에 성바오로수
 도회가 그 땅을 매입하였다. 참조: 마르티니, 「성바오로팔수도회 역사」, 238-241
 쪽; 「바오로인의 봄 *Primavera Paolina*, pp. 277-279.

고 불리는 몬트리올에 특별히 머물 생각을 했습니다. 몬트리올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두 언덕과 그 한 가운데에 있는 사도
 의 모후 [성당]을 숙고하십시오. 두 개의 언덕과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수도원들이 이제 그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모두들 사
 도의 모후 축일에는 찬미가를 부르는데, 이 지역은 가히 마리아의 도
 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 사도의 모후 보호 아래 우리를 더 간절히 162
 맡겨드려야 할 시기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머니께서 거주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이 지역에서는 죄를 짓지 말
 아야 하고, 예수님께 상처를 드러서는 안 됩니다, 결코! 그다음에 우리
 는 이 성당을, 로마 지역에 있는 이 성당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따라
 서] 전례와 성사에 참여해야 하고, 특히 고통스러운 날과 기쁜 날에는
 이 성당에서 어머니 주변에 모여야 합니다. 어머니께서는 모든 가족과
 모든 사람을 깨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예
 수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사도의
 모후 축일에 행렬을 거행하였는데, 오늘은 마리아의 복된 결실이신 예
 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와 함께 장엄 행렬을 거행하였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당신 아드님에게 집중합시다. 오, 마리아, 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과 [가족] 구성원들을 보호해주소서. 이 가족이 평
 화와 일치 안에 머물게 해주시고, 모든 면에서 평화가 넘치고, 활동과
 양식이 풍부하게 해주소서. 모두들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 우리의 첫
 째가는 권리가 하늘나라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소서. 우
 리 모두는 세례성사를 받아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느님의 상
 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오, 마리아, 특
 히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을 축복하소서. 그들의 과제는 위대하고, 그들
 의 사명은 고귀하면서도 어려운 것인데, 특히 오늘날 그러합니다. 다
 시 말해 자녀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도와주고, 교정해야 합니다. 위

대한 일입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젊은이를 보호해줍니다. 젊은이들이 강해지도록 젊은이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 충실한 삶의 시험이고, 하느님께 충실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헛된 두려움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163 해야 하고, 유혹과 무익한 감언이설 앞에서 멈추지 말아야 하며, 늘 | 특히 가장 험난한 시기에 하느님께, 예수님께, 마리아께 매달려야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여기 주변에 모인 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어린 아이를 아끼고 아무 탈 없이 성장하도록 하시며, 결코 예수님을 쫓아 내지 않고, 세례성사 때 사제의 말씀을 통하여 받은 세례성사의 흰옷을 보존하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이 창조되어 그리스도를 닮게 되었으니 이 흰옷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날까지 깨끗이 보존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일치해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언덕을 왕의 산, 마리아의 도시, 마리아의 ‘마을’처럼 느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차 매일 아침 마리아의 미소로 우리의 눈이 뜨이게 되고, 매일 정오에 ‘삼종기도’를 바치며, 우리 가운데 계시는 우리의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고, 저녁에는 마리아에 대한 생각으로 눈을 감읍시다. 어머니의 눈길 아래 하루를 시작하고 지속하며 마무리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 마리아, 이제 여기에 참석한 모든 이를 축복해주시고, 로마의 도시를 축복해주시고, 교회와 교황님을 축복해주시고, 해외로 진출한 우리 분원들을 축복해주시고, 모든 나라를 축복해주소서. 모든 국가가 당신께 축하의 노래를 부르고,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7. 성바로팔수도회의 표지: 사랑¹

164

성바로팔수도회의 표지는 외적 수도복이 아니고 베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심과 성 바오로의 마음에 상응하는 마음이 그 표지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은 모두 하느님을 위한 사랑과 사람들을 위한 사랑으로 불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² 그리고 성 바오로께서는 사랑의 찬미자, 하느님과 우리 이웃을 향한 사랑을 노래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랑은 으뜸가는 두 계명입니다. 성바로팔수도회의 표지가 어째서 사랑입니까? 그것은 성바로팔수도회가 전 생애를 통해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감싸고 있는 옷의 사랑이 아니라 정신의 사랑, 으뜸가는 사랑, 수도회의 목표가 되는 그런 사랑입니다. 수도회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전문가요, 사랑의 의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인류 구원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느님과 교회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과 교회의 가르침을 아는 것이 첫 걸음이며 본질적인 단계입니다. 하느님께 도달하고 구원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그 누구든 창조주요, 구세주요, 행업에 따라 상급과 징벌을 내리실 하느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성바로팔수도회의 모든 삶은 사랑의 삶입니다. 어느 위대한 저술가는 “언젠가 | 수도원 문 앞에서 스프를 나누어주는 대신 신문, 서적, 하느님의 말씀을 나누어주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³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시대

165

1. 1955년 6월 27일, 로마에서 행한 묵상.

2. 갈라 2,20.

3. G. Borgna, 「시대의 왕-출판의 손Il Re dei tempi- Mano alla Stampa」, Premiata Scuola Tipografica Michelerio, Asti 1914, pp. 106-107 참조; G. 알베리오네, 「그리

가 바로 그러한 시대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일 글을 쓰는 사람,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 도서목록, 전단지, 각종 인쇄물을 만드는 사람은 진리의 설교가, ‘이방인의 박사[Doctor gentium]⁴ 성 바오로께서 행하시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인간 영혼을 위해 소모[되었습니다.] 여러 나라로 떠나 서원에서 그리고 하루 종일 여러 형태의 사도직에 헌신하는 이 수녀들의 활동이 사랑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사도직은 사랑의 활동입니다. 성소자, 지원자, 수련자들을 양성할 때에 미래의 사도들을 준비시키는 사랑의 활동을 가르치십시오. 참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말하고, 모든 면에서 자라나[caritatem facientes in veritate ...]”⁵ 진리의 애덕을 실천합니다. 미사성제는 자주 우리에게 이러한 점을 영감으로 불어넣어줍니다. 곧 평화와 진리의 설교가로서 구세주를 흠송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할 때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불을 지피시다. “나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Ignem veni mittere.]”⁶ 예수님께서서는 영성체 때 우리 마음에 당신과 똑같은 사랑의 불을 지피십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은 여러분 사이에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의 결과여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가까이 있는 이들을 향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잘 해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잘 생각해야 하고, 선을 바라야 하고, 좋게 말해야 하고, 모든 이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계속해서 실천해야 합니다. 생각에서나 감정에서나, 말에서나 행동에서 사랑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잘 해석해야 하고, 잘 말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모

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62쪽 참조.

4. 1티모 2,7 참조.

5. 에페 4,15 참조.

6. 루카 12,49.

든 이에게 선을 베풀어야 하고,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이를 최대한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애덕은 신덕과 망덕에서 탄생되는 덕성이지만, 행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 마귀들도 믿습니다만, 징벌의 무게 아래에서 믿습니 166
다. 악마는 불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선의 설교자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의 동반자인가 아니면 악마의 편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지니고 있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Caritas manet in aeternum.]”⁷ 진정으로 사랑 안에서 살 때, 수도생활은 하늘나라를 향한 준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선이 곧 당신께 베푸는 것이고, 이웃에게 잘못된 죄가 곧 당신께 입힌 상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대의 애정을 예수님께 드러내고 싶다면 그분의 모상인 자매에게 왜 그 사랑을 드러내지 못합니까?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라는 그 선이 다른 이들에게 돌아가기를 원해야 합니다. “저희에게 잘못된 이를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⁸ 나에게만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라고 있는 모든 선이 [다른 이들에게도 주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을, 그다음으로는 성화를 바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매들의 구원과 성성을 바라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 바라고 있는 모든 위로와 은총을 자매들을 위해 바라야 합니다. 복수형태로 말할 때 기도는 훨씬 효과적이며, 두 배의 공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기도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적은 세 가지입니다. 곧 이기주의, 악마, 다른 이들의 표양.

7. 1코린 13,8.

8. 마태 6,12.

1) 자기 자신 밖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이를 사랑하고 모두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기주의 때문에 많은 질투가 발생하고, 많은 원한을 품게 되고, 평화를 몰아내고 없애 버립니다. 많은 경우 질투는 증상모락에 이르기까지 아주 치명적인 대 죄를 영혼에게 덮어씌울 정도로 깊습니다.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죄는 이웃에 대한 존중심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어떤 사람의 결점을 보게 될 때, 그것은 자신이 그런 결점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결점들을 다른 이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에 관하여 성찰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자신이 지니고 있는 167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 쉽게 불평하는 것을 들을 때, 그러한 불평에 대해 못마땅하게 보는 바로 그 사람이 그러한 결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2) 사랑의 두 번째 적은 수많은 불화를 일으키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다른 악마들과 함께 위안을 가져다주는 대신 아주 치명적인 절망과 지옥의 고통을 가져다줍니다. 악마는 공동체 안에서 평화의 적으로서, 다른 이들이 행하는 선을 우리의 악처럼 보게 만듭니다. 시기심이 있는 사람은 모든 선을 자기 자신 때문에만 바랍니다.

3) 사랑의 세 번째 적은 나쁜 표양입니다. 가끔씩 불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적은 인원으로도 충분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탄이 들어옵니다. 마귀는 말과 행동에서 사랑을 거스르는 아주 나쁜 결점까지도 습득하게 만듭니다. 그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국가 간에 무력전쟁이나 냉전에 대해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불화 속에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성을 찾

습니까! 소유주들이 서로 미워하는 두 개의 상점이 가까이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제들을 반대하고, 교황을 거스르고, 가장 거룩한 사항까지 거스르는 많은 불평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지 않다면, 이러한 마귀의 정신을 선택할 위험성에 노출되고 맙니다.

사랑의 단계를 더 성장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수단들이 있습니다.

1.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선하거나 악한 생각, 말,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사랑의 실천이 요구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실천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영성체 때 모든 이를 마음에 품어야 하고, 자매들의 지향, 형제들의 지향,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지향, 그리고 언제나 수도회의 이익을 위한 지향을 품어야 합니다.

2. 모든 것을 수도회를 위해 사용해야 하고, 수도회를 사랑하고, 사 168도직 활동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열 개를 가진 사람은 열 개를 가져오고, 여덟 개를 가진 사람은 여덟 개를 가져오고, 한 개를 가진 사람은 한 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은 수도회를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는 지향을 가지고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병자에 걸렸을 때에도 자매들을 위하여, 수도회를 위하여 고통을 봉헌할 수 있습니다.

3. 사랑의 실천을 위한 수단은 성체조배입니다. 성체조배 동안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천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가져다주시는 천상 스승을 관상합니다. 성체조배 동안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

랑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⁹ 그뿐 아니라 양심성찰과 통회를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생각, 느낌, 말, 행동에 관해 성찰해야 합니다.

4. 긍정적인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잘 사랑할 수 있을지 연구해야 합니다.

수도회에 공동체적인 사랑이 흐르도록 주님께 청해야 하고, 사람들, 성소자, 사도직 활동을 사랑하도록 청해야 합니다. 공동체적인 사랑을 간청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느님의 참된 사랑을 모든 이 안에 강력하게 부어주십니다. 때때로 사랑한다고 믿지만 또 미워합니다. 약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호감 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병자들을 위하여, 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낙담한 자들을 위해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하여 시간을 내야 합니다. 유혹에 빠지거나 낙심한 사람이 있을 때, 대화중에 한층 더 낙담하도록 밀어붙이는 것을 느낀다면 마귀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사랑해야 하고, 격려해야 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셨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각자는 분명하게 양심성찰을 해야 할 사항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드려야 하고, 다른 한편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 당신을 한층 더 사랑하게 해주소서. ...’라고 말씀드려야 할 뿐 아니라, ‘저 자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해주소서.’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9. 요한 13,35.

28. 참된 발전을 위한 조건¹

169

영신수련 마지막 날에 특히 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유익하다고 느낀 내용을 요약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영신수련의 끝맺음에서 다음 영신수련 코스를 시작할 때까지 영성의 한 해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결심들 또는 한 가지 결심을 정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작업과 함께 우리 내면뿐 아니라 외면에 관련된 작업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파간다디스타를 위한 작업 프로그램이 [준비될 수] 있을 것이며, 편집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한 다른 방식의 작업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직무에 따라서, 삶의 형태에 따라서, 수도회의 각 분원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요청이나 특별 요청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영신수련 마지막 날에는 하느님의 섭리로 우리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분명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영신수련 코스를 위하여 여러분이 다시 모이게 될 때 각자 지나간 일 년, 그 시간을 성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해 동안 나는 얼마나 수확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았습니까? | 금년에도 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 170 보십시오. 기도에 달려 있을 뿐 아니라 좋은 뜻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는 진보를 위한 조건에 관하여 우리 함께 멈추어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두 가지 조건은 좋은 뜻과 기도입니다. 씨

1. 1955년 6월 28일, 로마에서 행한 영신수련 코스의 결론 묵상. 그러나 이 영신수련 코스에 대한 다른 정보는 없다.

뿌리는 신적 존재는 비가시적으로 존재하시지만, 가시적으로 존재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실 때에는 비가시적으로 존재하시고, 하느님의 교역자를 통하여 여러분의 귀에 말씀하실 때에는 가시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씨앗의 일부는 길바닥에 떨어질 수 있어 사람들의 발에 밟히거나 새들이 쪼아 먹을 수 있으므로 결실을 내지 못합니다. 일부는 자갈밭이나 모래밭에 떨어져 싹을 틔울 수 있지만, 물기가 없어서 오래지 않아 말라죽게 됩니다. 씨앗의 다른 일부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져 가시덤불 사이에서 씨앗이 싹을 틔워 겨우 자라나지만 종내는 숨이 막혀 죽고 맙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씨앗은 수확을 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씨앗 일부는 좋은 땅, 최상의 토양에 떨어져 어떤 것은 삼십 배, 어떤 것은 백배의 열매를 맺습니다.²

가끔 우리가 하느님의 씨앗을 길 위에 떨어지도록 놓아두었던 점에 대하여 주님께 용서를 청합시다. 곧 하느님 말씀을 잊었을 때, 주님의 목소리에 귀가 닫혔을 때입니다. 하느님 말씀의 일부, 하느님 씨앗의 일부가 자갈밭이나 모래밭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곧 마음이 돌아서고 미지근해져서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도, 하느님께 대한 사랑도 느끼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한 영혼은 은총을 잃을까, 공덕을 잃을까 전전긍긍하면서도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고, 지옥이나 연옥의 두려움에도, 마음에 주님께 대한 사랑, 일종의 열정과 매력을 일깨워주는 사랑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무성하게 자라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때때로 우리는 | 수많은 소죄를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 안에 많은 가시덤불을 심게 됩니다. 아, 우리가 성찰할 수 있었다면! 어떤 경우에 우리는 특정

2. 마태 13,3-8 참조.

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특정 사항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특정 사항을 생각하지도 바라지도 않을 것입니다. 가시는 욕정을 가리킵니다. 씨앗은 싹을 틔울 수 있을 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통하여 하느님 말씀을 듣는 영혼이 될 수도 있지만, 욕정에 지배되면 가시덤불이 뒤덮어 하느님의 목소리가 막혀버리고 맙니다. 한 가지를 지나치게 사랑할 때, 강력한 열정을 가질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러한 열정, 또는 사랑해마지않던 열정이 좋은 결실을 억눌러 숨막히게 만들어 좋은 결실이 귀찮아지고, 그동안 해왔거나 또는 앞으로 행해야 할 그 선이 어느 순간 더는 소중히 생각되지도 중요하지도 않게 여겨집니다. 한 가지 열정으로 충분합니다! 유다는 가장 아름다운 설교를 들었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강력한 기적들, 그중에서도 라자로의 부활을 통해 말씀하신 모든 것이 확증됨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라자로가 다시 살아난 바로 그날에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망, 탐욕입니다!

그런데 땅의 일부는 좋은 토양이어서, 씨앗이 그 좋은 땅, 최상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선한 마음 자세를 지닐 수 있고, 또 영신수련에 임하면서 최상의 마음자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토양에서는 씨앗 하나가 삼십 배, 육십 배, 백배의 결실을 낼 수 있습니다. 영성의 해 동안 어떤 수녀는 삼십 배의 공덕을 얻고, 다른 수녀는 육십 배, 또 다른 수녀는 백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에 달렸습니까? 두 가지 사항에 달렸습니다. 토양이 좋아야 하고, 일을 잘 해야 하고, 수분이 충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좋은 뜻을 가져야 하고, 물을 공급해야 합니다. | 172 곧 은총과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기도에서, 생명수인 기도에서 첫 번째 조건으로 상징됩니다. 따라서 좋은 뜻을 품어야 합니다.

영신수련을 마치고 나설 때 영혼은 큰 기쁨을 안고, 열정을 지녀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하느님과 더욱 밀접하게 일치했으며, 그분께 더욱 친밀하게 말씀드렸고, 그분이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성성으로 부르셨음을 확신하고, 나에게 은총을 마련해주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Pax hominibus bonae voluntatis!”³ 이러한 좋은 뜻이 보존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봅시다. 나는 열정을 지니고 있는가? 좋은 뜻을 지니고 있는가? 나는 낙관주의자로 느끼는가 아니면 비관주의자로 느끼는가? 열의를 느끼는가? 나는 흥분하다고 느끼는가? 나는 억압되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매로시키신다고 느끼는가?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들이는 것이다Omnia traham ad meipsum.”⁴

한 주간을 열정으로, 거룩한 고백성사로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집중하여 깊이 묵상 한 주일主日로 시작해야 합니다. 한 달간 우리 영혼을 공덕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시간을 마련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정과 진지함과 낙관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휴식을 하느님께 봉헌할 때,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로 봉헌할 때 우리의 심장박동은, 혈액순환도, 우리의 호흡도, 그리고 매 순간, 매 걸음마다 밤낮으로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이룸으로써 우리가 풍요로워진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그만큼 더 우리는 영성의 해를 낙관적으로 시작하겠지만, 반대요소도 생길 수 있습니다. 비관주의와 낙심은 가장 몹쓸 지옥의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가까이 다가오도록 놓아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는 빗자루로 마귀를 쓸

173 어버리기 전까지는 평화를 누릴 수 없어야 합니다. | 극심한 비관주의, 낙담의 영향 아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낙담은 마귀가 이

3. 루카 2,14 참조.

4. 요한 12,32.

미 마음에 들어와 있거나 문 앞에 서 있다는 표시입니다. 마리아께서는 마귀가 다가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뱀이 그분의 발밑에 이르렀을 때 마리아의 후손에⁵ 의해 머리가 밟혔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리라Ipsa conteret caput tuum.”⁶ 위로 올라갑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악을 저질르고 많은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낙담하게 됩니다. 나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런데 그대가 전쟁에서 한번 패했다 하여 다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마리아와 함께한다면 언제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만일 허락된다면 영성체를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아니십니까?

“그렇지만 나쁜 경험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덕을 쌓기 위해서는 지나간 악을 활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곧 자신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느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또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말은 만일 내가 잘못했다면 나 자신을 더 낮추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은총으로 채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겸손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한 이들에게 당신 은총을 베푸십니다Humilibus dat gratiam.”⁷ 그런 경우는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죄에 대한 기억도 있지 않느냐구요? 물론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활용하는 기술」⁸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그 책

5. 이 본문에 대한 메시아적인 해석에서 ‘발’(piedi)을 ‘후손’(stirpe)으로 바꾸었다.

6. 창세 3,15.

7. 야고 4,6.

8. Tissoi Giuseppe, 「자신의 잘못을 활용하는 기술L'arte di utilizzare le proprie colpe」, Societa San Paolo, Alba 1944 참조.

을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성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이⁹ 큰 선을 가져다주듯이, 그 책으로 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는 죄 없는 이들보다 죄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 우리를 위한 자리도 있습니다. 성 바오로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고, 성 베드로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면 우리를 위한 자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성 베드로에게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성 베드로께서는 어떤 영혼이 천국에 도달할 때 그를 보고 놀라거나 그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

174 면 | 그분도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대는 내가 한 것처럼 했으니, 내가 천국에 있듯이 그대도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내 죄에 대해 슬피 울었으며, 그날부터 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용기 있게 주님을 섬겼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로마의 박해시기에 회자되던 내용이 사실인지 모르지만, 어느 날 성 베드로는 낙심하여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쿠오바디스Quo vadis?”¹⁰ 그러자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발걸음을 되돌렸습니다. 그리하여 바티칸 언덕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기에 [이르렀습니다.]¹¹ 세상 곳곳에서 순례자

9. 성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은 자서전적인 작품이지만, 철학, 신학, 신비학이자 시학이기도 하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작품 가운데 오늘날 가장 많이 읽히고 연구된 작품이다. (397년에 집필하기 시작하여 400년에 완성됨)

10. 「쿠오바디스Quo vadis」는 작가 시엔키에비츠 헨릭(Sienkiewicz Henryk, 1846-1916)이 외경인 「베드로 행전 *Acti di Pietro*」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다룬 소설 제목이다. 네로 황제의 명령으로 자행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동안 베드로는 순교를 피하기 위하여 로마를 떠나던 중, 아피아 가(via Appia)에서 로마시를 향하여 반대방향으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Quo vadis, Domine?”(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사도 베드로가 묻자,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기 위해 로마로 간다.” 하고 대답하셨다.

11. 네로 박해 중 64년경, 성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와서 로마에서 순교한 것은 분명하다. 바티칸 대성전의 제대(altare della Confessione: 일명 ‘고해성사의 제대’)

들이 성 베드로의 전구로 죄를 용서받고 정화되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죄가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주셨으며, 세 번이고, 네 번이고 아니 그보다 더 용서해주셨습니다.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표시입니다. 나는 완고하게 죄를 지었지만, 그분께서는 고집스럽게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한 번, 두 번 계속 용서해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성사 때에만 자비를 입었고, 어떤 이들은 겨우 몇 차례만 자기 죄를 용서받았지만, 나는 아주 빈번하게 많은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분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 성무일도를 바쳤습니다. ‘성무일도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 번의 부인에, 세 번의 죄에, 세 번의 사랑 실천이 상응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¹² 세 번의 사랑 실천은 세 번의 죄를 보상하는 데에 필요합니다.”¹³ 예수님께서 매우 섬세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베드로 사도에게 “너는 세 가지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며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세 번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¹⁴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막달레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¹⁵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대가 죄를 지었습니까? 사랑을 많이 실천하십시오. 그러나 | 겸손하고 참된 사랑이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영혼을 씻어주는 사랑 175

부근에서 고고학 탐사 결과 그 장소에 성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는 전승이 증명되었다.

12. 요한 21, 15-17 참조: Diligis me? Diligis me? Diligis me plus his?

13. 「로마성무일도 *Breviarium Romanum*」,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 전야 Lectio IX, Omelia di S. 요한복음에 관한 성 아우구스티노의 강론 5 참조.

14. 1베드 4,8.

15. 루카 7,47 참조.

이고, 다른 한편으로 성화시켜주는 속죄를 동반하는 사랑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천국에 들어가셨을 뿐 아니라 천국의 문지기가 되셨습니다. 막달레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아주 영광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성화시킬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나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나는 지능이 부족해서 만사를 조금밖에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미 죄에 빠졌습니다. 나는 많은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오해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곤란한 것이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가 바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만일 그대가 악마의 속삭임을 그대로 따른다면 잃어버리겠지만, [제시된] 수단을 채택한다면 성공할 것이고, 그대는 큰 성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맑은 물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을 누가 대주시는 겁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무엇을 바랍니까? 아침에 행하는 신심, 미사, 영성체, 성체조배, 신령성체, 삼중기도, 그리고 더 나아가 주일 미사 2대, 주간 고해성사, 월 피정, 영신수련을 지향해야 합니다. 신심실천을 잘 행해야 하는데, 이 신심실천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따라서 전례기도, 공동체 기도, 독서를 그 정신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들은 더욱 향상될 수 있습니다. 생생한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위한 지향을 둔다면, 그러한 것이 바로 기도가 되고, 하루 종일 계속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¹⁶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기도의 상태가 있습니다. 곧 언제나 하느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해야 하며, 겸손과 신뢰를 지녀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겸손한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¹⁷ 모두 이러한 신뢰를 통하여 구원됩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바랄 때 신앙과 | 희망이 성장 176 하고, 지혜, 의견, 용기,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의 선물이 증대됩니다. 이러한 것이 기도의 상태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 안에] 은총의 물을 풍부하게 부어주십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¹⁸ 이러한 물을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¹⁹

늘 예수님과 통교하는 신뢰 깊고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담긴 두 개의 단지가 있을 때 한 단지와 다른 단지 사이에 통하는 관이 있어서, 한 단지가 가득 차면 다른 단지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스승의 마음과 지속적인 통교 중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전달합니다. 하느님에게서 약간의 지적 선물을 받고, 어쩌면 건강의 선물도 받은 사람들은 뭔가 그럴 듯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아도 그들은 이러한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긴밀한 기도 상태에 있습니다.

17. 잠언 3,34: “Humilibus dat gratiam.”

18. 요한 7,37: “Si quis sitit veniat ad me.”

19. 요한 4,10-11,14 참조.

16. 루카 18,1: “Oportet orare et numquam deficere.”

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선물을 누리는 것입니까! 비록 지상에서는 어쩌면 아무런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이 영광 중에 아주 높이 고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사람들로, 고차원적인 생각을 추론할 줄 모르고, 희귀한 책을 읽지 않았고, 많은 방법을 참조하지 않았지만, 신적 방법을 따랐습니다. 곧 최대한 하느님께 신뢰를 둬으로써 그 자체로 하느님을 느끼는 겸손한 방법입니다. 하느님의 방법은 결코 죄에 빠지게 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열매를 맺습니다. 각기 백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삼십 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은 신심 행위만 하는 사람이고, 육십 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은 | 살아 있는 기도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백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은 이러한 기도 상태를 습관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분원으로 기꺼이 돌아가십시오. 천사들이 여러분을 동반할 것이며,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성녀가 되십시오! 성녀가 되기 위해서는 일 년, 아니 아홉 달이면 충분합니다. 회개한 후 아홉 달밖에 못 살았지만 성녀가 된 운 좋은 어떤 성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성녀는 이 아홉 달 동안 아주 겸손한 삶을, 크신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하느님께 깊은 신뢰를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한 강복을 내리시어 이러한 사항들이 여러분 영혼 안에 깊이 스며들게 되고, 늘 여러분 뇌리에 새겨 지기를 바랍니다.

29. 교황의 3중 직무인 (길, 진리, 생명)¹

178

하느님의 현존 앞에 머뭇시다. “나의 하느님 ... 당신 앞에 제가 있을 을 믿습니다. ...” 성체 주위에 있는 가장 순수한 천사들과 일치하기 위하여 우리 죄에 대해 용서를 청합니다.(통회의 기도를 바칩)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께,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께 사랑 넘치는 깊은 경외심을 표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신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흠송을 성가로 시작합니다. “우리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Oremus pro Pontifice nostro Pio.”

우리의 성체조배 방식은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길 진리 생명이시고,² 당신의 대리자인 교황님은 우리를 위하여 길 진리 생명이 되어야 할 삼중 직무를 완수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황님은 삼중의 권한을 지니십니다. 1) 가르치시는 교의적 권한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권한입니다. 2) 명령하시는 법적 권한입니다. 이는 우리가 순명해야 할 권한입니다. 3) 성사적 권한입니다. 이는 우리가 사랑과 깊은 헌신으로 보답해야 하는 권한입니다.

1. 첫 번째로 교황님은 우리를 가르치는 면에서 진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제 진리의 자리는 성 베드로의 권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적으로 지상에 계시실 때 사람들이 그분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 오늘날에는 성 베드로의 후계자 인 교황 비오 12세에게서³ 풍성하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교황의 계승

1. 1955년 6월 29일, 로마에서 바오로 가족 대상의 성체조배.

2. 요한 14,6 참조.

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Et regni eius non erit finis.*”⁴ 제국, 왕국, 정당은 사라져도 교황의 권한은 스러지지 않습니다.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Et portae inferi non praevalent adversus eam.*”⁵ 그것은 교황님이 특히 신앙과 관습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 마태오 사가의 복음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⁶

교황님은 교회와 똑같은 무오성을 지니십니다. 우리 수도자들은 여

3. 에우제니오 파첼리(Eugenio Pacelli, 1876-1958)는 로마 출신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임박한 1939년에 교황으로 선출되었다. 전쟁 저지를 위한 노력과 전쟁의 희생자들을 위한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 문제에 관한 많은 담화와 41개의 회칙을 반포하였다.

4. 루카 1,33.

5. 마태 16,18.

6. 마태 16,13-20.

러 국가에서 다양한 이단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특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교 사고방식뿐 아니라 교황의 사고방식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날] 이단과 관련된 분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칭하는 많은 교회들 사이에서 누가 참으로 | 그리 180
스도의 지체인지를 알게 하는 표시는 무엇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티켓은 하나입니다. 곧 로마교회, 로마주의 *Romanita*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러니 네가 돌아오거든 네 형제들의 힘을 복돋아주어라 *conferma fratres.*”⁷

교황님은 교회의 모든 공의회를 확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세계공의회는 공의회 개막식 때나 공의회 중에, 그리고 공의회 폐막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에 대한 신앙과 존경을 고백합니다. “베드로께서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은 교황님이 말씀하셨고, 그분 안에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셨고,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지상에 현존하시는 감미로우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담겨 있는 진리에 관해서만 교황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복음을 설교하고 전하기 위하여 당신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복음은 시대마다 특수한 상황에 의해 적용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황님은 복음의 가르침을 오류 없이 해석하시고, 많은 오류의 출현과 도덕과 관습에 대한 많은 가르침 앞에서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천명하십니다. 이렇듯이 끊임 없이 제기되는 판결들 사이에서 가끔 우리는 약간의 혼란을 일으킵니다. 도처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사상이 만연합니다. 가톨릭 신자는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로마를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삶을 제시해주시듯, 교황님이 믿어야 할 바를 가르쳐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7. 루카 22,32.

이것이 우리가 지녀야 할 태도입니다. 곧 우리는 늘 로마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대리자, 당신의 보좌관, 당신의 부지배인을 주셨기에, 지존하신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성심께 감사드립니다. 무엇
181 이든 그분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확정적인 신앙의 진리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교황의 사고방식을 지녀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수도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수도 생활 지망자나 신학생, 사제 지망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황의 사고방식을 지닌다는 것은 교황께 대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누구든 교황님을 향해야 하고, 그분의 복음선포에서 주어지는 삶의 지침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출판한 교황 담화 전집 15권은⁸ 「우리를 인도하시는 교회의 목자 *Il Pastore della Chiesa che ci guida*」⁹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책으로, 오늘날의 구체적인 현안과 중대사에 관한 연설문을 담고 있는 이 작은 전집은 교황의 사고방식을 따르는 사람을 위해 확실한 안내서가 되어 줄 것입니다. 교황의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은 「가톨릭 가르침을 위협하는 그릇된 견해들 *Humani generis*」¹⁰에 결코 동요되지 않고, 온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나 글을 통하여 강론을 해야 하는 사람은 교황님의 목소리나 확성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가시적인 대리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받으소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군중처럼 그분께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8. 교황 비오 12세의 담화문 전집 「비오 12세의 행적과 담화 *Atti e Discorsi di Pio XII*」, Edizioni Paoline, Roma에 수록되었다.

9.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Il Pastore che ci guida*」, Edizioni Paoline, Roma.

10. 교황 비오 12세, 회칙, 1950년 8월 12일, AAS 42(1950), pp. 561-578, in *Enchiridion delle encicliche*, vol VI, EDB, 1995, pp. 628-661 참조.

받지 못했습니다.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Cum turbae irruerent in Jesum ut audirent verbum eius*.”¹¹ 그러나 우리는 모든 군중이 로마로 몰려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를 기념하는 이 축일 전야에 성 이레네오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모든 교회가 으뜸 교회, 곧 진리의 중심인 로마로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¹²

“예수 그리스도는 찬미받으소서!”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멋진 제안을 합니다. 곧 “오, 그리스도의 대리자시여 말씀하소서. 당신은 우리가 늘 머리를 조아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당신 안에서 말씀하시기에 저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온 힘으로 헌신하는 진리의 왕이시여 *Dediti Ecclesiae veritatis regiae*.”¹³ 온전히 진리의 왕궁인 성 베드로의 권좌에 헌신해야 합니다.

| 그래서 지상에, 교황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미로움과 흠숭을
드리기 위하여 마음으로 찬미드려야 합니다. 성가: “o via, vita, verita”
기도: “스승 예수님께 바치는 코론치나(주간기도)” 4번.

2. 교황님이 지니신 첫 번째 권한은 교의적인 권한이고, 두 번째는 법적인 권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교회 전체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곧 주교들에 관해서 그리고 신자들에 관해서, 각 개인에 관한 내용이나, 어떤 가르침을 확정하기 위하여 모인 공의회에 내용에 관해서 권한을 가지십니다.

11. 루카 5,1 참조. (역주: 원문에는 루카 5,2로 표기되어 있음)

12. 리옹의 성 이레네오(130년경-202년경)는 소아시아 출신의 주교요 순교자로서, 가톨릭 신앙 수호를 위하여 많은 작품을 썼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반이단론 *Adversus haereses*」이다. 「로마성무일도 *Breviarium Romanum*」, 6월 28일, II Nocturno, Lectio VI 참조.

13. ‘o via, vita, verita’ 찬미가의 구절 중 ‘교회의 왕적 진리에 대한 헌신’이라는 뜻이 담긴 구절 「바오로 가족 기도서」, 1996판, p. 316에서. (역주: 한국어판에는 없음)

[요한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므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매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매어주고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¹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이는 교황님에게 순종합니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이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¹⁵ 만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교황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14. 요한 21,15-19.

15. 루카 10,16.

| 여러분은 교회에 관한 보편적 권한을 가진 분과 함께 있지 않기 때
문에 하느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것이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
지 않고, 하느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교황께
대한 순명을 거부한 이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지 않습
니다.

법률적 권한은 법률을 만드는 입법권, 법률을 집행하는 사법권만 아
니라, 심판하는 재판권에도 관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비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
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목자를 모시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래서 교의적인 문제에 관해서 오류 없이 가르쳐주시는 분에게 향해야
하는 것처럼, 관습에 관한 정의, 가르침에 있어서 오류가 없으신 분이
신 교황님을 향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교회 초창기에 아주 큰 논란이 일어났습
니다.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이방인들은 우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
고, 세례를 받은 후에도 일부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 있는가 하면, 율법을 거부하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세 율법과 예식에서 해방시키셨다고 말했습니다. 자유의 승리자인
바오로 사도가 그들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
도들의 공의회가 소집되었고 여러 반대 입장의 의견이 발표된 후에 베
드로 사도가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Visem est Spiritui
Sancto et nobis*... 결정하였습니다.”¹⁶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방인들과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에 관해 그들이 지
켜야 할 실천사항과 지녀야 할 태도를 규정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시대마다 발생하였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이 대두될
때, 그리고 현대에는 수많은 연구가들이 참으로 훌륭한 연구를 하지

16. 사도 15,28.

184 만 잘 인도되지 못했을 때, | 우리는 교황님에게 향하게 되고 교황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ille docebit vos omnia et suggeret vobis omnia,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quaecumque dixero vobis.”¹⁷

교황님은 당신 자녀들과 온 세상을 향해 “성령과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Visum est Spiritui Sancto et nobis.”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엄수할 사항을 규정합니다. 교황님의 담화들은 일종의 강연이나 정당 대표의 연설들과 비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중 선동가에게 영감을 받은 연설도 아닙니다. 교황님은 그리스도와 인간들 사이의 중개자이시고, 그리스도에게서 진리를 취하시어 사람들에게 전달하십니다. 그러므로 윤리적인 가르침에 있어서 우리가 교황님을 따를 때마다 우리는 확실하게 성성의 길 위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곧 교황님은 모든 이에 대한 법률적 권한을 가지고 계시지만, 수도자들에 관해서는 특별 권한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고위 장상은 교황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회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회헌을 작성하면 그분이 규정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자들은 한 교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황의 군대로서 보편교회를 위해 일합니다. 교황님은 다른 이들의 군대보다 더 자유롭게 당신 군대를 명령하고 지휘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헌신적인 자녀가 되어야 하고, 교황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야 하며, 교황님을 따르는 자녀, 모든 면에서 교황께 순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수도자의 자세입니다!

교황님의 축일을 장엄하게 거행하는 관습을 수도자들에게 소개함은 바로 우리 수도자들이 교황님, 우리의 고위 장상에 대한 헌신의 표현

17. 요한 14,26.

이며, | 그분을 따르는 군대로서 서약을 통하여 더 직접적으로 종속되기 위해서입니다. 승리하거나 죽더라도!

언제나 교황님과 함께! 앞서 교황님의 사고방식에 관한 은총을 청했듯이 교황께 대한 순명의 은총을 청합니다. 늘 이 점을 더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서원문에 교황께 대한 순명서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우리 수도회 방침에 이러한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곧 사도직에 관한 한 순명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출판물이 교황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적어도 그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교황청 설립 수도회에서 수도자가 되고 수도서원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 순명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안내자를 보내주신 예수님은 찬미받으소서. 수덕에 관한 사항에서도 교황청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사회적 가르침과 교의적 가르침 사이에 논쟁을 벌이고, 관습에 관한 가르침에서 교황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복음서 내용이 그들의 느낌과 경향에 따라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복음서의 일부 내용을 찢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복음서와 교황님의 편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에게 충실하고, 성 바오로 사도에게 충실하며, 성 베드로 사도에게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성가: “오, 고귀한 로마여 O Roma nobilis”¹⁸

기도합니다: “스승 예수님께 바치는 코론치나(주간기도)” 3번.

3. 교황님은 성사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미사 독서를 읽어봅시다. “그즈음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었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

18. 「바오로 가족 기도서」 1971년판, p. 290 참조. (역주: 현 기도서는 1996년 판이므로 안 나눔)

186 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 유대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네 명씩 짝 네 개의 경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두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매고 신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라니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¹⁹

교황의 권한은 세 번째로 성사적인 권한입니다. 그분은 모든 신자 개개인에게 그리고 모든 주교 개개인에게 성사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187 사제서품이 유효하며, 모든 사제가 | 미사에서 축성할 권한을 지니고

죄를 용서하고, 다른 준성사를 집행할 권한을 지닐 수 있기 위해 모든 사람이 그분과 일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교황과 결속된 주교의 계승권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사제서품이 효력을 지니지 못합니다. 하나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뒤이은 모든 사슬이 끊겨 더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교황님과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황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한 생명이신데, 이 생명은 성체성사와 죄의 용서에 대한 성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교황님은 사제서품을 집전하고, 고해성사의 제한과 보편적 권한인 성사적 권한을 나누어주는 주교들을 통하여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십니다. 교황님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신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사랑하십니다. 문명의 등대일뿐 아니라 생명의 시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진정한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느님 자녀들의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교황님의 이러한 사랑에 어떤 식으로 상응해야 합니까?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황님에 대한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교황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고방식이나 의지만이 아니라, 교황님의 마음,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마음을 지녀야 하고, 계속해서 그분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독서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Oratio autem fiebat ab Ecclesia ad deum pro eo.”라는 내용에 주목했습니까? 교황님은 우리의 기도로써 당신의 고귀하고 힘든 사명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를 위로하는 헌신적인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수도자들에게 최대의 애정을 쏟으시며, 수도자들 마음에 초월적인 헌신의 정신을 담아주십니다.

19. 사도 12,1-12.

188 예수님께 방향을 돌리며 매일 교황님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 합시다. 장상들은 계속 위안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최고 장상은 많은 위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를 쏟으신 것과 성 바오로 사도가 피를 쏟으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분들은 친밀한 벗이었습니다. 성 바오로는 성 베드로에 대해 대단히 헌신적이었습니다. 반대자들이 가끔 인용하는, 성 바오로가 성 베드로를 반대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그러한 표현을 잘 분석하는 사람에게는 성 바오로 사도가 성 베드로 사도의 직무에 대해서 가졌던 존경과 경의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 바오로 사도의 기도를 바칩시다. [...] ²⁰ “오, 성 바오로 사도여...”

이제 내일 축제에 오늘의 축제를 결합하면서 성 바오로의 찬가를 노래합시다. “죄악의 짐에 짓눌린 자들 *Pressi malorum*” ²¹이라는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마칩시다. “그리스도 승리하셨네 *Christus vincit*.”

20. 「바오로 가족 기도서」 261쪽.

21. 「바오로 가족 기도서」 1996년판, p. 356 참조. (역주: 한국어판에서 아마도 즈카르야의 노래인 루카 1,79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이들을 비추시고”를 말하는 듯함)

30. 착복식¹

189

일본과 인도에서 성바오로딸수도회 지원자 몇 명이 착복식을 하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수도회에 새로운 은총, 새로운 위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착복식을 위해, 수련기 허락을 위해 그리고 수도서원을 위해 준비한 ‘예식서’를 보면,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착복식 예식에서는 예수님을 잃었다가 성전에서 되찾는 복음을 읽게 되고, ² 수련기 예식에서는 예수님께서 부자청년에게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Si vis perfectus esse*” ³에 관한 루카복음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도서원 예식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⁴라고 질문한 복음을 읽습니다.

그럼 먼저 수도복 착복식 예식에서 읽게 되는 예수님을 잃었다가 성전에서 되찾는 복음을 읽어봅시다. 성모 마리아의 질책에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이 어떠했습니까? “야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이에 대한 그분의 답변은 그 당시에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신비스러운 대답이었지만, 나중에는 완전하게 그 뜻이 드러났고, 예수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 첫 번째 190
기적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 그분의 제자들은 그분을 믿었습니다.

1. 1955년 6월 30일, 로마에서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착복식 때 행한 강론.

2. 루카 2,40-52 참조. 「성바오로딸수도회 예식서 *Rituale della Pia Società Figlie di San Paolo*」, Roma 1945, pp. 7-9.

3. 루카 18,18-22 참조. 위의 책, pp. 29-30.

4. 마태 19,27-29 참조. 위의 책, pp. 39-40.

가끔 본당신부들이 우수한 처녀들을 본당에 오래 붙잡아두려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당을 위해 봉사하고 특히 가톨릭 액션에서⁵ 활동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부모들[도] 그들 집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딸을 예수님께 봉헌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부모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윤리적인 의미에서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딸들인 여러분을 예수님께 봉헌하여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봉헌하는 것은 결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을 위해 예수님께 돈을 좀 봉헌할 때, 그 돈은 여러분을 위해 영원히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천국에서 여러분을 꾸며줄 영원한 부를 위해 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수련기 허락을 통하여 자매는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섭니다.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한 젊은이에게 “계명들을 지켜라.”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늘 “하느님의 계명들을 지켜라.” 하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릴 때부터 이미 계명들을 다 지켰으므로 무엇을 더 해야 할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착복식을 하는 자매들이 들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자매들은 너그럽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분께 다가왔습니다. 아, 예수님과 함께 잘 지내고, 예수님과 함께 더 거룩한 삶을 살

191 고, | 예수님과 함께 사도직을 행합니다! 성화 작업과 사도직 활동은

5. Azione Cattolica Italiana(ACI: 이탈리아 가톨릭 액션 단체). 자유롭게 공동체 형태를 띠고 조직적 활동을 하는 평신도 협회로서, 교회의 복음화 사명을 위하여 사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협력했다.

새 착복자들이 수행해야 할 이중의 과제이며, 이중의 활동을 통하여 이중의 화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화관 하나는 그들이 잘 행했기 때문에 받을 것이요, 다른 화관 하나는 그들이 사도직을 통하여 잘 가르쳤기 때문에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수도생활을 지향하는 자매들은 수도서원을 받습니다. 먼저 유기서원을 하게 되고, 나중에 때가 이르면 종신서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보장해주시는 복음을 읽게 됩니다.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Vos qui reliquistis omnia et secuti estis me, centuplum accipietis et vitam aeternam possidebitis.”⁶ 지상에 살 때에는 평온하게 지낼 것이고, 백배의 은총과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성성으로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끄시고 그들을 위해 은총을 마련해주셨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 은총은 천국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이들이 하늘나라에 이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백배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약간의 신비적인 의미를 띠고 있지만,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흠송하며 예수님 앞에서 묵상하는 사람은 매일 한층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라고 덧붙이십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삶은 하나의 순례요, 하나의 여정이요, 모든 것이 여행길입니다. 여행 도중 여러 군데 간이역이 있을 수 있지만, 마침내 종착역에 이를 것입니다. 곧 영원한 천국입니다. 저 높은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벌써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마리아께서도 이미 우리를 기다리시며, 오늘 우리가 성가를 부르며 존경을 드리는 성 바오로 사도께서도 역시 우리를 기다

6. 마태 19,29.

리고 계십니다. 그는 드높은 성성에 도달했으므로 큰 화관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미사의 본기도는 이런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키셨으니 *Multitudinem populorum* …”⁷

- 192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갑시다! 한 걸음 또 한 걸음을 내디디며 언제나 위를 향해 올라가야 합니다. 저 높은 곳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⁸ 매일 앞을 향하여 내달려야 합니다. 성성의 여정에서나 사도직 활동에서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앞으로! 늘 앞을 향하여 내달려야 합니다!

7. 6월 30일, 성 바오로 사도의 공통 기념 미사의 본기도.

8. 필리 3,13 참조.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 구절의 의미를 요약하여 바오로 가족을 위한 모토로 삼았다. ‘늘 앞을 향하여 내달려야 합니다!’

31. 죄¹

193

여러분은 묵상 주제가 무엇인지 이미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어머니,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께 온 마음을 다하여 죄를 미워하고, 매 순간 죄와 싸울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께서는 당신 삶에서 대죄나 소죄를 결코 범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완전히 아름다우신 분”²으로 당신의 존재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탁월한 특권을 통하여 그분을 티 없이 깨끗하신 분으로 보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젠가 감실, 거룩한 방주가 되셔야 했고, 언젠가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모시기 위한 성합처럼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³

영성체 때 우리는 그분의 결실인 아드님을 영양분으로 섭취합니다. [사도의 모후 성당의] 대성당 제대 위에⁴ 이런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녀들이여, 와서 내 아들을 먹어라 *Venite, filii, comedite fructum meum.*”⁵ 오 마리아, 당신 태중의 복되신 아드님!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우리 존재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야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 이것은 세상의 가장 큰 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악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쟁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

1. 1955년 9월 2일, 로마에서 바오로 가족에게 행한 묵상.

2. “*Tota pulchra*”라는 마리아 찬가의 첫 마디를 암시함.(역주: “*Tota pulchra es*”, 곧 ‘가장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마리아 찬가는 원죄 없이 잉태하신 복된 동정녀 대축일 9일 기도 마침 성가로 사용되었음)

3. 루카 1,42.

4.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제대 감실 문 위에 새겨진 말씀.

5. 잠언 9,5 참조.

은 페스트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고 했고, 어떤 사람은 정신 이상이라고 했지만, 다른 동료들보다 더 사려 깊은 한 젊은이는 용기 194 를 내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큰 악은 죄입니다. | 다른 모든 악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수 있는 한, 회개하여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범한 죄에 따르는 형벌을 지울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늘나라를 위한 새로운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선에 의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 *Omnia cooperantur in bonum.*”⁶ 그러나 온전한 악인 죄는 그렇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후에 그 잘못에서 이득을 이끌어내는 기술을 활용할 수 있지만, 죄는 그 자체로 악이요, 단지 악에 불과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중한 위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곧 늘 악마가, 늘 감각이, 늘 환상이, 늘 욕정이 죄를 선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악에 의해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선의 모습 아래 혹은 선행의 모습 아래 악을 범합니다. 이것은 마치 달콤하게 만든 독약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실로 달콤한 맛을 느끼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약간의 단맛을 볼 수 있지만 죽음을 맛보는 것입니다. 하와는 금지된 나무 열매를 먹었기에 죽음이 그녀의 영혼과 세상 안에 들어왔습니다. 유혹은 엄청난 거짓을 불러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빛을 받는 영혼만이 그 거짓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잘못을 피할 줄 압니다. 왜 죄가 그토록 중대한 악이 됩니까? 왜냐하면 죄는 천국을 닫고 지옥을 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죽음은 영원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밀어붙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운명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되거나 멸망하는 것, 하

6. 로마 8,28 참조.

늘나라에서 늘 행복하게 살거나 지옥에서 불에 타며 늘 불행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영혼의 멸망 원인은 죄로서, 죄가 영혼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아직 고해성사나 특히 통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 죽음의 순간에 비교적 쉽게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겠지만, 195 충분한 통회의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늘 죄를 가까이한 사람이 말년에 이르러 쉽게 참회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죄는 양심의 가책을 가져옵니다. 죄를 지은 젊은이가 미약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편히 쉬면서 잠들 수 있겠습니까? 조금 전에 저는 “미약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죄악 중에는 매번 조금씩 신앙을 없애거나 감소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영원한 파멸에 대한 두려움 같은 악도 있기 때문입니다. 큰 문제 앞에 우리의 정신을 집중시켜 삶을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책의 서문, 끝이 없는 책의 서문과 같은 것입니다만, 이외에 모든 것은 이 서문에 달려 있고, 영원도 이 서문에 달려 있습니다. 죄는 영혼에서 은총을 없애고 평화를 앗아갑니다. 죄는 성소를 파괴합니다. 죄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거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눈먼 자들일 수 있고, 교활하다는 것을 알 것이고, 우리가 아주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생애 동안 부족했고, 우리가 세운 기획에도 부족했다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합니다. 수천 가지 설명을 찾지만, 영혼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 또는 악마가 있습니까? 사실 성령께서는 죄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서 내쫓기셨습니다. 죄는 우리 영혼에

마귀를 끌어들입니다.

196 아, 만일 세속 사람들이 자신들이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지 |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운합니까! 특히 지옥의 가장 자리에서 먹고 살며 잠든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갑작스럽게, 불시에 죽음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 그런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한 순간도 멈추지 않고 고해사제에게 달려가 속죄를 한 다음 주님께 자비를 청할 것이며, 통회할 것이고, 모든 것에 앞서 죄의 기회조차 멀리하면서 회개할 것입니다.

죄, 성 도미니코 사비오가⁷ “죽음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보다는 죽음을 선택해야 할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성녀 마리아 고레티는⁸ 그러한 기회를 찾았고, 죄보다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거룩한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성녀의 피로 물든 손바닥은 순결한 백합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죄에 대해 저항하였습니까? 그와 같이 죄를 두려워하였습니까? 콘스탄티노플의 주교였던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⁹ 악행을 저지른 여왕을 대담함과 열정으로 용감하게 비난하였으므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격분한 여왕은 주교에게 어떤 처벌을 주어야 할지 논의하기 위하여 자신의 참사위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유배를 권유한 사람이 [있었고], 사형을 간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현명한 한 참사위원은 만일 요한 크리소스토모가 유배된다면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설교를 할 것이며,

7. Dimenico Savio(1842-1857)는 피에몬테 출신으로, 사춘기에 살레시오수도회를 지원하여 그리스도교 완덕에 매진하였다.

8. Maria Goretti(1890-1902)는 마르케(Marche) 태생으로 아직 사춘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나이에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라치오(Lazio) 지방의 페리에레 디 네투노(Ferriere di Nottuno)에서 순교하였다.

9. Giovanni Crisostomo(347-407)는 콘스탄티노플의 주교, 동방 교회의 4대 교부 중 한 분으로, 성 바오로에 대한 위대한 주석가이다.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의를 다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열망이 더 생기를 찾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더 나아가 만일 여왕이 그를 사형에 처한다면, 그는 순교자의 화관을 받을 것이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처벌을 내렸습니까? “오직 죄를 두려워하는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형벌은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 형벌뿐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 197 왜냐하면 그는 죽음보다 죄를 더 두려워했으므로 그의 동의 없이는 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참된 두려움이 있습니까? 죄에 가까이 다가가고 죄 지을 기회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동료들과 자주 어울립니까? 많은 경우 불을 농담거리로 삼는 것처럼 죄를 농담거리로 삼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만일 송진이나 잉크를 만진다면 손이 더럽혀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죄를 두려워합니까?

유혹이 우리를 공격할 때 순결하신 어머니, 동정녀들의 동정녀 마리아께 화살기도를 드리고, 뜨겁고 신뢰에 찬 기도를 드려야 할 준비를 왜 갖추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과 걱정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와 같이 사악한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악과 진흙탕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느님께 상처를 입히거나 우리에게 위험한 것을 그 장소에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위험에 몸을 던지고 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통제해야 합니까? 그러한 상황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휴가 동안에 그대가 취한 행동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비록 죄를 찾아다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대가 죄를 줌 지었거나 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생각에 관하여, 뜻에 관하여, 기억에 관하여, 상상에 관하여,

감정에 관하여, 욕망에 관하여, 애정에 관하여 더욱 깊게 양심성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뱀이 이미 영혼 안에 숨어 들어 영혼을 물
198 었지만 그 사람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또 알아차린다 해도 | 혼란에 빠져서 적을 피하기 위한 수단들을 재빨리 활용하지 못합니다.

깊은 양심성찰은 교황께서 회칙 「거룩한 동정 *Sacra Virginitas*」¹⁰에서 말씀하신 바를 상기시킵니다. 곧 죄에 대한 두려움, 거룩한 수치심입니다. 교황께서 당신의 회칙 끝부분에 이르러 아주 길게 교회 박사들의 말과 성경의 말씀을 상기시키심으로써 아주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교황은 성령의 신탁이요,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협에서 보호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은 수치심과 더불어 드러납니다. 수치심 때문에 사람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위협에 직면했을 뿐인데도 얼굴을 붉힙니다.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는¹¹ 어떻게 처신했으며, 죄스러운 말을 듣기만 해도 정신을 잃었던 성 스타니슬라오 코스트카는¹²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성 요한 베르크만스는¹³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제일 먼저 죄를 피함으로써 성덕의 단계에 이르렀던 수많은 성인들은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죄와 은총은 함께 있을 수 없고, 악습과 성성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악습에 물들었다면, 성성의 산으로 오르지 못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러므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악마에 속하기를 원하거나 또는 하느님의 것이 되고, 지극히 거룩하신 우리의 어머니께 속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세상의 정신과 하느

10. 비오 12세, 회칙 *Sacra Virginitas*, 1954년 3월 25일, AAA 46(1954).

11. Luigi Gonzaga(1568-1591)는 만토바(Mantova) 태생으로, 예수회의 젊은 회원으로서 탁월한 봉사정신과 성성을 드러냈다.

12. Stanislaw Kostka(1550-1568)는 폴란드의 예수회 젊은 회원으로서, 성체성사 신심과 공동생활 준수에 탁월한 본보기가 되었다.

13. Giovanni Berchmans(1599-1621)는 벨기에 사람으로, 예수회 신학생이다. 공동생활 준수를 통한 성성에 두각을 나타냈다.

님의 정신 사이에는 심연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소유가 되기를 바라는 한편 악마와 장난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와 노는 사람은 하느님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하느님 편에 속하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 마귀와 즐기기를 바라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동시에 세속적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위험을 즐기는 자는 그 위험으로 망하리라.”¹⁴ 특정 경우에는 ‘죄를 피함 *fugiet*’ 외에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유혹들이 있지만, 어떤 유혹에 대해서는 교황님이 | 회칙에서 주지하
199 션듯이 피하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¹⁵ 모든 생각을 두려워하고, 도망쳐야 하고, 내몰아야 하고, 모든 기회를 피해야 합니다.

죄를 피하기 위하여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젊은 여성들이 수도회를 찾았고,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하느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들뿐 아니라 그리 젊지 않은 이들도 트라파Trappa(역주: 트라피스트의 시발지인 프랑스 노르망디의 라 트라파)를 찾아 들어가기를 청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트라피스트회¹⁶ 회원이 되기를 원합니까? 죄가 전 세계로 퍼졌으므로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그 분위기를) 호흡한다는 것을 잘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계하지 않는 반면, 그들은 영혼 구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엄격한 [수도회]에 들어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사명을 지니고 있는데, 이 사명은 때때로 우리를 큰 위협에 처하게 만듭니다. 늘 위험이

14. 집회 3,26 참조.(역주: 원문에는 집회 3,25로 되어 있음)

15. 비오 12세, *Sacra Virginitas*, n, 1038 참조.

16. 12세기 노르망디(프랑스)에서 일어난 개혁 시토회이다. 트라파라는 이름은 첫 수도원인 노트르담 드 라 트라파(Notre Dame de La Trappa)의 명칭에서 따온 것이다.

도사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 위협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우리에게 위협 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우리는 해야 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께 기도드리며 그분의 눈길 아래에서 지나간 삶의 잘못을 찾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참된 공포, 잘못에 대한 두려움, 위협에 대한 미움, 죄에 대한 두려움을 찾기 위하여 양심성찰을 합시다. 그런 다음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할 근거가 확실하므로, 주님께 용서를 청합시다.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더 밝은 빛을 받아 죄와 맞서 싸워야 할 더 큰 의무를 느끼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도우심, 은총, 마리아의 보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 있기에 한 순간도 멀어지지 않게 하소서 Succurre cadenti!”¹⁷라고 마리아께 말씀드립니다. 천상 스승의 말씀에서 제안된 내용을 결심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네 오른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¹⁸ 천상 스승께서는 ‘만일 어떤 것이 너에게 눈처럼, 손처럼 소중한데라도 너에게 악의 기회가 된다면 그것을 떼어내어라.’ 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기 위해서는 모든 희생, 그 어떠한 희생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은 순교자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미 어떤 형벌,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행했습니다. “그대는 영혼을 위하여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¹⁹ 불행하게도 우리는 악과 밀착

되어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만연한 악의 공기를 호흡하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일종의 습관을 들이게 하고, 더는 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큰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어찌면 가장 위중한 위협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에서, 그리고 우리 얼굴에서 백합, 곧 순결을 보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들 중 하나인 거룩한 수치심을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 마리아 따름 노래 ‘Alma Redemptoris Mater’(구세주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 “넘어지는 당신 백성 도와 일으켜 세우소서.”

18. 마태 5,29-30.

19. 집회 4,33 참조: “네 영혼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싸워라.”(불가타) (역주: 집회

4,33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용구절을 찾을 수 없어서 내용만 번역하였음)

32. 양심성찰¹

[영신수련으로] 한 해를 마감할 때 우리에게 두 가지 느낌을 갖게 합니다. 1) 수없이 베풀어주신 많은 은총에 대하여 하느님께 드리는 사랑에 찬 감사의 정情. 지성을 비추어 지성의 성화를 이루게 하는 은총, 마음에 영감을 불러일으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가시켜 주는 은총, 의지에 용기를 가져다줌으로써 사랑과 더불어,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지상에서 우리의 직무,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게 하는 은총에 대한 하느님을 향한 감사의 정情. 2) 지나가는 삶에서 매일 공덕을 쌓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직 이러한 것만 남습니다. 죽음이 닥쳐 오면 지상에는 무덤만 남지만, “저에게 남은 것은 무덤뿐 *Mihi superest sepulcrum*”,² 주님을 사랑한 영혼에게는 천국이 남아 있고, 하느님에 관한 모든 것이 남습니다. 육신의 사슬에서 벗어난 영혼은 자기 사랑의 대상인 하느님을 향해 날아오릅니다. 영혼은 온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향해 매진하며, 지상에서 열성을 다한 만큼 높이 날아오릅니다. 수도자들의 큰 적인 냉랭함을 두려워해야 하고, 미지근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음이 온통 하느님의 것이 될 때 영혼, 지성과 의지는 완전히 하느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대신에 정신에 대한 열정, 존재에 대한 열정이 넘칩니다.

여러분은 성성으로 부르심 받았기에, 충분한 은총을 받았다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받은 새로운 은총은 새로운 시험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은총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

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은총으로 여길 줄 모릅니다. | 202
우리가 어떤 형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불운으로 여깁니다. 이것은 우리의 눈이 멀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더 큰 성덕에 이르도록, 그리고 연옥의 형벌도 감면받도록 하느님의 자비가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래를 향하여 생각을 돌려야 합니다. 곧 우리는 새해를 조직해야 합니다. 지난 해의 경험에 따라 프로그램을 짜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는 양심성찰에 관하여 숙고해봅시다. 어제는 특히 미래를 위한 발전에 관하여 [성찰했는데], 이제 과거에 대한 양심성찰에 관하여 성찰해봅시다.

무엇보다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1) 선한 의지가 있었는가? 2) 좋은 신심이 있었는가? 한편으로는 선한 의지, 다른 한편으로 좋은 신심은 열차가 달릴 수 있는, 우리 삶의 기차가 달릴 수 있는 두 바퀴를 구성합니다. 우리는 선한 의지와 좋은 신심이 있는 만큼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약할 때, 신심이 깊지 않을 때 진보할 수 없습니다.

1. 그렇다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곧 선한 의지가 있었는지? 혹시 의지가 아니라 단순하게 “하고 싶은 원의” 정도였는지? 혹시 나쁜 의지가 있어서 똑같은 잘못을 계속 범하고, 진정한 통회와 확고한 결심 없이 입술에 꽃만 피우는 격으로 고백성사를 [해치우기로] 한 것인지?

2. 좋은 신심이 있었는지? 하느님에 대한, 그분의 은총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가 하느님의 도우심을 숨 쉬게 될 때 좋은 신심을 갖게 됩니다. 덮어두던 과거에 대해서 성찰해야 하고, 미래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필요성과 주님께 다

1. 1955년 9월 10일, 로마에서 대피정 동안 행한 묵상. 이 대피정에 대해 알려진 다른 정보는 없다.

2. 욕 17,1 참조.

음과 같은 도우심을 청할 필요성을 느끼니까? “하느님, 어서 오사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Deus in adiutorium meum intende;

203 Domine, ad adiuvandum me festina!”³ 이 | 시편 기도는 거룩한 교부들이 유희의 순간에 많이 사용하던 화살기도입니다.

좋은 신심은 하루 중에 하느님에 대하여 자주 상기시켜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님을 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대한 굶주림, 하느님께 대한 목마름, 그분의 은총에 대한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한 상태입니다. 일과중에 적어도 몇 차례 예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도록 정해야 하고, 아침 목상을 떠올려야 하며, 영적으로 영성체를 되풀이해야 합니다. 좋은 신심은 우리가 정확하게 신심실천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곧 일상의 실천사항, 주간 실천사항, 월중 실천사항, 연중 실천사항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신심은 우리에게 완덕에 대한 열망, 하느님과 일치할 이루기 위한 열망으로 이끌어주며, 성성으로 인도하고, 하늘에 계신 하느님을 관상하기 위해 고양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주님을 유일한 최고의 선으로 여기며, 수도서원 때에 우리가 선택한 유일한 사랑을 바라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아, 거룩한 열망에 대해, 천국에 대해 우리를 불태웁시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Cupio dissolvi et esse cum Christo.”⁴ 자, 이것이 성 바오로의 사랑입니다. 곧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과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늘 일치되어 있으려는 열망입니다.

참된 신심은 부드러움입니다. 무미건조함을 느낄 때에도, 비록 주님께서 영혼을 지켜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영혼이 여전히 하

3. 시편 70,2.

4. 필리 1,23.

느님과 함께 있는 부드러움입니다. 영혼은 하느님을 바라보고, 감시를 바라봅니다. 바로 여기에 참된 신심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심은 하느님을 향한 사랑, 신앙, 충실이 계속 성장하는 반면 잘못에 대한 정화 [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들인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혼인 예복 위에 얼룩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얼룩의 흔적을 없애버리고, 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옷을 다시 깨끗이 하십시오. 신앙과 열정을 가지고 영성체에 임하십시오. | 특히 프로파간 204 다를 갔을 때나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옷에 생길 수 있는 얼룩을 깨끗이 지워야 하지만, 흰 옷, 영혼의 혼인 예복도 깨끗이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느끼니까? 그분의 소유가 되는 기쁨을 느끼니까? 참된 신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는 기도를 단순하게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신심실천에 충실하지만 참된 신심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화되고, 하늘의 신량이 좋아하며 받아주기를 열망합니까? 때때로 묵상 중이나 또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서 하는 성체조배 때에 예수님께서 영혼에게 특별한 매력을 보이시고, 그 영혼은 예수님께 사로잡혀 있음을 느끼며, 그분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고 느끼며, 일치되었음을 느끼며,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 주입된 이러한 내적인 영에 복종해야 하고, 혹시 주어진 규칙에서 벗어나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심이 참되다는 확신은 이러한 것입니다. 곧 늘 일상적인 의무에 충실할 때입니다. 예수님과 일치, 우리 안에 계신 하느님 현존에 대한 느낌이 우리로 하여금 일상적인 의무, 사도직, 공동체 생활, 수도서원과 회헌 준수에 투철할 때, 우리를 이러한 일에 헌신하도록 이끌 때 좋은 신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른 것들은 환상입니다. 빛을 받은 영혼은 여정을 잘 걸어나가는 영혼입니다.

양심성찰의 다른 사항에 이르게 되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지난 해에 기록한 결심 내용을 다시 읽어야 하고, 여러분이 결심한 바를 다시 생각해야 하며, 지성, 의지, 마음으로 이해한 그 결심이 잘 지켜졌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지성, 의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온 존재를 통하여 사랑하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205 결심에 관해 성찰해야 하며 | 고해성사 때 받은 주의사항에 관해 성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해사제는 오랜 기간 그를 잘 알고 지냈으며, 또는 얼마 되지 않았을지라도 전적으로 영혼을 활짝 열었기에 그 영혼에게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경고 사항이 비록 두 마디로 요약되었지만, 넓은 의미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특히 대피정 중 여러분이 마에스트로의 말을 듣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기회를 가지게 될 때 외적인 경고 사항이 주어집니다. 때때로 하느님을 향해 매진하기 위해서 적절한 어떤 [작은] 사항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작은 새의 날개에 묶인 줄이 그 새를 날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고, 때때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정녕 끊어야 할 하나의 줄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어떤 사항에 관해 극복했다면 끝없는 재앙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우리를 바닥으로 이끌었던 결점이 근본적인 것이라면 그 결점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영혼은 주님을 향해 투신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연적인 의무들, 그리스도인의 의무들, 바오로 수도자의 의무들에 관하여 성찰해야 합니다.

자연적인 의무사항들은 진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결코 위선과 거짓말, 속임수가 없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은 어리석은 생각이나

사랑에 위배되는 판단, 우리에게 속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 무익한 생각, 천박한 행동, 어리석은 짓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지성의 성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성은 종종 환상과 연결되어 있고, 환상과 생각 사이에 해로운 것이 아니라 해도 무익한 것이 스며듭니다. 때때로 어떤 환상, 어떤 행동에 지배되어 몇 달을 지낼 수 있습니다. 지성을 성화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의무와 수도자의 의무 중 첫째가는 의무입니다. 생생한 신앙, 종말실재에 대한 생각을 [가꾸어야 합니다.] 면학에서, 사도직에서 지성을 성화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정직의 의무입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은 제6계명, 곧 정결과 섬세함으로, 세례성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이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오류들이 있겠지만 누군가 | 수도서원을 [한] 이후에 정결에 206 대한 잘못을 범했다면 이중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사람도 정결을 거스르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의무에 대해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섬세한 사랑에 투신하기를 바라며 수단을 연구하고 참고서를 찾고, 자신들에게 맞는 고해사제를 찾기 위해 작은 등불을 들고 길을 나서지만, 나중에 사랑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첫째 계명을 위반하고, 히브리인과 세례성사를 받지 않은 사람도 지켜야 할 의무인 제6계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제7계명, 제8계명, 제4계명, 자연법에 관한 모든 계명은 그리스도인 의무와 수도자의 의무 중에서 가장 중대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계명들에 관해 성찰해야 하고, 이 계명들에 대해 먼저 우리의 생각을 성찰해야 합니다.

정의를 거슬러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때때로 모든 선을 위한 목표로, 섬세한 양심을 형성한다면 정작 정의를 거스르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아주 기이한 논리들이 있습니다! 논리를 잘 사용하는 아주

순수한 지성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선한 것은 선한 것이요, 의로운 것은 의로움이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이 라고 믿는 논리와 변명을 늘어놓으며 정의를 덮어두려는 환상을 만들지 마시다. 정의롭지 못하도록 우리를 강요하는 가족을 위한 의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수도회를 위한 의무도 없습니다. 불의를 요구하는 의무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의 명예, 명성을 존중해야 하고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연법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수녀들은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자연적인 의무를 말할 때 우리는 계명이 무엇을 허용 207 하고 무엇을 금하는지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긍정적인 측면이 부족하다 해도 모든 자연법이 계명입니다.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다시 말해서 세밀한 조항을 찾고자 몰두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항은 놓치고 마는 착각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세 가지로서 1)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2)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입니다. 3)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곧 생생한 신앙으로 믿어야 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겸손과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수도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양심성찰을 잘 하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수도자의 의무는 곧 공동체 생활, 청빈, 정결, 순명, 사도직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은 양심성찰에서 머물러야 할 스케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마가 우리를 어떤 사항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이끌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마귀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고 악으로 인도하며 우리의 눈을 감게 하는 기본적인 결점이

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합시다. 하느님의 빛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합시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시면 나는 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나쁜 나무를 없애야 한다면 그것을 뽑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종양처럼 뿌리내리도록 놓아둘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뽑아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양심성찰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많이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죄가 없는 곳에 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 죄가 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33. 우리의 영적 어머니 마리아¹

여러분은 9일기도를 마쳤고, 그런 다음 축일을 지냈으며, 오늘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8부 축제를 마쳤습니다. 성탄 때에 우리에게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셨기에 마리아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잘 알도록, 그분을 더 사랑하고 그분께 복종하도록,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모범을 본받고 그분을 향해 진지하며 깊은 신심을 지속적으로 지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마리아께서 우리의 영적 어머니이시라는 점에 머물러 봅시다.

교황 비오 12세께서는 회칙 「하느님의 중개자 *Mediator Dei*」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주신 것처럼, 그분은 머리이신 예수님과 일치해 있는 모든 지체의 영적 어머니가 되셨습니다.”² 다시 말해서 그분은 은총 중에 사는 모든 이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라고 전통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신자들의 마음에 아주 소중한 진리인 동시에 특별한 정의(定義)가 필요 없는 믿어야 할 보편적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들에게 신앙의 교의인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성 요한에서 시작하여 계속 어머니로 불리셨습니다. 성 요한은 예수님의 중요한 증언을 들으셨습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³

그렇지만 우리가 마리아께 드리는 이 호칭에 관한 신학적 견해가 어

1. 1955년 12월 5일, 로마에 있는 사도의 모후 성당의 지하 경당에서 바오로 가족을 대상으로 행한 묵상.

2. 비오 12세의 전례에 관한 회칙 「하느님의 중개자 *Mediator Dei*」, 1947년 11월 20일, AAS 39(1947), pp. 521-600, in *Enchiridion delle encicliche*, vol 6, EDB, 1995, n. 592 참조.

3. 요한 19,27.

떠한 것인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 예수님께 209서 십자가 위에서 성 요한의 인격 안에 성모님을 모든 추종자의 어머니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양모(養母)가 되셨다고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머니로 선포되셨지만, 그분의 모성은 훨씬 더 심오한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마리아께서 지상의 여느 어머니의 사랑에 비교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에서 형이상학적 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학적 견해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이 시기 동안 우리는 ‘성무일도’ 아침기도의 찬가를 계속 되풀이하여 바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 받은 이들아, 동정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환호하며 찬미하세 *Vitam datam per Virginem, gentes redemptae plaudite!*”⁴ 다시 말해서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초자연적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적 견해는 마리아께서는 우리 영혼의 외형인 육신을 주신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의 [지상] 어머니와 똑같은 방식으로 어머니가 되신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심오합니다. 곧 우리는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곧 예수님]을 소유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근거가 확실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도록 선택되었다고 선포하였을 때,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전적인 동의, 빛을 받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동의의 의미를 아셨으며, 무엇을 허용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셨습니다. 이제 그 동의에서 우리는 초자연적 생명으로 가는 통로를 갖게 되었으며, 그 ‘피앗 *fiat*’이 우리 구원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원죄 때문에 자신의 초자연적 생명을 잃었으나 마리아께서 당

4. 성무일도 대립시기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 공통 찬가 참조.

신의 동의, 자유로운 동의로써 이 세상에, 세상 전체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210 진정 우리는 특히 세례성사에서 | 이 생명을 받고, 또 마리아의 손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총을 받습니다. 세례 받은 모든 이들은 초자연적 생명을 받고 또 그것을 마리아의 손길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세례성사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마리아의 자녀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타에서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로 선포하셨으므로 세상 앞에서 이 신비를 완성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진정 존경스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첫 번째로 구원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은총이 주어졌는데 마리아께서는 폭넓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당신 손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모든 이에게 은총을 분배하시는 분처럼 되신 것입니다.

은총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ㄱ) 우선 먼저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시고, 모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십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아시는 것은 지상에 대한 직관과 당신께서 누리시는 하느님 직관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ㄴ) 두 번째로,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의 성심을 닮은 자비로운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연민을 느끼십니다.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인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제 겨우 빛을 향해 눈을 뜨기 시작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느님 곁에서 그분은 당신 기도를 통하여 절대적 힘을 가지시며 탄원하는 힘을 가지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기꺼워하시는 것을 청한다면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께 청하는 어떤 은총이라도 들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간청은 그분의 중재를 통하여 허

락됩니다. 그 결과로 어떤 것이 따릅니까?

1) 이처럼 위대하신 어머니, 이처럼 자비가 넘치신 어머니, 이처럼 하느님 곁에서 막강한 힘을 지니신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각자는 | 자신의 이름을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 211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붙일 수 있습니다.

2) 마리아께 큰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그분께 필요한 모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영적인 필요성이 있는데 이러한 필요성은 우리 기도의 첫 번째 대상입니다. 곧 성성을 청해야 합니다. 저녁에 바치는 “저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소서.”⁵라는 코론치나는 우리가 간청하는 내용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심성찰을 잘 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서 성체조배를 잘 하고, 묵상에서 늘 결실을 얻으며, 영성체와 고해성사에서 큰 결실을 얻을 수 있기를 청하고, 우리의 정화와 그리고 덕성을 위해, 특히 수도자의 덕성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마리아께 면학을 부탁드립니다. 책상에 마리아의 상본을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불확실한 순간과 어려운 순간에 그분께 ‘사도의 모후여 Regina Apostolorum, 상지의 옥좌여 Sedes Sapientiae, ...’라고 간구하는 습관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결심을 세울 때 마리아께서 우리를 굽어보시고, 우리의 지성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의 설명을 잘 알아듣고, 우리의 정신, 우리의 기억이 가르침 받은 내용과 우리가 책에서 이해한 내용을 잘 새기도록 그분께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사도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십니다. 마리아

5. 코론치나: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님! 저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소서.”라는 코론치나는 성 주세페 베네딕토 코톨렌고(1786-1842)에게 기원을 둔 것으로, 알베리오네 신부가 도입하여 바오로 가족에게 권장하였다. 바오로 가족 기도서 38쪽.

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면에서 마리아를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신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구원은 마리아를 통하여 적용됩니다. 편집자들이 빛을 받을 수 있기를, 펜을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Opus fac evangelistae.”⁶ 기술자들, 곧 인쇄 분야와 영화에 관련된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이들이 잘 인도되고 지탱되기를 바랍니다. 악은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 있기에, | 선은 더 큰 권리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더 큰 권리로 사용해야 할 뿐 아니라 의무를 통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양성과 수도자 양성을 위하여 마리아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목상의 결실을 간직할 줄 아는 영혼들, 일상의 의무에 충실한 사람들은 높은 차원의 사고로 시간을 잘 활용합니다. 이러한 영혼들은 참되게 자신의 성소에 대한 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양성이 요청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마음을 집중하여 목상할 수 있도록 잘 돌보아야 합니다. 아주 먼 나라에 있는 우리의 훌륭한 사제들 가운데 한 분이 강론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화 중에, 레크리에이션 중에, 가장 필요한 영적인 일에 관해 계속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의 담화가 특히 사도직에 관해, 양성에 관해, 면학에 관해, 그리고 특히 우리의 사명에 관해 전개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열빠진 사람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또한 자기 길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다른 여행자에 대해 신경을 쓰지만 자기의 발은 어디를 디뎌야 할지 모르며, 그 길이 정말 좋은 길인지, 충분히 잘 가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관심이 다른 외적인 것에 머물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머물

6. 2티모 4,5 참조.

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책임 아래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쏠릴 때 우리는 진보할 수 없습니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Attende tibi!”⁷ 우리에게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집중하게 하십니다.

이제 신뢰를 가지고 우리의 천상 어머니께 향합시다. 우리는 목상에서 어떤 결심을 합니까? 모든 필요한 것에 있어서 어린아이처럼 늘 “엄마!”...하며 마리아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 하늘의 엄마를 불러야 하며,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그분을 불러야 하고, 일상 중에 자주 불러야 하고, 특히 저녁에 잠들기 전에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찬가인 ‘마니피캇’을 천국에서 마리아와 함께 부를 수 있는, 또 “당신을 불러본 후에 죽을 수 있기를”⁸ 바라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총을 누릴 것입니다.

7. 1티모 4,16.

8. 대중적인 마리아 노래인 ‘오 마리아, 그 얼마나 감미로운 사랑이신지, 당신께 문안 드리며 나는 느끼네...’의 마지막 구절.

여러 가지 묵상

제2부에 수록된 강론들의 원본은 “여러 가지 묵상”이라고 이름 붙인 것으로 타자본, 등사본, 예를 들어 16절판 소책자 인쇄본 등으로 되어 있다. 원본에 나온 날짜에 따라 연대순으로 정리하였고,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것은 문맥에 따라 유추하였다. 이 강론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한 것이다. 브라질에서 16차례, 포르투갈에서 2차례, 미국에서 3차례, 캐나다에서 3차례, 콜롬비아에서 2차례 강론을 했고, 다른 강론들은 이탈리아에서 한 것이다. 일부 강론은 피정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일부 묵상 원본에는 대피정이라고 지칭되어 있다. 날짜 표기가 빠져 있을 때마다 대피정의 한 코스에 속하는지 여러 코스에 속하는지 확정할 수 없었기에 “여러 가지 묵상” 안에 구별 없이 한데 모으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겼다. 예를 들어 브라질에서는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1955년에 대피정을 한 차례 이상 지도하신 것으로 보인다.

일부 강론은 자기磁氣테이프에 녹음된 것에서 옮긴 것이다. 이 강론들이 원본에 충실하게 출간되도록 편집자들은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오페라 오니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더 세심한 주의를 필요했다. 녹음 내용을 해독하기가 어려울 때에는 녹취록에 ‘빈칸’을 남겨두었다. 텍스트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꺾쇠 괄호와 구두점 [...] 으로 표기하였고, ‘원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는 각주를 달면서 이해 가능한 몇 마디 말을 삽입하였다. 예를 들어, ‘묵상 nn. 8, 10, 26, 27을 보라.’고 지시하였다.

성소자에 대한 문제와 그들에 대한 양성은 알베리오네 신부의 강론에 늘 등장하는 주제였다. 이 때문에 특히 묵상 n.6과 n.10에서는 “...묵주기도를 통하여 또는 적어도 ‘성모송 세 번’을 바침으로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도처에 스며들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라며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권고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개인적 교육학적 설명이 중요하다. “나는 세 번의 ‘성모송’을 암송함으로써 많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성소를 의심하는 사람이나, 성소를 따르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습니다. ‘세 번의 ‘성모송’을 종신서원에 이르기까지 아침과 저녁에 바치십시오. …’ 아주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성모님이 몸소 붙잡아주시고 동반해주십니다. …”(n.10)

묵상 “11번 전적으로 예수님을 살 것”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사항들에 관하여 강조하였다. 협력자, 지성의 선용 등에 관하여, 그리고 이러한 주제로 자주 돌아오곤 하였다. 이 주제는 묵상 nn. 12, 17, 26, 28에서도 다시 채택되었다.

가끔 사도직 책임, 사도직 적용에 관해 아주 강한 표현들을 사용하였다. “...여러분이 수백만 리라를 가져오더라도 그다음에 사도직에서 힘을 뺏다면 ... 여러분의 수백만 리라를 가지고 떠나십시오. ...” “건강에 따라 ...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 지성, 힘을 사도직에 쏟아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주기 전에 있는 그대로를 주어야 합니다.(nn. 2, 14, 21, 25)

사도직은 장사가 아닙니다. ...아주 높은 영성이 요청되고, 아주 내밀한 내적 삶이 요청됩니다. 특히 영화 사도직이 ... (nn. 9, 31)

창립자께서 바오로적 삶의 여정 중에 있는 이, 또는 훨씬 앞서 나간 이에게 제안하셨고, 온 힘을 다해 통찰하셨으며, 일구어나갔던 주제들은 곧 천국을 향한 마음의 눈길로써(n. 30), 성 바오로의 보편적인 시각 안에서(n. 29), 진보, 신뢰, 그리고 늘 “배워라.”(nn. 24, 26, 28)라는 주제들이다.

1. 스승 예수님께 대한 신심¹

「준주성범-그리스도를 본받아*Imitazione di Cristo*」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덕행에 열심하고 진지한 사람이 더 빨리 진보할 것이다 *Tantum proficies, 1 quantum tibi ipsi vim intuleris.*”² 이것은 성화를 위해서 단호한 결심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께에서 용기의 은총, 용기의 덕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상 스승께 봉헌된 금년 또한 이러한 목표를 향해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³

천상 스승께 봉헌된 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해 동안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노력하고, 스승 예수님께 기도하고, 사랑하기 위해 노력하고, 천상 스승을 더 가까이에서 본받도록 노력하고, 천상 스승을 사랑하고, 그분을 널리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각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다고 느껴야 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스승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1. 스승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온 정신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분이십니다. 지성은 마치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우리 안에 밝히신 빛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

1. 1955년 2월 25일, 로마에서 행한 묵상. 두꺼운 종이(성 바오로 영화사(Sampaolo-film) 포스터)에 6장으로 된(17.5 x 26.8) 타자본.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은 자기테이프의 녹취록일 가능성이 크다. 대피정 코스의 유일한 묵상.

2. 「준주성범」 1권 25장 4항 참조.

3. 바오로 가족의 제안들을 수렴하여 프리모 마에스트로가 1955년 주님 공헌 대축일부터 1956년 주님 공헌 대축일까지 한 해를 천상 스승께 봉헌하도록 초대하셨다. RA 2 (1955) 1-3 참조.

다Illuminat omnem hominem venientem in hunc mundum.”⁴ 이성의 빛이요, 지성의 빛입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은 세례성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앙의 선물을 부어주셨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지만, 하느님의 아드님이 계시하셨고, 교회를 통하여 믿도록 제안하셨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신 분을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지성입니다.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Inspiravit in faciem eius spiraculum vitae.”⁵

가장 큰 선물이 지성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그분께 드리는 예배에 우리 지성의 힘을 쏟아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합니까? 우리의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하느님의 아드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주신 진리를 믿고자 우리의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지성의 예배rationabile obsequium”⁶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바를 더 잘 묵상해야 합니다. 곧 스승이 여럿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십니다. 누구시겠습니까?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참된 스승이십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분에 관해 무엇인가를 줄 수 있지만, 그분께서는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어떤 대학도, 모든 대학이 다 합쳐도 줄 수 없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스승이십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식과 거기에 이르기 위한 수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이러한 지혜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사람

4. 요한 1,9(불가타).

5. 창세 2,7.

6. 로마 12,1 참조: “합당한 예배”.

보다 그분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이 더 많은 공덕을 쌓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신적 지식이 모든 이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경청하는 사람은 구원되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멸망하여 고통을 받기 때문에 이 신적 지식은 필요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Qui crediderit salvus erit, qui non crediderit damnabitur.”⁷

게다가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한편, 우리의 내면을 비추시고, 신앙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당신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믿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도움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스승들은 우선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듣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주는 이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승은 한 분뿐이시며, 인간들을 가르치러 오신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주님께서서는 오래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Novissime vero locutus est nobis in Filio.”⁸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천상 스승께 어떻게 경의를 표해야 합니까? 종교에 관한 사항들을 가르치는 것, 곧 교리입니다. 교리를 중요시해야 하고, 배워야 할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교리는 교회가 제시한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더 쉽게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질문과 대답, 대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분원에서 매주 그리고 주간에 시간을 정하여 그러한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읽어야 합니다. 때때로 성체방문 때, 영적 독서 때, 그리고 다른 기회에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호기심에서 읽을 것이 아니라,

7. 마르 16,16.

8. 히브 1,2.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그리고 그분께서 가르치신 것을 배우기 위하여 읽어야 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서 신앙의 성장을, '신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복음에 나오는 진리에 대한 신앙의 증가도 청해야 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또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⁹

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복음에서 특히 사랑에 관하여, 겸손에 관하여, 그리고 순명에 관하여 무수히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믿어야 합니다! 만일 삼위일체 신비와 성체성사의 신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을 굽히는 반면에,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감동시키며 실천해야 할 노력을 요청하는 복음 말씀들은 믿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¹⁰는 말씀도 믿기 어렵지만,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¹¹라는 말씀은 더 어렵지만 믿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뿐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하여, 모든 영혼

9. 참조: 마태 5,3-5. 39; 7,4-5.

10. 마태 16,24.

11. 요한 6,51,55.

을 위하여 신앙이 굳세어지기를 청해야 합니다. 전례 사도직, 영화 사도직, 출판 사도직, 모든 사도직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예배입니다! 복음의 날은 스승 예수님께 얼마나 아름다운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까! 그와 같이 인간의 그리스도교 양성과 영적 양성에 관한 모든 것을 통하여, 그리고 신분의 여러 가지 의무를 통하여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선적으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진리이다."¹²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신교 신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보십시오. 이들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 다시 말해서 교회의 생각에 따르지 않는 성경을 대중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는지 보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성바오로수도회가 탄생하기 훨씬 이전에, 복음의 보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제일 처음 우리가 성경을 보급한 때는 우리가 신학생이던 1902년이었다고¹³ 기억합니다.

2. 천상 스승께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¹⁴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두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곧 기도의 정신과 주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기도의 정신. 모든 자매가 이 신심을 실천하고 있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느끼시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에

12. 요한 14,6.

13. 복음을 보급하려는 열망은 신학생이었을 때부터 알베리오네 신부 안에 매우 강렬하게 일어났다. AD n. 145; Rolfo L., 「알베리오네 신부-전기 개요 *Don Alberione - Appunti per una biografia*」, Edizioni Paoline, Alba 1974, pp.55-57 참조.(역주: AD 145에는 1903년으로 나눔)

14. 마태 22,37 참조.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죄 없는 이들을 위한, 어린아이들을 위한, 죄인들을 위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무지한 이들을 위한, 불충한 이들을 위한, 모든 영혼을 위한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느낌을 지녀야 하고, 그분과 같은 열망을 지녀야 합니다. 곧 아버지께서 알려지셔야 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¹⁵ 예수님이 느끼시는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곧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영광과 존경과 사랑에 대해 매번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감정을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감정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마음, 냉담하거나 무관심하지 않은 관대한 마음, 무디지 않은 온유한 마음, 혼란하지 않은 경건한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자애(自愛)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수도복을 입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수도생활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감정을 지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청빈을 사랑하셨고,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사시려 노력하셨으며, 당신의 추종자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권고하셨습니다. 희생자 예수님의 마음, 가장 순수한 마음, 곧 초자연적인 애정을 지니신 그분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성, 정신 … 등에 지배되지 않는 자연적인 애정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뜻에 집착하는 것에서부터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집착은 들은 내용을 이해하도록 놓아두지 않고, 그것을 사랑하지 않게 만듭니다. 착한 마음을 지닙시다! 예수님과 친밀함에 들어가야 합니다.

15. 마태 6,9-10.

수도원에 있을 때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곧 이 수도원에는 감실이 있고, 그 감실 안에는 당신 마음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그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 우리 마음을, 우리 감정을, 우리 염원을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감정으로, 당신의 염원으로, 당신의 열망으로 바꾸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께 의지해야 하고,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 용서를 청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은총을 청할 때 예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늘 예수님께 기대야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Per Christum Dominum nostrum.’

그러므로 금년에는 예수님과 더 긴밀하게 살아야 합니다. 더욱 아름다운 친구를 이루어야 합니다. 삶을 부드럽게 만드는, 자매들 간의 그 사랑에 도달해야 합니다. 선함, 그렇습니다, 선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한 상태에 도달하였습니까? 때때로 오해받는 일이 생기지만, 참으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무관심과 적대적 감정이 생기지만, 진정으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극복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매들 사이의 사랑과 겸손의 실천적인 훈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회헌의 두 장(章)을 읽어야 합니다.¹⁶

사순시기는 우리로 하여금 극기에 박차를 가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당신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로 자매들을 사랑합니까? 조금 불쾌한 점을 넘어가는 등, 희생을 좀 할 줄 압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합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

16. 「성바로말수도회 회헌」 1953년판, 163-175조 참조.

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¹⁷ 이러한 점에서 참된 성바오로딸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곧 성 바오로의 사랑을 지녔는지, 예수 성심의 사랑을 지녔는지!

3. 우리의 삶을 잘 성화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승을 더 많이 본받아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까? 각자 자기 성찰을 하고 있다면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네 가지 특별사항에 있어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곧 청빈 정신에서, 섬세한 양심에서, 순명에서, 공동생활에서.

ㄱ) 예수님의 청빈 정신이 어떠하셨습니까? 그분께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신 순간, 구유에 계시던 순간을 관상해야 합니다. 어떠한 청빈입니까! 나자렛 집에 계시던 그분, 아주 가난한 집에서 힘든 일을 하시던 그분을 관상해야 합니다. 사랑을 사셨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며 공동생활에 임하시던 그분을 관상해야 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숨을 거두신 후에도 십자가 위에 계시던 그분을, 묻히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그 무덤에 안치되시는 그분을 관상해야 합니다. 청빈을 사랑해야 합니다. 청빈은 외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곧 수도원(공동체)에서, 수도복에서, 음식에서 드러나야 하지만, 무엇보다 지상사물에서 이탈해야 합니다. 이 지상사물들은 우리가 공덕을 쌓기 위하여 그리고 사도직을 위하여 유일한 수단들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결박하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ㄴ) 그다음으로 양심이 섬세해야 합니다. 정결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곧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환상을 [극기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마리아를 닮아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선택받았고, 동정의

삶에 부르심 받았고, 신분의 은총, 수도자 신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ㄷ) 그뿐 아니라 순명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명령을 잘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을 언제든 찾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은 예수님처럼 경청하고 순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신성과 성덕에 있어서 당신과는 차원이 다른 마리아와 성 요셉에게 순종하셨습니다.

ㄹ) 마지막으로 공동생활에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립되어 사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가정에서 사셨고, 당신의 공동생활 동안에는 사도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셨습니다. 공동생활은 많은 희생을 수반합니다. 드물게 생기는 하지만 우리는 큰돈을 바라지 않는다 해도 적은 돈, 아주 적은 금액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적은 돈이 함께 모여 수백만 리라가 됩니다. 빗방울, 물방울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모든 방울은 그 자체로 정말 소량이지만, 그 방울들이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고, 대양을 이룹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한 우리의 공덕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모든 작은 기회들, 모든 작은 순간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천상 스승께 봉헌된 이 해를 성화시켜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매일 복음에 관해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의 복음은 매일 한 부분을 할애하지만, 묵상자료를 얻기 위해서 매일 두 부분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고해성사를 보고, 더 나은 영성체를 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서 조배를 잘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큰 은총을 받고 천상 스승을 기리는 한 해를 거룩하게 성화시킨다면 신앙이 굳세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성장하고 덕과 은총과 공덕이 자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스스로 일러주신 스승이라는 칭호를 대단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바올리나의 삶을 훨씬 쉽게 살아갈 수 있

17. 요한 13,35.

을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는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¹⁸ 당신께서 이러한 호칭으로 불리기를 원하셨기에, 우리가 당연하게 그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존경하면 우리 안에 은총과 성성이 자라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원으로 돌아가면서 이러한 좋은 결심을 가지고 갑시다. 곧 금년은 참으로 천상 스승을 알고, 사랑하고, 본받고, 열성을 다하기 위하여 봉헌한 해입니다.

2. 선함과 사도직¹

스승 예수님께 봉헌된 해에² 사순시기를 합당하게 보내기 위해 어떤 보속을 해야 합니까? 사랑의 결실인 선을 실천하는 보속입니다. 복음에서 천상 스승께서 하신 말씀의 장면을 떠올려봅시다. “그는 올바름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니!”³ 다시 말해서 불이 꺼져가고 있지만 모든 이를 격려할 줄 알았으며, 또 비록 선한 의지의 단순한 불티에 불과하더라도 그 불티가 언젠가 불타는 불꽃이 되어 선과 사랑의 불을 지필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보속을 해야 합니까? 선함에 있어서 천상 스승을 닮아야 합니다.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선함은 사랑의 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께 대한 초자연적 사랑, 인간 영혼에 대한, 자매들에 대한, 인간들에 대한 초자연적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분원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사이에 상호 초자연적 사랑은 특히 성 바오로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필

1. 1955년 3월 2일 [로마에서] 행한 묵상. 두꺼운 종이, 성 바오로 영화사(Sampolofilm) 포스터 8장으로 된(17.5 x 22) 타자원고. 스페찰레 신부의 역사 기록에 따르면(1955년, p. 1763), 아침에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안토니노 피오에 있는 공동체를 대상으로 묵상 강의를 하였다. 오후에는 그로타페라타로 가서 성바오로말수도회를 대상으로 두 차례의 묵상과 피정 강론을 하였다. 여기서 비슷한 주제를 다루었다. 에피파니아 마라가(Epifania Maraga, 1919-2007) 수녀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묵상은 그로타페라타의 피정 강론을 손질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쓴 종이를 첨부하였다. “이 세 가지 묵상은 아주 많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원문을 봐야 한다.” 그 대신에 세 차례의 묵상을 각기 다른 것으로 구별하는 조사에 따르면, 한 차례는 로마에서 아침에 행한 묵상이고, 두 차례의 묵상은 오후에 그로타페라타에서 한 것이다. 이후 타자본의 편집자가 “선함과 사도직”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2. “여러 가지 묵상” n. 1, 각주 3 참조. (역주: 원본에는 각주 2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 각주 3이 맞다)

3. 마태 12,20.

18. 요한 13,13.

요합니다. 그 까닭은 성 바오로께서 애덕의 위대한 스승, 시기심이 없는 관대하고 참용성 많은 애덕의 위대한 스승이시기 때문입니다.⁴

1. 선함! 수녀들에게는 하나의 표지가 있습니다. 입고 다니는 수도복이 그 표지로서, 수도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른 수도회 수녀들과도 구분됩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표지는 내적인 표지를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바오로딸수도회의 표지는 영혼의 선함이어야 합니다. 영혼의 선함은 사랑을 전제로 하여 많은 결실을 맺고 많은 것을 표현합니다. 선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에 있어서도 선해야 합니다. 곧 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감정에 있어서도 선해야 합니다. 곧 정말 선을 열망해야 합니다. 말에 있어서도 선해야 합니다. 곧 선함을 가지고 선하게 말해야 합니다. 정욕과 환상에 의해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선을 일구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 요구하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특히 사순시기에는 자매들 사이의 사랑과 겸손에 대해 언급하는 회헌의 두 장을 읽어야 합니다.⁵ 겸손에 대하여, 여러분은 맨 끝자리에 앉으십시오. 곧 가장 낮은 자리, 지위, 직무, 복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잘못을 멀리해야 합니다. 때때로 이러한 현상은 각 부서에서도 생깁니다. 서로에게 종속되고 싶어 하지 않으며, 더 나은 것이라고 해도 그 누구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가끔 아이디어나 생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선함이 필요합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더 나은 길을 제시한다면 늘

4. 1코린 13,1-13 참조.

5. 「성바오로딸수도회 회헌」 1953년판, 163-175조 참조.

행복해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원칙은 기본적인 것이므로 이러한 선함은 나중에 수도회의 결속과 일치를 이루어줍니다. 그러나 매일의 실제적인 삶에서 이러한 일치와 결속은 영혼의 선함에 달려 있습니다.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기주의에 우리가 갇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향하는 것만 행하고자 하는 경향을 경계해야 하며, 안주하고자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 눈길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회에 적합하고, 우리를 겸손과 상호 협력으로 이끄는 것이 최상의 일입니다.

이러한 영혼의 선함은 말하는 가운데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⁶ [그러므로] 대하는 태도에서도 드러납니다. 너무 말이 많거나 너무 입을 다물고 말없이 지내는 것은 자애심에서 오는 결점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지배하시는지 혹은 하느님께 더는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자신이 지배하는지를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아마 영성체에서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영성체를 통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과 마음이 이미 환상이나 몸에 밴 습관에 점령당했다면 더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서는 진보하기 위한 당신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을 것이며, 이제 더는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함은 세월이 감에 따라 조금씩 앞으로 진척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언제나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선을 다룰 수 있다면, 만일 우리가 모든 이에 대해

6. 루카 6,37.

선함을 지닐 수 있다면 우리의 일상은 더 기쁠 것이고, 더 낙관적일 것이며, 때때로 우리를 압도하는 허탈감과 낙담 같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선함! 여러분은 경고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경고를 받아야 할 일이 있습니까?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주세요. 항상 선함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강연 때에, 권고와 충고를 해야 할 때에 특별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하는 정신이나 거역하려는 정신이 없이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대나 거역의 정신은 이미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다.”⁷ 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선해야 합니다. 잘못을 쉽게 남의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모든 사항에 대하여 양심성찰을 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출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개인주의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줄 알고 하느님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특히 자매들을 향해 초자연적인 사랑으로 살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시기에는 이러한 선함을 발전시킵시다.

2. 두 번째로 사도직에 있어서 선함을 지녀야 합니다. 수도회의 두 번째 목적인 사도직에서 각자 자기 위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험, 지성, 힘을 다 기울여 사도직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선함! 다른 이들을 주시하기보다는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경우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있는지, 지성으로, 정신으로, 육체적인 힘으로, 애정과 사랑, 관

7. 루카 10,16 참조.

대한 마음, 의지의 힘으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사랑의 적들인 개인주의, 애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늘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 바오로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다.”⁸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 안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 개인주의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한다면 힘을 약화시키고, 사회성, 공동생활을 거스르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수도회를 좀먹는 것입니다. 수도회의 돈을 낭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모든 것과 우리의 건강, 우리의 에너지, 지성, 지위, 능력에 따라 우리 모두가 의식적으로 수도회에 공헌하는 대신 오히려 수도회의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백만 리라를 가져왔다고 해도 나중에 에너지를 감소시킨다면 ..., 차라리 여러분의 수백만 리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주십시오.⁹

우리 자신을 준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곧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수도회는 선과 사람들의 영혼에 기여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성소를 살고 있습니다. 관대하게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사도직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사도직에 빠져들거나 또는 특히 편집 사도직과 프로파간다 사도직에서 면제되려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며, 선하고 능력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집중선교를 한층 늘려가야 하고, 영화 사도직에 더욱 지혜로워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경험, 다른 이들의 가르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원에서의 교육과 필름 대역점에 관해 식견을 넓혀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8. 사도 20,35 참조.

9.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먼저 하느님께 드려야 한다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표현은 수도생활에서 대단히 의미가 깊다.

3. 세 번째로 [비록] 아직 최소한의 부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에 관해서 성찰을 좀 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교황님은 가톨릭 신자들의 힘을 조정하고 활동을 촉진하며 더욱 강하게 실현시킨다는 목적으로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을 위한 교황청 위원회를 설립하셨습니다.¹⁰ 우리는 사도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도직은 우리 회헌에 포함됩니다.¹¹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많은 악이 현대 수단들을 활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의 작은 기여로 공헌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크게 기여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작은 활동으로 기여하고, 많은 기도로 크게 공헌합니다. 적들은 강하고 막강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들과 동등하지 않지만, 비록 작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진흙으로 된 발을 가진 거대한 상상을 부수어버릴 수 있습니다.¹² 선을 거슬러 여러 가지 많은 상상을 세우지만 그들의 발은 점토로 된 것입니다....

교황께서 왜 회원들을 임명하여 이에 관련한 교황청 위원회를 설립하셨습니까? 그리고 왜 활동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수년 전부터 교황님들은 영화와 라디오에 관하여, 그리고 최근에는 텔레비전에 관하여 깨어 경계하기를 촉구하셨습니다.¹³ 가톨릭 신자들이 무엇인가 행하였지만, 필요한 사안에 비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2만여 개의 영화상영실이 있습니다. 필름 대어를 위한 사업과 제작을 위한 사업도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시도를 거듭하였고, 가톨릭 신자들의 모

10.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을 위한 교황청 위원회는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1954년 12월 16일자 회규를 통해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신앙과 윤리에 관계되는 수단들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성좌의 한 기구로 개설되었다.

11. 「성바오로팔수도회 회헌」 1953년판, 2조 참조.

12. 다니 2, 34 참조.

13. 1948년 1월 30일, 교황청 국무원의 서한 Prot. N. 153,561을 통하여, 종교 또는 윤리 주제의 영화 필름에 대한 교회의 검열 및 자문의 교황청 위원회가 설립되어 상기 위원회의 위원장 4명의 위원이 선임되었다. 이 위원회는 교회의 사목 활동과 문화활동 분야에서 새로운 역사의 장(場)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임도 결정되었습니다. 이중에 대부분은 관객들에게 불건전한 영화를 관람하지 않도록 하고 좋은 필름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매년 거의 3천여 종의 필름이 제작되었으나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3분의 2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나머지 3분의 1 중에서 절반가량은 성인들만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절반은 모든 이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톨릭 신자들이 거대한 영화산업의 움직임 앞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라디오에 관해 보자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500여 개의 방송국이 있고, 많은 시간을 설교에 할애하는 방송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방송국은 교회에 대한 존중이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존경심이 없으며, 자연법을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계층 간에 얼마나 많은 미움의 씨를 뿌리고, 민족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증오를 심습니까! 그들의 사상은 가정에 반대되고, 그리스도교 사랑에 위배됩니다. 얼마나 저속하고 어리석으며 스캔들이 되고 있습니까! 라디오는 모든 가정에서 어린아이도 듣고 섬세한 양심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도 듣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고, 기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다음에 텔레비전은 영화와 라디오의 가치와 결점을 더 증폭시킵니다. 영화와 라디오가 그렇듯 텔레비전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황님의 초대에 따라 대단히 필요하고도 어려운 이 거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선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망가지고 탈선의 길로 인도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도직은 선함과 인간 영혼들에 대한 사랑에서 영감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해낼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활동에 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세계에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더 강력하고 힘있게 만

드실 수 있으며, 악의 소리를 차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체를 흠송하는 것이 프로파간다나 기술 분야에서 일할 때보다 사도직을 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도직을 행할 때 두 팔은 사도직 활동에 몰두할 때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이러한 선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성바오로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선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곧 성 바오로의 표지가 성바오로딸들의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성경에 묘사했던 사랑입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 “누가 울면 나도 고통 받지 않겠습니까? 누가 슬픔에 잠기면 나도 그를 위로하지 않겠습니까?”¹⁴ 계속해서 성 바오로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 바오로의 성상은 손을 가슴에 대고 있는 모습인데 이는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¹⁵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위하여,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¹⁶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시기에 ‘나의 큰 보속으로 사랑, 선함, 관대함’¹⁷을 우선순위에 둡시다. 그리고 참된 사랑에 관하여 성 바오로께서 쓰신 사랑의 특성들을 실천합시다. 무엇보다 수도회의 힘을 낭비하지 맙시다. 이러한 행위는 사랑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정의에도 위배됩니다. 빵과 같은 식량에서부터 영성체, 복음,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든 선을 받게 되는 [수도] 가족에게 최상의 선을 가져다줍시다. 모든 것을 수도회에서 받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14. 2코린 11,29(불가타).

15. 로마 8,35.

16. 1코린 9,22 참조.

17. Mea maxima poenitentia: caritas, binitas, longanimitas.

선입니다. 천상 스승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정신을 주시고, 당신의 내적 정신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함은 칭찬과 미소로 이루어진 외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구원하고, 모든 이를 위해 소모되고, 모든 이를 도와주고 구하며,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자매들의 참된 선함입니다!

수도회에서 많은 것을 인내해야 하지만, 사랑에 위배되는 죄는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장상들은 회원들을 교정하고 사랑을 상기시켜야 하지만, 만일 완고한 회원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들을 바깥으로 내쳐야 합니다. 수도회에서 사랑이 결핍된 죄를 참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모두 잘 성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눈 또는 자매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눈에서 들보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¹⁸ 아, 예수님의 선하심이어! 성 암브로시오는¹⁹ 사람들에게서 “그는 속죄로 눈물을 보이는 사람에게 곧바로 용서를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며,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회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을 만큼 지나치게 좋은 사람이다.”라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암브로시오는 선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했지만 아직 예수님의 선하심에 이르지 못했으므로 거기에 도달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시시오.”라고 말했다.

이제 결심을 하고 기도를 바칩시다.

18. 마태 7,4-5 참조.

19. 성 암브로시오(Ambrogio, 약 340-397년경)는 밀라노의 대주교로서, 교부요 교회 박사이다. 참된 목자요 스승으로서, 전례와 수덕에 관한 작품들과 성경에 관한 주석서를 집필하였다. 암브로시오를 전례의 시조로 여긴다.

3. 선함에 대하여¹

1) [선함이란 무엇인가]

오늘 저녁 스승 예수님께 선함의 은총을 청합니다. 선한 존재가 되기를! 금년은 우리가 스승 예수님께 봉헌한 해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사제들은 이사가 예언서의 예수님에 관해 언급하는 구절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꺾여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² 다시 말해서 한 영혼 안에 어떤 선이 있을 때, 그것이 비록 불티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불을 꺼트리지 않고 다시 살리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함입니다. 수도회의 일치와 결속을 다지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하는 선함입니다. 일치의 토대는 같은 생각, 같은 감정이지만, 결속을 이루는 것은 선함입니다. 선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 선하게 생각하고, 모든 이의 선을 열망하고, 가능한 한 모두에게 정중하고, 모든 이에게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선함은 천상 스승의 덕성으로서, 만일 금년에 우리가 예수님께 이러한 선함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해를 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성바오로딸수도회는 외적으로는 수도복으로 구별되고, 내적으로는 선함, 사랑에 의해 구분됩니다. 왜냐하면 스승 예수님과 성모님께 대한 신심을 가지고 있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늘 하느님께 몰입하

고 계명에 따라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선함, 사랑을 지닌다면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³ 우리가 사랑의 찬미자이신 성 바오로의 딸들이라는 것을 드러냅시다.

선함을 사순시기의 보속으로 여겨야 합니다. 비록 어떤 역겨운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하루 종일 선한 존재임을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질투의 감정이 일어날 때, (누군가와) 성격이 완전히 다를 때 선함을 사용해야 합니다. 선함을 방해하는 것은 오직 자애심뿐입니다. 오늘 그대는 왜 불쾌합니까? 그대 안에 자애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우리에게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느님의 은총이 자리할 수 없고, 영성체에 임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더는 당신 은총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병속에 무엇인가 가득 담겨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같은 부서에서 한 자매가 다른 자매에게 종속되기를 원하지 않을 때 선함이 결핍되어 많은 공덕을 잃게 됩니다. 선함은 말하는 방법과 친절한 태도뿐 아니라, 사랑의 꽃인 많은 덕성을 전제합니다. 선함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끝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⁴ 그리고 모든 면에서 예수님의 선하심과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에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때에도 선한 존재이심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겸손하지 않다면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단단한 두 개의 돌이 부딪칠 때 불꽃을 튀깁니다. 자매를 잘 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대합니다. 사랑과 겸손에 대해 언급하는 회현의 두 장수를 읽어야 합니다.⁵

1. 1955년 3월 2일 오후 [그로타페라타]에서 행한 묵상. 두 차례의 묵상은 타이프 복사용지 8장(21x29.5)에 타자로 되어 있다.

2. 이사 42,2-3 참조.(역주: 원문에는 이사 42,3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인용부분은 42,2-3이 맞다)

3. 요한 8,31 참조.

4. 루카 14,10 참조.

5. 「성바오로딸수도회 회현」 1953년판, 169-175조 참조.(역주: 앞서 나온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대목은 회현 163-175조이다)

성 암브로시오의 누이 성녀 마르첼리나는⁶ 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동생이 너무 착하다고 불평을 하고 있어요. 동생은 부탁하는 사람에게 감동하며 늘 용서를 베풀어주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성 암브로시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그들에게 전해주시요. 나는 예수님처럼 선하게 되고 싶고, 정말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향상을 위하여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리고 상처받을 때,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있습니까? 선함은 합당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원할 때조차 자매들을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가능한 한 늘 용서하십시오. 이러한 점에 대하여 깊이 헤아리는 사람은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지한 자들이 일어나 하늘나라를 강탈하였고, 우리도 우리의 지식을 통해 깊이 침잠합니다 *Surgunt indocti et rapiunt regnum Dei, nos autem cum nostris litteris in profundum demergimur.*”⁷ 선함은 지성에서, 자매들에 대한 존중에서, 그들에 대한 존경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선함은 일종의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선한 사람에게만 선하게 대한다면, 우리가 무슨 공덕을 쌓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 다른 이들을 선하게 대합니다. 바리사이들은 외적인 율법준수에 아주 철저하지만, 선하지 않았기에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Nisi abundaverit justitia plus quam scribarum et phariseorum, non intrabitis in regnum coelorum.*”⁸ 결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지만 강한 어조로 명령하는 장

6. Marcellina(327-397경)는 성 암브로시오의 누이로서 봉헌된 동정녀이다.

7. 「고백록」, VIII, 8.

상보다 명령을 암시하는 온유한 장상에게만 복종한다면 무슨 공덕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선을 베푼다면 무슨 공덕이 되겠습니까?

공동체에서 많은 것을 견디어내야 하지만, 사랑의 결핍을 견디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선의로 선함을 요청해야 하고, 선함을 가르쳐야 하고, 선의로 교육해야 합니다. 이런 점이 결핍된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말아야 합니다.

선함은 내적인 것으로서 그 뿌리가 지성에 있습니다. 늘 좋게 생각하고, 대화할 때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잘못 판단하고, 의심하고, 쉽게 고발한다면, 그것이 선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중에 행위와 말에서 결실이 드러납니다. 선함에 따라 생각해야 합니다. 자매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선합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하느님께 봉헌하고 수도서원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모두 선합니다. “심판하는 그대는 누구입니까? 누가 그대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주었습니까?”⁹ …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¹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연옥에 가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수도자들이 이 복음 구절을 말 그대로 믿는다면, 이보다 훨씬 강한 복음 말씀도 믿는다면 다른 이들이 우리를 믿을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선한 말도 믿게 될 것입니다.

수도회는 위대한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¹¹ 만일 이곳에 선함이 가득

8. 마태 5,20.

9. 로마 14,10 참조.

10. 루카 6,37-38 참조.

11. 그로타페라타 분원은 저술가들을 위한 집으로, 1943년 10월에 구입하였고, 나중에 요양소, 수련소, 학생 공동체를 위한 집으로 사용되었으며, 1952년에는 교리분야의 편집실이 되었다.

하다면,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낙관주의를 가져다주는 선은 성령의 은총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이 수도원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모두들 여기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Sicut ego dilexi vos, diligite alterutrum.”¹²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척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특별한 우정, 이기주의, 심술, 어려운 성격, 애항주의를 멀리해야 합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다스리기를 바랍니다 Sola regnet caritas.”¹³ 선함을 지니도록 각자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하여 사랑을 청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사랑을 청하고, 선함에 대하여 양심성찰을 잘 하도록 여러분에게 애원합니다. 생각하기 전에 내적인 양심성찰을, 그다음에 외적인 양심성찰을 해야 합니다. 각자 어떤 점에서 더욱 선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2) [사도직으로 드러내는 선함]

주님은 선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고자 할 때에는 그분의 선함을 본받고자 열망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외아들을 주셨으며, 우리 마음에 당신 은총을 부어주시는 성령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당신의 벗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겸손할 때, 온유와 자비심이 있을 때, 예수님의 성심처럼

12. 요한 13,34.

13. 성무일도, 성 바오로의 회심 축일, 1월 25일, 제1저녁기도의 찬가.

처럼 모든 이의 선을 염원할 때 이러한 선함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¹⁴ [그러므로] 더 겸손하고, 자애가 넘치고, 관대해야 하고, 모든 이의 성성을 염원해야 하고, 모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는 복수 형태로 기도합니다. 곧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모두를 위하여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를 청하고, 지옥과 연옥을 피하며, 유희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기도는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ora pro nobis,’ 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주소서 libera nos,’ 나를 거룩한 자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실상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요, 천국의 시민들이요, 함께 모여 있는 바울리나입니다. 각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합시다! 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요, 성 바오로의 자녀들입니다. 선한 마음을 지니십시오. 모 수녀는 많은 결점을 지녔지만, 얼마나 선했습니다! 그의 선한 면을 모두들 찬양하였습니다. 외적 선함은 좋은 생각과 선을 염원하는 것의 결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아래 성체성사를 제정하셨습니다. 빵은 많은 밀알로 이루어졌고, 포도주는 많은 포도알로 이루어졌습니다. 성바오로딸수도회는 성 바오로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염원합니다.¹⁵ 그분은 모든 이에게 당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사랑하셨고, 마음이 만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상에 있는 25억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

14. 마태 22,39.

15. 원문은 ‘특권을 가집니다.’(Hanno la prerogativa)로 되어 있다.

하여,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민족들의 평화를 위하여, 수도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더 쉽게 전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분원은 사랑의 분원이어야 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가져다주고, 윤리적 무질서가 있는 곳에 도덕성을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선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많은 일을 이루지 못하고, 카인이 지닌 이기주의로 가득 찬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강림(오순절) 이전에는 사도들 사이에 시기와 인색함이 있었습니다. 아, 공동체 안에 시기, 질투, 연민이 얼마나 쉽게 스며듭니까! 공동체의 질병이요, 사랑의 진정한 적인 특별한 우정은 재앙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용해야 할 우선권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자매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 능력을 내놓아야 합니다. 칭찬해야 할 뿐 아니라, 말로써 잘 대해야 하고, 필요할 때에는 위로의 말을 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소년이 학교에서 했듯이 평화의 전달자가 되어야 합니다. 12명이 있는 그 소년의 학교에서 그는 모두가 일치를 이루도록 하였고, 모난 곳을 부드럽게 만들고, 기쁨을 전할 줄 알았습니다. 위안을 주는 방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문장, 어떤 풍자, 어떤 비판, 비밀 폭로 등이 결코 우리 사이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일종의 폭언이나 입을 길게 빼죽 내미는 행위는 감정을 악화시킵니다. 아픈 사람은 병자로서 할 수 있는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때때로 전혀 손길을 내밀지 않지만, 애정은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모두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미소로써, 안에 지니고 있는 고민을 침묵함으로써, 주어진 일을 잘 해내기 위하여 조언을 구하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줌으로써 실천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많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선한다면 이 수도원을 위하여 여러분이 획득할 수 있는 은총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선은 잡음을 내지 않습니다. 소란은 결코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울타리 안에 핀 제비꽃처럼 거의 숨겨져 있으므로 꽃이 풍기는 향기에 의해서만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Bonus odor Christi”¹⁶입니다. 큰 존재는 아니지만 인내로운 존재입니다. 제비꽃의 향기는 신심, 겸손, 평화, 평온의 향기입니다. 함께 모든 힘을 기울인다면 얼마나 큰 진보를 하겠습니까!

선함으로 수행된 사도직은 사람들의 영혼에 진정한 도움이 되어줍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Omnibus debitor sum.”¹⁷ 사도직은 정기구독을 하는 사람에게, 주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어떤 노사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선을 베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만일 내가 집에 머물러 있었다면 나는 농부가 되었을 것이지만, 그 대신에 ...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신학박사들은 진리의 봉사자가 되도록 불림 받았고, 우리도 그와 동일합니다. 하느님은 찬미 받으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 가르쳐라.”¹⁸ 우리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도록 불림 받았습시다. 특히 어린이들,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수가 많으며] 우리에게 선을 기대합니다. 성녀 테레사와¹⁹ 성녀 가타리나는²⁰ 그들의 저술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선을 베풀었습니까?

16. 2코린 2,15 참조.

17. 로마 1,14 참조.

18. 마태 28,19 참조.

19.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S. Teresa d'Avila, 1515-1582)는 가르멜 수녀회 수녀로서, 영성생활의 스승이다. 그녀의 저술 가운데 「자서전」, 「영혼의 성」, 「완덕의 길」, 「창립사」 등을 기억할 수 있다. 1970년에 교회 박사로 선포되었다.

20.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S. Caterina da Siena, 1347-1380)는 도미니코 제3회 회원이다. 교황이 아비뇽에서 로마로 돌아오는 데 공헌하였다. 그녀의 신비사상은 300통 이상의 편지에 표현되어 있는데 특히 「하느님 섭리에 대한 대화집」에 잘 나타난다. 1970년에 교회 박사로 선포되었다.

교회가 ‘남성 신봉’에 빠져 있던 시기에 사람들은 인간 영혼을 위해 펜, 필름, 붓을 사용하였습니다. 움직입니다! 우리의 사도직을 더 많이 이해해야 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도직에 대한 존경심이 충분히 스며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는 다른 시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의견을 구한 다음, 말씀하시는 당신의 입처럼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 다음에 움직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갓 꽃을 피우기 시작한 제3의 사도직이 있습니다. 근래에 교황님은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올바른 지침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흩어지고 나누어진 모든 힘을 결속시켜 강력하게 하는 것입니다.²¹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교황님의 지향과 목적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2만여 개의 영화상영관이 있습니다. 매년 3천여 종의 필름이 제작되는데 이 가운데 2천여 종은 제외됩니다. 500여 종의 필름은 성인용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필름은 500여 종입니다. 가장 나쁜 영화 필름 가운데 대다수는 가톨릭 국가에서 제작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500개의 라디오방송국이 있고, 이들 중에서 80퍼센트는 청취자들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진보의 모든 수단이 악을 위하여 활용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반대자들 앞에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다윗이 돌맹이와 무릿매로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승리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 분마다 수백만 영혼이 위험에 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영상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도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순수하고, 무죄하고, 오직 하느님만 바라보게

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예수님께 당신의 관심을 기울이시도록 말씀드려야 하고, 성체조배 때 이러한 필요성을 부탁드려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측은지심을 가져야 합니다. 수천, 수백만 영혼들이 부도덕한 영상에 의해 죄를 짓게 됩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구원이 수많은 영혼에게 무익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피를 헹고이 흘리신 것입니까?

사순시기에 단식을 할 것이 아니라 선함을, 예수님의 선함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극기는 선행을 요청합니다.

21. “여러 가지 묵상” n. 2, 각주 10 참조.

4. 용기¹

오늘 아침에는 사도의 모후의 전구를 통하여 성령께 용기의 덕을 청합니다. 용기는 사추덕 중 하나요, 하느님의 선물이요, 성령칠은 가운데 하나입니다. 곧바로 용기 있는 여성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곧 마리아께서는 견디어낼 때나 활동할 때처럼 고통을 겪을 때에도 용기 있는 분이셨습니다.

실상 용기는 두 가지 점에서 드러납니다. “계속적으로 큰일을 겪어야 한다 *Magna pati, et cum constantia,*”² 노고를 견뎌야 하고, 근심과 내적 또는 외적 모순을 겪어야 하고, 동시에 큰일을 시작하며 우리의 활동, 우리의 사명을 계속 완수해야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골고타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하늘로 불러 영원한 상급을 주실 때까지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용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합니다.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용기는 잘 견디거나 크고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는 육체적인 강인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용기는 초자연적인 강인함입니다. 육체적인 강인함은 때때로 우리도 지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체적으로 약하다면, 힘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겠지만, 용기의 덕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용기는] 일을 적게 행할 때 더 많이 요구됩니다.

1. 두꺼운 종이, 성 바오로 영화사 포스터(17.5 x 22) 8장으로 된 타자원고에 실린 묵상. 아마도 녹취록일 가능성이 크지만, 녹음테이프가 보존되어 있지 않다. 스페셜레 신부의 연대기에 의하면 1955년 3월 25일 창립자가 성바오로딸들을 대상으로 묵상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본다. 이유는 “...아침에 서원식 때문에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에 갔다가 10시 30분에 파리로 떠났다.” 타자원고에서 편집자가 입수한 정보는 묵상이 1955년 3월 25일 프리모 마에스트로에 의해 행해졌고, 대피정 코스에 속한다. 이 코스는 로마에서 있었다.

2. 큰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활발한 활동과 대단한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로마인들의 오래 된 속담.

용기는 우선 영성적이고 내적인 활동에서 드러납니다. 영적 활동은 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성생활의 참된 개념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정하고 극복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결점을 교정하고, 어려움과 유혹을 극복합니다. 덕, 신앙, 겸손, 사랑, 순명을 얻기 위해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된 신심은 우리가 활동적이도록 요청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양심성찰을 잘 하도록 노력하고, 기도예 잘 집중하도록 노력하고, 무엇보다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조배 때 하느님과 통교에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용기는 지성이 제 자리를 유지하여 잘 묵상하고, 그 무엇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우리 신심 의무를 완성하게 합니다. 가끔 신심생활을 뒤로 미루거나 짧게 하려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용기는 매일의 신심 활동, 주간 신심 활동, 매월 또는 매년 신심 활동을 완수하는 데 필요합니다.

눈물과 탄식으로 이루어진 신심은 영성주의(*spiritualismo*(역주: 흔히 ‘심령술’이나 철학에서는 ‘유심론’이라고 부른다))이지 바오로적 신심이 아닙니다. 바오로적 신심은 성 바오로의 모범에 따라 사도들의 정신을 모델로 한 것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다마스쿠스에서 환시를 본 다음 사흘 동안 기도와 단식으로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니아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는 기도하고 있다 *Ecce enim orat!*”³ 이러한 신심이 바로 바울리나에게 합당한 굳건한 신심입니다! 그러나 해결책 없이 이어지는 일종의 긴 영성 대화, 일종의 긴 고해성사는 굳센 신심이 아닙니다.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오 *Mulierem fortem, quis inveniet?* 그 가치는 산호보다 높다.”⁴ 자, 훌륭한 여인의 신심은 어떻습니까! 바울리나는 충고나 호소, 지침이나 조언을 들은 다음 단호히 일어나 기도하러 갑니다. 예수님에게서 힘을 길어내어 활동에 임합니다. 굳센 신심

3. 사도 9,11.

4. 잠언 31,10.

은 덕성과 함께 실천적인 진보로 드러납니다.

용기는 면학에서 발휘됩니다. 면학은 영적 활동 다음으로 가장 고된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심화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몰두하여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사태를 밑바닥까지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억을 중시한다면, 글이나 말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은총을 통하여 설명하기를 원한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알피에리가 말한 내용입니다. “나는 원했고, 항상 원했네, 아주 강력하게 원했다네.”⁵ 그래서 그는 위대한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으로 용기는 사도직에도 필요합니다. 여기서서는 무엇보다 배움에 있어서 용기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술분야에서나 편집분야에서나 보급분야에서 아주 빠른 속도로 장족의 발전을 하여 주위를 놀라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바오로딸들 가운데 많은 이가 보급에서 강한 용기를 통해 두각을 드러냅니다. 이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참으로 풍성하게 만들어 전하는 보석 같은 공로를 쌓는 사람들입니다. 프로파간다디스타에게 용기는 과감함을 요구하는 동시에 헌신과 관대한 봉사를 요구합니다. 너그럽지 못하고 강하지 못한 프로파간다디스타는 20년 후에도 수련기였을 때나 수련기 이전에 행하던 것과 같은 프로파간다를 하게 될 것입니다. 프로파간다의 용기는 단체선교를 하도록 이끌어주고, 새로운 발명과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게 해줄 것입니다.

용기는 분원에서나 외부에서 수행하는 어떠한 직무라도 우리가 그 책임을 맡도록 이끌어줍니다. 주방에서부터 세탁실, 편집실, 학교, 기술 사도직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무들이] 발전을 위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성소에 필요한 용기를 갖추지

5. Alfieri Vittorio(1749-1803)는 이탈리아 작가, 시인, 극작가이다. 이 말은 그가 자서전에 쓴 것으로서 아주 유명하다.

못했다면, 성 바오로의 용기와 십자가 아래 계시던 마리아의 용기를 본받아야 할 신분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용기의 두 번째 적용은 인내에서 확실하게 발휘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 사순시기에 그분의 수난을 관상하십시오. 그분께서는 겻세마니에서 당신 수난의 쓰디 쓴 잔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 법정의 모든 모욕, 비난, 단죄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셨습니까? 채찍질, 가시관을 쓰심, 골고타로 향하는 여정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십자가 위에서 세 시간의 고통을 어떻게 견디셨습니까?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이들에게도 선하고 평온하게 대하셨습니까. 여기서 아주 풍성한 은총이 요청됩니다. 이 은총은 예수님께서 겻세마니 동산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청하신 은총입니다.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Spiritus quidem promptus est, caro autem infirma.”⁶

그다음에 우리 자신을 견디어야 합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억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덕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다시금 죄에 빠지게 되므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정신적인 약함을 견디어내야 하고, 요청되는 변경사항과 순명의 무게, 공동생활의 부담, 시간 준수 의무를 견디어내야 합니다. 견디어내야 합니다! 수도생활이 위안을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자란 다소 거룩한 것을 관상하며 앉아 있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도생활은 활동의 삶, 노동의 삶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견뎌야 할 육체적인 병을 가지고 있고, 약간의 고통과 근심이 있으며, 신체적인 힘도 점차 약화됩니다. 모두가 삶에서 약간의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살면서 그러한 고통이 없다면 죽음에 이를 때 그러한 고통

6. 마태 26,41.

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성격이 다른 사람들을 견뎌야 하고,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것이지만 계속해서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것들을 견뎌야 합니다. 공덕의 큰 샘인 수도생활에서 요구되는 애덕과 공동생활을 준수하는 수녀를 찾기보다는 큼직한 일을 잘 해내고, 청빈, 정결, 순명을 준수하는 수녀를 찾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라고 부르는 영혼의 용기가 요청됩니다. 그래서 용기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러한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기는 사추덕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는 한편으로 분노를 억제하는 절제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성화 작업을 위해서, 그리고 더 큰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도록 추진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기! 바로 사추덕입니다. 이 용기의 덕 없이는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용기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적절하다고 말하지만,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강한 존재는 여성입니다. 곧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셨을 때 사도들은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갔으나, 성모님은 골고타에 이르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통하여 그분께 이르셨습니다. 참으로 강한 여성으로서 예수님의 남은 여행길을 동반하셨고, 그분의 십자가형, 그분의 고통, 그분의 죽음에서 그분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후, 사도들이 흩어져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동안, 성모님은 다락방으로 물러나셔서 굳건한 희망을 품으셨습니다.

성주간 동안 아침 성무일도 기도를 바칠 때 모든 촛불을 끄지만 촛불 하나를 남겨둡니다. 불 켜진 남은 촛불 하나는 결코 꺼지지 않는 마리아의 신앙을 상징합니다.⁷ 용기! 마리아께서는 예수님께서 예언하

7. 제2차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성삼일 아침 성무일도 기도를 하는 동안 제대 앞에 삼각 형태로 된 촛대 15개에 초를 꽂아 불을 켜두었다. 시편기도가 끝날 때마다 촛불을 하나씩 켜고, 촛대 제일 위에 있는 초는 켜둔 채 두었다가 즈

신 바를 알고 계셨습니다. “나는 사흘 만에되살아날 것이다(Et tertia die resurgam!)”⁸ 그리고 그동안 기도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사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으며, 탄생해야 할 뿐 아니라 세상 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강한 여성이십니다.

모든 다른 덕이 고된 값을 치러야 하고, 모든 사도직이 고된 값을 치러야 하므로 용기 없이는 아무 덕도 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도직을 통하여 성소에 상응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인내와 겸손을 얻고자 한다면 힘이 필요합니다. 모든 공덕은 그에 상응하는 비싼 값을 통해 얻어집니다. 힘든 일을 피하려 하고, 위안이 될 수 있는 일만 맡으려 애쓰고, 말로만 덕을 쌓고자 하면서 한숨과 헛된 욕망을 추구하며 세월을 보냄으로써 전혀 진보하지 못하는 게으름뱅이들이 있습니다. 특히 서원을 발한 후 계속 후퇴하여 악에 함몰되도록 [내버려두는 것] 내리막길로 내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수녀는 아마도 젊은 시절에 영적 작업을 통하여 어느 정도 덕을 쌓아 종신서원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높은 차원의 덕을 향해, 절정을 향해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미끄러지게 마련입니다. 하늘의 길은 돌과 가시로 뒤덮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요청됩니다. 복음에 나오듯이, 천국은 투쟁이 요구됩니다. “[하늘 나라는 폭행을 당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자들이 하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Violenti rapiunt illud.”⁹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힘을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게으른 자들의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의 것입니다. 성성은 나태한 자들의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의 것입니다. 사도직은 게으른 자들의 것이 아니라, 강한 자들

카리아의 노래 끝 부분에 가서 켜다. 「로마 성무일도」 주님의 만찬 축일 참조.

8. 마태 27,63.

9. 마태 11,12.

의 것입니다.

힘을 쓰는 자들은 천국에 도달하여 정의의 월계관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월계관이란 무엇입니까? 잘 싸운 이가 받게 되는 상입니다. 현세의 삶은 하나의 군대요, 하나의 싸움입니다. 아름다운 것이요, 높은 차원의 것이요, 아주 높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식, 성성, 사도직의 결과, 수도생활의 완덕, 예수님과의 일치, 높은 이상을 지니는 습관,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우리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습관 등, 이러한 것들은 아름답고 거룩하며 아주 고상한 것입니다. 높이 들어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배가 홀로 버려진다면 물은 그 배를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떠다닐 것입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온 힘을 기울여 모두 함께 노를 저어야 할 것입니다. 고생 없이 조용한 삶을 원하는 사람은 '나는 성성을 원하지 않으며, 내 사도직이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도 견뎌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어떻게 연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통하여 연습합니다. 용기는 사추덕의 하나로서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옵니다Omne datum optimum, et omne donum perfectum desursum est.”¹⁰ 하느님한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여성들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가장 위험한 경향은 모든 노력과 모든 고생을 피하고 싶어하는 경향입니다. 그 대신에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이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이

10. 야곱 1,17.

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Nescitis quod ii qui in stadio currunt, omnes quidem currunt, sed unus accipit bravium? Sic currite, ut comprehendatis!”¹¹ 심판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바라보느라 일을 멈추지 말고 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직무를 맡은 이들 외에는 그 누구도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하십시오! 다른 이들을 돕는 직무를 맡도록 지명된 이들은 그 일을 잘 하십시오. 주님께 수돗물에 불과한 무익한 눈물을 드리지 말고 활동을 드립시다. “천국에서는 저마다 수고한 만큼 자기 몫을 받을 뿐입니다Unusquisque... mercedem accipiet secundum suum laborem.”¹²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non omnis, qui dicit...: Domine, Domine, intrabit in regnum coelorum; sed qui fecerit voluntatem Patris mei.”¹³ 예수님께서서는 늘 활동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자렛의 목공소에서 일하셨고, 그다음에는 공적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Quae placita sunt ei facio semper.”¹⁴

“아, 나는 ...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지옥을 포장한 것이라고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는 말씀하십니다.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의지가 필요합니다. 복음에서 ‘착한 뜻’¹⁵이라고 말하는 의지, 다시 말해서 효과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첫째, 강력한 신심입니다. 둘째, 강력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요청되는 고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강력한 사

11. 1코린 9,24.

12. 1코린 3,8.

13. 마태 7,21.

14. 요한 8,29 참조.

15. 루카 2,14(불가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도직입니다. 넷째, 강력한 인간적 교육과 양성입니다. 특성 있는 사람, 참을성 있는 사람, 인내심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강한 여성입니다! 이 점에 관해 성찰합시다. 수도회가 점차 성장해감에 따라 수효가 적을 때에는 실천하기가 쉬웠던 관대함을 덜 실천하게 되고, 이를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용기를 청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약한지, 악에 대해서 약한지, 이야기만 길게 늘어놓으면서 멈추어버리지는 않는지 성찰을 잘 합시다. 오늘날 사회악을 한탄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을 제거하려고 활동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수많은 무지가 있습니다. 교육하도록 움직이고,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이십시오! 이른바 무익한 눈물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의 법정에 상소한 고발입니다. 여러분은 악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선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바오로수도회는 전체적으로 강하며, 악을 보게 될 때 모든 에너지를 쏟아 그것을 제거하기를 원할 만큼 관대합니다. 정신, 열망, 감정이 최고의 수준에 도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들을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항상 작은 부당한 일들은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성녀가 되어야 하며, 성화되기 위하여 그리고 불평하지 않기 위하여 부당한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걱정거리를 제공하지 말고 모든 작은 어려움에 대하여, 모든 작은 방해나 불편사항을 불평하지 맙시다. 이러한 것이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 하느님께서 소중하게 아끼시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5. 성주간 준비¹

오늘 아침에 몇 가지 생각이 성주간 예식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1) 그리스도교 신비,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 그분의 부활 신비를 살아야 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해야 합니다.] 3) 부활은 성주간 예식의 중심입니다.

1. 성탄의 신비에서,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성주간과 부활의 신비에서, 똑같은 하느님의 아드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고 돌아가셨지만, 죽음 후에 그분은 부활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Et tertia die resurget).”² 우리도 무덤에서 생명으로 부르심 받을 때인 마지막 날에 확정적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성주간은 하나의 정화입니다. 잘못과 결점을 고쳐야 하고, 우리가 지닌 못된 경향들을 죽여야 합니다. 곧 교만, 분노, 탐욕, 시기, 우리의 욕정, 호기심 등을 없애야 합니다. 미각, 청각, 시각, 촉각과 같은 외적 감각으로 죄를 범하는 잘못들을 없애야 하고, 기억을 통해서나 환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나 지성을 통해서 내적으로 죄를 범하는 잘못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좋지 않은 모든 것, 결점 자체, 죄를 중요

1. 1955년 4월 1일에 로마에서 행한 묵상. 8절판으로 출판되었고, 1960-1961년의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일부 강연들과 함께 낱짜 표기 없이 32절판으로 재판되었다. 두 가지 출판본 사이에 약간의 상이점이 있는데, 편집자는 8절판의 출판본을 원본으로 간주하였다.

2. 마태 20,19.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파스카 축제는 고해성사와 더불어, 죄의 속죄와 더불어 거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전례에서, 특히 성목요일과 성금요일의 중심적인 전례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착복식을 거행할 때 표현됩니다. “주님께서 그대 옷을 벗기시기를 *Exuat te Dominus!*”³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속적인 정신에 대해서, 나쁜 경향에 대해서, 그대의 결점에 대해서 옷을 벗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방식에서, 우리의 경향에서, 우리의 결점에서, 우리의 좋지 못한 습관에서 마음을 떼어놓지 않는다면 결코 내적으로 세속적인 옷을 벗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⁴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모델이시며 모든 성성의 스승이신 그분을 따라야 하고, 모든 면에서 계속 우리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죽어야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능을 지니신 가운데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수난은 이중적인 것으로, 내적인 수난과 외적인 수난입니다. 외적인 수난이 우리에게 더 깊은 인상을 줍니다. 곧 피땀, 채찍질, 가시관, 사형 언도, 골고타에 이르는 길, 십자가형과 세 시간에 걸친 고통과 죽음.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Inclinato capite, emisit Spiritum.*”⁵ 어떤 감각기능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시각은 많은 악과 그분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

을 보아야 하는 고통을 겪었고, 그분의 청각은 수많은 신성모독과 “십자가에 못 박시오 *Crucifigatur!*”⁶라며 그분의 죽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분은 쓸개즙과 몰약으로 목을 축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가셨지만 기력이 쇠약해진 탓에 십자가 아래 쓰러지셨습니다. 그분의 손과 발은 못이 관통하였고, 그분의 몸은 채찍질로 온통 헤집어졌고, 그분의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워졌습니다. 그분은 온몸으로 괴로움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노여움으로 제 살은 성한 데가 없습니다 *Non est in eo sanitas.*”⁷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줍니다.

내적 수난은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곧 인간-하느님으로서 겪으시는 내적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은 겐세마니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보내신 그 시간에 우리에게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분은 아담에서 시작하여 세상 끝까지 계속되는 죄와 범죄의 엄청난 무게와 광활함을 보셨습니다.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입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당신 어깨 위에 짊어지시어 천상대전에서 모든 짐을 없애시도록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수난이 어떠한지 내다보셨습니다. 특히 유다의 무시무시한 죄와 가공할 신의 살해당함 *deicidio*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은혜를 입었던 영혼들이 동산에서 은혜를 저버리는 것을 보셨고, 당신의 신비스러운 빵을 먹은 이들과 당신에게 병고침을 받은 이들이 배신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 차례 사랑을 서약했던 사도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분을 열렬히 따랐던 베드로 사도도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지만, 그에게 교회를 맡기셨고 그를 당신의 첫 후계자, 수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께서 특별한 직무를 맡기신 사람들의 배신도 내다보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사제로 백성들에게 드러나셔야 했을

3.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예식서」, 로마(1945), p.14에서.

4. 마태 16,24.

5. 요한 19,20.

6. 마태 27,23.

7. 시편 38,4.

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사제직에 의해 단죄받으셨으며, 신약의 사제직을 행할 사도들에게서도 버림받으셨음을 느끼셨습니다. 그로 인해 당신의 고통은 아주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거룩한 전능으로 당신 피를 온전히 쏟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이 길을 잃고 있는지도 보게 되었습니다. “제 피가, 제가 구령으로 떨어지는 것이 무슨 이득이 됩니까 *Quae utilitas in sanguine meo?*”⁸ 이 모든 것이 당신 마음을 온통 짓눌렀고, 수난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다른 고통들은 땀만 흘리는 것이었지만 여기서는 피땀을 흘리셨습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당신 마음 안에서 감당키 힘든 억압을 느끼신 것입니다.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Spiritus promptus, caro infirma.*”⁹(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2. 자, 성주간은 우리에게 피상적인 생각, 호기심에 찬 정신, 냉담한 기도, 감각적인 마음 등과 같은 모든 나쁜 내적 경향을 없앨 수 있는 단계에 어떻게 도달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환상과 욕구와 특히 자애심과 분노와 시기심의 감정, 반발과 교만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노고를 통하여, 사도직을 통하여, 시간 엄수를 통하여,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과 모든 육체적 장애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들을 위해 당신 자신을 희생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¹⁰ 그렇지만 그분이 처형되시는 순간에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

8. 시편 30,10.

9. 마태 26,41.

10. 요한 11,16.

을 되풀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극기가 요구될 때 우리는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골고타에 계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셨지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스승님과 함께 있겠습니다!”¹¹ 하며 맹세까지 늘어놓았던 사도들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 신비의 첫 부분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고, 당신의 은총을 통하여 결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을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주간이 이러한 것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파스카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부활하기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시고 묻히셨지만, 사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육신으로 영광스럽게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내적 외적으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고통을 겪으셨지만, 당신의 영은 기쁨과 행복으로 흘러넘쳤고, 당신의 모든 상처는 태양과 같은 광채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늘에 올라 영원히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완전히 새로운 삶, 영광스러운 삶이 처음에는 지상에서 당신 제자들에게 자주 나타나셨고, 나중에는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어 영원히 당신의 복된 나라를 차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된 삶을 살기 위하여 교만에 대하여 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¹²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성화하기 위하여 호기심에 대한 우리의 정신을 죽여야 하고,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는 호기심과 이상한 소식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느님께 대

11. 마태 26,35 참조.

12. 마태 11,29.

한 사랑을 살기 위하여 분노와 집착 등의 나쁜 감정을 없애야 합니다. 새로운 삶이란 우리의 지성을 통한 믿음의 삶, 하느님의 은총에 신뢰를 두면서 하늘을 향하는 희망의 삶,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삶, 사도직의 삶을 의미합니다. 새롭고 모범이 되는 삶,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규칙 준수를 잘 하는 삶입니다. 참된 수도생활은 순명, 섬세한 양심, 열렬한 정신, 청빈 정신, 공동생활에서 사람에 대한 사랑과 적응에서 드러납니다.

새로운 삶은 파스카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하였지만, 이제 더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이러저러한 결점을 지녔고, 이런저런 죄에 빠졌지만, 이제 더는 그렇지 않고 반대되는 덕성을 실천합니다. 오만한 사람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고, 성마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고, 인색한 사람은 청빈서원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게으른 사람은 주님께 열성적이고 관대한 사람으로 변하고, 관능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탐식과 화를 잘 내고 질투심 많은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모든 삶이 그렇게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은 두 가지 생각 또는 유일한 생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곧 성주간 동안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신비적 삶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전부는 아니고, 매일 그리스도의 신비를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중 파스카입니까? 아닙니다. 매일의 파스카를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 아침 우리가 신심이라고 부르는 수련을 감행해야 합니다. 곧 아침의 신심실천입니다. 우선 죽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곧 죄를 단죄하기 위하여, 주님께 용서를 청하기 위하여, 죄를 피하기 위하여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하고, 우리의 속죄로써 죄를 없애기 위하여 예비성찰을 하며, 전날의 잘못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결심으로 확고히 뜻을 세우게 하며, 잘못을 피하고 우리가 결심한 어떤 덕성을 실천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아침의 수련은 먼저 죽음과 그다음에 부활로 구성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죽어야 합니다. 곧 매일 작은 성주간이 [되도록 해야 하고], 이러한 작업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¹³ 부활한 삶을 살기 위하여 미사와 영성체를 합니다. 어제는 그러하였지만 오늘은 그렇지 않고, 어제는 내가 부족하였지만 오늘은 내가 더욱 열성적이며, 더 주의 깊게 될 것이고, 어떤 점에서는 나를 바로 잡아 조금 더 진보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활입니다!

3. 그러므로 성주간,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신비는 매년 장엄하게 단 한 번 거행하지만, 어떤 면에서 이 신비를 살기 위해 매일 거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의 파스카를 거행해야 합니다. 곧 묵상과 양심성찰과 속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립시켜주는 영성체와 미사에 잘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통하여 매일의 파스카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비가 어떠한 것인지 잘 이해합시다. 수도자는 특히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경우 신심실천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늘 거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은 당연히 세례성사로 이루어집니다. 세례성사 안에서 원죄가 없어지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립되며, 믿음의 삶, 희망의 삶, 사랑의 삶이 세워집니

13. 갈라 2,20: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Vivit vero in me Christus).”

다. 그러나 매일 되풀이해야 합니다. 곧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상응하지 않는 모든 것을 중요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워하시는 것,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삶, 부활의 삶을 꾀안아야 합니다.

이제 질문해봅시다. 우리는 거룩한 파스카를 잘 지내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살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매일 가장 중요하고 열정적으로 성화시킬 필요가 있는 아침 수련을 통하여 작은 파스카를 되풀이하기를 원합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정신이나 육신이 잠에 취해 있어 아침을 잘 시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기 자신의 노예이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사람, 무관심한 사람, 냉담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죽지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통회, 고치려는 열망, 미움을 진지하게 수정하려는 책임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하겠습니까?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는 사람이 부활합니다. 부활하기¹⁴ 위해서는 죄에 대한 통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새로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매일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루의 결정적인 아침 수련의 목적입니다. 만일 아침을 주님 안에서 잘 시작한다면, 그 하루는 공덕과 즐거움과 묵상의 결실이 가득한 날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고, 교리와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야 할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룩하신 구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야 하고, 동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로써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늘에서 영혼이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무덤에서 생명으로 불림받고 영광스러운 육신으로도 부활할 것입니

다. 영광스러운 육신으로도 부활한다는 것은 영혼과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되어, 외적인 고통과 내적인 고통을 벗어나 하늘에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마리아와 함께 영원한 상을 받는 것입니다.

14. 원문은 '죽기'로 되어 있다.

6.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와 성소 사도직¹

성모님께 대한 여름철 신심입니다. 성모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름철입니까, 겨울철입니까? 여름철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이 시기에 많은 성소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름철에 위험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름철에 쉽게 성소를 결정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학업을 끝내고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어떤 활동을 차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녀 성소자들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여기에 성소자들이 너무 없어.”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서는 도처에 성소자들을 심어놓으셨습니다. 성소자들은 어디에든 있지만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상황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좋은 성소자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주님께서서는 위대한 예술가이며 참되고 훌륭하실 뿐 아니라 아름다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아름다움은 각 부분의 종합에서뿐 아니라 조화를 이룸에도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완벽한 예술가로서 당신이 처음 시작하신 그 방법으로 일을 마무리하십니다. 곧 첫 부르심을 마리아의 손에 맡겨 시작하시고, 모든 부르심 받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해서 그분께 맡기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계획을 완수하고

1. 1955년 7월 7일 알바에서 행한 묵상, “프리로 마에스트로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4절판(8x10,5) 형태로 출판되었다. 타자본 표지 제목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와 출판 사도직”을 “성소 사도직”이라고 손글씨로 수정하였는데 본 출판본에서는 이 제목을 채택하였다. 텍스트의 검토 결과 이 묵상의 몇 가지 개념은 1955년 7월 14일자 강론인 완덕에 전념함(Studium perfectionis)의 마지막 부분보다 훨씬 잘 표현되었음을 보여준다. ApC, 묵상 n, IV 참조.

자 노력하십니다. [따라서] 성소자들은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가까이 두기를 바라시는 영혼이여, 그분께서는 그대를 당신께로 끌어당기시고, 천국에서 그분께 더 가까이 있게 하기 위해 지상에서 그분 가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그대가 느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례성사에서 시작하여 성모님께 그대를 맡기셔서 성모님이 그대를 특별히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그대는 어느 순간 길을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대를 성모님께 맡긴다면 그분께서 그대를 구하실 것입니다. 성모님은 그대를 첫 순간부터 보호하셨으며, 어느 아름다운 날 그대를 축복받은 화단으로 옮겨주시고, 청원기, 수련기, 첫 서원부터 가장 어려운 시기인 유기서원기에 이르기까지 동반해주실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성소자들의 어머니이십니다. 성소자들을 위하여 성모님께 더 많은 기도를 해야 하는 시기는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위험요소가 많지만, 또 많은 성소자들이 위험을 피하고 악을 보속하기 위해서 [수도생활을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아, 위험 중에 있는 부르심 받은 영혼들을 위하여 성모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성모님은 어머니들이 하듯이 당신이 아끼는 자녀들을 품안에 껴안으시고, 악을 보지 않도록 그들의 눈을 감겨주시며, 만일 죄에 빠져 있다면 그들을 구원해주십니다.

여러분의 수도회는 [수녀들이] 혼자 외출하지 않는다는 아름다운 규정을 정해두었습니다. 이것은 수녀 한 사람이 다른 수녀를 지켜줄 수 있기 위해서뿐 아니라,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이 거룩한 피조물이 잘 보존되고 도움을 받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역할입니다!

악마는 뱀의 옷을 입고서 하와를 속였습니다. “너희는 선과 악을 알게 될 것이다.”² 상황을 알기 위해 일부러 치통을 앓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은 것처럼, 하와가 악을 알지 못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 이제 악마는 정신을 뒤흔들고, 특히 성소자들을 파멸로 이끄는 신문, 영화, 라디오로 강생하였습니다. 위험은 급증되었습니다. 옛날의 마귀가 정오의 악마로, 훨씬 무시무시한 새로운 마귀의 모습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삶의 상황은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마귀의 우두머리를 곧바로 내쫓으시지만, 하와는 마귀가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마음 안에 들어오도록 놓아둡니다. 그러나 마리아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 위험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십니다.

마리아의 여름 신심은 묵주기도를 더 자주, 더 잘 바치고, 성모님께 봉헌한 토요일을 거룩하게 보내며, 삶의 순간순간마다 마귀를 발견할 수 있게 하므로 마리아와 더 가까이 지내야 합니다. 모든 어려움 중에 그분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여름철에 범하는 죄를 보속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여 자주 ‘당신의 보호 아래...Sub tuum praesidium...’³를 바치고, ‘살베 레지나, 당신 자비의 눈길로 우리를 굽어보소서.’⁴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잘 걸어가야 합니다.

도움을 청하자마자 마리아께서는 당신께 헌신하는 영혼을 거두시어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딸입니다. 토요일에 나를 영화롭게 하였고, 삶에서 나를 사랑하였습니다. 이제 천국에 받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성모님의 뜻을 들어주시기에, 여러분을 곧바로 하늘로 이끌어주실 것입니다.

2. 창세 3,4 참조.

3. 마리아의 따름노래.

4. Salve Regina, oculos tuos ad nos converte.

7. 성모 승천¹

오늘 미사의 본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위안이 되는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 저희가 공로를 쌓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가 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많은 자비를 베풀어주소서.”²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으로는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청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성을 바라는 진지한 의지를 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묵상의 아주 정확하고 적합한 내용입니다. 곧 마리아의 승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축일을 아름답게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으로 천사들이 성모님의 승천 하루 전날 하늘에서 그들의 여왕을 위한 축제를 준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 소중한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하기 위하여 주위 사람들과 분위기를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천사들과 일치된 거룩하고 아름다운 백의(白衣)의 날입니다. 천사들은 그분을 하늘까지 동반하기 위하여 벌써 마리아의 무덤을 향해 내려와 그분의 부활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늘에 있는 다른 천사들은 그분을 기다리며 가장 아름다운 찬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준비입니다.

항상 가장 완전함을 추구한다는 약속을 드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순수한 사랑을 살고 싶고, 나의 기도를 높이 들어올리기를 원하고, 감실 안에서 그리고 내 마음 안에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아주 긴밀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 나의

1. 1955년 8월 14일 로마에서 바오로 가족에게 향한 묵상. 자기(磁氣)녹음테이프에 녹취된 내용에서 옮겨 적었다: A6/an 13a ac 23a.

2. 성령강림대축일 후 제11주일 본기도 참조.(역주: 전례 개혁 이전)

사도직을 잘 성화시키고 마리아께 봉헌하여, 그분께서 내가 하루의 일과중에 행할 일들과 복음의 보급을 위하여 경주할 모든 노력을 예수님께 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공동생활을 잘 하고 싶고,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회헌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나는 다른 성화의 수단들을 찾았지만, 사실 나는 가장 철저하게 순명의 삶을 살고 바울리나의 삶을 [살기 위하여] 탁월한 수단, 가장 아름다운 수단인 회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동정녀께서 이러한 열망을 심어주시는지 보십시오. 이 열망들 중 하나는 “매일 조금씩 진보하기를 바랍니다”³ 염원입니다.

눈을 들어 우리의 어머니 동정 성모께서 성자 곁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하늘로 승천하신 마리아께서는 부활한 순수 피조물들 가운데 말을 대변하십니다. 그분은 어머니시요 가장 거룩하신 어머니이시기에,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가시기에 충분한 공로가 있습니다. 하늘 저 위에서 성모께서는 모든 자녀들을 기다리십니다. 당신 자녀들이 언젠가 천국에서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라시며, 아주 풍성한 은총을 마련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각자에게 선물, 덕성, 열망과 성성의 비결을 나누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에는 마리아께 다가가려는 경주가 열리고, 그 경주는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하는 경주, 마리아께 대한 신심의 경주입니다.

영광의 신비 4단을 바치면서 성모님을 관상해야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지상을 떠나 하느님의 권능으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다음에

3. 마조리노 비고룽고(1904-1918)는 쿠네오 주의 베네벨로에서 태어났다. 성바로수도회에서 지원기를 보내던 중 선종하였으며, 현재 가경자이다. 그의 공책들 중 하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있다. “죽을 때까지, 매일 덕성에 있어서 적어도 조금씩 나아가야 한다.” 알베리오네, 「마조리노 비고룽고 *Maggiorino Vigolungo*, Cinisello Balsamo (MI) 2008, p. 67 참조.

영광의 신비 5단을 바칩시다. 마리아께서 하늘과 땅의 여왕으로, 천상 모후의 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분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당신의 자비로운 눈길로 저희를 굽어보시어, 이 유배가 끝난 다음 당신 태중에 모시던 예수님을 뵈옵게 해주소서.’ 기쁨으로 충만하신 당신은 복되십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위험 중에 있고, 폭풍의 바다, 암초로 가득한 해변, 수많은 계약의 삶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어머니, 저희를 구해주소서!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외친 “주님, 구해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Salva nos, perimus*.”⁴라는 그 절규를 [우리도 외칩시다.] 전생 동안 성 바오로의 아들과 딸들은 얼마나 자주 이러한 기도를 바쳤습니까? 특히 폭탄이 투하되리라는 소리를 듣던 그 때에 얼마나 많이 되풀이하였습니까. “주님, 구해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모든 천사들 위에 그리고 모든 성인들 위에 현양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큰 특권으로 하느님에 의해 지상에서 현양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은 지상에서 위대한 신앙과 사랑을 지니셨으며, 하느님께 대한 모든 성인들[의 충실성을] 뛰어넘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우리를 구해주시는 은총을, 언젠가 천국에서 마리아와 함께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그러나 더 큰 진보를 위하여, 더 큰 확신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곧 마리아께서는 더 큰 의미에서 동정녀이셨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원죄 없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악마가 그분 위에 군림할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지성의 동정녀이십니다. 곧 그분 지성 안에 그 어떤 거룩하지 못한 생각도 들어갈 수 없고, 그 어떤 거룩하지 못한 기억도 그분 기억 안에 들어갈 수 없

4. 마태 8,25.

으며, 그 어떤 옳지 못한 환상도 근접하지 못합니다. 마리아께서는 생각의 동정녀이십니다. 곧 좋고 거룩한 생각과 덜 좋고 덜 거룩한 생각이 혼합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이 섞이지 않은 지성의 동정녀이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동정녀이십니다. 오롯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사랑하셨고 하느님 안에 있는 것들, 곧 하느님 안에 있는 영혼들, 하느님 안에서 성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순수할 뿐만 아니라 가장 강하고, 가장 항구하고, 가장 집약적인 사랑이었으며, 지상에서 이미 하늘의 케루빔과 세라핌 천사들의 사랑을 초월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마음의 동정녀이셨습니다. 좋은 감정과 교만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향한 사랑, 선, 연민의 감정이 아니라, 행여 다른 사람을 향한 선망의 감정을 느끼시더라도 마리아께서는 마음의 동정녀이십니다! 그리고 의지의 동정녀이십니다. 그분은 헛되이 끝나고 마는 결심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느님의 뜻을 염두에 두시고 그 뜻을 항구하게 실현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그 어떠한 가벼운 죄도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결코 마리아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죄인들로서, 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언제나 ‘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Fiat mihi secundum verbum tuum.”⁵ 이와 같은 응답은 소명을 받았을 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셨을 때, 골고타에서 당신 성자의 죽으심에 ‘예’라고 대답하셨을 때, 하늘나라로 부르신 예수님의 초대에 ‘예’라고 말씀하셨을 때처럼 수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천국에서 마리아께 다가갈 희망이 있습니다!

지성의 동정! 혹시 우리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을 우리의 지성에 허용하였는지 살펴봅시다. 곧 사랑에 반대되고, 신앙에

반대되고, 희망에 반대되는 생각들입니다. 생각에 관한 양심성찰은 가장 어렵고 첫째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의 동정, 곧 하느님께 대한 높은 생각과 하느님께 봉사하는 일들의 성취에 관한 생각들, 공동 생활을 통한 완덕과 우리 행위에 관한 완덕에 대해 살펴보고 ‘마리아, 저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의 빛을 저에게 비추어주소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으로 마음의 동정을 지킬 수 있도록 살핍시다. 감정을 분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곧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감정을 뒤섞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성체 후에 사랑에 반대되는 감정을 가지게 되면 영성체는 벌써 멀리 물 건너간 것이 됩니다. 겸손하고 신심 깊은 마음의 동정은 온유하고 관대하신 하느님을 갈망합니다. 아, 마리아의 티 없이 깨끗하신 마음! 성모 승천 대축일 8부 축일을 마리아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축일로 마무리하는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8부 축일 동안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 안에서 다른 사물들을 사랑하는 티 없이 깨끗한 마음,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청합시다.

그리고 의지의 동정이 필요합니다. 좋은 결심을 하게 되면 잘못된 길을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좋은 결심에 뒤이어 다른 욕망 곧 눈, 혀, 마음, 촉각을 통한 그릇된 욕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의지의 동정은 육체의 동정도 포함합니다. 천국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 광채가 빛나겠습니까. 동정녀들 중의 동정녀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 주위를 동정녀들이 에워싸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사도직에서 [자신을 증여하는 데]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 높은 곳에는 영광스러운 동정녀들이 백합과 순교의 팔마가지를 함께 들고 갑니다. 순교란 피를 흘리는 것뿐 아닙니다. 욕망의 순교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 그대로 피의 순교는 겪지 않으셨지만, 순교자들의 형벌과 고통을 넘어서는 형벌과 고통을 받으셨기 때

5. 루카 1,38.

문에 순교자들의 모후로 칭송합니다. 사랑의 순교자들일 수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매일 산山 정상까지 말씀을, 복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수 킬로미터를 걸을 때 비록 발이 아프더라도, 때로 몸이 휴식을 필요로 하더라도, [이러한 일을] 5년, 10년, 20년 동안 하더라도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이들은 사랑의 순교자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랑도 진리에 대한 사랑보다 우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합니다 *Veritatem facientes in caritate.*”⁶

동정녀이시요 순교자이시며 순교자들의 모후, 다시 말해서 가장 위대한 순교자이신 마리아를 관상해야 합니다. 희망해야 합니다 *Sperare!*⁷ 냉랭하고 무미건조한 시기가 아닙니다. 성모 승천 축일과 그분의 8부 축일은 각자의 마음에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곧 지성의 동정, 마음의 동정, 육체의 동정, 하늘나라에 백합과 팔마가지를 들고 가는 것입니다.

미사는 특별한 신심으로 봉헌해야 하고, 오늘 하루는 내일의 축제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천사들은 모후께서 입성하시는 하늘을 경탄해마지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경탄합니다만,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완벽하게 실현하기 위해 몽땅 소모되는, 거룩한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지성을, 거룩한 행실로 넘치는 우리의 태도를 경탄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곧 나는 연약하기 짝이 없음을 체험을 통해 잘 알며 그리할 때 절망할 수 있겠지만, 하느님과 더불어 마리아와 함께 희망해야 합니다!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6. 에페 4,15 참조

7. 원본에는 ‘갈망해야 합니다!’(*Sospirare*)로 되어 있다.

8. 성모 승천 대축일¹

[1] 하느님께 대한 신뢰의 모델이신 마리아]

오늘 미사의 입당송에서² 아주 아름답게 표현된 것처럼, 마리아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골고타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지상에서는 성 요한이 마리아를 보호하였습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³ [그리고] 마리아께서 이 지상을 떠나 영원한 안식처로 옮겨가신 후에, 요한 복음사가는 다음과 같이 환시를 묘사하였습니다.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은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태양에서 모든 것에 스며드는 빛을 발하는 크리스털로 된 프리즘과 같은 은총을 가리킵니다. “발밑에 달을 두고.” 곧 매일, 매 시간, 아니 더 나아가 매 순간 변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상징이요], 변화무쌍한 이들의 [상징]을 나타내지만, 그 달은 마리아의 발아래 있습니다.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곧 열두 가지 덕을 나타냅니다.⁴

1. 1955년 8월 15일과 16일에 행한 피정 강의는 두 차례의 묵상으로 되어 있다. 원고는 껌선이 그려진 종이(21.5x28)에 타자로 된 첫 번째 묵상 세 장과 두 번째 묵상 한 장으로 된 것이다. 장소는 기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스페찰레 신부의 연대기에 의하면 성모 승천 대축일에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 나폴리에 가서서 피정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1955년, p. 1881) 이 때문에 15일과 16일의 묵상은 이 피정에 속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타자본에 사용된 타자기가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두 번째 묵상 내용은 비교적 짧은 편이다.

2. 묵시 12,1 참조: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

3. 요한 19,27.

4. 묵시록의 구절에서 실마리를 찾는데, 많은 성인들은 열두 개의 별에서 마리아의 덕성 중 가장 큰 특권을 보았다. 예를 들어 성 베르나르도의 묵시록 12장에서 본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12개 특권에 대한 설교(*Sermo de 12 prerogativis B.M.V. ex verbis Apoc. XII*) 참조.

사도들은 하늘을 향해 눈길을 돌려 마리아를 영접하러 온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마리아의 승천보다 더 큰 축제를 준비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르는 대신에 내려가는 사람은 마리아의 덕을 통하여 올라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께 큰 신뢰를, 곧 영혼을 움직이시는 하느님께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결심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이지만, 종종 언제나 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뜻에 너무 기대고 맙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더 큰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성인이 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만일 우리 영혼이 진보한다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에게 신뢰를 두는 것은 이기주의이고, 하느님을 모욕하는 행위이며, 전략의 오류입니다. 그것은 “나는 나 스스로 일하기를 원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아무런 말없이 우리의 ‘자아’에 기대게 되고, 또 천국을 비웃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로서, 당신의 승천, 하늘을 향해 오르시는 여정이 원죄 없이 잉태하신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그 승천을 준비하셨고, 하느님에 의하여 은총이 충만하게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해서 성인이 되고자 합니까?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승천되시는 마지막 특권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에 의해 하늘로 들어 올려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어떤 사람에게서는 은총을 거두어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당신 은총을 통하여 그 영혼을 꿰뚫어보시며 들어 올리시고, 빛을 통하여, 힘을 통하여 또 는 충격을 통하여 그 영혼 안에 들어가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⁵ 다시 말해서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성부께서 그를 높이 들어 올리지 않으시면,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분께 갈 수 없고,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자아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준비합니다.”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무’^{zero}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믿지만 결국 그저 우스운 꼴이 됩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성인들의 위대한 비결은 하느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빛을 주시고, 깨닫도록 은총을 주시며, 의지와 행동의 성취를 주십니다. 하느님에게서 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좋은 뜻이 아니며,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성성에 있어서는 훨씬 더 참되며, 이러한 진리는 한없이 높고 대단히 진실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정녕 아무것도 아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느님과 모든 이에게 빛진 자입니다. 우리가 하는 결심은 이미 하느님의 것입니다. 만일 덕행에 있어서 약간 나아간다면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성성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성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주시기를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행보에 이르기까지 당신 삶 전반에서 은총의 기적이셨던 마리아의 영적 진보를 숙고해야 합니다. 출발 자체가 잘못되었고, 전략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눈멀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길을 잘못 들게 만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단죄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성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5. 요한 6,44.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만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고 믿지만, 때때로 다른 사람들을 장황하게 가르치며 '난 성인이 되기로 결심했어, 보게 될 거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보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보다 더 큰 전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산에서 떨어져 나간 큰 돌이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굴러떨어지다가, 이어서 속력이 붙어 더 빨리 구르다가, 갈수록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⁶

의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신앙의 선물입니다. 이단적인 활동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정하는 이단자들을 우리는 단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은총이요, 초자연적 삶입니다. 그러나 그들에 따르면 영혼은 성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을 망토처럼 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부께서는 오직 그것만 보십니다. 우리는 이단들처럼, 선이 마치 우리 손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살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선물, 대신덕, 곧 믿음, 희망, 사랑과 모든 은총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어떤 사람의 성소 역사를 읽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러한 신뢰를 단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모 승천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도록 이끌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활동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지 말고 겸손해지라는 뜻입니다. 각자는 자신에 대하여 '나는 내적 삶의 사도직을 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을 바

6.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 사용한 이 표현은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제기되었고,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 수학적으로 정의된 물리학의 원칙을 상기시킨다. 곧 끝을 향한 움직임은 더 빨라진다(Motus in fine velocior).

라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자.'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성당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자리는 좁히지 맙시다. 만일 나의 주된 사도직이 내적 삶이고, 내가 오직 이러한 사도직에 전념한다면, 나는 성모님의 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도록 언제나 침묵 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겸손과 신앙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나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직은 특정한 영혼들에게만 허용됩니다. 마리아께서는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지연되던 강생의 신비의 때를 누가 알리셨습니까? 마리아께서 당신의 내적 삶을 통하여 그 때를 알리셨습니까?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내적 삶을 통하여 그 때를 알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고통의 사도직이 있습니다. 영혼 안에 때때로 여러 가지 다양한 뉘앙스의 신비로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대 위에서 희생되어야 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각자에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영혼들을 창조하셨으며, 성 바오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을 통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⁷ 침상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보다 훨씬 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적인 마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의 고통과 침상에서 겪는 사람의 고통은 같지 않습니다. 내적으로 겪는 사람들이 훨씬 더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마리아처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내적인 순교자는 마리아께서 순교자들의 모후이신 것처럼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을 통하여 순교자가 됩니다.

모범의 사도직에 대하여: 먼저 모범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기저기서 수다를 떨뿐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연말에 프리마

7. 1코린 12,4-6 참조.

마에스트라께 결산보고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외적인 일들이 완벽한 성바오로딸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회현과 프라마 마에스트라의 지침대로 행동한다면 완전한 성바오로딸이 됩니다. 어느 수녀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영적 지도자가 회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을⁸ 읽는다면, 자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알게 될 것이고, 상호간의 사랑에 관하여, 청빈에 관하여, 순명 등에 관하여 설명한 글을 읽게 됩니다. 모든 것이 사도직입니다.

얼마나 자주 ‘나는 아무 할 일이 없어’라는 말을 듣게 됩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해야 할 일입니다! 각자는 하느님 면전에서 고독 속에 있음을 느껴야 하며, 다음과 같이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부분인 내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른 이들의 평가나 다른 이들이 판단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기도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부족합니까? 기도입니까, 아니면 활동입니까? 외적인 활동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정신이 부족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내적인 삶이요, 기도를 통하여 얻게 되는 하느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오직 3년 동안 외적인 사도직을 수행하셨지만, 30년간의 사생활 동안 매일 숨겨진 덕을 실천하셨습니다. 내적인 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성부의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마리아에 대한 포기를 의무처럼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내적인 삶을 살아갈 때 사도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사가 개입합니다. 내적인 삶은 모범, 고통,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출판 사도직이 있습니다. 내면성은 외적인 삶을 선행합니다. 곧 하느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느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혼 안에 잘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

8. 원문에는 ‘총회’(il capitolo del governo)로 표현되었다.

것도 할 수 없고, 하느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통하여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하며, 나에게서는 경멸을, 하느님께는 영예를 드리고 싶습니다⁹ a Dio l'onore, a me il disprezzo.” 성녀 프란치스카 상탈께서는¹⁰ 가슴 위에 뜨거운 쇠로 된 십자가를 대셨는데, 우리도 그와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신뢰가 필요합니다. 곧 나는 하느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신뢰입니다. 아무런 외적 사도직 없이 창살을 등지고 살아간 수많은 영혼들은 심판 날에 빛을 발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적 삶의 사도직, 모범의 사도직, 고통의 사도직 등을 보여줄 것입니다.

(나)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하느님께서 오셨을 때처럼 그분이 그렇게 떠나실까봐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은총을 베푸시고 실행하시는 주체가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활동적으로 살았으므로 더는 활동에 나를 내어주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대의 마음을 달아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성모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야 하며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차가 철로 위에서 달려야 하듯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일이지만, 우리가 철로를 이탈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우리에게 철로란 우리 자신에 대한 불신

9. 알베리오네 신부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영성을 이어받은 기도이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나에게는 겸손을”(a me l'umiliazione)이라는 표현을 “하느님께 영예를, 나에게서는 천국을”(a Dio l'onore, a me il paradiso)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1567-1622)는 제네바의 주교요, 교회 박사이며 신앙의 설교가로서, 많은 영성 작품들을 저술했다.

10. 요안나 프란치스카 상탈(Giovanna Francesca Chantal, 1572-1641)은 과부가 된 후 수도자가 되었으며,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인도로 방문수도회(Ordine della Visitazione)를 시작하였다.

과 주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성인이 되게 하는데 그분의 은총이 우리를 동반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상응해야 하고, 생각을 굳건히 해야 하며, 예수 성심 안에 몰입하기 위하여 우리의 '에고'ego를 붙잡아 창밖으로 내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로서 훌륭한 결심을 하지만, 우리 자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중요시해야 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신 선물을 오순절에 나누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더는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물어버립니다. 우리의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긴밀함을 느끼며 “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마리아께 청해야 할 은총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뜻을 완수해야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께서 당신 중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¹¹ 우리도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비천함, 아무것도 아님nulla을 굽어보셨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서는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기셨고, 성령께 온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에 온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시다. “주님,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저를 고쳐주십시오.”

성모 승천 8부 축일은 이러한 정신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곧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도록 놓아두는 것, 다시 말해서 은총을 따르

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성모 성심 축일로 끝을 맺습니다. 성모 성심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기 위한 성작처럼 열린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에고’ego를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께서 활동하시도록 맡겨야 합니다. 이 수도원에서는 어떠한 소죄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당신 자리를 찾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습니다. 적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벗이 되어주시기에, 매일 아침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하여 하느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자 ‘에고’를 버리게 되기를 진정으로 청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2] 마리아처럼 열정을 다해 걸어갈 것

성모 승천은 우리에게도 저 복된 본향에서 당신 가까이 다가가 당신과 함께 기쁨을 누리하고자 하는 염원을 가져다줍니다. 천국에서는 그 어떠한 오점도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순수함, 마음의 순결함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 중 하나에 따라 도달됩니다.] 곧 징벌을 내리기 위해서 또는 악을 교정하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도록 기다리지 않는 예방책, 곧 악을 피함으로써 악을 예방합니다. 긍정적인 방법은 부정적인 부분뿐 아니라, 곧 악을 없애는 것만 아니라, 선을 실현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은 더 큰 선을 실현하기 위해 연구합니다.

천국은 상급이지만, 더 많은 공을 세운 사람과 적게 공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상급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하늘나라에서 울음을 터트리게 된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공덕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덕행을 실천할 기회를 소홀히 했기

11. 루카 1,48.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가족은 다음과 같은 것에 지향을 두고 청합니다. 곧 '제가 가장 완전한 서원, 또는 매일 진보하는 서원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수도서원을 통하여 천천히 [하는 것], 약속을 [행할 수 있지만] 용기, 관대함,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겸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겸손한 이들에게 당신 은총을 허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온갖 사소한 죄를 피하도록 결심합니다. 우리는 연약함 또는 깨어지기 쉬운 본성에 의한 죄를 수없이 범합니다. 성인들도 그런 죄에서 면제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수도생활에서 중요한 열정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수많은 공덕을 쌓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티 없이 깨끗하신 분이셨고, 열정적인 분이셨으며, 관대한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처럼 이러한 덕을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바이올렛 향기와 백합 향기와 장미 향기를 찾게 될 때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제도 제가 상기시켜드린 것처럼, 우리에게서 악을 근절해야 하고,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며, 우리 영혼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느님께 자리를 마련해드려야 합니다. 삶의 끝에서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불신하고 하느님께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키는 것은 우리의 소죄들, 미지근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지상에 집착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작은 악행들을 소중한 것처럼 돌보면서,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지상에 끈끈하게 달라붙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순결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하여 길을 멈춘 채 영향을 받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걸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였습니다. [따라서] 오직 그분만을 찾기 위하여 세상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항상 모든 것 안에서 오직 그분만을 찾아야 합니다. 탐욕의 원인에, 집착에, 교만에, 시기에, 육욕 등의 악습

에 덕행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곧 순결함의 백합, 겸손의 바이올렛, 사랑의 장미의 덕으로 맞아야 합니다. 사랑을 거스르는 감정에 휘말리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생각, 선을 바라는 원의를 지켜야 합니다. 저녁때에 이르러 그날 하루가 덕행의 실천, 겸손의 덕, 애덕의 실천으로 충만함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겠습니까. 악을 행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덕행을 실천하느라 악을 행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축일로 끝맺게 될 이 성모 승천 8부 축일에 순결한 마음, 모든 것에서 이탈된 마음,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느님의 것으로 살게 하는 겸손을 청합니다. 교만은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9. 성 바오로^{Sampaolo} 집 축성과 성당 제막식¹

세 가지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상 스승께 대한 신심을 수도회에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Magister, doce nos!”² 우리는 그분께 어떠한 은총이든 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실 때 여러 가지 종류의 축복을 가져다주셨습니다. 자캐오의 집에 들어가시면서, 베드로의 친지 집에 들어가시면서 구원을 가져다주셨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장모를 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수도원에 오신 스승 예수님에게서 많은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성당에서 와야 하고, 모든 것은 예수님의 발치로 가야 합니다. 불쾌한 일들, 걱정거리들은 그곳에서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향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에, 모든 것이 그곳(성당)에서 와야 하고, 감실에서 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도원에 오신 예수님께 많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베타니아에 있는 라자로의 집에 가셨을 때, 그곳에 사는 모든 이들, 곧 라자로와 마르타와 마리아를 성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초대받아 가신 것이 아니라, 자캐오의 집에 구원을 가져다주셨던 것과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이 집에 들어오시도록 초대하였기에 그분이 들어오시어 당신의 은총을 여러분에게 베풀

1. 1955년 8월 20일에 로마에서 행한 묵상으로, 패션이 그려진 종이(22x28)에 타자로 작성된 4장짜리 원고다. 연대와 저자와 장소는 묵상 끝에 적혀 있다. 손으로 “카스트로 프레토리오”(Castro Pretotio)라고 쓰여 있다. 녹음이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옮겨 적은 것처럼 보인다.

2. 루카 11,1.

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 그분께 다가가도록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내부에 있는 것, 곧 성화를 통하여, 그리고 외부에 있는 것, 곧 사도직을 통하여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위하여 이쪽저쪽에 자신들의 고통을 말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털어놓으십시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할 줄 아십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초자연적 정신에 길들이도록 하십시오.

* * *

1. 우리의 사도직은 분명히 위험들을 동반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일치되어 있다면 모든 것을 하늘의 빛 안에서 보게 되고, 어떠한 해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재앙입니다! 우리의 사도직에 이러한 초자연적인 정신을 늘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도직을 상업으로 여긴다면 재앙입니다! 성당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그러한 느낌을 지니도록, 내적으로 애정을 지니도록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곧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것,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까지도, 고해사제에게 내비치듯이 예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져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할 위험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믿는 위험이 더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국에 이를 때 이러한 잘못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종종 우리에게 공덕을 쌓도록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기회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지닌 자매를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서는 우리의 모

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 * *

2. 오늘은 성 베르나르도 축일입니다. 게다가 이 날은 우리 사도직이 처음으로 축복받은 날로 기억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의 중심에서 이 새로운 사도직, 곧 영화 사도직을 축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중심이라는 말은 거주자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께서 계시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중요성 때문에 세상의 으뜸가는 도시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축일인 역사적인 날에³ 시작한 우리 수도회를 통하여 성 베르나르도를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성 베르나르도께서는 아직도 우리 사도직을 위한 전형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아주 드높은 영성을 지니셨고, 당대에 엄청난 사도직을 실행하셨으며, 대단히 폭넓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내적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사도직을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내적 삶을 집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성바오로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얼마나 많은 선행을 이루는지 모릅니다. 만일 어떤 수녀가 영화 분야에서 직접적으로 일한다면, 또는 어떤 수녀가 건전하지 못한 필름을 광적으로 보는 이들의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그리고 희생하기 위하여 영화를 보는 것을 자제한다면, 그 수녀가 영화 사도직 분야에서 과연 더 큰 선을 이루고, 더 많은 은총과 더 많은 덕행을 쌓고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영화 사도직은 출판 사도직처럼 희생이 요구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없고 또 모든 것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잡지에는 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때때로 젊은이들

을 망가뜨릴 목적의 부도덕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곧 세상을 파멸시키는 것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성이 거룩하면 남성들도 거룩하고, 여성이 훌륭하지 않다면 남성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도직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사도직은 외적인 사도직이지만, 내적 삶에서 나와야 합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는 사람들이 있고, 퇴비를 주고 포도나무를 잘 경작하여 결실을 맺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수확하고자 한다면 먼저 씨앗에 물을 주고, 걸음을 주고, 묘목이 잘 자라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도직 수행에서 위험한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위험들을 마리아의 정신으로 바라본다면 그 어떤 해도 없을 것이며, 오히려 공덕이 될 것입니다. 때때로 좀 정신없이 외적 활동에 힘을 쏟으면서도 결과가 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게 하고, 눈에 띄는 악을 제압할 수 있는 깊은 내적 삶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악의 한가운데를 관통하지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덕을 쌓게 됩니다. 성 베르나르도께서 사셨던 것처럼, 이러한 내적 삶을 산다는 것은 참된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 * *

3. 성모 승천! 어머니가 이미 저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천국에 그분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까? 이 지상에서도 그분 가까이 머무시다. 하늘나라를 열망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저 높은 곳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3. 알바, 1914년 8월 20일.

새길 필요가 있는 수녀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⁴ 때때로 우리의 눈은 지상의 것들로 덧씌워져 하늘나라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마치 색안경을 쓴 사람처럼 모든 것을 검게만 봅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리라”⁵는 약속을 영혼 안에 적어놓은 수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께서 미소로써 여러분을 반기시고 환대하시며, 당신 어머니 곁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수녀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열망, 초자연적인 정신을 알아차리게 되었을 때 저는 얼마나 큰 위안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8월은 천국을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달입니다. 천국의 모델이 되어주는 주님의 거룩한 변모 [축일을 거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분원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위에 계시고 여러분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만일 예수님께서 아래에, 성당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영면에 들기 위하여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영면에 들도록 기도드리십시오. 또한 좋지 못한 영화를 보았기 때문에 범했던 죄를 위하여 연옥에 머물고 있는 수많은 연옥영혼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분원에서 그 누구도 결코 고의적인 소죄 peccato veniale deliberato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아침 미사성제에서 청한 은총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 대하여 항상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소통하실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진보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4. Credo vitam aeternam. ‘신경’ 또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표현.

5. 「성바오로딸수도회 예식서」 p. 43 참조.

10. 묵주기도의 힘과 성소 활동¹

무엇보다 먼저 마리아와 그분의 사도직에 대하여 이야기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곧 오늘은 토요일이고, 또 가족이 모일 때 어머니가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모님께 청합니다. 토요일이라는 사실 외에도, 메르체데Mercede의 성모님 날이기도 합니다. ‘메르체데’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메르체데의 성모님은 마리아께서 저 높은 곳에 계시고 또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자 기다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² 고통dolori과 달러dollari는 낱말이 같습니다. 그런데 저 높은 곳에서는 그 어떤 고통도 없고 달러도 없고 영원한 행복만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섬세하다면, 만일 아주 온순하다면, 만일 청빈을 사랑한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실 것이고, 또 항상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받아주시며 “오소서, 그리스도의 신부여Veni, sponsa Christi!”³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당신 가까이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당신 우편에 계시므로 여러분도 예수님 가까이 그리고 성모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더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묵주기도 성월 준비 또는 축일 9일기도에 들어왔다는 것을 특별히 숙고해야 합니다. 9월은 마리아를 기리는 축일을 네 차례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맞이하는 메르체

1. 1955년 9월 24일에 미국에서 행한 묵상. 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A6/an ac 25a. 친근한 역양의 가족적인 대화 내용, 반복되거나 발전되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에 관한 언급과 때때로 그분의 육성이 녹음되었다.

2. 원문에는 ‘우리는 단지 일하고 있을 뿐 아니라...도 알고 있습니다.’로 되어있다.

3. 동정 마리아 공통, ‘성모의 노래’ 후렴 참조.

데 성모님의 날, 15일에 축일을 지낸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Maria Addolorata)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성모 성명 축일이 있었습니다. 수녀들이 모두 마리아라고 불리기에 모든 수녀의 영명축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아기 마리아의 [축일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역주: 9월 8일의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을 말함) 수녀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아기 마리아에 대한 연민이 있습니다. 그분의 요람은 천사들로 에워싸여 있고, 그래서 수녀들은 천사들과 일치하여 이 요람 주위로 기꺼이 모여듭니다. 그렇지만 9월은 10월, 곧 묵주기도 성월을 준비합니다.

묵주기도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모든 가족에게 유익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개신교 신자들이나 이교도異教徒들이 있는 지역에서 유용합니다. 묵주기도는 이단자들의 [오류]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성 도미니코에게⁴ 묵주를 주셨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알비파 이단자들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알고 있던 모든 수단을 이미 다 사용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오늘날의 개신교 신자들보다 더 지독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조직하고 무기를 사용하여 가톨릭 신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성 도미니코께서는 그들을 개종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리아께 기도하였습니다. 마리아께서는 그에게 묵주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현재와 같은 형태가 아니라 매듭을 많이 만든 끈으로 ‘성모송’을 세어가며 바쳤지만, 묵주기도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의 신비들을 묵상하지는 않았습니 다. 사실 ‘성모송’은 신비들의 진리를 심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성 도미니코께서는 묵주기도를 당신의 무기로 채택하였으며, 묵주기도를 통하여 알비파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항복하여 신앙을 고백하였으며, 다른 이들은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4. 구츠만의 도미니코(Domenico di Guzman, 1170-1221)는 스페인 귀족 출신이며 설교자요, 수도회(도미니코회) 창립자이다. 묵주기도를 통해서뿐 아니라 설교의 무기를 통하여 이단자들에게 대항하였다.

“성모 순례(Peregrinatio Mariae)”⁵에서는 성모님 앞에 티켓을 가져와 찢는 수많은 공산주의자들이 모여듭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오는지! 참으로 감동스러운 일입니다! 묵주기도는 이단자들을 이기기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은 수많은 이단자들을 무찌르고 이단자들보다 더 나쁜 이들을 이기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단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하지만, 교회를 거슬러 오류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들이 그 신부처럼⁶ 이교자離敎者들이라면 반역자들일 것이고, 만일 ‘살아 있는 동안 파문당한 자들’이라면, 이교자들이 아니라 파멸의 길에 들어 선 자들 사이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 신부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는데, 이제 그는 교회 밖으로 축출되었으며, 따라서 파멸의 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같은 길에 서 있지만, 그 신부는 신앙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다른 이들은 신앙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고, 만일 좋은 신앙을 받아들인다면 또한 구원도 받을 것이지만, 반면에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 ⁷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올바른 지향으로 선행을 베풀고 자연법을 준수한다면, 그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모든 프로테스탄 신자들이 파멸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5. 성모 순례는 결정적인 목적을 위하여 기도 안에서 국가, 교구, 본당의 영역을 일치시키는 마리아 신심의 한 형태이다.

6. 레오나드 피니(Leonardo Feeney, 1897-1978)는 미국 예수회 소속 사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신념에 따라 엄격한 입장을 고수하여 교회에서 단죄를 받았다. 결국 죽기 전에 자신의 오류를 철회하였다고 함.

7. 원문에는 ‘그들의 가르침을 거스르면 구원될 수 있습니다. 그 신부에 따르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 밖에 있는 자는 구원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로 되어 있다.

8. 원문에는 ‘이러한 말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으면서, 나쁜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이 없지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의미는 ...’으로 되어 있다.

[...]⁸ 두 가지형태로 교회에 속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지체와 정신, 지체와 정신에 속하는 이들은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정신에 속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좋은 신앙을 지니고 있고, 하느님의 법과 그리스도교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만일 여러분이 좋은 신앙을 유지한다면 구원될 것이나 이 신앙을 거부하는 이들은 구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⁹'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묵주기도는 여러분이 프로테스탄 신자들을 대항하여, 그리고 종교가 없는 이들을 대항하여 채택해야 하는 무기입니다. 이러한 이들이 미국에 얼마나 많습니까? 무종교라고 밝힌 이들이 6천만 명이 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 눈여겨보십시오. 우리는 하느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지만 그분께서 현존해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만일 교육이 부족하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교육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서적, 인쇄물을 그들에게 가져다주고, 특히 거룩하고 섬세한 삶의 귀감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로 여러분의 현존, 검소하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분원에서 분원으로 옮기는 이동은 어느 정도 마리아의 태도처럼 많은 모범을 보여주는 살아 있는 설교가 됩니다. 란두치 신부는 저서에서,¹⁰ 예수님께서 당신의 성성과 완덕의 원칙을 설교하시고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던 신자들은 마리아를 바라보며 거룩한 복음적 권고를 어떻게 실천하였는지 [이해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완덕의 원칙을 이해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께

9. 원문에 '그러나 항상 좋은 신앙을 유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로 되어 있다.

10. 란두치 피에르 카를로(Landucci Pier Carlo), 「복음 안에 나타난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 *Maria santissima nel Vangelo*」, Edizioni Paoline, Roma 1945.

서는 예수님께서서 가르치신 바를 실천하는 살아 있는 책이셨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도 훌륭한 모범으로 실천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묵주기도를 통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시적인 묵주기도를 전할 수 있는 위대한 행운을 지녔습니다.¹¹ 그것은 묵주기도에서 희망하고 기도하도록 초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마리아를 찾는다면, 만일 인류가 마리아를 찾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찾는 다음일 것입니다. 목자들파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 그들은 마리아의 팔에 안겨 있는 그분을 발견하였습니다. 묵주기도를 통하여 또는 적어도 세 번의 '성모송'을 통하여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어디에든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¹² 사람들은 우리에게 곧바로 또는 서서히 다가옵니다. 저는 세 번의 '성모송'을 바침으로써 많은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소에 대한 의혹으로 성소의 길을 따르는 어려움에 직면한 젊은 청년들과 젊은 여성들에게 "종신서원에 이를 때까지, 또는 적어도 수도회에 입회할 때까지라도 세 번의 '성모송'을 바치도록" [제시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직접 그들의 손을 잡고 동반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기도에 큰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더구나 10월에 여러분은 묵주기도를 많이 권장해야 합니다. 이제 이루어야 할 선행과 기도를 위하여 로마에서 지시하는 일반 지향이 있습니다.¹³ 그렇지만 여러분은 특별 지향,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위하여 필요한 지향, 곧 사도직과 프로파간다에 있어서 나라 전체에 침투할 수 있도록 협력자들을 양성하고, 성소자들을 배가시키는 지향을 가

1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 성바로말수도회의 표지는 허리춤에 달고 다닌 묵주가 포함된다.

12. 이 신심은 마지막 인내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아침과 저녁에 '성모송 3번'을 바치고, 이어서 화살기도를 바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13. 매달 '기도의 사도직'에 의해 작성되는 교황님의 일반 지향에 대한 암시일 것이다.

저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지나치게 확장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미국의 한 교구에, 모든 교구에 숫자가 넘쳐서 중국, 인도, 일본으로 파견될 정도가 될 때 비로소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께서는 여러분이 아직 진출하지 못한 나라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지만, 충분한 인원을 갖추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파견해야 할 수녀들이 없다는 사실을 항상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께서는 “세탁물 보관소에 누가 없는지 잘 살피십시오. … 혹시 누가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데려오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칸과 많은 층을 갖춘 가구 대신 수녀를 만드는 공장이라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수녀를 만드는 공장이 되기 위해서 수도회는 먼저 성녀를 만드는 공장이 되어야 합니다. […]¹⁴ 성 바오로께서는 여러분의 성화 작업을 ‘상점^{negozio}’이라고 명명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시한 대로, (조용히 살도록 힘쓰며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제 일을 하십시오.Negotium vestrum agatis.”¹⁵ 다시 말해서 이득을 찾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공덕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점은 바로 이러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곧 성인을 만드는 공장은 일을 사업처럼 다루어야 합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여러분이 성소자들을 찾고, 새로운 성소자와 함께 분원에 도착하는 성공적인 사업입니다. 목주기도를 많이 활용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든 교구에 침투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성소자들을 얻을 수 있기 위하여 하느님께 밀접한 영혼

14.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공장이 영어로 무엇입니까? - Factory, 상점은 무엇입니까? - Store, 그러면 업무는? - Business,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상점을 만들어야 하고, 악마한테서 사람들을 떼어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해야 할 업무입니다.”

15. 1테살 4,11 참조.

이 되어야 하고, 겸손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잘 해낸다면, 모든 곳에서 조금씩 여러분을 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아직 불신이 많고 여기저기서 [여러분을] 반대하는 수군거림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먼저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것은 반대하는 수군거림으로 우리는 충분히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겠습니까?”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께서도¹⁶ 가끔 그와 같이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 복자 펠리체 다 니코시아,¹⁷ 그리고 시복된 지 얼마 안 되는 복자 라코니Laconi께서는¹⁸ 사람들이 그를 모욕하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저를 위한 것입니다. 이제 수도회를 위해서 여러분은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성소의 적은 많이 있습니다. 첫 반대자는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은 때때로 자녀들의 영혼에 성소를 꽃피울 수 있도록 그리스도교적으로 교육시키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하거나, 또는 교육을 아주 많이 받도록 하거나, 또는 빵을 버는 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만 생각할 뿐, 대부분 천국을 얻도록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소의 첫 원수는 많은 경우 바로 부모들이요, 따라서 그들의 원수는 자녀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에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즐길 거리가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유혹과 많은 거짓이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온갖 방식의 핏에 넘어가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손상된 본성이 있을

16. Francesco d'Assisi(1181-1226)는 무분별한 청년기를 보낸 후, 근본적이고 기쁨에 넘친 청빈을 살았다. 프란치스칸 운동을 펼치는 세 수도회의 창설자이다.

17. S. Felice da Nicosia(1715-1787)는 시칠리아 태생이다. 카푸친 수도회 평수사로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지녔다.(역주: 2005년 10월 23일 시성. 카푸친회 소속인 것은 맞지만 수사 또는 평신도로 혼용되고 있다)

18. 성 이냐시오 다 라코니(1701-1781)는 누오로(사르데냐) 태생으로, 카푸친 수도회 수사이다. 탁발을 위해 보내진 칼리아리(Cagliari)에서 그는 “거룩한 아버지”(padre santo, ‘성인 신부님’이라는 뜻)라고 불렸다.(역주: 카푸친 형제회에서 그는 그가 평수사로 입회했다고 소개함. 1940년 시복, 1951년 시성)

니다. 그렇듯 성소에는 원수가 많습니다. 묵주기도로써 이들을 이겨야 합니다! 신앙이 필요한데 그 신앙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성소자가 없습니다.’라고 쉽게 말하기보다는 ‘그렇지만 여기서 저는 성소자들을 어떻게 모아들여야 할지 모르며, 저는 아직 하느님께 받을 덕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아름다운 성소자들은 하늘에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말합시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고 청하십시오.”¹⁹ 다시 말해 기도를 통하여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5,6개월 전에 교황님께서서는 수도자 성소회인 “오푸스 보카시아눔 Opus Vocationum”을 설립하셨습니다.²⁰ 1949년부터 1950년에 이르기까지 교황청은 남녀 수도자들의 성소를 위해, 모든 수도회를 위해 이 회가 필요하다고 늘 언급하셨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교황님의 인준을 받고, 교황님에 의해 설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많은 토의와 어려움을 거친 후에 교황님에게 “수도자 성소회 Opus Vocationum Religiosarum” 인준을 받기에 이

19. 루카 10,2 참조: “Rogate ergo Dominum messis.”

20. 프롬오 마에스트로는 교황 비오 12세께서 1955년 2월 11일에 반포한 자의 교서 *Cum supremae*를 암시한 것이다. 교황께서는 이 자의 교서를 통하여 교황청 수도자 성소회를 설립하셨다. 교황청 수도자 성소회(Pontificium opus Primarium Religiosarum Vocationum), AAS 47(1955), pp. 266, in *Enchiridion della Vita Consacrata*(봉헌생활 연감), EDB, 2001, nn. 2847-2857. 이렇게 교황께서는 수도회성 옆에 교황청 수도자 성소회를 설립하셨다. 내부 회람지 「사도의 모후」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교황청 수도자 성소회는 총장들로 구성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프리모 마에스트로이시다.” RA 7-8(1955) 6-7 참조. 1950년 12월에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제1차 국제 수도회 대회(I Congresso internazionale per gli Istituti di perfezione)에서 성소회(Opus Vocationum)의 필요성을 피력하는 중요한 보고서를 발표하셨다.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이러한 성심회의 시급성을 절감하셨으며, 본문에서 연역하여 알 수 있듯이, 성령의 빛을 받아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연구하셨으며, 그 즈음 ‘성소자들을 위한 사도의 모후 수도회’(Istituto Regina degli Apostoli per le vocazioni)(사도의모후수녀회: Suore Apostoline)를 창립함으로써 구체화시켰다.

르렀습니다. 이제 [이 소식은] 「성바오로 *San Paolo*」지에 실리게 될 것입니다. 성바오로딸수도회의 내부 소식지에²¹ 이미 소개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모두 그 회에 가입하게 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회는] 전 세계의 성소자들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위원회입니다. 심중팔구 잡지도 발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선한목자 본당에서 일하시던 포르나사리 Fornasari 신부님을²² 이동시켜 이 일을 담당하도록 맡겼습니다. 이 신부님은 글을 매우 잘 쓰시기에 특히 이 [잡지] 분야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잡지와 더불어 세 가지 사항을 행해야 한다고 내다봅니다. 곧 첫째, 성소자 모집에 대하여 알리고, 성소자들을 찾아야 하고, 모아야 합니다. 둘째, 각 수도회는 고유한 목적과 고유한 사도직에 따라 성소자들을 양성하기 때문에, 수도회에 따라 좋고 견고한 양성 방식을 통하여, 성소자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살펴야 합니다. 셋째, 기도를 통하여, 조언을 통하여, 그리고 적절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성소자들을 일과 사도직에서 어떻게 동반해야 할지 살펴야 합니다. 각 수도회마다 고유한 측면이 있지만, 모든 수도회에 공통된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먼저 기도를 해야 하고, 그후에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한테 일만 하게 하고 기도하도록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게 될 때, 이것은 수도회에 대한 심각한 비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고 관상하기만 바라는 수녀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Sponsa Christi*」에서 교황께서는 봉쇄수녀들을 포함하여 모든 수녀는 관상을 해야 하며, 노동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수녀들도 일해야 한다는 것을 네 차례에 걸쳐 말씀하셨습니다.²³ 그렇지만

21. 「사도의 모후 *Regina Apostolorum*」, 7-8(1955) 6-7 참조.

22. 에우제니오 포르나사리 신부(1915), SSP.

여러분은 식사 시간인 정오에도 관상을 하시겠습니까? ... 식탁에서 무엇인가를 관상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 왜냐하면 사람은 영으로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²⁴ 수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신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영혼이 취해야 할 것을 영혼에게 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²⁵ 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하느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육신에게 적합한 것을 육신에게 주어야 하지만,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믿어 온 친한 벗마저, 제 빵을 먹던 그마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듭니다.”²⁶ 확실히 음식을 먹고 살이 찌면 육정의 자극을 받게 됩니다. 또 주님을 위해 힘을 쓰지 않는다면 육신은 영혼을 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일 시간을 허비하면 잡담, 비방, 시기, 질투가 생깁니다. [...]²⁷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럴 만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기도에서처럼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윤택하십니다. “영혼과 육신의 성화, 구원을 가져다 주소서 *Salutem mentis et corporis.*” 필요한 만큼, 시각,

23. Pio XII, 「그리스도의 신부」, 봉쇄생활 수도자들을 위한 교황령, 1950년 11월 21일, AAS 48(1951), pp. 5-24, in *Enchiridion della Vita Consacrata*(봉헌생활 연감), EDB, 2001, nn.2244-2245; 2279-2281 참조.

24. 루카 7,33-34.

25. 마태 4,4.(역주: 본문에서 인용한 이탈리아어 성경은 많이 다름. 직역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먹고 마셨고, 살이 찌자 발길질을 합니다.”)

26. 시편 41,10.

27. 원문에는 ‘그렇다면 로아타 신부님이 말씀하셨듯이, 회헌 조항을 공부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는 사람은, 첫째가 되어야 합니다...”’로 되어 있다.

청각, 미각, 상상 등 육신을 성화해야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적인 힘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육신을 착한 자식처럼 다루어야 합니다.”²⁸ 이는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 다음에, 먹을 것을 벌고 천국을 얻도록 사는 법을 배우고 연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소자들에 관하여] 믿음을 가진다면 많은 성소자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많은 성소자들을 양성시켜 다른 나라에 파견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가 이미 현존해 있는 모든 나라에서 다른 지역으로 회원을 파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소자들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요청합니다. 곧 하나의 관구를 설립하기 이전에 이미 명령이 주어져야 하고, 적어도 활기 넘친 다섯 명의 서원자가 생활하는 정상적으로 형성된 본원 *case formate*을 갖추어야 하며, 지원자들과 수련자들에게 정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도직을 위해서 충분한 수단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은 일본, 인도, 이탈리아, 캐나다를 위하여 관대하게 베푸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개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이것은 가장 소중한 도움입니다.²⁹ 여러분 모두는 하느님과 사람들에 대한 참된 사랑이라는 이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 대해 일치하고 있습니다. 곧 세상을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여러분이 이러한 염원을 [마음

28. Barberis Giulio,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생애 *Vita di San Francesco di Sales*, S.E.I., Torino 1944, VIII Edizione, pp. 371-372 참조.

29.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는 이 시기에 특별한 필요가 요청되는 본원들에 물질적 도움을 준 것과 그 보상으로 미국 내에 사도직 확장에 따른 인원을 충당 받은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에] 품고 있을 때 더는 어리석음에 충당할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가끔 머릿속으로 어떤 환상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용기를 가지고] 환상들을 [쫓아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느님의 것이요, 모두 수도회의 것이요,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체선교를 촉진시킬 수 있을지 좀 살펴보십시오. 단체선교를 이미 시작하였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수도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많은 성소자를 맞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을 베풀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지만, 그 돈을 잘 써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여러 나라에서 사도직을 시작할 때 도와주었고, 이탈리아에서도 그랬던 것처럼],³⁰ 특히 사도의 모후 [성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준 것처럼 해야 합니다.³¹ [그럼에도 여러분은 성소자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첫 번째 지향은 사도의 모후께서 많은 성소자들을 여러분에게 이끄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지향은 수녀들이 성녀가 되고, 그다음에 천국,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분원을 보러 그리고 여러분의 서원을 보러 갑시다.

30. 원문에는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 나라로 파견한 이탈리아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초창기에 어느 곳으로든 파견된 이들은 모두 이탈리아인들이었습니다…그리고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나라가 단지 해외로 달려와 고통만 보내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고통도 안겨줍니다…(폭소). 얼마나 많은 프로테스탄 대회들이 여기에 관해 많은 발전을 이루어냈는지 보십시오…프리마 마에스트라께서는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다.(프리모 마에스트로는 확신에 찬 어조로)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몇 달 동안…이탈리아를 회개시키려 갑시다. 프로테스탄 직무를 수행하러 다니는 그 어떠한 사제에게는…달리로 이루어지는 것은 고통입니다…그렇습니다.”로 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글이 본문의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의 요약이다.

31. 사도의 모후 성전 건립에 대한 암시다. 로마에 세우는 성전 건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5년 5월에 시작되었다.(Perego G., *Il santuario Regina Apostolorum*, Roma 1985, p. 57 참조) 이는 전쟁의 폭탄투하 중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로 이루어졌다.(CISP, p. 596 참조) 성전 봉헌은 1954년 11월 29-30일에 거행되었다.

11. 전적으로 예수님을 살 것¹

[1) 사랑과 겸손 안에서]

복음서는 하느님의 책이므로 으뜸가는 책입니다. 복음서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쓰인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생애 동안 행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하느님의 책입니다. 복음서는 주요한 묵상서요, 근본적인 영성서적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복음서를 알고, 묵상하고, 열망해야 합니다. [특히] 복음서에 관한 묵상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매주 묵상해야 할 복음 내용을 우리에게 지정해주지만, 사실은 복음 전체 성 마태오, 성 마르코, 성 루카, 성 요한 복음의 분책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의 생애와 당신의 가르침을 훨씬 잘 알게 됩니다. 합본 복음서나 일 년간 매일 할당된 복음을 읽는다면 훨씬 더 나올 것입니다. 특히 복음서에 교리 해설이 곁들여지고, 전례적인 기도가 수반된다면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복음, 교회의 가르침과 기도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로써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성화시키게 되고, 프로파간다와 사도직을 열망하도록 영감을 받게 됩니다. 사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도직을 [어떻게] 완수하시는지 [말해주고], 또 마리아께서 당신의 사도직을 완수하시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 사도직이란, 곧 예수님을 세상에 주시는 것입니다.]

1. 1955년 [9월 24일-25일]에 보스턴에서 행한 세 가지 월피정 묵상 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이다. 첫 번째 묵상은 A6/an 15b ac 27a이고, 두 번째 묵상은 A6/an 15b ac 27b이며, 세 번째 묵상은 A6/an 16a ac 28a이다. 편집자는 창립자의 생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성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도직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분은 가르치고, 고통을 겪으셨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산다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삶의 일치에 도달할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삶의 행동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바오로딸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간을 위하여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수도회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수도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바울리나의 삶을 아주 잘 산다면 긴밀히 일치될 것이며, 예수님의 삶과 동일시됩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산다는 것은 성 바오로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Vivit vero in me Christus.”²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성체 때 예수님을 모시고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게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활동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말을 들으시기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소통하시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더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당신의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대변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in Christo et in Ecclesia”³ 다시 말해서 복음을 따르는 삶이 되고, 바오로 가족을 승인한 교회를 따

2. 갈라 2,20 참조.

3. 에페 3,21 참조.

르는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설교하셨고, 희생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서는 남녀 바오로인이 당신의 삶을 되풀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바울리나는 제2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⁴ paulinus alter magister.”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정신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되풀이해서 가르칠 때 바울리나는 제2의 스승이 됩니다.

아, 여러분이 기쁨을 더 누리고, 여러분의 사도직에 더 열정을 지니도록, 이러한 사항에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상에 사는 한 우리는 많은 것들에 휘둘리고 때때로 낙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은 단지 우리가 영성체를 훌륭하게 잘 하지 못하고, 복음을 잘 읽지 않으며, 교황과 사도의 근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잘 깨닫지 못할 때, 그리고 마리아의 직분을 이해하지 못하며, 따라서 수녀의 직분, 곧 예수님을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 되풀이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⁴ 두 부분으로 묵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느님의 말씀을 상당히 잘못 해석했던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드들이 가졌던 그릇된 생각들을 고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느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각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체하지만, 실제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하는 프로테스탄들을 썩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당신 자비에 따라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서는 한 사람의 해석자를 세우시어, 몸소 그를 비추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하느님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게 하십니다. 그가 바로 교황님이십니다. 그분은 복음을 이해하시고, 복음을 수호하시고, 복음을 제시하시고, 복음을 해석하시어, 현대

사회의 필요성에 적합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줍니다.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 분은 언제나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침이 없는 성경에 대해 확실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시는 교황님에게 그리스침(오류)이 없다는 확실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의 평온함입니다. 따라서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황님을 당신 말씀의 해석자로 세우셨으며, 또 성령을 보내시어 성경 해석에서 결코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개입하십니다.

인간으로서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가르침은 진정으로 우리를 진리 안에서 그리고 교의에 따라 견도록 보장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윤리적 가르침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신 성성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⁵ 그러니까 거짓된 율법학자들은 주님의 날, 곧 안식일은 병자를 돌볼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병자를 치유하기 위한 기적을 행하지 말아야 하고, 병자들은 축일을 포기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교적 사랑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봉헌된 날, 곧 안식일에 우리가 자비와 사랑의 활동을 완수해야 한다고 가르치며 이를 허용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일지라도 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⁶ 소나 말을 구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이러한 노고를 하는 것이 허용될진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어찌 허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분께 답변

4. 마태 22,34-46 참조. 성령강림 대축일 후 제17주일.(역주: 오늘의 전례력과는 다름)

5. 마태 5,48.

6. 루카 14,5.

할 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확고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만하며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하느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이란 제일 먼저 머리를 숙인 후 ‘비록 제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아주 명확하고, 하느님 말씀의 해석자가 성령에 의해 빛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가톨릭교회와 교황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 몸소 가르쳐주신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은 회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Recumbe in novissimo loco.*”⁷ “예수님께서서는 초대받은 이들이 뒷자리를 고르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뒷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할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 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⁸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십니다.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Recumbe in novissimo loco.*” 이 말씀은 회헌에도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초대할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 그때에 너는 함께 앉아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초대를 하고, 누가 천국에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까?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지상에서 끝자리에 앉는 겸손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서는 천국의 첫 자리를 주실 것입니다. 지혜에 따라서, 활동에 따라서, 우

리의 능력에 따라서, 지상에서 우리가 맡고 있는 지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마음의 겸손에 따라서 천국의 저 높은 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⁹ 천국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공덕에 따라 각자의 자리를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공덕은 많은 방식으로 쌓게 됩니다. 예를 들면, 사도직을 통하여, 지적 활동을 통하여, 육체노동을 통하여 공덕을 쌓게 되지만, 무엇보다 필수적인 것은 마음자세입니다. …¹⁰

우리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주님께에서 은총과 자비를 받아야 할 필요를 많이 느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잘 해내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공덕을 주셔야 할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는] 마음의 겸손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겸손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때때로 지상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영혼들에게, 경시되거나 거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취급받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더 앞자리로 올라앉게*Ascende superius.*” 첫 자리는 가장 겸손하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시고, 둘째 자리는 겸손 안에서 그분을 완전하게 본 받으신 분, 곧 마리아께서 앉으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Ecce ancilla Domini.*”¹¹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지극히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범과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모범을 따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겸손에 대하여 언급하는 회헌을 잘 읽어야 합니다.¹² 사랑과 겸손은 가장 아름다운 꽃, 가장 향기로운 꽃들이 피어나

9. 루카 14,11.

10. 녹취록을 옮겨 적은 사람은 이곳에서 한 부분이 생략되었음에 주목하였다.

11. 루카 1,38.

12. 「성바오로딸수도회 회헌」 1953년판, 170-175조 참조.

7. 「성바오로딸수도회 회헌」 1953년판, 175조 참조.

8. 루카 14,7-9.

는 아름다운 정원처럼 수도생활을 기쁘게 만듭니다. 지상의 이러한 정원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정원을 우리에게 떠올려줍니다. 지상에서 겸손의 덕은 울타리 안에서, 풀들 사이에 숨어 있는 바이올렛을 닮았으므로 오로지 꽃잎과 향기에 의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향기가 그 꽃을 찾도록 이끌어주고, 그 꽃을 발견하고 손에 넣도록 초대합니다.

겸손한 영혼들은 하늘나라에서 그와 같은 향기로운 공덕과 덕성을 풍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께 소중한 이들이 될 것이며 천상 스승께 가장 가깝고, 사도의 모후이신 어머니, 그리고 성 바오로와 가장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그 누구도 이리저리한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녀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두가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고,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의 말씀대로 “모두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온 정신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우리는 이 날을 월피정으로 여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월피정의 첫 번째 숙고는 오늘 아침에 이미 했으므로, 이제 두 번째 숙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기꺼워하신다면 세 번째 묵상은 내일 아침에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청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선종할 수 있기를 청해야 합니다. 월피정은 죽음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그다음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려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마지막 대피정 또는 마지막 피정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의 필요에 관해 잘 성찰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거룩한 결심으로, 진정으로 한층 수도자다운 존재가 되려는 결심,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것이 되려는 결심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수도자는 첫째가는 으뜸 계명을 완벽하게 수행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첫째가는 으뜸 계명입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¹³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모든 이가 주님을 온 정신을 다하여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의 많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 속해 있으면서 서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이 결혼생활은 서로 사랑하기 위한 은총을 배우자에게 주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많은 힘을 기울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수녀의 힘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수도생활의 세 가지 색깔, 다시 말해서 수도생활 깃발의 세 가지 색깔은 어떤 것입니까? 이탈리아 국기는 빨간색, 흰색, 초록색, 이 세 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생활의 깃발을 이루고 있는 삼중의 색깔 또는 세 가지 색깔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지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성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온 지성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색깔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한 부분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한 부분이 아니라, 온 힘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성사 앞에서 천천히, 점차적으로, 마지막까지, 모든 것이 소모될 때까지 타오르는 촛불처럼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 삶과 수도생활 사이의 구분이 있습니다. 수도생활은 바로 그 세 가지 ‘모든 것’(역주: 온 지성, 온 마음, 온 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수녀는 잘 생각하고 기도할 때, 묵상할 때, 예수님과 대화할

13. 루카 10,27.

때, 자신의 경우를 반성할 때, 나는 이미 수도생활을 선택하였으므로 그 삶을 완전하게 살고 완전한 수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떻게 나의 지성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내 지성의 일부분만 드릴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 내 마음의 일부분을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하느님께 대하여, 사람들에게 대하여, 수도회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관심사들을 찾아다닐 수 있단 말인가? 보십시오. 우리는 마음의 분열을 증오해야 하고, 하느님께 대한 봉사에 속하지 않는 여하한 생각도 미워해야 하며, 오로지 천국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방향을 잡지 않은 그 어떠한 수도도 멀리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내일 복음 말씀을 숙고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첫째가는 으뜸 계명은 무엇입니까? *Quod est mandatum magnum in lege? Quod est primum et maximum mandatum in lege?*]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¹⁴ 그 세 가지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수단은 어떤 것입니까? 늘 우리를 도와줄 생각, 가장 효과적인 수단, 이러한 은총을 얻게 해줄 기도는 과연 어떤 것입니까? “모든 언행에서 너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결코 죄를 짓지 않으리라 *Memorare novissima tua et in aeternum non peccabis.*”¹⁵

“모든 언행에서 너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결코 죄를 짓지 않으리라.” 그러나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결코 그 어떠한 그대의 책무, 수도서원의

날에 그대에게 부과된 어떠한 의무도 영원히 위반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고, 봉헌합니다.”¹⁶ 곧 모든 것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포괄적인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마지막 때 *novissimi*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상에서 더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제가 받을 몫이며 제가 마실 잔이신 주님 *Dominus pars hereditatis meae et calicis mei*,”¹⁷ 그분이 바로 나의 몫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내 영혼의 열망이십니다. 나는 오로지 그분만을 찾고, 영원한 상속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상속은 천국으로 이루어지며,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하느님 당신을 차지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오, 주님, 당신께서 저에게 이 상속을 주실 것입니다 *Tu es qui restitues hereditatem meam mihi.*”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란 하느님, 무한하시고 영원한 선이신 분, 그리고 영원한 행복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린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저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도 용기를 내어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¹⁸ 여러분은 모든 것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16. 수도서원의 서원문 양식에서. (역주: 한국어 회현의 서원문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음. “*Tutta mi dono, offro e consacro*”)

17. 시편 16,5.

18. 마태 19,27,29 참조.

14. 마태 22,37-39 참조.

15. 집회 7,36 참조. (역주: 원본에는 7,40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오자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으며, 마음 한 조각도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한 것이며 우리 성소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지성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다른 목표를 향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고, 종말실재를 관상해야 합니다. 만일 '온 지성을 성화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온 지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무익한 생각에서,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께 대한 참된 사랑에 반대되는 모든 생각에서 지성을 정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주시는 주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곧 완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수도자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수도자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모든 헛되고 나쁜 생각들에서 우리를 구해주시기를 청해야 합니다.¹⁹

그러므로 모든 헛되고 나쁜, 그리고 수도생활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에서 지성을 성화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지 않았으며, 또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적절하지 않은 생각이나 환상에 사로잡히곤 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대는 온 정신을 다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모든 부적절한 생각들을 혐오하고, 또 그러한 생각들을 원하지 않음에도 그런 생각들이 다가온다면, 그런 생각들을 쫓아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 어떠한 잘못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익하고 이상한 생각들, 산만한 생각들이 다가오고, 나쁜 생각이 들고, 하느님께 대한 것이 아닌 환상과 우울한 감상주의에 젖어들게 되는 경우 그 모든 것이 늘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은 의지와는 무관하게 많은 생각들에 종속됩니다. 누군가 그러한 산만함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할지라도 많은 경우 극복하지 못합니다. 누군가 한 순간 머리를 제 자리에 둔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곧 '나는 기도하고 싶어, 이제 양심성찰을 잘 하기를 원해 ...' 그런데 이미 정신이 아주 먼 곳으로 가버렸다는 것을 의식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곤 합니다. 악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것은 무익한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 아니라 그것에 동조하는 생각입니다. 무익한 생각들은 사랑을 반대하고, 믿음을 반대하고, 희망을 반대하고, 순명을 반대하고, 수도생활을 반대하는 생각들입니다. 사악한 생각들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나쁜 생각들이고,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고, 가족에 대한 생각들이고, 우리의 수도생활에 생소하고 적절하지 않은 독서나 영화 관람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각들입니다.

온 지성이 주님을 향해야 하며, 주님을 위한 일들을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당에 있을 때나 사도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명령받은 어떤 작업,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는 지성을 사용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잘 수행하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레크리에이션에 임할 때, 레크리에이션을 잘해야 하고, 공동체 삶을 기쁨으로 넘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를 구성하는 모든 것, 말해야 하는 것 또는 글을 써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또 단체선교가 잘 교섭되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수단들을 찾아야 합니다. 흔히 말하듯이, 먼저 우리가 생각들에 관하여 양심성찰을 하게 되면 이어서 감정들, 그리고 말과 활동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생각에 관하여 양심성찰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지성이 참으로 하느님의 것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도생활의 깃발을 구성하는 두 번째 색깔은 '온' 마음입니다. "네 마

19. 성무일도 기도의 시작 기도 "Ab omnibus vanis, perversis et ab alienis cogitationibus."

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서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알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에서, 오만에서, 헛됨에서 마음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고, 안락한 정신에서, 탐욕과 야망에서 마음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분노, 원한, 오해의 감정에서, 그리고 질투, 시기 등의 감정에서 마음을 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감상주의에서, 특별한 우정에서, 그리고 혐오감에서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제6계명을 거스름으로써 주님을 상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험담하기 위하여, 또는 스승들이 듣지 않기를 바라는 사항들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특별한 우정을 맺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은 특별한 우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하는 욕망에서, 지나치게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욕망에서, 자신의 구미와 취향에 대한 집착에서, 그리고 다른 이들에 대한 사항들을 나쁘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자세에서 우리 마음을 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화입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악한 것을 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 방식으로, 세 가지 자세로써, 그리고 세 가지 특별한 행동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취향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 천국, 수도회의 선을 추구하면서 성모님, 성 바오로, 수호천사, 연옥영혼들, 성 요셉, 그리고 이름을 기억하는 성인성녀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도생활은 교황께서 「동정 마리아 *Sacra Virginitas*」에서 말씀하시듯이, 마음의 고독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신량을 위한 가장 강렬한 사랑이므로 메마른 삶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 또는 배우자 간의

사랑과 같은 아주 강렬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²⁰ 교황 비오 12세의 「동정 마리아 *Sacra Virginitas*」는 이러한 관점을 주장하며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끔 제대로 검열받지 않았고,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표현들과 마주치는 서적들에서 오류가 돌출됩니다. 이 때문에 회헌에서도 여러분의 글들, 여러분의 서적들이 두 가지 검열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곧 교구의 검열과 수도회 자체의 검열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첫 번째 검열, 첫 번째 수정을 수도회에서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²¹ 회헌에서는 검열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말하면서 사제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사제들이 검열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²² 하신 말씀은 바로 사제들에게 해당됩니다. 복음 선포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수녀들은 복음 선포에 있어서 사제들의 협력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라디오 방송에서 수녀들은 분명하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라디오 방송에서 용기를 가지고 말하며, 텔레비전 방송에서 어떤 영화 필름과 노래들을 선정하여 방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리활동, 복음과 모든 제작물의 보급, 종교교육에 관한 정기간행물의 보급 활동처럼 복음 선포에 대한 다른 협력도 있습니다.

성모님에 관한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을 왜 만들 수 없습니까? 이러한 점에 관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성모님께서 오실 때,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오십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성모상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20. 「동정 마리아 *Sacra Virginitas*」, 1954년 3월 25일 반포된 교황 비오 12세의 회칙, AAS 46(1954), pp. 161-191, in *Enchiridion delle Encicliche*, vol. 6, EDB, 2003, n. 1022 참조.

21. 「성바오로딸수도회 회헌」 1953년판 265, 267조 참조.

22. 마태 28,19 참조.

그분의 사명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동 곧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은 성체방문, 미사, 영성체에 대한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두 번째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에 관한 것으로서 사도직이 포함됩니다. 사도직에 대하여 열정을 가질 때 삶은 더 진지해지고, 사명감과 수도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백구십구에 해당하는 불평이 사라지고, 적어도 구백 가지의 무익한 생각들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프로파간다 분야에서 창의적이어야 하고, 늘 주어야 하며, 인쇄물을 전하기 위하여 떠나야 하고, 사람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아야 하며, 협력자들을 확보하는 방법 등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사도직에 사로잡히고, 지성이 사도직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신심생활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어떤 일을 해내지 못하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죽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해낼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바오로 가족의 이익을 위하여 제가 아직 충분하게 행하지 못했던 것을 보고 저를 고쳐주려고 했던 우리 수도회의 한 사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는 “제가 보기에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 손을 대시는 일들은 매년 조금씩 이루어집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협력자회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성을 갖춘 협력자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할 뿐 그들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우리의 활동을 지원 하는 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오리오네 신부의 벗들 *Amici di don Orione*이나 살레시오회의 협력자들은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위원회나 협력자들을 갖추어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부금 *offerte*(역주: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는 기부금을 말하지만, 사도직 차원에서 도서가격 *offerta-prezzo*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

쩌면 여기서는 기부금이라기보다 사도직의 이익금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음)에 서만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기도와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권의 책을 쓰는 것과 같고, 또는 정기간행물들과 단행본들의 보급센터 책임 직책을 맡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것은 환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병원을 짓듯이, 선행을 베풀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교황께서도 이러한 것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곧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Veritatem facientes in caritate*”,²³ 사랑을 위하여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수도생활 깃발의 세 번째 색깔인 ‘모두’는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내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온 힘이 성소활동, 선교활동으로 흘러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직이 잘 이루어지도록, 성소가 급증하도록 하느님의 말씀을 한층 폭넓게 보급하기 위한 수단들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모든 것을 이탈리아에서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따라서 총본부에 큰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 수도회, 모든 통솔이 [거기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무엇보다 먼저 영성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은 수도회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성소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사도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주님께 이미 봉헌한 사람들의 성화와 또 그렇게 하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성화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윤리적인 힘도 스스로 성화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모든 것이 함께 전력투구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곧 교리교육, 수도생활을 위한 교육, 사도직을 실행할 방법에 관한 교육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성을 통하여 사도직을 실행해야 하고, 여러분이 전해야 하는 서적을 읽어야

23. 예페 4,15 참조.

합니다. 만일 읽을 수 없다면, 신간소식, 요약, 서문, 색인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주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약국에 가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약병을 찾아 마시세요.'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당신을 위한 이와 같은 처방전이 있으므로 그 알약과 그 물약을 찾아야 하고, 당신에게 필요한 이런저런 요소를 주사로 투약하거나,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수녀는 의사처럼 각 사람에게 알맞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유보된 서적들을 아거나 젊은이에게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약혼자들을 위한 책을 어린이들에게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적인 힘을 통하여 한층 더 교육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고, 상호 교정, 공동 묵상, 좋은 충고,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지침이 되는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로와 용기의 말이 필요한 시기를 잘 넘기지 못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우리 모두는 자신의 크고 작은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럴 때 빛이 되는 말, 위안을 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결코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자비의 일곱 가지 활동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육체적인 힘을 모두 쏟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열 가지를 위한 건강을 갖추고 있고, 다른 사람은 여섯 가지, 또 다른 사람은 두 가지를 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우리 각자는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열에 해당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홉을 주고, 다른 사람은 둘에 해당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둘을 준다면, 하느님 앞에서 공덕이 더 큰 사람은 열을 가지고 있는데 아홉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둘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둘을 모두 주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각자 안에 얼마나 많은 은총이, 얼마나 많

은 빛이, 얼마나 많은 육체적인 힘이 있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그분께 유보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 우리의 힘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접시를 닦을 수 있다면, 또는 청소를 할 수 있다면, 만일 그 짐을 옮길 수 있거나 자매와 나누어 들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더 얻게 됩니다. 삶에 도움이 되는 수천 가지 일들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곧 어떻게 바느질을 할지 그리고 어떻게 요리할지, 어떻게 지출을 할지, 어떻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어떻게 제의방지기 일을 할 것인지,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위한 꽃들을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꽃꽂이를 할 것인지 등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결코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백 번 또는 천 번 옷감을 가져다 놓고서도 어떤 천인지 여전히 알지 못하고, 내일이 와도 그 옷감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모를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배워야 할 필요가 있고, 유능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 줄 모른다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매가 다만 프로파간다만 배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전문화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한 사람이, 한 수도자가 말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힘을 드려야 하고, 필요한 휴식과 필요한 음식, 필요한 레크리에이션을 취해야 하지만, 늘 하느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재충전하려는 지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일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릴 때부터 일하는 것을 배웠고,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도맡아 했으며, 고생하는 일에 이미 익숙해진 사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소자들 사이에 우리에게는 사도직에 속하는 이러한 노동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때 성소를 허망하게 또는 충동적으

로 잃는 일이 [쉽게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수도생활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에 만일 노동에 익숙해 있다면, 그리고 갈수록 이러한 습관을 들여간다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힘을 기울이는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열 명 중에 여섯 명 이상을 얻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들에게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가 쇠약해지고 병에 걸리고 그래서 돌봄을 받는 처지가 될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수도회를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사도직을 위하여 바칠 수 있습니다. 더는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고통을 겪으면서 그리고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과 내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수도회와 사람들에게 여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 수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Sine sanguinis effusione non fit remissio.*”²⁴라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가 아닙니다. 희생이 없는 선행이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희생은 여러 가지입니다. 의지의 희생, 손의 희생, 노고와 사랑의 희생 등.

그러니까 수도[생활]은 세 가지 ‘모두’를 통해 구별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성경 구절을 잘 읽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 또한] “나는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Cursum consummarvi.*”²⁵라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이러한 은총을 청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에게 행하라고 주신 바가, 저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제가 실행하기를 원하신 바가 이루어지고 마무리되게 하소서.’ 스승 예수님께서도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성부께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Consummatum est.*”²⁶ 곧 ‘저에게 행하도록 하신 바를

저는 실행하였고, 저에게 주신 잔을 이제 저는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셨습니다.’ 따라서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inclinato capite, emisit spiritum.*”²⁷ 최대의 순명 행위로 고개를 숙이시며,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 생명을 바치시고, 숨을 내쉬시며, 성부의 영광 안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숨을 내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셨습니다 *Propter quod et Deus exaltavit illum...*”²⁸ 이것이 현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돌아가시면서, 거기서 천국으로 나아가십니다!

[3]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 저녁에, 오늘 복음을 특히 세 가지 주요 부분에서 숙고하였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²⁹ 또는 ‘목숨 *anima* 을 다하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서는 ‘온 힘을 다하여’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다하여’와 ‘온 힘을 다하여’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거행되는 미사 독서에 나오는 서간을 숙고해봅시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

24. 히브 9,22 참조.

25. 2티모 4,7 참조.

26. 요한 19,30ㄱ.

27. 요한 19,30나.

28. 필리 2,9 참조.

29. 루카 10,27 참조.

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³⁰ 서간의 이 내용은 복음과 잘 연결됩니다. “둘째도 이와 같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³¹ 그리고 성 바오로께서는 이 서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설명하시고, 당신의 말씀에 더 큰 힘을 실어 주기 위하여, 이 편지를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에페소 신자들에게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이민족 여러분을 위하여 수인이 된 나 바오로가 말합니다 *vincustus in Domino*.”³² 그분은 고백하신 바와 같이 수인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셨으며, 따라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에 대한 계속적인 선포를 위하여 쇠사슬에 묶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 말씀에 힘을 주십니다.

사도께서는 주님의 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한편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신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는 특별한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라틴어는 ‘여러분에게 맹세합니다.’라는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³³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소에 따라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소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성소란, 말하자면 성성을 향한 성소입니다. 회헌 제1조에서 우리의 목표는 수도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완덕이고, 회헌 제2조에서는 사도직에 대한 성소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 바오로께서는 우리 성소의 정

신 안에서 나아가고, 걸어가기로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곧 우리는 성성과 사도직에 부르심 받았습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성성에 이르고, 사도직을 풍성하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사도께서는 그 조건과 마음자세를 제시하십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조건은 “...아주 겸손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교만하게 된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더는 아무 소용이 없고, 음식에 맛을 내지 못하는, 쓸모없는 소금입니다. 한 영혼 안에 교만이 스며들 때 모든 것이 끝납니다. 다시 말해서 완덕도 없고 사도직의 풍성한 결실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무엇인가 할 수 있겠지만, 영혼 안에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하며, 영원한 생명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행해진] 외적인 일들에 불과합니다. 겸손은, 마음의 겸손은 하느님께서 모든 선물을 주셨다고 생각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믿지 않도록 하며, 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머리 위에 당신 손을 드리우시는 주님께 청하게 합니다. 겸손은 무엇보다 먼저, 모든 것에 우선적으로 주님의 은총을, 그리고 특히 우리의 성화에 관한 은총을 길어옵니다.

그리고 ‘온화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때로 요란하며 시끄러운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려 하고, 모든 이에 대하여 자신의 판단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대하십시오! 관대하다는 것은 참을 줄 아는 것, 항상 친절하게 대할 줄 아는 것,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때 우리의 견해를 말하고 싶은 것을 기다리는 것, 그들의 생각이 좋은 생각일 때 수용하는 것, 그리고 다른 이들의 교정과 건설을 위해서 자기 생각이 좋다고 인정할 때 자신의 생각을 제시할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관대함으로 다른 이를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수녀들이 있고, 또 모든 분원에서 ‘그 수녀님

30. 에페 4,1-6.

31. 마태 22,39.

32. 에페 3,1.

33. 에페 4,1.

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받는 수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러한 수녀'가 많아질 수 있다면, 한 명에서 백 명으로 늘어난다면, 백 개의 분원을 만족시킬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숙고해야 하기 때문에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평화, 평온을 가져오고, 언제나 용기와 기쁨을 가져오는가?'[라고 자문해봅시다.] 바로 이것이 관대함입니다!

더구나 성 바오로께서는 “…인내를 가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직과 공동체 생활에서, 수도가족의 내밀한 삶에서 훈련해야 할 인내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첫 수도가족을 이루신, 예수님과 요셉 성인과 성모 마리아, 이 세 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인격 사이에 혹시 참아야 할 것이 없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분들은 인내로써, 고통을 겪음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원자로서, 마리아께서는 공동구원자로서, 그리고 요셉 성인께서는 구원의 협조자로서 인내하셨습니다. 인내는 성인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없이는 우리가 천상 스승을 따르지 못하지만, 인내를 잘 할 수 있다면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³⁴ 우리는 천국을 대단히 좋아하지만, 천국에 이르는 길은 좁고, 따라서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특수 교회 신자들에게 향하셨고, 인내를 실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십시오.”(역주: 에페 4,2; 콜로 3,13 참조)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기를 청합니까? 물론 더 많이 청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다른 이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분원들이 평온 안에 화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는 성 바오로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

34. 마태 16,24.

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역주: 에페 4,3 참조)

이러한 인내는 꼭 필요한 것인데, 비난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만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사랑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결점이 없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함께 어울리게 되면 […] ³⁵ [결점이 합쳐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인내가 많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어느 수녀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 집에서는 가족이 33명이었는데, 그 시절에 가끔은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서로 사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늘 가족들 간에 평화를 유지시키는 어떤 힘을 지니셨어요. 제 형제들은 조카들까지 있었는데, 아무도 분가하기를 원하지 않았답니다. 분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말예요.’

우리 수도자들 사이에서는 어찌하여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가정처럼 지낼 수 없습니까? ‘이 수도원의 평화를 위해서는 분란을 일으키는 [이 수녀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청빈과 정결과 순명을 서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삶을 회현에 일치시키기를 원하기에, 다시 말해서 공동체 삶을 살기로 한 것이므로 결코 그러한 동기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³⁶

공동생활은 생각의 일치요, 마음의 일치요, 청명한 생활이요, 고요한 삶이며, 평화의 삶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더는 공동생활이란 없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미래는 어떤 생활이 되겠습니까? 어느 분원에 두 명의 수녀가 있는데, 그 중 한 수녀가 오후 1시에 식사를 하면, 다른

35. 원문에는 ‘만일 두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네 부분이 되고, 또 만일 여섯 명이 있다면, 결점은 열둘이 될 것입니다.’로 되어 있다.

36. 「성바오로딸수도회 회현」 1953년판, 170-175조 참조.

수녀는 그와 마주하지 않도록 먼저 식사하려고 하고, 또 만일 다른 수녀가 먼저 식사를 하면, 그 수녀는 오후 1시 15분에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수도생활의 원칙인 사랑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러한 단계(공동생활)에 도달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결코 완덕의 원칙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완덕은 영원히 남게 될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가 천국으로 가지고 가야 할 유일한 덕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신의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며’, 모원과 일치하고, 총본부와 긴밀히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 평화의 끈을 통하여 자매들 사이에 긴밀히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몸도 하나이고 정신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의 법인체 *corpo morale*, 하나의 사회, 하나의 수도회를 이루어 성바오로딸수도회라고 불립니다. 하나의 수도회는 모든 사람이 각각 하나의 몸을 형성하는 법인체입니다. 수도회의 정신은 오직 하나이며, 여러분이 회헌에서 받게 되는 지침도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회헌이 말해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오직 한 가지 희망으로 부르심 받았습시다. … 여러분의 성소에 대한 희망으로.” 그리고 목적이 유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희망으로 수도회에 입회하였습니까? 성녀가 되는 것과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곧 이러한 생각과 열망의 일치를 사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이러한 점을 심오하게 설명해주시지만, 여기서 당신의 모든 생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학에 대한 긴 논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단순한 우리에게는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하며, 우리는 신학 대신에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믿음도 오직 하나요, 세례도 오직 하나입니다.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모든 이의 아버지이시며, 그분은 모든 이 위에 계시며, 모든 이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심오한 내용입니다! “하느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모든 이의 아버지로서, 그분은 모든 이 위에 계시며, 모든 이 안에

서 활동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세세에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아멘.”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는 좋은 한 가지 결심을 하고 또 수도 가족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도록 주님께 은총을 구합니다. 때때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사도직에 관해서도 우리는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가르쳐야 하며, 아직 가르쳐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무엇인가 말할 때 여러분은 ‘그렇다면 왜?’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학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설명하기 위해 그들에게 질문과 답변을 하셨을 때 당신 지혜의 면모를 보여주셨고, 당신이 앞으로 살아가실 삶의 모습을, 복음을 전파하는 소명을 증명해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께서 그분을 되찾으셨을 때 마리아께서 그분께 “애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Et non intellexerunt*.³⁷ 결국, 많은 일을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일들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제가 출판물에 대하여, 라디오에 대하여 그리고 영화에 대하여 초창기 수녀님들에게 말했다면 그분들은 알아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수녀님들은 준비가 덜 되어 있었으며, 준비를 갖추도록 강요되지 않았습시다. [아직] 양성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실천할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³⁸

37. 루카 2,46-50 참조.

38. 이 부분에서 녹음이 중단되었다.

12. 온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할 것¹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소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 성소는 여러분의 삶에서 세례성사 다음으로 가장 큰 은총입니다. 세례성사 다음으로 가장 큰 은총이라면, 우리는 마리아와 함께 ‘마니피캣’을 부르며 감사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성소에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지상에서 살아가야 할 삶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성소요, 천국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제시해주신 그 길을 통하여 천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의 확고한 결심이 생겨납니다. 곧 ‘나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언제나 모든 것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도생활을 진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어도 조금이나마 잘 이해하도록 강구해봅시다. 수도생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표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 삶과 구별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² 세 가지 ‘모두’가 수도생활을 구성해줍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하느님께 봉헌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걱정합니다.”³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하나의 가정을 꾸리는 사람은 가족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하느님도 생각하겠지만, 많은 경우 가족의 일을 더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봉헌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하느님 안에 확고히 세우고, 모든 사랑을 쏟습니다. 그 대신에 한 가정을 형성

1. 1955년 9월 [27일]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행한 묵상. 자기(磁氣)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A6/an 14b ac 25b.

2. 루카 10,27.

3. 1코린 7,34 참조.

하는 사람은 배우자 간에 의무를 지니는 다른 열망들, 다른 욕망들, 다른 감정들을 가지게 되어 결국 온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수도생활을 선택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하여 그분을 섬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삶의 모든 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자신의 모든 건강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지적 에너지와 윤리적 에너지와 육체적 에너지를 하느님께 봉헌하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립니다. 수녀는 수도자이므로 모든 것이 수도생활이 됩니다. 나무의 열매들은 나무에 상응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과나무를 가지고 있다면 사과를 소출하게 됩니다. 수도자에게는 그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활동이 수도자의 활동으로서, 매번 두 가지 공덕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모두' 곧 온 정신, 온 마음, 온 힘은 참된 수도생활을 형성해줍니다.

오늘 저녁에는 첫 번째 부분을 설명하고 묵상해봅시다. 곧 온 정신을 다하여 주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심 서적에서 '주님, 저는 제 온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라는 구절을 아주 쉽게 읽거나 듣게 됩니다. 정신을 교육하기보다 감정을 더 자극하는 서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제일 먼저 하느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주님께 가야 하는 첫 번째 것은 머리, 곧 정신입니다. 정신이 앞서지 않는다면 마음은 그 자체로 장님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 주님, 온 정신을 당신께 바치오니, 정신을 다하여 당신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임은 성경에서 명확해집니다. "네 정신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역주: 원본에 따른 번역이므로 성경 인용과는 사뭇 다름) 그러나 어찌하여 이 최고 계명의 첫 번째 부분이 정녕 "온 정신을 다하여"입니까? 왜냐하면 정신이 인간의 가장 고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첫 번째 선물은 바로 머리의 선물, 지성의 선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제일 먼저 정신을 바치

는 대신에 그 자체로 장님인 마음을 바치기를 원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실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마음의 감정을 이해하지만, 성 토마스께서는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먼저 정신의 일치에 있고, 그다음에 하느님과 의지의 일치를 이룬다는 설명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신앙은 한 영혼에게 있어 사랑의 첫 번째 행위입니다! 따라서 거기서 무엇이 나오니까? 정신이 없이는 그 누구도 결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어떤 행위가 악할지라도, 만일 행하려고 하는 바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또는 주의하지 않는다면 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정신이 없이는 그 어떤 공덕 또한 쌓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만일 그대가 밤에 일어나 성당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졸음 속에서 묵주기도를 바친 후 다시 잠자러 간다면, 우선은 의식하지도 못했고 또 기도를 바치고 싶다는 원의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덕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계명인지 한 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명들은 모두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계명이 명하는 것에서 금지되는 것을 포함하고, 긍정적인 부분은 지시하고 명령한 것이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계명, 곧 "네 정신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첫 부분에서는 무엇을 금합니까? 나쁜 생각들, 헛된 생각들, 우리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생각들을 금합니다. 세 가지 사항입니다. 「성무일도서」에 표현된 것처럼, 주님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바칩니다. "모든 헛된 생각과 나쁜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에서 저희를 구하소서^{ab}

4. 토마스 데 아퀴노(1225-1274)는 캄파니아(Campania) 태생으로, 도미니코 수도회 사제이며 교회 박사다. 철학에 대하여, 신학에 대하여, 그리고 수덕신학에 대하여 많은 글을 썼다. 그의 대표작은 「신학대전 *Summa Theologica*」, 「반이교도론 *Summa contra Gentiles*」이다.

omnibus vanis, perversis et alienis.”⁵ 반대되는 생각이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분에 적합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헛된 생각들은 쓸데없는 소식들이요, 기도 중에 생기는 분심과 상상들입니다. 헛된 생각들은 야심과 명예욕에 관한 생각들입니다. 헛된 생각들이란 나쁘지는 않더라도 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을 말합니다. 영원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이 헛되고 쓸모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떤 두려움이나 욕망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매우 무익합니다! 주님께 서 우리를 헛된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에서 구해주셔야 합니다. 나쁜 생각들은 신앙을 거스르는 생각들이므로, 여러분은 프로파간다를 위해서도 신앙에 관한 명확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나쁜 생각들은 희망에 반대되는 생각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자신의 힘을 과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결코 성녀가 되지 못할 거야. ...’ 하면서 계속적으로 절망에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성녀가 되려는 결심을 한 편에 밀쳐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반쯤 절망에 빠져 있으므로 성령을 거스릅니다. 무분별한 의심, 경솔한 판단 같은 악한 생각들은 애덕을 거스릅니다. 또한 순명을 거스릅니다. 곧 ‘이러한 것은 제대로 된 명령이 아니고, 저러한 것은 이런 식으로 지시해서는 안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들은 아름다운 덕성에 반대되고, 겸손에 반대되고, 진리에 반대되는 생각들입니다. 착각에 빠진 사람들, 대단히 자만하는 사람들, 무엇이든 된 듯이 믿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들입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부족한 것과 다른 이들에게 부족한 것에 대해 따지는 사람들은 늘 자신들이 더 우월하게 여겨지는 점을 찾아냅니다. 이

5. 성무일도 기도의 시작기도이다.

러한 생각들은 무익한 생각이거나 우리의 성소와 무관한 생각들입니다. 기도를 잘 하지 않을 때 산란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양심성찰을 게을리할 때, 한 가지 일을 하고 또 다른 일을 생각할 때,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런저런 조건에 처해 있다면 할 수 있었을 일을 생각할 때, 또는 다른 길에 대한 가능성을 재고할 때, [이러한 생각들은 모두] 우리의 성소에서 반대되는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신분의 선택이 잘한 것인지 자주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서원을 한 후에는 [그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결코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미 수련기에 들어갔다면 확고한 결심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련기의 일부분조차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것은 세상의 생각들입니다! 수많은 무익한 소식을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많은 무익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많은 호기심은 정말로 해로운 것입니다. [그 대신에] 바오로적 삶에 관한 것, 회헌에 담긴 삶에 관한 내용, 사도직에 관한 것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책에서 말하기를, 많은 것을 알지만 자신들의 성화 활동과 사도직 활동에 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수도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가끔 ‘만일 뉴스를 알고 싶다면, 봉쇄 수도원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늘 많은 정보로 넘쳐납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갈 때 분명히 많은 것들을 듣게 될 터인데 그것들이 때로는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들이기도 하고 약간 해롭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것들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주님께 부탁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선택한 삶이요, 이제 우리의 생각들은 성화와 사도직에 관한 것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헛되고, 악하고, 무익한 생각들에 멈추어 서는 것을 우리에게 금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 ⁶ 피할 필요

6. 원문에는 ‘필요한 사항들을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 배우지 않는 것’으로 되

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수도생활에서 우리가 배우도록 명령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 전례, 구원 역사, 교회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리아의 생애, 성 바오로의 생애, 신약성경 전체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수도자] 신분에 관한 것과 편집에 관한 것을 배워야 하고, 진지한 공부를 통하여 준비해야 하고, 자발적으로 학교에 가서 수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배우기 위하여 모든 시간을 활용해야 합니다. 배움에 관련하여 우리는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을 출판하므로 이런 매체들이 우리에게 좋고 적합할 때, 서원 사도직에서나 프로파간다 사도직에서 적절하게 다루고 권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일부분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책의 서론과 목차라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편집 사도직이나 기술 사도직과 프로파간다 사도직을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회현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수녀님의 영적 지도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서원하기 전에 영적 지도를 자주 잘 받았다면, 서원을 한 후에는 회현을 으뜸가는 지도자처럼 여겨야 할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인도가, 영혼의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회현을 준수한다면, 그 수녀님은 성녀가 됩니다. 만일 회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방법들을 찾더라도, 그리고 수많은 지침들을 가지고 있어도 결코 성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에 하나의 뜻, 곧 하느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현은 교황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도회에 적용된 복음입니다.⁷ 우리는 회현 안에 해석되고

어 있다.

7. 이러한 확신은 1961년의 대피정 코스 동안 훨씬 극명한 방식으로 다시 취하였는데, 다음 작품에 게재되었다. 「성바오로딸들에게-1961 회현설명 *Alle Figlie di San Paolo-Spiegazione delle Costituzioni*」(서울-성바오로딸수도회) 194쪽에는 다음과 같이 분

적용된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수덕신학을 배워야 합니다. 곧 덕성 안에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점들을 수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성격을 고쳐야 하는지, 어떻게 믿음을 얻어야 하는지, 어떻게 희망을 실현시켜야 하는지, 참된 사랑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추덕과 나중에 수도서원으로 바뀌게 된 복음 삼덕이 잘 스며들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관하여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지성의 낭비는 큰 죄가 됩니다. 아마도 가장 자주 범하는 죄에 해당되지만, 이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어떤 생각이 비록 나쁜 생각이더라도 깨닫지 못한다면, 분명히 죄가 아닙니다. 만일 나쁜 생각이 스칠 때 이를 쫓아버리려 애쓰다면, 나쁜 생각이 자리 잡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는 우리의 의지가 지성 위에 직접 군림하지 않고, 소위 정치적으로(흔히 말하는 정치가 아니라 다른 사항에 해당됨)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죄가 의지의 내적인 동의를 통하여 지성에서 범하게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죄는 언제나 외적인 것보다 먼저 내적으로 이루어지고, 공덕도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세 번째로 묵상에 집중하도록 지성을 교육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은총입니다. 때때로 기도하는 일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는 경우가 있는데, 영혼이 모든 외적 사항들을 잊고 온전히 집중하여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께 대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청을 드립니다. 묵상에 전념하고자 기도하려 갈 때, 제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하느님께 맡기며, 예수님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때때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묵상에 전념하도록 모든 면에서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우리

명하게 표현되었다. “비오 11세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현은 삶에, 여러분의 삶에, 수도자의 삶에 적용된 복음입니다.’”

의 지성과 정신을 집중시켜야 하고, 특히 기도에 몰입해야 합니다. 묵상 중에 우리 자신을 집중해야 하고, 양심성찰을 할 때 우리 자신에 집중해야 하며, 성체방문 때 우리 자신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부 회람지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성의 성화에 관한 아주 긴 글이 실렸습니다.⁸ 모든 사람이 이 글의 가치에 중요성을 두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글에는 정신을 집중하기 위한 많은 수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묵주기도를 바칠 때 묵주기도 15단의 신비 장면을 묘사한 상본을 앞에 두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잉태한 첫 번째 신비를 가정해보면, 아주 쉽게 정신을 집중하게 됩니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마리아께 관해, 그분의 자세와 그분의 겸손과 신심 깊은 태도에 관해 집중시키고, 마리아께 나타난 천사에 관해, 천사가 그분께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천사가 그분께 드린 말씀, 그분께 드린 설명에 관해,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께서 하신 대답에 관해 집중시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Ecce ancilla Domini.*”⁹ 그러므로 그 신비에 관한 묵상의 요소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묵주를 꺼내어 묵주기도를 바치십시오. 어떨 때에는 외부에서 어떤 깊은 인상을 받거나, 또는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을 때 ‘십자가의 길’ 기도를 묵상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제 1처 또는 제 2처를 표현하는 그림 앞에서, 그런 다음 모든 처, 여러 그림 앞에 머물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중할 수 없을 때는 한 권의 책을 읽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때때로 책을 많이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대신에 책을 조금 읽는

8. RA 11(1954) 1-8; 12(1954) 1-2; 1(1955) 1-7; 6(1955) 1-4 참조: “네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in Alberione G., 「복음을 위한 몸과 마음 *Anima e Corpo per il Vangelo*」(서울-성바오로딸수도회), 19-139쪽 참조.

9. 루카 1,38.

데 영혼이 완전히 몰입될 때에는 이미 하느님과 친교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더 나아가지 말고 읽은 내용을 음미하며 하느님과 밀접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성령께서는 특히 은총에 온순하며 주님께 관대한 영혼에게 성령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맡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일종의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이신지 또는 마귀의 유혹인지 식별해야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은 우리를 순명과 공동생활의 준수로 이끌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를 이기주의, 특권주의로 이끌며, 근본적으로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 자신에 대해 신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잘 교육하는 것은 ‘나는 이러한 나쁜 생각이 사라졌으면 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생각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좋지 않은 그러한 생각이 사라지기 힘들다면 덮어둘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에게 사라지라고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도 없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그 대신에 좋고 거룩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여기서 모든 것이 어둡고 캄캄하다면 여러분은 그 어둠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러한 어둠이 사라지도록 빗자루나 먼지떨이로 쫓아내야 합니다. ... 어둠은 항상 남아 있기 마련입니다. 크게 근심하는 대신에 전기모터의 시동을 켜면 빛이 모든 어둠을 쫓아버립니다.

우리 지성에 대한 교육에서도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온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하느님의 사랑은 첫째가는 으뜸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느님 사랑의 세 부분 중에서 첫 번째요, 최고의 부분은 정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주님께 우리의 지성을 일치시키기 시작해야 하고, 하루 일과

를 거룩한 것을 생각하면서 끝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하여 깨어있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눈에 대하여 그리고 들음에 대하여 깨어있기가 어렵지만, 지성에 대하여 깨어있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¹⁰

* * *

하느님의 뜻은 언제나 지혜와 사랑 안에서 결정됩니다. 하느님께서 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모두 흘리셨으며, 당신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공덕을 얻기 위하여 피를 흘리기까지 희생하였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진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싸워라.”¹¹ 그대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그대의 성화를 위하여 희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완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머리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내리기를 바라며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도’ 중심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¹²라는 구절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수도자들은 마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천사들처럼 되어야 합니다. 수도자들은 세상의 진흙탕을 찬양하지 않고 살아가는, 하느님의 뜻을 기쁘게 완수하는, 따라서 그들의 마음을 지상에 두기보다 이미 천상에 두고 살아가는 지상의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당부해야 하겠습니까? 프리마 마에스

10. 여기서부터 목소리 톤이 바뀐다. 주제가 지성에서 의지로 넘어감. 다른 묵상인 것으로 보임.

11. 집회 4,33 참조: “Agonizare pro anima tua”(불가타). (역주: 집회 4,28에 나오는 구절로서, 불가타역본도 확인 결과 4,33에 ‘agonizare pro iustitia’로 되어 있음)

12. 마태 6,10 참조.

트라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일러주신 모든 것을 행하려는 지향뿐만 아니라 성소자들도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녀들은 하느님 백성과 성직자, 곧 주교, 사제, 교황님 사이에 연합 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수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 수가 거의 7백만에 육박하고 있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각 본당 또는 아직 본당으로 [승격되지] 못한 지역의 각 단체에 필요한 소규모 핵심 수녀 공동체를 위한 숫자가 7백만입니다. 아프리카 지역과 인도 지역 그리고 동양의 많은 지역의 대부분은 본당이 없습니다. 인류의 반 이상이 동양에서 살아갑니다. 그 인구가 13억에 이릅니다. 동양을 생각하고, 동양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을 제외한 세상의 인구는 단지 12억에 불과하니까 절반이 좀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곧, 인도, 미얀마, 오스트레일리아, 보르네오, 뉴질랜드 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동양에는 많은 섬들이 있습니다. 필리핀에만 7천여 개에 달하는 섬이 있는데, 그중에는 무인도도 많습니다. 일부 섬들은 외떨어져 있거나 암초가 있기 때문에 거주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성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고, 성소자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고, 성소자들을 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얼마나 큰 사명입니까? 여러분을 성녀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영혼들을 하느님께 이끌어 그분을 섬기도록 봉헌하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들, 믿지 않는 이들과 이단자^{heretici}들에게도 빛을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아주 소수에 불과한 여러분은 사도직을 아직 널리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캐나다의 영국 국교도들에게,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사도직 활동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 아직 가톨릭교회에 속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사도직 활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봅시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Et alias oves habeo quae non sunt ex hoc ovile*.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 떼가 될 것이다*Et illas oportet ad me adducere, et fiet unum ovile et unus pastor*.”¹³ 예수님께서서는 아직 당신 우리 안에 속하지 않은 많은 영혼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착한 목자이시고, 한 우리, 한 양 떼, 한 목자가 되도록,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양우리는 가톨릭교회입니다. 모든 이가 구원의 거대한 방주인 우리에게 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육신 또는 교회의 영혼에 속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고 그만큼 선을 사랑하는 이들은 교회의 영혼에 [속한 이들로서], 하느님께서 상심하실 만한 일을 바라지 않으며, 비록 생각이 부족하여 봉사가 불완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때문에 개신교 신자들과 이교도들*scismatici* 사이에는 알려진 성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이 좋은 길을 걷고 있을 때에는 기적을 통하여 입증하지 않습니다. 성인품에 오른 분들,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서는 그들의 성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들은 모두 가톨릭 신자들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교회의 영혼과 일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몸과도 일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황께 예속되어 가톨릭교회 안에서 계명을 준수하고 가톨릭교회가 설파하는 모든 진리를 믿으며, 교회의 합법적인 목자들, 특히 교황님에게 순명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줍니다.¹⁴

성소자들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저는 카타니아*Catania*(역주: 시칠리아 동부에 있는 도시)에서 부르심 받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기를, 성령

께서 모두가 제 갈 길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시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부르신 이들이 충실하게 살아가도록 은총을 얻기 위하여 성령께 특별한 9일기도를 바쳤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9일기도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일 년 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총을 얻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희망을 주지 않던 이들, 퇴회한 이들, 어떤 이유에선가, 아마도 병으로 인해 나갔던 이들은 다 가버렸습니다. 남아 있던 이들은 정말 좋은 이들이고 성소의 참된 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9일기도를 하라고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자 성소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Videte vocationem vestram*.”¹⁵라고 말씀하셨으며, 또다시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ut digne ambuletis secundum vocationem vestram*.”¹⁶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가는 으뜸 계명은 온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조심성이 결여된 생각을 멀리해야 합니다. 정신의 동정성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오직 그것만을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정신을 축복해주시고 마음을 축복해주시며 머리를, 온 머리를 축복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나니...”¹⁷ 치려야 할 값은 ‘성모송’입니다.

15. 1코린 1,26.

16. 에페 4,1.

17. “*Adiutorium nostrum in nomine Domini ...*”

13. 요한 10,16.

1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 신학과 연결된 표현.

13.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할 것¹

지성을 성화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느님을 위한 일들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있을 때나 다른 장소에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을 기리기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 것은 무엇이든 Quidquid bonum, 참된 것은 무엇이든, 정직한 것은 무엇이든 마음에 간직하십시오.haec cogitate.”²라고 성 바오로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첫째가는 으뜸 계명의 두 번째 부분을 숙고해야 합니다. 곧 “네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³ 이 두 번째 부분도 금지하는 것과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금지합니까? 대죄와 호기심의 근간이 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성심에 일치해야 하며, 마리아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에 일치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하고, 마리아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 베르나르디노께서는⁴ 마리아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은 경건한 마음, 겸손한 마음, 관대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관한 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일 먼저 인간들의 오만, 교만, 명예욕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공덕을 쌓는다고 생각할 때 또는 어떤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느님께 속

한 것을 곧바로 하느님께 드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이룩한 일의 성공, 훌륭한 자질, 우리의 일, 공부 또는 기도에 만족할 때입니다. 은총은 하느님에게서 오고, 우리는 그 은총을 하느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 마음에서 지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을 떨쳐버리도록, 특히 재산과 부유함을 이루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것에서 이탈하고, “남는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는 하느님의 계명을 완수하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부자가 아님에도 작은 일에 집착하며 자신들의 지위에 대하여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취향은 결코 충분히 만족할 줄 모르기에 늘 더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때때로 아주 작은 일들에 집착하게 되는 것은 어찌된 노릇입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연약함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고, 질투를 일으키지 않도록 마음을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투는 중죄 또는 경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은총에 대한 시기심은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질투는 카인과 그의 동생 사이에서처럼 두 사람 사이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힌 카인은 어느 지점까지 이르렀습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이들의 은총을 시기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그 대신에] 일부 사람들이 더 많은 성공을 거두기 때문에 또는 그들이 더 사랑받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또는 그들의 성공이 더 기억되기 때문에 그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투심을 뿌리뽑고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호의로 가득 찬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분노로 곧잘 흥분하게 되는 우리 마음을 관리해

1. 1955년 9월[27-28일]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행한 묵상. 자기(磁氣)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A6/an 15a ac 26a.

2. 필리 4,8 참조.

3. 루카 10,27 참조.

4. 시에나의 베르나르디노(Bernardino da Siena, 1380-1444)는 프란치스코회 회원이며 설교가이다. 수많은 작품을 라틴어와 이탈리아어로 썼다. 무엇보다 통속어 또는 대중어로 한 설교들로 유명하다.

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에 대항하는 분노는 거룩한 것입니다. “너희는 무서워 떨어라, 죄짓지 마라 Irascimini et nolite peccare.”⁵ 예수님께서서는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성전에서 모두 쫓아 내셨습니다. 그러한 것은 분노가 아닙니다. 분노는 우리의 어떤 잘못, 마음의 심술, 원한, 다른 이들의 굴욕을 바라는 마음, 또는 복수하려는 경향입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준 사람, 또는 언젠가 우리에게 경고한 사람과 맞서게 되거나 화를 내는 일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은 거의 적대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통제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관능적이 될 수도 있는 감수성을 지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수성은 때때로 더 거룩한 일들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 대신에 때때로 호감과 반감같은 일상적인 것들을 표현합니다. 마음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지만, 마음이 느끼는 모든 것이 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그 자체로 선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 자체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지성이 마음을 인도해야 합니다. 만일 마음에 나쁜 감정이 일고 또 그것이 인정된다면 악이 자리하는 것이고 죄가 되지만, 만일 좋은 감정이 일고 지성이 이를 인정한다면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거룩한 서원을 하기 전에 모든 사람은 정결 서원이 지켜지는지 잘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주어진 의무들을 완수하지 못한다면 다른 의무를 짊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계명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서원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호기심을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가 덕성에서 진보하는 것을 많은 일들이 방해하고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결함은 게으름, 미지근함, 무관심, 냉랭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어 관대

5. 시편 4,5 참조(불가타).

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어지는 모든 휴식을 우리 육신에게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생사들은, 약간 부족한 듯이 느낄 때 식탁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으며, 약간 졸린 듯할 때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 더 좋고, 우리를 강화시켜 사도직과 하느님을 섬기는 일에 더 오랫동안 종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윤리신학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목구멍을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주방에 있게 될 때 게걸스럽게 먹고, 점심시간 후에도 주방에 있고 싶다는 생각과 열망으로 살아 갑니다. 필요한 것은 꼭 취해야 하지만, 미각에 의해 불필요하게 음식물을 취하도록 우리를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 알폰소께서는 이러한 점에 관하여 결점 목록을 작성하고, 감정을 다스릴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계명이 금하는 것입니다. 곧 마음을 다른 일들에 빼앗긴다면 좋은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하느님에 관한 일에 전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여 주 하느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세 가지 점에 관한 것으로 1) 예수님께 대한, 하느님께 대한 사랑 2)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에 대한 사랑 3) 기도에 대한, 기도 정신에 대한 사랑입니다.

1. 우리의 최고선이시요, 영원한 행복이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열망하며 천국을 위하여 일해야 하고, 항상 천국에 관하여, 천국을 향하여 [목표를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영혼에서 떨쳐 버리는 고해성사를 잘 거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영성체를 잘

하고 성체방문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하며, 믿음과 깊은 신심으로 미사에 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리아를 사랑하고, 천국을 열망하고, 우리의 수호천사들을 사랑하고, 성 바오로를 사랑하고, 우리의 주보성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고해성사, 우리의 영성체가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2.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당신의 온 생명을, 당신의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심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이 느끼시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성혈로써 얻으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교황님, 주교님들, 사제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Deus, qui amas animas...*”⁶ 우리 마음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교회에 대한 이러한 사랑이 가꾸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곧 수도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수도회를 지탱해주는 회현, 수도회가 하고 있는 사도직과 수도회의 시간표, 일하는 방식, 수도회의 관습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수도회가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제시하는 모든 수단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느 강론가는 수녀들에게 ‘여러분은 다른 모든 수도회를 존중해야 하지만, 다른 모든 수도회보다 여러분의 수도회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도회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⁷라고 아주 잘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공부와 면학을 열심히 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

께서는 우리가 언제나 거룩하게 말하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든 지혜롭게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더 관대해지기를 바라시고, 더욱 깊은 신심을 가지기를 열망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3.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기도란 수도회가 행하는 신심실천을 의미하며, 성체신심, 마리아신심, 바오로신심을 의미합니다. 신심은 조금씩 습관을 들여가야 하고, 또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신심에 맞들여 기도의 맛을 느끼는 단계에 이르러야 하며, 따라서 기도의 정신을 획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가장 심오하고, 가장 긴밀한 신심을 향한 세 가지 단계입니다. 모든 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선은 복음이 유용할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서, 우리의 모든 신심이 유익하고, 그다음으로 ‘미사경본’과 수도회에서 제시하고 규정된 모든 것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기도를 찾아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수도회에 많은 영적 재산, 많은 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많은 성화수단을 베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러한 밀접한 관계에 이르는 성화의 길에서 우리는 그분에게서 직접 듣습니다. 영적 지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지도는 고해신부 편에서도 필요하고, 마에스트라 편에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스승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영성체는 침묵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의를 주시고, 호소하시고, 위로하시며, 용기를 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예수님과의 통교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으로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신심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무미건조한 신심, 강압적으로 신심을 갖게 만드는 특정 사항들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수녀는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드린 사랑, 말

6. 지혜 11,24 참조.(역주: 원본에는 지혜 11,23으로 되어있으나 내용상 11,24이 맞다)

7. 녹취록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장’이라는 설명을 붙였다.

하자면 마리아의 위치를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수녀는 또 다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예수님께서 배우셨으며, 예수님께서서는 또 얼마나 많은 것을 마리아께 말씀하셨습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conservabat omnia verba haec conferens in corde suo.”⁸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부정적인 부분은 대죄를 금하는 것입니다. 또한 긍정적인 부분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들에 대한 사랑과 신심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14. 사도직에 관한 지침들¹

우리 가족은 시대를 동반해야 하고, 늘 쇄신되어야 하므로 특별한 어려움이 붙따르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상들의 어려움으로, 장상들은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연구로써 새로운 수단과 새로운 요청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랫사람들 편에서도 명령을 따를 자세를 갖추고 온순하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장상들이나 아랫사람들 모두에게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동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새로운 풍조를 따르려 하면서도 그 새로움을 숙고하지 않는 것은 실수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언제나 새로운 것을 숙고해야 합니다. 지혜는 열정의 눈입니다. 지혜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기도를 한 후에 현명하게 행동하는 넋을 말합니다. 아랫사람들 편에서는 늘 마에스트라들의 염원에 일치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프로파간다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차원의 단체선교propaganda collettiva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가끔 반대자들에게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우리의 반대자들이 어떻게 조직을 하는지 눈여겨보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캐나다에서도 위원회 또는 협력자회를 결성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여겨집니다. 물론 이곳에서는 기술분야에서 활동하는 협력자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지만, 글을 쓰고 번역하는 지성을 갖춘 협력자들이 필요합니다. 프로파간다 분야에서도 협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자들은 본당신부들, 여러 단체장들, 서원 봉사자들일 때 가능하

8. 루카 2,19.

1. 1955년 9월 28일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행한 묵상. 미출간. 자기(磁氣)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A6/an 15a ac 26b.

고, 연합회를 주재하는 단체장들 모두가 협력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많은 회사와 공장을 방문했을 때 직공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도록 많은 책을 피아트² 회사에 보냈는데, 그 대금은 회사가 지불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시작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그리고 신앙과 사람들의 마음자세에 따라 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체선교에 관해서는 오늘날 할 말이 많습니다. 프로파간다는 발로 뛰는 사랑을 통해서뿐 아니라 지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동시에 우리가 전해주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적합한 것을 줄줄 알아야 합니다.

성바오로수도회와 성바오로딸수도회 사이의 몇 가지 협력사항에 있어서 양편에 각각 큰 결실을 가져다줄 수 있는 하나의 행동노선이 이미 있지만, 협력에서 아직 연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악마는 불화의 왕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일치의 영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Ut unum sint.”³ 이 말씀은 스승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 불화와 분열은 첫째가는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기도에서 네 차례에 걸쳐 하나가 되기를, 일치하기를 청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Ut unum sint.”⁵

2. 1899년 7월 11일에 설립된 이탈리아 토리노의 자동차 공장.

3. 요한 17,21 참조.

4. 원문에는 “교회 안에는 구체적으로 민족주의라는 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을 낳습니까? 가톨릭신자는 4억에 좀 못 미치지만, 불화를 이루는 인구가 거의 4억입니다.”로 되어 있다.

5. 요한 17,22 참조.

15. 지상 삶의 목적¹

[1)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길 것]

이 월피정을 묵주기도의 여왕이신 마리아의 보호 아래 맡깁시다. 지극히 거룩하신 묵주기도의 여왕! 교황 레오 13세께서는 묵주기도가 아주 위대한 은총의 다리로서, 그리스도교와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결실을 가져다주기에 묵주기도의 여왕, 지극히 거룩하신 묵주기도라는 명칭을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월피정의 주제를 무엇으로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왕, 성인들, 죽은 영혼 등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대는 무엇을 위하여 이곳에 왔는가Ad quid venisti?”²라는 일반적인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성 베르나르도께서 자신과 그의 수도자들에게 적용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그분께서 의도하신 폭넓은 의미에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왜 그대는 세상에 왔는가, 왜 그대는 창조되었는가?’ 두 번째로, ‘왜 그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가?’ 세 번째로, ‘왜 그대는 수도자가 되었으며, 바울리나가 되었는가? 왜 그대는 이 특별한 집에 있는가?’ 하는 질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답해보기로 하고, 동시에 좋은 결심을 하도록 합시다.

‘왜 그대는 창조되었는가? 왜 우리는 창조되었는가?’ 교리에서 말하

1. 1955년 10월 [30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착복식 준비 피정을 위한 두 차례의 묵상. 자기(磁氣)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첫 번째 묵상은 A6/an 17a ac 29b이고, 두 번째 묵상은 A6/an 17a ac 30a이다.

2. 마태 26,50 참조(불가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성 베르나르도께서 수도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향을 점검하도록 초대하기 위하여 사용한 표현이다.

는 내용은 분명합니다. ‘주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느님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말을 자주 하게 되고, 또한 이것에 지혜가 집약되어 있기에 저도 이러한 말을 되풀이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잠언’, ‘전도서’, ‘지혜서’라고 이름붙인 책은 모두 이것에 집약되어 있고, 복음 전체가 이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삶의 총화summa vitae’, 다시 말해서 삶의 요약입니다. 곧 삶의 본질입니다. 이를 잘 알아, 이익을 취하는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자연과학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대학교의 강단에 앉아 있는 이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대학교의 강단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도 ‘나는 천국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기본적인 지혜를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상에서의 삶은] 단순한 시련이요,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생을 마감하여 영원으로 나아갈 때 나는 구원되거나 또는 멸망합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이곳 콜롬비아 보고타에는 많은 주민이 살고 있고,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까지 이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100년 전에는 완전히 다른 종족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집에 살았던 사람들, 이 길에서 있던 사람들, 그 일을 하던 사람들, 그런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그 학교에 다니던 사람들, 그 때에 존재한 그 수녀들, 그 사제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고, 이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 자리에 또 다른 이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도록 얼마 동안 이 자리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으며,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우리를 천국에서 기다리십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우리가 천국을 열망하기를, 정말 열렬

히 원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위하여 진지하고 관대하게 일합니다.

그분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당신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당신을 더 사랑하고 당신을 완전하게 섬기도록 특별한 성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위치를 영원히 차지하게 해줍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Deus vult omnes salvos fieri.”³ 이것은 신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의 시련을 주셨으니 우리가 진정 구원되기를 바라시어 천국을 바라라고 천국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 하늘나라에 가야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천국을 좋아하고 천국을 열망하고, 그곳에 도달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 수도회에 들어오기 위해 여러분은 먼저 수도회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도회를 사랑하였으며, 수도회의 정신에 따라 일하기 위하여 이 수도회에 들어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을 위해서도 비슷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상황에 처하게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시민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모인 이들이므로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이 머리카락이 아름답다 하여 선택하고 천국에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시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놓아두시고, 동시에 그 초대를 수락하지 않는 사람은 위협적인 지옥상태에 있게 하십니다. 여러 상황에 처하게 하시고, 시련을 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현세의 삶 이후에 하늘에 올라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셨기

3. 1티모 2,4.

에 그들에게 큰 선을 베푸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지 시험하셔야 했습니다. 그 시험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곧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계명을 어기게 되면 죽음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시면서, 특정 열매를 먹지 않도록 금하셨습니다. 온갖 종류의 열매들은 [그들 마음대로 취할 수 있었고] 다 좋았던 반면, 하와는 다른 것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 과일을, 악마가 제안한 그 유일한 금단의 열매를 따셨습니다. 그들은 시험을 극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어 경고하신 대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면서, 그들에게서 초자연적 삶과 그 삶을 통하여 받은 수많은 선을 박탈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과 같은 징벌을 선포하셨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 여인에게는 특별한 형벌을, 그리고 유혹한 악마에게도 아주 특별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에게 주어질 시련, 타락, 그리고 동정녀가 그를 물리칠 승리까지 선포하셨습니다.⁴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제공하시지만, 먼저 우리가 시험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바라십니다. 시험은 세 가지 사항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하느님을 아는 것, 곧 신앙의 시험입니다. 둘째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곧 사랑의 시험입니다. 셋째는 순명, 충실, 복종, 곧 의지의 시험입니다.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 관한 진리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 있는 신앙을 지녀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⁵ 천국을 얻기 위해 삶에서 하느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

4. 창세 3,15 참조.

5. 히브 11,6.

다. 또 현세의 삶 이후에 우리는 특별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선한 이들을 위해서는 큰 상이 있습니다. 곧 천국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악한 이들을 위해서는 징벌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에 영혼이 육신과 재결합할 것을, 다시 말해서 마지막 부활에 대해 믿고, 최후의 심판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느님 앞에 모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hi ibunt in ignem aeternum.*” 그러면 악한 자들은 악마들과 함께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justi autem in vitam aeternam.*”⁶

여기서부터 끝없는 영원이 뒤따릅니다. 그곳은 시간이 연속되지 않는 곳이요, 결코 흘러가지 않는 현재만이 존재합니다. 또 지옥으로 단죄된 사람은 언제까지나 그 형벌 가운데에서 지내게 될 것이고, 복된 사람은 영원히 그 기쁨 가운데에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와 같을 것입니다. 결코 변경이나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고해성사를 받으러 가는 지금과 같은 형태가 아닐 것입니다. 죄를 지은 채 죽은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한 채 영원히 죄 안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은 더는 죄를 짓지 못할 것이요, 따라서 영원히 복될 것입니다. 신앙의 시험, 곧 우리는 하느님께서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통하여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미사의 희생을 믿고, 영성체의 위대한 결실을 믿으며, 모든 작은 행위, 모든 작은 희생뿐 아니라 최소한의 덕행, 하느님께 대한 최소한의 사랑의 행위, 최소한의 순명도 영원한 상급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살아 있는 믿음! 자, 그래서 성인들의 신앙이 있고, 이론적으로 무엇인가 믿는 이들의 신앙이 있지만, 그들의 신앙은

6. 마태 25,34-46 참조.

죽은 신앙입니다. “실천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Fides sine operibus mortua est.*”⁷

생생한 믿음! 우리는 살아 있는 믿음을 지니고 있지만,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교리공부를 해야 하고 신앙을 실제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론을 듣고, 그 강론에서 언급한 내용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 있는 믿음! 교회의 모든 가르침을 취해야 하고, 그것을 참으로 믿어야 합니다. 종교교육을 받아야 하고, 복음, 성경을 읽어야 하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믿고 실천해야 합니다. 살아 있는 믿음! 하느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알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고, 공부를 덜 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믿음에 관해서는,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여인이 고차원적인 주제를 토론할 줄 아는 위대한 신학자보다 훨씬 더 굳건한 신앙을 지닐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는 공부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으십시오! 예를 들어, 아주 큰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또는 저러한 고통은 모두 천국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천국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이들은 하느님께서 천국을 약속하셨고, 마지막에 상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근본적인 두 가지 조항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Credere quod Deus est et remunerator.*”⁸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거나 공부를 조금밖에 하지 않은 단순한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보다 천국에서 더 높은 단계에 이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있는 근

본적이고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신앙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생생한 신앙으로 활동적이며 실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시험입니다. 곧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을 진정으로 원하고, 성체성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영성체, 아름다운 미사, 아름다운 성체방문을 원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랑하고,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머물기 위하여 천국을 열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과 마주하여 대화하기를 바라기 마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신의 뜻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며,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피하고 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상의 선한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여러분은 하느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였으며,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최고선이시요 영원한 행복이신 하느님을 찾았으므로, 마음이 온통 하느님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 관대한 마음, 경건한 마음, 항상 순수한 마음,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과 예수님 안에서 자매와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에게서 동떨어진 것들에 대한 사랑, 우리를 하느님께 이끌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사랑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분의 수도 가족, 여러분의 수도 가족을 사랑해야 하고, 여러분의 회헌을 사랑해야 하며, 교회를 사랑해야 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자 열망해야 하며, 자매들과 마에스트라들과 성소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느님에 관련된 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호감, 비호감, 원한, 적대감, 교만, 우리 마음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나쁜 감정들이 없어야 합니다.

7. 야고 2,26.

8. 히브 11,6.

만일 그러한 감정들에 동의하면 악이 되고, 동의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악이 아니라 공덕을 쌓게 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우리를 충실성의 시험에 놓아두십니다. 다시 말해서 순명의 시험입니다. 곧 모든 계명을 준수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 곧 행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나, 부정적인 부분, 곧 금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느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충실한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는지 계명들에 관하여 성찰해야 합니다. 충실성의 시험뿐 아니라 더 나아가 서원을 한 사람들은 그 서원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원을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일단 서원을 하였다면 그 서원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주 너희 하느님께] 서원하고 채워 드려라 *Vovete et reddite.*”⁹

순명은 분원에서, 수도회에서 지시받은 모든 것으로 확장됩니다. [장상들이] 어떤 장소로 파견할 때, 또 다른 장소로 파견할 때, 어떤 직책을 줄 때 그리고 다른 직책을 줄 때, 어떤 시간표를 짜줄 때 또는 다른 시간표를 짜줄 때, 어떤 사도직을 맡길 때와 다른 사도직을 맡길 때 망설임 없이 모든 일에 있어서 세심하게, 정확히 순명을 이행합니다. 사람에게 관련해서나 작은 일에 있어서도 [순명을 잘 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곧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이것이 하느님께 대한 충실성의 시험입니다!

주님께서는 두 가지 사항을 원하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당신의 뜻을 전혀 거스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으로 죄를 회피하는 것, 대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구태여 표현을 하자면, 수도자는 대죄에 이르지 않기 위하여 소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 뜻에 반대되는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

9. 시편 76,12.

입니다. 곧 수도자는 행해야 할 선행을 찾아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수도회나 분원을 이끄는 사람이 지정해주어야 합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수도생활 사이의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훌륭한 청년은 “나는 이 시간에 미사에 가고, 나는 이러한 자선활동에 전념합니다. 곧 가난한 이들을 돌보거나 가톨릭 액션에 참여합니다.” 하며 자신이 행해야 할 선을 선택합니다. 그 대신에 수도자는 선행을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행은 이미 서원을 통하여 선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상들이 말하는 것, 장상들이 제안하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장상들이 제안한 것을 수용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표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선행을 선택하는 것, 전혀 다른 것을 염원하는 것은 수도생활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수도자는 고행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싫습니다 *nolle*” (또는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 “원합니다 *velle*”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수도자는 원하는 것도 없어야 하고, 원하지 않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다만 ‘네’라고만 해야 합니다. 마치 성모님처럼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Ecce ancilla Domini, fiat mihi secundum verbum tuum.*”¹⁰라고 해야 합니다. 곧 나는 주님을 섬기러 왔으며, 충실성을 입증하고자 하오니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처럼 지상에서 주님의 뜻을 잘 이행하는 위대한 사람이기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Fiat voluntas tua sicut in coelo et in terra.*”¹¹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성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10. 루카 1,38.

11. 마태 6,10.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Non sicut ego volo, sed sicut tu.”¹² 이러한 시험은 10년, 20년, 50년 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성인들은 아주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 어떤 성인들은 더 길게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성은 똑같습니다. 곧 살아 있는 믿음, 하느님께 대한 진솔한 사랑, 하느님께 대한 충실성 또는 순명, 그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자주 하늘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거쳐 가지만 천국은 영원하므로 우리는 결국 [천국에] 도달합니다. …¹³ “시련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Beatus vir cum probatus fuerit accipiet coronam vitae.”¹⁴ 천국! 신앙의 시험은 곧 하느님을 아는 것이요, 사랑의 시험은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충실성의 시험은 곧 하느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바로 여기에 한 영혼의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신앙에 관하여,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 관하여 그리고 충실성 또는 순명에 관하여 성찰하고자, 아주 깊이 성찰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는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을 것이므로, 모든 이가 지상에서 똑같은 상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가 똑같이 순명을 하거나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똑같은 신앙을 지니지 않았기에 받을 상도 다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모두 용기를 가지고 저 높은 곳을 열망해야 합니다. “나는 성녀가 되고 싶고, 빨리 성녀가 되고 싶고, 위대한 성녀가 되고 싶습니다.”¹⁵ 성성은 우리 머리로

12. 마태 26,39.

13. 녹음 중단.

14. 야고 1,12.

15. ‘아기 마리아 수녀회’(Suore di Maria Bambina)라고 불리는 사랑의 수녀회(Suore della Carita)의 성 빈첸자 제로사(Vincenza Gerosa, 1784-1847)와 함께 공동 창립자인 성 바르톨로메아 카피타니오(Bartolomea Capitanio, 1807-1833)의 말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성성이라는 점을 늘 기억합니다. 복음의 성성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모범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내용을 정확히 지키는 것입니다.

[2] 영적 작업

[...] ¹⁶ [어느 수녀님이] 영신수련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곧 “이 묵상에서, 이 양심성찰에서 저는 퇴보했다는 것을 알았고, 예전보다 더 많은 결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예전의 결점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에 제가 게을렀던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결점들을 다시금 발견하였다면 그것은 성찰하고 있고, 내적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표시이지만, 예전의 결점들, 예전의 죄를 늘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진보하지 않고, 나태하게 지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결코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망설임은 하나의 질병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그런 질병은 바깥으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어떠한 망설임도 없는 섬세한 양심이 필요합니다. 섬세함은 어떠한 고의적인 죄도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작은 소죄라도 고의적으로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결점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섬세한 양심은 작은 일들에 대해, 작은 덕성에 대해 결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들을 완벽하게 잘 이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누군가 공부하고 있다면 공부에 주의를 집중하고, 사도직을 하고 있다면 사도직에 집중하며, 프로파간다를 한다면 프로파간다에 집중하고, 다른 일들, 이를테면 주방일이나 사람 등에 관한 일들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섬세함이 진보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16. 녹음테이프가 비었기 때문에 묵상 시작부분이 빠졌다.

그러나 만일 누군가가 '이러한 것은 중대한 죄가 아닌, 영성체를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고, 이러한 것은 지옥에 떨어질 정도도 아니고 단지 연옥에 갈 정도야. 거기서 나중에 한 번 더 나가면 돼 ...'라고 생각한다면! 아, 이 얼마나 게으른 계획입니까! 그럴 때 '저는 나태했습니다.'라고 통회해야 합니다. 우리가 덕을 쌓을 수 있는 말로 자신을 표현해봅시다. '저는 게으름뱅이며, 저는 나태한 사람입니다.' 코톨레고 성인께서 수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인은 많은 수녀들이 진보하였는지 진보하지 않았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일하지 않는 것은 우리 수도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죄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보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서 정말 통회해야 할 일입니다. 성바오로팔수도회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들을 상상해봅시다. 프로파간다에 가서 '이 본당은 얼마나 안 좋은가! 교리반에 나오는 아이들도 없고, 사람들은 강론을 들으러 오지 않고, 성사생활도 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들만 미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악은 도처로 퍼져갑니다. 곧 아주 위험하고 죄를 많이 짓는 오락거리 ... 악이 얼마나 만연한지!'라고 말합니다. 그 본당신부는 본당신부의 뒤편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자주 수사들과 수녀들이 수도자답지 않게 처신합니까! 외부에서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없지만, 이러한 잘못은 내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로도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잡초는 어느 순간까지 숨겨있지만, 나중에는 땅 표면이 갈라지게 만들며 파멸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있습니다. 만일 성사 차원의 고해성사를 할 수 없다면, 영적인 고해성사를 행합시다. 우리는 나태했습니까, 아니면 활발했습니까? 우리는 영적 작업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후퇴했습니까? 우

리는 진보하였습니까, 또는 진보하지 못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삶의 가장 큰 잘못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게으른 영적 작업이 아닙니까? 우리의 가장 큰 공덕은 영적 작업에 있어서 열성적인 자세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도자들이 내적 작업에서 이러한 열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내적 작업이란 달콤함을 느낀다거나 약간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을 혐오하는 바로 그것이지요, 선한 것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더 큰 믿음을, 언제나 더 큰 희망을, 언제나 더 큰 사랑을, 언제나 더 충만한 지혜와 정의를 품어야 합니다. 사추덕과 수덕, 그리고 [특히]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기를 원하고, 자매들을 진정으로 원하며, 회현을 더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은 나태라고 일컬어지는 지배적인 결점에 대한 승리입니다. 나태야말로 남여 수도자들에게 있어서 결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누구도 감히 그 수녀가 나태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외적으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이지만, 하느님 앞에서 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됩니까?

더 나아가 나태는 신앙의 결핍입니다. 나태는 아주 공통된 것이요, 많은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신앙이 필요하고, 영성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내적 작업의 열정! 종종 어떤 사람이 외적으로 차분하게 보일 수 있으며, 그의 영혼이 결코 구름에 가려지지 않아 늘 맑은 하늘과 같다면, 정말 내적으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참된 작업을 한 것입니다. 유혹, 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름이 내면을 덮고 있다면, 좋으신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성인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에게 일상적인 시험을 보내시어 우리로 하여금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도록 해주십니다. 진보를 보장해주는 이러한 내적 작업은 우리에게 많은 위안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¹⁷

병자[도] 하느님과 더 깊이 일치할 수 있으며,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도 여전히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깃세 마니에서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셨던 그 영 안에서 그분께 생명을 봉헌할 수 있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죽음을 수락하셨던 것처럼 생명을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In manus tuas, Domine, commendo spiritum meum.*”¹⁸

그렇게 되면 가장 큰 공덕을 얻게 되고, 가장 큰 진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건강이 아니라, 지성이 아니라, 다른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 작업의 열정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작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합시다.

16. 마리아 신심¹

저는 이 분원을 정원처럼,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생각합니다. 이 정원은 장미와 백합과 제비꽃을 피우고, 그것도 늘 많은 꽃들로 가득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미들, 그리고 늘 숨어있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제비꽃들, 그리고 마치 여러분이 쓰고 있는 베일을 나타내주는 듯 흰 백합들은 하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원이 늘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천상 스승께서 좋아하시며 장미와 백합과 제비꽃 향기를 즐기시기 위해서는 천상의 정원지기가 필요합니다. 천상의 정원지기, 그는 누구입니까? 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께 열렬한 자들이 되십시오! 늘, 그리고 더욱더, 언제나 열렬히 마리아를 찬미하고, 마리아께 대한 지식을 넓혀가며,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지니십시오.

예수님의 모범에 따라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구원은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주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은, 다시 말해서 구원의 적용은 마리아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구원의 결실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으며,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 *Exemplum dedi vobis*”²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지극히 거룩한 모든 덕의 모범을 보여주셨

17. 녹음이 되어 있지 않음.

18. 루카 23,46.

1. 1955년 11월 18일, 영신수련 코스 동안 브라질에서 행한 묵상. 자기(磁氣)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A6/an 17b ac 30b.

2. 요한 13,15 참조: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일반적인 모범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마리아의 아드님이 되셨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놓아두셨으며, 마리아의 눈길 아래 활동하셨고, 마리아를 통하여 당신의 사도직을 완수하셨으며, 마리아의 눈길 아래 당신 삶을 마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저 높은 곳 천국에서 마리아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나라에는 오로지 두 육신이 있으니, 곧 스승 예수님의 육신과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육신입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마리아에게서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면에서 마리아께서 동반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늘나라에서도 마리아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성녀가 되는 다른 방법을 발견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보다 더 훌륭한 방법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방법보다 더 아름다운 다른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고 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드님이 되셨듯이, 여러분도 그분께 여러분을 봉헌할 날을 선택하십시오. 예를 들면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에 봉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성적으로도 아드님이셨기에 마리아의 본성적인 아드님이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마리아의 자녀들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받았지만, 우리는 입양을 통하여 마리아의 자녀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³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으며, 그분의 보살핌을 받으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그분을 새하얀 아마포에 싸서 첫 요람에 모셨습니다. 그 요람이란 그분께서 유일하게 만드실 수 있었던 것으로, 여물통에 약간의 건초더미를 올려놓았을 뿐이지만, 아주 섬세하게 큰 사랑을 담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영성체에서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그분을 젖먹이셨고, 그분을 키우셨으며, 그분께 늘 의복과 음식을 준비해주셨고, 작은 침대를 마련해주셨으며, 아름다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은 거룩하고 훌륭한 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거리였습니다.

리마Lima에서 사람들이 저에게 천상 스승의 생애를 묘사한 그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는 아주 자그마한 부엌에 앉아서 감자 껍질을 벗기시는 마리아의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살가량 되어 보이는 예수님도 작은 의자에 앉아 감자 껍질을 벗기고 싶어 하는 모습입니다. 마리아께서는 그에게 칼을 건네고 그분은 껍질을 벗기려 애를 쓰지만, 행여 손가락을 다칠세라 마리아께서는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주 친근한 가족적인 그림에 나타난 이러한 모습은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행하셨던 부드러운 보살핌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경, 시편을 읽는 법을 가르치시는 모습, 소년이 된 예수를 회당으로 이끄시는 장면, 적령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성전으로 데려가셨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목수용 탁자에서 일하시고, 마리아께서는 그 한쪽 편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계시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성부의 뜻에 따라 공생활을 시작하기 원하셨을 때,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직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의 직무를 시작하게 하셨다고 말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께서는 그 때를 알리셨습니다. 여러분을 프로파간다에 파견하려 할 때 여러분이 보기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여겨질지라도 마리아를 위하여, 그분의 보호 아래 그 일을 행하십시오. 사도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마리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언제나 의구심

3. 요한 19,27.

을 갖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두곤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카나의 혼인잔치에 가시어 기적을 통하여 “곧 당신을 드러 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manifestavit se ipsum.” 다시 말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이신 분을, 메시아를,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시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파견되신 분이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Crediderunt in eo discipuli eius.”⁴

더 나아가 마리아께서는 언제나 예수님을 동반하셨고, 그분 설교에 가장 깊이 주의를 기울이신 분이셨으며, 예수님의 복음적 권고를 가장 부지런히 실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어떤 수녀도 결코 마리아처럼 완벽한 단계에서 청빈, 정결, 순명의 세 가지 복음적 권고를 실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가장 완전한 수도자이시고, 모든 수도자의 모델이시며, 하느님께 봉헌한 모든 영혼의 수호자이시고 연인이십니다. 마리아에게서 분리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분리됨을 의미하고, 예수님에게서 분리된다는 것은 그분께서 하늘을 위한 길이기여, 타락의 길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길 잃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뿐 아니라 마리아께서는 갈바리아를 향한 여정에서 예수님을 동반하셨으며, 가까이에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고통, 그분의 죽음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영혼들을, [제자들을] 보호해주시는 책무를 수락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제 그대, 오 여인이여, 나에게서 어머니의 직무를 완수하셨으니, 이제 그대에게 요한 안에서 대표되는 다른 자녀들을 맡깁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손길에 맡겨졌으며, 신생교회는 초창기에 그분의 팔에 안겨 성장했습니다. 마리아의 참된 자녀가 되는 이들은 행복

4. 요한 2,1-5,11 참조.

합니다! 우리 기도서의 최근 편집본에 실린 ‘저를 받아주소서, 오 어머니 …’⁵라는 [기도를] 자주 바치십시오. 그런데 아직 포르투갈어로 번역되지 않았다고 저에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문을 바치지 못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어지는 기도문인 ‘약속’ 또는 ‘성공의 비결’⁶을 바치십시오. 묵주기도를, 훌륭한 묵주기도를 많이 [바쳐야 합니다.] 마리아께 대한 봉헌과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우리 삶 전체를 통하여 [살아야 하며], 매일 언제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제와,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죽을 때,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렇다면, ‘…당신을 부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다음 죽어야 합니다.’⁷ 마리아께서는 여러분을 성장시켜주실 것이고, 여러분 성소에 대한 충실성을 부여하실 것입니다. 그 뜻은 삶 전체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일들을 깨닫기 위한 충기를 주실 것이요,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믿는 은총을 주실 것이므로 마리아께서 제시하시는 대로 기꺼이 수락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Ecce, ancilla Domini.”⁸

오, ‘예’, 모든 것에 대한 ‘예’는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는 일입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을 때조차 항구한 ‘예’를, 매일, 모든 것에 대하여 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여러분에게 사도직에 대한 사랑을, 사도직에 대한 충기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준비, 수도생활 교육을 담고 있는 책들에 대한 준비, 가족 회원들의 성화를 도와주는 「파밀

5. “마리아께 자신을 봉헌하는 기도” 바오로 가족 기도서 250쪽.

6. 바오로 가족 기도서 237쪽 참조.

7. 대중적인 마리아 성가의 결론. ‘마리아, 감미로운 사랑을 지니신 분…’ 바오로 가족 기도서 1957년판, p. 326 참조.

8. 루카 1,38.

리아 그리스티아나 *Famiglia Cristiana*⁹의 준비이기 때문입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복음을 대해야 하고, 종교 교육에 관한 서적, 「파밀리아 그리스티아나 *Famiglia Cristiana*」를 관심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어느 공의회에서 복음 말씀을 성체의 조각들, 부스러기처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말을 기억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주의를 기울여 돌보아야 하는지!

그뿐 아니라 마리아께서는 여러분에게 참된 바오로적 성소를 따르고, 회헌을 이해하고, 훌륭한 지원자들, 훌륭한 청원자들, 훌륭한 수련자들, 훌륭한 어린 수녀들, 훌륭한 유기서원자들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훌륭한 종신서원자들이 되는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성소는 서원하는 날부터 상응하는 것이지만, 특히 종신서원을 하는 날에 상응하게 주어집니다. 그것은 우리를 성소의 길에 놓아주지만, 먼저 유기서원 그리고 나중에 종신서원 후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마리아께서 우리 머리 위에 당신 손길을 드리우시며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머리에 축복을 받던 어떤 사람이 저에게 “세계 놀려주시기를!” 하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붙드시어 일러주신 것들이 쏙쏙 들어오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십자성호를 그을 때 복음이 들어오도록,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손으로 머리를] 꺾 꺾 눌러주십시오. 마리아께서 이러한 은총을 여러분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삶에서 늦깎이처럼 성소에 응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것처럼 최악의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충분히 알고 있다고 믿을 때 자유로울 수 있고,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다고 믿을 때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만일 여러분이

9. 브라질에서는 「파밀리아 크리스타 *Familia Crista*」 창간호를 1934년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에 발간하였다. Martini C. A., 「성바오로딸수도회 역사 *Le Figlie di San Paolo - Note per una storia*, 283쪽 참조.

청빈에 있어서, 아름다운 덕성에 있어서, 그리고 자유롭다고 믿고 이미 [충분히] 안다고 믿기 때문에 가장 상응하기 힘든 순명에 있어서 섬세하게 성장하지 않는다면 성소에 상응하게 응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으뜸가는 서원은 바로 순명서원이고, 이 서원은 정결서원과 청빈서원을 확실하게 준수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순명은 사도직의 결실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서원입니다. 그리하여 만일 순명에서, 완덕에서 성장한다면 성소에 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고, 우리 모두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복음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언급합니까? 요셉과 마리아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셨으므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¹⁰ 이 말씀은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erat subditus illis*.”¹¹고 합니다. 마리아께 예속되었으며, 순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께서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언제나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추셨던 것과 같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에 이르셨을 때 모든 것이 반대되는 것처럼 여겨졌고, 지옥의 힘이 예수님을 거슬러 우세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원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Haec est hora vestra et potestas tenebrarum*.”¹² 다시 말해서 마귀가 판을 치는 때입니다. 십자가 밑에 계시던 [마리아]께서도 하느님의 뜻과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10. 루카 2,49.

11. 루카 2,51.

12. 루카 22,53.

지향에 완벽하게 일치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지소서 *Fiat voluntas tua.*”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되풀이합니다.] “당신께 제 기도, 행동과 고통을 제대 위에서 희생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지향으로 바칩니다.”

마리아께서는 모든 것을 낮게 하십니다. 비록 누군가가 건강이 좋지 않고 덜 똑똑하더라도 놀라지 않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지닌다면 마리아께서는 건강상태와 지성의 상태에 따라 당신 방식대로 선을 베푸실 것입니다. 더구나 더 좋은 건강과 더 똑똑한 지성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거룩한 성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 세례자 요한 비안네는¹³ 사람들이 자신에게 “저 사람은 이해력이 부족하고 약간 덜 떨어졌어.”라고 말했기 때문에 사제 서품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반대하며 “하느님의 교회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만일 교리교육을 잘 해낼 수 있다면 그나마 크게 될 것입니다. ...” 그때 모임을 주관하던 부총장이 일어나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신학생이 묵주기도를 잘 바칠 뿐만 아니라 많이 바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 사람이 분명히 큰 선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조그마한 도시 아르스에 본당신부로 갔습니다. 그 도시는 프랑스의 작은 시골마을이었지만, 세상 곳곳에서 순례자가 모여드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살아 계실 때에는 순례자들에게 고해성사를 주기 위해 16시간 동안 고해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주변 본당신부들은 강론을 하고 고해성사를 주도록 그분을 초빙하곤 하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철도를 놓게 되었을 때, 국회에서 철도 경유지에 관한 논의에서 누군가가 “철도가 아르스에 가장 가까이 지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순례자들이

13. 세례자 요한 마리아 비안네(1786-1859)는 프랑스의 사제로서 40년 이상 아르스의 본당신부로 재직하며 기도, 고행, 강론과 고해성사의 직무를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그곳을 방문하게 되기에 우리는 더 많이 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기차표를 끊으면 정부는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특히 사람들의 영혼이 이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마리아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만일 당신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면, 나는 이 성소를 받아들이고 훌륭한 지원자, 훌륭한 청원자, 훌륭한 수련자, 훌륭한 유기서원자, 훌륭한 종신서원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면 나는 입회할 것이고, 만일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성소를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마리아와 함께! 이것이 마리아께 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마리아를 포기할 때 무엇이 남습니까? 그 대신에 마리아께 신심을 다할 때 무엇이 모자라겠습니까? 아무것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상의 바울리나가 될 것이고, 많은 선, 많은 빛을 이렇듯 방대한 브라질에 가져올 것입니다. 성년에 브라질의 한 주교님이 교황 비오 12세를 알현하면서 “우리는 교황성하게 우리 가톨릭국가의 영예를 바칩니다. 그 어떠한 가톨릭국가도 브라질처럼 5천만이 넘는 이토록 거대한 신자들을 바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영예는 기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톨릭신자들을 교육해야 합니다. 영성체를 자주 하고, 교리교육을 받고, 종교교육을 받는 신자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계명을 준수하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 가톨릭 신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함께!¹⁴

이제 여러분은 자녀답게 사랑한다는 약속을 마리아께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리아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은 묵주기도와 세 번의 성모송을 바치겠지만, 토요일엔 어떤 식으로 존경을 표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마리아의 축일을 잘 거행합니까? 저는 여러

14. 이 부분에서 묵상을 끝내고 공동체와 나누는 대화가 시작되었다.

분이 마리아께 대한 영원한 존경심으로 또 다른 표현을 살아가도록 권고합니다. 그것은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공동 구원자로서 그분의 전 사명에 상응하는 풍요롭고 몸매 배인 그분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순명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순명의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자주 되뇌도록 하십시오. “보십시오, 하느님의 종이지요, 저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따르는 이들은 행복한 이들, 거룩한 이들이 [될 것이며], [아름다운] 천국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 길을 택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자가 될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 파멸을 가져다 줄 것이며, 공동체를 혼란케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강력한 두려움을 가질 것입니다.

17. 그대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 AD QUID VENISTI¹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우리의 천상 어머니, 사도의 모후의 보호 아래서 이 피정을 합시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은 마리아께서 지니신 특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분께 부여된 하느님의 어머니, 사도의 모후로서의 위대한 존엄성의 첫 특권을 부각시켜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시고, 당신 사도직을 실행하시는 특권을 누리신 분이십니다. 많은 비추임을 받아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우리의 삶에서 특히 각자가 완수해야 할 직무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바에 대하여 책임정신을 갖출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지나칠 정도로 자신들의 책임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주님을, 주님의 은총을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낍니다. 그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맡은 사명에 대하여, 그들의 직무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을 느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묵상은 다음의 질문에 관하여 살펴봅시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 Ad quid venisti?”² 이 말씀은 “그대는 왜 세상에 왔는가? 그대는 왜 교회에 들어왔고, 왜 세례성사를 받았으며, 왜 가톨릭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가? 그대는 왜 수도회에 들어왔는가? 그대는 왜 수도회가 그대에게 맡긴 이러한 특별한 직무를 맡았는가? 왜? 그대는

1. 1955년 11월 19일, 브라질에서 행한 묵상. 자기(磁氣)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A6/an 17b ac 31a. 본문에서 ‘피정’(ritiro)이라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지만, 아마도 11월 18일부터 시작된 대피정 코스의 묵상을 단순하게 피정이라고 불렀다. 뚜렷하지 않은 목소리가 언제나 특히 제2부에서 녹취록을 옮기는 데 어려움을 주었다.

2. “여러 가지 묵상” n. 15 각주 2 참조.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 Ad quid venisti?” 그래서 하나의 답변을 찾아 봅시다. 언뜻 보기에 아주 단순한 답변같지만, 좀 더 깊이 사태를 숙고 해본다면 훌륭한 양심성찰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대는 왜 세상에 왔습니까? 다시 말해 그대는 왜 창조되었습니까? 주님께서서는 천국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생은 하나의 여행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 천국에 이르기 위한 여행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quae ducit ad vitam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³ 그 길은 좁은 길이며, 희생을 요구하는 길이지만,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더 편하게 보이지만 파멸로 이끄는 길을 조심하여, 천상 스승께서 지켜주시는 길로 들어셔야 합니다. 그 길은 더욱 두렵게 만드는 길로서, 천상 스승께서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십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Multi intrant in eam.”⁴ 많은 이들이 멸망에 이르는 거짓된 길을 택합니다. 이 ‘많은 이들’을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도록 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것이 생명으로 이끄는 좋은 길입니까? 천국에 이르기 위한 수단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성부 하느님의 창조의 손길에서 나와 이 지상에 살게 되었으며, 하늘에 계신 성부께서는 저 높은 곳에 있는 당신 집에서 다시금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행복한 모습을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곳 지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행복에 도달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 말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자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의무 안에서 그분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명들, 거룩한 서원들, 수도회의 의무조항들을 준수하는 것을 의

3. 마태 7,14 참조.

4. 마태 7,13 참조.

미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물론 우리가 천국에 들기를 바라시지만, 천국에는 그 누구도 완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발적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을 원한다는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서는 지상낙원에서 행복했던 아담과 하와를 시험에 들게 하셨습니다. 만일 그들이 충실했더라면 하느님의 뜻 안에서 그들은 계속 행복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선물들을, 그들의 행복을 자손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들에게 하나의 희생을 부과하셨습니다. 특정 열매를 먹지 않도록 금하셨습니다.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⁵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험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을 진정으로 원한다는 것을, 그것을 보존하고 자녀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그들의 영혼 안에서 죽었고, 초자연적인 생명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리던 위대한 선물들을 박탈당하여 그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지 못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시험입니다! 우리 또한 지상에서 어떤 시험에 들게 됩니다. 시험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곧 아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요, 그다음으로는 주님을 최고선이며 영원한 행복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그다음으로는 충실성의 시험이 있습니다. ...⁶

1. 다음은 긴 양심성찰을 위한 자료입니다. 곧 신앙을 가질 것, 활기찬 신앙을 가질 것. 특히 우리는 이러한 신앙에서, 하느님의 통치 아래 영원을 위하여 지상에서 일해야 하고, 삶의 종국에 심판, 하느님의

5. 창세 3,3.

6.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말들이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한 결산을 위하여 곧바로 주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선한 행업을 영원으로 가져간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게 될 것이요], 그 대신에 만일 우리가 최후의 죄를 영원으로 가져간다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엄격한 심판관으로 생각하여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쉽게 천국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심판의 이유가 됨직한 오점을 우리 안에서 발견하려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느님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기에 마땅한지, 또는 멀리 내쳐지고 쫓겨나기에 마땅한지 스스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표현하자면,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비하여 수동적인 분처럼 되어 어떤 사람의 사진을 찍는 사진기와 같습니다. 그 사람을 잘생기게 만들거나 또는 못생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생기거나 못생긴 것입니다. 따라서 사진기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서는 특별한 빛 안에서 우리 위에 빛을 비추실 것이고,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성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기꺼운 존재인지, 우리가 공덕을 쌓았는지 또 그렇다면 우리가 쌓은 공덕이 무엇인지 볼 것이며, 우리가 행한 모든 선행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저지른 악행과 얼마나 많은 죄가 영혼에 남아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우리 자신이 영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또는 우리의 멸망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불운을 만드는 것입니다. 각자는 다른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원한다면 구원될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면 나는 성인이 될 수 있고, 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결코 파멸되

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원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의 시민들은 모두 자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생각해야 하고, 그 진리를 한층 더 깊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합니다. 순교자들, 사도들, 고해사제들과 동정녀들, 모든 조건과 언어의 성인들 등 수많은 의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신 지옥을 생각해야 합니다. 곧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녕 그들의 구더기들은 죽지 아니하리라 *Vermis eorum non morietur.*”⁷ 그곳에는 끝나지 않는 후회와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최후의 부활을 생각하며 믿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육신의 아름답고 잘 꾸며진 선물로 부활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죄의 상태로 부활할 것입니다. 선을 베푸는 일에 영혼을 동반한 육신은 영혼의 영원한 행복을 맛볼 것이며, 악을 저지르는 일에 영혼을 동반하였다면, 영혼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 편에서 있는 이들을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악한 이들을 향해 내리실 선고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이들을 향해 내리실 선고를 생각해야 합니다.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⁸

영원을 믿어야 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 안에, 미사 안에, 고해성사 안에, 영성체 안에 이미 존재하는 끝없는 흠숭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입니다! 신앙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 살도록 모든 시대의 순간마다 영원한 선을 우리에게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⁹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목마른 가난한 자에게 준 물 한 잔은 거

7. 이사 66,24 참조.

8. 마태 25,34-46 참조.

9. 녹음에는 ‘선의 영원한 시간’(ore eterno di bene)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온다.

의 의식할 수 없는 작은 행위이지만, 이러한 행위는 그만큼 우리에게 상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곧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공덕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지향으로 행한 선과 하느님의 은총 상태에서 행한 선행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증가시킵니다.

2. 그다음으로 사랑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랑의 시험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시험은 지상의 모든 것보다 주님을 선호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존경보다 주님을 선호하고, 지상의 부와 돈보다 주님을 선호하고, 소중하게 아끼는 사람들보다 주님을 선호하고, 지상의 쾌락보다 주님을 선호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¹⁰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사랑,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 등은 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만일 우리가 이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안 되는 일로서, [그렇게 되면] 그 사랑은 합법적이거나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격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호감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또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나쁘게 보고, 좋지 않게 해석하게 만드는 비호감도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¹¹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를 정화시켜 하느님 앞에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고해성사를 [통하여] 영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 형성시키는 영성체를 사랑해야 합니

10. 마태 10,37.

11. 녹음에는 ‘그런 다음에 해야 할 ...’(Poi che si a...)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나온다.

다. 수도회를 사랑해야 하고, 가장 직접적으로 자매들을 사랑해야 하고, 회현을 사랑해야 하고, 사도직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원하신 바로 그 수도생활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성소를 사랑하는 것으로 성소를 아주 많이 사랑해야 하며, 성소를 거스르는 모든 유혹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하느님께 대한 충실의 시험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충실이란 순명을 의미합니다. 명령하는 계명들과 금지하는 계명들에 대한 순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서원준수, 장상들에 대한 순명, 이웃에 대한 사랑, 순결, 다른 이들의 물건에 대한 존중, 진지함, 생각과 여러 감정들에 있어서 올곧았는지 보아야 합니다. 계명들의 준수, 따라서 이 계명들에 대한 양심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순명은 정결, 청빈, 순명의 서원들을 준수하도록 부과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청빈, 정결, 순명에 대한 의무가 모두에게 있지만, 남녀 수도자들은 완전한 정결, 완전한 청빈, 완전한 순명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명들에 대한 성찰뿐 아니라, 거룩한 서원에 대한 성찰과 거기에 첨가되는 공동생활과 사도직에 대해서도 성찰해야 합니다. 공동생활을 잘 살아야 하고, 천국을 위하여 사도직을 완수해야 할 뿐 아니라 성화작업, 곧 회현 제2조에 표현된 내용처럼 영혼들의 이익을 위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직무에 순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각자에게 특별한 길을 정해주셨으며, 각자는 그러한 책임을, 지시받은 그 직무를 순명 안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잘 수행합니까? 그 말은 그 직무를 잘 이해하고, 그 직무를 잘 수행하겠다는 자세를 갖추고 이행해야 하며, 따라서 당연히 맞게 되는

어려움들을 정신과 마음을 다하여 극복하면서 할 수 있는 한 기꺼이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힘과 에너지를 다 쏟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과 마음과 의지만 아니라, 육체적 힘까지 다 기울여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직무가 완벽하게 [완수되고] 주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순간에, 이 피정의 첫날에,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양심성찰입니다. 곧 우리가 생생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 위에 무한한 선이시요 영원한 행복으로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지, 또 계명들, 서원들과 각자에게 맡겨진 직무에 대해 순명과 관련해 성찰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가장 장엄하게 성체흡수를 하려는 이러한 마음자세는 거룩한 것이요, 우리에게 더 많은 은총을 보장합니다. 그렇지만 가책을 받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흥분, 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¹² 좋지 않은 것은 단호하게 떨쳐 버려야 하고, 그 대신에 이미 좋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확고히 다져야 하고, 향상될 수 있는 것은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피정은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기쁘게 해주시며, 여러분을 많이 위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성으로 불러 주신 주님께 신뢰를 둡시다. 모든 수녀는 성성에 이르는 성소를 받았 습니다. 성성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곧 살아 있는 신앙 곧 생생한 신앙을 지녀야 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그분을 온 지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여 아주 활기차게 사랑해야 하며, 순명에 있어서도 가장 완전하게 순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 생활은 완덕으로 이끌어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12. '그렇지만 우리는...'(pero siamo...)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없다.

18. 종말실재¹

남녀 수도자들의 양성은 우선 종말실재에 관한 묵상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모든 언행에서 너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라. 그러면 결코 죄를 짓지 않으리라 *In omnibus operibus tuis memorare novissima tua et in aeternum non peccabis.*”²라는 말은 50년에 걸쳐 되풀이해야 할 것인데, 일 년 동안 많은 묵상을, 곧 우리의 삶과 죽음, 개별심판, 천국, 연옥, 영원, 지옥, 마지막 부활, 최후심판, 영원, 자비와 함께 하느님 정의의 의미를 [숙고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오로지 자비에 대해서, 영적 위로에 대해서, 우리를 하느님께 신뢰하도록 이끌어주는 신학적 진리의 인식에 대해서만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신뢰는 분명히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지배하심을 믿는 것이어야 하지만, 우리는 교회가 말하는 바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하느님께 대한 거룩한 두려움과 하느님께 대한 거룩한 사랑을 주십시오 *Timorem pariter et amorem.*”³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 자체가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탱시켜주시기에 우리는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실재에 대한 생각에 의해서 죄는 파멸이고 [...],⁴ 죄는 우리에게 은총을 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공덕을 잃게 만든다는 생각에서 더 많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자녀다운

1. 1955년 11월 [20일]에 브라질에서 행한 영신수련 묵상. 자기(磁氣)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A6/an 18a ac 31b. 녹음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관계로 본 녹취록은 여러 여백과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많이 나온다. 이러한 경우에는 각주에 아무런 설명 없이 [...] 표시로 남겨두었다.

2. 집회 7,36.(역주: 원문 각주는 집회 7,40으로 되어 있다)

3. 로마 교황청 예식서.

4. 원서에는 ‘하느님의 ...을 우리에게 ... 한다는 생각을 통하여’(col pensiero che ci...di Dio)로 되어 있다.

거룩한 두려움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견고한 기초가 받쳐줄 때 많은 층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영성생활의] 견고한 기초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종말실재에 대한 숙고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대한 숙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곧 “무엇을 위하여 그대는 이곳에 왔는가 *Ad quid venisti?*”⁵ 그리고 암시적으로 그 목적에 대한 숙고 외에,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들에 대한 숙고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초적인 진리가 부족할 때 사람들은 약해지고,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쉽게 감성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기기 위하여, 그리고 악에 대항하기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하여, 선을 행하고 선행을 많이 실천하기 위하여 많은 경우 우리는 용기를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

용기란 한편으로는 성령의 선물이요, 다른 한편으로는 사추덕의 하나입니다. 용기, 곧 굳셈은 특히 종말실재에 대한 숙고를 통하여 얻게 되므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종말실재 가운데에서 부활과 최후심판을 떠올려 봅시다. 세상의 끝이 올 것입니다. 이 날에 대하여, 세상의 끝에 대하여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Non est vestrum nosse tempora vel momenta quae Pater posuit in sua potestate.*”⁶ 이 날은 빨리 오거나 늦게 오며, 이런 방식 또는 저런 방식으로 온다고 해서 쓸데없는 호기심을 자아내지만, 결국 오게 됩니다. “복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위대하신 하느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5. “여러 가지 묵상” n. 15 각주 2 참조.

6. 사도 1,7.

기를 기다리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해줍니다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Domini nostri Iesu Christi.*”⁷ 그렇게 삼시다! 오,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 죽지 않고 다 변화할 것입니다 *Omnes quidem resurgemus.*”⁸ 그렇지만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부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원조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이시고, 그분들의 몸은 이미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경애하올 마리아의 육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신 [...]

죽음은 무엇입니까?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죽음 후에는 인간이 아니라, 한편에는 영혼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육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은 영혼과 결합되기 위하여 지어진 것이기에 영혼은 육신과 결합될 본성적인 확실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그 결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서 그리고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의 징벌을 내리실 때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부활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 선한 이들은 빛나고, 아무런 고통이 없으며, 영적이고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한 육신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육신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육신은 실행한 덕행에 의해 [...] 표시됩니다. 거룩하신 구세주의 손의 상처들은 얼마나 눈부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준 상처들은 얼마나 눈부시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프로파간다에서 많은 걸음을

7. 티토 2,13.

8. 1코린 15,51.

9. 창세 2,17.(역주: 원본에는 창세 3,3인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다)

곁에 했던 그 발들도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Beati pedes evangelizantium pacem, evangelizantium bona!*¹⁰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육신과 성 요셉의 육신은 얼마나 눈부시겠습니까! … 악한 자들은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부활할 것입니다. 악인도 부활하겠지만, [그의 육신은] 고통을 위하여 부활할 것이고, 파멸에서 영혼의 동반자가 되기 위하여 부활할 것입니다. “파멸 *perditionem*…” 죽음을 부르짖으면서도 늘 고통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죄에 의한, 실행한 무질서에 의한 흔적이 남을 것입니다. […]”¹¹

자, 이것이 우리가 제안해야 할 사항입니다. 곧 ‘나는 온통 죄로 물들어 있어 영원한 고통으로 이끌어갈 나의 육신을 부정하고 싶습니다. 나는 나의 육신에 영원한 기쁨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희생과 극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은 언제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자주 고통을 회피하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곧 무질서한 것은 극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과 시각, 그리고 촉각, 그리고 청각을 [극기해야 합니다.] […] 육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의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마지막 판결을 듣기 위하여 모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당신 <앞>에 모이게 되겠지만, 영원히… <악한 이들과 선한 이들과> 나뉘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이들은 오른 쪽에 […] 선조들, 예언자들, 사도들, 순교자들, 고해사제들, 동정녀들, 성인들과 함께 자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들은? 죄를 지은 모든 이들은 왼쪽에 줄지어 서게 될 것입니다. […] 양심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

10. 로마 10,15.

11. 원서에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말할 것입니다’(E allora parlera a se stessa)로 되어 있다.

시 말해서 각자가 행한 모든 선이 드러날 것이고, 모든 악도 마찬가지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 어떠한 혼란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각자에게 얼마나 많은 선으로 구원을 위한 수단들을 마련해 주셨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¹² 악은 단죄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단죄한 그 판관들은 심판받을 것입니다. 반면 수많은 덕행을 실천하였고, 믿음, 소망, 사랑, 선함의 내적 행위, 영적 작업을 실현한 선한 이들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악을 뒤덮고 있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선을 감출 수 있는 겸손한 영혼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알려질 것입니다. 내적 감정들과 선한 생각들도 알려질 것입니다. 각자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곧 ‘나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일찍이 어느 이방인 [작가는] 범죄자들이 숨을 수는 있지만, 결코 안전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의 실현이 지연될 수는 있지만, 많은 고통을 겪었고, 어쩌면 반대도 받았던 선한 이들에게 언젠가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 충실하고 그들의 의무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현재 여러 나라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추기경들, 주교들, 사제들, 수도자들이 있습니다. 박해자들은 선한 이들을 억압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단죄한 원수들이 영원히 승리를 차지하겠습니까? […] 세상에는 위선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가면을 쓰고 있기도 하지만, 그 가면은 어느 날엔가 벗겨질 것이며, 하느님 몸소 벗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굴욕을 받겠지만, […] 심판 때에 이미 선포된 선고를 받을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

12. 마태 26,64.

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에 돌보아 주지 않았다. …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지옥으로 가거라.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Et ibunt in ignem aeternum.*” 그리고 선한 이들을 위한 선고도 선포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그러므로 복을 받은 이들아, 오너라.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Justi autem ad vitam aeternam.*”¹³ 최후심판은 사랑의 유일한 척도로써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행업은 최고로 중요하고, 실제로 사랑은 영원히 남는 덕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는 교육, 보조, 교정, 먹을 것을 주는 일, 마실 것을 주는 것, 입을 것을 주는 것, 성소자 모집[……]은 사랑의 총체적인 활동이요, 사랑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의 표현인 프로파간다로 힘을 주는 사도직도 모두 사랑의 활동이요, 그 모든 것이 사랑을 드러냅니다. 사도직은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바울리나의 삶이 사랑에 바쳐진다면, [결론적으로 천국을] 얻는 삶이 됩니다. [……] 이러한 희망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앞으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된 희망을 기다립니다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Domini nostri Jesu Christi.*” 주님께서는 오실 것이요, [……]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그분을 기다려야 합

니다. 그러므로 고해성사 [……]뿐 아니라 회개 또는 삶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미워해야 할 잘못이 있습니다. [악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혐오해야 합니다. [……] 자주 부활에 대해, 최후심판에 대해, 악한 이들과 선한 이들의 분리를, 양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13. 마태 25,34-46 참조.

19. 순명 서원¹

오늘 아침 천상 스승께 항구하게 서원을 준수할 수 있는 은총을, 특히 순명 서원의 은총을 청합시다. 순명 서원은 세 가지 서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서원입니다. 왜냐하면 순명을 통하여 우리는 하느님께 가장 소중한 우리 의지를 드리고, 청빈을 통하여 하느님께 외적인 재산을 드리며, 정결을 통하여 하느님께 우리 육신을 드리기 때문입니다. 순명!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순명이란 하느님의 뜻을 꾸준히 행하려는 내적 마음자세입니다. 하느님의 뜻은 계명으로 드러납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에, 수도회에 주어진 명령을 통하여 드러나며, 하느님께서 허용하시거나 명령하시는 외적 사물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계명들입니다. [계명들]에서 특히 순명은 기도, 서원 준수, 장상에 대한 복종, 애덕 등의 의무를 지워주고, 또 의무를 부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상들을 통하여 주어진 명령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모든 수녀는 지시받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늘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미처 알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 지시한 사람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시가 확정적으로 주어질 때에는 항상 수용할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² 모든 지시가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만일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덕성도 없을 것입니다. 덕성은 말할 것도 없이 힘, 극기를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행한다면 ..., 아무런 공로를 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지시된 명

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을 본받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를 본받으며, 성 요셉을 본받고, 성 바오로를 본받으시다. 많은 일들이 하느님께서 지시하셨거나 허용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병을 앓게 될 경우, 이는 하느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므로 우리의 의지를 굽혀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반대받는 표적이 될 수도 있고, 약간 힘든 영혼의 상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느님 뜻에 우리를 굽힘으로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표와 직무에 적절하게 적응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명령하셨거나 허용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도 수용해야 합니다.

순명은 수도자를 위한 가장 위대한 덕의 원천입니다. 수도자는 하루 종일 하느님 뜻에 일치해 있기 때문이며, 바로 여기에 완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느님의 뜻을 실행해야 하고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해야 합니다. 언제나 ‘예’라고 대답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³ 하느님 뜻에 일치하려는 이러한 내적이며 지속적인 자세는 삶을 하나의 공덕의 길, 공덕의 연속성으로 변화시킵니다. 삶이 공덕의 연속성으로 변화될 때 종국에는 준비되었던 것이 모두 모아질 것입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뜻보다 더 완전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 뜻에 순응하기 위하여 수천 가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은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참된 사랑을 분명하게 드러내줍니다. 비록 우리의 원의가 다를지라도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순명의 길은 성화의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순명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 천상 스승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주는 길입니다.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Erat

1. 1955년 11월 23일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영신수련 동안 행한 묵상. 자기(磁氣) 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A6/an 18a ac 32a.

2. 「성바오로말수도회 회헌」 1953년판 135조 참조.

3. 루카 1,38.

subditus illis.”⁴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이시자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거룩하신 [존재]이셨지만, 마리아께서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시고) 더 거룩하신 분이셨지만, 요셉께서 아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요셉께 순종하셨습니다subditus illis.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생활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Erat subditus illis.”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한편 공생활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언제나 하늘에 계신 성부께서 원하신 바를 행하셨습니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Quae placita sunt ei facio semper.”⁵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위한 초대입니다. 곧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바를 늘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바를 늘 실행하는 영혼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총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덕을 얻게 됩니다. 수난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느끼셨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 계신 성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Non sicut ego volo sed sicut tu.”⁶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Fiat voluntas tua!”⁷ 우리가 보는 방식들, 우리의 경향은 얼마나 자주 하느님의 뜻에 반대됩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Non sicut ego volo sed sicut tu.” 하고 주님께 항구하게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 것처럼 실행해야 합니다. 성성에 이르고자 자신의 뜻을 행한 성인이 혹시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느님의 뜻을 행한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이 개입되면

그만큼 공덕이 감소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엄청난 희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잘 완수된 하느님의 뜻은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우리의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언제나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 항구하게, 더 자주 청해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제가 늘 당신의 거룩한 뜻을 행하도록 해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당신의 뜻을 행하기를 청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할 때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청할 때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환상적인 것을 청할 때, 또는 그분과 반대되는 것을 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좋다]고 여겨지지만, 우리는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청하고, 하느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sicut tu” 해주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순명해야 합니까? 지성을 통하여, 받은 명령, 곧 지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러한 것 또는 저러한 것을 허용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성부께서 그것을 윤택하신다면, 바로 그분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그것은 더 나은 것이라는 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할 때 큰 공덕을 얻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야 합니다. 곧 하느님의 뜻이 훨씬 나은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수도자는 선행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할 선행은) 이미 회헌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공동체를 이끄는 장상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수도자는 실행해야 할 선행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명령되고 지시 받고 정해진 선행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이러한 것을 혼

4. 루카 2,51.

5. 요한 8,29.

6. 마태 26,39.

7. 마태 6,10.

동합니까! 수련기에 이러한 단계를 이해할 정도가 안 되었다면 서원을 할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판단하는 선행이 더 나은 것이 아니라, 지시된 것이 더 나은 최상의 선이 됩니다. 정신을 통하여 깨달아야 하고, 지시된 대로 일을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지성을 집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느님의 뜻을 사랑해야 하지만, 마음과 의지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은 감각이 매번 지성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성과 마음 이외에, [순명에] 우리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시된 바를 정확하게 완수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직무가 맡겨졌다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이를 완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인쇄소에 인쇄기 한 대를 들여놓아야 한다면 ..., 만일 요리를 해야 한다면, 만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면, 만일 공부해야 하고 수업에 집중해야 한다면, 만일 기도해야 한다면 거기에 힘을 쏟도록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시된 사항이 최상의 형태로 실행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 못을 박는 사형집행인들에게조차 복종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Factus oboediens usque ad mortem, mortem autem crucis*.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⁸ 우리가 순종할 때 하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드높이 올라갈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 바로 여기에 겸손이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⁹ 겸손!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자신을 높이는 이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거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믿는 이는 낮추어질 것이고, 공덕을 잃게 됩니다. 그는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영광의 단계를 잃을 것입니다.

수도회의 힘이 순명에 달려 있기에,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순명이 지배하기를 청합니다. 진정으로 수도회의 목적, 다시 말해서 자신의 성화와 사도직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순명은 수도회를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며, 사람들을 위한 결실과 사도직의 결실을 보장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순명이 어떻게 완수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에, 지원기부터 이러한 점에 대해 강조하기를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수도회의 힘이 바로 지시받은 사항에 대한 순종과 일치 안에 있다는 점에서 순명이 가치로운 것입니다. 곧 회헌에 대한 순명, 지시된 사항에 대한 순명,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모든 것을 위하여 하느님의 거룩한 뜻 안에 맡기는 것입니다.

8. 필리 2,8-9.

9. 루카 14,11.

20. 형제적 사랑¹

오늘 아침 천상 스승께 형제적 사랑, 상호 사랑을 실천할 은총을 청합니다. [회현] 169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엇보다 수녀들은 그리스도인 삶과 수도생활의 최고 법인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 안에서 살아야 한다. 사랑에서 영혼의 모든 선하고 관대한 마음자세가 나온다. 사랑은 수도생활 준수를 용이하게 만들고 공덕을 최대한 높여준다.”² 그런 다음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설명합니다. 특히 사랑의 자질, 조건, 실천을 묘사하고 있는 회현 170-175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성 알폰소께서도 당신의 저서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의 실천 *La pratica di amar Gesù*」³에서 성 바오로의 말씀을 12장 章으로 세분하셨으며, 각 장마다 사랑의 특성을 설명하셨습니다.⁴

회현 17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녀들은 성 바오로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 곧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인내 없이는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견뎌야 할 [무엇인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Ut discamus alter alterius onera portare.*”⁵ 또 “사랑은 친절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언제나 공감하고, 도와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선으로 해석하는 태도를 지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

다.” 시기는 마음을 갇아먹는 벌레요, 세균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가끔 어떤 무례한 답변은 영혼의 평화, 마음의 평화, 자매들의 평화를 많이 손상시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자질이나 또는 이루어낸 어떤 일을 자랑하지 않으며, 모든 이에게 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기를 원하지만 사랑은 군림하기보다는 더 봉사하기를 추구합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자애심은 사랑에 반대되며, 자애심이 강하면 더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위해서는 자애심을 없애야 합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화를 낼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화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것 때문에 평화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선 생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예방하는 것이 아닌 한 나쁘게 판단하지 않고,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프로파간다를 갈 때 어떤 장소에 목격 될 경우 그곳에 위험 요소를 만나게 된다면, 이유 없이 나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망치기 위하여 노리고 있는 악마에 대하여 나쁘게 생각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굴욕을 당하거나 또는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에도 “사랑은 불의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이 지상에서 가능한 한 언제나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줍니다.” 언제나 함께 느끼고, 적어도 의도를 밝히며 사과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반대되는 사항이 입증되지 않는 한 속이려 한다거나 위선적이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언젠가 [악을 일삼는 이들이] 은총을 얻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

1. 1955년 11월 24일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영신수련 동안 행한 묵상. 자기(磁氣) 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A6/an 18b ac 32b.

2. 「성바오로말수도회 회현」 1953년판 참조.

3. 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의 이 작품은 1768년에 출간되었고, 바오로 출판사 도서 목록에 1922년까지 수록되었다.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성바오로말수도회에 이 작품을 추천하였으며, 강론 중에 자주 인용하였다.

4. 1코린 13,1-13 참조.

5. 갈라 6,2.

을 때, 개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비록 끝자리에 놓이더라도 견디어냅니다. 천상 스승의 다 음과 같은 가르침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⁶ 겸손은 외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에 대하여 경멸에 가까운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가 엄청나게 큰 죄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세요, 우리가 받은 은총에 비해 우리가 충분히 진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에는 원칙같은 것이 있습니다. 곧 확신이 필요합니다! 성인들이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칭찬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총과 그에 따른 응답을 비교함으로써 확실하게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상 스승께서는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끝자리를 선호해야 하고, 그 자리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각자 자기 자리에 앉히시는 하느님의 명령이 주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동선으로 이끌며 힘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명령하는 사람은 어머니다운 부드러운 배려를 보여야 하고, 명령을 받는 사람은 자녀다운 온순함을 드러내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에 관하여, 회헌 175조의 우리의 사랑이 성 바오로가 묘사한 사랑과 천상 스승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성찰하기 위해서나 기도하기 위해서 성체방문을 하고 묵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헌 174조는 “형제적 교정의 법칙을 진심으로 실천해야 하지만, 사랑이 요청하는 명령, 그리고 특히 수도자에게 적합한 명령을 곧바로 준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잘 교정할 것! 교정을 잘 하기란 어려우

며 그 교정을 잘 받아들이기도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성찰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교정을 받는 사람들은] 곧바로 변명하지 말고 자신의 잘못들, 자신의 결점들을 방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어떤 경우에 자매의 선이나 공동체의 선을 위하여 장상에게 어떤 잘못을 언급하도록 요청된다면,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녀들은 오로지 사랑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자매의 선이나 공동체의 선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쉽게 자매들의 결점을 장상에게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결점들이 다른 이들의 결점보다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경향에서, 자애심에서 우리의 잘못보다 다른 이들의 잘못을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서처럼 자기 눈에 들보가 박혀있을 수 있음에도 다른 이들의 눈에 티를 지적합니다.⁸ 자매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경향은 당연히 제거되어야 하고, 교정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이러한 경향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도록 곧바로 상기시켜주어야 합니다. 비록 가끔 언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습관은 큰 잘못입니다. 통솔을 위해서나 사회생활과 공동체 삶을 위해서나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열정이나 좋지 않은 목적을 경계해야 한다.”

회헌 173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자들을 위한 사랑의 특별한 훈련은 공동체 삶에서 아무런 차별 없이 진지하고, 친근하고, 진심을 담은 공동생활이다.” 진지한 공동생활, 따라서 늘 입을 굳게 다물거나 과장되게 행동함으로써, 또는 일부 사람들이나 공동체 삶 자체에 대한 피곤함을 드러냄으로써 삶에 중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다루기 힘든 사람들이 있어서 이

6. 마태 11,29.

7. 루카 14,10.

8. 마태 7,4-5 참조.

들을 교정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 좋지 않은 이러한 경향을 지녔다면 매번 조금씩, 그리고 기도하면서 고쳐가고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히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닙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Ut discatis alter alterius onera portare.*”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동생활이 고통이 있는 곳에 위안이 되고, 어려움이 있는 곳에 용기를 주고, 기쁨이 있는 곳에 진지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 잘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생활은 성 바오로의 훈계를 살도록 해야 합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회헌 172조에는] 특히 우리가 깊이 머물러야 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수녀들 사이에는 상호간의 사랑과 이해, 서로 좋은 본보기가 있어야 한다.” 이 마지막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곧 선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기도를 잘 하는 데 있어서, “충실한 준수에 있어서, 공동으로 느끼는 데 있어서 그리고 말하는 데 있어서” 서로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좋은 본보기는 좋은 강론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본보기가 좋다면 좋은 강론이 되지만, 본보기가 좋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수도생활을 준수하지 않고, 정확한 시간엄수가 안 되고, 사도직에 대한 사랑이 없고, 묵상 정신이 없다면 이러한 본보기가 널리 퍼지게 되며 급기야 대죄를 짓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회헌 504조 4항에서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동기나 목적에서 이러한 규정들을(규율을 의미하기도 함) 여기는 수도자, 또는 나쁜 본보기를 보이거나 규율과 수도생활 준수사항을 해이하게 만드는 수도자는 관련 덕목을 거슬러 죄를 범하는 것이다.” 만일 어느 수도원에서 수도생활 규율을 해이하게 만든다면 대죄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9. 원문에는 ‘자매들을 찾을 수 있도록’(che possono trovare le sorelle)으로 되어 있다.

봉쇄규율은 회헌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처신해야 할 태도, 맺어야 할 관계, 각 개인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묘사하고 있으며, 서원에 관해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¹⁰ 실제로 서원에서 일어나는 남용들, 특히 서원에서 [입증 가능한] 몇 가지 사항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간결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이러한 사항들에 관하여 형제적인 교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상기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이어서 다루는 것이 유익하겠기에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영화필름 배급 직무에서는 서원에서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아직 직무를 수행하지 않지만, 이러한 사도직이 확산되어 기초가 잘 다져진 이러한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서원에서 특히 영화필름 배급을 다루게 될 때 최대한 경계해야 합니다. 영화 사도직을 잘 하기 위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필름을 다룰 때, 말할 때, 배급 자체에 있어서나 또는 본당이나 학교 등 사용처에 [따라서] 필름을 선택할 때 더 섬세하고 더 주의 깊게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간 위험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더 잘 기도하고, 영성체를 잘 하고, 성체방문을 잘 해야 합니다. 또 최소한의 위험이라도 느끼게 되면 인도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서 견뎌야 하고, 자제해야 하고, 언급해야 하고, 교정해야 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심에서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모든 이에 대한 종교적 예절, 공통된 외적인 표지인 교육과 충심어린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특별히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들에게 적합한 방식이어야 한다.”¹¹ 더 나아가서 우리가 늘 되풀이하는 사고방식으로 결론을 내립시다. “그러나

10. 「성바오로딸수도회 회헌」 1953년판 278-279조 참조.

11. 상동, 172조 참조.

성바로팔수도회는 외부인과의 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들 사이의 태도와 장상들과의 관계에서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을 피하고 언제나 단순하고, 민첩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¹²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인위적이고 형식적인 방법을 피하고 언제나 단순하고, 민첩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행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이런 식입니다.”라며 지나치게 경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바로팔수도회는 성바로팔들입니다. 따라서 단순하고, 활발하고, 민첩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양식을 습득하는 것은 교육에 있어서, 주장에 대해서, 형식에 대해서, 그저 외적인 것에 불과한 모든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 유의하는 것이야말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애덕, 참된 덕성, 참된 열성, 사람들에게 대한 참된 사랑, 수도생활에 대한 참된 사랑, 이것이야말로 사물의 본질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여러분을 한층 축복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진보할 것이고,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발전을 거듭하여 이 나라에서 언제나 더 큰 선을 행하며, 여러분이 파견된 곳의 사람들에게 더 큰 선을 행해야 합니다.

21. 사도직¹

어제 우리는 수도가족 내부의 애덕에 대해 숙고하였습니다. 생각에서 사랑, 곧 선을 생각하는 것, 감정에서 사랑, 곧 선을 바라고 선을 염원하는 것, 말에서 사랑, 곧 선하게 말하는 것, 그리고 활동에서 사랑, 곧 가능한 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애덕은 외부를 향해 실천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애덕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직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사도직은 가장 유익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애덕은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병자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비로운 육체적 활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자비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가장 탁월한 것입니다. 곧 의심하는 이들을 충고하고, 무지한 이들을 교육하며,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영적인 사랑의 활동 가운데 근본적인 활동은 무지한 이들을 훈육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의 목적인 영원한 목적지 하늘나라를 상기시켜야 하고, 믿어야 할 진리와 하늘나라에 도달하기 위하여 채택해야 할 수단들을 모든 이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지상에서 떠나 경계가 없는 죽음 저편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 좋은 자리를 보장받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프로파간다 사도직을 행하는 것입니다!

편집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글로 써야 합니다. 필름은 기술적인 작업과 지적인 작업, 편집 작업을 통하여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책으로 출간되고, 필름으로 제작되었으나 사람들에게 도달되

12. 상동.

1. 1955년 11월 25일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영신수련 동안 행한 묵상. 자기(磁氣) 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A6/an 18b ac 33a.

지 못한다면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적, 교리, 잡지에 열매를 보장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프로파간다입니다. 가장 훌륭한 일도, 우수한 서적, 잘 만든 잡지도 사람들에게 도달되지 못한다면, 영혼들에게, 가정들에 전해지지 못한다면 그 열매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프로파간다 수녀들은 큰 가치를 지니고 있고, 큰 공덕을 쌓게 됩니다! 언제나 천상 스승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죄를 회개한 이들을 고쳐주게 하셨다(Evangelizare pauperibus misit me, sanare contritos corde.”² 바로 이것이 가난한 이들에게 [파견된] 프로파간디스타입니다! 가난한 이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상의 재물이 결핍된 가난한 이들이 있고, 진리와 영적인 요소가 결여된 가난한 이들이 있습니다. 모든 이에게 우리는 진리의 양식을, 영을 양육시키는 그 빵을 가져다주어야 합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³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사는 것이란 어떤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영원한 진리, 창조된 목적을 묵상해야 하고, 영원한 행복에 도달하기 위하여 행해야 하는 것들을 묵상해야 합니다. 지상의 계획들,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려 하며, 이 아래 세상에서 잘 지내기 위한 계획들만 돌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습니까!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자주 이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납니까! 주님께서는 이들을 하늘나라를 위하여 창조하셨는데 이들은 늘 지상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상에서 여정 중에 있지만, 그 여행은 빠르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마침내 하늘의 아름다운 도시, 천상 예루살렘, 천국에 도달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3년의 공생활 동안 이 도시 저 도시, 이 마을 저 마을, 이 고을 저 고을, 이 집 저 집을 다니시다가 가끔 길의 교차로에 멈추시거나 훨씬 자유로운 시간을 위하여 그리고 더 풍성하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홀로 산으로 가 머무셨던 예수님을 관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셨다(Evangelizare pauperibus misit me.” 자, 이것이 3년의 공생활이었고, 계속된 프로파간다입니다!

성 바오로를 관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보내셨다(Evangelizare pauperibus misit me.” 성 바오로께서는 당신의 여행길을, 몇 년에 걸쳐 동양, 그리스의 여러 지역을 거쳐 당신의 말씀을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들을 수 있기까지 계속된 그 힘든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장소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도달하지 못했을 때에는 당신의 서간들, 당신의 글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성 바오로이십니다. 당신의 사도적인 여행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떤 정신으로 여행에 몰두하셨는지, 어떤 용기를 가지시고 또 어떤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여행을 지탱하셨으며, 또 여행을 계속하셨는지, 그리고 당신 삶에서 어떤 결실을 얻으셨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설립하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프로파간다입니다! 여러분은 때때로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 또는 교회에서 장애요소가 관면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도록 파견받았습니다. 진리는 구원을 가져다주지만, 그 진리가 알려지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 집에, 여러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수고하며 걸었던 길에 대해 천국에서 얼마나 많은

2. 루카 4,18 참조.

3. 마태 4,4.

영혼들이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만일 하느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 바오로께서는 이 점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늘나라에 이르겠습니까? 만일 아무도 그들에게 하늘나라를 상기시켜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겠습니까?”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선인 천국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영원히 지상에 머물 것처럼 물질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러니 프로파간다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난한 이들 사이에 프로파간다가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이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를 더 잘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 지상에서 잘 지내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여 저 낮은 곳으로 향하지만, 고뇌에 찬 가난한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희망합니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⁵ 가난한 이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도회에 어떤 은총을 베푸셨습니까? 부족한 것을 가정에 전하는 것, 다시 말해서 종교교육입니다. “평화를 전하고 선을 기쁜 소식으로 전하는 사람들의 발길은 행복합니다.”⁶ 많은 수녀님들이 많은 고통을 견디어 내며 그들의 힘을 온전히 쏟았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힘을 소모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지상에서 그보다 더 탁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프로파간다는 어떻게 실행해야 합니까? 우선 먼저 올바른 지향입니다. 곧 영혼들을 찾는 것입니다. 성 요한 보스코는 먼 나라로 떠나는 선교사들에게 “영

혼을 찾아야지 돈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라는 말을 자주 상기시켰습니다. 올바른 지향으로, 지혜로 참된 선을 행하고, 힘을 적절히 사용할 줄 알 때 그 자체로 돈은 주어질 것입니다.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⁷ 올바른 지향입니다! 그 다음에 더욱 더 창의적으로 [프로파간다가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프로파간다가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험해야 하는 방법들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체선교는 일반적으로 훨씬 폭넓은 결실을 가져다줍니다. 더욱더 창의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도와줄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단체선교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와 단체들이 있으며,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도와주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협력자들은 제일 먼저 지성인 협력자들이어야 하고, 그다음으로 프로파간다 협력자들, 하느님 나라 보급을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교 진리의 보급을 위하여 도와주는 이들이 뒤따릅니다. 언제나 지적인 면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적합하도록 서적과 잡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책이 적합하고, 다른 사람에게에는 다른 책이 적합합니다. 이렇듯이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고, 어떤 사람은 이미 연로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의 어머니이고, 어떤 이는 어린이입니다! 엄마가 아기에 준비해줄 음식을 선택할 줄 아는 것처럼, 그들의 연령에 따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 출판물을 적합하게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파밀리아 크리스티아나 *Famiglia Cristiana*」⁸ 잡지가 크게 유익하지만,

4. 로마 10,14 참조.

5. 마태 5,3-4 참조.

6. 참조: 로마 10,15; “성바오로딸들의 참된 행복” 바오로 가족 기도서 281쪽.

7. 루카 10,7 참조.

8. *Famiglia Cristiana*는 1931년에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창간한 가톨릭계 주간지로서 그 시작의 책임을 성바오로딸수도회 편집부에 맡겼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쉽게 위험에 빠져들습니까! 어린이들은 본성적으로 알고, 읽고, 형체를 바라보기를 좋아합니다. 물질적인 목적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인쇄합니까? 더 나아가 어떤 글을 쓰겠습니까? 어린이의 관심과 필요에는 개의치 않고, 어린이의 영혼, 그들의 순진함을 전혀 유의하지 않고 오로지 돈을 버는 데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린이의 순진 무구함을 보존할 수 있도록, 책을 읽으면서 호기심에 이끌리지만 그의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들을 선택하지 않도록,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유익한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에 대해 언급하는 모든 것에 특별한 중요성을 두어야 하고, 특히 꼬마 신문이라는 뜻의 <일 조르날리노 Il Giornalino>⁹⁾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선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방향 잡게 해주는 진리를 듣고 읽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러한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공생활 동안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을 당신께 가까이 부르시어 돌보셨으며, 그들을 얼마나 총애하셨는지요! 바로 이것이 프로파간다의 훌륭한 정신입니다. 곧 예수님처럼 가난한 이들, 어린이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분명히 지혜도 필요합니다. 프로파간다는 늘 지혜를 동반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하여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모든 주의사항, 여러분에게 주어진 제안들을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은 위험 사이를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지나가게 될 것이며, 동시에 사람들에게 이익, 결실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언제나 지속적으로 현명해야 합니다. 현명함은 열정의 눈입니다. 가끔

9. Il Giornalino는 성바오로수도회가 1924년 알바에서 시작한 소년들을 위한 화보 주간지이다.(역주: 화보집이지만, 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스포츠, 갖가지 소식을 담았다)

썬 더 많이 행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현명하게 걸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해야 하지만, 나쁜 길을 걷는 그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우선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하며, 우리의 구원을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위험이 있다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프로파간다를 하는 동안 해야 할 영적 영성체가 많은 도움을 줍니다. 프로파간다 동안에 좋은 대화들, 상호 격려가 많은 도움을 가져다줍니다. 자신을 하느님의 우편배달부,¹⁰⁾ 구원하는 진리를 가져다주는 집배원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맡긴 이러한 아름다운 사명을 초자연적 정신으로 완수해야 하는데, 어디에서 그 힘을 취할 수 있습니까? 영성체에서, 아침에 미사에서 얻어야 합니다. 제대 가까이에 다가가야 하고, 성체성사의 양식으로 양육되어야 하며, 사도의 모후의 보호 아래 맡겨야 하고, 성 바오로를 바라보아야 하며, 따라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야 합니다.

때때로 아무런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행하고 있는 똑같은 노고, 기도, 희생정신이 [만나] 사람들에게 은총을 얻게 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즉각적인 결실을 보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면, 심판 날에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행한 프로파간다에 의해서, 희생과 침묵 속에 행한 프로파간다에 의해서 빛을 받고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으로 양육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그러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처럼 걸음을 봉헌합니다. 우리 자신을 영혼들에게 내어줄 수 있기를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혼들을 찾는 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은

10. CVV, n. 118에서 인용한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독창적인 표현. “성바오로딸들의 참된 행복”, 바오로 가족 기도서 281쪽 참조.

총을 청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마리아께서 그들을 당신 보호 아래 두시며, 이 영혼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한 생생한 희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들 안에 이 세상에 대한 미움과 구원되려는 의지, 선을 행하려는 의지를 부어주시도록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corsum consummavi, in reliquo reposita est mihi corona iustitiae.*”¹¹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달릴 길을 다 달린 프로파간디스타들은 수많은 길을, 수많은 집을 성화시켰습니다. 가정을 찾아갔던 그들의 방문은 성녀 엘리사벳을 찾아가신 마리아의 방문과 비슷하게 평화와 빛을 전해줍니다. 수호천사들은 모든 발걸음, 모든 염원, 그들이 전한 좋은 말씀을 열거합니다. 하느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물 한 잔 건넨 것도 잊지 않으신다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위하여 무지한 이들에게 진리를 전한 것을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큰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걸음을 통하여 영혼들과 프로파간디스타들은 위를 향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집을 향한, 저 집을 향한, 이 가정을 향한, 그리고 저 가정을 향한 걸음이지만, 영혼이 하늘나라의 영광 안에 더 높이 오르게 되는 걸음입니다.

22. 사도의 모후 마리아 신심¹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께 사도의 모후 마리아를 한층 더 잘 아는 은총을 청합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열성을 다해야 합니다. 어제 저는 우리의 아파레시다 *Aparecida*(역주: ‘발현’이라는 뜻.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는 성모성전, 1717년 강물에서 검은 성모상을 건져 올린 후 많은 기적이 일어난 곳) 성모님께 봉헌된 새 성전의 도면을 보았습니다. 보십시오, 한 나라가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성전 건립을 원하였습니다. 이제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마음에 받아들여지고,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면 더 순수한 사람들을 얻을 것이며, 정결을 더 잘 실천하고, 청빈을 더 잘 실천하며, 순명을 더 잘 실천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리아께서는 성소의 어머니이십니다. “첫 번째로 사도직에 부르심 받으신 분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이십니다 *Habemus pontificem et apostolum nostrum, Christum Iesum.*”² 마음 안에 마리아의 모습을 각인시킬 수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마리아께 사랑을 드릴 때 성소에 대한 교육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위대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일반적인 신심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심은 바오로적 색깔을 띤 신심이어야 합니다. 곧 회현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도의 모후께 대한 신심입니다. 우리는 회현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하지만, 특히 정신을 주는 조항들, 그 가운데에서도 스승 예수, 사도의 모후, 성 바오로께 대한 조항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

1. 1955년 11월 26일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영신수련 동안 행한 묵상. 자기(磁氣) 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A6/an 19a ac 33b.

2. 히브 4,14 참조.

11. 2티모 4,7-8.

다. [이러한 신심들은] 권고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곧 우리의 신심이요, 정신을 형성해주는 것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의무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도움이신 마리아Ausiatrix를 더 사랑한다면, 만일 여러분이 다른 신심을 선호한다면, 잘 모르지만 이를테면, 위로자이신 마리아Consolata 신심을 좋아한다면 여러분은 다른 수도회에서 서원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역사에서 마리아께 대한 신심은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다섯 시기로 구분됩니다. 첫 시기는 마리아의 기다림, 대기하는 시기입니다. 주님께서 악마와 마리아 사이에 일으키는 적개심,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Inimicitias ponam inter te et milierem”³라는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뱀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를 가져왔지만, 은총을 가져올 여인이 올 것이다. 너는 파멸을 가져왔지만, 구원을 가져올 여인이 올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Ipsa conteret caput tuum.”⁴ 그리고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구약성경을 통해 마리아에 대한 많은 상징들과 그분에 대한 예언들이 주어졌습니다.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입니다Ecce virgo concepiet et pariet filium.”⁵ 오, 마리아를 기다리는 것은 여명을, 오늘 아침의 아름다운 새벽과 같은 여명을 기다리는 때와 같습니다. “마리아, 여명처럼 당신은 하늘에서 일어나시니...정의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나이다.”⁶ 아름다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아침을 선포하는 여명입니다.

3. 창세 3,15.

4. 창세 3,15.

5. 이사 7,14.

6. *Liber Usalis*, “Aurora consurgens, Maria,” 복되신 동정 마리아 성모승천, 베네딕투스 후렴.(역주: *Liber Usalis*는 가톨릭 전통의 그레고리오 성가집)

다. “의로움의 태양, 예수 그리스도Sol iustitiae, Christus Iesus.”⁷ 자, 이것이 마리아께 대한 첫 번째 신심의 시기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때, 곧 기다림의 신심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명이 떠오르고, 마리아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시어, 어떤 성인들보다 더 거룩하신 분이 되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명입니까! 달리 상상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성인과 하늘의 천사들보다 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름다우신 어머니, 우리는 이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저는 수녀님들이 처음에 천상 아기에 대한 깊은 신심을 가졌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된 신심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의 천사들이 요람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가장 탁월하신 피조물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9월 8일을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리아께 대한 신심의 다른 시기가 뒤따릅니다. 곧 예수님의 신심입니다. 누구보다도 마리아를 공경하신 분은 그분을 엄마라고 부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엄마, 옷! 스포스!’ 그야말로 그분을 어머니로 공경하셨고, 마리아께서는 하느님 아드님의 어머니라고 일컬어질 때 가슴 속에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세상이 담을 수 없던 그분을 마리아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은 담을 수 있었습니다.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 복되신 동정녀의 아드님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전 생애에 걸쳐 마리아를 공경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결코 그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⁸ 그래서 요한은 그분을 도와드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7. 말라 3,20 참조; 「로마 미사경본」 Maternita di Maria, 복음환호송.

8. 요한 19,26-27 참조.

그다음으로 마리아께 대한 가장 큰 신심의 시기가 뒤따릅니다. 제가 가장 큰 신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마리아께 대한 예수님의 신심 시기를 말합니다. 곧 사랑, 신심, 복종, 그 누구도 것처럼 마리아를 본받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마리아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의 당신 과업을 완수하셨을 때, 교회 안에서 마리아께 드린 첫 번째 신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도의 모후Regina Apostolorum께 드리는 신심이었습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요한은 여러분이 어디서나 성모님의 성화를 공경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을 공경하였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우리보다 마리아를 훨씬 더 사랑하였으며, 다른 사도들도 요한처럼 그러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곧바로 다락방에서 마리아 주변에 모여 그분과 함께 성령께서 공동체에 강림하시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오셨고, 마리아께서는 교회를 당신 팔에 안아 이끄셨습니다. 마리아께서 지상에 살아계시는 동안 사도들의 조언자, 그들의 위로자가 되셨고, 모든 이를 격려하셨으며, 당신의 전구를 통하여 지탱하신 그리스도인 삶에서 그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은총입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마리아 공경의 첫 번째 신심은 바로 사도의 모후입니다.

우리는 개혁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도의 모후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우리는 가장 오래된 시기로 되돌아갑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구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의 정신으로 들어가고, 마리아를 통하여 구원을 마련하신 하느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마리아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성과 동시에 어머니의 존엄성을 지니셨습니까? 어떠한 목적으로 천상 성체의 어머니,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어머니, 천상 스승의 어머니, 대 사

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직이요, 본질적인 사도직입니다. 모든 다른 사도직은 이것으로 축소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리아께서 지니셨던 모든 특권, 모든 은총은 이를 [위하여 존재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는 것입니다.

그분을 은총의 중개자라고 일컫는 것은 하늘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페소 공의회까지⁹ 지속되었던 시기가 뒤따릅니다. 그다음에는 스킨라학파,¹⁰ 특히 성 토마스와 성 보나벤투라에 따른 마리아께 대한 신심의 시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후 프로테스탄트들의 아버지인 루터와¹¹ 더불어 교회의 가장 위험한 시기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께서 세상에 개입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사랑하도록 상기시키는 시기로 들어가 봅시다. 루르드에서,¹² 파티마에서,¹³ 기적

9. 에페소 공의회(431)는 세 번째 세계공의회로서, 이 공의회에서 마리아의 신적 모성이 정의되었다.

10. 스킨라학파는 9세기부터 14세기까지 계속되던 사상의 조류이며, 고대 철학과 그리스도교 신학의 장엄하고 종합적인 요체를 대변한다.

11. 마틴 루터(Martin Lutero, 1483-1546)는 독일의 신학자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수사였다. 루터주의와 종교개혁 운동에 기원을 마련하였다.

12. 1858년 7월 16일, 마사비엘(Massabielle) 동굴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벨라뎃다 수비루(Bernadette Soubirous, 1844-1879)에게 발현하셨으며, 열여덟 번째 발현 중에 다음과 같은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셨다. “나는 원죄 없는 잉태(Immacolata Concezione)이다.”

13. 1917년 5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동정녀께서는 포르투갈 파티마 근처 코바다 이리아(Cova da Iria)에서 세 명의 꼬마 목동들에게 매달 한 번씩 여섯 차례에 걸쳐 발현하셨다. 세 어린이는 루치아 도스 산토스(Lucia dos Santos, 1907-2005), 프란치스코(Francesco, 1908-1919), 히야친타 마르토스(Giacinta Martos, 1910-1920)였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곧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기도, 참회와 보속, 묵주기도,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께 대한 신심이다.

의 메달을¹⁴ 통하여 파리에서, 그리고 다른 발현으로 메시지를 전하신 시기입니다. 어떤 목적에서입니까? 교황 레오 13세의 시기는 묵주기도의¹⁵ 시기이고, 그후 성체성사¹⁶ 시기가 뒤를 이었습니다. 성체성사 신심이 얼마나 발전되었습니까! 우리 또한 감실에서 태어났습니다. 감실은 마리아의 아드님,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에 관한 연구가 확산되었고, 은총의 보편적 증개자이신 마리아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기를 기다리면서, 원죄 없으신 성모님에 대한 정의, 성모 승천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또한] 구원의 정신과 하느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께서는 그 계획 위에 세상의 구원을 생각하셨습니다. 세상의 구원은 예수님에 의해 완수되었지만, 아직 온 세상에 적용되지 않은 이 구원은 사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께서는 예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지금도 사도의 모후이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가르침을 주셨기에 사람들은 이제 그분의 가르침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은총을 살아야 하며,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신심은 사도의 모후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완전히 미친 것이 아니라면, 약간 미쳐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리를 마련하는 대신에 제대 위에 이성의 여신dea Razione¹⁷ 동상을 세웠습니다. 하느님의 개입이 없

14. 1830년 11월 27일, 성모님께서 성 빈첸시오의 사랑의 딸회(애덕의 딸 수녀회)의 가타리나 라부레(Caterina Laboure, 1806-1876) 수녀에게 발현하시어 그녀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따라 메달을 만들도록 초대하셨으며, 그 메달을 지니고 다니는 사람에게 은총을 약속하셨다.

15. Pr6, “여러 가지 묵상” n. 3 각주 6 참조.

16. 교황 레오 13세에 이어 교황 비오 10세는 교황 재임기간 동안 갖은 영성체를 통하여 성체성사를 위한 사랑이 신자들 안에 증가하도록 전력을 기울였으며, 이 성사를 어린이들에게도 허용하도록 권고하였다.

17. 프랑스 혁명(1789-1794) 동안 파리에 이성의 여신에 대한 예배를 정착시켰다.

있더라면 페론은¹⁸ 아르헨티나에 복되신 동정녀 자리를 대신하여 9월 8일에 제대 위에 에비타의 초상화를 걸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된 초상화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주님께서 그 혐오스러운 추행이 인류에게 가해지는 것을 막아주셔서 무산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도의 모후께 대한 신심을 우리의 신심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분은 성소를 주실 것이고, 성소자들에게 순수함과 인내심을 주실 것이며, 사도직 정신을 주실 것이고, 편집과 인쇄기술과 보급을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은 전적으로 마리아와 함께 있기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도가 이 가르침을 이해했으며, 요한은 제일 먼저 마리아께 대한 이 신심을 실천하였습니다. 근자에 미국에서 「사도의 모후Regina Apostoloum」가 번역되었는데,¹⁹ 그 책을 인가해야 할지 결정을 못한 채 거의 2년 동안 주교회의의 [의원들]에 묶여 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아서…이런 것 같아서”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마침내 승인을 받았는데, 또한 마리아께서 개입하시어 검열관들을 비취주신 덕분입니다.

우리는 이 신심을 우리의 신심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께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악이 만연한 이 세상에 천상 스승을 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악은 마음보다 지성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많은 악습, 미신이 많지만, 무엇보다 많은 오류가 출판물, 학교, 강연회, 라디오, 영화와 텔레비전을 통하여 폭넓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아니라 지성에 집중하여 치유해야 합니다. 세상에 천상 스승을 전하시고, 지성을 비추어주시도록 마리아께

18. 후안 도밍고 페론(Juan Domingo Perón, 1895-1974)은 1946년부터 1955년까지 아르헨티나 공화국의 대통령을 역임했다. 사회활동 분야의 그의 협력자는 아내 에바(Eva, 1919-1952)였다.

19. Alberione G., *Queen of the Apostles*, Derby, N.Y.(USA) 1956 참조.

기도해야 합니다. 위로자이신 마리아(Consolata)께²⁰ 대한 신심, 기적의 메달에 대한 신심, 도움이신 마리아(Ausiliatrice)께²¹ 대한 신심을 가지고 있는 수녀들이 있습니다. 성바오로딸들은 어떻습니까? 고유한 신심 안에 확고하게 머물러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자신들의 사명의 본질인 자신의 성화(聖化)를 위한 은총과 사도직을 위한 모든 은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양성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도들을 양성하도록, 그리고 모든 남녀 사도들을 지탱해 주시도록, 사도의 모후 성당을²² 건립하기 위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준비해왔고, 얼마나 많은 노고를 쏟았습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성당에서 얼마나 자주 성체조배를 해왔습니까! 이제 저는 이 묵상이 한 쪽 귀로 들어갔다가 다른 귀로 나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지성에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 오면서 저는 수도원 안에 사도의 모후 성화(聖畫)가 많이 모셔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화가] 벽에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이 신심을 마음에 각인시키고, 마음에 간직합니다. 여러분은 사도의 모후께 대한 깊은 신심을 지녔으므로 성당에 있어서 확실히 진보할 것이며, 한층 더 확고한 사도직 정신을 얻게 될 것이고, 회원들의 증가와 특히 질적인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20. 토리노의 참된 마리아 신심의 중심은 위로자 성당이다. 위로자이신 성모님(Madonna Cosolata)께 대한 신심은 고대부터 내려오는 신심이지만, 복자 요셉 알라마노(Giuseppe Allamano, 1851-1926)의 업적을 통하여 새로운 자극을 받았다. 그는 성당의 책임자로 임명된 다음 위로자 성모의 선교회를 창립하였다.

21. 도움이신 마리아(Maria Ausiliatrice)께 대한 신심은 1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위로자라는 칭호가 교회 안에 구체화된 것은 성 요한 보스코와 1868년 토리노의 도움이신 마리아 성당 건립의 축성식 덕분이다.

22.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사도의 모후 성당을 사도의 모후께 대한 신심을 확산시키기 위한 기도의 중심으로 삼고 싶어 했다. 로마에 폭탄이 투하될 때 성모님께 드린 약속의 성취가 시발점이 되었다. 1947년 8월 19일에 초석을 놓았고, 1954년 11월 29일/30일에 성당 봉헌식을 가졌다.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카리스마 넘치는 통찰력은 스승 예수님께 대한 신심을 알고, 본받고, 살게 하며, 마리아처럼 그분을 세상에 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성당을 바오로 성소와 협력자회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지향을 실현시키셨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오래된 신심인 사도의 모후 신심을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시키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 어머니를 위하여 가지셨던 신심 말고는 그 어떠한 신심도 더 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본성적으로 마리아의 아드님이시고, 우리는 이 영적 어머니의 양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도의 모후께 대한 신심을 약속드립니다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책들을 읽는다고 약속드립니다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해질 모든 강론을 듣기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께 전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청하기를 약속합니다? 마리아께서 여러분에게 성소를 주시고, 성소의 거룩함을 주실 것입니다.

23. 우리 수도원을 성화할 것¹

우리 수도원은 하느님의 것으로 거룩합니다. 우리가 수도원을 세웠지만, 이렇게 세워진 수도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원은 교회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질 수는 있습니다. 수도원은 참으로 하느님의 집입니다. “나의 집은 기도의 집이라 불릴 것이다(Domus mea,”² 실제로 주님께서 거하시는 하느님의 집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당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Iesus adest et vocat te.”³ 오늘 아침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여러분이 이곳에 왔고, 또 성체방문을 통하여 여러분을 다시 부르실 것이며, 그러면 또 여러분은 이곳에 올 것입니다. 하느님의 집입니다! 우리 수도원은 또한 사도직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여러분의 출판물들, 곧 「파밀리아 크리스티아나」와 여러분이 인쇄하거나 보급하는 모든 책을 제작할 때 바로 사도직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편집과 기술 부분, 보급 방향과 준비가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수도원은 거룩합니다. 예수님께 경의를 표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께 경의를 표하며, 거룩한 장소로 수도원을 건립해야 하지만, 수도원을 공덕으로, 사도직으로 채워야 하고, 거룩한 기쁨, 아름다운 성소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수도원은 “하늘의 문, 여기가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hic domus Dei est et porta coeli.”⁴입니다. 왜 하늘의 문입니까? 그 이유는 분

명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은총을 받으며, 우리 수도원 성당에서 미사를 거행하고, 은총을 받습니다. 천상 스승께, 사도의 모후께, 성 바오로께 모든 거룩한 의식을 거행하고, 아름다운 찬미가를 부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공덕을 쌓고 하늘나라를 얻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여러분은 여기 여러분의 수도원에서 교리와 종교교육, 회현에 대한 공부, 모든 주의사항, 훈련과 지침, 바오로적 수도생활을 위한 모든 양성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집은 참으로 성화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며, 더 나아가 평화의 집이고, 평온을 주는 집입니다. 수도원의 담은 세상과 여러분을 구분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최후의 만찬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성부께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Sicut et ego de mundo non sum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Hi de mundo non sunt.”⁵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세상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이 지상만 생각하는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끔 저 세상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곳은 성화의 집이며, 완덕의 집입니다.

수도생활에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성화에, 완덕에 부르심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 집은 이러한 목적에서, 이러한 정신에서 전혀 다른 [곳]입니다. 물론 [이 집들은] 다른 집들처럼 담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 말씀을 [사용하면서] 말하거나 강론할 때, 그리고 우리가 말을 하고 숨을 내쉴 때에도 우리가 말하는 내용의 목적과 본질은 신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토론을 하거

1. 1955년 [11월 22일]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영신수련 동안 행한 묵상. 자기(磁氣)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A6/an 19a ac 34a.

2. 마태 21,13.

3. 요한 11,28 참조.

4. 창세 28,17 참조.

5. 요한 17,16.

나 일상적인 대화나 사소한 것에 대해 말할 때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수도원은] 참으로 하느님의 집, 성화의 집, 기도의 집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은총입니다. 이 은총에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수도원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수도원 담이 청결한지요? 더럽혀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수도원의] 담이 더럽혀진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입니다. 불평을 늘어놓거나, 누군가가 어떤 계락을 꾸미기 위하여 감춘다면 담이 더럽혀지지만, 그 오염된 자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그 자국을 보시고 천사들도 그것을 봅니다. “너의 거룩한 천사들이 이 집에 살고 우리를 평화 안에 보호해 주신다.”⁶

저는 이곳 인원이 대략 110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략 110명의 수호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수호천사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장소에서든, 너희는 너희 천사를 존경하라 *In omni loco angelo tuo reverentiam habe.*”⁷ 담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성 베르나르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내 앞에서 하지 않을 짓을 천사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죄로써 담을 더럽히지 말아야 하고, 이 수도원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까? 당연합니다. 이것이 악마를 결코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사항입니다. 예! 악마가 이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지기는 잘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거룩한 천사가 그 안에 거주하시니 *Angeli tui sancti habient in ea.*”⁸ 그 대신에 수도원 전체를 잘 사용해야 하고, 특히 성당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곧 미사를 잘 봉헌해야 하고, 영성체를 잘 해야 하고, 고해성사를 잘 행해야 하

고,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서 성체방문을 잘 해야 하고, 묵주기도를 잘 바쳐야 합니다. 성당은 우리가 하느님과 말씀을 나누는 장소요, 은총을 길어내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감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비추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당에 이러한 세 마디 말씀이 있는 것이 유익합니다. “여기서 비추기를 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 너희와 함께 있노라. 죄를 뉘우치라.”⁹ 다시 말해서 겸손입니다. 겸손할 때 은총이 주어지고, 감실에서 생명의 샘이 터져 나와 우리 영혼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성소자가 꽃을 피웁니다. “꽃을 피워라 *Florete flores.*”¹⁰ 그로써 사도직은 한층 더 초자연적인 면모로 증가되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한층 더 적합하게 됩니다. 여기에 모든 은총이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은총이 *In me gratia omnis!*”¹¹ 그러므로 제일 먼저 성당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강의, 강론을 기꺼이 듣고 독서를 하는 것은 당연히 쉬운 일이지만, 특히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 큰 존경을 표하고, 깊은 흠숭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경배는 십자가 경배보다 앞서야 합니다. 십자가 경배는 불과 300년대 이후부터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복음에 대한 경배는 성 마태오가 특히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복음서를 집필하자마자 곧바로 시작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성당 안에 복음서를 펼쳐놓으십시오. 복음서는 우리를 위한 책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출판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본질을 우리는 바로 이 복음서에서 취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장소도 성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에

6. “*Et angeli tui sancti habitent in ea, qui nos in pace custodiant.*” 중세 라틴어 기도문.

7. 탈출 23,21 참조.

8. 「성무일도서」 10월 2일, “수호천사 축일”, II Nocturno, Lectio V, S. Bernardo, ‘Discorso 12 sul Salmo 90’(시편 90에 관한 12개 담화), “*Qui habitat*”, in SBO, IV, 457 참조.

9. AD 152항 참조.

10. 집회 39,19 참조.(역주: 불가타 본은 39,19이지만, 현대어 성경에서는 39,14에 해당됨)

11. 집회 24,25 참조(불가타). (역주: 현대어 성경에서는 24,18L에 해당되지만 뜻이 조금 다름)

많은 주의를 기울여 공부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 지성은 이미 녹슬기 시작해서 오래 전부터 잘 사용할 수가 없어.'라고 말했지만 책이나 다른 것에서 배우려고 노력할 때 지성은 결코 녹이 슬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훨씬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는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공부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 나이에 이르면 공부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선생들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알지 못하면 세상에 진리를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도직은 많은 지식을 요청합니다. 많이 알수록 더 많은 선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많은 일을 행할 줄 알고, 삶의 모든 기회마다 어떤 선행을, 어떤 공덕을 행할 줄 알 것이고, 또 은총을 얻으며, 그 은총에 응답할 줄 알 것이고, 여러 기회에 하늘나라의 보화를 캐낼 줄 알게 됩니다.

그다음으로, 휴식 또한 성화시켜야 합니다. 하루 일과를 잘 시작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저는 기상시간이 매우 이르고 민첩하게 움직인다는 어느 수도원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아침의 첫 은총을 받기 위해 일찍 일과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 대신에 늦장을 부리는 사람은 첫 은총을 잃거나 사라지게 만듭니다. 지난 밤에 대하여 '주님, 찬미받으소서 *Benedicamus Domino*' 하면 곧바로 주님께 감사드리고, 곧바로 성모님께 인사드리고, 곧바로 하루를 봉헌하기 위해, '저희를 거룩한 자 되 되게 하소서 *Fateci santi*.'¹²라는 청원기도를 되풀이합니다. 곧 성당에 빨리 가기 위하여, 그리고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더 가지기 위하여 일종의 거룩한 달리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저

녁에는 그날 밤 우리가 영원으로 떠나는 때처럼 일과를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하루 일과 중에 저지른 게으름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께 대한 완전하고 강렬한 사랑을 실천하며, 마리아의 망토 안에서 잠들고, 수호천사에 의해 깨어나야 합니다. 밤 또한 성화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 밤의 휴식을 봉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이 음식에 축복을 내리소서. ...' 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도 주님께 봉헌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음식을 먹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듯, [휴식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때문입니다.

모든 복도를 성화시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지 않는 말은 결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으신다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말을 들으십니다,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도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혼자 있는 장소도,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없는 순간도 성화시켜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라는 말씀은 성인들이 여러 장소에, 복도에, 그리고 휴식을 취하는 방에도 기꺼이 써 붙였던 문장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늘 하느님의 면전에 [머물러야] 하고, 휴식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사도직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이 분원에는 사도직이 없지만, 다른 분원에는 사도직이 있습니다. 비록 분원이 한 곳밖에 없더라도 부서별로 사도직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출판물, 인쇄 등이 어떤지 보십시오. 오늘날 내용에 있어서나, 외적 형태에 있어서나 대단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출판을 위하여 그리고 사도직 전체를 위하여 한층 신속하고, 완전한 수단들이 있습니다. 사도직의 조직, 보급의 조직을 위해 현대 수단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배워야 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인쇄기, 오프셋, 운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사진, 그림을 더 아름답게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에 있는

12.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거룩한 자 되게 주소서."라는 코론치나를 공동으로 바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끝맺었다. 이 기도문은 토리노의 하느님 섭리의 작은 집에서 성 주세페 베네딕토 코톨렌고가 바치던 것인데,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이 기도문을 당신 공동체에 도입하셨다.

여러분의 자매들이 얼마나 일을 잘 합니까! 편집, 글 쓰는 일이 기술과 인쇄를 선행한다는 것을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면학을 하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실제로 사도직과 일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글 쓰는 준비를 하는 사람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또 더 높은 지성을 통하여 사도직을 실행할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사들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천사들과 함께 두 가지 합창을 할 수 있도록 분원 전체를 성화시켜야 합니다. 두 가지 합창이란 천사들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부르는 합창과 지상에서 하느님께 대한 찬미가를 부르며 당신의 뜻을 실행하는 합창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¹³ 성무일도의 찬미가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다다르니, 생명의 집이 흥겹도다 *Illi canentes iungimur, almae domus aemuli.*”¹⁴ 마치 천사들이 하늘에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분원에서 천사들과 완벽하게 일치하여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통상적으로 분원에서 잘 사는 사람은 분원 자체를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가도 이 분원은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활동하는 동안 이 분원을 성화시키는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천국에 하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너의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Dispone domui tuae, quia morieris tu et non vives.*”¹⁵ ‘네가 죽을 것이기에, 너는 여기에 언제까지나 머물지 못할 것이기에 정리를 해야 하고, 천국에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다가오고, 우리는 이 집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성인에게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성인은 수

도자요 사제였으나 그의 형제는 세속인으로서 삶을 즐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여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별장,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 건축이 끝났을 때, 수도자요 사제인 그의 형제에게 그 집을 보여주기 위해 사람을 보내어 초대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에게 새 집의 거실, 침실, 응접실 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형제는 이끄는 대로 따라가며 집을 둘러 본 후 대단히 아름답다, 정말 아름다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를 초대한 형제를 만족시키기 위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방문을 끝내고 그 수도자가 나가는데 그의 형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말해줘. 이 집이 이름답지?” 그러자 그 훌륭한 사제가 말했습니다. “아름답지만, 한 가지 큰 결점이 있어.” “결점? 내가 금세 고치도록 할게.” “아니, 고칠 방법이 없어.” “도대체 어떤 결점인데 그래?” “문을 만들었다는 점이야.” “문을 만든 것이 어째서 결점이야? 문은 필요한 거잖아.” “생각해봐, 어느 날 여기서 너를 관에 넣은 채 이 문을 통해 장례식장으로 데려가면 너는 결국 묘지에서 잠들게 될 거야.”¹⁶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잠들기 위해 천국으로 갈 것이고, 육신은 묘지로 향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선하게 살았다면, 여러분이 이 집을 성화시킨다면 영혼은 천사들이 만든 집(천국)에서 지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높은 곳에 아름다운 집을 짓도록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도록 유의하십시오. 왜냐하면 기쁨의 성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삐띠 신부님의¹⁷ 생전에 천사들이 다음과 같은 훈계를 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내는 재료에 따라 집을 짓습니다. 만일 땅에서 우리에게 좋은 공덕, 소중한 공덕을 재료로 보낸다면 우

13. 마태 6,10.

14. 「성무일도서」 성전봉헌축일 공통 아침기도 찬미가 참조.

15. 이사 38,1.

16.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의 말씀에서 인용한 일화, 「죽음에 이르는 장치 *Apparecchio alla morte*」, 2장에서 인용.

17. Petit Adolfo(1822-1914)는 벨기에의 예수회 회원으로서, 기쁨의 파종자로 유명하고, 영신수련 강론가로 명성이 자자했다.

리는 아름다운 집을 지을 것이고, 우리에게 적은 공덕 또는 혹시 나쁜 행적을 보낸다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덜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거나 천국에서 전혀 아무것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곧 비록 이 분원에서 여러분이 병들고, 슬픔에 잠기고, 고통을 겪더라도, 비록 여러분이 유혹을 받더라도, 그리고 비록 일과중에 여러분이 약간 만족스럽지 못한 일을 하게 되더라도 매일 이 분원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하늘에 마련할 집을 목표로 삼으면서 이 분원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 Domus non manufacta, 영원한 집을 하늘에 준비해야 한다 aeterna preparatur in coelis.”¹⁸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 바오로의 다음 말씀을 늘 염두에 두십시오. “아름다운 집은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만든 집입니다. 만일 우리가 좋은 재료, 다시 말해서 공덕을 보낸다면 영원한 집을 지을 것입니다.”¹⁹

24. 발전과 신뢰¹

[...] 수도회의 발전에 [마음써야 합니다.] 영적인 발전, 지적인 발전, 공부에 있어서, 사도직에 있어서, 수도생활에서, 조직에 있어서, 청빈에 있어서 발전하도록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 지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며, 동시에 [회현의] 두 가지 목적에 따라 방향을 정하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이상, 곧 분명히 도달해야 할 이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총본부가 교황청의 인도를 잘 받고, 교황님과 수도회성의 지침과 바람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수도회의 모든 장상이 총본부와 일치하고, 수도회의 모든 마에스트라, 모든 서원자는 그들의 마에스트라와 일치하고, 모든 지원자와 수련자가 수도회 안에서 그리고 수도회를 위하여 서원자들과 일치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성 바오로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² 한 몸을 이루고, 잘 정돈된 유기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잘 지내는 것은 언제입니까? 지체들이 각각 잘 지낼 때입니다. 시각이 좋고, 청각이 좋고, 손이 튼튼하고, 발이 민첩하게 잘 걸으며, 위장과 피와 심장이 기능을 잘 하는 것 등입니다. 총합complexo에서 모든 것이 명백해집니다. 그러나 모든 지체, 다시 말해 모든 수녀, 딸들 모두가 잘 걸어가도록 살펴보고, 진정으로 지체가 살아있기를, 곧 사도직에서 거룩하고 활발하며 적극적인 지체가 되기를 지켜봅니다. 그렇게 되면 최상의 결실, 곧 성성의 결실과 사도직의 결실을 산출할 아름다운 유기체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열망뿐 아니라,

18. 2코린 5,1 참조.

19. 1코린 3,12 참조

1. 1955년 [11월 26일] 토요일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영신수련 동안 행한 묵상. 자기(磁氣)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A6/an 19b ac 34b. 시작부분이 빠졌음.

2. 로마 12,4-5 참조.

그러니까 잎과 꽃뿐 아니라 열매가 필요합니다. 꽃은 좋습니다만, 식탁에서는 그 누구도 꽃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도 필요합니다. 곧 빵, 땅의 열매들과 [노동]의 결실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잎사귀만 무성한 많은 말이나, 꽃으로 만발한 결실들만 있어서는 안 되고, 열매를 맺는 꽃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나무가 꽃들을 모두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대신에 열매를 맺어야 하고, 그 열매가 무르익을 때까지 견뎌야 하고, 그래서 식탁 위에 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게 됩니다.

우리 안에서 50여 지체가 작용할 때, 다른 부분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려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눈, 심장이 좋고, 귀도 잘 들리고, 피가 잘 순환되면 우리는 잘 지낸다고 생각하며 어떤 조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은 치아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모든 것에 비해 작은 것에 불과한 단지 치아 하나로 눈물을 흘리고, 슬픔에 빠지고, 의사에게 달려갑니다. 공동체 안에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때 치아 하나가 아프다면,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잘 걸어가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만일 50여명이 잘 지낸다면 우리는 거의 알아채지 못합니다. 반면에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드러나며, 절망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치아를 뺄 필요가 있습니까? 치아를 빼거나 치료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교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은 교정이 아니라 아직 더 행해야 할 발전, 더 나은 선을 지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에 임하는 수녀들이 있습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Aemulamini charismata meliora.*”³ 그래서 이 수녀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겸손을 배우려

노력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수녀에게서 사도직의 열성을 배우려 애쓰고, 다른 수녀에게서 부지런히 기도하는 면을 배우려 노력하고, 다른 수녀에게서 청빈 정신을 배우려 노력합니다. 보십시오, 선의의 경쟁이 있을 때, 열의가 있을 때 수도회는 빠르게 성화됩니다. 곧 성인들의 공장이 됩니다. 여러분의 수도원을 볼 때 그 누구도 ‘저곳에 인쇄기가 있네.’라고 하지 않고 ‘저곳에 성녀를 만드는 공장이 있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런 수도원은 수도생활을 잘 준수하고, 사도직을 관대하게 수행하고, 좋은 정신을 지니고 있고, 마음이 뜨겁고, 지성이 밝고, 선행을 실천하고, 조직이 튼튼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도회가 건강할 뿐 아니라, 성성으로 인도하고,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건전하고 안전하며, 여러분이 전하는 교리는 건전하고 안전하며, 여러분이 전하는 「파밀리아 크리스티아나」지는 건전하고 안전하며, 여러분이 보급하고 프로파간다를 하는 여러분의 서적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야 하고, 모두 거룩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냉담으로 이끌리며 낙담하기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추운 날에 난로가 있고 난방장치가 원활하다면, 그 난로는 그곳 전체를 따뜻하게 해줄 것입니다.

결점이 있는 이들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어.’라며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서 선을 배워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모범입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나에게 배워라.”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 1코린 12,31.

4. 마태 11,29 참조.

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모든 덕의 모범이신 마리아께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⁵라고 하신 성 바오로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훌륭한, 열의가 넘치고, 부지런한 자매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순명, 청빈, 정결, 공동생활에 대한 참된 정신을 지니고 있는 이런 저런 자매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멀리하고, 각자 그를 본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전염성이 강한 위험한 병에 걸렸다면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방과 소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의 말이나 그의 본보기가 공동체를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영적 작업뿐만 아니라 공부에서, 사도직에서, 수도정신에서 향상되기 위하여 활동하고 발전해야 하므로 무엇보다 신뢰와 신의를 앞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리아께서는 항상 당신의 손길을 우리 위에 뻗으시는 어머니이시며, 성 바오로께서는 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홀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협력자들입니다. 여러분이 협력자들을 확보할 때 그들은 여러분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겠지만, 참으로 수도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은, 정말 사도직을 행해야 하는 사람은, 이니셔티브를 취해야 하는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협력자들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동차가 출발하지 못할 때 모두 힘을 모아 미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만, 엔진과 연료와 자동차의 기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입니다(Operatores Dei sumus).”⁶ 가장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요, 주님이십니다. 그

5. 1코린 11,1.

러므로 신뢰가 필요합니다! 성 요셉의 보호에도 신뢰를 두어야 하고, 수호천사에 대한 신뢰, 연옥영혼에 대한 신뢰도 필요합니다. 연옥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대리기도를 보내는 그만큼 그들도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보내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맹군으로서 하느님이, 수호천사가, 성 마리아가, 성 바오로가, 성 요셉과 우리를 도와주는 연옥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협력부대가 있는데 우리가 낙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더 큰 공덕을 위해서입니다. 그 자체로 불운이 아니라 어려움은 성화의 기회입니다. 불운은 하느님을 내쫓는 죄입니다. 또 하느님은 최고선이요, 유일선이시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느님을 내쫓는다면 우리는 선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죄야말로 진정한 불운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실 때, 또한 하느님 곁에서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성 마리아, 성 바오로, 수호천사, 성 요셉, 연옥영혼들이 전구해줄 때 우리의 신뢰는 반드시 성장하게 됩니다.

늘 신뢰합시다! “나는 이미 많은 잘못을 범했어.”라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대가 전쟁에 패했더라도, 다시 말해서 불운 때문에 어떤 중죄에 빠졌더라도 두려워 마십시오. 개과천선한 수많은 죄인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인이 아니었지만 어느 순간 성인이 되기 시작했던 수많은 성인들이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녀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성녀가 되지 않는다면 수도원에서 살고, 성인을 만드는 공장에 사는 것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수도원에 많은 종이가 쌓여 있지만 인쇄를 하지 않아 소용없는 것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성녀가 되는 것이 모두의 결심이어야 합니다. 동맹관계에 있는 예수님께 신뢰를 두고, 그분 곁에서 전구해 주시는 분들에게 신뢰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

6. 1코린 3,9 참조.

는 스승이요 모후이시고,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봉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그분께 봉헌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완전히 거룩한 주일, 참된 주님의 날인 주일로 지낼 수 있는 아름답고 고요한 날이도록 해야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우리를 늘 예수님께, 주님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주일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 날에 영혼은 더욱 생기를 되찾게 되고, 초자연적인 일에 더욱 마음을 쓰고, 더 많이 기도하며, 기쁨 안에서 그리고 마땅하고 옳은 공덕으로 얻은 휴식을 취하면서 더 큰 덕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묵주기도를 많이 바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직 축복한 묵주가 없는 분들을 위해 묵주를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묵주를 손에 들고 있거나 주머니 속에 넣은 채 축복받으려는 지향이 있으면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⁷

25. 성화와 사람들에 대한 사랑¹

성바로팔수도회의 지원자들이 마리아의 덕을 입을 수 있기를 우리 다함께 기도하였으며, 또 언제나 주님께 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녀들은 자신들의 조건과 은총에 따라서 마리아의 사명과 유사한 사명을 적절하게 완수해야 합니다. 곧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단지 사도직 활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영혼의 성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이 결점의 ‘뿌리까지 *radicitus*’ 정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곧 뿌리에서 잘못을 근절시키고 살펴보아 나쁜 결실을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 하느님께 대한 큰 사랑, 천국 상급에 대한 굳은 희망과 굳건한 신뢰, 굳은 믿음, 그리고 지상에서 성화의 실현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에 대한 희망과 큰 신뢰를 지녀야 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 확고한 믿음과 희망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촛대를 받치는 삼각대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내적 성화라는 점입니다. 그다음으로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사도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 *orazione*이신 것처럼, 성 바오로께서 말씀하시듯 그분이 기도 자체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께서 제대 위에서 희생되실 때 가지셨던 예수 성심의 마음자세와 열망 안으로, 정신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고통의 사도직, 극기의 사도직이 필요합니다. [비록] 여기서는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희생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는 안 된

7. “Adiutorium nostrum in nomine Domini...”

1. 1955년 [11월 21일]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영신수련 동안 가졌던 묵상. 자기(磁氣)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A6/an 19b ac 35a.

다고 들었기에 더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지의 극기, 마음의 극기, 지성의 극기는 공동생활을 잘 준수하도록 이끌어주는 바로 그러한 극기입니다. 행동을 할 때마다 영웅적인 행동을 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웅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수도생활의 용감한 태도는 작은 일에서부터 솟아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생활 준수에 있어서 작은 극기, 계속적인 순명에서 그리고 관대한 사도직에서 작은 극기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소한 덕행에서 항구함이, 작은 결점들을 피하는 데서 항구함과 영웅적인 자질을 얻게 해줍니다. 내적인 성화는 하나의 사도직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모범의 사도직이 있습니다. 이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Vicant opera vestra bona et glorificent Patrem vestrum qui in coelis est.*”² 하느님께 대한 찬양으로, 사랑으로, 하느님께 대한 신뢰로 이끌며, 구원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착한 모범의 사도직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언제나 착한 모범을 보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마음에서 우리나라를 때 그들의 처신, 그들의 태도, 그들이 말하는 방식은 늘 건설적입니다!

고통의 사도직과 모범의 사도직, 그리고 기도의 사도직은 모두 일치되어야 합니다. 이 사도직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정으로 하느님의 은총에 신뢰를 두며, 믿음에 탄탄한 토대를 두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은 외적인 결실을 가져다줍니다. 곧 출판 사도직은 한 영혼이 하느님께 일치되는 만큼 효과적입니다. 기도가 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를 지탱해주며, 마리아처럼 강하면서도 겸손하고, 마리아

2. 마태 5,16.

처럼 성소에 충실하게 만드는 수단을 보도록 합시다. 곧 천국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실 베드로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아버지나 어머니,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모두 백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³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뿐 아니라, 백배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언젠가 천국의 탁월한 장소에서 성인들 사이에 빛나는 영혼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백배는 여러분의 바오로 수도생활을 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도움을 여러분이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 *Et vitam aeternam possidebitis.*”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를 잘 이해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⁴ 그들은 지상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무한한 선이신 하느님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가장 아름답고도 특별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도 열두 옥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Sedebitis et vos super sedes duodecim iudicantes duodecim tribus Israel.*”⁵ 다시 말해서 ‘너희는 천국에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고, 나와 함께 심판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모릅니까 *Nescitis quoniam angelos iudicabimus?*”⁶라고 성 바오로는 말씀하십

3. 마태 19,29.

4. 마태 5,3.

5. 마태 19,28.

6. 1코린 6,3.

니다. 탁월한 위치에서 심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우리가 독자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선을 행하려 애쓴 사람들에게 내리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천국은 모든 것을 버린 다음 사도직에 투신하는 사람, 특히 자기 의지를 봉헌하는 사람에게 약속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결점들을 떨쳐버리고, 덕을 갖추며 잘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선행을 하도록 이끌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보장받습니다. 두 배의 일을 행하였다면 마땅히 두 배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Qui bene fecerit et docuerit, hic magnus vocabitur in regno caelorum.”⁷

만일 여러분이 거룩한 수도자들이라면 큰 상을 [받겠지만],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도 선을 베풀었다면, 여러분은 두 번째 상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에서 모두가 영광스러움과 행복을 느끼고, 진짜 행복하고 만족감이 넘치겠지만, 복된 이들 가운데에는 구분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많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별은 다른 별보다 더 빛납니다. “별들은 또 그 광채로 서로 구별됩니다 Stella a stella differt in claritate.”⁸ 만일 우리가 하늘에서 예수님과 마리아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상에서 예수님과 마리아께 더 가까이 머물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과 더 견고하게 일치된 마음, 더 깊은 신심, 더 진지한 신앙 정신, 주님께 대한 한층 강렬한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사도직과 그 사도직을 실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늘에서 두 배의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여러분의 회헌을 따르면서, 바오로 정신을

7. 마태 5, 19.

8. 1코린 15, 41.

따르면서, 수도생활을 따르면서 하느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봉헌하고, 내적으로 봉헌한 사람들처럼 살면서 큰 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숙고해봅시다.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준수하는 것에] 상응하는 큰 상을 받아야 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둘째 계명, 곧 사도직입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⁹ 자, 보십시오.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바오로적 개념을 가지고, 복음적 권고 안에서 신뢰와 굳건한 정신 안에서 양성되어야 하며, 예수님께서 수도생활에 관해 하신 말씀 안에서 양성되도록 여러분을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완전한 수도자로서, 당신 성부께 완전하게 순명하셨고, 완벽하게 순수하시고, 섬세하시며, 내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과 모든 성인 위에 계시면서 청빈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하게 태어나셨으며, 가장 가난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나시기 위하여 동굴을 빌리신 것처럼, 묻히시기 위해서도 무덤을 빌리셨습니다. 가장 가난하신 예수님! 전적으로 하느님을 사는 영혼도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부인해야 하고, 오로지 사물 안에서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것 안에서 하느님의 뜻만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한 영혼은 자신을 정화시키며, 하느님의 것이 아닌 삶을 더는 살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위대한 상이 주어집니다!

그러한 영혼은 매일 낡은 인간을 벗어버려야 하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박은 나쁜 경향들의 옷을 벗어야 합니다. 곧 칠죄종의 요점이 되는 교만과 인색, 편리함을 추구하는 정신, 분노, 나태 등입니다. 우리는 매일 나쁜 풀을 뿌리 뽑아야 하고, 대신에 매일매일 덕을 획득해야 합니다. 교만은 겸손, 온순, 순명을 통하여 이겨야 하며, 나태는 열의

9. 마태 22, 37-39 참조.

로써 이겨야 하며, 음욕은 섬세한 양심으로 이겨내야 하고, 탐욕은 우리 자신에 대한 극기으로써 이겨야 하며, 친절, 은유 등을 통하여 분노를 극복해야 합니다. 성화! 그런데 만일 우리가 혹시 흰 옷을 온통 더럽히고 누더기처럼 된 옷을 걸친다면 천사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은총의 상태이지만 많은 것이 부족하고, 지상이나 연옥에서 정화되어야 하는 많은 잘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계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올바른 영혼이라면,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성화를 위하여 일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얻기 위하여 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이 구원되고 아름다운 천국을 얻기를 바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사도직,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솟아납니다. 이기주의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온전히 사람들을 위하여 살고, 그들을 늘 마음에 품고 살며, 영성체를 할 때나 미사의 성체축성이 다가오는 순간에 모든 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묵상하고, 모든 이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Propter nos homines et propter nostram salutem descendit de coelis.”¹⁰ 그와 같이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 딸(성바로딸)은 사도직에 자신을 봉헌하며 성소와 사도직을 받아들입니다. 관상생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직 생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향상된 삶으로, 더 거룩한 삶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성화시키셨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Pro eis sanctifico me ipsum.”¹¹ 그분께서는 성화의 삶 의

10.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11. 요한 17,19.

에 가장 위대한 사도직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과 비슷한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사제이시요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Habemus pontificem et apostolum nostrum Christum Iesum.”¹²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더 거룩한 삶이 되게 하는 관상과 기도의 삶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도직 삶도 살도록 초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활동에 시간을 소모하고, 집집마다 다니며 프로파간다를 하고, 서원에서 일하고, 수도원에서 행하는 사도직 활동에 전념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게 동시에 내적인 삶, 아주 내밀한 삶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삶에서 사도직 삶이 나오고 또 나와야 합니다. 진정으로 회현을 따르고 회현에 포함된 정신을 따른다면, 여러분의 수도회는 성체흡송의 시간을 가지게 되며, 강력하고 깊은 신심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높은 성성으로, 한층 강렬한 내적 삶으로 향상될 수 있으며, 또한 자신을 더 성화시키고, 자기 영혼을 돌보는 만큼 다른 영혼들을 위한 열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열의와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써 사도직은 재치가 넘치고, 독창적이며, 발전적이 됩니다. 오늘날 사도직 실현에 앞장서 나가며, 단체 사도직을 더 겨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전략을 더 많이 배가시킬수록 그 상도 더 클 것입니다. 얼마 전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¹³의 한 기사에서 언급하기를, 오늘날 가장 시급한 사도직은, 수도원 문 앞에서 스프를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성당건립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며 진리를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황 비오 12세기께서는 교황선출 직후에 행한 담화문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합니다

12. 히브 4,14 참조.

13. 바티칸 시국의 정치종교 일간지.

Veritatem facientes in caritate.”¹⁴라는 성 바오로의 문장을 당신의 표어로 선택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에 진리의 스승이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으며, 또 앞으로도 계속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교황님이 관여하지 않으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담화에서뿐 아니라, 당신의 회칙에서도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의무를 상기시키셨으며, 각 사람이 바른 길을 걷도록 원칙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리, 교리, 성인들의 생애를 전하면서 「파밀리아 크리스티아나」지를 인쇄하고, 도처에 보급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뛰어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로마에서 인쇄된 정기간행물 「길 진리 생명 *Via Verita e Vita*」¹⁵지는 「파밀리아 크리스티아나」지처럼 온 세상에 보급되어야 하고, 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각 가정은 「파밀리아 크리스티아나」지나 「길 진리 생명」지를 받아 읽어야 합니다. 각자의 의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성화되고 구원되기 위해서 행해야 할 모든 것을 충분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기꺼워하실 길 위에서 있습니다. 그 길은 가장 훌륭한 사도직의 길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정신을 가지고 사도직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의무에 상응하는, 천국에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두 번째 상입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각자가 구원되기를 염원하는 것처럼, 모든 이의 구원을 열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큰 은총을 받았으며, 교리공부를 하면서, 강연회에서, 묵상에서, 강론에서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읽을 수

14. 에페 4,15 참조.

15. 창립자 신부님이 직접 알려주신 길 진리 생명의 방법에 따라, 그리스도교 사상에 대한 가르침과 인식을 위하여, 성바오로딸수도회가 1952년 로마에서 창간한 교리 월간지.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회헌에 대한 묵상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듯 풍부한 가르침과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느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베푸신,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보화를 널리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진리보다 오류로 인도되고, 또 들려주는 그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않으며, 자주 진리가 아닌 오류에 지성을 복종시켜 마치 생명수를 만난듯이 마십니다. 그 얼마나 많은 오류가 퍼져나가는지!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열정으로 진리를 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류는 온 세상에 길을 만들어 많은 경우 사람들은 무지로 인해 방심하고 있습니다. 오류는 첫 여섯 하와를 속였고, 아담을 속였으며, 오늘의 사람들을 훨씬 더 쉽게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수도생활을 충실히 살아감으로써 성화에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사도직을 완수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곱절의 상을 받게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사도직은 발전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가능한 한 단체 사도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에게 말씀을 내리시리라 *Dabit verbum evangelizantibus.*”¹⁶ 진리를 전하고, 평화를 전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행복합니다.

16. 시편 68[67], 12 참조: “주님께서 말씀을 내리시니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대군을 이루네.”(불가타)

26. 성성과 사도직에서 발전하기 위한 지성, 의지, 마음¹

우리는 언제나 이중의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첫째는 개인의 성화요, 그다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하여 [소진할] 줄 알고, 사도직을 완수할 줄 아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한 은총과 다른 이들을 위한 은총입니다. 마리아께서는 늘 두 가지 측면에서 숙고하셨습니다. 곧 개인의 성성과 사도직입니다. [마리아의]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리아께서 그 사도직을 당신의 지상 생애 동안 실현하셨고, 지금은 사람들에게 은총을 나누어주시며 실현하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개인의 성화입니다. 수도생활은 그리스도인 삶을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요 으뜸가는 계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다음 이와 비슷한 계명이 또 있습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² 그리스도인 삶과 수도생활 사이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을 잘 살 때 성 바오로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마음이 갈라지고 *divisus est*’, 그러나 수도자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립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을 걱정합니다.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divisus est*.”³

그러나 하느님께 자기 생명을 봉헌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신앙

을 고백합니다. “전적으로 하느님께 [나 자신을 맡겨드립니다 *Me totum Deo...*]”⁴ 금언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이 첫 번째 계명은 전면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진정한 수도생활을 표현해 주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라는 세 말마디를 담고 있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단순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참된 수도자의 삶을 구별해주는 세 가지 점입니다.

정신을 다하여: 정신을 다하는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실행되니까? 우리의 정신이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께 대한 봉사에 속하는 일을 생각하고, 하느님의 뜻을 생각할 때 거룩한 일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가족에 관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전념하고, 하느님 뜻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되는 일에 전념하고, 공덕을 쌓는 모든 것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다하여! 이것은 다음과 같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곧 묵상, 양심성찰, 하느님께 집중하여 사는 것, 좋은 독서를 하는 것, 강연을 듣는 것, 의미를 파악하는 것, 숙고를 하는 것 등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정신은 하느님을 생각하고, 하느님을 위한 일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수련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지원자들의 양성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낼지 생각하고, 편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기술 분야와 프로파간다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것 등이고] [하느님께 대한 봉사]에 관한 일들입니다. [...]⁵

약간의 책략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나쁜 생각을 내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캄캄한 방안에 램프를 밝히면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좋은 생각을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1. 1955년 [11월]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영신수련 동안 행한 묵상. 자기(磁氣)녹음 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A6/an 20a ac 35b.

2. 마태 22,37-39 참조.

3. 1코린 7,33-34 참조.

4. 원문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내어주었다.’(*tradet...est, dice Cristo*)로 되어 있다.

5. ‘녹음 중단’.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죄가 정신(지성)에 관한 것입니다. 신앙에 반대되는 생각들, 희망, 사랑, 정의, 절제, 용기, 지혜에 반대되는 생각들, 청빈, 정결, 순명의 수덕에 반대되는 생각들, 겸손에 반대되는 생각들, 불복종의 생각들입니다.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가지게 되는 많은 생각들은 그 어느 덕이든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지성)에 대해 깨어 경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의도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의가 결여된다면 죄가 되지 않으며, 아무런 의도 없이 행하는 것은 그 어떤 공덕도 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꿈에 묵주기도를 바친다면, 정신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묵주기도가 아니며, 공덕이 되지 않습니다. 죄는 의도적이며, 분명하고,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원할 때 성립됩니다. 그리고 공덕이 되기 위한 좋은 생각이라면 반드시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생각만의 공덕에 그치고 맙니까! “하느님께 정신을 드높이는 것입니다(elevatio mentis in Deum).”⁶ 묵상한 것을 기억하기 위하여 집중해야 하고, 받은 권고나 교리를 기억에 남겨야 하고, 그것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더 나아가 그것들을 더 잘 실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일러준 것들에 관하여 숙고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을 위하여 정신을 쏟는 것이요, [...] ⁷ 공덕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신은 반드시 감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심성찰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에 관하여 성찰해야 합니다. 결심은, 만일 제대로 세운 결심이라면 반드시 정신 부분도 포함되는 다음 세 가지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그 사람에 대하여 좋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일 때,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인정하되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다하여! 수도자는 자기 가족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방식으로 가족을 생각하는 것을 금합니다. 가족을 생각할 수는 있지만,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 기도해야 하지만, 수도 가족과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을 구분할 수 없고, 또 구분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면 ... 수도서원을 할 때 우리는 “저 자신을 드리고, 바치고, 봉헌합니다.”라고 [서약했습니다.] 온 정신으로라는 말은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선물은 아무것도 빠지지 않고, 한순간도 제외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 들은 말이지만 “그런데 어디에 악이 있단 말인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초자연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느님께 드린 것을 도로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대 위에 두었던 꽃을 아무 생각없이 주님 앞에서 버리는 것이 됩니다. 단지 꽃뿐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생각들은 아름답게 제대 위에 놓였던 꽃보다 훨씬 더, 무한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

두 번째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도자는 진정으로 ‘모든 것보다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한한 선이시요, 천국이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열망은 주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하고, 미사, 영성체, 성체방문을 사랑해야 하고, 회현, 수도회의 관습을 사랑해야 하고, 사도직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직접적인 사랑, 하느님께 속하는 것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금속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에 입을 맞출 때 ...그 입맞춤은 금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는

6. 사제요 교회박사인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약 650-약 750)이 내린 기도의 정의, in *De fide Orthodox*, 1, III, c. 24; PG XCIV.

7. 원문에는 ‘첫째가는...’(i primi...)으로 되어 있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애심이나 [...] 야심, 명예욕이나 자기 과시, 또는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한 가지 모습 또는 한 장의 사진에 불과하더라도 인간적, 세속적, 육체적인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언제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곧 하느님께 대한 사랑은 때때로 매혹적으로 보이는 자애심과 반대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에 대한 호감 또는 비호감이 판단까지 뒤집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호감 때문에 사랑할 때,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좋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만일 비호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행동하거나 말하는 모든 것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지성을 나쁘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과 판단을 전복시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것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기도에서, 양심성찰에서 교만, 오만, 원한, 음욕, 게으름 등을 없애는 것입니다. 오, 주님께 완전히 드린 마음은 동정의 마음입니다. '주님, 마음을 다하여 모든 것에 앞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다음, 어떤 자매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결점을 들춰낸다면 그 마음은 선과 악이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동정의 마음이란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동정성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게으름이 없어지고, 시간낭비는 설 자리를 잃고, 불순명도 없어집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순명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장상들을 존경하며 순명하라고, 모든 이를 잘 대해주라고 명령합니다. 말할 때, 바라볼 때, 생각할 때, 기회를 이용할 때, 섬세한 습관을 들이

도록 하여 명령하는 계명들을 완성시킵니다. 모든 계명을 준수해야 하고, 다른 이들의 물건을 존중해야 하고, 마음의 욕구에 대해서, 정결, 정의 등에 반대될 수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계명에 관한 순명과 양심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으로 힘을 다하여 서원을 준수해야 합니다. 열심히 서원을 준수하고 주님께서 기꺼워하시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순명하고, 다른 한 번은 불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누가 볼 때는 순명하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불순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순명입니다! 정결과 청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힘이 주님께 향하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은 그가 건강한 만큼 일을 합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주님께 더 많이 드려야 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그가 가진 만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으로 드린다면, 비록 가진 것이 다섯 개에 불과할지라도 열 개에 준하는 건강을 가졌기 때문에 열 개를 내어줄 다른 사람과 같은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그가 맡은 책임을 다하며,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면 공덕을 쌓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직무를 맡고 있다면, 예를 들어 주방이나, 세탁실 일이나, 식자를 다루는 일이나, 프로파간다나, 가르치는 직무 등 맡은 직무에 진정으로 온 힘을 쏟을 때, 책임을 다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하기 위하여 정신을 집중시킵니다. 가능한 한 더 나은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그리고 명령을 내린 사람의 생각을 알아차리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시되고 명령된 바를 사랑해야 하고, 잘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도록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몇 년의 삶을 더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세

월, 모든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단축하신다면, 오직 우리가 받은 생명의 날수만큼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힘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을 행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좋은 충고를 해주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중대한 악이 아니고 …그렇지만 저건 작은 공덕이야. …그런데 이런 잘못된 영성체를 못하게 할 정도는 아니고, 나를 지옥에 보내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참으로 모든 힘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되도록 깨어 경계해야 합니다. 어떠한 동요도 없어야 하고, 어떠한 망설임도 없어야 하며, 마음을 어지럽히는 불안도 없어야 합니다. 근면함과 적용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산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동요 없이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아무 힘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행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 만일 어떤 사람이 공부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공부만 하려 한다면 그것은 전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일 누군가 공부하기를 원하는 체한다면 하느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는 자신의 가난함을 지닌 채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탈렌트가 있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교육에서, 양성에서, 통솔에서도 적용하도록 하십시오. 발전해야 할 필요가 많지만, 우리가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이 세 가지 점을 잘 유의한다면, 분명 우리는 좋은 발전을 이룰 것이고, 매일 발전을 거듭할 것입니다. 특별한 성성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굳은 믿음을 지니고 있고, 하느님의 도우심에 신뢰를 둡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기에 상응하는 은총 또

한 주십니다. 오로지 그 은총을 거절하지 않도록 깨어 지켜야 합니다. 수도생활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성화를 위한 많은 수단, 우리 수도원 안에 아주 풍부한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드레와 마에스트라들이 돌보아주신 모든 보살핌, 교육, 교정, 좋은 본보기, 받게 되는 모든 성사, 회헌이 요구하는 기도가 모두 수단이 됩니다. 주님께서 좋은 분으로서 우리를 무척 풍부하게 해주십니다. 수도회는 풍부한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수단들은 정말 특별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회칙에 제시된 수단을 취한다면 성인이 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한 일인 기적을 일으키는 성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들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행해야 할 공덕의 기회는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통상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것들을 소홀히 다루지 않고 […] 잘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은 잘 행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27. 순명과 사랑¹

오늘 우리의 모든 활동과 기도와 통회에 대해 축복을 청하면서,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께 바칩시다. 예수님께서 제대 위에서 희생되실 때까지셨던 똑같은 지향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성체성사에 대한 신심 위에, 다시 말해서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에 바탕을 두고 접목된 순명과 사랑을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수도원은 일반 수도회들처럼 순명과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덕성이 있을 때 많은 발전을 이룹니다.

만일 어떠한 집을 지어야 한다면, 우선 먼저 기초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단한 땅 위에 집터를 잡아야 하고, 원하는 높이의 건물에 맞게 깊고 견고하게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큰 집을 짓기를 원한다면, 먼저 기초를 생각하라.”²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초는 겸손입니다. 그런데 겸손과 순명은 많은 점에서 동일한 덕성이고, 분리할 수 없을 만큼 밀접히 연결된 두 가지 덕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행동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할 본보기는 천상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Erat subditus illis).”³ 그분은 마리아와 요셉께 순종하셨습니다. 성 베르나르도께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셨습니다. “순종하신 분은 어떤 분입니까? 성 요셉보다 한없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아시는 하느님의 아드님,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셨지만, 그럼

에도 그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순명하셨습니까? 두 피조물, 당신의 창조물에게 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순명하셨습니까? 작은 일에 순명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나자렛 작업실에서 요셉께서 그분께 대패질과 톱질과 청소를 하게 할 때, 잡다한 다른 일들을 하도록 했을 때 순명하셨습니다.”⁴ 우리의 교만은 우리를 불순종하게 이끅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서는 나자렛 목공소에 계셨을 때처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언제나 그분 마음에 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Quae placita sunt ei facio semper).”⁵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Non sicut ego volo, sed sicut tu).”⁶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Non mea sed tua voluntas fiat).”

그러므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행한 순명은 제일 먼저 내적인 순명이고, 그다음으로 외적인 순명입니다. 내적인 순명은 판단에 따르면서 참된 순명에 의해 마음을 잘 복종시킵니다. 수도원 전체를 이끄는 인물이든, 부서나 여러 작업을 관장하는 인물이든 지시를 내리는 사람에게보다 하느님께 더 순명해야 합니다. 순명! 외적인 순명은 지시된 사항을 섬세하게 잘 이행하면서 주님께 순명해야 하고, 또 그분에게서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만일 은총을 원한다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아주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면 확실하고 쉬운 길인 순명의 길을 취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더 많이 복종할수록 더 많은 은총을 받고 더 큰 공덕을 쌓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현양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⁷ 그렇다면 어떻게 높아지겠습니까? 광장에

1. 1955년 [11월 24일]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행한 묵상. 자기(磁氣)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A6/an 20a ac 36a.

2. 아우구스티노, *Sermone* 69, 1, 1.

3. 루카 2,51.

4. Bernardo di Chiaravalle, *Sermoni per le feste della Madonna*, Milano, Paoline 1990, pp. 58-59.

5. 요한 8,29.

6. 마태 26,39.

서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하느님의 큰 선물을 받고, 어느 날 가장 현양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순명! 누가 예수님보다 더 순명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이들보다 더 순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낮추셨습니까?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Humiliavit semetipsum factus oboediens.”⁷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어Propter quod et deis exaltavit illum”, 영원하신 성부께서는 그분을 온 세상 위에 왕, 하늘에서 영광의 왕, 인류의 왕, 마음의 왕, 정신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Et exaltavit illum et donavit illi nomen quod est super omne nomen.”⁸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성 바오로께서 말씀하시듯 지옥에 있는 이들에게, 하늘에 있는 이들에게, 땅 위에 있는 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도록 즉각적이고 관대하며, 기쁘게 순명해야 합니다! 겸손과 순종의 상태에 있을 때 신뢰심으로 예수님의 성심과 감실의 성체를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풍성한 위로와 덕과 은총이 오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큰 빛을 [받게 될 것이고], 반면에 자기 자신을 드높이는 교만은 어둠 속에 남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회가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매들이 지니고 있는 선을 좋아해야 하고, 아직은 그들에게 부족한 선을 염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매들이 거룩해지고, 좋은 명성과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지 못한 선을 열망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선이 증가되기

7. 루카 14,11.

8. 필리 2,8.

9. 필리 2,9.

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 바오로딸들은 그들 사이를 지배하는 사랑 때문에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In hoc cognoscent omnes quod discipuli mei estis.”¹⁰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Hoc est praeceptum meum ut diligatis invicem.”¹¹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바오로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힘을 쏟으셨으며,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그분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요! 우리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 그분께서는 그들의 성화를 배려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힘을 기울이고, 영혼들에게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다른 이들이 모든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특히 가장 힘든 일을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며, 자신들은 짐을 내려놓고 그저 편안한 삶을 즐기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의도 부족하며 구원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많이 베풀수록 우리는 관대해집니다. 우리가 더 동정하고, 도와주고, 위로할수록 더 많이 [...]. 여기서 성찰을 잘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만일 모든 이의 선을 원하거나 또는 머릿속에 의심과 반대되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 [...] 둘째, 나는 모든 자매를 사랑합니까? 모두가 지상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자 열망합니까? 그리고 사도직에서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려고 노력합니까? 따라서 열심히 사도직에 임하

10. 요한 13,35.

11. 요한 15,12.

고 있습니까? 셋째, 나는 모든 이에 대하여 좋게 말합니까? 이러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는 작업을 한 후에 형제에게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주겠다.”¹²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자기 자신을 교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본능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를 교정해야 하고, 우리의 성화를 위한 작업을 해야 합니다. 넷째, 나는 모든 이에겐 선을 행합니까? 만일 모든 자매가 나처럼 행동한다면 공동체에 이롭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모두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모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모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려고 노력합니까?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¹³ [...]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정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처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사항은, 순명과 사랑은 [반드시] 성체에 접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사, 영성체에 대한 신심이 깊을수록, 성체방문에 대한 신심이 깊을수록 순명과 사랑이 [성체성사에] 뿌리내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거룩한 성체에서, 바로 거기에서 힘이 주어집니다. 우리의 본성은 순종에 반기를 들려는 경향이 있고, 이기주의로 기우는 경향이 있으며,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당신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희생하려는 정신, 희생과 사랑과 순명 정신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덕의 스승으로서 단지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뿐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을 남겨주시고, 이를 실천할 은총을 우리에게

게 베풀어주시기 위하여 당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상 스승에 대한 성체성사적 신심에서 늘 성장하고자 노력하는지 살펴봅시다. “스승님께서서 여기 계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¹⁴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 그분께 청합시다. 신뢰해야 합니다! [...] ¹⁵ 더 힘든 순명에 있어서도, 비록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았더라도, [우리가] 시련을 겪고 어찌면 굴욕스럽게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거나 섬기도록 요청받았을 때 우리는 인간적이지 아니라 초자연적인 위로와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본성에 따라서가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격려하고 위로할 때] 삶은 공덕으로 평화 속에 풍요로워지며, 성체를 받아 모심으로써 늘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완덕과 사도직에서 발전하게 되며, 신뢰로써 확실히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우리도 예수님께서서 이르신 그곳에 이르러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언제까지나 하늘 저 높은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덕이 지배하는 수도원은 하늘의 대합실로서, 수도생활이 천사들의 삶과 천국에 있는 성인들의 삶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덕행의 실천을 위하여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련으로 이루어진 삶일 뿐 아니라 가장 드높은 삶이어야 합니다. 그 삶 안에 하느님의 성령이 모두를 사랑하시는 삶, 성성과 덕성을 성장시키기 위한 거룩한 투쟁이 있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예수님께서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마리아와 함께 순명과 사랑의 정신을 청합시다. 미사 중에, 영성체 중에,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방문 중에 그런 정신을 청해야 합니다.

12. 마태 7,4-5 참조.

13. 마태 20,28.

14. 요한 11,28 참조.

15. 원문에는 ‘비록 이것이...’(anche se questo...)로 되어 있다.

28. 바오로적 삶을 깊이 살 것¹

[...].² [수도생활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Thesaurizate vobis thesauros in coelis.*”³ 우리는 이 말씀을 대부분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귀에 늘 울리는,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지만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느님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에 따라서 생각하며, 삶의 위대한 선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곧 존재하는 것, 하루, 이들을 사는 것, 몇 년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훌륭한 회헌과 사도직 수행을 통하여 바오로적 삶을 사는 것임을 압니다. 은총, 성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영혼에 한층 큰 빛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브라질의 작은 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피상적인 태도를 조심해야 합니다. 심도 깊은 삶, 숙고의 태도! 우리 안에 제2의 본성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사물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쉽게 믿음이 배제된 인간적 추론에서 나온 것을 듣게 됩니까? 수도생활은 믿음의 원칙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도자 신분은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수도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것이며, 교회가 관리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에게 성소를 주실 때 그에게 총애의 표지를 주십니다. 수도생활을 글자 그대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 “모든 것을 버리고, 와서 나를

1. 1955년 [11월-12월]에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행한 묵상. 자기(磁氣)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A6/an 20b ac 36b.

2. 묵상 시작부분에 녹음이 안 되었으며, ...삶의 개념, 그리스도인 삶과 수도생활의 관념, 그리고 하느님께서 새겨주셨고 전달해 주신, ...가지고 있는 중요성 등의 표현이 삽입되었다.

3. 마태 6,20 참조.

따라라.”⁴ 주님께서 그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붙잡기 위해 그대 자신, 그대의 뜻, 그대의 계획들, 그대의 생각들, 그대의 감정들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가족 등을 버리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⁵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약간 나누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때때로 수도생활을 거의 휴식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네 가지 사항이 특히 [필요합니다.] 곧 영적 활동, 지적 활동, 사도직 활동, 조직 또는 청빈입니다. 첫째, 영적 활동 또는 내적 활동은 회헌에 나오는 라틴어 표현처럼, ‘뿌리 *radicitus*’부터 서서히 우리의 결점들을 떨쳐버리고 덕성을 갖출 것을 요청합니다. 곧 교만에서 겸손으로 넘어가야 하고, 분노에서 온화함으로, 지상의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집착에서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게으름에서 열성으로, 음욕에서 영성으로, 탐욕에서 극기로 건너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여러 차례 들어온 추론방식이나 수도원에서 동료들과 대화하면서 가졌던 사고방식을 버리고, 초자연적이며 영적인 사고방식으로 대체시켜야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Iustus meus ex fide vivit.*”⁶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적 활동은 교정 작업이요 정복을 위한 활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기초로서, 예수님에게서 램프, 촛불을 세우는 받침대인 삼각대와 같은 세 가지 대신덕을 잘 얻어야 합니다. 세 가지 대신덕은 곧 살아 있는 믿음, 확고한 희망, 불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추덕도 갖추어야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예지

4. 마르 10,21 참조.

5. 마태 10,37-38 참조.

6. 히브 10,38.

가 아니라, 성 바오로께서 말씀하시듯 “영의 예지, 성령의 지혜(*prudentia spiritus*”,⁷ 영적인 영혼의 예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속하는 것을 하느님께 드리기 위하여 의인이 되어야 하고, 장상에게 그리고 자매들에게 마땅한 존경과 애정과 친절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용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한편] 때때로 나약함을 만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사람은 어려움 앞에 멈추게 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성인이 되기에 이러한 나약함은 성인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에게서 받은 ‘민첩함의 계명’을 읽으십시오.⁸ [왜냐하면] 단순함과 민첩함은 성바오로딸수도회의 특징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내적 작업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성찰, 그리고 무엇보다 내면에 관한, 생각과 감정에 관한 양심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말씀과 활동이 옵니다. 그뿐 아니라 내적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신심실천(*pratiche di pietà*)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 회헌에 명시되어 있는 매일 신심실천과 주간 신심실천, 매월 신심실천과 매년 신심실천입니다. 세 가지 신심(*divozioni*)이 바올리나의 마음을 지배해야 합니다. 곧 성 바오로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천상 스승을 사랑해야 하고, 사도들, 특히 성 요한 사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도의 모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인 성 바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하고, 그분의 생애, 그분의 서간을 읽고 그분이 말하고 쓰고 생각하는 방식이 우리의 것이 될 때까지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의 삶을 묵상해야 하고, 특히 하느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과 사람들을 위한 불타는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신심이 훌륭한 바올리나를 보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올리나로서 자신의 의무에 늘 힘을 얻을 것이며, 늘 빛

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마음과 정신을 집중하도록 하여 그를 참된 신앙의 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보존할 것입니다.

신심(*pietà*(역주: 주로 신심이라고 번역하지만, *devozione/divozione*와 구별해야 함)은 단지 성당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뜻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먼저 신앙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본당에서, 여러 가정에서 다양한 신심행위를 찾아볼 수 있는데, 때로는 신앙과 신심에 대한 모호함을 느끼고, 왜 그리스도인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믿음에는 합리적인 기초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느님께 ‘합당한 예배(*obsequium rationabile*)’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두 번째 사항이 필요합니다. 곧 공부와 지적 활동입니다. 만일 수도회에 입회해서 일정 수준의 종교교육을 받았다면 좋은 일이지만, 늘 그런 상태이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종교적인 문제에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된 신심이 세 가지 요소로 형성된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 [의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지성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교육을 받고,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을 뜻합니다.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⁹ 요 며칠 동안 찬미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찬미 노래에서 조금밖에 듣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 그리고 전진!이라는 노래 가사 외에 머리, 지성이라는 내용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마음만 있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마음이 눈멀고, 또

7. 로마 8,6 참조.

8. VPC 132 참조.

9. 로마 12,1 참조.

10. 마태 22,37.

만일 본성적인 느낌만으로, 자연적인 경향만으로 사물을 대한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불멸의 영혼, 합리적인 영혼, 마음은 그다음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있습니까?¹¹ 마음은 머리 아래에 있지, 머리 위에 있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감정은 세 번째 부분이지만, 제가 마음이라고 [말할 때]는 올바르지 않은 마음, 또는 옳지 않은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한다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소수만이 …

지성! 면학, 교리 공부는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서 시작합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Quod Deus est et remunerator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¹² 그러므로 교리를 잘, 아주 잘, 매우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들을 원하면서 쉬운 일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질문과 좋은 답변을 통해 교리를 단순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오로적 사고방식, 바오로적 정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강연과 주의사항을 들어야 하고, 고해사제의 충고를 들어야 하고, 영성서적, 복음, 회헌을 읽어야 하며, 성 바오로의 생애와 서간을 읽어야 합니다. 라이노타이프로 식자 작업을 한 원고를 여러분이 받았을 때, 만일 여러분이 인쇄하고 있는 책을 잘 알기 시작한다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젊은 여성인 그대에게 *A te, giovane cristiana*」¹³가 무슨 내용인지, 서문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누가 썼는지, 목차가 어떤지 안다면 여러분은 사도직을 하고 있

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젊은 여성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자작업을 잘 해야 하고,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인쇄하고, 제본을 해야 합니다. 머리를 써서 행하면 더 많은 공덕을 쌓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행하는 것은 공덕의 기초입니다. 무조건적인 행위가 요청될 수 있지만, 여기에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하는 바를 알아야 합니다. 넓은 시각으로 잘 행하려는 지향을 가지고 그 일을 실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밀리아 크리스티아나」지가 가정에 전해져야 하는데,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읽어야 하고, 여러분이 행하는 것, 여러분이 말하는 것, 여러분이 보내는 말씀, 거기에 인쇄되어 있는, 각 가정에, 각 사람들에게 도달해야 할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와 같이 여러분은 머리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사도직을 의식적으로 실행합니다. 그러므로 공부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또 공부해야 합니다!

프로파간다를 해야 하는 여러분은 책과 그 내용을 아는 것만 아니라, 그 책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한 번 더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소개하는 그 책이 젊은이에게 적합하지만, 여러분 앞에 나이 든 여성이나 어린 아이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만일 나이 많은 여성이라면 여러분은 다른 책, 가능하면 교리서나 복음서, 또는 그녀에게 더 적합한 다른 책을 찾아야 합니다. 의사가 눈이 아픈 사람의 귀를 치료하지 않듯이, 다른 것이 필요한 그 영혼에게 우리는 적합한 책을 건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서 사랑에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곧 ‘학교에 갈 때, 공부하러 갈 때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친교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 갑니다.’ 공부하는 곳은 성당과 같습니다. 친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친교는 마음에서 마음으로뿐 아니라, 머리에서 머리로, 지성에서 지성으로,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

11.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는 머리와 가슴을 가리키셨고, 공동체는 웃음으로 반응했다.

12. 히브 11,6 참조.

13. Vincenti M. (fsp), 「그리스도인 젊은 여성인 그대에게 *A te, giovane cristiana*」, Alba 1948년 참조. 기도와 양성에 관한 매뉴얼.

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진리, 특히 복음 안에 있는 진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진리로 우리의 지성을 대체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따라 생각하고, 복음에 따른 삶의 계획들을 세우며, 그 결심을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할 때, 손을 모은 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쓸 것이 있다면, 손을 모을 수 없겠지만, 가르침을 받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정신집중의 방편으로 또 신심을 갖고 그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 모든 것에서 기회를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기서 세탁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 저곳에서는 인쇄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람들을 위하여 [삶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¹⁴ 주님께서는 상점 주인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으며, 재봉일을 하도록 부르지 않으셨고, 지리나 수학 등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과학 과목들은 거룩한 내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배워야 하며, 복음을 가르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다른 학문들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셨고 또 교회가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진리를 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하느님의 집배원과 같고, 교회의 확성기와 같습니다. 교회는 가르치고, 여러분은 교회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을, 구원을 가져다주는 말씀을 되풀이해야 하며, 집집마다 전해야 합니다. 모든 다른 일들, 다른 학문들, 의학, 포르투갈어, 지리, 그리고 기계공학, 물리학 등 다른 학문도 [모두] 세상을 위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위하여, 하늘의 길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부르심 받았습시다. 얼마나 자주 여러분은 [사람들이] 구

원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합니까!

[이제] 한 가지 괴로운 일이 저에게 덮었습니다. 특히 성직자가 부족한 일부 나라에서 완전한 속죄행위를 잘 설명하고 또 완전한 방식으로 이러한 참회의 행동을 하도록 가르치는 많은 책들을 보급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 저를 재촉합니다. 아주 많은 이들이 사제 없이 죽어 갑니다. 만일 사제가 있다면 고해성사를 보고, 공동 참회예절에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시 말해서 속죄 또는 불완전한 통회입니다만, 불완전한 통회에 주어지는 사죄경은 죄를 사해줍니다. 그러나 사제가 없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죽는다면, 사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충돌사고로 죽는다면, 또는 그 사람이 그렇게 아프다거나 그렇게 위독하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제를 부르지 못했으나 완전한 통회를 했다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만일 불운하게도 일하는 중에 대죄를 지었으나 저녁에 완전한 통회를 하게 된다면 ... '무한히 선하시며 만물 위에 마땅히 사랑받으셔야 할 당신께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죄를 용서받을 것입니다. 또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 있다면 다음날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해성사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고해성사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만일 잠자는 상태에서 죽는다면 ... 천국에 들어가게 되며, 또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입니다.

사도직에 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훌륭한 저술가와 화가 등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바오로딸수도회로 하여금 일본에 있는 여러분의 많은 자매들이 이미 라디오 방송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탈리아 등지에서 영화 사도직을 위하여 이미 일하고 있는 여러분의 많은 자매들처럼 영화와 라디오를 사랑하게 하시고, 언젠가 이 사도직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14. 원문에는 '그리고 전력을 다하는 삶, 온 힘을 쏟는 삶의 일부가 있습니다.'(e c' é la vita che viene spesa, la parte della vita che viene spesa...)로 되어 있다.

위대한 사도직을 손에 쥐고 있으며, 아름다운 성소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수단들을 보내주시고, 그 수단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시며, 길을 열어주시고, 겸손하게 걸어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거대한 악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작은지, 우리는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러나 만일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부자유 권세가들인 원수들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Si Deus pro nobis, quis contra nos?”¹⁵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도직에서 모든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를 잘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멋진 필체를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글을 잘 쓰십니까? 여러분은 원고를 잘 읽고, 식자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까? 가능한 한, [여러분은 이미 행하고 있지만] 예기치않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노력을 통하여 여러분의 많은 자매들이 아주 잘 해내고 있으며, 또 그와 같이 여러분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능숙하게 인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새로운 인쇄기를 주시도록 주님께 청하십시오. 그다음에는 제본 사도직이 있고, 또 그다음으로 사도직에서 가장 필수적인 부분인 프로파간다가 있습니다.

편집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사도직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프로파간다입니다. 수많은 소식들을 들으면서도 그들의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정에, 각 가정에, 각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도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잡다한 일들을 들으면서도 유일한 스승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 이시다 Magister vester unus est, Christus.”¹⁶ 아, 여러분의 사도직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프로파간디스타들이라면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책과 인쇄물을 갖추도록 항상 청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여러 가지 필요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청빈을 어떻게 준수해야 할지 살펴야 합니다. 청빈은 우리 마음이 사물에서 이탈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활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청빈인데 우리는 재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긍정적인 청빈은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실천하셨고, 마리아께서 완벽하게 실천하셨으며, 성 요셉께서 완벽하게 실천하신 바로 그러한 청빈입니다. [...] [어떤 이들은] 자수를 놓거나 정교하게 바느질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한 번은 질병을 피하고 건강을 유지하도록 위생 관리에 관해 배우고, 또 한 번은 다른 이들을 대할 때 필요한 몇 가지 지혜의 규칙을 배웁니다. 장상들, 동료들,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배우고자 노력해야 하고, 주님께서 영적인 일에서, 각자 직무를 완수해야 할 의무에서, 특히 수도원 내부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때 우리를 비추어주시기를 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우리의 혀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듣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의 모든 말이 하느님의 법정에서 되풀이될 것이며, 우리는 그곳에서 그 모든 말을 다시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 있게 될 때 여러분이 어떻게 말하기를 바라십니까? 좋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마리아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의 지혜를 가지고 말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수다쟁이가 아니라, 강한 여인이요, 슬기로운 여인, ‘가장 현명한 동정녀 Virgo prudentissimo’이셨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이러한 위대한 모델을 따르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15. 로마 8,31.

16. 마태 23,10.

29. 성 바오로를 알고, 사랑하고, 본받을 것¹

매월 첫 월요일을 우리는 통상적으로 성 바오로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헌에 따르면, 성 바오로께 드리는 신심은 세 번째입니다. 회헌에 묘사된 중요성을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우리의 보호자이시요, 동시에 우리의 모델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수도회 안에 아버지로서, 또 다른 한편 우리의 빛으로서 다가오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향해 두 가지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곧 우리로 하여금 수도생활을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절대적이며 참된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또한 사도직 실천으로 이끌어주십니다. 영혼들에 대한 사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한 활동입니다.

모든 신심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성 바오로께 대한 신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심은 제일 먼저 지식, 다시 말해서 지성(mente)의 확신인 납득을 요구합니다. 신심은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첫째가는 능력, 다시 말해서 피조물들에서 인간의 특징을 보여주는 능력, 지성(intelligenza)을 주님께 드리도록 이끌어줍니다. 지능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하느님을 알고, 동정녀를 알고, 성 바오로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신심의 첫째가는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그다음으로 신심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이끌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의 감성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사물보다 하느님을 선호하도록 이끌어줍니다.

1. 'Calendario perpetuo'에 따르면 1955년 12월 5일자로 거슬러 올라가는, 12월의 첫 월요일에 브라질에서 행한 묵상이다. 자기(磁氣)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A6/an 20b ac 37a, 억양과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바오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어느 성당에서 행한 묵상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정녀에 대해, 곧 우리의 어머니가 되시는 마리아를 사랑하고, 우리의 아버지요 모델이 되시는 성 바오로를 사랑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세 번째로 신심은 우리를 실천으로 이끌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본받도록 이끌어줍니다. 마음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신심은 우리를 기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동정녀께 기도하고, 성 바오로께 기도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또한 우리의 주님이신 천상 스승의 덕행을 본받도록 우리를 이끌며, 우리의 어머니시요 여왕이신 마리아의 덕행을 본받도록 해주고, 성 바오로 사도의 덕행을 본받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개인적인 성성(santità)에서나 복음화 활동에서나 성 바오로를 본받아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제자에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복음 선포자의 일을 하고,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Opus fac evangelistae.”² 다시 말해서 복음 선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파하신 복음 선포자, 그분의 제자인 바오로에 의해 심도 있게 해석된 복음의 선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를 본받아야 하는 이 두 번째 사항에 우리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곧 사도직입니다.

각자는 지상에서 하나의 사명을 띠고 있으며, 모두 성성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영원에서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ut essemus sancti.”³ 그러므로 각자는 고유한, 특별한 영적 활동을 통하여 성화되어야 합니다. 곧 잘못을 교정해야 하고, 덕성을 갖추는 동시에 지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상에서 사회적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봉쇄 수도원 삶으로 은둔을 하는 사람도, 관상생활에 봉헌한 사람도 사회적

2. 2티모 4,5.

3. 에페 1,4 참조.

사명을 띠고 있습니다. 사회 정신은 우리 본성에 주입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정이라는 사회에 속해 있고, 시민 사회에 속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큰 사회, 곧 고유한 특징을 지닌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이고, 초자연적이며 초민족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가톨릭신자들의 사회이고, 부르심 받은 사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건설하는 데 협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사도직이라는 외적 사명과 내적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가 여러분처럼 관상생활과 활동생활에 헌신하는 사람들이고, 단순하게 관상생활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창살 뒤로 굳게 닫힌 봉쇄 수녀회의 어떤 수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건설과 건립에 공헌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심판에서 열망하고 바라는 상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이를 위해서 하느님의 교회 안에 있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의 건설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관해 살펴보자면, 우리가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있든,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든, 각자에게 하늘나라의 길을 걷고 영원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하여 필요한 은총과 도움이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이를 위해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성 바오로의 정신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⁴ 다시 말해서 모든 이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곧 모든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지적인 힘, 당신의 영적인 힘, 당신의 육체적인 힘, 당신의 피를 세상에 증여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모두를 위해서, 모든 이를 당신 마음에 지니면서,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을

4. 1코린 9,22.

당신 영혼 안에, 당신의 생각 안에, 당신의 걱정 안에 지닙니다. 그것은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나 내적인 활동을 통해서나 각자는 자신의 성화에 대한 목적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건설에 협력해야 하는 목적 또한 지녀야 합니다. 관상생활로 부르심 받은 이들은 교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에 대하여, 주교와 성직자에 대하여, 신자들과 비신자들에 대하여 염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하여, 저술가들과 편집자들에 대하여, 사도직에서 활동하는 모든 이들에 대하여 염려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문을 닫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두 가지 기본적인 계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완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줍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⁵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의 첫 부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⁶ 그리고 그다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봉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희생해야 합니다. 의무로 행하든 다른 것을 위해서 행하든,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관상생활을 하는 수녀 일지라도 오직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변명을 늘어놓는 이기주의 안에 갇혀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 바오로에 관하여 우리는 세 가지 사항을 실행해야 합니다. 첫째,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성 바오로를 알아야 하고, 그분의 삶을 알아야

5. 루카 10,27.

6. 마태 6,9.

합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하나의 삶의 역사요, 하나의 전기입니다. 성 바오로의 생애는 우리 시대에 많이 회자되고 있고, 특히 성바오로수도회는 몇 권의 책을 출판하여 널리 보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분 생애를 통하여 성 바오로를 알아야 하고, 그다음으로 그분의 정신 안에서 그분을 알아야 합니다. 성 바오로의 전기에서 그분의 외적 활동을 잘 묘사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그분의 영적인 활동, 내적 활동을 더 깊이 숙고해보아야 합니다. 곧 주님께 서 그에게 미래에 행할 사명을 준비시키셨을 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분이 고독 속에서 자신의 결점을 교정하고 덕성을 갖추기 위해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숙고해야 합니다. 참으로 [바오로의 삶은] 아주 중요한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의 삶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양성기간은 얼마나 소중한니까! 젊은 시절부터 뿌린 씨가 삶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 준비한 것들이 어른이 될 때 사회 안에 그리고 그의 활동 안에 실현됩니다.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Adulscens iuxta viam suam, etiam cum senuerit non recedet ab ea.*”⁷ 그러므로 “젊은 시절에 멩에를 메는 것이 사나이에게 좋다네*Bonum est cum portaverit iugum ab adolescentia sua.*”⁸ 그래서 양성기간 동안 바오로의 신심 정신에 대해서, 기도 정신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사도적 활동에서 성 바오로를 알아야 합니다. 곧 여행뿐 아니라, 그분이 일하는 모습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에서 성 바오로를 알아야 합니다. 곧 그분의 서간들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실천적인 결심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성 바오로를 알아야 합니다!

7. 잠언 22,6(불가타).

8. 예가 3,27.

결과는 나중에 뒤따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인간적인 의미에서도 분명히 첫째가는 분이신 이 사도를 사랑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분은 열성에서 으뜸이요, 사도적 활동에서 으뜸이고, 사람들을 위한 활동에서 그리고 사상에서 으뜸이십니다. 성 바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적 생활에서 그리고 사도적 직무에서 그분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서에 나오는 성 바오로께 바치는 기도를 기도서에 제시된 대로 모두 바쳐야 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기도를 바쳐야 하고,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생각해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에 신뢰를 두고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분명히 그분의 아버지다운 마음은 지상에서 당신 자녀들이 증가하고, 당신을 본받고자 노력하고, 그분을 알고, 또 가능한 한 그분께서 이루신 아주 소중한 사명을 세상에서 계속하려고 애쓰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흠족하게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천국에서 얼마나 사랑스런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먼저 성소 활동을 위하여 신뢰를 가져야 하고, 성 바오로께 바치는 코린치나(주간기도)에 제시된 은총을 청하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코린치나의 첫 번째 사항은 은총에 상응해야 하고, 은총에 온순해야 하며, 지배적인 결점을 이겨내고, 가장 필요한 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세 가지 사항은 수도생활을 위한 양성에 관해 언급합니다. 다시 말해서 청빈과 정결, 순명 정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항은 우리 안에 바오로적 수도생활을 잘 확립하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사항, 곧 다섯 번째 사항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품고 있는 열정의 은총을 주님께 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구를 통하여, 성 바오로의 전구로, 그분의 열정을 본받는 은혜를 청해야 하고, [동시에]

교회와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본받도록 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 바오로께 바치는 코론치나는 우리의 바오로적 수도생활에서 하나의 사명을 가지게 합니다. 첫 번째 코론치나는 이미 위에서 제시되었습니다.⁹ 늘 염두에 두기 위하여 코론치나를 바치고, 머릿속에 새기며 언제나 우리 정신 안에 새겨야 합니다. 이 코론치나에서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성소자들, 부르심 받은 이들의 성성, 그들의 수도생활 양성, 교회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남녀 바오로인 *veri paolini e vere paoline*을 얻을 수 있습니다.

30.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것¹

종신서원을 했다면 천국으로 들어갈 영원한 서원을 준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그리스도인 삶과 수도생활을 함께 묘사하면서, 우리는 하늘을 향하여 걸어가는 순례자처럼 지상을 거쳐 가야 하며, 매일 조금씩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et qui utuntur hoc mundo tanquam non utentes...*”²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면서 지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곧 빵, 음식, 주거지, 옷과 문명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누리고 있지만, 우리에게 [사용하도록 주어진] 모든 것은 하늘나라, 천국에 도달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도, 지위도, 사람들도, 공동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tanquam non utentes*.” 마치 전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가고자 하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전차에서 내려야 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편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tanquam non utentes*.”

그렇지만 우리는 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물질

9. 성 바오로께 바치는 코론치나는 1922년의 첫 번째 기도모음집에서 볼 수 있지만, 191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Alberione G., 「기도서」 149쪽 참조.

1. 패션이 있는 종이 2장(21.5x31)에, 타자로 된 강론으로서 표제에 “Pia Sociedade - Filhas de Sao Paulo - Para o apostolado das Edicoes - Rua Aguiar, 50 - Rio”라고 적혀 있다. 날짜는 연도만 명시되어 있다.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는 1955년 11월 17일에 브라질에 가셨기에 이 묵상은 11월 혹은 12월에 하셨을 것이다. 녹음은 되지 않았다. 두 번째 손질이 가해져서 종이 위에 제목으로 “사물에 대한 이탈”이라고 썼지만,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리오 데 자네이로, 1956년 [11월 또는 12월] 00일.

2. 1코린 7,31.

적인 것들은 모두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는 지상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영적 부분의 고해사제, 성당, 신심실천, 우리의 신심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교회와 다시 말해서 성좌도 영원한 생명을 위해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것입니다 *Omnia vestra sunt, vos autem Christi.*”³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위하여 도움이 됩니다. 신앙 자체도 하늘나라를 얻기 위한 것이고, 하느님과 영원한 일치를 위한 준비와 사랑을 준비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준수하면서 실천하는 순명과 서원도 엄밀히 말해서 주님을 영원히 소유하기 위하여 도움이 됩니다. 모든 것은 영원을 위하여 쓸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거나 머물러 지내거나, 이런 직무나 다른 직무를 실행하거나, 모든 것은 더 많은 공덕을 얻기 위하여 하느님의 선하심과 섭리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우연히 주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물을 집착하지 않고 사용해야 하지만,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떤 것들은 충분히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물 중에서 음식 등의 어떤 것들은 우리가 절약하며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천국을 위하여 그리고 공덕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극기해야만 하는 것들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부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쾌락들,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느낌들, 세상의 근심들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극기해야 합니다. 극기를 통하여 우리는 천국을 위한 공덕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대해, 행동에 대해 생각하며, 천국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숙고해야 합니다. 나를 천국

3. 1코린 3,23.

으로 이끌어주는 것입니까?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나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죄짓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느님께 대한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삶에 대해서도, 건강에 대해서도, 아무것에도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하지만, 오직, 늘 하느님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취향에 속하는 것을 행해야 하고, 나를 하느님과 영원한 일치에 이르게 하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에 하느님께 대한 참된 사랑이 있고, 여기에 완덕이 있습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Cupio dissolvi et esse cum Christo.*”⁴ 수도생활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하느님 은총의 빛을 받아 젊은 시절부터 완수했다면, 수도생활의 유일한 과제가 됩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은 하늘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창조된 만물에 관하여, 어떤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하고, 어떤 것은 우리가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받아들인 수도생활의 활동과 매일의 노고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모든 결심, 신심실천, 묵상, 양심성찰, 성체방문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세상 것에 집착하거나 죄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지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느님을 향해 있고, 굳건하게 천국을 향해 방향지어져야 합니다. 천국이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도록 습관화된 생각을 형성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의 일 또는 다른 일을 선택하도록 이끌고, 한 가지 결심 또는 다른 결심을 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늘나라를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을 만드셨고, 그분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지혜입니까! “주님, 주님을 위하여 저희를 내셨기에, 주님 안에 쉬기까지

4. 필리 1,23.

는 저희 마음이 찻찻하지 않삽나이다⁵fecisti nos, Domine, ad te!⁵

우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사물에 매혹되거나 마음을 빼앗겨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상태에 이르러서는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천국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를 지향해야 합니다. 특히 생각과 마음이 하늘나라를 향해야 하고, 활동, 하루 일과, 모든 것이 하늘로 향해야 합니다. 누가 성공을 거듭니까? 생생한 신앙을 지닌 사람, '신경'의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아주 생생한 믿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천국을 믿어야 하며, 천국에는 그 어떤 얼룩도 함께 들어가는 안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집착이나 우리가 선호하는 더럽혀진 모든 것에서 우리를 정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우리의 취향이란 하느님께 향한 것이고, 하느님을 위하여 다루어지는 것일 때 한해서입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께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라는 용어는 항상 하느님께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을 나도 마음에 들어 해야 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하늘나라를 믿읍시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활동하지 않는 것은 시간을 잃는 것입니다. 시기, 시간, 생명, 은총, 공덕의 기회를 낭비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이 이 모든 것을 낭비합니까! 대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한 모든 것을 취하고, 공덕을 쌓기 위하여 열심히 모든 시간을 활용하려고 애쓰니까? 아, 천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모든 것의 기초요, 모든 덕과 성성의 토대입니다. 하느님께서 지상에서 이루어진 것

5. 성 아우구스티노, 「고백록」, 1, 1.

을 되갚으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지만, 우리는 덕을 증가시키기를 열렬히 바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하며, 성인들처럼 열렬히 천국을 열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초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아시므로 우리는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거나 많은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준주성범」에 "오래 사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Longo vita non semper emendat."⁶라는 말이 있습니다. ... 왜냐하면 종종 나이를 먹을수록 잘못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 요한께서는 오래 사셨고, 참혹한 순교를 당하셨으며, 예수님과 일치하는 최고의 단계에 이르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와 다른 성인들도 오래 사셨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점입니다. 곧 현재의 순간을 성화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성화시키고, 하루 일과를 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성화시킵니다. 할 수 있는 것보다 미사에 더 잘 참여하고, 아는 것보다 직무를 더 잘 완수하고, 늘 영원을 위해서 임해야 합니다. 「현 순간을 성화합시다.Santifichiamo il momento presente」⁷라는 책은 많은 지혜가 담긴 책입니다. 더 나아가 수도자는 "제가 받을 몫이며 제가 마실 잔이신 주님Dominus pars haereditatis meae"⁸의

6. 「준주성범」, 1, XXIII, 1 참조.(역주: 라틴어 판과 이탈리아어 판에서는 1권 23장이 3개 조로 되어 있어서 한국어 번역에서는 23장 2조에 해당된다. 그리고 의미도 좀 다르게 번역되었다. 먼저 라틴어를 정확하게 번역한 이탈리아어를 제시해보기로 한다. "A che giova vivere a lungo, se correggiamo così poco noi stessi? Purtroppo, non sempre una vita lunga corregge i difetti; anzi spesso accresce maggiormente le colpe." 그 의미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조금밖에 고치지 않는다면 길게 사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불행하게도 오래 사는 것이 항상 결점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종 잘못을 더 크게 만든다.")

7. Feige, 「현 순간을 성화합시다.Santifichiamo il momento presente」, Societa San Paolo, Pescara 1952.

8. 시편 16,5.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수도자는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 어떤 인간적인 목적도 겨냥하지 않기에 돈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며, 그 어떠한 다른 인간적인 의도를 위해서도 일하지 않습니다. “저를 위하여 누가 하늘에 계십니까Quod volui super terram?”⁹ 오로지 하느님의 뜻과 또 다른 삶인 천국을 바라야 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은총을 청합시다. 1) 천국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도록 2) 열렬하게, 늘 천국을 염원하도록 3) 삶 전반에 걸쳐 생각, 결심, 있는 그대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조정하고 천국을 향해 방향있게 해주시길 청합시다. 이러한 것과 무관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행하지 않도록 합시다. 미사에서 또는 성체방문에서 적용하고, 속고와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모든 깊은 지혜입니다. “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지당한 것이다Hic est omnis homo.”¹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죽음 뒤에 곧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진정으로 천국을 염원해야 하며, 천국을 위한 공덕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정렬해야 하고, 우리를 정화시켜야 합니다. 사실 천국은 그 어떤 얼룩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난 삶의 죄에 대한 속죄가 필요합니다. 잘못을 정화해야 합니다. 특히 미지근한 태도는 천국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냉담한 태도를 정화시켜야 합니다.

9. 시편 73(72), 25(불가타).

10. 코헬 12,13.

31. 영화 사도직¹

저는 미사성제를 거행하였습니다.

1.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이신 하느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하느님께서는 선 자체이시요, 아름다움 자체이시며, 진리 자체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영화 사도직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경이로운 일의 주인이십니다. 말하자면 하느님께서서는 만드신 모든 자연법의 주인이십니다. 이 영화 예술에는 경이로운 일들이 종합적으로 펼쳐지지만, 그것은 단지 인간 편에서 볼 때 경이로운 일입니다. 인간은 처음에는 이를 알지 못하였고, 아직 모든 자연을 열어보지 못하였습니다. 비록 인류가 큰 발견을 하였지만, 아직도 모든 것을 열지 못하였습니다. 하느님 편에서는 경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아드님 안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Omnia per ipsum facta sunt.”² 그리고 창조물 안에 이러한 법을 새기셨습니다.

2. 일반적으로 영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선, 아름다움, 진리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더 나아가 영화 사도직에서 성바오로 수도회에 허락하신 모든 은총에 감사드리기 위하여 미사성제를 거행하였습니다. 하느님에게서 모든 선이 나옵니다. 지성의 빛, 의지를 위한

1. 붉은 색 패선이 있는 종이 7장(22x28)에 타자로 된 원고로서, 1955년 12월 22일, [로마]Villa S. Giuseppe에서 영화사 건물의 축성식을 기회로 행한 묵상이다. 묵상은 다음과 같은 모음집으로 출간되었다. 「프리모 마에스트리의 생각 안에 담겨 있는 사회홍보수단들*Gli strumenti della comunicazione sociale nel pensiero del Primo Maestro*」, Adriana Zanelli 역음, 로마 1964년, pp. 31-35. 타자원고본과 출판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타자원고본을 원본으로 여긴다.

2. 요한 1,3.

영감, 열망...그리고 여기까지 도달하게 만든 그 모든 은총이 그분에게서 주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것입니다! 우리 가족에게, 바로 가족에게 이 사도직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3. 수많은 죄를 보속하기 위하여 미사성제를 봉헌하였습니다. 영화가 죄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영화는 가장 아름다운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사상을 펴트리고, 사람들 사이에 선함과 사랑을 보급합니다.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 영화도 선을 전하지만, 악마도 모든 선한 일을 악으로 돌리기 위하여 이용합니다. 편집을 하는 사람, 기술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편에서, 그리고 영화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인간의 욕망을 탐색하여 계약자들과 구입자들, 보급자들을 자주 속이기 때문에 관객들도 밤낮으로 많은 죄를 범합니다. 이들이 영화를 잘못 해석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합니다.

4. 영화의 모든 편집, 모든 기술, 모든 보급을 비추어주시도록 주님께 간청 드리기 위하여 (미사성제를 봉헌하였습니다.) 이 사도직에 종사하는 모든 이가 거룩하고, 섬세하고, 관대하고, 희생정신을 지닐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직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우리의 공덕을 증가시키기 위한 기회와 수단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영화분야의 사도들이 그 분야에서 매우 필요한 극기정신을 지닐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위로해주시고 인내심을 주시며, 직면하게 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어려움 때문에 그 누구도 멈추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의 지향을 정확시켜야 합니다. 곧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도직이 모든 나라, 특히 바로로 가족이 진출해 있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바치고 거룩한 감실에서 빛을 받

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신심실천과 신심행업을 잘 이행하면서 이 사도직이 하느님의 빛 아래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영화 사도직을 위한] 네 가지 지향은 이렇습니다. [곧 흠숭할 것, 감사할 것, 보속할 것, 간청할 것.]

이 사도직에 헌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곧 하느님께 대한 큰 사랑, 사람들에게 대한 큰 사랑, 그리고 극기정신입니다.

1) 하느님께 대한 큰 사랑! 저는 주님의 기도 첫 부분을 이러한 정신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영화가 하느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영혼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인류에 대한 당신의 권리를 존경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다시 말해서 모두가 하느님을 제1원리로 인식해야 하고, 당신의 법 아래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단과 똑같은 수단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상처받지 않아야 합니다. 얼마나 자주 하느님의 선물이 하느님을 거슬러 사용됩니까! 그 대신에 영화는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외하도록 이끌며, 사람들로 하여금 언젠가 그들이 이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편집분야나 기술분야나 보급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느님 앞에서 결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도록 이끌어줍니다. 하느님께 결산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만일 사도직이 초자연적 정신으로, 신앙으로 행해졌다면 주님께서서는 “상을 주시는 분remunerator”³이시기에 모든 노고를 보상해주실 것

3. 히브 11,6 참조.

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오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다시 말해서 영화 사도직에 있어서 교황청, 교황님이 내리신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특히 영화에 관한 회칙을⁴ 반포하신 교황 비오 11세의⁵ 회칙뿐 아니라, 특히 이에 관련된 교황님의 최근 연설들에서⁶ 내려진 지침들을 따라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영화를 매개체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인간들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들을 위하여 순수한 영화가 있어야 하고, 젊은이들의 의지를 강화하도록 이끌어주는 영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문화교육과 종교교육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윤리적인 가르침을 통하여 건설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노고에 대한 … 하나의 정직한 위로, 많은 방식으로 휴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영화는 언제나 아름다움과 선을 표현하지만, 참된 아름다움과 참된 선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화가 어떤 악의 기회가 되는지, 어떤 수단이 모든 측면에 아주 강력한 선의 수단이 [될 수 있는지]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해해야 합니다.

2) 그뿐 아니라 영화 사도직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propter nos homines, et propter nostram salutem descendit de coelis.*”⁷ 예수 그리스도께서

4. 비오 11세, 「주의 깊은 관심 *Vigilanti cura*, 1936년 6월 29일, AAS 28(1936), pp. 249-263, in *Enchiridion delle encicliche*, vol. 5, EDB, 1999, pp. 1046-1073.

5. 교황 비오 11세(Achille Ratti, 1857-1939)는 1922년에 교황이 되었다.. 그분의 교황직 특징은 선교 사도직의 부흥과 가톨릭 액션에서 평신도 사도직의 부흥을 꾀한 것이다. 1929년에 이탈리아 정부와 협의하여 로마 문제(*questione romana*)를 종결지었다.

6. 교황 비오 12세께서 1955년 10월 21일과 28일에 행한 이상적인 영화에 관한 두 차례의 연설을 말한다.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는 다가올 성탄에 인간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관상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도직에 부르심 받은 이들이 동일한 사랑, 인간들에 대한 똑같은 사랑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인류의 안녕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이 사도직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죄를 피할 수 있어야 하고, 삶의 모든 분야에서 곧 개인적인 삶, 가족적인 삶, 시민의 삶, 수도자의 삶, 국내 차원의 삶과 국제 차원의 삶에서 선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아, 이 매체들을 통하여 이룰 수 있는 선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일 이토록 크고 막강한 수단이 사악한 이들에 의해 그들의 불순한 목적에 이용되도록 우리 편에서 허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재앙이며 큰 불행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하느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이 매체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온전한 지성을 통하여 이 사도직을 촉진시키고 다른 한편 어린이와 젊은이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연장자들과 노인들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인류에 대한 사랑을 위하여 더 큰 희생과 헌신으로 이 사도직을 촉진시켜야 합니다. 자,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을 느끼는 것이 둘째 계명입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⁸

3) 영화 사도직은 많은 극기를 요청하며, 여러 측면에서 많은 희생 정신을 요청합니다. 영화 사도직은 단순히 영화를 보러가거나, 소파 위에 편안히 앉아서 줄거리의 전개과정을 따라가며 매혹적이고 즐거울 때 박수를 치거나, 매력이 없고 재미가 없을 때 혹평할 준비를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공부가 요청됩니다. 알고 또

7.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에서.

8. 마태 22,39.

아주 많이 알아야 합니다. 영화를 통하여 전해 줄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술 그 자체에 관한 것뿐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교의, 윤리, 전례에 관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논의되는 주제들을 공부해야 하며, 지혜롭게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극기가 필요할 뿐 아니라 박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것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책 또는 나쁜 책일 수 있는 책을 아무에게나 읽도록 건네 줄 수 없듯이, 영화필름 선별 사도직에 아무나 보낼 수 없습니다. 만일 책임을 맡지 않은 사람이 나쁜 책을 읽는다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영화를 선별하는 책임을 맡지 않은 사람이 영화를 보러 가서 올바른 비평을 하지 않는다면, 스캔들을 찾아다니는 격이 되기 때문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섬세한 양심과 큰 극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이 아직 모든 곳에 들어간 것이 아니며, 아직 일반적인 신념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일반적이고 실천적인 신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섬세한 양심, 극기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영화를 보러 갈 때 섬세한 양심과 지성을 통하여 영화를 관람해야 합니다. 나중에 지적인 비평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영화를 통하여 선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선택하고 자제할 줄 알아야 하지만, 결코 양심과 영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즐거리의 흐름을 지적으로 연구하여 좋은 면과 좋지 않은 면을 발견해야 하며, 교의, 윤리, 미학적 측면 등, 모든 측면에서 영화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를 짓는 일이 될 수 있으므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길을 걸을 때 다소곳이 눈길을 모아야 할 필요가 있듯이, 영화관람에서도 조신함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고, 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언제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영화는 하나의 즐거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눈을 통하여 환상으로 작용하는 것이지만, 감각과 마음에서도 작용하여 사람을 사로잡고 매료시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네가 무엇을 읽고 있는지 내게 말하면 내가 누군지 말해주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연하자면 '영화 필름에서 무엇을 선택할지 내게 말하면 내가 누군지 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영화 필름이 관객들에게 이런저런 사건을 어느 정도 읽도록 드러내줄 수 있습니다.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극기해야 [합니다.] 경영관리는 지성의 활용과 헌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도 세밀하고 구체적이며, 깨어있는 지성과 헌신을 요구하기 때문에 극기가 필요합니다. 관리해야 할 곳은 광택이 있는 땅입니다. 관리 책임을 맡은 이들은 책임을 느끼고 결과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극기는 다음과 같은 일에서도 필요합니다. 곧 어떤 사람들이 휴식을 위한 필름 또는 오락용 필름을 볼 수 있지만, 남녀 수도자는 모든 이를 위한 필름이라도 언제나 그 모든 필름을 다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때, 수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인들과 미성년자들이 볼 수 있지만, 수도자들은 늘 깨어있어야 하고, 더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필름들 사이에서 최상의 필름을 선택해야 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보고자 하는 영화 필름의 선별은 그 사람, 그의 경향, 그의 정신을 드러내주지만, 환상에, 기억에, 마음에 작용하고, 또 모든 존재에, 인격 전체에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기에, 많은 극기가 요구됩니다. 모든 것 안에 종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사도직에서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사도직에서 하느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결실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내밀한 극기가 필요합니다. 이 사도직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결산보고를 해야 합니

다. 어떤 친구에게 악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싶은 영화 필름을 친구에게 호의로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많은 규율을 지켜야 합니다. 극기! 주님께서는 편집자나 기술자나 프로파간다디스타로서 우리가 사용하고 간직하게 될 섬세한 양심에 비례해서, 우리가 가지게 될 애덕 정신에 비례해서 영화 사도직을 위한 성소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활동에 대한 결과를, 모든 결과를 볼 수 없습니다. 미사에서 우리가 종종 읽게 되는 말씀이 성취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분께서 어둠 속에 숨겨진 것을 밝히시고 마음속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Illuminabitur abscondita tenebrarum.*”⁹ 우리의 좋은 행동과 좋지 않은 행동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늘 하느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분 면전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어떻게 활동했는지, 우리의 목표가 어떤 것이었으며, 사도직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어떠하였는지 모든 이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늘 하느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로 가족이 행하는 출판 사도직에서 요청되는 것보다 더 많은 덕이 요청되기 때문에 이 사도직을 위한 성소는 어렵습니다. [영화 사도직은] 더 많은 덕, 더 많은 관대함, 더 많은 극기, 더 많은 희생, 더 섬세한 양심이 요청됩니다. 더 깊은 신앙, 사람들에게 더 공감되는 사랑, 모든 것에서 지혜와 정의가 지속적으로 요청됩니다. 한편으로는 용기와 온유, 겸손과 순명이, 다른 한편으로는 청빈과 정결이 필요합니다. 곧 더 많은 덕성이 요청됩니다!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덕을 갖춘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직에서 일하는 사람은 더 많은 공덕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덕행의 실천이, 더 깊은 덕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9. 1코린 4,5.

이제 이 사도직이 잘 실현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덕성을 주시도록 아기 예수님께 간청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당에서 받게 될 강복과 사도직 장소와 인쇄기를 위한 축복을, 이 모든 은총을 주님께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 언덕에 접어들어 수도원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사도직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책임감을 느끼곤 합니다. 섬세하지 못한 이에게는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느끼고], 섬세함과 믿음과 지혜로써 항구하게 헌신하는 사람은 큰 공덕을 쌓는다는 것을 [느낍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좋은 결과에 대해서, 바랄 수 있는 좋은 결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을 곧 미사봉헌 때마다 영화 사도직의 모든 것을 성작에 담곤 합니다. 그리고 사도직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갖추어야 할 덕과 그들이 하느님의 빛에 의해 인도되기를 늘 간청합니다. “당신의 부드러운 손길로 제 머리를 감싸주시고, 제 지성, 제 마음, 제 감각들을 지켜주소서. 오, 아름다움의 여왕이신 마리아!” 마리아께서 영화 예술에 영감을 불어넣어주시고, 영화 사도직이 목표를 향하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사도직으로 선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2. 솔직함¹

[...] 여러분은 아름다운 성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성 바오로상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사도의 모후상이니까?

성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성상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노래하는 것, 좋은 책을 만드는 것과 놀이를 하는 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성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안에 석고를 넣는 틀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액체로 된 재료를 넣으면 마르면서 성상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오로인을 어떻게 만듭니까? 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우리를 넣어야 하므로 각자 액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뜻을 포기하고 온순하게 장상의 손에 맡겨 형태를 갖추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주십시오. 저는 제 뜻을 당신 손에 맡겨 바올리노Paolino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오로적 삶으로 형성되도록 맡겨야 합니다. 어느 강론가가 영신수련 동안 종종 이런 말을 되풀이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신수련을 제대로 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의 의지를 제 손에 맡기십시오. ... 그렇지 않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형태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고해성사를 잘 해야 하고,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만일 그대를 인쇄소로 보낸다면 배우기를 청하십시오. 학

1. 리스본에서 성바오로수도회를 대상으로 행한 강론이다. 과선이 있는 종이 1장(22x28)에 타자로 되어 있다. 우리는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이 말씀이 딸들의 양성에도 마찬가지로 유익하기 때문에, 성바오로딸수도회의 모음집에 포함시킨다. 연이은 타자원고도 있다. 시작부분이 빠져 있다. 타자원고에는 1956년 12월로 연대가 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스페찰레 신부(don Speciale)의 연대기에 의하면,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는 브라질에서 돌아오시는 길인 1955년 12월 11-12일에는 리스본에 머무셨다(연대기 1955, p. 1918). 아마 1956년이라는 연대는 오타일 것이다. 그러므로 1955년 중에서 12월 11일과 12일로 날짜를 정하여 위치를 정했다.

교에서는 주의사항과 교정을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배우십시오.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가장 고차원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배워야 합니다.

두 명의 성인을 만났습니다. 한 명의 영리한 소년과 한 분의 사제입니다. 그 젊은이는 성소에 관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왔고, 그 사제는 그가 교리상식에 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가정에서 순종적인지, 발에서 일을 잘 하는지 그의 행동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 젊은이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사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자 그 사제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좋은 소질이 있는 것 같네.” “만일 제게 좋은 소질이 있다면, 저를 신부님 손에 맡기고 싶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사제다운 좋은 옷으로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두 명의 성인이 탄생했습니다.²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자신을 열어 인도하도록 맡기며, 마땅히 말씀드려야 할 분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몸으로 수도회에 들어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영혼을 지니고 들어와 양성 보조자에게, 책임자에게 “당신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입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들어와야 할 사람이 있고, 몇 년 전부터 여기에 있지만, 아직도 실제적으로 수도회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은 다른 것입니다. 때때로 단순하게 금세 마음을 여는 젊은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 대신에 덮어버리고 또 ‘순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가?’라고 물으면 ‘아니요’라고 답하고, ‘공부하는 것 좋아하는가?’라고 물으면 ‘예’라고 하고, ‘이런 점에서 유혹을 받는가?’ 하면 ‘아닙니다.’ 하고 답하지만, 이러저러한 것을 덮고, 숨기고, 감추려 하면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만듭니다. 거짓을 말하는 이들은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전율할 만한 성소를 가졌던 것처럼 보였던 한

2.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여기서 돈 보스코와 도미니코 사비오를 암시하신 것이다.

젊은이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매일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를 모신다고 말했습니다만, 나중에 수도회에 입회했을 때 그는 아직 첫영성체를 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진지함, 솔직함을 지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장상들을 속일 뿐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결점을 지닌 것이 알려지면 …” 누군가 의사에게 가는 것은 건강하게 잘 지낸다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프다고 말하러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치료받고 낫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그대를 힘들게 하는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말하십시오. 곧 솔직한지, 진지한지 말하십시오. 그 젊은이처럼 말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를 잘라내시고 … 사제다운 옷을 … 만들어주십시오.” 지나치게 구체적인 것까지 말하는 아주 솔직함이 넘치는 지역이 있고, 그 대신에 모든 문을 닫아 걸어둔 …, 영혼이 폐쇄되고, 입을 다물어버리거나 만일 그에게 질문을 던지면 거짓을 말하는 … 지역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양성에 큰 장애가 되지만, 솔직함은 성공을 위한 큰 수단입니다. 젊은이는 기본적으로 장상들을 어떻게 신뢰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영적 지도를 곧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장상들은 교양을 갖춘 젊은이들로 양성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오로인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과 위선을 페스트처럼 혐오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가 솔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가슴속에 뱀을 숨기는 것은 그 뱀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뱀이 들어있다면, 그것을 찾아내어 죽이는 것이 낫습니다. 마에스트라와 함께 여러분 자신을 잘 개방하고, 마에스트라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십시오. 곧 공부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해야 하고, 가정의 [어려움] 등도 말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할 때 여러분은 초의 틀 안에 부여진 유연한 밀랍이 될 것입니다. 만일 아름다운 틀에 액체 석회를 붓는다면, 아름다운 성상이 완성되어

나올 것입니다. 부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이 솔직함의 은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진리이십니다. 진리에 가까이 있지 않는 자는 주님께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33. 마리아를 신뢰할 것¹

이 시기에 인도받아야 할 한 가지 생각은 모든 필요한 일에 대해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들에 대해 마리아에게 신뢰하며 마리아에게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곧 우리의 진보, 우리의 성화, 사도직, 성소 등에 대해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치유해야 할 병이 있을 때, 진보해야 할 것이 있을 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실현해야 할 어떤 기획이 있을 때 언제나 마리아에게 청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어진다고 자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병은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유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뜻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이기에, 많은 경우 큰 사명을 위해서 고통이 허락됩니다. ...영적이며 내적 은총을 위하여 언제나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우리는 악에서 벗어나고, 애덕과 청빈과 순결 등을 거스르는 아름답지 못한 생각들에서 해방됩니다. 나쁜 생각이 사라지도록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나쁜 생각을 떨쳐버리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마리아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성을 성화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특히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셨을 때 지극히 지고하신, 가장 높으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순간까지 성경에서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으신 [분

1. 리스본에서 행한 강론으로, 궤선이 있는 종이 1장(22x28)에, 유일하게 수동 타자기를 사용한 원고이다. 타자원고에는 1956년 12월로 연대가 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스페찰레 신부(don Speciale)의 연대기에 의하면,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는 브라질에서 돌아오시는 길인 1955년 12월 11-12일에 리스본에 머무셨다.(연대기 1955, p. 1918 참조) 아마도 1956년이라는 연대는 오타일 것이다. 그러므로 1955년 중에서 12월 11일과 12일로 날짜를 정하여 위치를 정하기로 했다.

이셨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교만과 사람들에 대한 집착, 지상 사물들에 대한 집착을 없애주시고, 우리 안에 신심, 선한 열망, 매일 진보하려는 거룩한 결심을 불어넣어주시도록 마리아에게 전구를 청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녀의 [마음이] 하느님의 것이듯 우리의 온 마음이 하느님의 것이 되게 해주시길 청해야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대화, 말씀을 성화시키는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혀로써 죄를 범합니까! 우리의 혀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불러드리기 위하여 언제나 잘 사용되도록 그분께 청해야 합니다. 혀로써 하느님을 찬미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며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마리아께서 우리에게 혀, 눈, 청각을 성화시키도록 해주시어 하느님께서 주신 우리의 존재가 모두 하느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행동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라는 시간이므로 끊임없이 이 순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환상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의 순간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이 순간에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자문해봅시다. 시간 안에 모든 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없이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믿음을 가지는 이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천국을 [허락하시기]에, 한순간에 십자가 위에 있던 죄수는 천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에 협력해야 하고, 예수님의 은덕을 신뢰해야 합니다. 덕이 없다면 우리는 약한 존재라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 아드님의 은덕으로 하느님 앞에 서리라 굳게 믿습니다.

신중하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죄의 용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 마리아께서는 모든 이를 위한 은총을 보유하고 계시면서 개인적인 발전을 위하여, 바오로 가족의 발전을 위하여 은총을 베푸십니다. 언제나 마리아에게 전구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살

아야 합니다. 많은 느낌을 키워주시고, 다른 여러 감정들은 동의하지 않으시며,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말하게 하시고, 말은 적게 하게 하시며 ... 그러므로 늘 마리아께서 우리를 인도해주시기를 빕니다. 오늘날 수도자들을 쇠신시키기 위하여 많은 일을 행하시므로 여러분은 쇠신되었습니다. 또 오로지 쇠신되기 위하여 여러분은 매일매일 여러분의 수도생활을 통찰해야 합니다. 이제 막 시작한 사도직 과제들 ... 여러분은 불평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다른 이들이 여러분을 따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매 순간 여러분의 의무를 잘 수행하면서 쇠신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면에 마리아께서 필요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는 가장 쇠신되신 분으로 모든 이들을 앞서 나아가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탄생 예고를 들으신 순간부터 예수님의 어머니요 인간들의 어머니가 되시는 당신의 사명을 완전히 이행하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모든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일치하는 모든 것을 윤택하십니다. 모든 것을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 없이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마리아와 함께 행하면서 늘 그분 마음에 드는 가장 사랑스러운 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955년(미국과 멕시코에서 행한)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강론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성 바오로의 딸들에게-1955」의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최종본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의 오리지널 말씀에서 인용한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강론 *Prediche del Primo Maestro riportate nelle sue parole originali*」(1955, Edizioni Paoline, Figlie di S. Paolo, Boston, Mass., U.S.A.)이다.

안드레아 다미노 신부의 「야코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문헌 목록 *Bibliografia di Don Giacomo Alberione*」에서는 이 소책자를 'Pr3'이라고 표기하였으며, 오리지널로 여기고 있다. 인쇄본에는 여러 강론의 연대나 장소가 누락되었다. 이 책에서는 문맥에서 추정 가능한 경우 각 목상의 하단에 날짜와 장소를 표기하였다. 일부 강론들은 자기磁氣 녹음테이프에서 옮겼다.

이 강론집을 수집한 동기에 관해서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창립자의 귀중한 말씀을 다른 수도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그러기에 편집을 담당할 이의 기준에 따라 수도자 대중을 대상으로 한 목상들을 선별하여 출판하게 된 것이다.

오리지널 출판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곧 미국에서 행한 열 차례의 강론, 멕시코에서 행한 여섯 차례의 강론, 이탈리아에서 행한 세 차례의 강론이다. 이 마지막 세 차례의 강론은 다른 곳에서 이미 출판되었기에 여기서는 생략되었다.

창립자께서는 몇 가지 주제를 특별히 강조하셨다. 우리의 성소를 사랑해야 합니다. ... “이토록 아름다운 성소 ...”(Ⅲ); 내적 삶의 사도직을 첫 번째 사도직으로 여겨야 합니다.(Ⅲ)

쇠신되어야 합니다. “젊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 왜냐하면 만일 그들의 심리학, 그들의 사고방식과 오늘날의 삶에서 맞게 되는 복합적인 모든 요소를 알지 못하면 사람들을 동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Ⅳ) 이름에 걸맞는 여성 사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느님으로 가득 차고, 복음의 가르침으로 충만하고, 은총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느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 그 어떠

한 희생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 모든 이가 성화되기를 바랍니다.(IV)

자신의 온 존재, 곧 지성과 의지와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해야 합니다.(IV) 특히 습관적으로 묵상하던 내용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곧 “마음에 담아둔 것”에 대해 양심성찰을 잘 해야 합니다.(VIII) 마리아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분의 내적 성성을 본받아야 하고, 출판을 통하여 세상에 예수님을 주어야 합니다.”(III) 바오로적 수도생활의 프로그램과 목표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프로그램과 목표는 오로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수단입니다.”(X)

I.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할 것

5

우리의 삶, 수도생활 역시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합니다. 그 천국이 가장 아름다운 천국일 때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때문에 머릿속에 늘 천국을 새겨야 하는 동시에 우리를 하느님께 일치시키려는 목표를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의 세계에서 하느님과 일치되기 위해 이 지상 삶에서 하느님께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바칩시다.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어머니 마리아님, 제 머리 위에 당신의 거룩한 손을 얹으시어 제 지성과 마음과 오관을 지키시어 죄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¹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성을 염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천국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천국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지극히 거룩한 성사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성체를 거룩하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성사에 대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체성사에는 눈에 보이는 빵만이 아니라, 그 빵의 축성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담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지성의 성화가 필요합니다. 지성의 성화는, 제일 먼저 거룩하지 않은 것과 살아있는 신앙으로 각인되지 않은 것을 정확히 시켜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Sine fide impossibile est placere Deo.”² 지상에서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고자 갈망하게 하는 신앙, 다시 말해서 사랑을 가져다주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갈

1. 바오로 가족 기도서 32쪽 참조. 알바의 인쇄 학교 학생들과 성바오로팔수도회는 1919년부터 매일 이 기도를 바쳤다.

2. 히브 11,6.

망하게 만듭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Cupio dissolvi et esse cum Christo.*”³ 거룩한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마음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온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기도의 정신과 신심정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께 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이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천국을 우리 염원의 중심으로 삼는 것, 주님을 우리 갈망의 중심으로 삼는 것, |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정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정화는 일할 때 지향을 정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고 사랑하게 만드는 부차적인 지향이 아니라, 장상들이나 자매들에게 존경받기를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열망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에서 사람들의 구미를 추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서에 표현되었듯이, 또 위풍당당한 작품인 「복음서에 드러난 마리아 *Maria nel Vangelo*」⁴에서 해석된 것처럼, 그리고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의 강론과 담화에서 언급된 것처럼 마음을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만함에서, 교만함에서, 지상 사물에 대한 집착에서 마음을 정화하는 것은 향기 나는 작은 비누와 같습니다. 모든 움직임을 하나님께로 향하기 위해서는 탐욕에서, 욕망에서 마음을 떼어놓아야 합니다. 충동적인 분노에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분노는 죄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면서 충동적인 감정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야심이 있을 수 있습

3. 필리 1,23.

4. Landucci P. C., *Maria nel Vangelo*, Edizioni Paoline, 로마, 1948 참조.

니다. “내가 첫째인데 나를 두 번째 자리에 앉혔어.” ... “나를 칭찬했어.” 또는 “나를 너무 지켜보고 있고, 나를 너무 따르는구먼.” 이러한 감정들과 열망들을 마음에서 비워야 합니다. 면학도 마찬가지로, 지혜를 [찾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혜는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한, 우리를 하나님께 일치시킵니다. 마리아가 지닌 지혜는 공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연구를 통한 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모든 지혜를 다하여 주의하는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루시퍼 또한 많은 지혜를 가졌지만,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성 보나벤투라는 계단 청소를 잘 할 줄 알던 수도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만일 그대가 보나벤투라 신부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대는 보나벤투라 신부보다 더 큰 천국에 있게 될 것입니다.” 지식은 그것이 만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만일 여러분이 아메리카 대륙 전체를 소유한다 해도 하나님을 모시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아메리카 대륙의 가난한 자들이 되리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가난한 자매 수도회 *Poverelle*”⁵와 관련이 있는 실제적인 가난뱅이들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을 차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 최고선을 소유하게 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가장 큰 열망과 더불어 천국을 원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그대는 왜 이러저러한 것을 하시오?’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나는 천국을 원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은 천국을 위해서

5.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으로 1869년 복자 루이지 마리아 팔라초로(Luigi Maria Palazzolo, 1827-1883) 신부가 창립한 가난한 자매 수도회(Congregazione delle Suore delle Poverelle)에 대한 언급이다.

입니다. 마음은 천국을 향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영성체에 대한 열망과 일치를 이루기 위한 노력으로 늘 예수님과 일치해 있을 때, 참회의 성사를 사랑하게 될 때,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방문하려는 바람을 가질 [때], 매일 예수님의 성심을 사랑하고 십자가에 일치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질 [때],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3분의 1의 마음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합니다. 이 ‘온tutto’ 마음은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수도생활은 ‘온전히tutto’에 있습니다. 결혼생활에서 한 피조물이 다른 피조물을 향한 사랑처럼 합법적인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녀는 첫 번째 계명을 실현합니다. “... 온 마음을 다하여.” 수녀를 구별해 주는 것은 머릿수건이 아니라, 큰 날개처럼 보이는 머릿수건cappellone⁶ 쓰는 것이 아니라 “온 정신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⁷입니다. [그러므로] 신심정신은 진정으로 마음을 성화하는 것이요, 예수님처럼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한없이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신 성심을 보십시오.”⁸ 오랜 세월 프로파간다를 행한 후 혹시 다리가 휘어 때때로 특별치료와 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사도직에 대한 사랑이 아니면 그들에게 평화와 위로를

6.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사랑의 말회(Figlie della carità, 또는 애덕의 딸 수녀회)를 암시한다. 당시 그들의 전형적인 머릿수건을 카펠로네(Cappellone)라고 했다. 이 수녀회는 1633년 성 빈첸시오 드 폴(1581-1660)과 성녀 루이사 데 마릴락(Luisa de' Marillac, 1591-1660)이 함께 창립하였다.

7. 마르 12,30 참조: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8. 성심께 대한 신심과 보속의 중요성을 강조한 여사도요, 방문수도회 소속(visitandina)인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Margherita Maria Alacoque, 1647-1690)에게 내리신 성심의 계시.

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심은 성령의 활동으로 마리아의 태중에서 강생하셨고, 지상에서 사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자, 그리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수도생활에 입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해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사도직을 합니다. 좋은 본보기를 보여줄 때 | 모범의 사도직을 합니다. 출판 (관련) 사도직을 8 할 때 출판 사도직을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하느님 사랑의 표지,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표지를 지니고 있지만, 영혼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며 고통을 받는 순간에 이르러 그 사랑이 현실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사도직은 사랑의 삶이요, 그 사도직은 사랑의 꽃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의 사도직을 위해 사는 것이기에 하느님의 사랑을 살아야 합니다.

늘 생각에서 출발해야 하고, 그다음으로 마음에 도달해야 하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모든 것에 대해 잘 생각해야 하고, 모든 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라야 하고, 모든 것에 대해 선으로 말해야 하며 서로를 위하여 모두에게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수도원의 기쁨과 수도원 자체의 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삶을 공동생활에 적용시켜야 하고, 세 가지 서약 내용에서 성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삶을 회헌에 적용시킴으로써 성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공동생활은 세 가지 점에서 완성됩니다. 수도원을 사랑해야 하고, 수도원을 구성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미국에 있는 수도회를 사랑해야 하고, 미국 수도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수도회 전체를 사랑해야 하고, 특히 총본부를 사랑해야

하며, 총본부의 최고 책임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세 가지 사항 곧 자신이 속한 수도원, 미국에 있는 수도원, 그리고 전체 수도회를 느껴야 합니다. 이러한 삼중의 사랑이 있을 때 이 수도원 또는 저 수도원을 선호하고, 이 나라 또는 저 나라에서 살고자 하거나, 이 직책 또는 저 직책을 맡고 싶은 약간의 상반된 감정, 일종의 쓸데없는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에 자리 잡은 수도회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수도생활에 대한 바른 개념을 지닙시다. 한층 더 그리고 오로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신심, 기도^{preghiera}, 기도 정신, 기원^{orazione}이 우선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행동보다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 도출됩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과 다른 이들을 사랑합니다. 모두를 주님의 품안에서 사랑합니다.”

- 9 “그렇지만 나는 첫째요, 둘째입니다.” | 하늘나라에서 첫째는 자신을 더 낮추는 사람입니다. 더욱 겸손해지기 위해 식탁 끝 아주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겸손할 수 있고, 맨 끝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교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전혀 자리를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교만이 이루어집니다.

때때로 마음의 자리에 혹시 잡초가 무성하지 않은지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양심성찰이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물론 피상적으로 하는 양심성찰이 아닙니다. 우리의 덕을 드러내 보이고 다른 이들을 경멸하는 양심성찰이 아니라, 제대로 된 양심성찰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활 동안 자만하던 사람들을 보셨을 때, 세리와 바리사이에 관한 비유와 기도하는 법을 들려주셨습니다. 세리는 성전 구석에 서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였고, [그 대신에] 바리사이는 앞에 서서 가슴

을 편 채, 자화자찬에 빠졌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라도 같지 않으니,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썸을 마친 다음, 우리가 모든 이보다 더 우월하다고 확신합니다. 그 대신에 참된 겸손이 있을 때, 썸을 마친 다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총으로 내가 하느님 앞에 서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사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다섯 탈렌트에 대한 썸을 요청하실 때, 다른 사람은 충실히 이행하여 자신의 두 탈렌트에 다른 두 탈렌트를 더 벌었고, 나는 교만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에 상응하지 못하여 다섯 탈렌트를 가지고 겨우 네 탈렌트를 벌었다면 나는 하느님께 빛진 채로 나서게 되고, 다른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빛을 갠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겸손, 참된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합시다.

9. 루카 18,9-14 참조.

II. 온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할 것

내적 삶은 세 번째로 우리의 의지를 성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째로 근본적인 계명의 세 번째 부분을 실천에 옮기기를 요청받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¹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온 힘을 다하는 것인데 이는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하고, 지적 힘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 10 처음에는 수도생활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녀 젊은이들을 그제 모으려는 것만 아니라 수도생활을 위해서 모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 바오로께 바치는 코린치나’를 작성하였는데, [각 항목마다] 수도생활을 [잘] 살기 위하여, 은총에 부합하도록 양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수도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기 위한 은총을 얻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생활은 성화되기 위하여 손을 내미는 영혼들의 결속입니다. 손을 내민다는 것은 자매들의 성성을 열망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암벽등반으로 산을 오르는 등반가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프를 감고 앞서 가는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만일 한 사람이 넘어지면 같은 로프로 연결된 다른 모든 사람이 그를 지탱해주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처럼 [모두가]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좋은 뜻이 부족한 사람은 그와 비슷한 사람과 연결되는 일이 생깁니다. 좋은 뜻이 부족한 사람은 비슷한 사람들을 금세 발견하여 서로 알고 지내게 되고, 우정을 맺으며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도와줍니다. 무엇을 위하여 서로 도와줍니까? 넘어지기

1. 마르 12,30 참조.

위해서입니다. 한 장의 벽돌로 인해 모든 벽돌이 땅으로 쏟아지는 벽돌게임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위험을 보고 곧바로 깨닫게 됩니다. 은총을 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래 전 수도회 초창기에 제가 받은 충고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의사가 필요할 때 가장 뛰어난 의사를 찾아야 하고, 변호사가 필요할 때 가장 우수한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고, 기계가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기계를 선택해야 하고, 은행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우수한 은행을 선택해야 합니다. 언제나 최상을 선택하십시오. 영성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착실하게 행하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신체적인 힘을 하느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우리 이마에 땀을 흘림으로써 빵을 얻어야 합니다. 수도생활을 휴식처럼 또는 다른 이들에게 빌붙어 살아가는 삶으로 상상하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11
을 먹을 수 있으리라.”² 게으름 속에서는 그 누구도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황 [비오 12세] 성하게서 반포하신 교황령 「그리스도의 신부 *Sponsa Christi*」³를 보십시오. 교황께서는 네 차례에 걸쳐 모든 수녀들이 일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관상해야 하고, 하루 종일 성당에서 보내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수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정오에도 관상하십시오! 그런데 관상 대신에 입에 무엇인가 넣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관상은 더할 나위 없이 귀중한 영적 작업이지만, 우리가 먹어야 할 필요가 있는 육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관상만 하는 것은 우리의 이마에 땀을 흘리며 빵을 얻어야 하는 근본적인 의무를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화하는 것을 경시하는 것입니다. 성화한다는 그 말은 하느님

2. 창세 3,19 참조.

3. “여러 가지 묵상” n. 10의 각주 23 참조.

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분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께서 가장 활동적인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일하셨습니다. 젊은 날에 그분은 고되고 비천한 노동을 하였고, 사도직 활동으로 일하셨으며, 정말 힘든 모든 방식으로 일하시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야 하는 긴 여행으로 고생 하였고, 휴식하실 때는 예를 들어 우물가에 앉으시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으러 올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녀에게 말씀하고자 하였고, 몇 마디 말씀을 건네심은 그녀의 영혼에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였으며, 결국 그녀를 회개시키셨습니다.

우리는 노동에 아주 큰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일은 결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노동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프로파간다와 기술 사도직은, 예외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나, 또는 정말 심하게 아플 때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시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일을 할 힘이 없으나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일을 바꾸면서 휴식을 누립니까!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도록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하라는 것은, 12 리한 열정이 결여되면 성바로말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우리 아버지 성 바오로의 본보기는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고, 얼마나 많은 곳에 머무셨으며, 낮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였고, 빵을 벌기 위하여 밤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⁴ 그분은 당신의 노동을 자랑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기 때

4. 1테살 2,9 참조.

문에, 여러분은 나를 챙겨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권한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⁵

그런데 과장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힘든 일을 계속해서 몇 주간을 쉬지 않고 [한다면]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스스로 돌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오에 먹기 위해 일을 멈추고 그다음에는 다시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다음날 다시 일하기 위하여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하듯이 언제나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우리 육신을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육신이 노동에 길들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분원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만일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막중한 일, 허드렛일이 있다면, 그 일은 노동에 익숙해진 자매들, 일을 많이 한 자매들에게 돌아가게 마련이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도 [노동에] 길들여져야 합니다. 온갖 잔병치레를 다 들어주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든 이유를 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일할 수 있는 건강상태란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아닌 게 아닙니까? 만일 모든 작은 병들이 우리의 노동을 막았다면 ...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성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적성에 따라 공동생활에 기여하도록 각자에게 책임을 맡겨야 합니다.

지원자들을 받아들일 때 건강상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미사를 집전하기 전에 먼저 신학생들을 방문하라고 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교역자들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3세가 된 한 장군을 사제로 서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위안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아주 힘든 일로 여겨지는 고해사제가 되기를 열망했기 때문입니다.

5. 1코린 9,18 참조.

정신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 또 건강과 힘을 [잘] 사용할 의지가 필요합니다. 수도원들은 대부분 할 일이 13 있으므로 | 부지런한 사람은 정신적으로 일을 하고 또 사도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님께 육신의 모든 힘을 [드려야 하고], 동시에 주님을 위해 몇 년을 더 일할 수 있기 위하여 힘을 비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오래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기 위하여 고통을 겪어야 하고, 죽지 않아야 하며, 또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느님께 인도하기 위해 훨씬 더 오래 머물도록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힘을 다하여 [일한다는 것은] 모든 지성을 다하여, 다시 말해서 지성을 주님께 대한 봉사에 바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도직은 발전해야 합니다. 늘 같은 방식으로 사도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더 나은 수단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선교와 같은 사도직 조직과 적합한 서적 출간과 출판 동향을 선택할 줄 알기 위해 더 훌륭한 자매들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도직 활동입니다! 일에는 기도와 요리, 재봉일과 청소가 포함되며, 마리아가 행하신 모든 일이 포함됩니다.

영적 작업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노동은 영적 노동입니다. 일부 자매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목표에 도달했어! 나는 종신서원을 했으니 나를 내보내기가 쉽지 않을 거야! 우리 또한 사제로서 일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은 미사를 집전하는 날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수도자로서 일하지만, 그 일은 종신서원을 하는 날 시작하고, 성화를 위한 모든 은총을 얻어 누리는 단계에 도달할 때입니다. 처음에 준비를 위한 은총, 수도자다운 영혼을 양성하기 위한 은총이 있었습니다. 종신서원과 더불어 좋은 길,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들어섰지만,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으며, 내적, 지적, 육체적 노동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필

요가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자신을 지나치게 아낀다면 훨씬 쉽게 병에 노출됩니다. 육신은 단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황 [비오 12세]께서 산책하실 때는 그분의 연세와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 어느 정도 속도를 내서 산책하십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봐야 할 때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활용해서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14 우리의 모든 힘을 하느님께 드립시다. 여러분은 성 바오로의 딸들입니다. 누가 그분보다 더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일 laboravi'⁶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곧 고되게 일하는 것^{fatigare}과 고통을 겪는 것^{soffrire}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을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이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분에 관해 말한 것은 양심의 의무를 통해서였습니다. 마치 사제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오. ... 내가 그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시오. ...라고 말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신에게 맡기셨다고 언급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어떤 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 하느님의 지시인 것과 같습니다. 어느 때 원장 수녀는, 이 직무가 나에게 맡겨졌으므로 나는 이를 완수해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가 그 일을 관장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양심의 의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에 대해 그 누구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마음으로, 기도의 지향으로 인도합니다. 제 편에서 저는 여러분의 모든 필요성과 염원을 성작 안에 담습니다만,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야망을 품어야 합니다. 곧 참으로 바울리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이룩한

6. 1코린 15,10.

일 뿐만 아니라, 총본부에 대한 도움과 다른 나라의 수도원들을 위해 힘썼던 도움으로 얼마나 많은 공덕을 쌓게 되었습니까! 가능성에 따라 늘 앞으로 나아가며,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도의 모후 [성당] 건립에 그토록 기여를 했다면, 성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성소자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멋진 분원을⁷ 짓도록 노력한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참새들(성소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이 될 때 오직 한 가지만 보내시지 않고, 분원을 마련해주시는 한편 거주할 사람들, 우리가 '동지를 틀 참새들'이라고 말하는 식구들을 준비해줍니다.

Ⅲ. 우리의 성소

‘하느님께 감사[Deo gratias!]'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일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프리마 마에스트라께서 여러분 사이에 함께하시는 이 체류기간입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 안에서 여러분은 이탈리아를 보게 되고, 그분께서 | 수도생활 15의 원칙을 통하여, 당신의 이상을 통하여, 당신의 사도직을 통하여, 그리고 무엇보다 회헌 첫 조항을 실천해야 할 책임을 통하여 수도회를 보게 됩니다. 회헌 첫 조항의 내용은 하느님의 영광을 얻도록 노력하고, 각 회원의 성화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¹

감사드려야 할 동기는 수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이유를 기억합시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고, 이 수도회로 이끌어주셨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한 세례성사의 은총 다음으로, 성소의 은총은 삶의 기본적인 은총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성소, 우리를 마리아의 직무와 똑같은 직무에 참여하게 하는 성소에 대한 것일 때 더욱 근본적인 은총이 됩니다. 마리아께서는 인류의 공동구원자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정확하게 이런 것입니다. 곧 오늘날 마리아를 사람들에게 대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변합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가 지니는 마리아의 이미지가 바로 그분께서 가지셨던 사명에서, 그분의 직무에서 복되신 동정녀를 대변합니다. 곧 예수님을 세상에 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당신 손에 복음말씀이 담긴 두루마리를 들고 계시며, 당신의

7. 1956년 6월 15일에 개원식을 한 보스턴 분원을 암시하십니다. 이 분원은 더비(Derby) 공동체를 수용하였고, 양성소와 여러 사도직 부서를 갖춘 관구 본부가 되었다. 「우리의 지도 *Il nostro atlante*, 성바오로딸수도회, 보스턴, p. 363 참조.

1. 「성바오로딸수도회의 회헌」 1953년판 참조.

오른손으로 가르치는 이의 태도를 나타내십니다. 초기 교회의 전통에서 오른 손의 두 손가락을 올리는 것은 축복을 나타낸다기보다 자신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설명하는 스승의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고대의 학자들 곁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것은 가르치는 스승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리아를 대변하기 위하여, 마리아를 본받기 위하여 세상에서 무엇을 완수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내적 성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출판을 통하여, 다시 말해서 정기간행물, 서적,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을 통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오,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작은 자들이고, 사명은 얼마나 크고 위대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동요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열망을 통해서도 1밀리미터도 그분의 크기에 도달할 수 없기에, 우리는 지나치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사명과 유사한 사명 완수를 위하여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내적
16 성화입니다. | 마리아께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는 내면으로 침잠하시며 기도 안에서 모든 순간에 하느님의 뜻을 성취하는 가운데, 섬세한 양심으로 하느님께 대한 사랑 안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총을 세상에 안겨주셨습니다. 사실 첫 번째 사도직은 늘 기도로 이끌어주고, 좋은 모범을 주고, 고통을 원하도록 이끌어주는 내적 삶의 사도직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이러한 기도의 사명 안에서 세상 구원의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경이로운 성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작업은 언제나 내적 작업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점, 집착, 내적 정확을 보완하는 개선 작업입니다. 내적 정확란, 모든 교만에서, 과도하게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현세 생활에 관한 것들에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하느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일치하려는 경향,

마리아께 한층 더 일치하고, 마리아의 친밀함 안에 한층 깊이 들어가려는 경향을 [선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닌 아름다운 성소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성소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의 성소는 일반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곧 더욱 완전한 삶을 향한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수없이 많은 젊은 여성들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본당에, 지역에 그리고 다양한 국가의 젊은 여성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당신을 위해 창조하시어 당신 가까이에 살도록 당신의 꽃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물러나 온전히 하느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소는 하느님께서 특별한 봉사로 부르신 사랑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고, 하느님께서 영원에서부터 생각하시어 원하셨고 선택하신 영혼들이 되게 하는 선택입니다. 부르심은 하느님 편의 지혜의 행위요, 특별한 사랑의 행위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성소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온 정신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²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on tutto*’이란 지성의 동정, 마음의 동정, 육신의 동정, 정신의 동정, 의지의 동정 등 완전한 동정을 구축하여 선을 악과 혼합하지 않고, 하느님에게서 오는 말씀을 불평하는 말과 섞지 않으며, 선을 | 악과 섞지 않게 됩니다.

17

주님께서서는 온 정신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도록 영혼들을 부르십니다. 이러한 영혼들은 세상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생각, 하느님께 대한 봉사에 관련하여 새로 시작한 삶, 하느님 안에 정신을 집중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다른 길에 대해 더는 연구할 필요가 없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한 길을 잘 따르고 있는지, 천국

2. 마르 12,30 참조.

에 머리를 두기 위하여 마지막까지 전적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잘 보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로 여러분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도시가 아니라,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천상 예루살렘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수도생활은 여러분의 조국이요, 여러분의 상속이요, 여러분의 선인 천국의 아름다운 도시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 정신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고, 오직 천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감각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교만, 우리의 안락 등을 부추기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온 마음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무런 유보 없이 송두리째 모두 드려야 합니다! 하느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손을 떼는 일 없이 영원히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수도서원은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서약으로서, 이러한 사랑 안에서 매일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수도생활은 일반적으로 의지의 동정입니다. 훌륭한 행동을 통하여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좋은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행동은 수도생활 준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일러주고 확립시킨 내용의 실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무엇을 더 열망해야 합니까? 어떤 음식으로 여러분을 성숙시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Cibus meus est ut faciam voluntatem eius qui misit me.*”³ 이와 같이 수도자의 인격[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은 이곳 또는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단순함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소는 첫째요 으뜸가는 계명을 완수하라는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온

3. 요한 4,34 참조.

정신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 하느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구나 여러분의 성소는 다른 수도자들과 구별하는 아름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 회헌의 두 번째 조항을 구성하는 사도직, 18 사랑과 자비의 실현을 담고 있는 사도직입니다. 여러분은 수도원에 들어오는 사람의 눈에 쉽게 띄도록 여러분의 출판물들을 전시하는 작은 진열대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의 실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느님께서서는 사람들의 연인이십니다. 여러분은 다른 수녀들처럼 남녀 어린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사랑을 실천한다든가, 병원에서 사랑의 활동을 펼친다든가, 일반적인 자선활동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사랑은 훨씬 우아합니다. 곧 진리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지성을 향한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 정신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양육하는 사람은 사랑을 행하는 것이지만, 인간은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영혼을 양육하는 사람이 훨씬 우아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아한 만큼 육신의 영혼도 훨씬 탁월합니다. 누군가 ‘그런데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도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자연적인 진리에 대해 인간 지성을 양육하는 것도 사랑을 행하는 것이지만, 영혼에게 주는 음식이 좋은 것인 만큼, 사랑은 더 우아하고 값진 것이 됩니다. 학교에서 문법, 산수, 기하학 등을 가르친다면, 여러분은 영혼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다른 삶을 위하여 유익한 것,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진리를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천문학이나 지리학을 가르치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길을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하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지리와 산수, 모든 다른 자연 학문들을 가르치

는 일을 일반 학교의 교사들에게 넘기시고, 당신께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확실한 학문을 남겨두셨습니다. 여기서 사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학문입니다. 만일 일반 학교에서 엔지니어와 교수 등을 양성한다면, 복음의 학교에서는 천국의 복자들, 성인들을 만들며, 이 아래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위의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영혼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학교에서 일반 교사들이 가르치는 차원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가장 높은 차원처럼 그렇게 높은 것입니다.

19 | 그분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곧 신적 학문, 구원에 대한 학문입니다. 그러나 ‘아, 나는 공부하지 않았어!’라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리를 잘 배웠을 때, 복음을 잘 알 때, 교회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을 때, 구원을 가져다주는 진리를 알고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 참된 스승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유보하신 학문에 대한 스승들이 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께서는 진리를 가르치기를 바라시며 다른 이들을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가 들은 것을 전하여라.”⁴ 하시며 당신의 제자들을 온 세상에 파견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을 통한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르침은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자연 학문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무한히 위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성소에 대한 감사는 훨씬 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은덕을 느껴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야 할 의무를 느껴야 하며, 성소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의미는 “그분께서 당신 중의 비천함을 굽

4. 마태 28,19-20 참조.

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분, 곧 하느님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⁵라고 하신 마리아처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이 보잘 것 없음을 아시기에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큰일을 이루셨으며,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따라서 성소에 대해 감사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까? 그저 한 마디 말로써가 아니라, 삶이 감사여야 합니다. 곧 바오로적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느님께 감사Deo gratias!’라는 표현은 우리가 말씀드려야 하는 내용으로서, 우리 아버지이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에서 나오는 만큼 공덕이 크겠지만, 주님께서서는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이 바올리나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바올리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올리나(바오로인)는 무엇보다 먼저 회헌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헌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며, 모든 지침을 받고, 모든 종합적인 가르침을 받고, 수도회에 이어져 오는 관습, 기도방법을 취하며, [그리하여] 수도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수도회에 긴밀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
20 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하며, 불필요하고 마른 가지는 잘라서 불에 태울 수 있습니다. 수도회에 긴밀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수도회는 하느님께서 원하신 대로 형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원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오로적 정신을 더욱 전적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더 거룩하고 더 행복할 것입니다. 일단 어떤 삶을 받아들였다면 오로지 그 삶을 잘 삶으로써, 그리고 가능한한 최선을 다해 잘 살아감으로써 성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도회와 생각이 같아야 하고, 수도회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해야 하고, 수도회의 활동을 성취해야 하고, 한층 더 성 바오로의 정신 안에

5. 루카 1,48-49 참조.

서, 천상 스승의 정신 안에서, 그리고 사도의 모후의 정신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올리나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바오로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큰 갈망을 지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도회의 정신입니다. 또 이러한 갈망을 일으켜주는 모든 좋은 말씀, 모든 가르침, 모든 제안이 보화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작은 일들로 엮어지기에, 모든 것을 보화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시간이 짧은 초 단위로 구성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삶도 바올리나의 삶을 함께 형성하는 모든 작은 일들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섬세함으로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눈길을 늘 하느님께 향하고, 귀는 늘 들을 준비를 갖추며, 마음은 늘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손은 늘 기쁘게 일할 자세를 갖추며, 사도의 모후 마리아의 눈길 아래 그분을 위하여 일하며, 수도회가 관심을 가지는 일에 한층 더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사도의 모후 성당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분원 건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수도원 정원에는 진정한 장미와 제비꽃과 백합이 꽃을 피워야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영혼들을 비추어주셔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빛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비추어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고, 성소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고, 성소를 살아야 하고, 한층 더 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21 삶이 끝나게 될 장소인 천국을 위한 확실한 길입니다. | 마지막으로 입을 벌려 숨을 들이쉬며 그곳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순간 다시금 그곳 천국에서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 하늘에서 마리아와 함께 마니피캇을 부르기 위해 입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한층 더 큰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본보기를 바라보지 말고, 항상 좋은 본보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으로

바오로적 삶을 사는 사람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100퍼센트가 아니라 90퍼센트, 80퍼센트, 10퍼센트를 살 수 있고, 바오로적 삶과 반대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결심을 하는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결심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상을 받게 됩니다.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토론의 여지 없이 과장하지 않고 관대하게 인내하는 사람에게 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한편 이미 다른 자매들이 기다리고 있고, 누리고 있는 천국에 바오로 가족이 재건되고, 거기에서 [여러분도] 영원히 행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성소, 하느님 부르심의 역사요,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소에 부응하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바오로 가족이 영원히,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충만한 지복직관 안에, 천상 스승 주변에, 성 바오로와 사도의 모후와 함께 세워지는 천국에 입장하게 [될 것입니다.]

IV. 성녀 테클라

성 바오로의 가장 충실한 제자로 총애를 받은 성녀 테클라에¹ 관하여 우리는 세 가지 신심행위, 완수해야 할 세 가지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심행위는 성녀의 덕성과 하느님께 받은 선물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녀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아주 거룩한 모범을 본받는 것이요, 세 번째는 성녀께서 성 바오로 사도의 가장 충실한 제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성 바오로의 제자가 되도록 신앙과 더불어 성녀께 전구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녀의 덕성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녀 테클라의 덕성은 특히 두 가지로, 곧 정결의 덕과 인내의 덕입니다. 성녀 테클라께서는 동정이셨는데 그것은 당신의 백합이 박해를 감내할 정도로 순결한 상
22 태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선망되는 높은 가치를 지닌 동정성이 있지만, 동정성이 투쟁과 아주 큰 희생을 치르는 가운데 지켜질 때 그 백합은 하얀 색으로뿐 아니라 붉은 색으로도 표시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순결을 보존하기 위하여 감내하는 고통과 희생의 백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봉쇄수도원 안에서, 순수하게 관상생활 안에서 동정을 유지하는 것은 큰 가치로서, 이는 신적 신랑인 하느님의 어린양께서 동정녀의 화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 사이에서 동정을 지킨다는 것은, 또 세상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 사도직 수행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접촉 속

1. 테클라(1세기)는 성 바오로를 통해 개종하였다. 성녀 테클라의 삶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는 아주 적다. 실존인물이었음은 의심할 여지 없는 일로서, 고대 순교학과 각 시대의 기념비적인 작품들이 이를 입증한다. 셀레우키아에서 시작된 공경 사상은 동양뿐 아니라 서양까지 보급되었다. 성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흐리게 하는 것은 2세기 말경 소아시아의 사제가 지은 위경 「바오로와 테클라 행전 *Acta Pauli et Theclae*」이다.

에서 동정을 지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높은 가치를 지닌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나 연극에서 통제할 줄 아는 것, 라디오와 라디오 방송의 활용을 통제할 줄 아는 것, 또한 텔레비전 사용을 통제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이전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렸듯이 독서에서 통제할 줄 아는 것은 새로운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봉쇄수도원의 동정녀들이 알 수 없는 가치입니다.

게다가 세상과 이루는 접촉들에서, 특히 특정한 환경에서 백합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이곳은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고, 다른 곳에서는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아주 위험스러우며, 악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동정성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더욱 잘 보존됩니다. 또한 더욱 순수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됩니다.

성녀 테클라는 맑고 깨끗한, 자신의 순백을 보존하기 위하여 순교를 견디어냈습니다. 현실보다 훨씬 더 부패한 이교도 세상에서 살아갔으며, 오늘날 직면하게 되는 상황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교도적인 생각에 의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초래됐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녀의 순결을 찬양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부로 남기를 원하는 성녀의 항구함을 경탄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 성녀의 인내를 찬양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감내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유래하는 표현이며 우리가 성무일도서에서 바치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 “주님, 동
23 정녀로 순교한 성녀 아가타는 순교의 공과 정결의 덕으로 항상 당신 마음에 들었사오니, 그의 간구를 들으시어 저희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소서.”² 성녀 테클라는 그 항구함에 있어서 그리고 아주 젊은 시절 자신의 생명과 자신이 지니게 될 재산을 송두리째 바친 성녀 아녜스에³

2. 「성무일도서」, 성녀 아가타 기념, 2월 5일, 본기도 참조.

견줄 만큼 온전히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성 암브로시오는 성녀에 대해 말씀하시길, 그녀는 사형집행인조차 어디를 타격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작았지만, 성령을 입었기 때문에 이미 순교에 대한 준비를 갖추었습니다.⁴

성령을 입은 영혼들은 결코 인간적인 동기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내적인 사랑을 지니고 있으면서 하느님을 위해 완전하고 관대하게 투신합니다. 그들의 지성에는 지상사물을 위해, 찬양받기 위해, 또는 본성적인 만족을 위해 무엇인가 하려는 생각이 끼어들지 않습니다. 성 바오로께서 말씀하시듯 그들은 예수님께서 차지하신 사람들입니다.⁵ 예수님께 사로잡힌 영혼들, 성령을 입은 영혼들은 묵상에서, 예수님과 통교에서, 그리고 영성체에서뿐 아니라 성체방문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때로시키고 정복하셨음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라며,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완덕과 성성의 길을 가르쳐주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들은 특별한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신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들어 높여집니다. 그 영혼들은 예수님에 의해 그리고 성령에 의해 붙잡히고 은총을 입었다고 느끼며, 한층 높은 완덕을 지향하게 됩니다. 그들은 수행해야 하는 규범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특정한 움직임과 특정한 규범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성체방문을 지정된 세 부분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는 이미 하느님과 깊은 일치에 이르면 예수님과 밀접한 친교 안에서 흠숭의 모든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때때로 예수님과 통교를 이루지 않으므로 성체방문

을 하지 않습니다. 성체방문은 예수님과 통교를 이룰 때 시작됩니다. 성체방문을 구성하는 것은 [한 시간] 그 자체가 아니라 | 예수님과 긴 24 밀한 소통에 사용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영혼도 멈추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공동 규칙을 통해서만 통과하시지 않습니다. 7성사가 있지만, 성령께서는 당신 은총을 전달하시는 방법을 그 일곱 개의 물줄기에 고정시키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자유로운 분이시므로 우리도 작은 자가 되어 빛을 비추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 청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들이 완덕을 지향하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영적 작업을 바라지 않아 뒤로 물러서고 마는 영혼들을 때때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들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의 활동을 존중하고, 그 활동을 잘 알아 그분의 역사하심을 따르고, 선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을 택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녀 테클라는 그러한 영혼들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이나 칼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성녀께서 고독한 삶을 사셨다고 보여지는 시기에는 성령과 훨씬 더 긴밀하게 소통하셨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이 성녀를 찬양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섬세한 양심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용기와 인내라는 점에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을 겪어야 할 무엇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견디어야 할 용기와 견디어야 할 인내를 찬양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영혼을 위대한 성성으로 이끄시어 십자가를 제시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의 표지입니다. 인내로써 짊어지는 십자가는 하느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표지입니다. 영혼들은 희생을 통하여 완전해집니다. 예수님께 속하는 영혼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영혼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욕망, 그

3. 성녀 아네스는 로마 귀족 가문의 어린 소녀로서 304년경,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 때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이유로 겨우 13세의 나이에 참수되었다.

4. 「성무일도독서」 5권, 1월 21일, 밤기도 II에 나오는 성 암브로시오의 “동정녀에 관하여”에서 인용한 것이다.

5. 필리 3,12 참조.

들의 뜻을 못 박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하여 지상에 속한 모든 것, 인간적인 것을 못 박는 영혼들, 특히 하느님 뜻에 전적으로 예속되는 것이 어려운 자신들의 뜻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입니다.

그다음으로 성녀 테클라께 기도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사도직 정신을 청하면서 기도드려야 합니다. 성녀는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셨습니다. 성녀 테클라께 잠심*raccoglimento*(역주: 잠심, 침잠, 묵상, 정신집중 등으로 번역 가능하지만, 본래 뜻은 '묵상의 이삭줍기', 곧 잠심 중에 묵상거리를 모으는 것)의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성녀는 하느님과 일치를 지속하기 위하여 고독할 줄 알고 결별할 줄 아셨습니
25 다. | 성녀는 사회적인 의무에 충실했던 반면, 하느님과 소통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독의 장소를 찾을 줄도 알았습니다. 잠심의 정신을 청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성 바오로께 대한 생생하고 열렬한 사랑을 성녀 테클라께 청해야 합니다. 성녀 테클라는 사도께 아주 온순하였으며, 모든 일에서 사도를 따랐습니다. 성 바오로께서 성녀에게 제시하신 가장 완전한 길에서도 사도를 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충실했을 뿐 아니라, 영원히 충실한 천상 신랑을 얻기 위하여 지상의 신랑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 바오로의 생애를 잘 읽고, 그분의 서간들을 묵상하고, 그분의 보호에 신뢰를 둘 수 있는 은총을 테클라 성녀께 청해야 합니다. 성녀는 성 바오로의 참된 모델이 되는 딸로서, 어떤 면에서 역사와 전승에 의해 우리가 [이해한] 바에 따라 성바오로딸수도회의 가족 형태를 예고 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회헌에 따라 성 바오로의 참된 딸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녀 테클라께서는 하느님의 비추임을 받아 많은 연구를 하신 분이기에, 이러한 면에서도 우리에게 모델이 되십니다. 곧 그리스도교를 깊이 아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방대한 종교 문화를 얻기 위해 교리를 연구하셨던 것입니다. 프로파간다를 할 때 서적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서적이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책 전체를 읽을 수 없거나 전체적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없다면 각 페이지의 내용을 숙지할 것이 아니라 소개 글에서, 목차에서 또는 서평에서 요약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프로파간다에서 한층 지적 수준에 도달해야 하고, 가능하면 단체선교에서 그래야 합니다. 아는 것에 큰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식 면에서 진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서히 퇴보할 것입니다. 마치 30년 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사들처럼 뒤쳐질 것입니다. 오늘날은 의술이 많이 발전했으므로 아무도 뒤쳐진 의사에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는 많은 새로운 질병을 알지 못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겠기 때문입니다.

쇄신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변혁에 따라 대중을, 세상을 동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 7세기 전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그 당시 [수도] 단체는 걸어
26 다녀야 한다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지금(1955년 당시)은 병자들에게 신속하게 도달하기 위해 당연히 자전거를 타게 될 것입니다. [...]⁶

우리는 쇠신되어야 합니다.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사도좌 관보 *Acta Apostolicae Sedis*」에 대해 [적어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알아야 합니다. 흥미위주의 소식을 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태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마에스트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쇠신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⁷ 로마에서 행한 장상들 대상의 쇠신을 위한 영신수련이

6. 원문에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farebbe la stessa figura)로 되어 있다.

7. 1955년 7월 중순에 로마에서 개최된 쇠신 주간을 암시한다. ApC, pp. 521-522 참조.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매들 거의 대부분이 젊어진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진지한 모습으로 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쇠신은 젊음을 되찾아줍니다. 정신적으로 늘 젊음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심리를, 그들의 사고방식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행동하는 모든 복합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동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1914년의 [출판용] 인쇄기를 지금 사용하겠습니까? 그 당시의 인쇄기는 잘 나갈 때에 한해서 800쪽을 인쇄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자동화 되어 한 번에 훨씬 많은 양을 제작해냅니다.

자, 보십시오. 위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성녀 테클라의 생애를 읽으면서 이러한 것들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녀는 진리에 굶주려서 성 바오로의 발치에 앉아, 성 바오로께서 설파하시는 내용을 점점 깊이 음미해나갔습니다. 아, 성바오로딸들은 성녀 테클라를 마치 첫 번째 자매처럼 여기는 동시에 자신들의 거룩한 보호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V.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릴 것

오늘은 성녀 비르지타¹ 축일입니다. 성녀는 여성의 모든 신분을 두루 거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첫 번째로 모범적인 젊은 여성, 그다음에는 남편에게 아주 충실한 아내, 이어서 모범적인 어머니,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주 철저한 수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녀에게 모든 신분을 거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 그 모든 신분은 말하자면 수덕 27 신학과 신비신학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성녀가 모든 덕을 실천하였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특히 예수님의 수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성녀는 유럽 북부에서, 팔레스티나에서, 스페인에서, 로마에서 그리고 다른 곳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덕에서, 성성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 안에서 진보하셨습니다.

이제 이 축일에 봉독되는 복음 말씀을 숙고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봅시다. 복음에서 하늘나라는 밭에 묻힌 보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 밭이 자기 것이 아니었으므로 보물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가 밭을 차지함으로써 그 보물은 그의 것이 되었습니다.² 또한 하늘나라는 소중한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매우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처분하여 값진 그 진주를 사기 위해 필요한 금액에 보태었고,³ 그래

1. 비르지타(Brigida di Svezia, 1303-1373)는 스웨덴의 공주였다. 그는 수도자로서 구세주 수도회(Ordine del S. Salvatore)를 창립했다. 옛날 전례력에서는 성녀 비르지타 기념일을 10월 8일에 거행하였다.(역주: 현재 전례력에서는 7월 23일이 축일이다. 따라서 기념 미사의 독서와 복음이 현재 전례력과 다르다)

2. 마태 13,44 참조.

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는 다른 이들과 함께 바다에서 자신의 배를 저어 그물을 던지는 어부와 비슷합니다. 많은 물고기를 낚아 작은 배에 가득 채워 배를 물가로 끌어올린 다음, 물고기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나쁜 물고기는 골라내어 던져버립니다. 좋은 물고기는 팔기 위해 그릇에, 양동이에 담아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먹기 위해 가져갈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선한 영혼과 악한 영혼을 갈라놓을 것입니다. 선한 영혼들은 천국으로 데려 갈 것이고, 악한 영혼들, 다시 말해서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보내질 것입니다.⁴ 교회가 이 축일에 왜 이 복음구절을 택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성 바오로 서간에서 취한 말씀과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서간에서는 사제들이 당시에 여성 부제라고 불리던 여성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니다. 이 여성들은 본질적으로 오늘날의 수녀들에 상응합니다. 이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에서 사제들을 도왔

28 습니다. | 여러 가지 직무에서 도움을 주었는데, 예를 들면 교리를 가르치고, 세례성사 거행을 도왔으며, 성가를 지도하고, 재소자들을 방문하고, 회사에 관련한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의탁 과부들을 존대하십시오.”⁵ 그다음에 사도께서는 마땅히 여부제가 될 자격이 있는 과부들을 어떻게 알아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완수해야 할 직무가 섬세하므로 60세에 이르러야 한다고 합니다.⁶ 교회는 늘 사제와 여성들(마리아들), 곧 영혼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훌륭한 활동에 봉헌하는 수녀들과 일치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보십시오, 근본적인 개념은 언제나 같은 것입니다. 사제와 수녀 사이의 일치, 마땅한 분리, 당연한 거리는 민감한 사안이

3. 마태 13,45-46 참조.

4. 마태 13,47-50 참조.

5. 1티모 5,3.

6. 1티모 5,5-16 참조.

지만, 존중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을 산다고 할 때,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이 부분은 영혼이 영원한 삶, 천국, 하느님 은총의 보화, 세상의 헛됨과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의 덧없음을 잘 묵상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수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가족을 버리고, 때때로 만족할 수 있는 미래를 버리고, 놓아버리기 아주 어려운 [것]인 자기 뜻을 버리고, 좋지 않은 모든 경향을 버리고, 지상의 재물을 버리고, 순명, 정결, 청빈 서원을 서약하여 하느님께 모든 것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모두 바치고, 드리고, 봉헌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성성의 큰 보물, 아주 풍성한 은총의 위대한 보화, 아주 엄격한 영성생활의 큰 보물, 가장 확실하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의 큰 보물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자문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성성이요,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물을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습니까?’ 하느님께 봉헌하고 수도원에 들어오지만, 자주 창문을 통해 아직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아직도 주의를 끌 만한 여지를 조금은 남겨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가끔 세상에 남아 있는 사 29 람에 대해, 좋은 면, 아름다운 면, 만족스러운 점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질투의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수도원의 문을 닫아걸지만 창문을 열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길을 걷는 것으로, 조금은 하느님 편에 있고, 조금은 아직 세상의 편, 가족의 편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도원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아,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아, 만일 이런 일들이 내게 허용되지 않는다면, 저런 일을 내게 금지시킨다면 내가 왔

던 곳으로 돌아갈 테야!’ 하고 말합니다. 이들은 결코 전적으로 하느님께 속하지 못합니다. 수도원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자기 뜻을 숨긴 채 온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만일 적어도 큰 재산을 버렸다면 큰 희생을 한 셈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지상 사물보다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한다는 표지가 됩니다만, 종종 더 큰 재산을 놓아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곧 가장 소중한 것, 한없이 귀중한 것인 자기 뜻을 버려야 합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소유를 버리기를 원하였으며,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청빈을 조건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⁷ 그리고 당신을 따르고 싶어 하던 다른 젊은이에게 같은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한 율법 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은 곧 청빈입니다.

두 번째로, 아주 귀중한 진주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고서는 모든 것을 팔아 귀한 진주를 사는 그 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프랑스의 어느 장군이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하고서는 그것을 잘 보관하여 큰 부를 구축하고서는 그 위에 다음과 같이 새겼다고 [전해 집니다.] ‘나를 소유하는 사람은 더는 가난한 자가 아닐 것이다.’

30 젊은 여성이 행복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7. 마태 19,21.

8. 마태 8,19-20.

아주 귀중한 진주를 찾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주님께서도 영원한 행복, 하느님을 누리는 지복직관을 따르도록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귀중한 진주입니다. 곧 천국입니다!

우리는 아주 소중한 진주를 발견하였으며, 서원을 서약하면서 관대한 마음으로 ‘자, 이제부터 앞으로 나는 하느님을 위하여, 하늘나라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허심탄회하게 자문해 봅시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가?’ 그런 사람은 가진 모든 것과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합니까? 온 힘을 다하여 일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삶에 있어서, 수도생활 준수에 있어서 그리고 사도직에 있어서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의지를 집중한다는 말입니다. 그대는 자신을 하느님께 드리며 “제 모든 것을 봉헌합니다.”라고 말했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제일 먼저 정신을 하느님 섬기는 일에 집중한다고 말했다기 때문에, 정신이 어리석음으로 방황하고 헛군데를 헤매고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은 교리를 연구하고, 거룩한 것들을 묵상하고, 신앙을 증가시키고, 우리 삶에 관한 일에 대해서, 특히 회헌에 대해서, 받은 주의사항에 대해서, 주어진 지침 등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신은 거기서 그런 일에 머물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유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알지 못해!’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십니다!

온 마음을 하느님께 드린다는 것은 오직 주님만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초연한 자세입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수녀 사이에 튼튼한 담장을 세웁니다. 온 마음을 하느님께 드리는 것

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물과 세상 사람들에게 향하는 경향을 배제시킬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하느님의 것이 되며,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차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과 하느님 사이에서 늘 균형을 잃는 사람은 세상도 그를 좋아하지 않고 하느님도 그를 탐탁치 않게 여기시어 많은 공덕을 잃게 되고, 수도생활의 위로를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온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마리아의 마음을 따르는 경건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순한 마음, 관대한 마음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힘, 건강, 하루의 일과, 시간, 매 순간을 드리고, 육체적인 힘과

31 | 윤리적인 힘, 지적 힘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소중한 진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한 가지 프로그램을 단행했습니다. 나는 세상과 더불어, 나의 가족과 더불어 있는 것이 아니며, 나의 만족을 찾지 않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아름다운 천국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을 걸었습니다. 나의 재산은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곧바로 지불하시지는 않지만 영원히 넘치도록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토요일에 일을 하고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다면 그 돈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보상의 날을 위하여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늘 하늘로 올라가도록 깨어있어야 하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고, 영원한 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복음은, 그물로 많은 양의 물고기를 낚아 배를 물가에 대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가려내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⁹

오늘 전례가 왜 복음의 이 세 번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다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있고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가톨릭 신앙을 따르고, 그리스도교적

9. 마태 13,47-49 참조.

으로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느님께 봉헌한 자신들의 성소에 걸맞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하느님께 봉헌했지만 그들의 성소에 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많은 물고기를 낚았지만, 모두가 쓸모 있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나쁜 물고기들은 내다버리고, 좋은 물고기들은 먹기 위해서 또는 팔기 위해서 보관하였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참된 수도자, 좋은 수도자들이어야 합니다. 유다는 부르심을 통하여 수도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사도로서 천상 스승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요지는 회계를 맡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상응하지 못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그에 대해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¹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다면 적어도 지옥에 떨어지지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입니다. 단죄받기보다는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낫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한 이들은 | 하늘에, 천국에 갈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녀들이, 얼마나 많은 수도자들이 이미 저 높은 곳, 영광스럽고 행복한 하늘나라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도들이, 많은 동정녀들이, 많은 수녀들이 모든 분야에서, 자선활동에서, 교육활동에서, 선교활동에서, 출판활동에서, 인쇄활동 등에서 일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들은 이미 저 높은 곳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참으로 가장 충실한 수녀들, 참으로 열렬한 수녀들, 영혼의 밑바닥까지 수녀들이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언젠가 이미 자신들의 노고에 대한 상급을 누리는 다른 수많은 수녀들과 저 높은 곳에서 일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훌륭하여 일반 신자들의 영광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수녀는 아주 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져야 하고, 늘 하늘을

10. 마태 26,24.

바라보아야 하며, 주님께 관대함으로, 충실함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도

록 기도해야 합니다.

소박하게나마 매일 거룩한 서원을 통하여 봉헌을 갱신해야 하고, 특히 어려운 순간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주님께 저 자신을 드리고, 바치고, 봉헌하며, 주님께 지성, 의지, 마음, 시각, 청각, 혀, 육신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고, 봉헌합니다!”

Ⅵ. 천국

[1) 천국에 대한 생각으로 신앙을 키울 것]

여러분은 저에게 월피정 강론을¹ 청했습니다. 강론을 세 차례 해야 하므로 세 번의 강론을 하나로 묶어서 해봅시다.

첫 번째 강론은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천상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어 우리가 지상에서 계명을 지키고 당신께 대한 사랑과 신앙과 충실성을 드러내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현세의 삶은 하나의 시험으로 그 시험을 잘 견디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공부를 잘 하여 마지막 시험에 통과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공부를 하지 않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이끄는 좁은 길과, 지옥으로 이끄는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란 어떤 것입니까? 희생과 극기와 헌신, 우리 의무에 대한 헌신이 요청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길입니다. | 곧 우리의 시각, 청각, 혀, 마음, 상상(판타지), 지성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욕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² 그러한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극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각과 마음이 요구하는 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1. 1955년 10월 5-6일에 행한 피정이지만, 내용상으로 목상 강의는 성 프란치스코 축일 다음날에 한 것으로 보인다. 자기(磁氣)테이프 녹음에서 옮겨 썼다: A6/an 16b ac 29a. 일부 구절은 편집자가 의미를 살리기 위하여 손질하였다.

2. 갈라 5,24.

그다음에 넓은 길, 지나치게 넓은 자유의 길, 하느님의 계명을 준수하지 않고, 결심과 약속한 서원을 완수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이러한 넓은 길은 사는 데에는 더 할 수 없이 편한 길이지만, 죽을 때에 영원을 약속해 주는 확실한 길은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좋은 길과 나쁜 길 앞에 서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선택해야 한다 *Elige ergo vitam.*”³ 다시 말해 그대는 영원한 파멸, 영원한 번민 앞에 서 있는 것이며, 그대는 또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삶, 곧 천국을 택해야 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현세적인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다. 생각보다, 확신보다, 이성보다 더 앞서 가는 판타지(상상의 세계)를 살고, 세상에 대한 인상이나 겉모습에 의해, 자신의 욕정을 만족시키는 바람에 의해 인도되도록 자신을 맡기어 하늘을 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과 이끌리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의 영혼 모두, 우리의 정신 모두를 얻게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천국을 생각하십시오.”⁴ 저는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를 믿습니다. 마지막 지점에 도달해야 합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Cupio dissolvi et esse cum Christo.*”⁵ ‘나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나기 위하여 내 생명을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제 축일을 지낸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다음과 같은 시편을 읊조리며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저 또한 그들과 함께 상을 받으러 갈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이, 성인들이 천국에서 저를 기다립니다.”⁶ 이미 앞서 천국으로 간 여러분의 자매

3. 신명 30,19.

4. 콜로 3,1-2 참조.

5. 필리 1,23.

6. 시편 142,8 참조.

들, 자신들의 청춘을 성화시키며 주님께 봉헌한 수많은 동정녀들이 천국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천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유배의 찬가입니다. ‘당신 우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⁷ 왜냐하면 잘 되어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지만 | 우리가 이루어내지 못하며 또 악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오 마리아, 선하신 눈길로 저를 바라보시고, 이 귀양살이 후에 천국에서 예수님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느 자매가 저에게 “그렇지만 저는 그분을 지상에서도
35 뵈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매에게 “그대가 신앙을 가진다면 그분을 뵈게 될 것입니다.”라고 써주었습니다. 성체조배를 잘 하는 영혼은 예수님과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께 붙잡혔음을 느끼게 되어,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게 되고, 그분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대답을 집중해서 들으며, 그분께서 성령과 아주 생생한 신앙, 대단히 강렬한 사랑과 확실한 희망을 전달해 주는 것을 알아차리며 확고하게 걸어갑니다. 성성의 도상에 있는 그들은 계속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바울리나의 삶은 곱절의 효력을 얻는 성성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에서 얻을 수 있는 곱절의 공덕의 길이요, 천국에서 획득할 수 있는 곱절의 상급의 길입니다. 어떤 공덕입니까? 우리가 잘 이행하고 있고,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이행한 것에 대한 상급이요, 다른 이들에게 행한 선 때문에 받는 두 번째 상급입니다. 그러므로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말씀에 따르면, 잘 가르친 사람들과 특히 글을 잘 쓴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광의 오로라라고 불리는 두 번째 영광을

7. ‘성모 찬송’의 한 구절.

받게 됩니다.

이제,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생각하게 되는 천국에 대해 봅시다. 보십시오, 저의 일상 중에 저에게 맡겨진 일이 시작되면 제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저는 천국을 위하여 일할 것이며, 제가 행할 모든 것이 저에게 공덕을 마련해줄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나 성당에 들어갈 때까지 제가 행할 모든 것, 신심실천뿐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사도직, 면학, 음식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 또한 모두가 천국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집으로 가야 합니다 *Homo aeternitatis sum.*”⁸ 저는 천국을, 영원을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공덕을 얻기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천국을 얻기 위하여 나에게 도움이 되는 한도 내에서만 현재의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천국에 대해 망각하는 이들이 어떤 형벌을 받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프로파간다를 갈 때] 천국에 관한 서적을 많이 가져가야 합니다. 천국의 길을 가르쳐야 하며, 더 나은 제안들을 제시해야 하고, 구원받기 위한 수단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모든 선을 가져다주시는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지녀야 합니다. 매번 조금씩 우리 영혼은 더욱 용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사도직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천국! 천국에 대해 조금밖에 생각하지 않는 이들을 더 격려해야 하고, 천국에 대해 아주 많이 생각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이로써 첫 번째 강론을 마칩니다. 곧 천국을 생각해야 하고, 천국에 대한 신앙을 키워야 합니다. 성 주세페 카파소는⁹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 코헬 12,5 참조.

9. Giuseppe Cafasso(1811-1860)는 토리노 교구의 사제요, 영적 지도 신부로 유명하다. 감옥에 수감된 이들과 사형수들을 도와주는 일에 헌신하였다. 특히 알폰소의 윤리를 가르쳤다.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그의 저술을 가장 많이 읽고 삶을 본받은 이들 가운데 한 분이다. AD 133 참조.

니다. 집을 나서서 시장에 가는 여성은 무엇을 사러 가는지 잘 알고 있기에 그녀에게 이리저리한 물건을 사야 함을 기억해야 하고, 그 광장에 가 그 상점을 들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녀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지상에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천국을 얻어야 함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모든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6 겨우 기억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론을 몇 번 듣거나 몇 권의 책을 읽을 때입니다. 천국에 대한 생각이 모든 이를 열정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천국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¹⁰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¹¹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건강할 때 선행을 하십시오. 죽음이 닥치면 [모든 것이] 끝나버려, 더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공덕을 쌓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잘 사용해야 하고, 공덕으로 채워야 하고, 모든 나날이 공덕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2) 묵주기도, 특히 영광의 신비를 잘 바쳐야 한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강론에 이르렀습니다. 천국에 대한 생각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10월 한 달 동안 묵주기도를 많이, 그리고 거룩하게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묵주기도를 일년 내내 바칩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10. 갈라 6,10.

11. 요한 9,4.

다. 어린아이들은 매 순간 어머니에게 매달립니다. 그렇듯이 매일 어머니를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10월에는 묵주기도를 통하여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묵주기도의 신비는 15가지입니다. 환희의 신비 다섯 가지, 고통의 신비 다섯 가지, 영광의 신비 다섯 가지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영광의 신비만 생각해봅시다. 모두가 이 신비를 잘 알고 있고, 이 신비의 기도를 바쳤으며, [기도서]에는 | 청해야 할 은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전구를 통하여 천국을 기억하도록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도 부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로 오르신 그분의 승천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 부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과 마리아 위에 강림하신 성령의 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사도 37 들을 불태우셨던 것처럼 사도직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불태우고 또한 우리를 열망으로 불태워주시기 위하여 우리 영혼 위에 강림하셔야 합니다.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직후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바오로 딸들은 열성의 은총을,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생생한 신앙을 필요로 합니다. 자, 보십시오. 마리아와 함께 그것을 청해야 합니다. 어떻게 청해야 합니까? 성령의 빛과 은총이 내려오시기를 청하십시오.

그다음에 우리는 영광의 신비 4단과 5단을 바칩니다. 4단에서 우리는 선종의 은총을 구하고, 5단에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여왕으로 화관을 받으신 마리아께 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저 높은 곳에서 왕관을 쓰고 계신 마리아,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의 스승이신 마리아, 우리의 여왕이신 마리아를 관상합니다. 그렇다면 영광의 신비는 어떤 결실을 가져다줍니까? 그 결실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기억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거룩한 삶을 영위할 은총을 청하

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관대함으로 모든 삶에서 선행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얻게 합니다. 영혼에 약간의 슬픔이 들어올 때 기쁨을 가져다주는 영광의 신비를 바치며 ‘나 또한 부활할 것이고, 나 또한 죽음의 순간에 나를 도와주실 마리아를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갈바리아를 향해 걸어가시어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을 겪으시며 돌아가셨을 때 줄곧 예수님을 따르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임종의 고통 중에 예수님의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오 마리아,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우리 가까이에 계신 당신을 뵈기를 희망하고, 또한 거룩한 죽음을 희망해야 합니다.

영광의 신비 5단에서 우리는 마리아를 | 모든 은총의 중개자로 흠송합니다. 마리아께서는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이시여!’

우리 영혼 안에 천국에 대한 기억을 한층 더 각인시키기 위하여 영광의 신비를 바쳐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서, 천국 교리에 대한 믿음을 지니도록 영광의 신비를 바쳐야 합니다. 이제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는 서적들이, 이미 이탈리아에서 출판된 서적들이 여러 곳에서 보급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지상에 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상에서는 잠시 지내는 반면, 다른 삶에서는 영원히 머물게 됩니다. 영원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이 없는 지속적인 시간으로, 거기에는 결코 시간이 흐르지 않는 현재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고 오직 영원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시간을 측정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이날이 오늘이요, 저날이 내일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달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햇수가 헤아려지지 않고, 모든 것이 오로지 그리고 늘 현재입니다.

사람들은 영원을 미리 보지 못하면서 죽음의 순간에 도달합니다. 만

일 누군가가 긴 여행을 해야 할 때 음식을 준비하거나 또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도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해야 할 바를 생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영원과 천국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짧은 행태입니까! 천국 외에는 거의 다른 목상을 하지 않던 성인들이 있고, 그 누구보다 더 많이 천국에 대해 언급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복자 펠릭스 다 니코시아는 천국에 대해 언급할 때 생각이 넘쳤고, 거의 이미 천국을 본 것처럼 보여 모든 이에게 깊은 인상과 위로가 되는 기억, 천국에 대한 기억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이 지상을 [생각합니다.] 동시에 늘 천국을 생각합니까? 그러므로 영광의 신비를 아주 잘 바쳐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우선권을 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조금은 우선권을 두면서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하늘나라에 대해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신비를 더 자주 바쳐야 합니다.

[3] 매일 조금씩 진보할 것

이제 세 번째 강론입니다. 세 번째 강론은 “매일 조금씩 진보할 것”¹²입니다. 모든 요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아주 짧은 강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여러 나쁜 경향을 지니고 있으며, 세상에 살면서 많은 잘못을 범하거나 또는 선에 대해 소홀해지게 됩니다. 매일 조금씩 진보한다는 것은 매일 우리의 결점을 약간씩 수정해 간다는 뜻입니다. 매일 수도자의 덕, 특히 겸손과 사랑과 수도자의 세 가지 특징적 덕인 청빈, 정결, 순명의 덕을 쌓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매일 39

12.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양성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가르치신 교육학적 원칙.

진보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교정할 수 없더라도 모든 것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의지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결심을 하는 것은 유익하며, 특히 마음에 더 와닿는 덕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 또 우리를 더 강하게 지배하는 그러한 결점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많은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심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결심이 너무 많으면 조금밖에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적절하게 결심을 세우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영성체 전이나 영성체 후에 자신을 쇠신해야 하고, 양심성찰에서 특히 성체조배 때 기억해야 하며, 고해성사 때 이러한 결심들에 대해 반성해야 하고, 더 나아가 월피정과 대피정 때 수도생활 준수에 얼마나 진보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심을 적게 하지만, 그 사람이 성화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표지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곧 늘 염두에 두고 연말까지 결심을 유지해 나가야 하며, 마음에 두고 있는 그 덕성들을 갖추도록 한층 노력해야 합니다.

「준주성범」에서는 “유혹을 한 번도 당하지 않을 만큼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은 없다.”¹³고 말합니다. 그 어떤 성인도 단번에 성인이 된 것이 아니라 매번 조금씩, 매일 조금씩 진보한 것입니다. 만일 올라가야 할 계단이 아주 높으면, 예를 들어 100개의 계단을 어떤 사람이 단번에 오르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한 번에 백 개의 계단을 오르거나 한 번에 백 개의 계단을 내려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대신에 고요한 마음으로 상황에 대처하며, 매번 한 계단씩, 그렇지만 늘 앞을 향해서, 늘 |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의 보폭이 일정하더라도 계속해서 걷다보면 마침내 다 오르게 되어 분명히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멈추는 사람, 게으른 사람, 냉랭한 사람은 계단을 오르지 못합니다.

열성은 진보입니다. 열성은 앞을 향해 계속 걷는 것이지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 또는 도달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열성은 앞을 향해 걷는 것이고 진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더욱 진정한 겸손이, 더욱 전폭적인 순명이, 더욱 폭넓은 관대함이, 더 다양한 면학에 대한 집중이, 더욱 섬세한 양심이 요청됩니다. 보십시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꾸준히 그렇게 할 때 일정한 단계의 성성, 일정한 수준의 완덕에 도달하겠지만, 매일 조금씩 진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아야 하고, 성령의 내적 힘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영성체, 아름다운 성체조배, 아름다운 미사, 아름다운 묵주기도, 잦은 화살기도를 바쳐야 하고, 조언을 청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 생각에 대해, 내적 감정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 진보하기 위한 수단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지치게 될 때가 생기지만, 그럴 때에는 다시금 예수님께 달려가고, 다시금 마리아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성인들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해줍니다. 그들에게 우리를 부탁드립니다. ‘성인들이시여! 여러분은 시련을 이겨내시고, 삶의 전쟁을 이기셨으므로 저 높은 곳, 확실한 곳에 계시니, 아직 위험에 처하여 많은 유혹 가운데 살면서 많은 나쁜 경향을 지니고 있는 저희를 굽어 살펴보소서. 저희를 살펴보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기도를 통해 저희를 구해주소서.’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모범을 바라보며 “이 모든 사람이 성인이 되었다면 나는 왜 안 되겠습니까?”¹⁴라고 말합니다. 그들 또한 내가 받는 유혹, 내가 겪는 어려움에 직면했었고, 그들 또한 반대를 받고 고통을

13. 「준주성범」 1권 13장 1.

14. 성 아우구스티노, 「고백록」, VIII, 11 참조.

40 꺾어내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안 되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로, 묵주기를 바쳐야 하고, 특히 영광의 신비를 잘 바쳐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매일 조금씩 진보해야 합니다. 나중에 꺼져버리고 마는 불꽃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타오르는 불꽃처럼 진보해야 합니다.

VII. 묵주기도

41

첫째, 묵주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있는 그대로의 우리 삶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복잡적입니다. 삶은 하나의 시험입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우리의 성소를 따르면서 어려움과 노력과 노동을 거쳐야 하는 시련입니다. 더구나 [삶은] 형벌인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영원, 곧 천국에 도달합니다. 천국은 행복이요, 우리의 영원과 우리의 지적, 감각적, 인간적, 물리적, 육체적 힘을 전적으로 만족시킬 완전한 지복직관입니다.

묵주기도는 우리가 노력, 노동, 면학과 사도직을 통하여 행해야 할 과정을 동반해 주는 환희의 신비를 대면하게 합니다. 삶은 마리아의 삶과 예수님의 삶처럼 위안과 실망 사이를 흘러갑니다. 게다가 육체적인 힘이 쇠잔해질 [때] 슬픔이 더해지고 질병이 많아지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일치하여 삶을 끝마치기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우선 환희의 신비를 살고, 그다음으로 고통의 신비를 살고, 마침내 영광의 신비를 사는 것입니다. 동정녀의 삶, 여성 사도의 삶, 진정으로 성성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의 삶은 끝이 나게 되며, 기쁨과 영원한 상급을 통하여 영원에서 영속됩니다. 그리하여 저 높은 곳에서 하느님을 뵈게 될 것이고, 하느님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영원히 하느님을 누릴 것입니다. 묵주기도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삶의 개념을 지닙니다.

미국인들은 실용적이라고들 말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더 실천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에 유익한 것에서만 실천적일 뿐 아니라, 완전한 삶에 유익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완전한 삶은 영원으로 연장됩니다. 그 삶은 끝이 없습니다.

신비 하나 하나를 묵상할 수 없다하더라도 ‘현재의 삶은 무엇인가?’

| 미래의 삶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완전한 의미에서 삶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추론해야 합니다. 현재의 삶은 영원한 삶의 시초입니다. 일반적으로, 환희의 신비에서 고통의 신비로, 그리고 영광의 신비로 넘어가면서 왜 우리가 이 세상에 왔는지, 우리가 이 지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상의 삶이 마무리된 다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 영광의 신비입니다. 성바로말들은 천국에서 사도직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텔레비전을 통해, 영화를 통해, 라디오를 통해 그리고 출판물을 통해 계속 일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더라도 각자는 거기서 똑같은 직무를 계속할 것입니다. 성녀 테레사Teresina께서¹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의 삶이 끝나면 저는 지상에 장미를 뿌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지상에서부터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선교 42 사들과 설교자들을 도왔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의 전구를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은총은 정말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의 열다섯 단의 신비 중에서 고려해야 할 일반적인 첫 번째 진리는 ‘삶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성 바오로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Accedendo ad Deum credere oportet.”² 성화되기를 원하고, 하느님께 다가가기를 바라며, 예수님과 일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을 생각하고 앞으로 받게 될 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고통을 거쳐 가신 분이십니다. 9월 중순에 우리는 고통의 성모 마리아

1. 성면(Volto santo)의 예수 아기의 테레사(1873-1897)는 프랑스 출신으로 가르멜회 회원이며 교회박사다.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 Opere complete(전집), Libreria Editrice Vaticana, Edizioni OCD, 로마, 1997, p. 991, 각주 20f 참조.

2. 히브 11,6.

아 기념일을 지냈는데 그분께서는 당신의 삶을 어떻게 끝내셨습니까? 영원한 기쁨으로, 하늘로 승천하심으로, 당신께서 공덕을 쌓으신 천상 모후의 관을 받으심으로 마치셨습니다. 세상의 여왕! 하늘과 땅의 여왕!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만일 우리가 모든 신비를 인도하는 근본적인 진리를 염두에 두지 않은 채 묵주기도를 바친다면, 우리는 묵주기도를 피상적으로, 또는 분심 속에서 바쳤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주기도를 늘 바치고, 묵주기도 전체를 바쳐야 하지만, 묵주기도에 담긴 진리에 대한 숙고보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횟수에 더 중요성을 두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15단의 신비를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양보다 질에 유의해야 합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이야.”라고 말하지만 흔히들 성찰하지 않고, 거의 기계적으로 바친다고 말할 정도로 묵주기도를 경시합니다. | 적어도 그에 대한 진리를 상기해야 합니다. 모두가 이런 실천을 따른다면 아주 좋습니다! 사도직을 하는 동안에 잠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의 신비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그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둘째로, 윤리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곧 ‘하늘에서 잘 살기 위해 지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묵주기도의 신비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려줍니다. ‘여러분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동정녀에게서 나셨고, 스승, 사제, 성체가 되셨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어졌다Consummatum est.”³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조들과 구약성경의 의인들

3. 요한 19,30.

4. 루카 23,46.

에게 에워싸여 영광스럽게 하늘로 들어가시는 그분의 입성을 보십시오. 거기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라 *Sese a dextris meis.*”⁵ 예수님께서서는 천상 아버지 곁에 앉으십니다.

또 다른 가르침은 마리아에게서 주어집니다. 마리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성소를 받으셨습니다. 그 성소는 잉태 예고의 날에 한 천사를 통해 드러났는데, 그분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⁶ 어쩌면 이러한 공언은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어 되풀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늘 하느님의 여종임을 드러내시며 매 순간 사건을 통하여 되풀이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수락하셨으며, 그 사명을 수많은 고통을 통하여 끝까지 이끌어가셨습니다. 예를 들어, 극도로 가난한 상태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보셨으며, 죽음에 처해진 예수님을 뒤따르셨습니다. 그분은 아기 예수님이 목동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동방박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것을 보시며 위안을 받으셨습니다. 게다가 마리아께서는 이방인들의 지역 저 낮은 곳으로 유배를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정치적 사건의 표적이 되셨던 것입니다. 박해자가 죽자 천사는 요셉을 팔레스티나로, 숨겨진 마을 나자렛으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눈에 띄지 않도록 | 그 마을로 이끌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헤로데의 후계자 아르켈라오스가 의혹을 품고 다시금 죽일 구실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나자렛에서 30년 동안 기도와 노동, 잠식과 가정적인 모든 덕, 순명의 숨은 삶을 사셨으

5. 시편 110,1.

6. 루카 1,38.

며 [...]’ 나이와 은총, 지혜가 더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적 직무를 준비하시는 [동안] 마리아는 그분을 동반하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스승께서 설교하실 때 귀를 기울이셨고, 갈바리아에서 사제요 영원한 대사제로서 자신을 바치시는 희생제물, 곧 유일한 희생을 완수하실 때에도 그분을 동반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수많은 희생 제사를 거행했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희생 제사를 대체하신 성체 *Ostia*가 되셨습니다.

44

더 나아가 마리아께서는 영광의 신비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영성 작가들은 마리아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방문하여 만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이 점을 주목하지 않지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하늘로 오르는 예수님의 승천에 도움을 주셨으며, 당신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그날부터 교회를 당신 품에 안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신생 교회의 어머니가 되셔야 했습니다. 당신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따르셨던 것처럼, 교회의 초창기에 젊은 교회를 이끄셨으며, 기도와 모범을 통하여 교회를 도와주셨고, 사도들을 격려하셨으며, 박해 등에서 사도들의 지탱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분명히 성 루카에게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한 신비를 계시해 주셨을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 자신이 아니라면 복음에 묘사된 잉태 사실을 성 루카에게 누가 계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하여 다른 사도들은 이야기할 수 없었지만, 마리아의 신뢰를 받던 성 루카가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시절의 사건들을 수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목주기도의 신비들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예수님의 모범과 마리아의 모범에 따라 살도록 가르쳐줍니다. 예수님

7. 원문에는 ‘구유 안에 숨겨진 것처럼’(come era stato nascosto in una greppia)으로 되어 있다.

과 마리아께서 이루신 것처럼 지상에서 우리의 성소를 완수하도록 가르쳐줍니다. 이분들이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십니다. 곧 예수님과 마리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보기를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성 바오로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성 바오로만큼 스승을, 예수님의 삶을, 당신의 사명 등을 그토록 잘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분은 가장 충실하고 가장 박식한 제자이십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그분 안에 보화를 쌓으시고, 고통의 길로 이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⁸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과 닮았고, 예수님께서서 그분 안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묵주기도의] 신비 하나 하나를 묵상하지 못하더라도 실천적 가르침에는 ‘나는 성성이요 사도직인 나의 모든 성소에 상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내적 작업에 최선을 다하

45 고 싶고, 나의 기도의 사도직, 좋은 모범의 사도직, 거룩한 말씀의 사도직과 하느님 말씀의 보급 사도직, 교회가 가르치는 진리의 사도직을 잘 완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마리아처럼 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원하는 동시에 고통을 겪고, 또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라는 원의가 함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억해야 할 실천적인 가르침은 성성과 사도직이라는 이중의 성소에 상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5단의 신비를 바치는 가운데 청해야 하는 은총, 일반적인 은총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묵주기도의 신비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도직 중에 묵주기도를 바칠 때 각 신비마다 묵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 신비 안에서 한 가지 진리를 숙고할 때 묵주기도를 더 잘 묵상하게 되고, 한 가지 덕을 배우게 되고, 한 가지 은총을 청

8. 사도 9,16.

하게 됩니다. 그 대신에 모든 신비를 한꺼번에 생각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곧 수녀는 또 다른 마리아가 되고, 사제는 또 다른 예수님이 되는 은총입니다. 수녀와 사제는 마리아와 예수님께서서 세상 구원이라는 구속 사명을 이루신 것처럼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구원자이시고, 마리아께서는 세상의 공동구원자이십니다. 성체와 대사제와 인류의 스승이신 분을 준비하기를 원하신 천상 성부께서는 그분을 마리아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셨고, 마리아께서는 우리의 이미지로서, 우리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세상에 주시는 행위로 우리의 대표가 되는 분이십니다.

사제와 수녀의 일치는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의 일치에서 모범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일치를 어떻게 완수해야 하는지 보십시오. 1) 내적으로 동정이어야 하고, 동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가치있게 하기 위해서 모든 면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도직은 어려운 것이 분명합니다. | 오늘날 자주 듣게 되는 가르침, 곧 좀 더 세상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여러분은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⁹ 이것은 하느님께 드리는 전적인 봉헌, 곧 동정입니다. 그 의미는 결코 악을, 그 어떠한 종류의 악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사랑에 반대되지 않고, 순명에 반대되지 않고, 겸손에 반대되지 않고, 청빈에 반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정은 지성, 의지, 마음을 완성시킵니다. 만일 모든 부분에서 이 동정을 살지 않는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 더는 간을 맞추는 데 효과가 없는, 존재

9. 요한 17,14.

가치를 잃어버린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때 어디에 쓰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수녀들과 사제들은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46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¹⁰ 들판에 버려진 소금은 땅을 불모지로 만들어 일정 기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중세 때 야만족들이 한 민족을 정벌할 때 더는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밭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성의 성인, 의지의 성인, 그리고 마음의 성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과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걸으려고 노력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는 아직도 마리아가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늘 성성을 지향해야 하고, 매일의 결심, 주간 결심, 월중 결심, 연중 결심을 통하여 매일 조금씩 성성을 구축해나가야 하며, 영적 건물을 짓기 위해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려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수녀의 성성, 사제의 성성을 청해야 합니다. [...] ¹¹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낳으셨고, 그분을 세상에 주셨으며, 그분께서 설교하실 때에 그분께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사제가 어떤 여자 아이에게 세례를 주어 그녀를 하느님의 딸로 만들었다면,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일치의 신비가 생겨납니다. 나중에 그 여자 아이가 수녀가 되어 두 사람 모두에게 내적 성성이 있게 된다면, 그 사제와

10. 마태 5,13.

11.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사제는 그 여자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나중에 그녀는 수녀가 되었습니다. 사제는 그녀를 하느님의 딸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한편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주셨고, 나중에 그분께서 설교를 하실 때에는 그분께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거기에는 일치의 신비가 있고, 모든 면에서 내적 성성이 있는 이러한 일치는 거룩한 일치입니다.’ 이 텍스트를 옮겨 적으면서 꺾쇠 괄호 사이에 두었다.

그 수녀 사이에는 거룩한 일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수녀의 성성과 사제의 성성을 청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이 함께하시면서 두 분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 사제와 수녀가 함께할 때 한 지역을 구원하는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에 협력하는 것이 됩니다.

디트로이트의 추기경께서¹²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교구에는 14,800명의 수녀들이 있는데 저는 수녀들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매일 같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장 효과적인 협력자들은 바로 그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액션 단체도¹³ 있지만, [회원들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어떤 역할을 해내지만 시간의 일부분만을 드립니다. 또 가톨릭 액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해도 아직 바깥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순명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47 생각하고, 자기 살길을 생각하고, 행해야 할 선행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에 오르고, 가정을 꾸려나갈 것도 생각합니다.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성 바오로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셨고¹⁴ 복음에서도 이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였습니다.¹⁵ 그러므로 수도자가 되기 위하여 집을 떠나는 젊은 여성보다 본당에서 가톨릭 액션 활동에 가담하는 사람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오류입니다! 그것은 마치 ‘왜 수도생활을 하도록 밀어붙이고, 왜 젊은이들을 성소자로 신학교에 보내야 합니까?’라고 말하는 오류와 같습니다. 물론 훌륭한 가정의 아버지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가장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사제와 수도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기 위해 헌신합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거룩한 성소자들, 정말로 거룩한 이들을

12. 에드워드 알로이시오 무니(S. Em. Edward Aloysius Mooney, 1882-2958).

13. Pr6, Med, n. 30, 각주 5 참조.

14. 1코린 7,34,38 참조.

15. 마태 19,21 참조.

청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녀의 성성과 사제의 성성을 함께 청해야 합니다. 천상 성부께서는 구원을 어떻게 완수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 곧바로 세상 구원을 실현하실 것처럼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¹⁶ 구원은 그와 같이 선포되었고, 그와 같이 이루어졌으며, 그와 같이 세기에 걸쳐 완수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오늘날 크게 증가한 인류를 위하여 세상에는 7백만 명의 수녀들과 2백 5십만 명의 사제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 수녀들은 대략 백만 명 정도이고 사제들은 40만 명 정도입니다. 아직 갈아가야 할 길이 얼마나 먼지 보십시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왜냐하면 잘 수행하지 못하는 사제들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환상, 자신들의 게으름, 자신들의 교만, 자신을 지배하는 자애심을 가지고 있는 수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사제들과 수녀들이 잘 이행하지 못할 때,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는 대신에 나쁜

48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하느님과 일하는 대신에 마귀와 일하는 것이 됩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쟁 이후 최근 10년 동안 인류는 매일 18만 명씩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사제들의 수와 수녀들의 수도 더한층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청하여라.”¹⁷ 추수할 것이 많은 만큼 많은

16. 창세 3,15.

17. 마태 9,38.

일꾼들을 청해야 하지만, 거룩한 일꾼들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될 것이고,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 하느님의 도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요약해봅시다. 묵주기도를 잘 바쳐야 하고, 신비 하나 하나를 묵상해야 하며, 깊은 잠심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 각 단의 신비에서 묵상해야 할 한 가지 진리를, 하나의 계명을, 실천적인 가르침을 도출해 내야 하고,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바치면서 필요한 은총을 길어내야 합니다.

사도직을 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경우에는 묵상을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세 가지 일반적인 결실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1) 전체적인 의미에서 삶이란 무엇입니까? 지상적인 삶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개념입니다. 나는 천국을 위하여 창조되었기에 지상에서 하느님께 대한 나의 충실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느님과 일치하여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또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받을 검토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공덕을 쌓은 만큼 받기 위하여 하느님의 법정에 서게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2) 일반적으로, 환희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를 통하여 천상 성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완수하신 예수님과 마리아의 모범을 기억해야 합니다. | 그분들은 지상에서 자신의 사명을 잘 완수하셨으며, 계속되는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받을 상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은총의 원천이시고, 은총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께서는 끊임없는 은총의 분배자, 은총의 보편적 중개자이십니다.

3) 일꾼들이 부족하여 수확물이 부패하지 않도록, 교회가 충분한 숫자의 거룩한 사제들과 수녀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Operarii autem pauci.”¹⁸ 그러므로 추

수의 주인께 수확에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15단의 신비 안에서 이러한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거룩한 사제들, 거룩한 수녀들을 청해야 하고, 또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축복을 청해야 합니다.

늘 허리에 묵주를 달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바오로딸의 표시일 뿐 아니라, 진정으로 끊임없이 바치는 화관이 되고, 우리가 바친 모든 묵주기도가 하늘나라에서도 마리아께 드리게 될 우리의 화관이 끊어지지 않는 은총의 사슬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묵주기도를 헤아리지 않더라도 마리아께서는 헤아려주시고, 우리가 마리아께 바치게 될 거룩한 장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상 앞에만 장미를 바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신심을 받아주시고, 특별한 천국을 만들어주시며, 영광스럽게 빛나시는 살아계신 마리아께 바쳐야 합니다.

VIII. 양심성찰(1)

오늘 아침 우리는 묵주기도 15단의 신비를 총괄해서 묵상했습니다. 곧 어떤 진리를 숙고해야 할지, 어떤 실천적인 가르침을 취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특별 은총을 청해야 할지 묵상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청해야 할 은총들 가운데 한 가지 은총에 관해 집중합시다. 곧 양심성찰입니다.

양심성찰은 회헌에 따라 우리가 완수해야 할 세 가지 신심실천 중 하나요, 다른 여러 가지 신심실천을 잘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 한 주간, | 한 달, 일년에 행할 실천사항을 가지고 있지만, 세 가지 신심실천 곧 양심성찰, 묵상,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를 찾아뵙는 성체방문은 다른 신심실천을 잘 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 세 가지 신심실천을 잘 행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신심실천도 잘 행하겠지만, 이 신심실천들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규정된 다른 신심실천들도 유익하게 행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잘 수행하지 못할 것입니다. 양심성찰, 묵상,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50
께 대한 성체방문은 서원하기 전에 잘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헌에서는 이 세 가지 신심실천을 관습적으로 잘 이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아직 배우지 못한 딸들에게는 서원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¹ 이 신심실천 없이는 바올리나가 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훌륭한 젊은 여성이 될 수 있고, 훌륭한 수도자가 될 수 있겠지만, 바올리나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묵주기도의 모후 마리아의 전구를 청합시다. 성 아우구스티노의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저를 알게 해주시고, 주님, 당신을 알 수 있게 하소서

18. 마태 9,37.

1. 「성바오로딸수도회 회헌」 1953년판 196조 참조.

Ut cognoscam me, ut cognoscam te.”² 제가 한층 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하여 당신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저 자신을 경멸하기 위하여 저를 알 수 있게 해주소서. 다시 말해서 저의 약함을 알게 하시고, 제 힘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며, 저의 무지함을 알게 해주시고, 저의 학식, 저의 능력을 믿지 않게 하시며, 제 마음의 허약함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겸손함을 늘 지니게 해주소서.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올바른 길에 마음을 두게 하시고, 지령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특히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까? 양심성찰을 할 때입니다. 아침에 하는 예비 양심성찰을 통하여, 그리고 하루의 결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예방하고자 노력하며, 영성체를 통하여 우리를 강화시키려 노력하게 됩니다. [정오에 하는] 짧은 양심성찰과 거룩한 성체에 대한 성체방문 중에 하는 긴 양심성찰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고해성사를 통한 주간 양심성찰과 월피정을 통한 월중 양심성찰, 연피정을 통한 연중 양심성찰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라틴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로 된 책을 읽을 수 있지만, 우리 양심의 책은 잘 읽을 줄 모릅니다. | 그러나 많은 것을 알지 못하고, 공부를 조금밖에 하지 못했고, 많은 책들을 알지 못하고, 많은 신문을 읽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51 양심의 책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양심성찰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단지 말과 행동에만 머물 때, 다시 말해서 외적인 것에만 머물 때 양심성찰을 피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참된 양심성찰은 마음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내면을 근본적으로 성찰하게 합니다. 내면, 곧 우리의 정신과 마음에서 일어

2. 「독백」, II, 1 참조.

나는 감정들, 상상, 내적인 움직임들과 생각들은 가장 읽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음에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많은 만큼 우리는 교리와 묵상, 영적 독서 등을 통하여 한층 더 하느님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회헌을 더 묵상하고, 그만큼 회헌을 더 사랑하며, 그만큼 수도회를 더 잘 알고, 수도회 안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내면에 해당하는 것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성찰은 모든 것으로 확장되어야 하지만, 정해진 시간으로 한정되어야 합니다. 곧 예비 양심성찰, 성체방문 때 하는 양심성찰, 잠자기 전에 하는 양심성찰, 고해성사 때 하는 양심성찰, 월피정 때 하는 양심성찰, 그리고 연피정 때 하는 양심성찰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성찰을 통하여 회헌이 실천되고, 회헌이 글자 그대로 지켜집니다. 그렇지만 아주 훌륭한 양심성찰, 아주 거룩하고 유익한 양심성찰이 있습니다. 곧 우리 자신에 대한 통상적인 양심성찰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열망하는 것, 우리가 말하거나 말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행하거나 행하고자 하는 것에 관한 관찰과 반성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적인 양심성찰은 우리 자신에 관한 반성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별의 별 생각들이 시시때때로 찾아들곤 하지만, 반성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괜찮은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느님께서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 나의 내적 신앙은 살아 있는가? 장상들과 마에스트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수도회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이 일을 잘 하도록 내 지성을 활용하고 있는가? 기도를 늘 염두에 두고 있는가? 이런 저런 일을 잘 하기 위하여 곧 요리를, 서점을, 프로파간다를 미리 생각

52 하고 있는가? 머리를 쓰고 있는가?’ 자, 보십시오. 이런 것이 생각에 대한 통상적인 성찰, 마음과 감정에 대한 통상적인 반성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뱀이 살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교만한 생각,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생각, 호기심을 부추기는 생각, 복수심, 교정을 받은 것 때문에 불쾌해지는 영적 오만, 교정에 대한 반항과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발, 자신의 열망에 대해 집착할 때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성해야 합니다. ‘내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가? 내 마음속에 예수 성심과 성모 성심이 느끼는 감정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내 입장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무엇을 염원하셨을까? 마리아께서 내 처지라면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까?’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먼저 성찰해야 하고, 이러저러한 일을 행하기 전에, 무엇인가 쓰게 될 때, 어떤 장소로 가기 전에, 어떤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저러한 결정을 하기 전에, ‘오늘 이러저러한 것을 할 것이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성찰해야 합니다. 성경은 일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³

말과 행동에 관한 양심성찰과 모든 것에 관한 양심성찰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잘 보십시오. 이것은 통상적인 양심성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관한, 머릿속에 지나가는 생각들에 관한, 마음의 움직임들에 관한,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활동들에 관한 통상적인 깊은 생각, 통상적인 성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에 관해서뿐 아니라 더 많은 것에 관해 성찰해야 합니다. 곧 ‘나는 해야 할 공부를 끝냈는데 잘 했는가?’ 실행한 일들에 관해서도 곧바로 성찰해야 합니다. 곧 방문했던 가정에 관하여, 서적을 권하는 방식에 관하여, 수도원에서 맡고 있는 직책에 관하여, 지속하고 있거나 지속해야 하는, 또는 | 중단해야 하는 서신왕래 등에 관하여 성찰해야 합니다. ‘내가 실행한 그 일이 잘한 것인가? 하느님 앞에서 다시금 그

3. 집회 37,16 참조.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더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 또는 그 일을 다른 식으로 하고 싶은가?’ 등을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속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나 말해야 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생각해야 할 것과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들과 감정들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다음의 사항을 성찰합니다. ‘잘 되고 있는가? 내 생각들, 내 감정들, 내 말들, 내 행동들이 기록했는가? 하느님께서 좋아하셨을까? 나는 공덕을 쌓았는가? 이러한 양심성찰을 통상적인 양심성찰이라고 합니다. 특별 양심성찰과는 매우 다르며, 회헌에 정해진 신심업과 신심실천과도 매우 다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있기 위한 통상적인 성찰과 행한 것에 관한 통상적인 성찰은 꼭 해야 하는 양심성찰입니다. “아, 내가 그에게 말을 건넸지만 그는 나를 그냥 스쳐가네.”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이제 당신의 잘못이 사실로 드러났다. ‘나를 스쳐갔다. …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라고 말하기보다 ‘저의 생각이 옳은가요?’라든가 또는 ‘제가 잘못했습니까?’라고 먼저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만, 분노, 초조, 질투, 호기심에 휩싸이고, 눈, 혀, 미각, 청각 등 감각적 만족에 빠졌었다면, 혹시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감정을 품고 있다면, 감각, 호기심, 상상, 마음, 지성에 굴복하는 것이 왜 악에 동조하는 것인지 성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통상적으로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잘못들을 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뉘우치고 마음 아파하며, 죄를 떨쳐버리려 노력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죄를 짓지 않았다면 훨씬 더 좋은 일이고,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심성찰은 우리 자신에 대한 통상적인 성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말했듯이,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입에서 나가면 모욕과 | 상처를 주게 되고, 사랑에 반대되거나 순명에 반대되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이미 발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됩니다. 먼저 성찰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찰에 도달하는 것, 우리 자신에 대한 이러한 통제에 도달하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동차로 어디를 갈 때 '원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진흙탕에 빠진다면 바깥으로 끌어내면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흙탕에 빠지지 않도록,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행 54 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운전해야 합니다. 운전기사는 늘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운전대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많은 잘못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밤새 1,100킬로미터 이상을 달렸을 때 제가 운전자에게 "머지않아 날이 밝아올 테이므로 이제 멈춥시다."라고 하자 그는 "약간 줄리지만 아직 생생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만 우리가 [진흙탕에] 빠지지 않으려면 잠시 눈을 붙일 필요가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통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양심성찰로 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심성찰이 차츰 습관적인 성찰이 되어 늘 우리가 행한 일에 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에 관해서 성찰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조절해야 합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운전자가 운전대를 통제하고 도로 등을 살펴봐야 하므로 시선을 늘 앞으로 향해야 하듯이, 우리는 지성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것은 힘든 일입니다. 또 마음을 통제해야 하는데 그것도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눈을 통제해야 하고, 청각, 미각, 상상을 통제해야 합니다. 자신을 통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잠시 생각해봅시다. 정말 어려

운 일입니다. 우리는 길들이기 어려운 사나운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성찰에 대한 습관으로 통제의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곧 잠심 속에서 살아야 하고, 기쁘게 살아야 하지만, 차분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잠심 중에 하느님과 일치할 때 슬픔을 느끼거나 입을 삐죽 내밀지 않게 됩니다. 슬퍼하거나 입을 삐죽 내미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잠심은 기쁨인 하느님과의 일치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통제하도록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심성찰을 하지 않고도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능한 일이 아닐뿐더러,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는 잘못에서 마음을 정화해야 하는데 잘못들을 알지 못한다면? 또한 우리는 영혼에 가장 필요한 덕을 갖추어야 하는데 덕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결심과 덕성들을 선택해야 할지 모른다면 어떻게 성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양심성찰에 가장 충실한 사람으로 여긴 사람은 바로 마에스트로 자카르도였음을⁴ 여러 55 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양심성찰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알기도 전에 벌써 자신의 잘못들을 인식하여 그 잘못을 교정하며 덕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수도원에서, 서원에서, 프로파간다에서, 기도 중에, 사도직을 하는 중에 그 일을 잘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만일 깊게 뿌리 내린 결점이라면, 그것에 손을 댄다는 것은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몸이 건강하지만 한 쪽 손에 부상을 입어 붓대를 감은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손, 발, 머리에는 아무리 손을 대어도 아프지 않지만, 부상을 입은 손의 붓대를 풀고 그 상처를 만지면 '아, 아, 아야!'라고 소리칩니다. 아프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

4. 복자 디모테오 자카르도(Timoteo Giaccardo, 1896-1948)는 쿠네오의 나르츨레에서 태어났다. 바오로인 가운데 첫 사제로서, 성바오로수도회의 부총장, 창립자의 가장 충실한 협력자였다. 그는 바오로 가족을 위하여 전력을 기울였다.

람의 그 교만을 건드리는 것은 재앙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을 때, ‘그렇지만 내가 옳았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감각적이거나 감정을 드러낼 때 그것들을 건드리는 일은 재앙입니다! 방어하고, 더욱 화를 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성찰을 충분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양심성찰을 잘 하고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 고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또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제게 해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기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교정할 수 있도록 조언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심성찰은 조언을 잘 받아들일수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우리는 양심성찰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이들의 잘못들 앞에 놓인 가방에서 다른 이들의 잘못들을 주시하고 그것들을 부각시키며, | 그 잘못된 점들을 비판합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의 잘못들은 어깨 너머로 흘러버려서 결국은 그것들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에게 ‘가만, 네 눈에서 티를 빼내 주겠다.’ 하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네가 뚜렷이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⁵ 때때로 우리의 잘못은 아주 무겁고, 다른 이들의 잘못은 훨씬 가벼운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이들의 결점에 대하여 공격적으로 열을 올려 말하곤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결점들은

56 덮어버리고, 감싸고, 방어하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이로써 마음마저 경직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양심성찰이 필요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5. 마태 7,4-5.

충실하게 양심성찰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간에 하는 고해성사든, 월중 고해성사든, 연피정 동안에 하는 연중 고해성사든, 고해성사를 잘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나아갈 때, 심판의 날에 당신께서 저를 알게 해주실 것처럼 제 영혼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날에 제가 성찰하지 않아 생각지 못한 수많은 결점과 많은 소죄들이 외부로 드러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 모든 잘못들을 무덤까지 짊어지고 가지 않도록 해주소서! 주님, 그 잘못들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들을 미워하도록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만일 제가 그 모든 잘못을 교정할 수 없다면, 적어도 제가 그 잘못들을 미워하게 해주시고, 고의적으로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며, 당신께 상처를 드리지 않게 해주소서.” 그런데 만일 잘못들을 소홀히 여긴다면 고의적인 잘못이 되어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차츰차츰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이러한 잘못들이 쌓일 것이며, 그러한 잘못들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잘못들도 뒤를 이을 것입니다.

‘양심성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양심성찰을 소홀히 한 사람은 적어도 아침 예비성찰을 하도록 해야 하고, 이어서 성체방문 때와 저녁 기도 중에 더 긴 성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본적인 결심에 관한 양심성찰이 있고, 하루의 모든 의무에 관한 양심성찰이 있습니다. 특히 성체방문 동안에 모든 것에 관해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이 말은 신심에 관하여, 면학에 관하여, 사도직에 관하여, 청빈에 관하여, 좋은 교육에 관하여, 가족적인 아름다운 공동생활에 관하여 성찰해야 하고, 모든 것에 관하여 성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일같이 | 주님, 저는 악에 떨어지거나 악을 일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유되기 위해 병원을 찾고자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주님,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알고, 제가 범할 수 있는 위험을 알게 되는 은 57

총을 주십시오.’ 하고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과거의 죄를 슬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도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하며, 같은 잘못에 고의적으로 다시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연약함으로 우리는 자주 잘못을 범하겠지만, 적어도 그 잘못들을 미워하며, 크고 작은 일에서 결코 주님께 상처드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덕을 실천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합시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 통상적으로 양심성찰을 하는 사람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몸에 밴 잡심과 계속적으로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통제하는 성찰에 도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수도자는 서서히 그러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수도자는 훨씬 많은 영적 도움을 받고, 더 많은 신심을 실천하며, 수도성소에 따르는 더 많은 은총을 받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잘 정돈된 자신들의 내면이 보이지 않지만 깨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좋은 생각들 곧 신앙, 사랑, 인내, 순명에 상응하는 아름다운 생각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심, 겸손, 관대함, 순수함, 검소함, 하느님께 대한 신뢰, 성성에 대한 열망 등 정말 좋은 감성들을 지녔으며, 더 나아가 말과 행동에서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수도자는 여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성찰과 습관적인 잡심에 이르는 것은 대단한 성성이 전제됩니다.

운전에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면 면허증을 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이끌어야 하기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수도생활 실천과 덕을 쌓는 일에 소홀함과 결점을 [지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필요한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 이 은총은 위대합니

다! 자신의 혀를 결코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입만 열면 무질서한 말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한 말들은 무질서한 내적 감정과 무질서한 생각을 반영합니다. 혀는 속으로 느끼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발설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이 은총을 청 58 하는 한편 결코 양심성찰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양심성찰은 일이 많을 때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매우 바쁠지라도 잠시 멈추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하는 것에 관하여 성찰해야 합니다. 성인들은 여러 가지 많은 일 속에서도 진지했고, 성찰을 잘 하였으며, 결코 성급하지 않았습니니다. 한없는 지혜로써 말씀하시는 천상 스승의 모습은 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늘 천상 성부와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잘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은총을 청합시다. 통상적으로 성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끝나 버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일 어떤 사람이 마음의 통제력을 잃게 되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을 향한 사도직에 대한 사랑도 더는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을 통제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조언을 구해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충고들을 기꺼이 수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면 우리는 성화를 향한 큰 걸음을 떼어놓는 것이고, 덕성을 향해 크게 진일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해성사를 잘 받게 될 것입니다. 곧 우리의 덜 중요한 사항들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사항들을 건드리게 되고, 아무런 결실도 가져다주지 못하는 말들을 길게 늘어놓는 고해성사가 아니라 큰 결실을 가져다 줄 잘 준비된 고해성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될 때 수도생활은 계속적으로 진보를 거듭할 것입니다. 이러한 바오로딸들은 유기서원기에서 종신서원기로 넘어갈 것이고, 종서서원 후에 몇 년 동안 몸예 밴 잠심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며, 덕성과 은총에 진보하며, 자매들에게 모범이 될 것입니다. | 그리고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공덕과 가치를 쌓아갈 것입니다.

IX. 양심성찰(2)

59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능력 범위 안에서 여러분을 활용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경우 [일반적인 길]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성사들과 장상들을 통해서 은총을 전달하실 뿐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도 은총을 보내주십니다. 따라서 많은 은총이 성사들과 교계제도를 넘어 [허락된다는 것은] 그다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신뢰를 늘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우리 또한 우리를 이끄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수도생활을 잘 살아야 하며 면학에서, 매일의 삶에서, 기도에서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사람들을 위해 이익이 되는 활동에 우리를 활용하십니다.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 한 가지 기도를 전해 받았는데, 이 유일한 기도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나다Magnificat anima mea Dominum.'입니다. 다시 말해 감사기도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바로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를 창조하시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고, 이 수도회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수도회 안에서, 다시 말해 성바오로딸들 가운데 우리가 받은 수도성소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수도성소는 주님께서 한 영혼에게 베푸시는 세례성사 다음으로 큰 은총입니다. 곧 성성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성소를 받았고, 성성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완덕의 삶을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회현의 첫 조항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도회의 목적은 하느님의 영광과

회원들의 성화 또는 완덕이다.”¹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² 그리고 여러분은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성을 향한 성소입니다. 완덕과 성성은 |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특별한 공덕이 덧붙여집니다. 그러므로 아주 높은 성성을 향한 성소는 사도직을 통해 성성을 향하는 성소입니다. 성 마태오께서는³ 천상 스승의 설교를 인용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⁴ 그 이유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실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위하여, 다시 말해 사랑을 위하여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

60 야 하겠습니까? 우리 영혼을 성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성화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쁜 것을 없애고 좋은 것을 간직하는 것, 결점을 없애고 덕을 취하는 것입니다. 자애심을 버리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처하기 위해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더럽고 기물이 파손되어 있고, 쓰레기가 널려있다면 제일 먼저 청소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제일 먼저 우리 영혼을 청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당[이 되기 위해 선택된] […] 방을 장식할 것이고, 가능한 한 그곳을 가장 잘 꾸미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제대를 마련하고 감실을 준비한 후 예수님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도자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곧 결

1. 「성바오로딸수도회 회헌」 1953년판.

2. 마태 19,21.

3. 원문에는 성 요한으로 되어 있다.

4. 마태 5,19.

5. 원문에는 ‘그리고 만일 그 어떤 방에 대해 다룬다면’(…e se poi trattate di una camera che sia)으로 되어 있다. 꺾쇠괄호 안에 옮겨진 표현.

점을 없애야 하고, 덕스러운 영혼을 찬양하며, 마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Vivit vero in me Christus.”⁶ 라는 말씀을 새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양심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결점들을 없애기 위한 훌륭한 양심성찰, 우리에게 필요한 사항들, 우리가 쟁취해야 할 덕성들, 우리가 실행해야 할 결심들을 보기 위한 훌륭한 양심성찰에 대한 이해입니다. 양심성찰에서 우리가 진보하고 있는지 진보하지 못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심성찰은 바오로적 삶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삶을 잘 영위하고, 바오로적 삶을 잘 살도록 해주는 세 가지 신심실천 중 하나입니다. 세 가지 신심실천이란 성찰과 묵상과 지극히 거룩한 성체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원자가 | 양심성찰과 묵상과 성체조배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배우지 못했다면, 곧 이러한 신심실천을 확실하게 이행하는 습관을 들이지 못했다면 서원을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회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⁷ 그러므로 이러한 관습이 전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배우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말은 적절치 못합니다. 그것은 ‘여보세요, 의료 사업을 시작하여 61 환자들을 검진하러 가십시오. 후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공부할 것이라고요?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들을 치료하는 대신에 그들을 죽게 만들 것입니다. 먼저 [이를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순간 동요하게 되고, 수도생활에 싫증을 느끼며, 지치게 되는 성소는 양심성찰과 묵상과 성체방문의 신심실천을 충분하게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6. 갈라 2,20.

7. 「성바오로딸수도회 회헌」 1953년판 196조 참조.

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 반대로 “먼저 준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너무 서둘러 사제로 서품하지 말라고⁸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의미와는 다른 의역이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너무 선뜻 서원을 허락하지 말고, 먼저 준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양심성찰,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먼저 아침에 하는 예비 양심성찰이 있습니다. 곧 하루의 어려움들을 미리 내다보아야 하고, 결심들을 상기해야 합니다. 만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수첩에 메모해둔 것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하루를 위한 결심을 하고, 영성체에 임해야 하며, 덕행으로 힘을 얻기 위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체 방문 때의 성찰, 곧 근본적인 성찰이 뒤따릅니다. 성체방문에서는 일반적인 양심성찰로 차분하게, 더 길게 합니다. 저녁에 바치는 양심성찰이 있습니다. 이 양심성찰은 특별한 양심성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운 결심에 관한 양심성찰로, 특히 지성, 마음, 의지에 관련되는 특별한 결심에 대한 양심성찰입니다.

그다음으로 고해성사를 위한 양심성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해성사는 양심성찰과 속죄와 결심을 위해 유익합니다. | 그러나 유익함은 고해성사에 드는 시간에 비례되거나 많은 말을 한 것에 비례되지
62 는 않습니다. 진보해야 할 사람은 고해사제가 아니라 고백자입니다. 따라서 영혼에게 필요한 것은 양심성찰과 잘못에 대한 통회와 미재를 위한 확고한 결심입니다.

그다음으로 그 달 전체에 관한 월피정의 양심성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피정을 하는 동안 하게 되는 연중 양심성찰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영혼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결점들과 자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하느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런저런 덕성을 습득하고, 하느

8. 1티모 5,22 참조.

님과 일치하여 살기 위해 결심을 세웁니다. 잘못된 점을 알아내어 그것을 단죄한다면 우리는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단죄 받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했기에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성찰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단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양심성찰의 첫 단계는 약간 피상적입니다. 이러한 단계의 영혼들은 지성이 일구어내는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 마음을 지배하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기 위하여 자기 내면을 살펴야 하는 작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들에 관해, 행동에 관해 개괄적으로 대충 훑어보는 것으로 만족하므로 뿌리 근처에는 가지 않는 사람들과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의 뿌리는 잎사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아래 땅속에 있으므로 캐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애심을 없애고, 그것이 다시 자라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외면을 바라보고, 하느님께서 제일 먼저 내면을 바라보십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보지만, 하느님께서서는 마음과 지성을 바라보십니다. 피상적인 사람들은 양심성찰에서 악의 뿌리를 없애려 하지 않고, 자기 욕정을 없애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성은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기에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무익한 호기심을 [일구어 놓으며], | 사랑, 인내, 순명 등에 반대되는 생각들로 이루어진 수많은 잘못을 [키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우선 먼저 사고에 대해 양심성찰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으로 마음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선하고 경건하며, 신심과 겸손, 친절과 사랑의 감정, 섬세함과 관대함 63 등의 감정뿐 아니라 교만과 야망, 순명에 저항하고 뜻을 굽히지 않으며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느님

계 대한 사랑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목표로 삼지 않을 때 우리의 내적 감정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성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겸손의 행위가 아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⁹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 겸손, 내적 온유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절의 표시, 외적인 아름다운 미소로 충분하지 않고, 참으로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에서 얼마나 자주 바리사이들을 대면하시며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실제로 그들은 나쁜 말을 하거나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의 생각을 읽으셨으므로 당신에게 반대되는 말을 하기까지 기다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Videns cogitationes eorum*, ‘너희는 어찌하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느냐?’”¹⁰

우리가 성당에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서는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장궤를 잘 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십자성호를 잘 긋는다면, 우리가 큰소리로 기도를 바친다면, 공동 기도에서 잘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큰 소리로 바친다면 아주 잘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우선 성당에 들어가는 그대에게, 그대의 마음에, 그대의 정신에 눈길을 주십니다.

양심성찰의 두 번째 단계는 제가 상기시켜드린 실천사항들을 잘 이행하는 것입니다. 곧 예비성찰, 성체방문 때의 성찰, 저녁기도 때의 성찰, 고해성사를 위한 성찰, 월피정 때의 성찰, 연피정 때 하는 연중 성찰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실천사항들을 잘 이행하고, 사고에

9. 마태 11,29.

10. 마태 9,4.

대해,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 충분히 [성찰하는] 사람들은 충분한 자격을 갖춘 신자들입니다. 이러한 단계의 양심성찰은 영혼들을 발전 도상에 올려놓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관한 회헌 조항과 모원에서 제시하는 지침들을 잘 지킬 때 이미 그 길을 잘 걷기 시작한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64 [...]¹¹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의 결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자신에 관한 통상적인 성찰에서 두 가지 사항을 얻기 위해 습관적으로 잠심해야 합니다. 곧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내가 잘한 것인가, 그렇지 못한 것인가?’를 성찰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어떤 구상을 하기 전에 ‘이 생각을 하느님께서 좋아하실까? 신앙적인가? 어떤 수녀를 위하여, 성녀가 되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을 위하여 좋은 생각인가? 교리, 회헌을 공부하면서 지성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사도직에 관련된 연구와 서적들에 대한 다양한 서평, 요약, 도서목록 등을 알아가면서 지성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사도직 분야에서 한층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가?’ 등을 자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다가가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의 현존이 그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하도록 주님께 청하는 은총이 됩니다. 모든 것을 함께 아파하고, 좋게 받아들이며, 잘못을 용서할 줄 알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대하는 수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는 은총입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농담을 통해 서라도 삶에서 친근함과 기쁨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수도생활에서 기

11. 원문에는 ‘이 두 번째 단계는 마치 두 번째 계단처럼 세 번째 단계로 올라야 합니다.’(*Questo secondo grado è come il secondo gradino, dopo questo, salire al terzo*).로 되어 있다.

쁨과 즐거움을 씨 뿌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족적인 삶이 천국의 대합실처럼 모든 것이 즐거움이요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즐거운 가족 안에서 수도생활은 사랑과 자비와 협력을 창출하며 서로 격려함으로써 고통과 고생, 노고와 결핍까지도 기꺼이 감수하게 됩니다. 이는 성 바오로께서 “여러분은 | 믿음이 자라나도록 모든 이로운 것들을 버렸을 뿐 아니라 고통과 고생, 노고와 결핍도 기꺼이 함께 견디어내며 기쁨으로 일치하였습니다.”¹²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일본에서 많은 가정들이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를 통하여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여 박해시기에도 그리스도교에 충실하였으며, 급기야 집과 전답과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마침내 총처럼 노예상태로 전락하고 마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신자로 남아 수세기에 걸쳐, 세대를 거듭하여 그러한 핍박을 견디어냈던 것입니다.¹³

그뿐 아니라 수도원 안에서 발산하는 가족적인 기쁨은 고통과 기쁨, 성화와 사도직에서, 그리고 모든 일에서 서로 협력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다음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성찰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하느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안타까워하실까? 예컨
65 대, 하느님 뜻에 선뜻 응하지 못하고 이렇듯 버티는 것에 대해 주님께 서 좋아하실지 안타까워하실지에 대한 성찰입니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고집스런 감정을 지녀도 되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에, 곧 지성과 마음이 허용할 수 있는 것에 관해 성찰해야 합니다.

12. 2테살 1,3-4 참조.

13. 프란치스코 하비에르(1506-1552)는 스페인의 예수회 사제로서, 인도와 일본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였다. 일본에서 수차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 개종자들의 숫자는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 일본 정부는 1614년에 그리스도교를 결정적으로 금지하였으므로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교회가 와해되었다. 그럼에도 선교사들은 19세기에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옛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후손들이 건재하고 있었다.

숙고: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은 과연 잘 생각한 것인가? 성모님이시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성인들도 그렇게 하셨는가?’ 만일 양심에서 그렇다고 말해준다면 말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말하지 맙시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그리고 행하기 전에 성찰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일을 중지하는 것을 주님께서 좋아하실까?’ 그리고 프로파간다에 관한, 서원 봉사에 관한, 자매들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나의 처신을 주님께서 기꺼워하시는가? ‘내 영혼을 위하여 가치 있는 일인가? 영원을 위하여 나에게 필요한가? 공덕을 얻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해야 하는가?’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성찰은 하느님의 심판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렇게 행하는 한편, 특히 그 이후에 다시 성찰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행했어야 하는 것을 잘 행했는가? 나는 과연 명령을 내린 사람의 뜻, 지시를 내린 사람의 뜻과 그분의 생각을 파악했는가? 좀 더 잘 행할 수 없었을까?’ 만일 잘 행했다면 ‘하느님께 감사Deo gratias!’할 일입니다. 만일 부족했다면, 실수할 수 있는 일이 늘었기 마련이기에 ‘나의 예수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청해야 합니다. 비록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더 잘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장 다음과 같이 말합시다. ‘만일 제가 무엇인가 잘 완수했다면 그것을 받아주시고, 범한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해주십시오.’ 라고.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 좀 잘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바칩시다. 이 약간의 잘한 일은 수호천사가 모아다가 영원의 문 앞에 보관할 것입니다. 오늘 약간 잘한 일, 내일 약간 잘할 일, 한 달 사이에, 일 년 사이에, 삶 전반에 걸친 잘한 일을 모아보면, 마지막에는 상을 받을 만
66 큼 많은 공덕이 쌓일 것입니다. 각자는 “자기 행실대로secundum opera sua”,¹⁴ 다시 말해서 자신의 공덕에 따라 그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14. 묵시 22,12 참조.

이것이 양심성찰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것에 관해 미리 생각하며 성찰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단계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가 행하였는지 성찰하고, 생각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단계입니다.] 늘 자기 자신에 대해 [깨어 있고], 늘 주의 깊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운전대를 잡을 줄 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시험을 치러야 하고, 운전자를 위해서 그리고 행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도로 교통법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자동차에 이상이 생긴다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자는 운전대를 잘 잡고 있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아야 합니다. 가끔 특히 교통이 혼잡할 때 [자동차를] 제대로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이끈다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생각들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다스리기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약간 흐려진 마음, 환상, 험, 시각, 미각, 청각, 촉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어디에서든 다스려야 합니다. 성당에서, 길을 가다가, 프로파간다에서, 서원에서,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있을 때,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아침 기상 시에,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생각으로 하루를 마쳐야 하는 저녁 시간에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늘 우리 자신의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늘 우리 자신을 조절해야 합니다. 어떤 운전자가 길에서 잠깐 졸다가 벼랑으로 떨어진다면 그가 어떻게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하겠습니까? | 그와 마찬가지로 만일 우리가 자신에 대해 깨어 있지 못한다면, 여기저기서 실수가 터질 것입니다. ... 만일 혀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하루 동안 적합하지 못한 수많은 말을 지껄이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입을 열기만 하면 무슨 말이든

튀어나오고, 되는대로 뱉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일 혀를 억제하지 못한다면 말한 직후에 늘 통회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려줍니다. “네가 해야 할 것과 말해야 할 것을 반성하고 생각하라. 네가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반성하고 생각하라.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것과 잘 생각해야 하는 것,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반성하고 생각하라.”¹⁵ 반성하는 습관은 아침에 하는 예비성찰, 성체조배 때의 성찰과 저녁기도 때의 성찰에 충실할 때에 얻어지는 결실입니다.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신속하게 행하는 은총을 받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 법이기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자신을 조절하고, 자신을 지배하기에 이릅니다. 언제나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거나 마음이 산란해도 들뜨지 않고, 늘 깨어있으면서 거룩한 말과 결심을 지속시킵니다. 우리는 어떤 시점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 반성합니까? 우리 자신을 통제합니까? 우리가 행한 것이나 생각한 것 또는 마음속에 느낀 것을 성찰합니까? 우리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양심성찰을 잘 하지 않을 때 만일 다른 이들이 자신의 결점에 대해 말을 하게 되면 무척 놀라워 합니다. 그러나 양심성찰에 습관을 들인 사람이라면 ‘불행하게도 저는 이러한 결점을 지니고 있으며, 아직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지만,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할 것입니다. 양심성찰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은 그 결점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고, 변명을 늘어놓을 뿐 아니라, 가끔은 확실하지도 않은 덕을 빌미로 그 결점을 감추고자 합니다. 또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이들에 대해 더 성찰하고, 다른 이들의 결점들을 떠벌리고 다니며, 자신의 결점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자매와 함께 있으면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자매

15. 집회 31, 15 참조.

의 결점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또 다른 자매와 함께 있을 때는 그대의 잘못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잘못들은? 그런 것들은 망각 속에 던져버립니다.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현명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심판대에서는 다른 이들이 행했거나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찾아본 가장 유익한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주님, 제가 당신 앞에 나아가는 순간에 저 자신을 알게 하십시오. 지금 제 영혼 상태를 알게 해주십시오.’ | 주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을 모든 것을 혐오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심판하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단죄하는 사람은 주님께 단죄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 양심성찰을 잘 하는 것, 잠심에 익숙해지는 것,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습관적인 통제에 도달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반드시 그러한 단계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토리노의 주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사제들과 저도 거기에 참석했었는데, 작고하신 알바의 주교 레 몬시놀에¹⁶ 대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토리노에서 선종하셨는데, 현재 시복 절차가 시작된 코톨렌고 수도회의 어느 거룩한 사제가¹⁷ 몬시놀에 대해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피에몬테의 주교님들 모임을 수차례 도왔지만, 레 몬시놀께서는 교의에 관한 어려운 주제를 토론하는 석상임에도 마치

식탁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 말씀하시듯 하셨으며, 적절치 않은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 성찰 하였습니다. 그렇듯 몸에 밴 잠심, 우리 자신에 관한 습관적인 통제는 하나의 영웅적인 행동입니다.

16. Mons. Giuseppe Francesco Re(1848-1933)는 알바의 주교로서 바오로 가족 안에서 귀중한 역할을 하였다.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그분이 선종하셨을 때 이렇게 쓰셨다.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사랑하셨던 성바오로수도회를 추천하셨고, 인도하셨고, 승인하셨습니다.”(CVV 26 참조)

17. 아마도 가경자 프란치스코 팔레아리(Francesco Paleri, 1863-1939)를 말하는 듯하다. 그는 40년 동안 토리노 신학교에서 영적 지도를 하였다.(역주: 1998년 4월 6일 가경자로 선포되었고, 2011년 9월 17일 복자로 선포되었다)

X. 목주기도의 일반적인 결실

우리는 미국에서 위안을 받으며 좋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전했어야 할 은총, 평온, 좋은 모범을 전달했는지 생각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기도를 바쳐야 합니다. “겸손한 정신과 뉘우치는 마음으로 당신께서 저희를 받아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In spiritu humilitatis et in animo contrito suscipiamur a Te, Domine...*.”¹ 또한 한편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인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과 다른 한편으로 간청드리는 저희를 받아주시도록 기도드려야 합니다.

한층 초자연적인 정신을 지녀야 합니다. 다시 말해 더 굳은 신앙, 하느님께 대한 더 큰 신뢰, 더 깊은 겸손을 지녀야 하는 한편, 하느님의 온순한 도구가 되기 위하여 더 굳건한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 그리하여 이 나라에서 이루고자 하는 위대한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마리아께 더욱 일치하는 한 달을 보낼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목주기도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마리아를 찬송합니다 *Magnificat anima mea Mariam.*”² 그리고 성모님의 충고에 한층 더 온순해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모범을 따름에 있어서 한층 더 충실하고, 그분의 자비에 한층 더 신뢰를 가져야 하고, 한

1. 1929년의 로마 미사경본에서 인용한 봉헌 기도(향을 치고 손을 씻기 전에 바치는 기도). 본래의 기도문은 다음과 같다. “겸손한 정신과 뉘우치는 마음을 통하여 저희를 받아주셨으니, 주님, 그와 같이 오늘 당신 앞에 드리는 저희의 희생제사가 완성되어, 당신께서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느님.”
2. 1935년 5월 1일자 「성 바오로」지에 게재된 찬미가 제목으로, 루카복음의 찬가(루카 1, 46-55)를 모델로 삼아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라틴어로 작성하였다. (CISP39 참조) FSP 33**, p. 120도 참조. 「우리의 희망이신 마리아 *Maria nostra speranza*」, ed. 1938, pp. 331-342.

층 더 그분의 정신을 지녀야 하고, 그분의 눈길 아래 우리의 사도직을 69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거룩한 것들을 향해 더 높이 고양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생각해야 하고, 언제나 이것을 위해서, 다시 말해 천국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목주기도는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을 얻게 해줍니다. 곧 우리의 삶을 초자연화하고, 그것을 위한 삶을, 다시 말해 하늘나라에 대한 준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데 방해되는 것을 없애야 하는 한편, 천상 성부께서 당신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 영원한 잔칫상에 앉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그 혼인잔치의 예복을 입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층 더 초자연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진 15단의 신비를 묵상하게 하는 목주기도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환희의 신비는 우리에게 기쁜 일들을 묵상하게 합니다. [고통의 신비는] 우리에게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그리고 우리가 저 아래에서 완수해야 할 노고들, 우리가 해야 할 희생을 숙고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으로 [영광의 신비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복을 관상하게 합니다.

이 지상에서는 좋아하는 일들과 좋아하지 않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지만, 하느님의 정신을 지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 일들과 좋아하는 일들을 성화시키며, 모든 것에서 공덕을 발견합니다. 하늘나라가 평화로워 그들의 모든 열망, 그들의 염원이 그들의 관점에 따라 이루어질 때 기뻐하며 열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폭풍이 일 때, 낙심하게 될 때의 상황들은 우리의 관점과 정반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하느님께 속한 것에서 한 치밖에 안 되는 곳을 멀리서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이끌 수 있는 체하지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

끌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에 좌초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 비록 우리 관점에 따르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취향에 맞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라도 그분께 인도되도록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고하기에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믿습니다.

부활절 저녁 엠마오의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그들의 마을로 돌아가기 위하여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낙심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들이 따르던 스승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열정이 환각현상으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패배자의 마음을 지닌 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어 그저 길을 가는 보통 행인인 체하시며 그들과 동행하고 싶어하시는 듯한 모습으로 그들과 합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

70 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나?’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알려 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굵뜨냐? ...’³ 예수님께서서는 필요한 때에 엄하게 말씀하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가르침은 뒤이어 하신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⁴ 보십시오, 그분의 가르침을!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서는 예언서를 인용하시며, 어떻게 이 일이 예언되었는지를 그 두 사람에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고통을 통하여 설교 하였고, 세상을 구원하셨으며, 마침내 하늘나라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곧 우리는 이런저런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앞에 이런저런 길이 놓일 수 있는데 각자는 자신의 성소, 자신의 직무에서 어려움, 유혹, 오해, 실망, 육체적인 고통과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이해해주는 사람들, 기도으로써 우리를 동반하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리에게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위로를 받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것들은 환희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입니다. 하느님의 손 안에 하나의 목적, 곧 그대가 성녀가 된다는 목적에서 늘 좋고 기쁜 사건들이면서 또한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건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서는 그대가 당신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환희의 신비, 곧 강생의 신비를 [관상하면서] 마리아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하여 고통의 신비, 곧 예수님이 동산에서 느끼시는 임종의 고통을 [관상하면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의 신비 제1단에서는 다른 이들이 따랐고, 근본적으로 천국을 열어주는

3. 루카 24,13-25.

4. 루카 24,26.

[부활]을 [관상하면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직 수행과 우리가 숙고해야 할 다른 일들이 많은 경우 신비들을 하나하나 잘 묵상할 수 없지만, 적어도 15단의 신비에 대한 일반적인 결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영광에 도달하기 위하여 이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식은 저 높은 곳에 있고, 우리가 받을 상은 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곧 영원한 상급입니다. 삶은 오로지 하나의 과정이요, 모든 사람은 여행중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여정을 잘 걷는다면 영원한 천상 영광에 도달할 것이요, 천상 예루살렘인 그 위대한 도시에 [이를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마리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성 바오로, 천사들, 성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보상을 위하여, “의인들이 저를 둘러싸리이다 Me expectant justi.”⁵

하느님께 대한 가장 큰 사랑은 늘 천국을 향한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곧 우리의 발걸음, 모든 호흡, 모든 프로그램, 모든 말씀, 모든 염원, 모든 움직임, 모든 행동이 오직 천국을 위해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Cupio dissolvi et esse cum Christo.”⁶ 성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염원합니다. [그곳은] 지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곳이요, 그 어떤 사람도 결코 맛보지 못했으며, 그 어떤 사람도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 어떤 사람도 이 지상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것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곧 목표를 잘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잘하였다, 착하고 성실한 좋아!

5. 시편 142[141], 8(불가타) 참조.

6. 필리 1,23.

네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내가 너에게 많은 일을 맡기겠다^{supra multa te constituam.}”⁷고 선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입구에서 천사들, 성인들, 마리아, 예수님, 지극히 거룩하신 성삼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환희와 축제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들로서, | 우리의 삶이 끝나면 영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영원은 나날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거나, 해가 거듭되는 것이 아니라, 늘 현재가 지속되는, 현재만 있을 뿐입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는 환희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에 관해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기쁜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슬픈 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이 부족하여 이해하지 못하므로 자주 ‘나는 행하기를 원하고,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나는 금년에 이것을 할 것이고, 다른 해에는 저것을 할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손에 의해 인도된 삶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프로그램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구원의 수단들입니다. 감실, 성체신심, 마리아 신심, 바오로 신심, 성소, 수도생활, 사도직, 그리고 침대, 식탁, 자매들, 친구들, 원수들마저도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질병, 건강, 유혹과 좋은 열망도 성화시켜야 합니다. 유혹을 이기고 열망을 따르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공덕을 얻게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이익을 찾으려 노력하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협상가들과도 같습니다. 아, 어떤 훌륭한 히브리인이 말하기를, 무엇인가를 행하고 교역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늘 자극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곳에서 무

7. 마태 25,21.

엇인가를 자극해야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은 열심히 움직였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생애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유에서부터 성부의 손에 당신 영을 맡기시어 숨을 거두시기까지 무엇을 하셨습니까? 당신의 기도는 언제나 아주 강렬했습니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⁸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 삶의] 사건들이 모두 기뻐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기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주 기쁜 삶을 사셨습니다. 천사의 탄생 예고, 아기 예수의 기적적인 탄생, 수년 동안 나자렛 집에서 예수님의 동반자로 지낼 수 있었던 은총, 대단히 지혜롭게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는 일 등. 반면에 고통스러운 신비들도 있습니다. 사형에 처해진 그분을 보는 일, 갈바리아로 향한 여정, 십자가, | 임종의 고통, 무덤, 그리고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원수들 등. 이렇듯 모든 일이 환희에 찬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좋으신 분이요, 아주 좋으신 분이시지만 고통과 위로가 섞여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고통만 아니라 위로도 주시는데, 그 위로는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일하며, 우리 자신을 곧 시각, 청각, 혀, 그리고 마음의 감정 등을 부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느님으로 인해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화관을 위해 노력하지만,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아침에 우

리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루 종일 우리의 화관을 위해 일하며,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서 귀중한 보석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의 여러 가지 사건들에서 참된 희열,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저 높은 곳에 우리 마음을 두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묵주기도의 일반적인 결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천국의 문으로 나아가야 하고, 거기서 우리 영혼과 예수님 사이에서, 영원한 서원, 끝이 없는 서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은 정말 많은 은총을 가져다주지만, 그 은총은 특히 가장 근본적인 은총입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을 바라야 합니다! 마리아께 한층 더 일치합니다. 마리아께서 우리의 지성에 한층 더 거룩한 생각, 한층 더 높은 생 73 각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8. 요한 11,41.

I. 좋은 모범¹

모두에게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 멕시코는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대단합니다. 이 신심은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줍니다. 그 희망은 첫째로 성소자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들을 부지런히 돌보는 책임자들에게 성소자들이 잘 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각자가 더 거룩하게 되고, 죄를 두려워하며, 바오로적 삶을 잘 살고, 마리아의 보호 아래 사도직을 잘 수행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번 방문은 교회법적인 방문이라고 할 성격은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회법적인 방문에는 | 교회법과 회헌이 토대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우리의 방문은 가족적인 것으로, 우리는 책임자들과 지원자들과 수련자들 사이에서 긴밀하게 소통이 이루어짐을 보았고, 교회법적 규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권고가 주어졌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법은] 내적 열정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성인이 되고자 하는 의지야말로 내적 열정입니다.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74 이 며칠 동안 프리마 마에스트라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그 말씀을 보화처럼 여기며, 용기를 가지고 매일 매일 평화롭게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더욱더 향상되어야 하지만, 여러분은 길을 잘 걷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점들이 있으므로 모두가 늘 결점들과 죄를 멀리해야 할 과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도원에서 죄는 악마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합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죄를 몰아내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과 나쁜

1. 이어지는 여섯 차례의 묵상은 멕시코에서 행한 것이다.

본보기, 스캔들은 수도원에 불을 지르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좋은 모범을 줄 때, 기도할 때, 그리고 모두 함께 발전을 위하여, 사도직을 위하여 일치할 때 수도회를 건설하게 됩니다. 우리의 수도원은 벽돌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 수도원은 수도 생활을 [잘 살] 때, 그때 존재하게 됩니다. 교회법에² 따르면 정상적으로 형성된 분원case formate과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분원case non formate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는 비록 두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분원이라도 이 회원들이 정말 충분히 일치해 있고 발전하려는 똑같은 의지로 활성화되어 있을 때 정상적으로 형성된 분원인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열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분원이더라도 오른쪽 왼편으로 서로 갈라지고, 누군가 자극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형성된 분원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정신에 따라 형성된 분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원이 좋은 뜻을 가진 회원들로 구성되었다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매일 발전하며, 진정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하느님의 소유가 되려는 의지가 성장합니다. 그런 다음 천국을 바라야 합니다! 언제나 좋은 모범을 주어야 하고, 머릿속에 천국을 새겨두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늘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도록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당신 자애에 따라Secundum magnam misericordiam tuam”³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님, 일반적인 자비에 따라 저희를 불쌍히 여기지 마시고,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는 큰 자비를 바랍니다!

2. “적어도 여섯 명의 서원자로 구성될 때 분원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교회법전』〈1917년판〉, can. 488,5° 참조)

3. 시편 51,1.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은총의 증가를 가져다주는 자비를 원합니다.⁴

II. 묵상

모든 나라에는 좋은 특성과 좋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나라마다 그 나라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에게는 교육열과 의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성과 용덕에 마음써야 합니다. 한편 이곳은 일종의 신심, 종교적 감각을 지니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의지를 강화하는 한편, 지성을 한층 더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신심실천, 곧 묵상, 양심성찰,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성체 방문을 잘 이행해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신심실천을 잘 이행함으로써 다른 신심실천들도 잘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곧 묵주기도, 미사, 영성체, 고해성사 등의 신심실천입니다. 우리의 신심이 단지 감정에 그친다면 가치가 없습니다. 그 세 가지 신심실천으로 여러분은 의지가 강화되고, 지성이 한층 더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 신심이 빛을 받게 되고, 확신이 선행된다면 신심이 큰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흠숭은 제일 먼저 지성을 통하여 “영과 진리 안에서 in spiritu et veritate”¹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와 같이 신심을 묘사하셨습니다. 영spirito 또는 마음의 감정, 좋은 뜻, 그러나 제일 먼저 지성mente입니다.

이제 첫 번째로 묵상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묵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기도요, 특히 지성을 통하여 행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는 지성과 목소리로 바치는 염경기도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노래를 부를 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 않고 단지 악보를 따라 아름다운 소절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면에 신앙의 영spirito, 신심의 정신spirito으로, 말씀이나 노래를 통

1. 요한 4,23.

4. 곧 돌아올 예정인 마에스트라 바울라에게 부탁한 미국의 자매들을 위한 ‘프리마 마에스트라’의 인사로 묵상을 끝마쳤다. “마에스트라 바울라가 저의 모든 안부와 멕시코의 바로 딸들의 안부를 모두에게 전해줄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일치되어 있고, 언제나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성녀가 되기 위하여 거룩한 경쟁을 합시다. 우리가 늘 일치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참고 견디며, 서로 도와주고, 천국 저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 서로 기도하도록 노력합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늘 함께 머물 것이고, 언제나 축제를 지낼 것입니다! 모두에게 큰 성성을 이루도록 열심히 기원합니다.”

해 표현되는 감정들을 안으로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무엇보다 지성을 지배하기에 정신적인 기도입니다. 묵상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묵상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지를 강화하고, 의지를 견고히 하는 것, 다시 말해 성령의 선물인 용기를 얻는 것, 그리고 사추덕 중 하나인 용덕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묵상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것처럼 30분간의 기도를 해야 하고, 연피정의 결심에서, 고해성사의 결심에서, 아침의 결심에서, 다시 말해 예비성찰의 결심에서, 월중 결심의 뜻을 강화하려는 지향이 있어야 합니다. 묵상은 마음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무엇이든 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원에 충실하기를 청하고, 계명들을 지키고, 결심들을 실천하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 없이 묵상하러 가서는 안 됩니다. 묵상을 잘 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전날 저녁에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일 나는 죽음에 관하여 묵상할 것이며, 잘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하고 싶다. 내일 나는 겸손에 관해 묵상할 것이며, 30분 간의 기도로 이루어질 묵상에서 주님께 겸손을 청할 것이다. 특별한 사항에 대한 겸손, 예를 들어 순명에 필요한 겸손, 자매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겸손을 청하고자 한다.’ 등등. 언제든 특정한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상이 가져다줄 결실을 얻지 못하거나 완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묵상에 임하면서 어떤 책을 펼쳐서 거기에 담긴 내용을 계속해서 읽기만 하고, [청해야 할] 특별한 은총이 없다면, 약간의 결실, 또는 아무 결실도 없이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결심에서, 거룩한 서원에서, 그리고 계명과 회헌 준수에서 의지를 강화시키며 결정적인 결실을 가져와야 하는 기도입니다. 묵상은 피상적으로 할 수도 있고, 깊은 생각과 깊은 관념을 통해 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책을 선별해야 합니까? 우리 상황에 더 적합한 책들을 선별해야 하고, 잘 선정해야 합

니다. 그러므로 바울리나인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바오로적 삶의 준비에 더 도움이 되는 서적들을 선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묵상은, 잘 행하기 위해 세 부분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 부분은 특히 지성에 관련한 것으로, 책의 한 구절을 읽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장치 *Apparecchio alla Morte*」²라는 책을 가정해봅시다. 또는 한 가지 사건을 생각하며 기억해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정해봅시다. 또는 한 가지 금언을 떠올리거나 생각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³ 또는 “하느님께서 나를 보십니다.” “어디서든 나를 보고 계십니다.” 또는 “죄는 내 영혼의 영적 파괴입니다.” 보십시오, 지성의 훈련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피상적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관통합니다. “나는 죽을 수 있으며, 그 때와 그 시간은 나도 모른다. 나는 죄짓는 행동에서 잘못을 범할 수 있으나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는다.”⁴ 그러나 단지 책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지성이 훈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성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잠자는 중에 침대에서 죽을 수 있으며, 아침에 차가운 시신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죽거나 또는 아무런 사고 없이도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지난 번에 여기 왔을 때 만나서 알게 된 몬시뇰에 대한 소식을 물었을 때 “그분은 성 베네딕토 축일에 저희에게 오셨다가, 그 다음날 갑자기 | 내출혈로 영원한 세상으로 가셨는데 다행이 성사를 거행할 시간이 있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가 아직 로마에 있을 때, 성 바오로 대성전의

2.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의 저서.

3. 히브 10,38(불가타).

4. 대중적인 신심을 표현한 노래에서 발췌.

아빠스께서 침대 곁에서 그분을 시중드는 두 명의 수녀가 마침 방문하여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선종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한 사제가 제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순간 아무런 응답이 없어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분은 이미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을 쉬지 못할 때 받는 마지막 도유식 중에 가셨던 것입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저녁에 죽을 수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사도직을 수행하는 중에 또는 기도하는 중에 죽을 수 있으며, 영성체를 하자마자 죽을 수도 있고, 레크리에이션 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깊이 통찰해야 합니다. 나는 죽어야 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죽는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언젠가 나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므로, 나를 만나려는 사람은 묘지로 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 무덤 안에 나의 시신이 묻혀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혼은? 이미 하느님의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 시간을 모릅니다.” 노인이 되어 죽을지 또는 젊어서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긴 병을 앓은 후에 죽을지 또는 갑자기 죽음을 맞이할지 그 죽음의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죄에 묻힌 채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쁜 생각에 동조하는 중에, 또 하느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대화를 하는 중에 죽는다면 죄의 벌을 보속하기 위해 연옥에 가게 되고, 냉담 상태에서 죽어도 작은 영광이라고 할 수 있는, 연옥의 [정화] 후에 천국에 가게 됩니다. 내가 빨리 죽어 공덕이나 내가 얻어야 할 보화를 쌓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미리 간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려야 하고 생생하게 그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옷 벗김을 당하시고 | 십자가 위에 몸을 뉘이고 양팔을 벌리도

록 명령 받으셨을 때, 사형집행인이 못 통에서 긴 못과 망치를 꺼내들어 그 못을 그분의 손과 발에 대고 깊이 박아 못들이 살 속으로 관통되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당신 아드님이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시는 마리아의 고통과 비탄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 사형집행인이 십자가를 이미 준비된 구덩이에 세운 다음 십자가 주위를 흙으로 덮는 광경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79 그리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비통함을, 몇 개의 못으로 찢긴 육신의 괴로움을 생각해보십시오.

또는 어떤 말씀을, 어떤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읽는다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어떤 구절에 멈출 수 있습니다. 비유 말씀들은 알아듣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수난이 시작하기 전 성주간에 행하신 아주 긴 설교, 성 요한이 기록한 그 설교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⁵ 아니면 복음 선포를 시작하면서 하신 설교일 수 있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흠족해질 것이다.” 등.⁶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의미인지 꿰뚫어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여라, 부자들이여.” 세상이 옳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옳습니까?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러나 세상 도처에는 용서가 아니라 복수의 정신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원한을, 나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5. 요한 17,1-26 참조.

6. 마태 5,3-11.

울고, 세상에 만연한 악을 슬퍼하고, 하느님께 드린 많은 상처를 슬퍼하고 있습니까?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울고 있습니까? 그들이 돌아서도록 무엇인가 하고 있습니까?

지성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흐르는 물은 스며들지 않습니다. 비가 와도 | 바위나 지면이 단단한 산마루에는 전혀 스며들지 못하고 아래로 흘러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경우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준비를 잘 갖추도록 해서 하느님께 속한 것들을 맛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성체성사에 관하여, 고해성사에 관하여, 사도직에 관하여 맞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지 않은 미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호기심, 환상, 탐식을 만족시키는 것, 그리고 정도를 넘어서는 잠 등입니다. ‘주님, 저에게 참된 미각, 마리아께서 가지셨던 미각, 성인들이 가지셨던 미각,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미각을 주십시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지성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상을 통하여 지성의 훈련을 행하게 되는 진리의 식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한 세 가지 예를 [숙고하면서], 나쁜 상황에서 죽음이 갑자기 닥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는 죽겠지만 그 시간은 모른다. 그러기에 나는 죄나 잘못을 범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죄를 짓는 순간에 죽음이 나에게 닥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성화되기 전에 죽음이 닥치지 않도록, 영원한 삶을 위하여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심판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이 나에게 갑자기 닥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갑자기 닥친다는 것은 두 가지 사항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의미는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것, 또는 아무런 공덕이 없이 죽어 자신의 죄를 속죄하지 못하며 연옥 형벌을 면하

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갑자기 생명이 중단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죽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는 은총, 영성체할 수 있는 은총, 병자성사를 받을 수 있는 은총, 전대사를 받을 수 있는 은총, 훌륭한 사제나 또는 저에게 좋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경건한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신비 제4단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 신비에서 우리는 침상에서 숨을 내쉬면서 영혼이 영원으로 넘어가는 순간,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죽음을 맞이하시는 마리아를 관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도를 여러 차례 거듭해야 합니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는 아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예로 들었습니다. 주님, 저에게 인내를 조금이라도 더 주십시오. 주님께서서는 못으로 손과 발을 꿰뚫는 고통을 견디어내셨는데 저는 바늘로 찢리는 것 같은 아주 작은 고통도 견디지 못합니다. 저는 늘 주님을 사랑하기 바라며, 주님을 닮고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그러므로 갈바리아를 향한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잘 81
알아 듣고 좋은 결심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고통의 신비 4단을 바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열릴 때 마음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면서, 의지의 훈련으로 넘어갑니다. 의지의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양심성찰입니다. 만일 내가 오늘 죽게 된다면, 과연 나는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한 천사가 내게 와서 ‘오늘 저녁 네가 더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한다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고해성사의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허망한 내 삶이 애달프게 여겨지겠습니까?

내가 공덕을 쌓을 수 있을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을 안타까워하겠습니까? 연옥에 가야 한다는, 엄격한 심판을 떠올리며 두려워하겠습니까? 어쩌면 제일 쉬운 일이라 여겨지는 아, 이것은 내가 꼭 해야 할 의무가 없고, 저것은 그저 약점에 지나지 않고, 이것은 단지 소죄일 뿐이고, 등등의 변명을 하겠습니까? 양심성찰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 숙고한다면 다음과 같이 자문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를 받아들이는가? 나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위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희생을 할 각오가 되어있는가? 나는 탐식의 만족을 억제할 줄 아는가? 나는 눈의 호기심을 억제할 줄 아는가? 나는 나의 환상을 극기할 줄 아는가? 나는 고통이 요구될 때에도 사도직을 행할 줄 아는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자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멈출 줄 아는가?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의무,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곧바로 수행할 줄 아는가? 나는 극기를 사랑하며 명령받지 않았더라도 때때로 누군가의 뜻을 완수하는가? 나는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나는 고통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고통과 피로를 두려워하고, 마음을 극기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쉽게 원한을 사고, 때때로 지나치게 자 극적인 우정관계에 이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 덤거나 약간 추운 것을 참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양심성찰을 하고, ‘나는 이러한 것을 선택합니다.’라는 결심을 해야
82 합니다. 결심은 언제나 연피정에서 결심한 것을 택해야 합니다. 묵상 결심 또한 연피정의 결심이나 최근 고해성사의 결심, 또는 최근의 월 피정 결심을 그 자리로 가져오거나 강화시켜야 합니다. 결심은 특별한 상황에서 책임자들이 영적 지도를 위해 제시한 충고나 주의사항, 또는 사랑하는 어떤 자매의 충고나 주의사항, 훌륭한 책에서 읽은 제안사

항을 [중요시 여깁니다]. 연피정의 결심과 최근에 한 고해성사의 결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동일선상에서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어딘가를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한 번 말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푸에블라에 간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은 길을 선택한 다음 “아, 이 도시는 대단히 아름다운 도시네!”라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왼쪽으로 옮겨가면서 오락가락하다가 저녁이 돼버릴 것입니다. 2시간이나 3시간이면 푸에블라에 도착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여기에, 멕시코에서 도시를 떠돌고 있습니다. 어떤 결심에 대해 확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슬렁대다가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확고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소에 대해서도 죽을 때까지 확고해야 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값을 치려야 합니다. 우리가 통회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그 어려움은 하나의 유혹일 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유혹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겸손에 관한 결심을 했지만 오늘 아침에 사랑에 대해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으므로 결심을 바꾸고 싶다.”라고 할 수 있으나, 겸손에 관해 주의해야 합니다. 겸손은 실천입니다. 겸손은 자매를 사랑하도록 이끌어주고, 충실히 봉사하고, 사람들의 선을 바라며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도록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장상에 대한 겸손과 | 동료들에 대한 겸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태를 잘 진전시키기 위하여 그 사태를 잘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가지 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더는 문제 삼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한 ... “그렇지만 저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한 것입니까?”라고 말할 수 있으나 만일 그대가 잘못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대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인내는 항구한 사랑입니다. 연피정에서 결심한 내용들을 말해야 합니다. 특히 고해사제가 제시했을 제안과 다른 주제에 따라 영적 지도자나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서 결심을 실천해야 합니다. 고해사제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묵상하는 방법을 배웠으므로 이제 양심성찰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십시오.’라고. 결심은 언제나 신심에 관한 것이지만, 신심은 양심성찰과 성체방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언제나 길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참을성 있는 사랑, 하느님께 대한 참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종의 예민한 감수성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모든 것을 하고, 내일은 저러한 모든 것을 한다는 것은 결국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영혼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바에 대해 마음이 확고해야 하고, 고해사제와 책임자의 확약을 통하여 하느님께 받은 축복에 대한 굳건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순명 안에서 그대의 영적 작업을 해야 합니다. 확고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III. 양심성찰

좋은 정신을 심어주는 신심실천 세 가지가 있는데, 지원자들은 서원하기 전에 이에 대해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개념을 습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일찍부터 양심성찰과 묵상을 잘 하고, 성체방문을 잘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성체방문을 잘 할 때 나의 삶은 결코 혼자 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비록 성당에 있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므로, |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언제나 주님과 이야기할 수 있 84
어야 하고, 늘 그분께 영혼을 열어야 하며, 매일같이 필요한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묵상을 잘 하는 사람은 하루 일과를 잘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아침에 시간을 맞춰야 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계의 태업을 다시 감아줘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영혼도 아침에 무장시켜야 합니다. 곧 묵상을 통하여 하루를 위한 힘을 축적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양심성찰은 필수적입니다. 양심성찰에 대해 잘 배우는 사람은 스스로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며, 양심성찰을 잘 배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양심성찰을 잘 배우는 사람은 길을 인도받도록 맡길 줄 알지만, 양심성찰을 잘 배우지 않는 사람은 길을 인도받도록 맡길 줄을 모릅니다.

양심성찰에 대해 여러분은 책에서 배웠을 것입니다. 양심성찰 방법은 우리 기도서에도 설명되어 있습니다. 양심성찰의 특별 성찰을 다룰 때 세 가지 부분에 대해 결심을 세웠던 것을 보아야 합니다. 곧 지성에 관한 부분, 의지에 관한 부분, [마음에 관한] 부분의 결심이며, 이 세 부분의 결심을 모두 성찰해야 합니다. 또 양심성찰에는 세 단계

가 있습니다. 피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성찰이 있는데 오로지 말과 행동을 고려하는 양심성찰로, 간략한 방법으로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근본적인 생각과 감정에 관한 성찰을 망각하여 거의 놓쳐버립니다. 그러기에 피상적인 양심성찰인데, 이렇게 할 때 아침에 하는 예비성찰이나 성체방문 때 하는 성찰도 피상적이며, 저녁기도 때 하는 성찰도 피상적이 돼버립니다. 또한 고해성사를 위한 성찰, 월피정 때 하는 성찰뿐 아니라, 연피정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한 성찰도 피상적이 돼버립니다. 전적으로 성화에 마음 쓰지 않으며, 전존재를 성화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지만, 마치 | 방을 청소할 때 빗자루로 획획을 대충 한 번씩 쓸 뿐, 구석구석 먼지를 털지 않아 가구 위에 먼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성찰이 피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더 아래로 내려가 우리 마음을 읽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마음은 무엇을 열망합니까? 또한 무엇을 미워하고 무엇을 싫어합니까? 마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살펴야 하고, 우리 마음이 관대한지 아니면

85 냉정한지 살펴야 합니다.

때때로 심각하게 무미건조한 상태로 몇 달 또는 몇 년을 지속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삶이 권태롭고, 수도생활의 맛을 더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생각이 행동의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의 씨를 뿌리는 생각에 따라서 결실을 거두는데, 밀씨를 뿌리는 사람은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겠지만, 썩기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썩기풀을 거둘 것이고, 잡초씨를 뿌리는 사람은 잡초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만일 지원자가 계속 수도단체의 관념, 수도회의 이상에 일치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지도하는 책임자, 영혼을 양성시키고 바올리나(바오로인)로 양성시키는 직책을 맡은 책임자의 생각에 일치시키지 않

는다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연원리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며 신앙이 결여된 사람들, 다시 말해 세속 이치에 따르는 보통 사람들의 생활방식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생각을 개혁해야 합니다!

복음에서 제시하는 성성이 유일한 성성이요, 교회가 공인한 성성이 유일한 복음의 성성입니다. 성녀 카브리니Cabrini¹는¹ 젊은 시절부터 수도생활에서 습득한 원칙들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녀가 되었습니다. 그 원칙들이란 하느님께 참된 신뢰를 두는 것, 하느님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초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상적인 성찰이 아니라 깊은 성찰을 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에 대한 성찰, 다시 말해서 하느님 말씀에 대한 성찰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성찰, 곧 행동에 대해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 양심의 책을 읽는 법을 배우시다. 곧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사랑이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양심성찰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회헌에 규정된 대로 참되게 따르는 사람들의 양심성찰입니다. 이들은 적절한 시간에, | 아침에 예비성찰을 합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위험을 만나게 될까?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가? 이런저런 경우에 어떤 덕을 실천해야 하는가? 나에게 맡겨진 직무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외부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연피정 때와 고해성사 때의 결심들을 다시 생각하여 하루 일과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결심을 실행하기 위한 은총을 얻기 위하여 86 여 영성체에 임해야 하고, 의지를 강화하고 결심을 지키기 위하여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확립된 예비성찰입니다. 그런 다음에 성체

1. 프란치스카 사베리오 카브리니(Francesca Saverio Cabrini, 1850-1917)는 산탄젤로 로디지아노(Sant'Angelo Lodigiano) 태생으로, 해외 이탈리아 이민자들 사이에서 수도자요 선교사로 봉사하였으며, 예수성심선교수녀회(Missionarie del Sacro Cuore di Gesu) 창립자이다. 그는 1946년에 시성되었다.

방문 중에 성찰을 하고 저녁에 짧게 성찰해야 합니다. 짧은 성찰, 그리고 성체방문의 성찰은 다들 훌륭하게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때 하게 되는 양심성찰은 조금하게 빨리 해치우는 경향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잘못의 원인을 찾아야 할 때는 당연히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늘 그 자매들이 불쾌하게 느껴지며, 그들은 왜 나에게 상처를 주는가? 어떤 이유인가?' 그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교만하거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통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양심성찰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심성찰은 회현에 정해진 시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회현에 규정된 통상적인 성찰 후에 해야 하는 양심성찰입니다. 회현에 규정된 것은 일종의 목적, 곧 결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에 관한 통상적인 성찰은 늘 잠심 중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며, 하고자 하는 바에 관해, 말하고자 하는 바에 관해, 내적으로 생각하는 바에 관해, 마음에 스쳐가는 감정들에 관해 늘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것이 좋은 일인가? 이것을 듣는 것이 좋은 일인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좋은 일인가? 이 행동을 하면 하느님께서 좋아하실까?' 예를 들면, '하느님께서 기꺼워하시고 공덕을 쌓기 위하여 사도직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 성찰할 뿐만 아니라, 감정들에 관해서도 성찰해야 합니다.

많은 기생충, 많은 | 창꼬치 증후군(animaluccio 역주: '창꼬치 증후군'은 '정형화된 사고의 틀에 쉽게 빠지고, 그 안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 '유리벽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그 특징은 변화에 대해 무감각하고, 스스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경험을 맹신하고, 기존의 규칙이나 관습을 고수하고, 다른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어떤 억압이 있으면 능동적인 행동력이 약화된다)이 휘젓고 다니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 교

만과 분노가 서로 얽힌 감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인 것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만,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차분한 사람, 성찰하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깨어 있는 기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조력자(assistente di se stessa)입니다.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도와야 하고 생각들에 대해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좋아하실까, 좋아하지 않으실까? 덕성에 상응하는가 아니면 반대되는가? 나의 정신은 잠심상태인가 아니면 혼란상태인가? 나는 생생한 신앙을 지니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신앙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 대해 조력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원자들과 수련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도움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고, 각자가 조금씩 더 자기 자신의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올바르게 양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장소에 갔을 때 잘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자리에 보내질 때 잘 처신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자매를 위협에 노출시키는 것이 아닌지 누가 알겠습니까? 무엇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는지 알기 위해 갑자기 그 자매에게 다가가는 것이 좋을지 누가 알겠습니까?'라며 그 사람이 어디를 가든 늘 따라가야 한다면 제대로 양성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자신을 관리하고 인도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였을 때 잘 양성을 잘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은 하느님 앞에서 지녀야 할 태도이며, 열 명의 장상들 앞에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로서, 잘 양성 받았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주목하십니다. 잘 양성된 사람들은 주방에서 일하게 되더라도 잘 할 것이며, 멀고 먼 오스트레일리아에 파견되더라도 하느님의 눈길 아래에서 잘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

지 않다면], 그렇게 되도록 양성을 받기까지는 인간적인 존경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고, 그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이므로 결코 수도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을 잘 하고, 말을 잘 하고,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보시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어둠 속에서도 그대를 보시고, 그대가 생각하는 것을 아십니다. '여기는 모든 것이 닫혀 있으므로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못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 그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두운 밤, 검은 바위 위에 있는 개미 한 마리까지도 하느님께서 보신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 그분께서 보실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고, 여기서는 아무도 내 말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우리 자신을 관리할 수 있도록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욕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상, 기억, 지성, 마음, 혀, 촉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

88에 대한 이러한 성찰은 필수적입니다. 우리 자신을 인도하는 것은 자동차 운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자동차 운전을 배우기 위해서는 운전 학원에 가면 됩니다. 또 속성으로도 배울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이끄는 일은 몇 년이 소요됩니다. 양성이 견고해지려면, 다시 말해 수도생활에 대한 준비가 견고해지려면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 관해 성찰을 잘 하고, 우리 자신을 인도하는 일에 성공한다면 수도생활을 잘 준비하는 것이고 그 결실은 상당히 클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한 순간에 길을 벗어나 오류와 실수를 범하고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운전중에 한 순간 깜박 졸게 되면 그 자동차는 어찌 되겠습니까? 다른 자동차와 충돌하거나, 벽에 부딪히고 진흙탕에 빠지는 큰 사고가 날 것입니다. ... 이

렇게 될 줄 알았다면!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항상 깨어 있어라Vigilate et orate!"²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어야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몸에 밴 양심성찰은 우리 자신에 대해 좋은 결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습관을 들인 영혼은 자신의 결점과 약점을 잘 압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는 이리이러한 단점이 있어요."라고 해도 "유감이지만 저도 그 점을 알고 있습니다. 경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며 자신을 인정합니다. 그 대신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그런 잘못을 했다고요? 내가?"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결점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불쌍한 우리들입니다! 수차례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을 더 너그럽게 보아줍니다. 그에게 이러한 약점이 있지만, 나에게서는 다른 약점이 있습니다. 만일 나의 내면을 보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는 나를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칭찬하는 멋진 편지라도 읽게 되면 내가 마치 기적이라도 행한 것처럼 느낀다만, 이는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무슨 기적을 행했단 말입니까? 들고 가던 접시 더미가 떨어지는 것을 [잡은 것뿐입니다.] 반대로 이런 칭찬에 무관심한 사람은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며, 그런 것으로 자신을 들어 높이지도 않습니다. 어떤 비난을 받거나 어떤 책망을 들어 89도 동요하지 않으며, 그가 저지르지 않은 과실을 그에게 돌릴 [때]조차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 제가 한 것이 아니지만, 사람

2. 마태 26,41.

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니 저에게는 보속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차분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조금이라도 성찰한다면 우리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곧 다른 사람들을 향한 큰 사랑, 큰 연민이 마음에 생기게 되는 많은 일을 보게 될 것이며, 아무것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당신 손을 내 머리 위에 드리우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보다 큰일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결점을, 이 사람은 이런 결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결점을 나열한다고 할 때 한 권의 공책으로 충분하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이 고해성사에서 그 모든 결점들을 털어놓으려 한다면 아마도 아침에 고해성사를 시작해서 저녁이 되어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은 의지를 지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결점들을 포함하여 모든 결점을 미워해야 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을 포함하여 하느님께서 싫어하시고 나도 싫어하는 모든 죄, 지난 삶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다른 이에 대해 관대해지며, 내 눈에서 먼저 들보를 빼낸 다음 형제에게 또는 자매에게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 주겠다.”³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말을 설새 없이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며, 말하는 동안에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을 마친 후에는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의 벽처럼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아, 잠시 성찰해야 합니다! ...

이것을 청하십시오. 곧 ‘성찰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 시간에 기도는 하지 않고 환상을 좇은 일들만 하게 됩니다. | 이것을 뭐라고 할까? 악입니다. 이에 대해 이탈리아에서는 산만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악마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의 깊은 사람, 일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사과 하나를 꺾더라도 껍질을 잘 벗기며, 무슨 일이든 딱 부러지게 잘 처리해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특히 어떤 시기에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청해야 합니까? 양심성찰을 잘 하는 성찰 정신, 정신집중을 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배우고 관찰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늘 똑같은 결점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결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두고 사람들은 “저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고서도 자신만 알지 못하는구먼.” 하고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준다고 해도 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결점과 잘못을 피할 수 있는 은총을 받고, 작은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많은 공덕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공덕은 몇 천 리라, 곧 [큰] 돈을 이루는 작은 동전들과 [같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하여 보화를 모 90
으는 주의 깊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3. 루카 6,42.

IV. 사도직

바울리나의 정신에 도움이 되는 세 번째 신심실천은 바로 성체방문입니다. 여러분이 성체방문에 충실하고 더 잘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성을 최우선적으로 느끼는지 살펴봅시다. 신심실천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하게 실천되도록, 한 시간의 신심실천에서 영혼은 천국을 앞당긴 것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수용될 수 있도록 성체방문의 필요성을 절감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 우리의 감각이 하늘에서 그분을 보고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지만, 천국을 형성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한편 하느님의 영을 지닌 영혼들에게는 이 시간이 천국을 앞당긴 시간인 반면, | 하느님의 영을 지니지 못한 영혼들에게는 짐이 될 뿐입니다.

- 91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 우리의 능력들, 곧 지성, 마음, 의지를 온전히 집중하여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성체방문 시간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하느님을 더욱 깊이, 더욱 완전하게 알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의 넘치는 기쁨이 약속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천상 스승과 함께 직접적으로 만나는 한 시간 동안의 기쁨과 행복의 필요성을 느껴야 합니다.

성체방문에서는 사랑하는 영혼과 [예수님] 사이에 참으로 놀랄 만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성체성사가 하나의 신비로서, 결코 완전히 깨달을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혼은 성체성사에 대해 한층 더 잘 통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체방문 없이는 하루가 텅 빈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몰두해야 합니다.

때때로 여러분이 여행중이라서 성당이나 경당에서 잠식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여러분은 한 시간의 기도를 다른 형태로, 다른 기도로 대처해야 합니다. 노력을 하는 만큼 큰 결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편안하게 성체방문을 할 수 있음에 큰 위로를 느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도직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사도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많은 기회를 통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는 하느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은총이 충만한 사람, 하늘나라를 열망하는 사람, 예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도는 다른 이들에게 그 자신이 직접 겪고, 느끼고, 소유하게 된 바를 전달하기 위해 연구합니다.

가장 탁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 위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가 계십니다Habemus Apostolum et Pontificem nostrum.”¹ |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상에서 당신 생애의 마지막에, 공생활 중에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수하신 것을 우리 편에서 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의 마음은 신앙으로 충만해야 하며, 다른 한편 그 어떠한 희생도 감행하려는 결심에 이르기 위하여 진리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² 그리고 그 자신이 구원되고, 천국에 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이가 천국에 가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활동을 바칩니다. 또한 자신의 성화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이가 성화되기를 바라며 모든 수단을

1. 히브 4,14.

2. 마태 19,19.

활용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직은 다양합니다. 마리아께 제일 첫 자리를 드리게 되는 내적 삶의 사도직이 있습니다. 내적 성화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많은 덕이 뒤따릅니다. 하느님께 대한 참 사랑과 모든 이 위에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인데 어떻게 좋은 피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피가 정말 좋을 때 머리에서 손끝까지 모든 지체에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다시 말해 교회는 성인들에게서 좋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성인들은 교회의 기적 자체입니다. 창살 안에 갇혀 사는 영혼들이요,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써,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자신도 별로 드러내지 않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살며, 신비체 안에서 일하고, 경이롭게 활동합니다. 내적 삶의 사도직은 결점의 정화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생기찬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대신덕, 곧 향주덕에 이어 사추덕이 뒤를 잇습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보면서 물질적인 결실을 가져다주는 사도직을 하는 사람을 칭송합니다. 사실 외적인 사도직이 많은 정기구독자를 확보했고, 많은 서적을 보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 안에서 드러나게 될 일들을 살핍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이 아무런 중요성을 두지 않지만, 하느님의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 내적 삶의 참된 사도들이 [있습니다.] | 내적 삶의 사도직은 첫째가는 사도직입니다. 마리아께서는 강생하셔야 하는 하느님 아드님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탄생 예고를 받으실 때까지 내적 삶의 사도직을 행하셨으며, 또 당신의 기도와 당신의 믿음을 통하여 그 때가 오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박해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외적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많은 해를 끼치는 것은 훨씬 더 해로운 내

적 어려움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느님께 봉헌한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하느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 이웃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놀랄 만한 결실을 일구어냅니다. 활동을 지나치게 자랑하지 맙시다! “당신의 주된 영광은 안으로 드는구나Omnis gloria eius ab intus.”³ 하느님께 대한 당신의 사랑, 당신의 믿음, 그것은 곧 성모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모범의 사도직이 있습니다. 성바오로딸들은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언제나 친절하고 겸손하며, 겸소하고 민첩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출판 사도직, 인쇄 사도직, 영화 사도직, 라디오 사도직보다 더 효과적인 모범의 사도직을 완수합니다. 아, 어디에서든 좋은 모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좋은 모범은 “그리스도의 향기bonus odor Christi”와⁴ 같아 주변에 널리 퍼지며,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설교와 같습니다. 그러한 설교에 대해 사람들은 반감을 갖지 않습니다. 혹시 말에 대해서는 반발할지라도 좋은 모범의 설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위치에 있든, 특히 수도회 내부에서, 분원에서 수도생활 규칙 준수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완수해야 할 모범의 사도직이기 때문입니다. 인내심 많은 사랑과 관대함, 깊은 신심, 섬세함, 그리고 공동생활을 계속 잘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Videant opera vestra bona...”⁵ 더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당신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곧 당신의 수난과 죽음 전야에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⁶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보여주는 신심이 바

3. 시편 44,14(불가타) 참조.

4. 2코린 2,15.

5. 마태 5,16.

6. 요한 13,15.

로 모범의 사도직입니다. | 그리고 어떤 일, 어떤 불평, 예를 들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을 하려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겸소함과 섬세함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자신들의 좋은 모범을 통하여 호감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들의 행동방식, 말하는 방식 등이 얼마나 나쁜 표양을 주게 되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기도의 사도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곳에서, 하느님께서 그 말씀을 움직여 주시도록 청합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나는 하느님께로 향할 수밖에 94 없습니다.” 글에서는 이해가 어려운 표현이지만, 개념을 이해하게 도와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녀 스킴라스티카는⁷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았을 때 하느님에 대해 특히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오빠 성 베네딕토의⁸ 수도원에서 밤을 지내기를 원했지만, 오빠는 그녀가 수도원에 머물 수 없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태풍이 몰아치게 하시어 그녀가 수도원을 떠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성 베네딕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이여!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것이오?” “오빠에게 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아서 하느님께 기도하니 금세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요.”⁹

교회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십시오. 이 나라의 종교적인 미래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느끼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들어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 수도생활 규칙을 엄격

7. Scolastica(480년경 - 547)는 성 베네딕토의 누이이며, 카시노에서 수도생활에 전념하였다.

8. Benedetto da Norcia(480-547)는 서방 수도생활의 창시자이다.

9. 참조: 「성무일도」, 성녀 스킴라스티카 기념, 2월 10일, 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II Nocturno, 독서 제5권 대화록에서 인용.

하게 지키는 수도원들이 있을 때 그곳에 깊은 신심이 존재하며, 그곳에 주님의 선한 눈길을 끄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때 그곳에 신비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만일 수도회들이 참된 규칙 준수를 살도록 영감을 받지 못하여 충분하게 기도하지 않을 때는 많은 은총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 가톨릭의 미래에 여러분이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다음으로 고통의 사도직이 있습니다. 고통의 사도직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곧바로 순교를 떠올리거나, 자신의 목숨을 바쳐 일찍 죽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매일의 고통을, | 매 순간의 고통을 요청하십니다. 선은 늘 고통의 대가代價를 요청합니다. 늘 폭력이 따릅니다. 이것이 고통입니다. 두 번째로 고통은 회헌 준수, 시간표 준수, 지정된 직무 수행에서 옵니다. 세 번째로 고통은 상호간 사랑의 실천에서 옵니다. 네 번째로 고통은 잘 이행한 사도직, 편집 사도직, 보급 사도직, 기술 사 95 도직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죽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사도직을 실행하게 해주는 네 가지 방법을 완수하기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성 바오로의 예를 들어봅시다. 고통! 때때로 윤리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고통들은 주님께서 당신의 지극히 고귀한 목적을 위하여 허락하시고 용인하시는 곧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공통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결점을 견뎌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시 넘어지고, 또 분명히 우리 모두가 넘어지겠지만, 반드시 자신을 이기기 위하여 계속해서 투쟁을, 작업을, 폭력violenza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출판 사도직,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인쇄 사도직이 있습

니다. 인쇄 사도직은 영혼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져다준다는 것, 복음의 빛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파하신 똑같은 진리를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녀는 대단한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도 선생이 되고, 가장 높은 교의의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교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의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단지 한 권의 책, 한 권의 잡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그 잡지가 전하고 있는 내용을,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인쇄물이 세상에 넘쳐나는지요! 하나님의 원수들, 교회의 적들, 영혼과 사회의 적들이 세상을 파괴하기 위하여 이 큰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도록 부르심 받은 여러분은 다른 일을 위하여, 곧 선을 [전하기] 위하여 이 수단을 택해야 합니다. 고통이 요청되는 사도직이요, 모든 면에서 노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사도직입니다. 편집에서, 기술 부문에서, 보급 부문에서 고통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를, 인간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성 바오로께서 행하신 바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직을 어떻게 완수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수도회를 승인할 때 교회가 품은 지향을 우리의 것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는 출판 사도직에 헌신하는 수도회를 승인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바라는 것입니까? 이 수단을 통하여 영혼들에게 빛을 가져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강론대에서 강론을 하지 않지만, 다른 매체들을 통하여, 곧 인쇄된 서적을 통하여, 잡지를 통하여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의 저 발! 평화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며 구원을 선포하는구나!”¹⁰ 만일 우리가 모든 가정에 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위

10. 이사 52,7: “프로파간디스타의 참된 행복”, CVV 118.

96 대한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성소자가 필요하므로 우리는 늘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곧바로 설교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도들을 부르시어 당신 가까이에 모으셨습니다. 곧 열둘Dodici, 열두 사도가 당신 말씀을 똑같이 되풀이하도록 당신 말씀을 듣기를 바라셨으며, 그들이 당신 기적의 증인이 되고, 당신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직접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Apostolo란 증인testimonio입니다.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Et eritis mihi testes.”¹¹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출판 사도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교육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정신으로 위대한 사명을 이해하고, 새로운 수단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매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씨를 뿌렸는데 어찌면 다른 이들이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¹² 지옥의 가장 밑바닥의 악마는 낙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도직, 우리 노동의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의무를 잘 완수한다면 받을 상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결실이 없을 때 우리는 서로 동정하면서 최악이야.”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의지를 가지고, 열성을 가지고 잘 수행한 사람은 꼭 상을 받을 것입니다. 언제나 성 바오로를 바라봅시다. 낙심하게 될 때 늘 저 높은 곳을, 영원한 상급을 바라봅시다.

11. 사도 1,8.

12. 요한 4,38 참조.

V. 천국

오늘 아침 우리는 천국에 대해 생각하며 세 가지 은총을 청하려고 합니다. 1) '사도신경'의 조항인 영원한 삶을 한층 활기 있게 사는 신앙과 2) 생기 있게 천국을 염원하며, 3) 끊임없이 천국을 위하여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은총을 특히 영광의 신비를 [바치면서] 청합니다. 이 신비는 현세의 삶 후에 오게 될 삶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지상에서 우리는 기쁜 일들과 슬픈 일들, 위로와 고통과 괴로움을 거처야 하지만, 마침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묵주기도의 신비는 15단으로 구성됩니다. 첫 다섯 단의 신비는 마리아의 기쁨을 기억하고, 다른 다섯 단의 신비는 예수님과 마리아께서 겪으신 시련을 떠올리고, 마침내 영광의 화관에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중에 성부 오른 편에 앉으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영원한 참행복^{beatitudine} 중에 아드님 오른 편에 앉으시어, 은총이 충만하신 그분은 은총의 보편적 중재자로서 지상에서 하셨던 직무를 계속하십니다. 곧 [예수님을 주는 것],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는 것입니다.

1. 천국을 생각하고, 한층 더 확고하게 천국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들은 구원되기 위하여 두 가지 진리를 필수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곧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그분께서 당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¹ 훌륭한 신앙 상태에 있으면서도 가톨릭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방인들이지만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영원한 구원에 대한

1. 히브 11,6ㄴ.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곧 지상에서 행한 바를 하느님께서 보상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의 시험으로 충실한 사람은 이 시험 다음에 상을 받을 것입니다. 천국은 일종의 투쟁이므로, 우리가 일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천국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참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우리에게 여러 시험들을 겪게 하셨는데 특히 한 가지 시험 아래 두시어, 그 시련을 잘 극복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시련을 잘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두 개의 길 앞에 두셨습니다. 곧 영원한 행복의 길과 | 영원한 불행의 길입니다.

현세의 삶 이후에는 두 개의 상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구원된 영혼 상태와 단죄된 영혼 상태인데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만일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면 상급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한 가지 시험 안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시험이요, 둘째는 사랑의 시험이며, 셋째는 충실성의 시험입니다. 주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하고,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생생한 믿음으로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교리를 믿어야 하고, 가톨릭교회가 가르치고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진리가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될 때 우리는 그 설교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² 이러한 신앙에 기초하여, 현세의 삶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느님의 심판과 상급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행복 또는 영원한 불행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가 이승에서 무엇

2. 히브 11,6ㄱ.

을 행하였는지 증명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 중에 있는지 또는 불운 상태에 있는지 증명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결코 더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 영혼이 이승에서 은총 중에 있다면 늘 하느님과 함께 지낼 것이며, 저 세상에서는 죄지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는 잃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영혼이 하느님의 은총 중에 있지 못하다가 다른 삶으로 넘어간다면, 상태를 새롭게 변모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죄 중에 살다가 죽는 이들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징벌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믿고, 우리의 모든 행동거지가 착하다면 영원을 위한 가치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2. 두 번째로, 삶은 사랑의 시험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지고의 선함이십니다. 지상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건강과 생명을 주셨으며, 우리에게 세례성사와 종교교육과 성소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은 지고의 선함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만일 그분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 하느님이 아닌 것과 하느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에서 늘 정화해야 하고, 다른 한편 우리 마음 안에 하느님을 모시며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품어야 합니다. 특히 언제나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고해성사는 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성체성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 모시는 장場으로서, 하느님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우리의 신심은 빛을 받아야 합니다. 단지 기도만이 아니라, 신앙에 의해 빛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의 신심pieta은 우리를 ‘근본적인 신심

devozioni essenziali’으로 이끕니다. 곧 성체성사에 대한 신심, 마리아 신심, 바오로 신심으로 이끌어줍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수도생 99
활을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대가 항구하다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약속하노니, 백배의 상을 받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입니다.”³

3. 세 번째 시험은 주님께 대한 충실성의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공동생활을 실천하는 것, 우리의 사명, 사도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수도생활, 나아가 거룩한 서약과 덕성의 준수, 그리고 영혼들을 위한 우리 사도직의 사명 완수를 위한 토대입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지상에서 무엇인가 행하도록 우리를 파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우리가 이루었을 때, 바로 그때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언젠가 우리가 당신의 참행복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참행복 자체이신 하느님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참행복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천국을 염원하고 늘 천국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아침에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면 ‘자, 이제 나의 화관을 위하여 나는 일하러 가는 것이다.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행동도 하늘나라를 위한 보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내면의 감정과 생각까지 보십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위한 공덕을 쌓는 것입니다. 만지는 모든 것이 금으로 변한다는 우화가 있습니다.⁴ 그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이 하늘나라를 위한 금과 진주

3.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수도서원을 위한 예식” 중에 사제가 말하는 부분에서 인용; 마태 19,29 참조.

4. 그리스 신화에서 프리지아(Frigia)의 왕, 미다(Mida)는 그가 만지는 것은 모두 금으로 변화하도록 신들에게 청하였으나, 나중에는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다시 예

가 됩니다. 구슬을 꿰어 왕관을 만드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의] 화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 우리가 하느님께 큰 사랑을 드리는 그만큼 더 아름답고 더 귀한 화관이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수도회에 주어진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악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하느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의를 덜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 어떤 중요성도 두지 않는 일들이 있지만, 성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일들도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지상의 만족을 찾는 불행한 자들은 어느 날 낙담할 것이며, 죽음이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겠지만, 성인들은 바로 그날 모든 것을 얻을 것입니다. 성인들은 지상에서 좋은 일, 착한 활동을 하도록 파견되었다는 것을 알아 듣고 거기서 모든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덕을 쌓았지만, 그 공덕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 공덕은 [그들을 위하여]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상급이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열망해야 합니다! 천국을 열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열렬히 열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 바오로의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Cupio dissolvi et esse cum Christo.*”⁵ 우리가 피곤할 때, 작은 시련이나 고통들이 닥쳐올 때, 욕정에 대해 아니라고 대답해야 할 때, 마음이 원하는 것을 거부해야 할 때 우리는 천국을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생각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줍니다. 아직 몇 년 더 일하고, 그런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을! 이 세월이 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

지만, 만일 더 많은 햇수를 살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화관을 한 층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대는 지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나는 천국을 위하여 일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의 영혼이 바라는 열망은 어떤 것입니까?라는 물음에 “선에 대한 열망입니다.”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그와 같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온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토록 많은 일과 고생으로 얻게 된 참행복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성인들이 천국에서 나를 기다립니다.”라고 읊조리며 돌아가셨습니다. 평온한 죽음, 그 죽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영원한 기쁨의 서곡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를 동반하도록 해야 합니다.] 곧 ‘우리를 정화시켜야 하고 양성시켜야 합니다. 우리를 정화시키고 덕을 갖추어야 합니다.’ 매일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하늘을 향해 질서지어져야 합니다.

전으로 돌아가기를 청하였다.(역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다스’는 디오니소스 신의 친구이자 숲의 신인 실레노스를 사로잡았으나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답으로 그의 소원 한 가지를 들어준다고 하였다. 그러자 그는 만지는 것은 모두 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음식마저 금으로 변하여 거의 굶어죽게 되자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었다고 한다. 미다스의 손, 혹은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했다.)

5. 필리 2,23.

6. 시편 142,8 참조; 「로마 성무일도」, 10월 4일, 6권, 제2저녁기도.

VI. 예수님께 대한 사랑

오늘 아침의 생각으로 되돌아갑시다. 곧 ‘온전히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체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분께 충만하게 드러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은 우리의 온 존재로 그분께 경의를 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지성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

101 리의 의지로 그리고 육체로 그분께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꺼워하지 않으시는 것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을 그분께 봉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봉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쁜 생각들, 나쁜 감정, 나쁜 말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나쁜 행동, 죄, 고의적인 결점들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지 않고, 그분의 원의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을 그분께 봉헌한다고 자부한다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역겨워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그분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봉헌해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의적인 죄를 결코 반기지 않으십니다! 수도자는 [비록] 대죄를 짓지 않아도 소죄를 지을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소죄와 싸워야 합니다. 소죄는 대죄에 도달하는 길입니다. 소죄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을 감소시키고, 사랑을 식게 만들며, 많은 공덕을 없애고, 수많은 은총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의도

적인 소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성인들도 약하고 불충분한 본성의 결점들, 고의가 아닌 결점들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결점들을 원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께 그러한 결점들을 피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고 그러한 결점들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하느님께 상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성성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는 작업이 됩니다. 소죄와 싸워야 하며, 하느님께 고의적으로 상처를 드리는 일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신앙을 거스르고, | 희망을 거스르는 나쁜 생각들, 순명을 거스르고, 겸손에 위배되고 인내를 거스르는 생각들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교만에서 나오는 생각들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예지 prudenza의 덕, 정의의 덕, 용기의 덕, 절제의 덕을 반대하는 생각들을 멀리해야 하고, 특히 수도생활과 회헌에 반대되고, 거룩한 서약에 반대되는 생각들을 피해야 합니다.

102

그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감정들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예수님 마음과 감정이 아닌 다른 감정에 의해 지배됩니다. 때때로 마리아의 마음과 우리 마음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오늘날 한층 더 연구되고, 재인식되어 기도를 드리게 되고, 본받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종종 교만의 감정이 [있고], 어떤 때는 허영을 좇고, 성마른 감정이나 질투의 감정이 있으며, 가끔 이런저런 것에 대한 집착 또는 마음에 스며드는 헛된 호기심이 있습니다. 관능으로 쏠리는 감수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시는 감정에 대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감정을 지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온전히 선하신 분이로서 “내 마음은 많은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도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그다음으로 주님께서는 나쁜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 제 혀를 고정시켜주는 두 그루의 나무 울타리를 세워주소서.”² 사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혀에 두 개의 자물통을 채우셨습니다. 하나는 입술이고 다른 하나는 치아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말하기 전에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 말들이 허영에 영향받은 것이거나 교만에서 오는 것일 수 있으며, 가끔 오류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억제해야 합니다. 영성체 때 예수님을 모셔들이고 하느님께 대한 영원한 찬미를 노래해야 하는 이 혀를 억제하여 선한 일에 쓰이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혀가 기도하도록, 좋은 것을 말하도록 해야 하며, 결코 악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나쁜 행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반대되는 모든 행동들은 나쁜 행동들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에 반대되는 행동도 아니라, 회헌에 반대되는 행동, 수도생활에 반대되는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대하여 깨어있어야 합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도록 제 눈을 지켜주소서. 우리의 호기심, 청각,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 지나치게 알고자 하고, 보고자 하는 욕구를 지켜주시고 없애주소서.” 자, 예수님께서서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악을 지닌 채 영성체를 하지 말아야 하며, 소

103 죄가 될 수 있는 가시돋친 침대를 예수님께 마련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최대한 섬세함으로, 최고의 사랑으로

1.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Margherita Maria Alacoque, 1647-1690)에게 내리신 계시.

2. 시편 141[140], 3 참조: 주님, 제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제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불가타).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섬세함과 사랑을 지녀야 하며,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것을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분께 봉헌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올곧은 지성, 선한 지능을 기뻐하시며, 그분께 거룩한 생각을 봉헌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지성은 예수님께 드려야 할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인간은 지능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것과 구별됩니다. 그분께 손과 마음을 먼저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을 먼저 봉헌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려고 합니까? 나는 지능을 잘 사용합니까? 교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것들에 대한 묵상을 합니까? 하루 일과 중에 묵상을 기억하려고 거룩한 노력을 기울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특히 고해성사와 영적 지도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조언해준 것에 대해 성찰하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 관해, 우리 사도직에 관해, 우리 삶에 관해 생각하도록 노력합니까? 세상일과 불필요한 생각으로 마음 산란해 할 것이 아니라, 기도 안에서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 성소의 실현에 대해 생각하며, 매일매일 진보해야 합니다. 차분하고 아름다운 지성을 간직해야 합니다. 생각과 판단으로 대단히 혼란한 상태에 머물러 산란해하고, 기도에서조차 분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고의적인 분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이 아닌 분심은 | 모든 이에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우리의 아름다운 지성을 봉헌하고, 지성에 관하여 특별 성찰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야 합니다. 이제 그 생각들은 모두 두개골의 상자, 말하자면 두 뇌를 덮고 있는 상자 속에 갇혀 있지만, 이 생각들은 언젠가 온 세상에

104 드러나고 표출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불필요한 호기심에 이끌리도록 자신을 방치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일만 하게 되어, 아침에 일어나 주님께 '저 자신을 온전히 당신께 봉헌합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려는 의지를 통하여 자신을 봉헌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우리 마음을 봉헌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를 사랑합니까? 경건한 마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 사람들을 좋아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모든 것을 용서할 줄 아는 마음,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릴 줄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할 줄 아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사는 선한 마음의 표시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성체와 성체 방문, 미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수도회를 사랑하는 마음,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 아름다운 마음을 드립시다! 마리아의 성심은 예수 성심과 가장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주기도를 바치는 가운데 늘 좋은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합니다. 마리아께서 '마니피캇'을 바치셨을 때 마리아의 입술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감정이 흘러넘쳤는지요. 주님께 대한 감사와 겸손의 마음이 그 찬가에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의지도 봉헌합시다. 어떤 나라에서는 주변에 오류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생각이 쉽게 흔들릴 수 있으므로 아이디어들을 바르게 내놓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의지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마음에 관해 많은 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추덕 중 하나인 용기, 성령칠은 중 하나인 용기를 청하고, 그 용기를 지닐 수 있도록 청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영성적인 용기, | 윤리적인 용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용기입니까? 비록 낙심하는 일이 생기거나 대가를 치러야 하더라도 우리의 의무를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해야 합니다. 사추덕과 성령칠은을 청하면서 의지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결심을 세운 후 그 결심을 곧바로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열성적이면 서도 교회 밖에서는 냉랭하고 무관심하며 주님 마음에 들지 않는 많은 105 것들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올곧은 영혼들을 기뻐하십니다. 올곧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올곧다는 것은 똑바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직선의 길을 말합니다. 그 대신에 뒤틀린 의지, 30분 후에 결심들과는 반대로 행해버리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결심들을 저녁 때까지 지속시키지 못합니다. 고해성사의 결심을 다음 고해성사 때까지 지키지 못하며, 월피정 때의 결심을 다음 월피정 때까지 지속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심을 늘 그리고 항구하게 유지하고, 의지를 강화해야 하며, [참된] 수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하게 되고 수도자답게 살게 됩니다. 때때로 희생할 필요가 있고, 가끔 고통을 겪을 필요가 있으며, 가끔 자극받고 감동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한층 쉽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선을 행하면 죽음에 이르러 그것을 찾게 될 것이고, 그 선이 우리를 천국까지 동반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의지를 강화시켜야 하고, 확고한 결심, 많은 겸손이 동반된 결심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몸을 다 바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동정녀는 자기 자신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립니다. 곧 시각과 청각, 미각, 촉각 모두를 주님께 드리고, 내적 감정들 외에 감각까지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방식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한편으

로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서 떨쳐버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저는 주님을 모든 것 위에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합니다.”라는 말씀이 의미 없는 표현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에서 솟아나오는 것이도록 해야 합니다. | 수도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립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만을 바랍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 자신의 것에 관해 양심성찰을 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는 그분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그분께 드리지 않도록 마음 쓰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봉헌하고자 노력하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성소 안에서, 여러분의 성성의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매일 앞으로 전진하며, 매일 조금씩 진보를 계속하여 훗날 영원한 천국에 도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저 높은 곳, 천국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모두 백 배로 받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도 받을 것이다Centuplum accipietis et vitam aeternam possidebitis.”³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온 존재를 그분께 봉헌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되어줄 것입니다.

3. 마태 19,27,29.

마에스트라들 대상의 췌신 주간 - 1955년 7월

1955년 성바오로딸들에게 하신 알베리오네 신부님 강론집의 네 번째 부분은, 「마에스트라들 대상의 췌신 주간에 행한 강의 개요- 1955년 7월」(성바오로딸수도회, 로마)라는 제목으로 1956년에 출간되었다.

안드레아 다미노 신부의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문헌 목록 *Bibliografia di Don Giacomo Alberione*」에서 ApC라는 머리글자로 표기한 것을 오리지널 텍스트로 여겨야 한다.

총본부 비서국 회의록을 보면 이 모임은 1955년 7월 11-18일에 로마에서 개최되었으며, 총통솔과 마에스트라들이 참석하였다. 프리마 마에스트라 테클라 수녀, 이냐치아 발라M. Ignazia Balla 수녀, 나자레나 모란도M. Nazarena Morando 수녀, 아말리아 페이롤로M. Amalia Peyrolo 수녀, 출판 사도직 책임자인 아쉴타 바씨M. Assunta Bassi 수녀와 영화 사도직 책임자인 루이지나 보라노M. Luigina Borrano 수녀,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의 성바오로딸수도회 모든 분원장이 참석하였다.

매일 아침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 주간 프로그램으로 정한 주제에 대해 묵상-강의를 하셨다. 오후에는 통솔 평의원들이 번갈아 강의를 맡았다. 프리마 마에스트라는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하여 두 차례 강의를 하였고, M. 아말리아 수녀는 성소사목과 책임자들의 의무에 관한 강의를, M. 나자레나 수녀는 두 차례의 강의에서 바오로인 수도자 양성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M. 이냐치아 수녀는 바오로적 경영관리에 관한 개념을 심어주면서 실천적인 적용사항을 소개하였다.

오리지널 텍스트에서 책임자들은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강론을 따른 것을 볼 수 있다. 사도직에 관한 M. 아쉴타 수녀의 강의와 M. 루이지나 수녀의 강의는 별도로 소책자 형태로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묵상-강의들만 채택하였다.

모두 아주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 강조한 강의 II의 '췌신'과 강의 III의 '지성의 성화'에 관한 것이다.

창립자께서는 확신을 가지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다.

5

“지능이라는 큰 선물이 통탄해야 할 정도로 한심스럽게 소모되었다. … 단지 돈만을 소비했다면… 지성의 낭비는 전혀 가치가 없는 일을 행하는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 지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온전한 지성은 네 부분에 대한 연구에 달려 있습니다.”(네 바퀴, 쪽번호 25-29)

성소자에 관한 주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볼 수 있다. “성소자를 얻기 위한 근본적인 비결은 기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 비결은 수도생활을 잘 사는 것입니다. … 그리하여 모든 수도자가 하나의 자석처럼 되어야 합니다. …”(쪽번호 62)

사도직의 본질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단언한다. “마리아께서는 단순한 사람의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여사도이십니다. … 왜냐하면 당신의 아드님을 세상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 그러므로 늘 아드님과 함께 대표자이십니다. …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의 사도직의 표지이십니다. 곧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쪽번호 62-65) “사도직에서 영혼들을 위한 고통에, 자발적인 고통 또는 어쩔 수 없이 수락한 고통까지도 감수해야 합니다. … 자, 보십시오, 이것이 성소입니다. 성화에 주의를 기울일뿐 아니라 사도직에도 전념해야 합니다. … 희생에 대한 열의를 지녀야 합니다.”(쪽번호 65-68)

“우리 사도직의 극치는 ‘복음 선포 *predicazione*’의 개념 안에 담겨 있습니다. … 서적과 영화 필름을 통하여 행한 복음 선포에 대한 확신은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통해 행한 복음 선포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러한 점을 믿지 못한다면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는 성바오로딸수도회를 파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쪽번호 74)

6

I. 훌륭한 마에스트라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장상의 직무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세 가지 위협과 세 가지 어려움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위협은 수도회와 자매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자기 자신과 자신을 위한 영적 작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협은 자신을 위해 더 많은 기도로 맞서야 합니다. 드옹 신부는¹ 원장으로 임명된 다음, 여러 분원을 위하여 그리고 가장 큰 필요성에 처해 있는 수도자들을 위하여 매일 한 시간의 기도시간을 정하였습니다. 그 시간은 다른 이들에게 할애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신심실천의 시간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지나치게 자치적인 통솔과 지나치게 약한 통솔 사이에서 중용을 취해야 하는 통솔 방식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중용을 지킨다는 것은 언제나 큰 덕인 동시에 큰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물론 독재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예를 들어 특정 필름을 용인하는 등, 모든 것을 허용할 태세를 가져서도 안 됩니다. ...

세 번째 위협과 세 번째 어려움은, 우리에게 이러한 직무가 맡겨졌기 때문에 이미 통솔의 덕성을 갖추었다고 확신하는 교만입니다. 자매들의 발을 씻어줄 자세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 가르치거나 지도하기 위해 교단이나 책상 앞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7 주님께 먼저 훌륭한 존재가 되기를 청했다면, 이제는 훌륭한 바오로인

1. P. Leone Dehon(1843-1925)은 프랑스 사제로서 교육활동과 사목활동을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교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데호니아니(Dehoniani)라고 불리는 “예수성심사제회”(Sacerdoti del Sacro di Gesu) 선교단체를 창립했다.

원장이 될 수 있는 청을 보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 베드로까지 압도할 줄 알고,² 다른 한편 모든 이의 발아래 몸을 굽힐 줄 알던 성 바오로의 정신 안에 머물 수 있는 청원입니다. 얼마나 자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취급당하셨습니까! 얼마나 여러 번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채찍질의 아픔을 얼마나 자주 느껴야 했습니까! 얼마나 자주 조난당하고, 얼마나 많은 위협에 처하셨습니까! 강도의 위협, 고을과 광야에서 겪는 위협, 바다에서 겪는 위협, 거짓 형제들의 위협 등³을 겪으셨습니까! 훌륭한 바오로인 원장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십시오.³⁸⁶

이제 수단들을 강구하십시오.

첫 번째 수단은 초자연적인 정신을 통하여 직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정신을 통하여 직무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종속관계에 대해서, 순명에 대해서 모든 자매들에게 초자연적 정신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초자연적 존재가 되도록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본성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성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만듭니다.

1. 초자연적 정신을 통해 직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리아께서 당신의 직무를 받아들이셨던 그 정신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마리아께서는 천사에게서 구세주의 탄생 예고를 들으셨습니다. 천사가 하느님의 아드님이 그녀 안에 강생하실 것을 전하였을 때 마리아께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줄 것을 청하셨습니다. 성 바오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영^{spírito}을 믿기 이전에 그 영이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인지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⁴ 하와는 뱀이 그녀에게 한 말이 | 하

2. 갈라 2,11-14 참조.

3. 2코린 11,23-27 참조

4. 1테살 5,19-21 참조.

느님의 영에서 나온 것인지 악령에게서 나온 것인지 속고하지 않았기에 속았습니다. 지극히 지혜로우신 마리아께서는 설명을 요구하셨습
8 니다. 그리고 설명을 통해 분명해졌을 때 단순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⁵

자, 이것이 책임 직무를 수용하도록 초대된 모든 자매가 해야 하는 대답입니다. 저는 한 분원의 책임자Maestra의 직무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부서의 책임, 수업의 책임 등 모든 직무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것이 응답입니다. 교만으로, 인간적인 헛된 만족으로 직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교직에 대한 성소는 순교에 버금가는 성소”라는 말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령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고, 박해가 있을 때 제일 먼저 고난을 당하는 이들이 주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추기경들, 주교들,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곧 영혼들에게 빛과 인도자가 되었던 것처럼 박해의 표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허영이나 인간적 또는 자아 만족을 위해 수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책임자들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책임자로 불림 받거나 책임 직무로 초대받지 못합니다. 「준주성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잘 순명할 줄 모를 때 적절하게 명령을 내릴 수도 없다.”⁶ 이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순명을 잘 하고, 마리아처럼 마음으로 순명하는 데 익숙한 사람만이 명령을 잘 내릴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순명하는 것에 만족합니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얼

5. 루카 1,38.

6. 「준주성범」 1권 20장 2항 참조.(역주: 원문의 각주는 1권 20장 1항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말 번역본에서는 2항 말미에 나옴)

마나 아름답습니까? 순명과 더불어 직무의 은총이 곧바로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소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직무를 요청받았습니까? | 주님께서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느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나이다.”⁷ 그러므로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대신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장상에게 지시를 받게 되면 성당으로 가서 예수님께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계약을 맺어주십시오. 저는 순명을 하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은총을 증가시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저를 위한 많은 은총을 주실 뿐 아니라, 직무에 관한 은총과 자매들에 관한 9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야 합니다.

초자연적으로 직무를 받아들여야 하고, 초자연적으로 직무에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명령의 권좌cadregghino⁸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종류의 집착이 있을 수 있는데, 권좌에 대한 집착도 있습니다. 그 중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곧 어떤 수녀가 그 직무를 수행할 은총을 받지 못했다고 여겨질 때, 단순하게 그것에 대해 말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본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수행하라고 요청받는다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단순하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초자연적 정신입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을 때 가장 보잘것없는 것을 찾아야 하고, 더 큰 희생과 복종이 수반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해 끝자리를 찾으십시오.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Recumbe in novissimo loco.”⁹ 이는 회현에도 인용된 말씀입니다.

7.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기도에서 변형된 화살기도. 「바오로 가족 기도서」 28쪽.

8. 의자, 소파를 의미하는 피에몬테 지방의 방언.

9. 루카 14,10.

니다.¹⁰ “누가 너를 혼인 잔치에 초대하거든 뒷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할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 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초대를 받거든 끝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너를 초대할 이가 너에게 와서, ‘여보게, 더 앞 자리로 올라앉게.’ 할 것이다.”¹¹

2. 우리가 쉽게 ‘원장superiore’의 직무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책임자Maestre’의 직무라고 해야 하는 그 직무를 어떻게 초자연적으로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 우리는 원장의 직무를 군인들처럼 ‘너보다 계급이 더 높은 저 사람이 네 상관이다.’라고 일반적인 의미를 부여하려
10 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도직을 맡기기 위하여 열두 사도를 부르시고 당신의 사도단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수도원을 살리고 보호할 줄 아는 이들을 원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스승(마에스트로)이라고 불리셨습니다. 그것은 사도직에 있어서 책임자가 된 사람은 자비와 덕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곧 첫째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군대식으로 명령을 내리거나 일반 사회에서처럼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을 대변하는 것이며, 천상 스승과 더욱 유사한 모습으로 수도원을 이끌어나가는 직무를 잘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묵상과 모범이 전제됩니다. ‘우리는 많은 명령을 내리기보다 먼저 참된 묵상을 해야 합니다.’ 묵상과 모범이 수도원을 이끌어나가기 위한 두 가지 근본적인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노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10. 「성바오로말수도회 회헌」 1953년판 175조 참조.

11. 루카 14, 8-10.

렇게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셨습니다. 때때로 공적으로 부르셨지만, 많은 경우 다른 이의 눈에 띄지 않게 따로 부르신 다음 그들에게 훈화와 주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사도들을 이끌던 방식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 하신 당신의 모든 설교는 언제나 사람들을 위한 것, 천국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그들과 함께 물러나셨습니다. 복음서의 일곱 내지 여덟 장에 이르는 내용에서 그분은 예외적으로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묵상해야 할 사항은 이렇습니다. 영원한 진리에 관해, 수도생활의 원칙에 관해, 스승 예수님에 관해, 사도의 모후에 관해, 성 바오로에
11 관해, 수도생활의 모든 의무에 관해, 수도생활을 성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에 관해 |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도록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은 기도, 곧 마음의 기도orazione mentale로서 그 자체로 은총을 지니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강론을 듣고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묵상 중에 자매들의 단점이나 결점을 들추어내는 세부사항에 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늘 유념해야 합니다. 비밀유지의 의무는 언제나 신성한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분원의 책임자에 관한 것일 때에는 비밀의 의무를 엄수해야 합니다. 비밀의 의무! 덮어두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수녀가 어제 저녁에 마음을 털어놓으며 어떤 자매에게서 나쁜 본보기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했을 때 원장이 그것을 다음날 아침 묵상 중에 폭로한다면 [이 수녀는] 자기 수녀들의 신뢰를 결코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높은 곳을 지향할 줄 알아야 합니다. 더 고상한 방식으로 말하면서 묵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부사항을 건드립니까? 천국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만일 청빈을 어겼다면, 참행복에 관련하여 천국에서 가난한 이들이 받을 상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

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¹² 스승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신 것처럼 고차원적 방식으로 교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좋은 뜻을 지닌 사람은 결실을 맺을 것이고, 좋은 뜻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 훈계 앞에서 버티다가 반대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 나빠질 것입니다.

많은 은총을 받게 되는 30분간의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마음에 형성된¹³ 적합한 방식, 곧 기도를 통하여 설득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곧 목상을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늘 혼자하기를 바라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늘 | 혼자서 하는 목상은 더 많은 준비, 더 많은 훈련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3. 모범으로 분원을 통솔하고 이끌어야 합니다. 마에스트라의 모범, 어떠한 모범입니까?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되어야 합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¹⁴ 분원의 마에스트라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프리마 마에스트라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행하므로, 여러분도 내가 행하는 것처럼 행하십시오.’ 그리고 총본부에서, 모원에서, 훌륭한 수녀님들이, 수도생활에서 참된 모범이 되는 수녀님들이 행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십시오.

분원의 마에스트라는 프리마 마에스트라를 대리합니다. 수도회가 일

12. 마태 5,3.

13.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원장이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30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다. 이러한 사항은 나중에 회헌에 대한 주석에서 설명하게 될 것이다. 「성바오로딸들에게 1961 - 회헌설명」 469쪽.

14. 1코린 11,1.

치되기 위하여 프리마 마에스트라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고, 본인의 생활태도까지 닮은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일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호감을 사기 위해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칭찬을 하고, 눈에 띄는 행동을 하고, 영리하게 장상의 마음을 얻으려는 지향으로 움직이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일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일치는 어느 곳에 있든 바오로적 수도생활을 사는 데에 있고, 이러한 바오로적 수도생활은 마에스트라의 삶에서 일어나오는 가르침에서 비롯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범에 관하여 자주 강조하셨습니다. 성 바오로께서도 훌륭한 삶으로 다른 이들도 따르기를 바라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아지기를 바랍니다.”¹⁵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¹⁶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형forma’ 이¹⁷ 된 것입니다. ‘모형forma’이¹⁸ 무엇입니까? 인쇄할 식자를 넣는 인쇄기의 틀forma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인쇄지는 이 틀/판forma에 의해 인쇄됩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 수녀님들 모두도 마에스트라의 모형forma 안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13

이것이 마에스트라의 첫 번째 의무입니다. 곧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본보기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엇보다 마에스트라는 신심이 깊어야 합니다. 항상 첫째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셋째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는 더는 장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한층 더 높은 곳을 향해 있어야 하고, 시간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해성사로 인한 방문으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해신부

15. 1코린 7,7.

16. 1코린 4,16; 11,1.

17. 2테살 3,9 참조.

18. 인쇄용어(linguaggio tipografico).

의 방문으로 그 분원의 모든 일이 중단됩니다.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인데 큰 지장을 초래하기보다는 불편을 느끼는 편이 더 낫습니다. 자매들이, 특히 젊은 자매들이 이런저런 사제의 방문을 받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바오로수도회 사제든 교구사제든 또는 다른 수도단체의 사제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수녀와 이야기하기 위해서 옵니까? 거기에 저도 포함되지만, 만일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고해사제에게 가면 됩니다.

그뿐 아니라 분원에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신뢰를 쌓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들의 불일치는 언제나 영적인 구실에서 시작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핑계 아래 사탄이 숨어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한 분원에 같은 사제가, 더구나 새 신부가 다섯 번이나 방문한 경우는 정말 지나칩니다! 고해소가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미 말씀드렸듯이 작은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더 큰 악을 피하기 위하여 *ad evitanda mala maiora*” 견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에스트라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아랫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분원에 고해신부가 올 때 신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 신중한 태도를 보일 때 그는 자신의 일을 할 것이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외적인 어떤 일에서처럼 여기에서 일이 생길 수 14 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이쪽으로 끌어당기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저쪽으로 밀쳐버리려 할 것입니다. 언제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목상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굴복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방향지침은 총본부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여러분이 종속관계에서 순명하게 하고 공덕을 쌓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장상으로 임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으므로 여러분이 비록 선을 행한다 해도 공덕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수도회에 큰 애착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여러분은 발전할 것입니다. 일치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람, 여러분의 수도회가 지속될 때까지 시대마다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주실 사람과 종속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으로 규칙 준수가 있습니다. 마에스트라는 어떤 필요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이 자매들에게 인정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규칙이 준수되어야 합니다. 만일 마에스트라가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그 누구를 위한 시간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원에 사제들이 거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손님접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이것은 아주 어려운 사항으로, 지혜로운 분별이 필요합니다. 성 베드로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 *Ospitales invicem sine murmuratione.*”¹⁹ 다시 말해서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귀찮은 일이야.’라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나를 잘 환대하지 않았어.’라고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제가) 분원을 자주 방문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특별한 필요 사항이 아니라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기 고해신부의 경우에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 고해신부를 위해서는 고해소가 있습니다. 고해소 안에서 고해성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이 저녁 시간에는 길게 지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대화를 하면서 질질 끕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그를 일어서게 하느냐고요?’ 여러분이 자리를 뜨십시오! ‘그런데 그분은 우리

19. 1베드 4,9.

15 '에게 많은 선을 베푸는 분이라고요?' 많은 선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수녀들에게는 수도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도 일반적인 원칙을 중요시해야 하기 때문에 더는 부연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매우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서 독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에게 의존하십시오. 권위를 지닌 교구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일정한 기준 안에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프리마 마에스트라에게 예측될 수 있기 위하여 여러분의 독립, 여러분의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목상할 은총을 주시고, 들은 내용에 대해 결실을 맺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16

II. 췌신

이른바 췌신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¹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성 바오로의 보호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언제나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지향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늘 예수님께 대한 큰 사랑[을 향해서], 언제나 더 방대한 사도직, 늘 하늘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목표로 삼아 나아가셨습니다. 사실 췌신이라는 말은 다른 식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오늘날 여러분의 상황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르는 발전의 나날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사항, 곧 정신^{spirito}에 있어서 췌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면학 부분에서는 발전하였지만 아직 더 발전해야 합니다. 사도직 부분에서도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교육, 청빈 부분에서도 발전하였으나 아직 더 발전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항들의 발전을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인 영성 부분에서는 참된 췌신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사실 덕성들이 구체화되기 이전에는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췌신은 그 이전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 가지 사항에 관한 것으로 신앙, 곧 신앙 정신, 청빈 정신, 특히 사랑에 관한 섬세함, 그리고 전적인 순명입니다.

췌신에 대해 말하는 것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다시 말해 췌신의 의미를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17

세 가지 위험요소란 1)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먼저 바뀌기

1. 1955년 7월 12일 로마에서 행한 강의. 자기(磁氣)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A6/an 12b ac 22a 출판본을 오리지널로 여긴다.

를 바라는 것입니다. 2)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3) 그 대신에 바꾸어야 하는 것을 바꾸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1. 첫 번째 위협은 다른 이들을 먼저 바꾸고자 하는 위협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경향은 늘 있어 왔으며, 수도회도 성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정 사항에 대해 수도회를 변화시키고, 변형시키기를 원하며, 다른 이들이 더 잘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회원들 각자가 잘 걸어간다면 수도회도 잘 걸어가게 됩니다.

수도회가, 성성으로 이끌어주며, 방대하고 풍요로운 사도직 수행에 지침이 되는 아름다운 회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걱정해야 하는 것은 우리 회원들이 충실하게 잘 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곧 수도회는 하나의 사회, 다시 말해서 윤리체(corpo morale, 도덕체)입니다. 심장과 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때, 눈이 건강하고 팔이 건강할 때, 각 지체가 건강할 때 그 사람을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치아가 썩고, 눈이 안 보이고, 폐와 모든 부분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육신이 병들었다고 합니다. 몸의 어떤 지체가 좋지 않을 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치아가 매우 아프다면, 비록 다른 모든 지체가 건강할지라도 그는 '아파서 잘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것은 소수의 인원들로도 충분합니다. 평화가 감도는 어떤 분원에 약간 어려운 성격의 소유자가 가게 되었을 때 |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 분원에 평화가 깨지고 이전의 그 평온함을 더는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반대하는 습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 검은색이라고 말할 때 그는 흰색이라고 고집합니다. 하느님의 교회 안에는 늘 이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단자들은 교회를

개혁하려는 뜻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에 성 가롤로 보로메오,²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 이냐시오,³ 성 요한 보스코 같은 참된 개혁자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개혁하였습니다. 그들은 성찰을 거듭하는 모범을 보여준 다음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것처럼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개혁입니다! 이제 이러한 개혁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권위가 강탈될 때, 특히 교회의 권위가 종교적으로 공격당할 때 모범적인 삶은 꺾어지고, 선보다 악이 더 왕성해집니다.

각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개혁해야 합니다. 훌륭한 존재가 되기를, 바올리나가 되기를 지향하십시오. 그 수단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곧 회헌에 대한 전적인 충실입니다. 수도회의 개혁은 이 점에 관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곧 회헌을 그 글자(문자)와 정신(영)에 있어서 잘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규칙서에 대한 공경심을 [가져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각자는 더 나은 바올리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자매가 최상의 바올리나일 때 다른 자매도 최상의 바올리나가 될 것입니다. 윤리체인 수도회도 최상이 되어 교회 안에서 아주 건강하며, 생기 있고 활발하게 작용하는 지체가 될 것입니다.

2.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고 싶어 하는 위협입니다.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이 달라졌습니다. 나이 드신 여러분은 잘못된 교육을 받았습시다. 등등.' 제 생각은 우선 연로한 자매들이 젊은

2. Carlo Borromeo(1538-1584)는 아로나(Arona)의 노바라(Novara) 출신으로, 추기경이요, 밀라노의 대주교로서, 교구를 개혁하였으며, 성직자를 위한 양성모임을 추진하였다. 트리엔트공의회(1545-1563)에 주역으로 참여하였다.

3. 이냐시오 데 로올라(1491-1556)는 스페인 출신으로, 1540년에 예수회를 창설하였다. 그의 주요저서는 「영신수련」이다.

자매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또 | 수도회가 시작되었을 때 바쳤던 그들의 희생들, 그들의 관대한 헌신, 그들의 신앙 정신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무엇이 안 된다 19 는 겁니까? 복음입니까? 복음은 여전히 같습니다. 오히려 늘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초창기에 수도회에 대한 의혹이 생겼을 때 알바의 부총장이 저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신부님은 옛것을 간직하고 계시기에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며, 성 바오로를 본받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놀랄 만한 신기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복음을 더 잘 살기만을 원하지 않습니까?”라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참된 정신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에서 바꾸어야 할 것을 발견했습니까? 복음에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⁴라는 말씀이 늘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가지 계명이 늘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곧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⁵ 그리고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⁶라는 말씀이 늘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복음서의 참행복 부분을 우리가 지워버렸습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회헌에서 ‘봉쇄’⁷라는 표현은 분리, 구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봉쇄생활 수도회가 아니지만, 봉쇄 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봉쇄구역을 개방해야 합니까? 우리는 유지해서는 안 되는 어떤 관계를 선호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 때문에 우리의 일과표와 특히 우리의 신심실천을 중단해

4. 마태 16,24.

5. 마태 22,37.39.

6. 마르 16,15.

7. 「성바오로딸수도회 회헌」 1953년판 212-215조 참조.

서는 안 됩니다. 남성들은 남성들끼리 지내야 하고, 여성들은 여성들끼리 지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은인이라고요?” 은인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정신을 존중해야 하고, 여러분의 회헌을 존중해야 하는 20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그 | 은인은 여러분의 정신을 해치는 악인malfattore입니다.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을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빈은 늘 똑같은 청빈이어야 합니다.

3. 자리에 안주하며,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지 않으려는 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청빈에 관해서, 순명에 관해서 종종 합리화하려는 경향이 있고, 면학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손을 댈 필요가 없고, 저것은 그대로 좋은 것입니다.”라며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결함이 있다면 손을 봐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잘못 그려졌다면 그것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성모님의 모습을 그릴 때 그 그림이 큰 덕을 드러내지 못했다면, 다시 손질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가는 자신의 붓으로 그림을 수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꾸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입니다.

저는 네 가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곧 청빈, 섬세한 사랑, 순명과 신앙 정신입니다.

우리는 초창기 성바오로딸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이 쌓은 많은 공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신앙이 필요했습니다.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수도회가 어떻게 발전될지 볼 수 없었고, 수도회가 승인받게 되리라는 것도, 사회와 교도권에 관련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리라는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수도회가 얼마나 발전될지, 성소자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사도직이 얼

21 마나 방대해질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으로 확고하고 충실했습니다. 그들은 언젠가 다른 수도자들처럼 서원을 하게 되리라는 말만 믿고 | 사적 서원을 하였으며, 수도서원을 발하게 될 때를 기다리며 수련을 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제때에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시고, 본성에 따라 그리고 은총에 따라 그 일들을 발전시키시며, 그들의 신앙을 상급으로 갱아주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묘목이 아직 어릴 때 하루 아침에 자랄 수 있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이 묘목은 아직 작지만 자라나서 어느 날 가지를 뺄고, 무성하게 잎을 달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신앙 정신이 중요한데, 그러한 일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세상 전체로 퍼져 나가지 못했습니다. 큰 도시마다 바오로 센터를 열 가능성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신앙이 있다면, 만일 믿는다면 신앙의 척도에 따라 그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알 수 없지만 믿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신앙! 신앙은 매일의 의무들, 매 순간의 의무들을 완수하는 중에 영혼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사실 천국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어떤 자매가 저술을 하든, 재봉일을 하든, 요리를 하든 상관없이 큰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또한 공손한 사람에게는 극복해야 할 어려움이 적은 법이고, 교만이 라는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업적이 작고 숨겨져 있어 사람들이 경시할 수밖에 없다고 해도 영원한 삶의 결실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Non sunt condignae passiones huius temporis, futurae gloriae revelabitur in nobis.”⁸

8. 로마 8,18.

그다음으로 청빈이 있습니다. 청빈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가지지 않는 한 가난한 자로 남는다. [그렇지만] 소유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곧 더 현대적이 되기 위하여 ... 더 높은 품격을 지니기 위하여 ... 다들 그렇게 하기 때문에...또한 성장했으니까, | 더 많아져야 하고 ... 그리고 내게 이런 것이 주어졌으므로 ... 그리고 저런 것을 마련해야 하기에 ... 등등.’

청빈 정신에 대해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에 관해서는 약간의 쇠신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약할 때 더 많은 도움이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청빈 정신은, 우리가 지켜야 할 청빈에 관한 한 늘 22 동일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본받는 데 있어서 성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가장 가난한 것을 찾으셨습니까. 마구간의 구유에서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동굴, 극도로 거칠고 불편한 침상, 무덤조차 그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빈은 [지금의] 가난한 상태보다 더 완전한 가난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 마에스트로 자카르도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포기하는 청빈, 생산하는 청빈, 대비하는 청빈.”⁹ 영원한 보화를 향해 드높여진 청빈은 영원한 보화를 더욱 목말라하게 만듭니다. 천상의 부요함인 참된 부요함을 사랑하십시오!

그다음으로 사랑에 관한 섬세함이 있습니다. 한 분원에서 다른 분원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결점에 대해 말할 때 대부분 더 보태게 마련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랑은 인내요, 다른 이들을 장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참고 기다

9.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는 아마도 다음의 책을 암시하시는 것 같다. A 라메라, 「디모테오 자카르도 신부의 정신 *Lo spirito di D. Timoteo Giacardo*」, Eidizioni Paoline, 로마 1955, pp. 292-299 참조: “대비하는 청빈, 보존하는 청빈, 노동하는 청빈.

23 립니다*Caritas patiens est, benigna est. 양심을 품지 않습니다. 등등.*¹⁰

그리고 순명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늘 합리화하며, 지시와 지침에 대해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서 공덕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는 옳지 않게 여겨질 때조차 순명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Imitami Deo sicut filii carissimi.*”¹¹ 하느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시다! 지시, 지침, 일과표를 받았을 때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예’입니다. 아, ‘예’가 얼마나 많은 영혼을 성화시킵니까!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Ecce ancilla Domini!*”¹² 이러한 태도가 본받아야 할 가장 위대한 ‘예’입니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 이루어지게 하십시오.*Non mea, sed tua voluntas fiat.*”¹³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Non sicut ego [volo], sed sicut tu.*”¹⁴

세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Vivit vero in me Christus.*”¹⁵ 이것이야말로 들어 높임입니다! 사람이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성찰 외에 분원 상황, 수도회의 상황에 대한 성찰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성찰뿐만 아니라, 수도회 차원의 성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향상될 수 있는 만큼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로 정신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24

10. 1코린 13,4-13 참조.

11. 에페 5,1.

12. 루카 1,38.

13. 루카 22,42.

14. 마태 26,39.

15. 갈라 2,20.

Ⅲ. 지성의 성화

우리의 지성을 성화시킬 수 있는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¹ 다시 말해 우리의 성화에 있어 첫째 부분, 근본적인 부분에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다.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²

면학이 무엇입니까? 온 정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면학은 필요한 수단들, 특히 첫 번째 수단, 곧 ‘배운 것’을 실제로 적용하여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리를 배워야 하듯이, 교사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하듯이, 청소를 배워야 하듯이, 화가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하듯이 배워야 합니다. 면학, 완수하기 위한 면학이 필요합니다.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면학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재봉사는 재봉을 잘 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고, 라틴어 교사는 라틴어를 잘 가르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학생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학생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재앙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잘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표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은 책을 통해서든 조언을 통해서든,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든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야 하는 사람들은 맡겨진 직무에 필요한 것들을 습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우리 모두는 학생입니다. 특히 영성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면 우리는 온 정

1. 1955년 7월 13일 로마에서 행한 강의. 자기(磁氣)녹음테이프에서 옮긴 녹취록: A6/an 12b ac 22b 출판본을 오리지널로 여긴다.

2. 마태 22,37.

신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가장 본질적인 것에서, 원천에서, 샘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생각에, 확신에, 교육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학생이라는 말은 특히 문학, 과학, 철학,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이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학생입니다. 언제부터 그리고 언제까지입니까? 일곱 살부터 하느님께 영혼을 맡길 때까지입니다. 면학을 참된 의미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과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성의 활용에 관해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심에 있어서 진보하지 못하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에서 진보하지 못하며, 하느님에 관련된 사항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통찰하지 못합니까? 70세에 이르러서도 일곱 살 때 주님께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어떻게 아직도 주님과 일대일로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지성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주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는 생각들, 감정들, 결심들을 이끌어낼 줄 모른단 말입니까? 이런 상태라면 우리는 천국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세의 삶이 끝나면 물리적으로는 천국 가까이 가겠지만, 하느님을 뵈는 지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긴 연옥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긴 연옥! 우리가 한층 더 잘 이해하고, 노력하고, 주의를 기울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높은 것들을 향해 우리 영혼을 들어올리기 위하여 온 정신
26 을 활용할 때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인성녀들, 하느님의 연인들이라고 불리는 영혼들이 | 하느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교리와 교의를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들의 지성을 활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성인성녀들은 충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점차적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으로 다가섬에 따라 이 삶에서 하느

님을 대면하는 지복직관의 삶으로 넘어가게 해주는 감수성을,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천상적인 생각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방을 바꾸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만큼 천상적인 것들이 그들 안에 스며들었습니다.

지능의 큰 선물이 통탄할 정도로 한심스럽게 소모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것], 곧 다른 이들이 행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고, 장상들이 행하고 명령한 것을 판단하고, 세상의 헛됨을 떠올리고, 다소 건설적인 관점으로 생각한다고 하지만 머릿속 생각들이 얼마나 가벼운지 드러내주는 무익한 대화 등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만일 돈만을 소비했다면, 또는 누군가가 담뱃대에 불을 붙이기 위하여 수천 리라짜리 지폐를 집어 들고 대부호로 보이려고 기묘한 행동을 취한다면 그것은 지성을 낭비하는 것에 불과할 뿐 결코 존중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지성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들로 여러 날 동안 애태울 [때 소모되고], 낙심시키고, 사기를 꺾고,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들일 때조차 [소모됩니다.]

지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단지 마음과 의지만 활용할 생각을 한다면 그 누구도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지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온전한 지성은 네 가지 면에 대한 공부에 있습니다. 정신을 위한 공부, 우리에게 관련된 일들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부, 우리가 해야 할 직무를 위한 공부, 우리의 사명을 위한 공부입니다. 그리고 발전해야 할 사도직에 대한 공부, | 우리를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고, 하느님의 계획 속에 있는 바로 그 선을 실천하게 만드는 인간 교육에 대한 공부입니다. 이점에 관해 우리는 곧 지성의 진보, 지성의 성화, 지성의 고양, 지성의 전적인 활용에 관해 충분히 성찰하지 않고, 잘 고백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지성은 이해하고 자제하며 실천에 적용시키는 부분이므로, 우리는 함부로 막 써버려도 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

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네 가지 선물은 지성을 위한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통찰과 의견의 선물.

우리는 늘 산만합니다! 왜 우리는 지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겁니까? 약간의 훈련, 약간의 극기와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지성은 하느님과 일치할 진전시켜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루의 목상을 기억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과 생각이 감실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생각을 늘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나는 천국을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장소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갑니다. 늘 이러한 목표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어떤 대화들은 지성이 얼마나 헛된지 보여줍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느님을 생각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과 하느님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에서는 하느님을 위해 농담을 즐기고 거룩한 즐거움을 증폭시키는 것, 놀이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지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느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직무에 관련해서는 그보다 더 지성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공부가 우리 사명과 우리의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배우기 위한 [지성의] 28 적용이라는 점을 잘 각인시켰다면, 다음과 같은 | 두 가지 결론이 도출됩니다. 곧 공부는 제한성과 집중적인 태도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1. [공부는] 제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직무, 우리 사명에 능숙하게 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어떤 자매가 분원 통솔에 관한 회헌 항목을 공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분원에서는 통솔에 관해 공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신심, 덕성

에 관해 공부하지 않고, 또 그것들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성의 성화, 자신의 직무, 자신의 의무에 관한 것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예수회 어느 총장의³ 전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는 정상에 이르기까지 자기 수도회에서 모든 직무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한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넘어갈 때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에게 맡겨진 직무에 관해 회헌에서 제시하는 정신이 무엇인지, 의무가 무엇인지 숙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부터 그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않았지만, 필요성이 있을 때 그에 대해 집중한 것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 잘 살펴봅시다. ‘그대는 글을 써야 합니까?’ 글을 쓰기 위하여 필요한 것에 전념해야 합니다. 만일 강연할 책임이나 수업을 해야 할 책임을 맡게 된다면 그에 필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대는 프로파간다를 해야 합니까?’ 프로파간다를 할 책임을 맡았다면 프로파간다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직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시간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어떤 일을 사랑한다면 거기에만 마음을 써야 합니다.

기도에서도 머릿속에 그 일이 떠오르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조차 그것에 관한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 | 말해야 하고, 행해야 하는 일에 대한 통찰에서 발전 정도를 표시해야 합니다. 요리사, 안내실 봉사자, 제의방지기, 인쇄소 책임자, 프로파간다스타, 리브레리스타는 늘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고 배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려운 일 29인 동시에 회헌 제2조에 대한 준수사항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회헌 제1조가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 발전해야 함

3. 레도코브스키 블라디미로 신부(P. Ledochowski Wladimiro, 1866-1942)이다. 그는 1915년 2월 11일에 예수회 총장으로 선출되었다.

니다. 바오로 영성을 안다면 도미니코 영성, 가르멜 영성 등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리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영성의 사상과 신심실천 안에 내재해 있는 세 가지 신심divozioni을 통찰해야 합니다. 곧 스승 예수, 사도의 모후, 그리고 성 바오로께 대한 신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알았더라면 …,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저것을 읽었더라면 …” 하는 바람은 불필요한 짐입니다. 여러분이 프로파간다를 갈 때는 길에 놓여 있는 돌들을 신고 가는 것이 아니라 책가방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돌들이란 불필요한 짐을 말하는 것으로, 분산시키고 먼 곳으로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첫 번째 적을 공동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생각으로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에 삶에 적용시키지 못한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때때로 더 큰 분심의 기회가 됩니다. 산만해진다는 것은 목적을 지향하기보다 늘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하나는 우리 자신과 바오로적 성화와 우리 회현에 관한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사도직 직무에 관한 목적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나중에 내가 다른 일을 하려고 결심한다면?” 그대는 그때 다른 것을 하기 위해 30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한계는 목적에 의해 정해집니다. 철학을 조금 공부해야 합니다. 한계는 공부의 목적에 의해 정해집니다.

2. [공부는] 집중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것, 우리의 직무에 속하는 것과 하느님께 대한 큰 인식에 속하는 것을 잘 통찰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인들의 생애를 읽게 되면, 우리는 그들이 젊었을 때 가졌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연륜이 더해감에 따라 그들의 성화작업이 이미 일정 수준에 달했을 때 가졌던 생각과 느낌의

최고봉이 어떠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지성의 성화! ‘이 사항에 이르면 나는 늘 화내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왜 이 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가?’ 왜 조심하지 않는가? 왜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지성을 성화시키려 노력하지 않는가? 여러분은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 감사합니다Deo gratias! 그런데 저는 늘 지성, 지능에 관한 힘의 낭비가 가장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쇠신되기 위한 지향, 일반적인 지향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곧 모두가 지성을 성화해야 합니다. 지성의 성화 없이는 그 누구도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성의 성화에 관한 것을 배우려는 노력 없이는 그 누구도 수도회에 결실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현 제1조에 나오는 성화에 관해서든, 제2조에 나오는 사도직에 관해서든 모두가 매일 향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수도회 안에는 가르치는 일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서 또는 강연에서 또는 편집에서 가르치는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거기에 관련되는 공부와 과목을 습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삶에서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어를 지나치게 열심히 공부한다면 31 정해진 목적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만일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하여 그리고 | 신학적, 철학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공부한다면 그것은 지성을 성화하는 것입니다. 한계는 늘 목적에 의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선물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ㄱ) 지혜의 선물을 성령께 청해야 합니다. 지혜는 모든 것이 하느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ㄴ) 지식의 선물, 다시 말해 실천적인 사항들, 특히 회현과 바오로

4. 출판본 텍스트에는 없는 문장이지만, 녹음에서 옮겨 쓴 글에서 인용했다.

32 정신을 꿰뚫어야 하고, 사도의 모후를 더 잘 알아야 하고, 성 바오로를 더 잘 알아야 합니다.

ㄷ) 통찰의 선물은 우리가 교의와 윤리적인 진리, 기도와 전례의 가르침을 더 잘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찰해야 합니다. 내면, 곧 속 뜻을 읽으라는 것입니다^{intus legere}. 감실 안을 읽어야 하고, 마리아의 내면을 읽어야 하고, 바오로 정신의 내적 본질을 읽어야 합니다. 그 정신은 성 바오로께서 당신 교회에 남겨주신 정신입니다.

ㄹ) 의견의 선물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유익한지 [보기 위하여] 청해야 하는 실천적인 선물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께 빛을 받아야 하며, 우리가 처한, 우리가 가진, 또는 가지고 있지 않은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수단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여러분은 발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첫 자리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성의 성화에 관한 것들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발전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와 선한 의지에 관해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에 이르게 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지성과 지능과 기억을 성화하였습니까? 또는 허비하였습니까? 기억, 곧 | 여러분이 가르쳐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또 종종 해로운 것,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에 성인들의 모범, 복음, 우리 주님의 삶의 일화를 기억해야 하고, 성 바오로의 삶을 알아야 하고, 그분의 서간들과 마리아의 생애에 대한 여러 구절들을 한층 더 깊이 통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보기 위해, 지복직관의 은총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를 갖추기 위하여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성을 성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익한 생각들과 해로운 생각들의 찌꺼기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IV. 완전한 공부STUDIUM PERFECTIONIS

이 성당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사도의 모후] 성당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합니다. 특히 스승 예수님께 봉헌된 제대,¹ 성 바오로께 봉헌된 제대,² 그리고 일반적으로 복음사가들의 그림을 걸어두는 곳의 그림들도 아직 부족합니다.³

이러한 점을 기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곧 제대 오른 편에서 시작하는 성당의 벽면 장식 틀(cornicione 역주: 성당 내부의 벽면에 수평으로 두른 띠 모양의 돌출 장식) 위에 새겨놓은 베드로와 요한^{Petrus et Joannes} 등의 이름입니다.⁴ 사도들은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성령강림을 기다리

1. 중앙 제대의 왼편에 위치한, 스승 예수님께 봉헌된 제대는 1961년 3월 18일에 축성되었다. 제대의 장식 벽면은 네 복음사가로 대표되는 네 개의 부조가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예수님의 왼쪽 손에 들린 성경의 펼친 면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Ego sum Via et Veritas et Vita)라는 말씀이 적혀 있다. 곧 예수님께서서 당신 자신에 대해 내리신 정의요,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바오로 정신의 핵심으로 요약하신 표현이다.

2. 중앙 제대 오른편에 위치한, 성 바오로께 봉헌된 제대는 1961년 3월 18일에 축성되었다. 제대 벽면 장식은 바오로가 정복자,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전령으로 표현되었다. 화폭 아래에는 '성 바오로 사도 - 간택된 그릇, 이방인의 스승, 순교자, 탁월한 보호자'(Sanctus Paulus Apostolus - Vas electionis, Magister gentium, Martir, Editionum protector)라고 쓰여 있다. 제대 벽면 장식은 사도의 모습을 필두로 성 아우구스티노, 성 토마스, 성 보나벤투라, 성 알폰소, 성 대(大)그레고리오와 레오 13세, 그리고 왼쪽 두 개의 벽기둥에는 성 예로니모와 성 대(大)알베르토, 오른쪽에는 성 베르나르도와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가 있다.(역주: 성 바오로 사도의 그림 아래는 앞에 나열한 성인들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고, 벽기둥에는 상하좌우로 네 분의 성인이 부조로 조각되어 있다)

3.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산타가타(Santagata) 교수로 하여금 성당의 원형천장을 지탱하는 네 개의 원주의 펜네티브(pennachi: 정사각형의 평면 위에 지름의 길이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같은 원형 돌을 엮을 때 형성되는 모서리 부분으로 오목하게 휘어진 삼각형)에, 복음사가들 대신에 마리아의 네 가지 교의 사상을 그려 넣게 하였다. 곧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 평생 동정인 마리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하늘에 들어올림을 받으신 마리아.

4.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말씀은 벽면 장식 틀 위에 새겨진 사도들의 이름을 향해 눈길

며 이층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cum fratribus et mulieribus et Maria Matre Jesu.”⁵ 다시 말해 아직 사도들이 아닌 이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주변에 있던 이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태풍 같은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는 표지였습니다. 사실 큰 불꽃같은 모양이 나타났으며, 그 불꽃이 여러 개의 혀 모양으로 갈라지면서 각 사람에게 내리자 사도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마리아께서는 가장 충만하게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도 이 시기에 많은 기도 안에서 큰 빛, 큰 열정과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생생하고, 가장 드높은 신심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 기간은 성령강림의 때가 되어야 합니다. 쇠신 되어야 합니다.

* * *

34 지성의 동정, 이는 [나쁜] 생각에 의해 망가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늘 모든 나쁜 생각에서 정화되기를 Ab omnibus malis perversis et ab alienis cogitationibus!”⁶ 그러므로 두 개의 씨앗에서 묘목이 싹터나오듯이, 우리의 지성이 회현의 첫 두 조항을 향하도록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씨앗은 언제나 신심, 성성, 진리입니다. 첫 씨앗이 두 번째 씨앗도 받아시킵니다. [그렇게 될 때] 큰 빛이 우리의 지성을 비추어 스승 예수님을 한층 더 잘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

을 돌리도록, 또 첫 번째 성령강림절을 기억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5. 사도 1, 14.

6. 즈카 1, 4 참조: “너희는 부디 너희의 악한 길과 악한 행동을 버리고 돌아와라.”(불가타)

년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곧 지성을 성화할 것.⁷

이 기간에 성령, 하늘의 불꽃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의미는 성부께 대한 사랑, 영혼들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 대한 사랑, 천국을 향한 사랑입니다. 천국에 대한 가장 생생한 열망을 지녀야 합니다.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Cupio dissolvi et esse cum Christo.”⁸ 내 삶이 끝나고, 내 영혼이 육신을 떠나 늘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려는 열망입니다. 비록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마음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있더라도 위대한 성인이 말한 것처럼, “노동을 거부하지 않는다 Non recuso laborem.”⁹라고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는, 그리고 어쩌면 아주 짧은 시간일 수 있는 이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짊어져야 하는 고통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가올 영신수련을 할 수 있을지 또는 영성적인 해의 끝마무리에 이를 수 있을지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비둘기 형상으로 나타나신 성령께서 의지를 굳건하게 해주시고, 순수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의 동정, 곧 큰 성성의 결심과 더불어 소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 우리는 혼합될 수 없는 것을 혼합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기름을 식초와 섞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름에 비유되고, 사탄

7. 1954년 9월, 프리모 마에스트로께서는 바오로 가족 전체를 위한 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를 제시하셨다. 곧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1954년 9월부터 1955년 5월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달 「성 바오로」지에 이 주제에 관한 글을 게재하셨다. (CISP 1123-1194 참조) 그때마다 성바오로딸수도회 내부 회람지 「사도의 모후」에도 게재되었다. 야고보 알베리오네, 「복음을 위한 몸과 마음」, 19-139쪽 참조.

8. 필리 1, 23.

9. 「로마 성무일도」, 성 마르티노 기념, 11월 11일, II Nocturno, Lectio V에서 인용한 표현. 성 마르티노(약 317년-397)는 프랑스의 군인이었다가 나중에 수도자가 되었으며, 주교로서 성직자들을 가르치는 동시에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은 식초에 비유됩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는 동맹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의지를 굳건히 해주시어, 여러분 모두가 금년에 어떠한 소죄라도 고의적으로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족하실 수 있기를, 성 바오로께서 당신 딸들을 마음에 들어 하시기를, 그리고 하늘에 계신 성부께서 “이들은 내 사랑하는 딸들, 내 마음에 드는 딸들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대한 지성의 사랑, 마음의 사랑과 의지의 사랑을 가져다주시기를 빕니다.

생각의 완전한 동정, 이는 무익한 생각에 결코 동의하지 않고, 지성이 다른 것들에 몰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진될 수 없는 사명과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온전히 실천할 수 없는 신심을, 그만큼 아주 높은 신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신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모든 선과 다른 이들 안에 있는 선을 칭송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이야말로 가장 선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참되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하느님의 뜻에 머무릅시다. 지성의 동정, 마음의 동정, 의지의 동정! 선과 악을,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참과 거짓을,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을 결코 혼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곧 영혼과 육신이 함께 하느님을 위하여 고양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주시도록 열 두 사도에게, 성모님께, 일흔 두 명의 제자들인 형제들과 신심 깊은 여성들에게 전구를 청해야 합니다. | 우리의 사랑하는 어머니요 스승이며 모후이신 마리아의 중
36 재를 청하며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동정을 전달해주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이에 대한 약간의 잘못된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동정은 아

름다움과 추함, 참됨과 거짓, 거룩함과 불완전함, 선함과 악함을 혼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늘 “평화와 선과 진리”¹⁰라는 말씀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심은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께 대한 신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부가 ‘완전한 공부studium perfectionis’이며, 공부는 완전해하는 과제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천사의 빛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과 의지가 완전해지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지기 위해 지성을 완전하게 해야 합니다. ‘완전한 공부’는 (우리가 발한) 서원을 살기 위한 공부입니다.

영성체 후에 아주 짧게라도 서원을 갱신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천국에서 서원을 갱신하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 거기서는 영원한 서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침상에서 선언하게 될 마지막 서원은 가장 완전한 서원이 될 것입니다. 각자는 늘 ‘완전한 공부’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고상한 공부입니다. 성인들의 공부입니다. 농부들과 일꾼들, 젊은이들과 아버지들, 어머니들과 젊은 여성들, 교수들과 학생들, 이것이 모든 이의 공부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덕의 공부를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성의 완덕뿐만 아니라, 수도회가 맡긴 활동에서 완덕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학생들입니다!

* * *

사도직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부에서 행해야 하는 일은 37 항상 사도직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한 요리를 해야 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성경을 읽어야 하고, 수업을 위해 학교에 가야 합니다. 이 모든

10. “Pax et bonum et veritas”.

생각이 사도직입니다.

* * *

세상을 떠난 자매들을 많이 의존하고, 그들에게 전구를 청하십시오. 몇 년 전에는 선종한 자매들에게 여러분이 헌신적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에게 전구를 청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만나게 될 행복한 조국에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염원은 여기 낮은 곳에 성바로말들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높은 곳에서 무엇을 염원하겠습니까? 역시 회원이 많아지고, 그들이 양성을 잘 받고, 사도직을 거룩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프로파간다의 고된 임무를 영웅적으로 수행해낸 자매들을 여러분의 프로파간다에 동참시키고, 개인의 성화에 동참시키고, 더 나아가 서원에서, 그리고 프로파간다 수단 채택에 있어서 그들이 동행하게 하십시오.

그들과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지상의 자매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지만, 그 영혼들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십시오. 이 지상에서는 자매들 모두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지만, 저 높은 곳에서는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스러지지 않습니다 Charitas manet in aeternum.”¹¹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들에게 많은 저술가들을 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잡지에¹² 글을 쓰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고, | 어려운 기사를

11. 1코린 13,8.

12. 여성 잡지 「코시Casi」를 암시한다. 이 주간지는 성바로말수도회가 1955년 12월에 발간했고, 1966년에 폐간했다.

맡은 수녀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사실 때때로 공부를 한 사람과 공부를 해야 하는 사람을 위하여 위로가 되는 것은 일을 바꾸면서 휴식하는 것입니다.

* * *

또 다른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전례력은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준비입니다. 곧 대림절,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유년기, 그분의 40일간의 단식, 세례자 요한의 활동을 통한 세례성사, 뒤이은 광야의 유혹에서 당신 제자들에게 첫 번째 표징을 드러내신 카나의 혼인잔치까지입니다.

두 번째 기간은, 다른 기간을 성탄시기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시기라고 부르는 기간입니다. 부활시기, 다시 말해 구원을 위한 희생을 바치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설교를 하십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칠순절Settuagesima(역주: 트리엔트 전례에서는 주님의 세례주일, 공현 후 2주일에서 공현 후 5주일, 그 다음에 부활 70일 전 주일을 칠순주일Settuagesima, 60일 전 주일을 육순주일Sessagesima, 50일 전 주일을 오순절Quinquagesima, 재의 수요일 순으로 이어진다)부터 성지주일까지 미사전례의 복음봉독에 배치됩니다. 그다음에 성지주일부터 성토요일까지 고통을 겪으시는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수하시고, 40일을 지내신 다음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가 부활시기입니다.

이 두 기간에 하느님의 구원 역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곧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느님의 성자께서 원죄를 통해 잃어버린 선물을 다시 우리에게 가져다주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오류는 죄를 통하여 하느님처럼 지혜롭게 되

리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릇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가져다주셨습니다. 두 번째 오류는 금지된 열매를 열망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다른 열매들, 다른 바람들, | 다른 삶을 가져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선, 곧 천국을 열망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세 번째 오류는 금지된 열매를 먹은 잘못이었습니다. 원조들이 손을 뺀 나무에서 금지된 열매를 손에 넣었으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셨으며, 십자가 나무에 오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들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곧 복음, 교회, 성체, 사제직, 수도회, 마리아를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선물입니다!

성령강림 대축일부터 대림 첫 주일에 이르는 기간은 받은 이러한 선물에 대해 묵상하는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 생명에 대해 깊이 머무르며 자주 성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전례력의 세 번째 부분은 가장 길게, 6개월 동안 지속되는데, 전례력에 25주일 내지 26주일로 표현됩니다. 성령강림 대축일부터 대림 첫 주일까지 수많은 박해와 반대 속에 이 세상을 거쳐 가는 교회의 삶을 보여주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끝날 때 각 사람이 보상받게 될 최후 심판을 맞게 됩니다. 곧 성령강림 대축일 이후 마지막 주일에 표현됩니다. (역주: 트리엔트 전례에서는 성령강림 대축일 후 제27주일로 표현됨. 그 다음에 대림절이 시작되지만 오늘날 우리 전례에서는 연중 33주일에 해당됨)

이 시기의 여섯 달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중요한 때입니다. 이 시기 동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가져다주시는 열매인 40 보화, 선의 보화를 일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셨고, 우리를 하늘로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 숙고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시작하여

저 높은 곳, 곧 천국에서 영속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그 은총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 세례성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총, 우리 안에서 자라기를 바라시는 | 그 은총은 이 세상에서 시작하여 저 높은 곳, 천국에서 영속하게 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기간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전례서나 주석서에서조차 그 가치를 아직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길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께 대한 신심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와 같은 전례시기를 더 활발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이야기하는 중에 다음과 같이 자문해봅시다. '겨울신심과 여름신심이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께 대한 신심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 여름에 더 잘 실천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위험한 기회가 더 많으므로 더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해변, 산,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 저질 잡지들, 이 모든 것이 악을 조장합니다. 게다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그 모든 진흙탕 사이를 지나가고자 하는 뻔뻔함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죄를 짓지 않도록 보속하며 마리아께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로 여름에 성소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성소자를 잘 선택하도록 사도의 모후께 기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가을과 더불어 공부가 시작되기 때문에(역주: 유럽,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학기가 가을에 시작됨) 남성 성소는 특히 여름에 결정됩니다. 많은 젊은 여성들은 내면 깊이 섬세한 감정과 예수님께 대한 강렬한 사랑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많은 죄들과 많은 위험에 대해 혐오감을 느낍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영혼을 모든 | 죄에서 안전하게 지키고 파멸에서 구하기 위해 수도원을 선택하고, 특히 여름에 성소를 결정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결심을

41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성소자들을 동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천상 스승을 따라서 성소자들에 관하여 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십시오. 이점에 관해 여러분의 열성이 계속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성소자들을 잘 선별하고, 성소를 확정짓기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빛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다른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곧 안정된 성소, 확고한 성소입니다. 서원 후 처음 몇 년 동안 드물지 않게 방향 상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어머니요 스승이신 성소자의 모후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42

V. 바오로적 경영관리(1)

사도의 모후와 성 바오로의 전구를 통하여 천상 스승께 지혜로운 경영관리, 다시 말해 바오로적 경영관리를 청합시다.

바오로적 경영관리의 바탕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원칙으로 유지됩니까? 천상 스승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원칙이며, 성 바오로께서 주신 원칙들입니다. 일부는 자연적인 원칙들이고, 다른 일부는 초자연적인 원칙들입니다.

1. 천상 스승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천상 스승께서는 죄 외에는 모든 면에서 사람과 똑같으셨고, 인간의 본성적인 필요에 예속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어머니에게서 양육되었고, 후에는 힘든 노동을 하여 양식을 마련하셨으며, 공생활 중에는 회사와 기부로 사셨습니다. 가장 가난하게 사셨고, 가장 가난하게 돌아가셨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에게 빵과 물고기를 많이 하는 기적을 일으키어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주시고,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적인 재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초자연적인 재물을 생각하는 차원으로 인간을 승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빵을 많이 하신 다음 행하신 설교는 대단히 교육적입니다. 이 설교는 성 요한복음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중이] 빵을 배불리 먹고 나자 [예수님께서] | 다른 빵, 곧 성체성사의 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곧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빵은 표상이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시면서 성체성사에 대하여 교육하십니다. 곧 초자연적 효과를 위해 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시어 은총을 베푸실 것이고, 그 은총은 그들을 통하여 영

43 흔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을 마련하던 것처럼, 너희가 온전히 만족하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을 드높이도록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줄 빵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것이다.” 천국에서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의 온 지성이 충족될 것이고, 우리의 온 마음이 충족될 것이며, 우리의 온 의지가 충족될 것입니다. 영혼의 영향을 받아 육신 또한 충족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영혼의 재물, 보물, 행복을 쌓아둘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른 맛을 볼 것이고, 우리의 눈은 다른 것들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은 온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지상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이기에 모든 것이 거룩할 것입니다.

지상의 삶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어떻게 마련해줍니까? 진리를 통하여, 그리고 은총과 덕성과 감각의 극기를 통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원한 삶을 위하여 자연적인 재물을 활용해야 합니다. 곧 의복, 음식, 주거지, 서점, 사물, 기계, 자동차 ... “... 저희가 지상의 재물 사이를 걷는 동안 영원한 재물을 잃지 않게 하소서 Sic transeamus per bona temporalia ut non amittamus aeterna.”¹ 영원한 재물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적인 재물을 통하여 초자연적인 재물을 얻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계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자동차, 비행기, 옷, 빵과 사물을 사용한다면 그 모든 것을 영원한 삶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1. 성령강림 대축일 후 제3주일 미사 본기도이다.(역주: 트리엔트 전례에 따르면, 성령강림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로 이어지다가 그다음에는 성령강림 대축일 후 제2주일로 이어진다. 오늘날에는 연중 11주일 아니면 12주일로 이어진다. 따라서 아마도 연중 13주일쯤에 해당한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날에는 다른 축일이 주일에 오게 되면 연중시기 주일을 건너뛰지만 트리엔트 전례에서는 그 축일을 지낸 다음 다시 계속 이어졌다)

모든 것은 오로지 그리고 언제나 천국을 위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입맛을 부각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만족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보세요, 이것이 수도자다운 청빈입니다! 모든 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까?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침대는 게으름을 피우기 위한 것입니까? 식탁은 우리의 입맛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집은 더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락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모든 것은 오로지 그리고 언제나 영원한 삶을 위한 것입니다. 어떠한 야심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물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기꺼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돌보아야 하는 것처럼, 다른 건강, 영원한 복지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자연적인 것에서 초자연적인 것들로 자신을 들어올려야 합니다. 먹고 있는 음식을 하느님께서 영원에서부터 마련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것도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명을 위하여 필요한 재물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어떤 영혼을 수도생활로 부르실 때 수도생활을 잘 살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준비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별들을 바라봄으로써 천국을 생각하는 단계로 우리 자신을 들어올립니다. 거기에는 창공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창공, 곧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별들은 성인들을 대신합니다. “별들은 또 그 광채로 서로 구별됩니다 Stella a stella differt in claritate.”² 별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열망해야 합니다. 태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이신 태양 빛이 있고, 예수님의 성심에서 나오는 열기가 있음을 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우리에게

2. 1코린 15,41.

전달해주는 반사체요, 마리아의 상징인 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들꽃들이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떤 성인은 길을 가는 중에 꽃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 땅이라는 이 유배의 골짜기에서 내가 즐거움을 맛보도록 너를 만드신 나의 하느님을 왜 충분히 사랑하지
45 않느냐고 나를 꾸짖는 것을 제발 그만 두렴.”

바다를 생각할 때에는 하느님의 한량없으심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또한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소출들, 열매들, 채소들, 또 양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양모를 생각할 때 [하느님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볼 때 이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이 불편한 구유에 대해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필요했던 것, 마리아께서 만족하셨던 것들, 성 요셉께서 자신과 성가정을 위하여 마련하셨던 것과 비교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낮 동안 자유롭게 설교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하여 밤을 새며 일하셨던 성 바오로께서 행하신 바를 우리는 왜 기억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식탁에서 성체성사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침상에 누울 때 연옥영혼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따뜻하고 편안한 침대에서 잠자고 쉬고 있는데 그 영혼들은 이 밤을 쉬지 못합니다. 교황 비오 10세께서는 자정에 늘 “주님, 깊은 곳에서 당신께 부르짖습니다De profundis”³라는 시편기도를 바치시면서 연옥영혼들이 편한 밤을 지내고, 천국의 영원한 안식에 들도록 기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휴식을 취하는 동안 연옥영혼들의 영원한 안식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3. 시편 130편.

“감각적인 것에서 비가시적인 것으로Per sensibilia ad invisibilia”⁴의 원칙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원칙입니다. 곧 일시적인 것임을 생각하면서 초자연적이며 영원한 것으로 우리 자신을 들어 올립시다. 예를 들
46 어 우리는 세상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를 알게 됩니다. 세상은 자연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어떤 존재가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 하느님이라고 부릅니다. 때때로 우리는 눈먼 장님들이고, 무감각하고, 귀머거리가 되어 하느님의 목소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즐기기 위해 지상의 것들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얼마나 큰 잘못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영원한 삶에 연관짓는 습관을 들여야 하고, 또 아버지처럼 보살펴주시는 하느님을 향해 먼저 눈을 들어 올려야 합니다. 아, 얼마나 좋으신 하늘의 아버지이신지요! 그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큰일들을 보살펴주시며, 인간 역사와 우리의 일상을 다스리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고, 아주 짧고 연약한 생명력을 지닌 백합과 초원의 들꽃도 잊지 않으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그보다 훨씬 더 우리를 배려해 주실 것입니다.

2. 예수님과 성 바오로의 [원칙에 따른] 경영관리. 우리는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신을 돌보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 안에 많은 것을 넣어주셨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자라나는 곡식에 대해 감사해야 하고, 전화에 대해, 라디오에 대해 감사드려야 하고, 비행기에 대해, 원자력에 대해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인간의 발명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하느님의 업적을 연구하면서 하

4. 「신학대전」, 1, 2, 3 참조.

느님께서 자연 안에 넣어두신 약간의 힘을 찾아냈습니다. 모든 발명은 하느님께 대한 칭송의 장場이요, 하느님께서 자연 안에 넣어두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그토록 많은 것을 넣어두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 마음, 지성, 이웃과의 관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합니
47 다. 특히 하느님 섭리가 우리 사도직을 위하여 주신 모든 수단들을 우리는 활용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길에 보화를 놓아두셨으므로 많은 보화가 우리 안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 보화를 발견할 줄 모릅니다. 출간 중에 있거나 이미 여러 권의 책이 재판에 들어간 심리학 시리즈는⁵ 우리 안에 있는 보화를 아주 조금만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화, 힘을 활용하는 것처럼, 하느님을 알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 우리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섭리, 곧 창조입니다!

두 번째 섭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동의 의무를 주셨기에 우리는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왜 30년간 일을 하시고, 말씀은 단지 3년에 걸쳐 선포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노동 안에서 우리의 육신,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음을 성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일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⁶ 또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마라. ...”⁷ 그것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것을 약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도 가족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이러한 것을 가르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

5. 바오로 출판사에서 출간된(1955년) “심리학 시리즈”는 이 분야 전문가들이 경험으로 일구어낸 심리학과 교육학에 대한 세계적인 문고다.

6. 창세 3,19.

7. 2테살 3,10.

니다. “성전에 봉직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양식을 얻고, 제단 일을 맡은 이들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⁸

그러므로 책과 노동의 봉헌은 우리의 자연적인 필요성, 수도회의 필요성과 수도회의 안전을 보살피기 위하여 노동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회헌의 세 번째 조항을 여러분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도회는 어떤 불편 앞에서, | 질병 앞에서, 노쇠 앞에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어느 수도 가족에 들어가서 48 계약을 맺게 될 때 하나의 사회를 구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온전히 수도회에 쏟을 것이며, 수도회는 내가 무덤에 이르기까지 현세의 삶에서 내게 필요한 것을 나에게 줄 의무를 가집니다. 하나의 계약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힘을 쏟는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닌 지적 힘, 윤리적 힘, 영적인 힘, 육체적 힘을 온전히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건강이 제공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만일 10개를 내어놓을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5개, 3개를 내어놓을 것입니다. 각자는 가지고 있는 역량에 따라서 수도회에 봉사하지만, 모든 것을 수도회에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곧 서원을 한 다음 무질서하게 자매들, 조카들, 사촌들, 부모들을 ...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보여주듯이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족벌주의로서 교회 안에 자주 드러나는 하나의 질환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조카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17세기까지 존재했던 이러한 질환은 하느님의 덕택으로 최고 권위에서 사라졌습니다. 족벌주의를 근절시킨 교황은⁹ 그러한 일련의 속임수를 없애버렸습니다.

8. 1코린 9,13.

9. 안토니오 피냐텔리(Antonio Pignatelli, 1615-1700), 곧 교황 인노첸스 12세는 교황령 *Romanum decet Pontificem*(1692년)과 칙서 「가톨릭교회 *Ecclesiae Catholicae*」(1695년)를 통하여 족벌주의가 끼치는 재난을 끝냈다.

그런데 이제 수도원에도 그러한 현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에서 결속되어 있는 다른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적인 가족을 생각하고 그 가족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한다면 우리는 수도회를 약탈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수도회의 힘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인쇄기를 파손하는 것 이상의 일입니다. 모든 윤리적 힘, 마음의 힘을 쏟아서 수도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본성상의 도리이며, 수도서원의 도리로, 자연적인 의

49 무요, 하느님께서 부과하신 의무입니다. 다시 말해 수도 삶의 정신에 따라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합니다.”¹⁰ 그런데 만일 우리가 여전히 모든 것을 마음에 지니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다음으로 경영관리는 초자연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경영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관리는 장상과 [재무담당에 의해], 다음과 같이 네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네 가지 차원에서 경영되어야 합니다. 곧 정신^{spirito}(역주: 신심생활을 말함), 면학, 사도직, 경영관리(청빈)입니다. 우리가 하는 경영관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일반적인 사업체를 생각 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성함을 소중하게 다루듯이, 교회를 존경하듯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수도회의 모든 사물은 정해진 목적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다른 한편 [공동체의] 조인 없이는 경영관리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련하여 여러분은 [회헌에서 말하는] ‘분업’에 대한 부분, 총통솔과 총재무담당에 대한 부분을 읽어야 합니다.¹¹ 독립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무담당도 자기 직무에서 순명의 덕을

10. 루카 18,22.

11. 「성바오로딸수도회 회헌」 1953년판 6장, 10장 참조.

지녀야 합니다. 불시에 잘못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행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의 경영관리는 다섯 가지 특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 언제나 청빈 정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인가에 대한 결핍 정신, 곧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잃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늘 무엇인가 필요로 하고, 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며, 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2) 생산하는 청빈은, 모든 측면의 생산을 의미합니다. | 우리가 시간 50을 더 잘 사용할 줄 안다면 더 열심히 전념할 것입니다. 주변을 서성거리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판단하면서 공덕을 상실하고, 수도회에 방해와 해를 끼치며, 수도회의 힘을 약화시키면서도 제7계명을 범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3) 대비하는 청빈은,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듯이 필요에 대비합니다. 결코 인색하거나 탐욕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검소해야 하며, 늘 청빈 정신에 일치되어야 합니다.

4) 내어주는 청빈. 희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께서는 성 요셉께서 노동의 대가로 얻으신 것을 집안을 위해 사용하셨으며, 기부하실 줄도 아셨습니다. 여러분은 특히 성소자들을 위해 기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원자들로 가득 찬 집은 당연히 지출이 크므로 [이런 공동체에] 기부해야 합니다.

5) 절약할 줄 아는 청빈은 더 큰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도회는 계속 확장됩니다. 지금 피정의 집처럼¹²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필요성이 생기게 됩니다. 영신수련에 깊이 침잠하여 더 많은 결실을

12.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아리차(로마)의 천상 스승의 집이 바오로 가족 수도회와 수도 단체들의 회원들을 위한 피정의 집으로 사용되기를 원하셨다. 1958년말에 공사가 마무리되어 축성식을 가졌다.

맺고, 더 많은 위안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한 필요성입니다. 모든 것에는 올바른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¹³ 모든 출판, 수행하고 있는 모든 일이 궁극적인 목표를 위한 것 [이어야 합니다.]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하여 공덕을 쌓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가 아니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는 산책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도직을 위한 것입니다. 산책하기를 원한다면 걸어가면 됩니다. 만일 수도원에 무엇인가를 마련한다면, | 그것은 오로지 사도직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수녀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도직이 더 확장되고

51 발전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수도회의 큰 발전을 위해 더 필요한 한 가지 사항에 늘 주목해야 합니다.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차로 사제들을 수녀원에 모셔 와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동차는 사도직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봉쇄 법규에 속하며, 정확하게 봉쇄구역이라는 이름 아래 분류되지는 않지만 봉쇄생활 정신에 귀속되는 종합적인 사항에 속합니다.

원칙적으로 수도회는 수녀들과 성바오로수도회 사이에 더욱 밀접한 관계가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구별되고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아주 가까운 삶을 영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조금씩 앞을 향해 나아갔고, 이제는 많이 발전했습니다. 아직은 분리가 더 [필요합니다.] 곧 책임자들 *capi* 사이에는 더 많은 일치, 회원들 사이에는 더 많은 분리 *separazione*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의기투합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남녀 장상들 사이에서 일치

13. 루카 2,14 참조. 천사들의 노래는 복자 G.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바오로 가족 전체를 위한 삶의 프로그램, 사도직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으로 채택하였다.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장상 수녀들은 자매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성바오로수도회 장상들은 수도회의 회원들에게 지시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책임자들 사이에는 더 큰 일치가, 회원들 사이에는 더 확실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뿐 아니라 쪽지에 글을 써서 주고받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경향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향이 나중에는 호감으로 전개되어 다른 이들과 함께 일하기보다는 그 형제 또는 그 자매하고만 일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신애론」¹⁴을 읽어 본다면 우리의 경우에 정말 잘 어울리는 주의사항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적인 선물, 누군가를 위해 봉헌한 미사, 보내온 쪽지, 어떤 한 사람에게 더 마음 쓰는 것, 정당하지 못한 긴 대화, 분리시킬 필요가 있는 것,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유입되는 기부금 등, 이 모든 것은 배제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문자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봉쇄 정신 *spirito*, 영을 훼손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사제들과 수녀들, 신학생들과 수녀들이 함께 타고 가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저는 이 점에 관해 한편으로 주의를 주었고, 또 손님접대에 관해서는 환대에 관한 규칙이 어떠한지, 손님접대 [자체]에서 주어지는 불편사항과 잘못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 *Ospitales invicem sine murmuratione*.”¹⁵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쉽게 불평한다는 한 가지 결점만 암시하고 있습니다. 손님대접을 받는 사람은 그를 환대한 분원을 곤란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며, 접대를 하는 사람은 나약함이 아니라, 선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4. 「신애론 *Filotea*」 또는 「신심생활 입문 *Introduzione alla vita devota*」, IV, 8 참조. (역주: 바오로딸출판사의 「하느님을 찾는 이들에게」)

15. 1베드 4,9 참조.

52 선함을 나약함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점에 관하여 여러분의 분원 수녀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Ⅵ. 바오로적 경영관리(2) -정오의 악마

일반적으로 청빈서원과 더불어 제7계명을 사랑하고 잘 실천하는 수녀들이 좋은 재무담당들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교회 안에는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곧 여러분의 통상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지속해야 할 노동과 기부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사회입니다.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톨릭액션에¹ 가입하기 위해서도 회비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모두가 조세를 통하여 공헌합니다. 조세는 수입에 따른 비례로 잘 할당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비를 위해 애쓰는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다르고, 수입이 충분한 잘 사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체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발전적인 조세가 있으며, 그러한 조세는 후대까지 계승됩니다.

그 대신 교회는 영적 초자연적 사회로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모든 것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사도직이 [회원들에게] 필요한 생계유지비를 마련해야 하고, 특별활동을 위해서는 기부금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오로 가족은 편집 사도직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어야 합니다. 편집 사도직은 | 첫 번째 활동으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더 높은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기술 사도직에서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영화 필름과 서적 출판 54

53

1. Pr6, 30의 각주 5 참조. (역주: 이 책 첫 강론부분 “30. 착복식” 각주 5에 가톨릭 액션에 관한 설명이 나옴)

사도직에서, 도서선교에서 이익을 얻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수도회의 통상적인 생계유지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삶은 그에 필요한 것이 있게 마련이고, 그 필요한 것은 우리의 노동을 통하여 충족되어야 합니다.

교황 비오 12세의 교황령 「그리스도의 신부 *Sponsa Christi*」²에서는 네 차례에 걸쳐 수녀들이 행해야 하는 노동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민 사회에, 교회에, 수도회의 유지에 기여해야 하므로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노동을 따로 제쳐놓아서 안 되며, 그 누구도 다른 이들이 하는 것을 돕는 데 그쳐서도 안 됩니다. 모두가 손을 내밀어 함께 밀면 수레가 움직일 수 있지만, 만일 힘을 뺏다면 수레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발전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두가 함께 수레를 밀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무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18세, 20세, 22세에 이르면 새로운 길을 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정을 꾸리고,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일을 함으로써 소득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수도회에 입회해도 자연적인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 천국에서도 모두가 활동합니다. 현세적 활동에서는 쉬게 되지만, 가장 높은 차원의 활동, 다시 말해 순수 행위이신 하느님이 펼치시는 가장 지고한 활동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느님께서] 권위의 행사가 아니라, 언제나 행동 중에 계시고, 늘 행하셔야 합니다. 물질적인 우리 인간들의 이해력으로는 알아듣기 힘들지만, 천국에서는 최고의 활동 중에 있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모든 힘은 그 활동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게 되면 우리의 모든 | 힘, 곧 의지, 마음, 육신, 눈, 혀, 모든 것이 활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2. “여러 가지 묵상” n. 10, 각주 23 참조.

우리는 큰 활동 중에 있어야 합니다. 활동이라는 것은 프로파간다처럼 단지 육체적인 노동만 아니라 펜의 노동, 고통의 사도직, 기도의 사도 55 직 [또한] 포함됩니다. 수도회는 이러한 사도직을 살아야 하고, 그 노동에 대해 더 넓은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교회 안에는 늘 기부가 있어 왔습니다. 스승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성 바오로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봅시다. 그분들은 노동을 하셨고 회사를 하셨습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당신의 서간에서 여러 번 그 누구의 짐도 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며] “필요한 것을 이 두 손으로 장만하였다는 사실 ministraverunt me manus istae”³을, 못이 박힌 손으로 일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이를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성 바오로께서는 사도들 사이에서 회사에 대한 권고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모금을 하셨고, 계속적으로 기금을 만드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분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등에 모금 운동을 벌이시며 각자 매일 조금씩 돈을 모음으로써 마침내 아주 넉넉하게 헌납할 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주제에 관해서는 오래 전에 협력자 회보에 “초세기 교회의 기부금 *La beneficenza nei primi secoli della Chiesa*”이라는 긴 기사로 게재되었습니다.⁵

기부금은 어디에 쓰입니까?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특별한 필요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성당을 건립해야 합니까? 이는 새로운 사업이요,

3. 사도 20,34.

4. 참조: 로마 15,26; 1코린 16,1-2.

5. 이 기사를 게재한 「협력자 회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기부금에 관한 글이 「주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Date e vi sarà dato*」라는 책에 “초세기 사도시대 교회의 기부금”이라는 장(章) 제목이 나온다. (Autori var, Pia Società San Paolo, 알바, 1934년 9월 30일, pp. 225-232)

또 모두가 성당을 이용할 것이므로 모두가 기여해야 합니다. 만일 극장에 봉헌했다면 ... 이제 성당으로 가서 | 그 경비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56 더 큰 필요를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합니다. 많은 필요한 것 가운데 분명히 성소자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소 사업은 더 많은 수입이 요청됩니다. 면학이 잘 조직되어 있을 때 교육받을 수녀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면학 시간을 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위해 적합한 수녀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특별한 일이고, 기부금을 받아야 하는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활동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회의 활동은 모두 자선 사업입니다. 주교관은 기부를 통해 지어졌고, 신학교와 수도단체들, 성당들, 제대 등 모든 것이 기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늘 이러한 의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곧 기부금을 청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 * *

수많은 악마들이 있습니다. 아침의 악마뿐 아니라 정오의 악마가 있고, 저녁의 악마와 밤의 악마도 있습니다. 악마들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작업은 밤낮으로 계속됩니다.

정오의 악마가 목적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시편의 오래된 전통은 이를 “어둠 속에 돌아다니는 흑사병도, 한낮에 창궐하는 괴질도...”⁶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전통은 다음과 같이 더 강하게 “삶의 한낮에 영혼들이 누리는 악의 총합Pernicies quae vasta meridie”⁷이라고 표현합니다.

6. 시편 91[90], 6(불가타).

7. 시편 91,6 참조.

우리 인생의 모든 시기마다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탐욕에 가장 쉽게 이끌립니다. 그것은 더 성장해야 하고, 더 큰 명성을 얻기 위한 자연적 발로입니다. 젊은 여성은 사치스러움에 쉽게 이끌립니다. | 그것은 하느님께서 여성 안에 넣어주신 경향의 발로입니다. 57 그러나 그것은 통제되어야 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공통된 경향이 있는데, 더 나이가 많아지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25세에서 30세, 35세, 45세까지, 그 이후도 그렇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인색해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여러 연령대에서 악마들이 유혹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인생에 붙따르는 네 가지 욕정을 암시 하였습니다. 곧 탐욕, 사치, 교만, 인색입니다.

서원을 하자마자 인내를 거스르는 유혹이 시작됩니다. 어떤 동기에 서입니까? 세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20세에서 40세에 이르는 인생을 방해하는 악의 총합은 무엇보다 먼저 악마의 존재를 통하여 설명됩니다. 곧 “한낮에 창궐하는 존재quae vasta meridie입니다.”

아, 악마! 수도서원의 공덕은 시작에 있지 않습니다. 사제의 수도서원 예식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만일 그대가 충실하다면, 만일 그대가 인내한다면 하느님의 이름으로 백배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⁸ 만일 그대가 그대의 서약에 충실하다면, 만일 그대가 인내한다면 ...

많은 성소자들을 망가뜨리는 악마는 정오에 활동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셨습니다.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⁹ 하느님을 섬기기로 마음먹은 이들은 자기 영혼과의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전쟁을 시작하는 악마는 과연 무엇을 할까요? 인내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그 길을

8.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예식서」, 1945년, “수도서원을 위한 예식”, p. 43에서 인용.

9. 루카 22,31.

버리라는 유혹이 아니라 걸음을 늦추도록, 열정을 감소시키도록 유혹
58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욕정을 일깨우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이 타고난 경향인데 여러분이 주님께 봉헌한 | 모성애가 열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불순한 불꽃이 불타오르게 됩니다. 약함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종의 후회를 일으키는 느낌인데, 아기들로 둘러싸인 엄마를 시기하게 만들고, 열성의 감소를 가져옵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불이 온 마음을 채워 다른 불순한 불꽃으로 번져나갈 수 없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지 못하게 합니까?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느님의 소유가 되려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마음속에 간직한 이러한 동기가 계속 유지되지 못하고, 더 성장하지 못한다면 성소의 아름다움도, 하느님의 것이 되는 기쁨도, 부르신 주님께 대한 감사도, 사도직에 대한 열정도, 수도회에 대한 사랑도 더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로 드러나는 징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곧 수도회보다 혈연으로 맺은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4계명의 모습을 띤 악마는 수도서원 때 다짐했던 삶의 계획을 몽땅 허공으로 날려버리게 만듭니다.

더러운 불길인 정오의 악마가 첫 번째 원인이라면, 두 번째 원인은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원장으로 여기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각자는 그 나름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원장이 된 다음 은총이 없다는 것이 보이면 원장직무를 내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울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오직 저를 돌보시는 은총이며, 당신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은총입니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잊게 만듭니다. 교만

함에서 자신이 소홀히 다루어졌다고 여기고, 한편으로 밀쳐졌다고 여기어 무감각하고 냉혹한 낙담상태에 빠집니다. | 악마는 우리가 약해지기만을 바랍니다. 그대가 정신이 약해졌을 때 악마는 마지막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악마는 이때 세계 밀어붙여서 그대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쳐버립니다. 그러나 그대가 성소가 없는데도 수도회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너를 부르시게 하라.”¹⁰라고 성 아우구스티노는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저는 수도회에 들어왔고, 여기 있사오니, 저에게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성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곧 장상들이 방금 서원을 한 젊은이들을 늘 적절하게 대할 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처럼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첫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하던 어려움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좋은 본보기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분원에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수련기 동안에는 책임자에게 가는 것이 수월하여 그들의 어려움이 곧바로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은 더는 그러한 이해나 연민을 만날 수 없습니다. 25세의 자매에게 60세의 자매처럼 되기를 바라는 경우도 생깁니다. 젊은이들의 활기를 억제시켜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에게 훨씬 더 열정적인 사도직을 할 수 있는 출구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다음 이러한 젊은이들이 프로파간다에서, 서점에서, 영사실에서 돌아올 때 여러분이 깊이 침잠된 자세를 보일 뿐, 여러분이 주님께 봉헌한 그 모성애의 정신을 찾아볼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모성애의 정신은 자연적인 감각이지만, 초자연적인 감각에서, 수도

10. 성 아우구스티노, 「반 페티리아눔 *Contra Petilianum*」, 2 참조: “Tu ergo attende quo voceris, et unde revoceris: 그러므로 그대는 무엇 때문에 부르심 받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다시 부르심 받았는지 생각해보라.”

60 회에 대한 사랑에서 생겨나며, 특히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젊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을 지탱해주기 위해서 강한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통솔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며 특정한 경우에 아빠와 엄마[처럼] 많은 일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아빠는 | 힘ियो, 엄마는 선함입니다. 그리고 공덕을 쌓아야 합니다. 장상은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수녀는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악마는 인내를 거슬러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시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이지만, 인내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Qui perseveraverit usque in finem, hic salus erit.”¹¹

61

11. 마태 10,22.

VII. 사도직

성소자들에 관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들, 놓치지 말아야 할 추이 과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성소자 모집. 다시 말해 성소자들을 찾아야 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합니다. 2) 수련기에 앞서 좋은 양성을 해야 하고, 특히 수련기 [동안], 그리고 이어지는 유기서원 기간 [동안]에도 좋은 양성을 해야 합니다. 3) 확고한 단계, 이 점에 대해 초기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고, 그다지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기서원에 이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종신서원을 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안정적인 단계, 다시 말해서 항구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적 진보와 사도직의 발전을 보장하는 바오로적 삶의 방식에 온전히 투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25세에서 35세, 40세에서 45세에 이르는 인생의 절정기에 직면하게 되는 많은 위험에 대해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확실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갔을 때 확실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 상태에 이르면 인내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 때문에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러한 연령대의 사람은 ‘나는 부르심 받았는가? 내가 이 신분을 택한 것이 잘 한 일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할 계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악마의 속임수입니다. 성소에 대해 의심하도록 만들고 | 힘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62 사실 영혼도 육신처럼 피를 많이 흘리고 기진했을 때 약해지고 싸울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인생은 싸움, 모든 이를 위한 싸움입니다.

1. 성 아우구스티노, 「반 페티리아눔 *Contra Petilianum*」, 2 참조.

20세에서 25세까지뿐 아니라, 인생 전체가 하나의 전쟁입니다.² 이러한 전쟁은 세 가지 적들과 대항하는 싸움입니다. 곧 육신과 세속 정신과 사탄입니다. 이 세 적들과 계속적으로 ... 죽음의 침상에서도 싸워야 합니다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연령대에, 이러한 영혼 상태와 이러한 정신의 고뇌가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성소자들을] 잘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사항, 또는 한 가지 견해를 표현해야 한다면 (모든 면에 적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입회허락에 있어서 좀 더 관대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칙을 더 잘 지키는 수도회들, 죄를 범하지 않는 수도회들이 더 많은 성소자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십시오. 더 엄격해진 규칙 준수가 성소자들을 이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단을 이용하여 성소자들을 움직이며, 보내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소자들을 움직이고 보내주시는 주님께서는 수많은 수단을 이용하시면서도 완덕에 목마른 영혼들을 완덕에 대한 열망이 큰 수도회로 이끌어주십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를 위하여 기숙사를 선택한다면 교육을 더 잘 받고, 더 잘 훈육되고, 더 잘 양성된 젊은이들이 있는 기숙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소자 모집을 위한 근본적인 비결은 기도가 아닙니다. 첫 번째 비결은 수도생활을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혼이, 모든 수도자가 하나의 자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은 외적으로 자신의 힘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지만, 쇠붙이에 가까이 가게 되면 그것을 끌어당깁니다.

결론적으로 수도생활을 잘 살아야 합니다. | 이는 성소자들을 많이 얻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선별된 성소자들을 얻기 위한 첫째요, 근본적인 수단입니다. 언제나 윤리적, 지성적, 신체적 자질을 갖춘 이들을

2. 「준주성범」 3권 45장 3 참조. (역주: 본문에 관한 내용은 우리말 번역서 3권 45장 5 말미에 나옴)

선별해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을 덧붙인다면, 여러분은 봉쇄수도자들처럼 완덕 추구의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자들, 청원자들, 수련자들 안에 사도직을 지향하는 싹이 드러나야 합니다.

만일 사도직의 이러한 의미가 수도회에 입회하기 전에 드러난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단순하게 관상생활로만 부르심 받았는지, 누가 관상의 삶과 동시에 활동의 삶에 부르심 받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직!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사랑이요, 마리아께 대한 완전한 사랑이며, 성 바오로께 대한 완전한 사랑입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당신 삶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당신 삶에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은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길이셨습니다. 길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길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그분은 중개자이신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도달하고, 흠숭과 감사와 속죄, 보속과 효과적인 탄원을 드리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길이 되십니다.

결코 우리의 공덕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병자들에게, 특히 영원으로 가야 할 때가 임박한 이들에게 우리는 그들이 지나온 삶, 그들의 공덕, 그들이 완수한 선한 업적들을 기억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세주의 수난, 그분의 상처, 갈바리아를 기억시켜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덕에 의지해야 합니다. |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토대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 바위가 곧 그리스도이셨습니다(Petra autem erat Christus).”³라는 말은 여기서도 적용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열성을! 예수님께서서는 복음서에서 사도들이

3. 1코린 10,4.

그분을 따르는 것처럼 성소의 길로 들어서고자 하는 세 사람을 거부하
 64 셧습니다.⁴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당신께서 선택하신 열둘 가운데 부르심에 상응하지 못한 한
 명이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께서는 당신이 총애하는 성자를 희생할 정도로 인
 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늘의 성부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봅시
 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 성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죄인들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황소나 양의 번제물보다는 성 바오
 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 아드님을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⁵ 성
 자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극심한 가
 난 속에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궁핍한 삶을 사셨고, 지극히 높은 가
 르침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셨
 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열망을 통하여 우리
 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설교를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셨
 습니까? 아닙니다. 묵상해야 할 가장 높은 덕성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
 겨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겐
 세마니에서 고뇌하시는 그분을 관상해야 하고, 채찍질당하시는 그분
 을 관상해야 하며, 가시관을 쓰신 그분을 관상해야 하며, 사형언도를
 받으신 다음 십자가를 지신 그분을 관상해야 합니다. 지극히 고통스러
 운 세 시간에 걸친 임종의 단말마를 겪으시는 그분을 관상해야 하고,
 숨을 내쉬시며 성부의 손에 당신 영을 맡기시는 그분을 관상해야 합니
 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
 느 지점에 이르기까지 영혼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위하여 당신

4. 루카 9,58-62 참조.

5. 히브 10,4 참조.

자신을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이신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
 까? 마리아께서는 사도직에 불림 받으셨습니다. 모든 사도직이 이 표
 현으로 요약됩니다. 곧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줄 것. 다시 말해 당신의
 가르침을 주어야 하고, 훌륭한 모범을 주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를 주
 65 어야 하고, 우리의 고통을 주어야 합니다. 늘 예수님이 알려지도록, 늘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영혼들이 초자연적 삶, 은총의 삶을
 살도록, 모든 영혼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게 [하기 위하여].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여사도이십니다. ... 당신의 아드님을 세
 상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창조물들 가운데 여사도이십니다. 예
 수님 아래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것만 아니라, 당신 아드님을 세상에
 주셨기 때문에 여사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되신 동정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주시는 행위 안에서 늘 대표가 되시도록, 그리고 아
 드님과 함께 언제나 대표가 되시도록 해드립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근
 본적인 영광이며,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사도직의 표지이시기 때문입
 니다. 마리아께서는 예수님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성 바오로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왕들에게, 히
 브리 백성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선택되었습니다. 말
 씬을 전하기 위해서만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
 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 주겠다.”⁶

영혼들을 위한 고통에 도달하게 될 때, 자발적인 고통 또는 적어도
 피할 수 없기에 수락한 고통에 도달하게 될 때 영혼들을 위한 우리의
 사랑이 더는 의혹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줄 알 때
 그것은 참되고 진지한 사랑입니다. 보십시오, 사도직에서 우리를 이끌

6. 사도 9,16.

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곧 예수님의 모범, 마리아의 모범, 성 바오로의 모범입니다. 성 바오로는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협에 처하셨고, 얼마나 자주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몇 번이나 바다에서 파선을 당하셨고, 폭풍우에 휩싸이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이 성소입니다! 성화에 주의를 기울일뿐 아니라, 사도직에도 전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영혼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첫 번째 계명과 비슷합니다. 사도직을 할 때 영혼들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확실해집니다. 사도직은 사랑의 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소가 지극히 높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어떤 자매는 사도직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왜 나는 오로지 관상생활만 하는 봉쇄 수도회에 가지 않은 것일까? 그랬다면 이러한 유혹을 겪지 않아도 되고,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복음서는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대가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다음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파종시기에 파종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대가 하느님의 심판에 나서게 될 때 그대에게서 영적 도움을 받은 영혼들의 화관이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다.’

기도를 통하여, 도움을 통하여, 가장 힘들고 무거운 사도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보급, 편집, 기술 사도직에 열정과 희생을 바치는 열의에 넘치는 사람들, 말씀에 일치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히 사도직을 행하면서 노동자들을 위해 큰 희생을 치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수녀 외에는 다른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사제에게서 받

7. 루카 9,62.

대되는 정치적 노선을 취하는, 반대되는 정당을 대표하는 이를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혼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오염됩니까! |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에 의해, 신문, 서적, 잡지 등, 하루에도 몇 번씩 매일 읽게 되는 책에 의해 오염됩니까? 그리고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중독된 영혼들에게 작은 위안, 구체책을 가져다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성서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⁸ 모든 바울리나의 마음이 그래야 됩니다.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자신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마음, 결코 낙담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며, 교회의 모든 영혼에 대해 숙고해야 합니다. “별들은 또 그 광채로 서로 구별됩니다Stella a stella differt in claritate.”⁹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별들은 사도들이라고 계시되었습니다.¹⁰ 그러므로 결코 멈추지 말고, 단체 사도직에서든 어려운 사도직에서든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직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 자매들이 많은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수도회 전체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느님 백성과 사제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는 마리아의 직무, 겸손한 직무, 조용한 직무, 천사들이 하늘에서 관상하고 생명의 책에 기록하는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용기와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영화 사도직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출판 사도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으로 너무 많은 충고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너무 지나친 충고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이끄

8. 로마 8,32 참조.

9. 1코린 15,41.

10. 1코린 12,28 참조.

는 주체는 수도회입니다. 사도직에 관해서 여러분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반론을 제기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 결코 매끄럽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만일 모두가 쉽게 걸어간다면 천국에 68 서 무슨 상을 받겠습니까? 오른쪽에 이러한 장애물이 있고, 왼쪽에 저런 장애물이 있게 마련입니다. (심하게 표현한다면) 경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dummodo Christus praedicetur”¹¹ 우리에게서 기인되는, 우리에게 달려 있는 어려움, 또는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나 그 주변에 놓여 있는 어려움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만일 우리가 장애물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열성을 더 확고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곧 희생하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를 위한 예수님 사랑의 최고 행위를.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 아래 쓰러지셨습니다. 그런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돌아가십니다.

언제나 위를 향해 머리를 들어 올려야 합니다! 가끔은 정말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들 때문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려운 상황들에 직면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들이 배척되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던 신자들의 무리에는 그분을 박해하며 그분 말씀 가운데서 어떤 트집을 잡으려고 애쓰며, 그분께서 올라가미가 될 만한 말씀을 하시도록 유도하고, 그분을 고발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려는 바리사이들이 늘 있었습니다.

더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명을 계속할 이들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지옥문이 지배하지 않도록 늘 살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쓰러지더라도 ...순교

11. 필리 1,18.

자들의 피는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늘 앞으로! 우리의 69 고통은 성소자들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앞으로! 더 앞으로,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차차 다음의 순교자처럼 말해야 합니다. 그 순교자는 노인이어서 힘겹게 걸었고 지팡이를 짚고 다녔지만, | 그가 화형당하게 될 장작더미에 이미 불이 붙은 것을 보았을 때 지팡이를 던져버리며 “일어나라, 발을 딛고 서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하고 외쳤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주님께서 이 사도직에서 여러분을 많이 축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었고, 관대하게 응답했으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수도회가 얼마나 많은 선을 행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결실을 얻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지상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더 자주 숙고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 곧 천국입니다.

VIII. 성바오로수도회와 성바오로딸수도회의 관계

이 쇠신 기간 동안 숙고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는 성바오로수도회와 성바오로딸수도회 간의 관계입니다. 이점에 관해 자주 글을 썼지만, 이 주제에 관해 지금 잘 숙고한다면 오류에 빠지지 않고 한층 더 분명한 생각과 용기를 가지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있었던 일처럼 어떤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여 언제고 고무적이지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말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곧 책임자들 사이에는 일치에 있어야 하고, 회원들 사이에는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더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생애 막바지에 이르셨을 때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뵈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한 사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¹ 이 말씀처럼 다시 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본질적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 왔지만, 그럼에도 모든 면에서 불완전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인간에 지나지 않으므로 많은 결점과 많은 실수 가운데 약간의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겸손을 기다리시며, 우리가 당신께 맡기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겸손의 밑바닥까지 갈 수 있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잘 못을 보상하시려 들어오시고, | 당신의 더 큰 영광과 영혼들의 더 큰 선이 요청되는 것에 따라 모든 것을 선하게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성바오로수도회와 성바오로딸수도회 사이의 일치는 일부(회원들)에 의해서 지향됩니다. 마치 도움이신 마리아의 딸들과 살레시오수도회

1. 요한 14,9.

사이의 일치처럼, 또는 도미니코수도회와 도미니코수녀회 사이의 일치처럼, 단지 일부의 형제들과 일부의 자매들만 바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일치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를 길 바깥으로 내칠 수 있는 근본적인 잘못입니다. 특히 성바오로딸수도회에는 더 큰 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치는 더 긴밀한 것입니까? 예, 더 긴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그루터기에서 생겨난 친족관계에서 오는 일치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늘 품어야 하는 사랑에서 오는 일치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일치는 관심에서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측면에서 숙고되는 사물이든 초자연적으로 숙고되는 사물이든 일치는 사물의 본질에서 생겨납니다. 일치는 협력이고 협조입니다. 이것은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언급되고 표현되어 왔습니다. 한 수도회를 위하여 그리고 다른 수도회를 위한 성좌의 승인에 관해 다루고 있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Mi protendo in avanti*」²라는 책에도 담긴 사항에 관해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교황청의 여러 문헌에서, 그리고 최근 문헌에도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거슬러 올라가서 두 가지로 비교하여 다시 생각해봅시다. [왜냐하면] 감실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천상 스승께 대한 성체방문에서 훨씬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바른 사고를 지닌다는 것은 스승 예수님께 대한 존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 연피정 동안에 무엇보다 생각을 바르게 하고, 그다음으로 의지를 바로 세우며, 마음가짐을 바로 세우고, 바른 행동의 삶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로 비교해보 72

2. 공저,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Mi protendo in avanti*」, Edizioni Paoline, 알바, 1954, pp. 497-542; 556-559.

겠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담을 창조하시어 지상 낙원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를 은총으로 창조하시어 당신과 비슷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과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³ 그런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⁴ 그리하여 하느님께서서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 그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어 그것으로 여자를 지으셔서 아담에게 소개하셨습니다. 그와 비슷한 협력자였습니다. 아담은 그녀를 감사하게 받아들였으며, 그녀를 자기 삶의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완전하지 못하고 여성 또한 스스로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본성에 따라 그들이 결합되고 서로 보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수도회와 다른 수도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은 자유를 가지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있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도 하나의 독립성을 가집니다. 교부들은 말하기를, 여성은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한 존재이기에 발아래에 있어서도 안 되고, 아담의 머리 위에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가족 안에 일치될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필요한 종속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종속관계 없이 가족 안에서 어떻게 일치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하나의 사회입니다. 명령 체계가 없는 이탈리아를 상상해보십시오. 교황 없는 교회를 상상해보십시오. 그리고 이끄는 사람, 곧 프리마 마에스트라가 없는 여러 73 분의 수도회를 상상해보십시오. 며칠 안 가서 파탄이 나고 말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결속은 한편으로는 일치 안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 안에서, | 그리고 진취적인 정신 안에서 하느님에 의해 확립

3. 창세 1,26.

4. 창세 2,18.

됩니다. 그래서 두 수도회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일치가 있고 또 분리가 있습니다.

모든 수도회는 각 수도회의 방향에 따라 자유롭게 사람들을 양성하고, 그들을 잘 선별하고,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고, 배치하고, 명령을 내리고, 권고하고, 격려합니다. 비록 여기서 더 좋은 결과를 주는 생각의 일치가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 지도 면에서 자유롭고, 경영관리 면에서 자유롭습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흐르는 일치와 다소 비슷한 일치도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두 수도회가 탄생되기 전에 이미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⁵ 제1부 곧 70 내지 80쪽 가량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거기에 써놓았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하고 차원 높은 또 다른 비교가 있습니다. 두 수도회는 교회가 맡긴 사명에 따라서 영혼들의 구원을 완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의 구원에 협력해야 합니다. 먼저 올바른 생각과 신앙의 진리를 보급하고, 그다음으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성화와 회원들의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성바로수도회나 성바로딸수도회의 회헌 첫 두 조항이 똑같다는 것을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단지 기도와 충고의 협력이 없어서라거나, 최소한 초창기 수녀님들을 가르쳤기 때문이라거나, 또는 바오로딸이 성바로수도회에서 존재와 생활방식을 전수받았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헌 첫 두 조항의 |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두 수도회를 전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근본적인 오류입니다. 그리고 한 수도회가 다른 수도회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여기거나, 종속 관

5. G. 알베리오네,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 알바, Scuola tipografica “작은 노동자” 인쇄학교, 1915년; Edizioni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2001 참조.

계로 여기는 것도 근본적인 오류입니다.

두 수도회 사이의 일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의 각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받이며, 교회를 모델로 삼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한 부분으로서, 구원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구원이 완수되는지에 대해, 이러한 직무에, 이러한 구속 사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혼들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창세기에서 인류 시초에 예언되었습니다. [...]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Inimicitias ponam inter te et mulierem, semen tuum et semen illius...*”⁷ ‘보라, 그 여인은 결코 너의 제물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그 여인 안에 원죄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자기 아들과 함께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분의 성자와 함께 그분의 성자를 통하여.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분은 구원에서, 그리고 모든 시대에 있어서 협력자가 되셨습니다. 그것은 모든 은총이 그분에 의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께서는 언제나 공동구속자 *corredentrice*⁸ 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수도회가 구원에 있어서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표본을 보게 됩니다. 스승 예수님, 예수-사제, 예수-성체로 대표되는 수도회가 있고, 마리아로 대표되는 수도회가 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세상 구원에 개입하시고 또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에게서 취한 많은 은총을 사람들에게 분배하십니다. 이러한 협력은 기도에서 올 뿐 아니라 | 행동에서도 옵니다.⁹ 그러므로 행

6. 원문에는 “나는 너의 원수가 될 한 여인을 일으키리라.”

7. 창세 3, 15.

8. “*corredentrice*”라는 마리아의 칭호는 알베리오네 신부님에게 늘 각별하게 소중한 칭호였다. AD 181 참조.

9.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의 특수한 협력은 성바오로딸수도회를 설명할 길

동의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일치뿐 아니라 행동의 일치, 사도직의 일치도 있어야 합니다.

75

마리아께서는 혼자 세상을 구제하실 수 없었습니까? 하느님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을 혼자 구제하실 수 없었습니까? 당연히 가능했지만, 하느님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아담이 다 자란 성인으로 창조되었듯이 예수님께서도 성인으로 태어나실 수 있었으나 하느님 계획에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세부사항으로 가서, 성바오로딸수도회는 왜 다른 수도회와 일치해야 합니까? 그것은 성바오로딸수도회가 설교의 직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적과 필름을 통해 설파하는 설교가 목소리로 행하는 설교와 똑같다고 믿습니까? 만일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똑같은 진리를 전해주어야 하는 성바오로딸수도회는 파괴될 것입니다.

더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의 사명이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¹⁰는 말씀이 내려졌습니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경건한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마리아께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방식이기는 하지만, 시작을 성바오로수도로 착수해야 했습니다. 편집의 진로도 그와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편집 사도직을 실행에 옮기겠지만, 그 방향에 있어서, 수정에 있어서, 원고 검토에 있어서 우리는 본질, 신법, 교회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사제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네 가지 사항에 관한 일치의 기준은 프로파간다 방식과 기술 사도직 자체를

을 모색하던 알베리오네 신부님에게 근본적인 생각이었다. 예를 든다면 「성바오로딸들에게 1961-회헌설명」, 612-637쪽 참조.

10. 마르 16, 15.

76 위한 결과로 대두되었습니다.

1) 개개인의 양성에 있어서 |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 충분히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마 마에스트라의 지침에 따르고, 강론이 전달되었으며, 다른 한편, 이 점에 관한 지침도 포함하고 있는 회헌에 대한 주석도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2) 편집에 있어서의 일치.

3) 기술 사도직에 있어서 더 폭넓은 해석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항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나중에 고려될 수 있기에 암시하는 것으로 그칩니다.

4) 프로파간다에 있어서, 고유한 길은 이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수도회 간에 행해야 할 것은 큰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인간적 본성에 의해 그리고 신법에 의해 확립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 구원의 본질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만일 전적으로 분리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프리모 마에스트로 사후에는 끝장인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바오로딸수도회에 우선적으로 피해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 노동자들로 전락하고 단순한 출판사가 될 것이며, 특히 분열이 생길 것입니다. 자기 관할 교구에 있는 모든 주교는 그들의 요구를 주장할 것이며, 마치 분해시기를 맞던 다른 수도회들처럼 될 것입니다.

가족 수도회가 성좌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므로, 이러한 일치와 이러한 의존관계를 느껴야 합니다. 그들 안에, 주교들 안에 일종의 존경심이 생기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항에 관하여 주목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들은 저에게 편지를 씁니다. 물론

77 그런 일이 자주 있는 편은 아닌데 그것은 여러분이 충분히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사건들이 있긴 합니다만, 세상에 먼지를 일으키지 않은 채 선

을 행할 때가 있습니까? | 달리는 사람은 약간의 먼지를 일으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리에 의한 피해들이란 과연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두 가족 사이의 분리는 여러분 사이의 분리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것은 아주 큰 피해가 될 것입니다. 반대편에서도 불편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한 불편사항은 단순한 일들이 아니라 나무좀처럼 영혼과 정신을 갉아먹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치를 어떻게 보존해야 합니까? 두 수도회의 책임자들 사이에 이해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직무를 설교로 여겨야 합니다. 설교는 사제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바오로딸들은 마리아의 직무를, 곧 모든 본당에서 교리교사의 직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세 가지 신심을 잘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치의 근본적인 실천사항입니다. 1) 모두가 스승 예수님께 대한 신심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활동을 마리아와 예수님 관계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2) 사도의 모후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지녀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자 자신의 가능성과 자신의 조건에 따라 예수님을 세상에 내어주어야 함을 느껴야 합니다. 한 수도회는 여성에게 주어진 조건이요, 다른 수도회는 사제에게 주어진 조건입니다. 3) 성 바오로께 대한 깊은 신심이 필요합니다. 서간에서 당신의 협력자들인 여성들의 이름을 몇 번이나 거론하는지 세어보십시오.¹¹ 그분은 여성을 활용하셨고, 여성을 여사도로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신심을 한층 더 잘 실천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일반 원칙인 두 가족의 지향에 따라서 양성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 안에, | 모두 안에 우리 바오로 정신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면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몇 년 전

11. 참조: 로마 16,1-16; 사도 16,14(리디아); 사도 18,18(프리스킬라).

부터 행하던 것을 최근 몇 년 동안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수업을 하거나 시험을 돕는 일인데,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다음의 것을 제시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텍스트의 선별에 있어서,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 면학을 이끄는 방식에 있어서, 편집에 있어서 그리고 시험에 있어서도 더욱 긴밀한 일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직 분명한 길을 찾지 못한 것이 되어 사람들은 여러분을 여기저기로 밀어붙일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길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찾는 넓은 길은 회현의 길이요, 여러분이 받은 바오로 정신의 길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충고가 올바른 지향으로 주어졌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아직 방향을 잡지 못했다면, 만일 여러분에게 프리마 마에스트라가 없다면, 만일 회현을 받지 못했다면 이러한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늘 즐기며 머무십시오! 가지들은 즐기에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더는 생명을 길어내지 못하여 포도나무는 말라죽게 됩니다. 편집 부분에 관하여, 프로파간다에 관하여 그리고 기술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양육자altrice’¹²라는 표현을 얼마 전 「성 바오로」 회람지에¹³ 실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취해야 할 총 지침을 의미합니다. 이 지침은 정신, 면학, 사도직, 인간적 초자연적 양성 등 네 부분 모두를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일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신의 일치와 행동의 일치를 굳건하게 다질수록 수도회는 더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12. Altrice는 alere = ‘양육하다’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영양분을 주는 자’라는 뜻이다. SP, 11 (1953) 8; AD 35 참조.

13. 로마 총본부에서 발행하는 성바오로수도회의 내부 회람지. 총통솔의 공식 기관지이다.

IX. 마지막 기억¹

오늘 아침 우리는 [성바오로수도회와 성바오로팔수도회] 사이의 협력을 상기하였습니다. 협력cooperazione은 지성적인 면에서 본다면 ‘잘 이해하다capirsi bene’이고, 마음으로 본다면 ‘사랑하다volersi bene’, ‘한 가족이 다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다pregare una Famiglia per l'altra’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다음 행동으로 변화될 때 ‘함께 협력하다cooperare assieme’로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Cooperatores Dei sumus”²로서 함께 일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협력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유일한 목표를 위하여 일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느님만 알려지셔야 하고 하느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Deus vult omnes salvos fieri et ad agnitionem veritatis pervenire.”³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⁴ 협력! 제가 말씀드린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협력이 발전할 것이고 또 가능한 한 빨리, 아니 곧바로 어떤 식으로든 발전하리라는 것입니다. 활동은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활동을 완수하기 위한 성소자들을 당연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대두되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성소자들을

1. 등사본으로 된 5매(21,5×31,5)짜리 강의. 장상들을 위한 ‘쉐신주간Settimana di aggiornamento’의 결론이다. 미발간으로 남겨진 이 강의는 등사본에 저자 이름이나 강의 날짜가 기록되지 않았으며, 손글씨로 [로마 18.] 7.1955.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2. 1코린 3,9.

3. 1티모 2,4 참조.

4. 요한 17,3.

모이기 위하여, 입회가 쉽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영적인 도움 형태, 물질적인 도움 형태, 특히 기도와 희생이라는 봉헌 형태 가운데에서 가장 유익한 형태의 상호 성소자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바오로 수도회에 있어서 신학생들, 인문계 고등학생들, 대학생들, 가톨릭 액션의 젊은이들, 또는 연합회에 속하지 않는 [젊은이들], 수도생활에, 완덕의 신분에 대한 관심이 보이는 젊은이들, 늦깎이 성소자들에 관한 주의가 요청됩니다. 저는 모든 분원에 여성 성소자들을 위한 며칠간의 피정, 곧 3일 피정 또는 1일 피정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하는 피정의 집은⁵ 수도생활에 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또는 경건하며, 신심과 노동, 그리고 열의에 찬 생활, 가정적인 덕과 그리스도교적 덕에 이끌리는 젊은 여성들에게 피정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젊은 여성들 모두, 아니면 적어도 그들 중 일부만이라도 수도생활을 원하는 성소자임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피정의 집은 필요성에 따라 이러한 젊은 여성들을 잘 환대하고, 긴 기간 반복해서 그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게 하여 그들의 내밀한 경향을 탐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협력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쇠신) 기간을 끝나치면서 이 기간에 받은 은총에 대해, 여러분의 영혼 안에 스며든 빛에 대해, 마음에 부어주신 은총에 대해, 그리고 깊이 느낀 좋은 뜻에 대해 주님을 찬미하며 '떼 데움' Te Deum'(사은 찬미가)을 노래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새 서원자들의 보고서를 보낼 때, 장상들은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에 대한 지침을 받을 수 있고, 프리마 마에스트라께 더 쉽게 맡겨드리는 자세를 갖추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서원

5. ApC (마에스트로들 대상 쇠신주간에 가졌던 강의 개요), 묵상 V, 각주 12 참조.

자들을 받아들일 때 사전지식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고, 어떤 경향을 지녔는지 알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그로써 수련기 또는 종신서원을 마친 자매들이 영적 작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더 쉽게, 더 많은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이 기간에 받은 은총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는 '떼 데움'을 노래하십시오. 작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은총에 대하여, 작년에 수도회가 이룩한 발전에 대하여 그리고 받은 내밀한 은총에 대하여 '떼 데움'을 노래하십시오. '떼 데움'을 노래하십시오!

여러분이 들은 것에 대한 요약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신에 관한 일들을 요약해봅시다. 저는 영적인 일 가운데 다음과 같은 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곧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이 아주 많으므로 우리에게는 은총의 증가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신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에 늘 신뢰와 용기를 지니십시오. 신뢰와 용기가 출판 사도직에 대해, 영화 사도직에 대해 전혀 무지하던 자매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변화시키셨으며, 그들이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좋으신 분이로서, 가끔 우리의 요청이 들어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기다릴 때 우리가 청하는 것보다 한층 더 많은 은총을 마련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더 잘 들어 허락됩니다. 신뢰와 용기! 하느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능력을 기울이기 위한 용기와 결심들, 그리고 모든 발걸음마다 하느님의 도우심을 희망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희망하기 위해서 결코 우리의 자아를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매들에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다. … 너에게 이것을 명하노라! …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해? …”라는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되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매들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느님의 뜻을 완수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행한 일을 갚아주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순명의 공덕은 언제나 곱절로 받게 됩니다. 예컨대, 어떤 [수녀가] 서원 사도직 소임을 받아 간다고 할 때는 순명의 행위와 수도자의 덕행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공덕이 두 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것을 해야 하고 ... 저것이 너의 직무이고 ... 저기로 가서 ... 그런 일을 완수하라'는 식의 명령이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순명의 공덕이 발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이 순명의 공덕을 얻을 수 있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그러한 명령은 사랑하는 것이며, 자매들에게 더 큰 선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데리고 있는 어린 자매들에게 언제나 신뢰와 용기를 불어넣어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특별한 조언을 청할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통솔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통솔의 직무를 완수해야 하는 사람과 이미 이야기했겠지만, 더 어려운 경우에는 덮어두지 말아야 합니다. 감춰진 것이 드러날 때 절반은 악마가 승리합니다. 악이 퇴치될 수 없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병이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 병을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작은 어려움들, 작은 결점들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결코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나 여기서 비추리라. ..."는 말씀이 아직 쓰여 있지 않은 성당을 보았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쓰여 있습니다.

사도직에 관해서 말하자면, 사도직에 안정성을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경영관리에 관하여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점에 관하여 많은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것에서 이탈하십시오."

6. AD 152.

라는 말대로 이미 정산이 잘된 것에서도 이탈해야 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한, 재산에 대해 지나친 염려와 과도하게 집착한다고 여기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성 바오로께서 경영관리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경영관리입니다. 네 번째 바뀌는 청빈 면에서 인간적인 교육과 초자연적인 교육까지 포함됩니다. 자신의 수도생활을 잘 살고 있는 바울리나는 "살아 있는 복음의 짧은 요약(breve compendium evangelii)"입니다. 그들은 천상 스승께서 행동하시듯이 그렇게 자신의 일상생활을 살아야 하고, 천상 스승의 감수성으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하고, 천상 스승의 감수성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경영관리에서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이나 빵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마지막에는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으라."⁷ 하고 사도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조각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먼저 잘 수행된 경영관리와 더불어 잘 행해진 회계여야 하는데, 바오로적 회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네 번째 의무에서 영적 교육뿐 아니라, 인간적 교육도 돌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들어, 특히 4,5[년] 전부터 더 잘 교육하기 위한 명목으로 심리학 연구가 부쩍 늘었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25-30여 종의 서적을 출판하였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익한 책을 한두 권 읽어도 권고 받았습니. 이제 우리는 여러 저술가들에게 다른 분야의 저서도 준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를 본 후 관객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작품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초자연적 교육과 자연적 교육을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 안

7. 요한 6,12.

에서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제 저는 그로타페라타Grottaferrata(역주: 성바오로딸의 역사에 의하면, 이곳에 1947년부터 성바오로딸의 수련소가 있었고, 1952년에 창립자는 여기에 저술가 그룹을 두어 '저술가의 집'이 형성되었다. 총통술 직할 공동체였음)에 들러 저술가들에게 젊은 여성을 위한 새로운 잡지에⁸ 애정을 가지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여러분에게 많은 위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잡지를 제안한 지 적어도 10년이 되었는데, 먼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리를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저는 늘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작은 암초를 만나고 있지만 교리 활동은 충분히 진척되었다고 봅니다. 「길 진리 생명 *Via Verita e Vita*」 [잡지]도 어느 정도 보급이 확보되었으므로 [우리는] 좀 더 젊은 연령대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곧 상황에 따라서 16세, 17세, 20세, 22세, 24세를 대상으로 삼고자 합니다.

내부 회람지 「성 바오로」에 동양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실었습니다. 동양에는 인류의 절반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대략 14억 5천만 인구가 있습니다. 한편 서양 국가들은 모두 합쳐 겨우 10억입니다. 그러므로 동양에서 성바오로딸수도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동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간에 여러분은 많은 정보를 들었으며, 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어려움도 드러냈습니다. 그렇지만 쇠신의 시기는 여러 많은 문제점들이나 많은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필요성을 비추어 보고 듣기 위한 것이며, 어려움과 제안들을 들음으로써 수도회가 향상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 향상이나 각자의 성화에 대해서뿐 아니라, 수도회의 발전에 대해서 전념했다

8.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1955년 1월에 성바오로딸수도회가 편집·발간하게 될 여성잡지 「코시 *Così*」를 암시하고 있다.

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러한 실천이야말로 수도회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결심들을 실천했을 뿐만 아니라, 성바오로딸수도회의 사회적 결의들 [또한] 실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행위요, 수도회에 대한, 그리고 자매들에 대한 사랑의 행위인 이 모든 것을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움들이 어떤 모임에서, 그리고 며칠간의 쇠신 기간에 모두 해소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생각, 조언, 제안 등의 기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져 앞으로 서서히 주어질 규정에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여러분의 책임자들에게, 총본부에서 작업하도록 주어진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수도회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신 것 모두를 한데 모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총본부가 여러분을 인도하고, 하느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한층 더 빛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한데 모아야 합니다. 각자가 거룩해지도록 그리고 수도회가 발전하고, 하느님께서 수도회에 맡겨주신 모든 사명에 부응하며 완수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수도회에 많은 기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많은 기쁨을! 여러분이 이곳에서 머문 기간은 분명히 자매들에게 유익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와 같은 기쁨과 많은 빛을 여러분의 분원에 전해주시시오. 수도생활을 잘 사는 것이 천국에 응접실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모든 분원에 진정 이 거룩한 기쁨이 감돌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결심 위에, 자매들 위에, 그리고 모든 분원들 위에 계시는 예수님의 강복을 기원합니다.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 전집

2010년까지 오페라 옴니아가 새로운 출판본으로 출간된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저서 및 강론들의 작품 모음집

「기도서 *Pregchiere*」, Edizioni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2007, pp. 366. (바오로 가족 창립자가 지은 기도문 - 번역: 여러 언어로)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 *Abundantes divitiae gratiae suae*」, Casa Generalizia SSP, Roma 1998, pp.192. (바오로가족의 카리스마 역사 - 번역: 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일본어, 한국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Donec formetur Christus in vobis*」, Edizioni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2001, pp.320. (묵상과 강의 개요 - 번역: 스페인어, 일본어, 한국어)

「성바오로딸들에게 - 회헌설명 *Alle Figlie di San Paolo. Spiegazione delle Costituzioni*」, 아리차, 1961년 5월 15일 - 6월 5일. Casa Generalizia FSP, Roma 2003, pp.496. (20일 간의 특별 영신수련 - 번역: 한국어)

「복음을 위한 몸과 마음 *Anima e corpo per il Vangelo*」, Edizioni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2005, pp.304. (1953-1957 작품집 - 번역: 한국어)

「사목신학 개요 *Auanti di teologia pastorale*」, Edizioni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2002, pp.432. (번역: 한국어)

「출판 사도직 *L'apostolato dell'edizione*」, Edizioni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2000, pp.400. (양성과 사도직 지침서 - 번역: 스페인어, 영어, 한국어)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 *La donna associata allo zelo sacerdotale*」,

Edizioni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2001, pp.304. (번역: 한국어)

「성바오로딸들에게-묵상과 강의, 1934년 - 1939년 *Alle Figlie di San Paolo. Meditazioni e Istruzioni*」, Casa Generalizia FSP, Roma 2003, pp.726. (번역: 한국어)

「성바오로딸들에게-묵상과 강의, 1940년 - 1945년 *Alle Figlie di San Paolo. Meditazioni e Istruzioni*」, Casa Generalizia FSP, Roma 2000, pp.792. (번역: 한국어)

「성바오로딸들에게-묵상과 강의, 1946년 - 1949년 *Alle Figlie di San Paolo. Meditazioni e Istruzioni*」, Casa Generalizia FSP, Roma 2000, pp.640. (번역: 한국어)

「성바오로딸들에게-묵상과 강의, 1955년 *Alle Figlie di San Paolo. Meditazioni e Istruzioni*」, Casa Generalizia FSP, Roma 2010, pp.624. (번역: 한국어)

「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Ut perfectus sit homo Dei*」, Edizioni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1998, pp.576. (한 달 영신수련 1960년 4월 - 번역: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영감과 모델이 되신 사도 바오로 *L'apostolo Paolo ispiratore e modello*」, Edizioni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2008, pp.350.

「연중 매일 묵상 *Brevi meditazioni per ogni giorno dell'anno*」, Edizioni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2008, pp.751.

「사회 교리 *Catichismo sociale*」, Casa Generalizia SSP, Roma 1985, pp.190.

「성경을 읽으십시오 *Leggete le Sacre Scritture*」, Edizioni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2004, pp.352.

「마조리노 비고룽고 *Maggiolino Vigolungo*」, Edizioni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2008, pp.144. (선한 출판 사도직의 지원자)

「사도의 모후 마리아 *Maria regina degli Apostoli*, Edizioni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2008, pp.319.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Mibi vivere Christus est*», Casa Generalizia SSP, Roma 1972, pp.152.

「영적 쇄신을 위해 *Per un rinnovamento spirituale*», Edizioni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2006, pp.608. (로마 바오로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강론 1952-1954)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Viviamo in Cristo Gesu -Si vis perfectus esse e Mibi vivere Christus est*」 1960년 4월, Edizioni San Paolo, cinisello Balsamo (MI) 2008, pp.270.

「마에스트라 테클라 메를로에게 보낸 편지 *Lettere a Meastra Tecla merlo*», Casa Generalizia SSP, Roma 1987, pp.161.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Considerate la vostra vocazione*», Casa Generalizia SSP, Roma 1987, pp.719. (회람서신)

「성바오로딸들에게-묵상과 강의, 1929년 - 1933년 *Alle Figlie di San Paolo, Meditazioni e Istruzioni*», 2권, Casa Generalizia FSP, Roma 2005, pp. 598(1° vol.), pp. 376(2° vol.).

「성바오로딸들에게-묵상과 강의, 1950년 - 1953년 *Alle Figlie di San Paolo, Meditazioni e Istruzioni*», Casa Generalizia FSP, Roma 2007, pp.608.

「성바오로딸들에게-묵상과 강의, 1954년 *Alle Figlie di San Paolo, Meditazioni e Istruzioni*», Casa Generalizia FSP, Roma 2008, pp.335.

「스승예수의제자수녀들에게-묵상과 강의 모음집 *Alle Pie Discepole del*

Divin Maestro. Raccolta di meditazioni e istruzioni», (Volumi pubblicati) 14권, Casa Generalizia PDDM, Roma, 1986-1994.

「선한목자예수수녀들에게-묵상과 강의 모음 *Alle Suore di Gesu Buon Pastore(Pastorelle)-Raccolta di meditazioni e istruzioni*», (Volumi pubblicati) 10권, Casa Generalizia SGBP, Roma, 1984.

「사도의모후수녀들에게 *Don Alberione alle Apostoline*», 자기(磁氣) 녹음 테이프에서 옮겨 쓴 묵상과 강의 모음집, 1958년/1. Istituto Regina degli Apostoli per le vocazioni. Casa Generalizia, Castel Gandolfo, 2008, pp.248.

「사도의모후수녀들에게 *Don Alberione alle Apostoline*», 묵상과 강의 모음집, 첫 회헌 부록에서 1958년/2. Istituto Regina degli Apostoli per le vocazioni. Casa Generalizia, Castel Gandolfo, 2009, pp.411.

2018년 11월 26일 발행

엮은이 | 국제영성사무국

옮긴이 | 이창욱

펴낸곳 | 바오로딸

